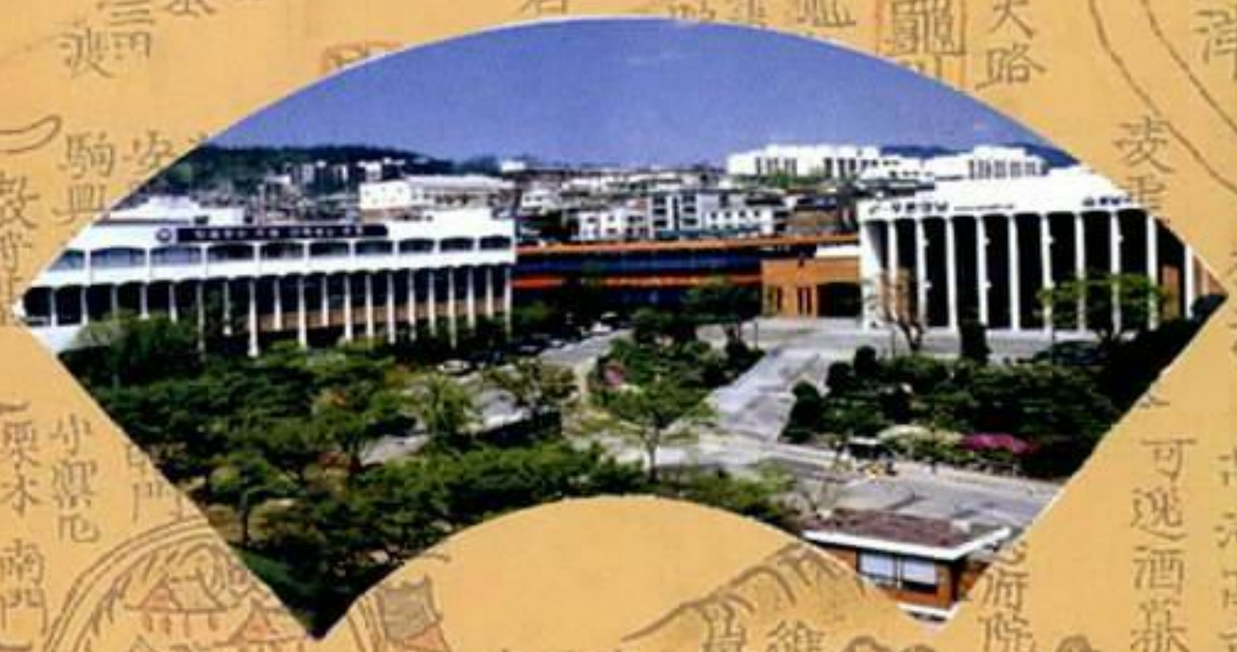


城南市史 3

정치와 행정

성남시청
MB001333

城南市史編纂委員會

城南市史

3

정치와 행정

城南市史編纂委員會







1
2 3

1 성남시의회 현판식(1991. 4.15)
2 제1대 성남시의회 개원식(1991년)
3 제1대 성남시의회 시의원선서 장면(1991년)



1
2

1 제2대 캐나다 노스요크 시의회방문-의회현황 청취
2 제3대 시의원 의정활동 연수대회(2000.10. 9~10.12)



* 제4대 사회복지위원회



3
4

3 일본 아즈끼시 의회방문단 내방(1994년)
4 제2대 랜드후크 하수종말처리장 현장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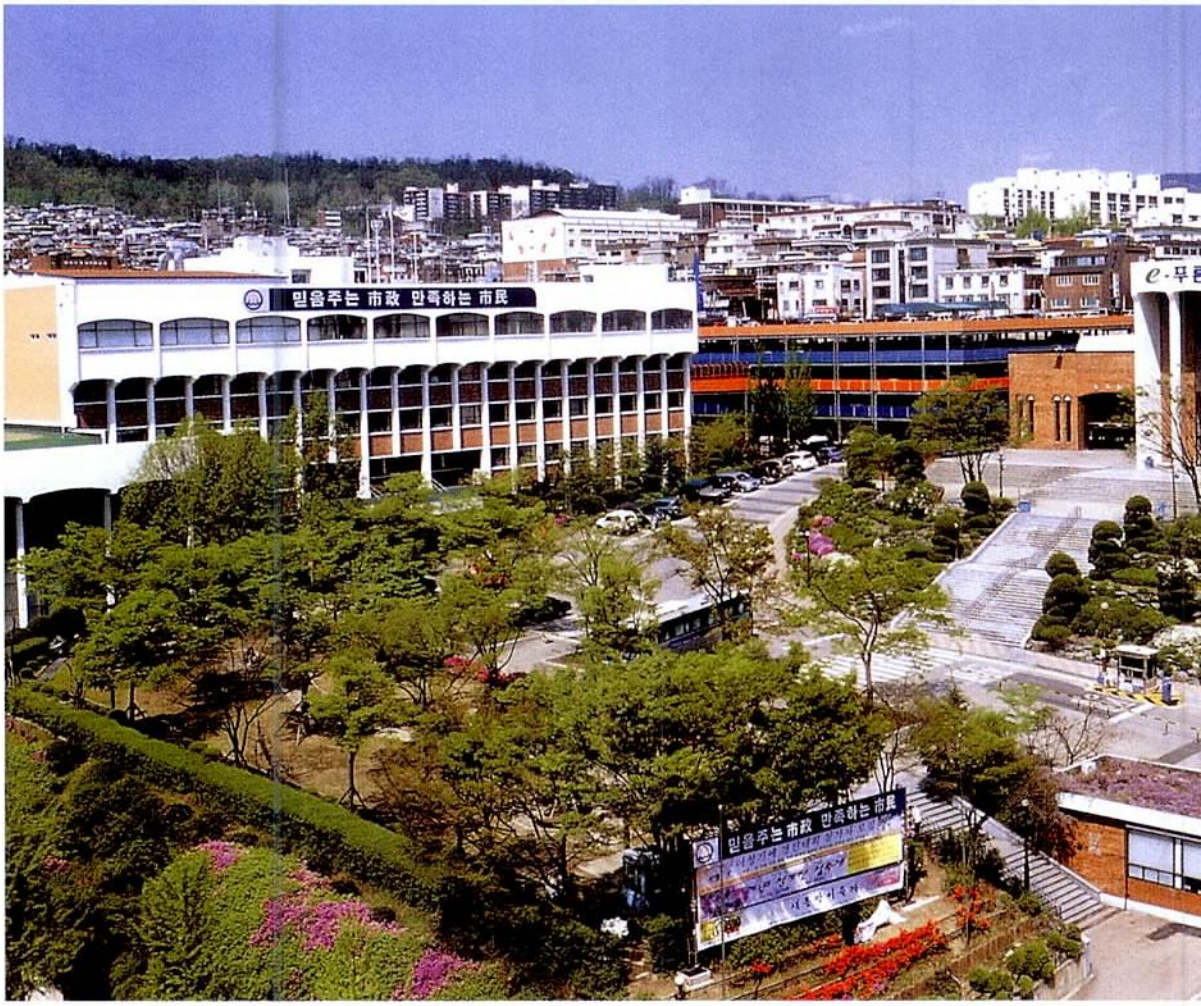


* 제2대 뉴질랜드 노스쇼어 시의회방문

여 백

e-푸른성남

1 성남시청
2 성남시민헌장
3 100만의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실



1
2 3





1 중원구청 1
2 분당구청 2
3 수정구청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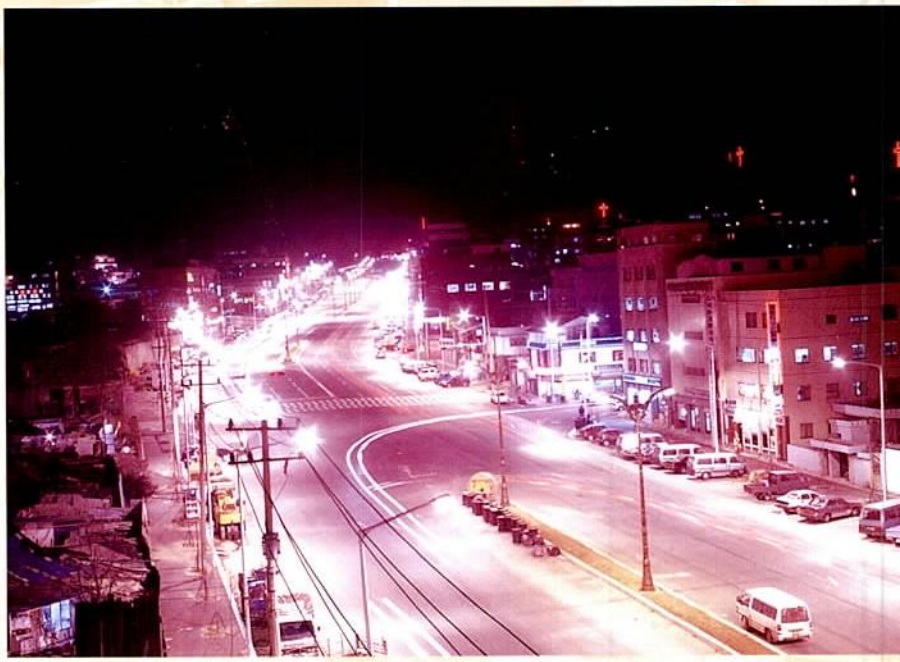






1
2

1 모란 거리공원 분수대
2 단대천 복개를 마치고 산성유원지 방향의 야경



* 경충국도 입체교차로(2000년)

1 단대공원을 중심한 시가지 풍경(1990년)
2 단대동, 금광동 지역의 주택가(1990년)
3 금강지구 시영아파트

1
2
3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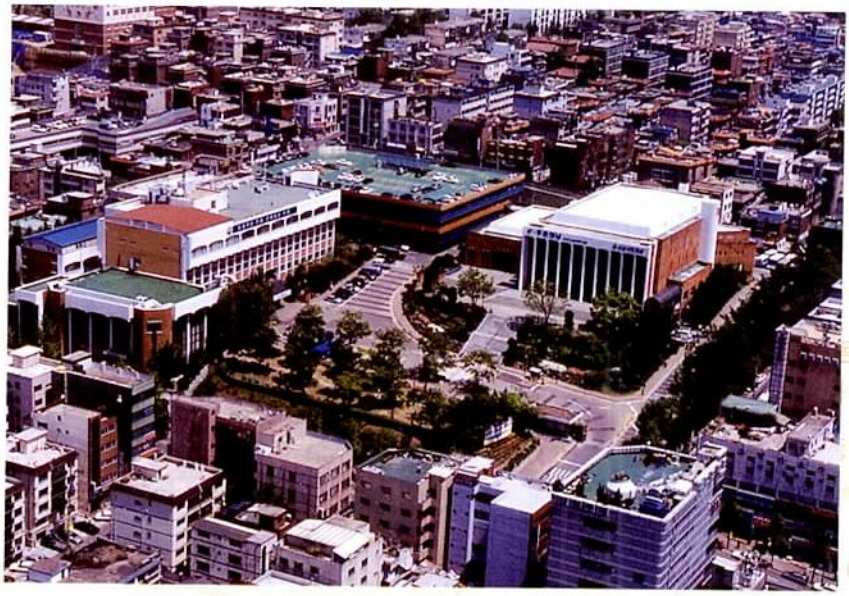
1 성남의 관문도로
2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2002년)



* 성남시 법정동 안내도(44개동)







* 성남시 법정동 안내도(44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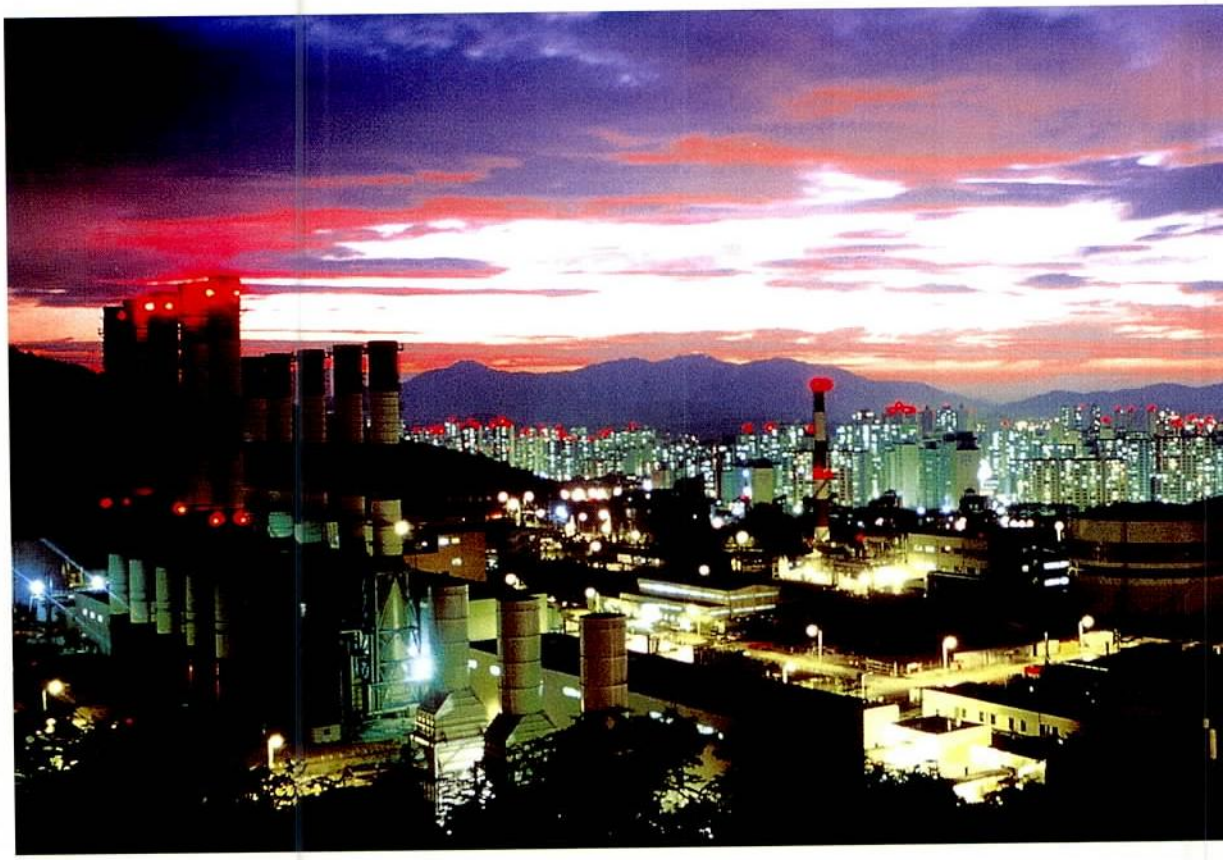


1
2
3 4

1 성남시청
2 모란에서 경원대학(성남로)
3 변모된 중동, 신흥동 일대
4 수정문화정보센터









1
2

1 저녁노을에 물든 분당시가지의 야경
2 탄천의 야경 (탑마을과 이매동)







1
2
3

1 삼성플라자부근(서현동)
2 성남 농수산물센터
3 중앙공원의 하경













1 2
3 4
5
6

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 성남 중부경찰서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5 성남 남부경찰서
6 성남 분당경찰서



* 구) 성남경찰서 개서식(1971. 9.14)







1 2
3
4

1 성남소방서
2 분당소방서
3 화재진압훈련 장면
4 화재진압훈련 장면 1





★ 장비검검중인 소방관들

城南市史

제3편 정치와 행정

제7편 정치

제1장 정당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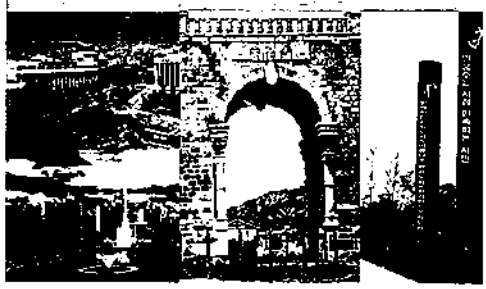
25 제1절 미 군정시대
30 제2절 제1공화국
37 제3절 제2공화국
43 제4절 제3공화국
55 제5절 제4공화국
62 제6절 제5공화국
70 제7절 제6공화국
78 제8절 문민정부
87 제9절 국민의 정부
92 제10절 참여정부

제2장 선거

97 제1절 대통령 선거
126 제2절 국회의원 선거
166 제3절 기타 선거 및 투표
176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장 지방자치

180 제1절 지방자치 제도의 변천
194 제2절 지방선거
251 제3절 성남시의회의 조직과 활동



제8편 행정

제1장 성남의 행정제도 변천사

277 제1절 근대 전·후 성남의 행정제도
283 제2절 70년대 성남의 행정체계
289 제3절 80년대 이후 성남의 행정체계
291 제4절 성남의 행정구역 및 기구 변천

제2장 성남시 행정발전과 성과

299 제1절 70년대의 행정체계
308 제2절 80년대의 행정시책 성과
324 제3절 90년대의 행정체계
404 제4절 21세기 성남의 행정체계

제3장 성남시의 행정조직

473 제1절 시청
487 제2절 수정구
490 제3절 중원구
510 제4절 분당구
528 제5절 직속기관·사업소 및 공기업

제4장 성남시의 행정업무 현황

539 제1절 공보행정
541 제2절 감사행정
543 제3절 행정기획
564 제4절 재정·경제행정
580 제5절 문화·복지행정
587 제6절 보건·환경행정
599 제7절 도시·주택행정
613 제8절 건설·교통행정
629 제9절 도시정비사업소
633 제10절 상·하수도행정
642 제11절 문화·정보행정
644 제12절 보건행정

제5장 성남비전 2006

651 제1절 시정방침
652 제2절 함께하는 자치도시
661 제3절 앞서가는 경제도시
671 제4절 살맛나는 복지도시
680 제5절 아름다운 환경도시
692 제6절 향기있는 문화도시
701 제7절 2006년 성남의 미래상

제9편 사법·치안·소방

제1장 사법

709 제1절 전통시대 사법제도의 변천
726 제2절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730 제3절 사법제도의 변천과 성남지역 사법기관
741 제4절 사법기관 현황
754 제5절 사법 관련 단체 및 협력 단체 현황

제2장 치안

761 제1절 치안제도의 변천
765 제2절 대한민국의 치안제도
770 제3절 경찰제도의 변천과 성남지역 경찰관서
782 제4절 성남시 경찰관서 현황
794 제5절 성남지역 방범관련 단체

제3장 소방

796 제1절 소방제도의 변천
800 제2절 성남시 소방의 변천
803 제3절 성남시 소방서 현황
814 제4절 성남시 소방단체 현황

사진 · 표 목차

사진목차

3-7:1 우남 이승만 대통령 취임선서
3-7:2 윤보선 대통령(오른쪽) 과 장면 국무총리
3-7:3 윤보선 대통령 취임
3-7:4 박정희 제5대 대통령 취임
3-7:5 최규하 제10대 대통령 취임
3-7:6 전두환 제11~12대 대통령 취임
3-7:7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취임
3-7:8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취임
3-7:9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취임
3-7:10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취임
3-7:11 제2대 대통령 선거 벽보
3-7:12 득표상황 계시
3-7:13 3대 부통령 선거 벽보
3-7:14 신익희와 장면의 선거유세
3-7:15 제4대 대통령선거 벽보
3-7:16 신병 치료차 도미하는 조병옥과 지지자들
3-7:17 제5대 대통령 선거 벽보
3-7:18 '60년 대 공명선거 포스터
3-7:19 통일주체 국민회의
3-7:20 제13대 대통령 선거 벽보
3-7:21 제14대 대통령 선거 벽보
3-7:22 제15대 대통령 선거 벽보
3-7:23 제16대 대통령 선거 벽보
3-7:24 제헌국회의원 선거 투표장면
3-7:26 투표용지 발송작업 모습
3-7:25 광주군 출신 제헌국회 의원 신익희
3-7:27 피난지 부산에서 열린 6. 25국회
3-7:28 자유당 최인규 후보
3-7:29 광주군 무소속 후보 신하균
3-7:30 국회의원 선거 벽보
3-7:31 민주공화당 차지철
3-7:32 민주공화당 지구당사에 내걸린 당선사례 현수막
3-7:33 민주 공화당 정동성 후보
3-7:34 무소속 오세응후보
3-7:35 선거 유세
3-7:36 신정당 이대엽후보
3-7:37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홍보 포스터
3-7:38 평화 민주당 이찬구 후보
3-7:39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안내 벽보
3-7:40 민주당 이윤수 후보
3-7:41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홍보탑
3-7:42 새정치 국민회의 조성준 후보
3-7:43 시민단체의 공명선거 캠페인
3-7:44 한나라당 고흥길 후보
3-7:45 한나라당 임태희 후보
3-7:46 군복무유권자들의 부재자 투표모습
3-7:47 열린우리당 김태년 후보
3-7:48 열린우리당 이상락 후보
3-7:49 국민투표 홍보탑
3-7:50 국민투표 홍보 포스터
3-7:51 (구)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현) 중앙선거 연수원
3-7:52 개표참관인
3-7:53 제2회 지방동시선거 안내 현수막
3-7:54 민선 1대 시장 오성수
3-7:55 민선 2대 시장 김병량
3-7:56 민선 3대 시장 이대엽
3-7:57 투표하는 유권자
3-7:58 제1대 의원 선서
3-7:59 개회선언하는 손영태 초대의장
3-7:60 성남시의회 현판식
3-7:61 성남시 의회 전체 회의
3-7:62 상임 위원회
3-7:63 탄천 하수처리 행정감사
3-7:64 행정감사

3-8:1 경기도 성남출장소 현판식
3-8:2 시승격 하루를 앞두고 공무원과 통장들의 기념사진
3-8:3 (구)성남시청
3-8:4 현 성남시청
3-8:5 분당구청 개청식
3-8:6 판교 · 구리 간 고속도로와 수서 ~ 청담 간 도시고속화 도로
3-8:7 성남시도 지하철시대
3-8:8 (구)시청앞 도로
3-8:9 단대천 복개 전의 새마을 취로 사업현장
3-8:10 성남 종합운동장
3-8:11 시청 앞 독정천(대봉로 복개공사) 6차선 개통
3-8:12 시민회관 개관
3-8:13 현 시청사 기공식
3-8:14 1982년 시민회관 부근
3-8:15 새마을 환경정비 기동대 발대식
3-8:16 풍생중고앞 복개공사전의 단대천과 성남동
3-8:17 복정 정수장
3-8:18 아시안경기대회 육상경기 3관왕 임춘애 선수
3-8:19 중동에서 본 신흥동의 1980년대 모습
3-8:20 모란 민속시장
3-8:21 세계재패 기념 하키 기념탑
3-8:22 하수종말처리장
3-8:23 대원천 복개공사 개통식
3-8:24 수정구청 개청
3-8:25 복개된 대원천의 모습
3-8:26 성남로 복정동 구간
3-8:27 지하철 8호선 공사현장
3-8:28 수정구 시립도서관
3-8:29 중원구 시립도서관
3-8:30 분당 중앙공원 야외 공연장
3-8:31 성남 시립 합창단 연주회
3-8:32 성남시 캐릭터 심볼마크
3-8:33 새마을 이동 도서관
3-8:34 성남 종합운동장
3-8:35 성남 제2종합운동장

3-8:36 인하병원을 중심으로 '90년대의 시가지 모습
3-8:37 성남 농수산물 센터
3-8:38 시민의 날 경축행사
3-8:39 시민체육대회
3-8:40 도로망
3-8:41 예방접종
3-8:42 코리아 디자인센터
3-8:43 등원동~대장동 간 터널 관통
3-8:44 모란 민속 5일장 축제
3-8:45 체육대회
3-8:46 제3대 민선 이대엽 시장 취임식
3-8:47 어린이날 행사
3-8:48 생활체육
3-8:49 성남문화예술의전당
3-8:50 성남시립 교향악단
3-8:51 수해 복구
3-8:52 정보화 교육
3-8:53 탄천 농구장
3-8:54 판교개발
3-8:55 제30주년 성남시민의 날 기념식
3-8:56 현충탑
3-8:57 분당선 이매역개통식
3-8:58 탄천한강 자전거 전용도로 개통식
3-8:59 분당에서 한강까지 자전거도로
3-8:60 중앙문화 정보센터와 여성문화회관
3-8:61 모란 민속시장 축제
3-8:62 서현문화의 집
3-8:63 성남시청
3-8:64 성남시 법정동 안내지도
3-8:65 성남시 행정구역도
3-8:66 수정 구청
3-8:67 신흥 사거리
3-8:68 신흥2동 사무소
3-8:69 점차 주거지로 변모하는 신흥동 제1공단
3-8:70 모란 사거리에서 바라본 태평동
3-8:71 태평2동을 중심으로 한 시가지
3-8:72 수진2동사무소
3-8:73 모란 거리 공원 분수대
3-8:74 단대오거리 고가차도
3-8:75 단대공원
3-8:76 산성 유원지 입구 야경
3-8:77 복정동 주민 자치센터 개소식
3-8:78 고등동 사무소
3-8:79 중원구청
3-8:80 모란 고가 차도 (성남동)
3-8:81 변모된 중동
3-8:82 금광지구 시영아파트
3-8:83 단대 · 금광동 지역
3-8:84 남한산성 버스종점부근 고가차도
3-8:85 경충국도 인터체인지
3-8:86 분당구청
3-8:87 분당 시가지 야경
3-8:88 분당 중앙공원
3-8:89 분당중앙공원 설경 · 하경
3-8:90 고층아파트 (정자동)
3-8:91 서현1동 삼성프라자 주변
3-8:92 야탑동 탄천 야경
3-8:93 금곡동의 아파트 밀집지역
3-8:94 운중동사무소
3-8:95 수정구 보건소
3-8:96 중원구 보건소
3-8:97 분당구 보건소
3-8:98 성남시 농업기술 센터
3-8:99 성남시민회관
3-8:100 영생관리사업소
3-8:101 민원봉사실
3-8:102 브라질 빠라치카바
3-8:103 미국 오로라시
3-8:104 중국 심양시(中國 沈陽市)
3-8:105 삼학사 비문 탁본
3-8:106 중소기업 현장방문중인 이대엽 시장, 김상현 시의회 의장
3-8:107 율동 복지회관
3-8:108 장애인 복지시설
3-8:109 성남 문화예술의 전당
3-8:110 탄천에 유입되는 팔당 원수공급
3-8:111 아파트 밀집지역(정자동)
3-8:112 경충(京忠)국도 입체교차로
3-8:113 성남시 도로망도
3-8:114 신흥사거리 도로모습
3-8:115 성남시로 진입하는 3개의 도로망
3-8:116 모란거리 조각공원
3-8:117 탄천 둔치 물놀이장
3-8:118 쓰레기 소각장
3-8:119 복정 정수장
3-8:120 하수종말처리장
3-8:121 성남 중앙문화정보센터

3-9:1 경국대전
3-9:2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시청
3-9: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9: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3-9:5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3-9:6 법률구조공단 성남출장소
3-9:7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범죄예방위원 성남지역협의회 청소년선도 활동 모습
3-9:8 1960년대의 광주경찰서 돌마지서
3-9:9 성남경찰서 차량정비점검
3-9:10 성남중부 경찰서
3-9:11 성남 남부경찰서
3-9:12 성남 분당경찰서
3-9:13 성남 소방서
3-9:14 고층빌딩 화재진압 장비
3-9:15 화재진압 훈련 장비
3-9:16 성남소방서 신흥동 파출소
3-9:17 119구조대의 사고차량 구조구난 모습
3-9:18 분당소방서
3-9:19 분당소방서 판교파출소
3-9:20 분당소방서 수내파출소
3-9:21 분당소방서 이매파출소
3-9:22 분당소방서 구미파출소

표목차

7-1 성남 · 광주지역의 지구당 현황
7-2 성남 · 광주지역의 지구당 현황
7-3 성남 · 광주지역의 지구당 현황
7-4 성남시의 지구당 현황
7-5 성남지역의 지구당 현황
7-6 성남지역의 지구당 현황
7-7 성남지역의 지구당 현황
7-8 초대 대통령선거 결과
7-9 초대 부통령선거 결과
7-10 제2대 부통령선거 결과
7-11 제2대 대통령선거 결과
7-12 제3대 부통령선거 결과
7-13 제3대 대통령선거 결과
7-14 제4대 부통령선거 결과
7-15 제4대 대통령 선거 결과
7-16 제5대 부통령선거 결과
7-17 제4대 대통령 간접선거 결과
7-18 제5대 대통령선거 결과
7-19 제6대 대통령선거 결과
7-20 제7대 대통령선거 결과
7-21 제8대 대통령선거 결과
7-22 제9대 대통령선거 결과
7-23 제10대 대통령선거 결과
7-24 제11대 대통령선거 결과
7-25 제12대 대통령선거 결과
7-26 제13대 대통령선거 결과
7-27 제14대 대통령선거 결과
7-28 제15대 대통령선거 결과
7-29 제16대 대통령선거 결과
7-30 제헌 국회의원 선거 정당 · 단체별 당선 현황
7-31 제헌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광주군 투표결과
7-32 제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 단체별 당선현황
7-33 제2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광주군 투표결과
7-34 제3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 단체별 당선현황
7-35 제3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광주군 투표결과
7-36 제3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기도 광주군 투표결과
7-37 제4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 단체별 당선현황
7-38 제4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광주군 투표결과
7-39 제5대 국회의원(민의원)선거 정당 · 단체별 당선현황
7-40 제5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광주군 투표결과
7-40 제5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광주군 투표결과
7-41 초대 참의원선거 정당 · 단체별 당선현황
7-42 초대 참의원선거 경기도 투표결과
7-43 제6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 단체별 당선현황
7-44 제6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제5지구 선거구(광주군 · 이천군) 투표결과
7-45 제7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 단체별 당선현황
7-46 제7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제5지구 선거구(광주군 · 이천군) 투표결과
7-47 제8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 단체별 당선현황
7-48 제8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제6지구 선거구(광주군 · 이천군) 투표결과
7-49 제9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 단체별 당선현황
7-50 제9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제4선거구(광주 · 이천 · 여주군) 투표결과
7-51 제9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 단체별 당선현황
7-52 제10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제4선거구(성남시 · 광주군 · 이천군 · 여주군) 투표결과
7-53 제1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당선현황
7-54 제11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제4선거구(성남시 · 광주군) 투표결과
7-55 제1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당선현황
7-56 제12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제2선거구(성남시 · 광주군) 투표결과
7-57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당선현황
7-58 제13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갑구선거구 투표결과
7-59 제13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을구선거구 투표결과
7-60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당선현황
7-61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선거구 투표결과
7-62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 분당구 선거구 투표결과
7-63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당선현황
7-64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선거구 투표결과
7-65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선거구 투표결과
7-66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선거구 투표결과
7-67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당선현황
7-68 제16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선거구 투표결과
7-69 제16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선거구 투표결과
7-70 제16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갑선거구 투표결과
7-71 제16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을선거구 투표결과
7-72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당선현황
7-73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선거구 투표결과
7-74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선거구 투표결과
7-75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갑선거구 투표결과
7-76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을선거구 투표결과
7-77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성남출장소 지역)
7-78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성남시)
7-79 대통령 선거인단선서 결과
7-79 대통령 선거인단선서 결과
7-80 제 1차 국민투표 결과
7-81 제2차 국민투표 결과
7-82 제3차 국민투표 결과
7-83 제 4차 국민투표 결과
7-84 제 5차 국민투표 결과
7-85 제 6차 국민투표 결과
7-86 제1대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
7-87 제2대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
7-88 제3대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
7-89 제1대 경기도지사 선거 투표결과
7-90 제1대 경기도지사 선거 성남시 득표현황
7-91 제2대 경기도지사 선거 투표결과
7-92 제2대 경기도지사 선거 성남시 득표현황
7-93 제3대 경기도지사 선거 투표결과
7-94 제3대 경기도자사 선거 성남시 득표현황
7-95 제1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결과
7-96 제2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결과
7-97 제3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결과
7-98 제1대 성남시장 투표결과
7-99 제2대 성남시장 투표결과
7-100 제3대 성남시장 투표결과
7-101 제3대 광역의회의원선거 결과
7-102 제4대 광역의회의원선거 결과
7-103 제5대 광역의회의원선거 결과
7-104 제6대 광역의회의원선거 결과
7-105 제3대 경기도의회 의원 성남시 선거 결과
7-106 제4대 경기도의회 의원 성남시 선거 결과
7-107 제5대 경기도의회 의원 성남시 선거 결과
7-108 제6대 경기도의회 의원 성남시 선거 결과
7-109 역대 기초 지방의회 의원 선거현황
7-110 제1대 성남시의회 의원 성남시 선거 결과
7-111 제2대 성남시의회 의원 선거결과
7-112 제3대 성남시의회 의원 선거결과
7-113 제4대 성남시의회 의원 선거결과
7-114 제1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7-115 제2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7-116 제3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7-117 제4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7-118 제1대 성남시의회 회의 현황
7-119 성남시의회 의안 처리 현황
7-120 성남시의회 의안 처리 현황
7-121 제1대 성남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현황
7-122 제2대 성남시의회 회의 현황
7-123 성남시의회 의안 처리 현황
7-124 제 1대 성남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현황
7-125 제3대 성남시의회 회의 현황
7-126 성남시의회 의안처리 현황
7-127 성남시의회 의안처리 현황
7-128 제3대 성남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현황
7-129 제4대 성남시의회 회의 현황
7-130 성남시의회 의안처리 현황
7-131 제4대 성남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현황
7-132 제4대 성남시의회 사무국 현황
7-133 성남시의회 역대 사무국장 현황

8-1 1906~1914년 성남지역 개편내역
8-2 행정편제
8-3 법정동 현황1973.7.1 현재
8-4 출장소 관할구역
8-5 변경된 행정동명
8-6 지리적 위치
8-7 세대 및 인구수
8-8 사제실시 전후 1연간의 시세
8-9 도시기반건설사업 내역
8-10 도시계획구역 설정표
8-11 70년대 성남시의 시세 현황
8-12 주민입주계획
8-13 소송 연도별 계류 현황
8-14 언론사 현황
8-15 연차별 공정률 및 투자액
8-16 탄천 오염 실태
8-17 도시환경 디자인 개선 사업
8-18 환경친화적 자연생태 보존 사업
8-19 판교택지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8-20 성남시의 조직체계
8-21 1998~2004 공무원 총괄
8-22 1996~2004 본청 공무원
8-23 1998~2004 시의회 사무국 및 사업소 공무원
8-24 1996~2004 구청 공무원
8-25 1996~2004 동 공무원
8-26 역대시장 및 시정방침
8-27 역대 부시장
8-28 행정기구 2004. 5. 30 현재
8-29 신흥1동 기본현황
8-30 신흥2동 기본현황

8-31 신흥3동 기본현황
8-32 태평1동 기본현황
8-33 태평2동 기본현황
8-34 태평3동 기본현황
8-35 태평4동 기본현황
8-36 수진1동 기본현황
8-37 수진2동 기본현황
8-38 단대동 기본현황
8-39 산성동 기본현황
8-40 양지동 기본현황
8-41 복정동 기본현황
8-42 신촌동 기본현황
8-43 고등동 기본현황
8-44 시흥동 기본현황
8-45 행정기구
8-46 성남동 기본현황
8-47 중동 기본현황
8-48 금광1동 기본현황
8-49 금광2동 기본현황
8-50 은행1동 기본현황
8-51 은행2동 기본현황
8-52 상대원1동 기본현황
8-53 상대원2동 기본현황
8-54 상대원3동 기본현황
8-55 하대원동 기본현황
8-56 행정기구
8-57 분당동 기본현황
8-58 수내1동 기본현황
8-59 수내2동 기본현황
8-60 수내3동 기본현황
8-61 정자1동 기본현황
8-62 정자2동 기본현황
8-63 정자3동 기본현황
8-64 서현1동 기본현황
8-65 서현2동 기본현황
8-66 이매1동 기본현황
8-67 이매2동 기본현황
8-68 야탑1동 기본현황
8-69 야탑2동 기본현황
8-70 야탑3동 기본현황
8-71 판교동 기본현황
8-72 금곡동 기본현황
8-73 구미동 기본현황
8-74 운중동 기본현황
8-75 주경기장
8-76 실내체육관
8-77 제2하키장
8-78 롤러스케이트장
8-79 보조경기장
8-80 인공암벽
8-81 공원녹지대
8-82 광장 및 도로
8-83 지하주차장
8-84 시민회관 시설규모
8-85 시민회관 주요 장비
8-86 2002년 일반민원통계
8-87 지방세 과징현황
8-88 국유재산 현황
8-89 공유재산 현황
8-90 예산 결산 총괄1
8-91 예산결산총괄 2
8-92 일반회계 세입결산
8-93 일반회계 세출결산
8-94 특별회계 예산결산
8-95 성남의 도시계획
8-96 성남의 도시현황
8-97 계획인구 추정
8-98 생활환경(1차 기본요소)
8-99 토지이용 계획
8-100 자동차보유대수 추정
8-101 주택수요 추정
8-102 주택 유형별 공급계획
8-103 쓰레기처리 전망
8-104 교육시설 계획
8-105 성남시 주택현황
8-106 건축허가
8-107 건축허가
8-108 아파트건립 누계
8-109 도로현황
8-110 도로현황
8-111 교량현황
8-112 교량현황
8-113 자동차 등록현황
8-114 주차장 현황
8-115 급수현황
8-116 상수도관 현황
8-117 급수 사용량
8-118 하수처리장 현황

9-1 친족의 범위
9-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조직도

그림 목차

7-1 제1대 성남시의회 기구 및 조직
7-2 제4대 성남시의회 기구 및 조직
7-3 성남시의회의 역할
7-4 성남시의회의 의안 처리절차
7-5 성남시의회 조례 제정 절차
7-6 성남시의회의 예산안 처리 절차
7-7 성남시의회 의 결산 승인 절차
7-8 성남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절차
7-9 성남시의회 행정 사무조사 절차

일러두기

1. 편찬 기본방향

이 책은 성남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집대성하고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각 분야의 발전상과 변천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다나은 지역발전과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편찬하였다.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권 "자연과 민속", 제2권 "성남의 역사", 제3권 "정치와 행정", 제4권 "경제와 사회", 제5권 "교육과 문화"로 이루어져 있다.

2. 서술대상지역과 시기

서술대상지역은 성남개발 이전의 경기도 광주군 4개면(돌마면, 낙생면, 대왕면, 중부면 일부)을 포괄한 현 행정구역상 성남시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서술대상 시기는 선사시대부터 2003년 말까지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일부 내용은 집필시기의 차이로 약간 다른 경우도 있다.

3. 내 용

1) 제1권 "자연과 민속"은 제1편 자연과 지리, 제2편 지명 · 세거성씨 · 전설, 제3편 민속과 종교로 구성되어 있다.

- 자연과 지리 :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그리고 동 · 식물 등 생태계를 관찰하였다.
- 지명 · 세거성씨 · 전설 : 자연부락에 대한 지명유래와 현재의 법정동(法定洞)의 변천과정을 서술하였으며, 취락과 세거성씨는 동(洞)별로 엮었고 병자호란과 남한산성에 관련된 전설을 많이 실었다.
- 민속과 종교 : 생활민속, 평생의례, 민속신앙의 세 분류로 조사 · 서술하였고, 종교에서는 개관과 신종교를 비롯한 한국의 대표적 종교를 기술하였다. 성남의 언어는 표준어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중부방언(경기도 방언)을 중심으로 하였다.

2) 제2권 "성남의 역사"는 제4편 역사와 인물, 제5편 성남의 탄생, 제6편 분당건설과 판교개발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 역사와 인물 : 상고시대부터 해방이후 대한민국 시기까지 성남의 역사를 한국사의 전체 흐름 속에서 조명하였다. 역사적 인물은 성남지역에서 출생하였거나 살았으며, 또는 묘소가 있는 인물로서 시대별로 구분하여 서술하였고 자료가 있는 한 많은 인물을 기록하도록 노력하였다.
- 성남의 탄생 : 정부의 신도시건설 기본계획이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탄생된 신흥 인공도시로써 성남시의 생성(生成)과정을 밀도 있게 기록 · 서술하였다.
- 분당건설과 판교개발계획 : 정부의 수도권 신도시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분당개발사업의 기본 방향과 추진과정, 건설현황을 자세하게 기술하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판교지구 개발사업의 배경과 전개과정, 쟁점사항 등을 서술하였다.

3) 제3권 "정치와 행정"은 제7편 정치, 제8편 행정, 제9편 사법 · 치안 · 소방으로 구성되었다.

- 정치 : 각 공화국의 정당 활동과 선거, 지방자치제도의 변천과정과 지방의회의 활동을 서술하였다.
- 행정 : 근 · 현대의 행정제도와 기구의 변천, 성남의 행정조직과 주요시책, 성과 그리고 시정 4개년계획인 '성남비전 2006'은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 사법 · 치안 · 소방 : 제도의 변천과 현황을 서술하였다.

4) 제4권 "경제와 사회"는 제10편 경제 · 산업, 제11편 사회 · 복지 · 노동 · 환경, 제12편 언론 · 출판으로 구성되었다.

- 경제 · 산업 : 성남지역의 경제개관과 산업구조, 산업단지조성과 첨단산업에 대한 현황을 서술하였다.
- 사회 · 복지 · 노동 · 환경 : 성남사회의 특수성과 노인복지를 비롯한 각종 복지제도, 기관 및 단체 그리고 보건의료시설을 기술하였으며, 성남의 환경과 비전을 서술하였다.
- 언론 · 출판 : 성남의 개발초기의 언론의 역할과, 지방자치시대의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기술하였고 지역방송과 성남 출판의 개황을 서술하였다.

5) 제5권 "교육과 문화"는 제13편 교육 · 체육, 제14편 문화 · 예술, 제15편 문화유적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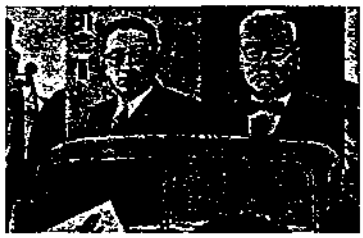
- 교육 · 체육 : 성남교육의 역사와 현황, 각급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 올림픽 · 참가와 성남체육, 학교체육 및 사회체육의 진흥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 문화예술 : 성남시 승격 초창기의 문화예술의 개황과 현재의 문학, 예술, 음악 등 분야별 예술 활동을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 문화유적 : 성남시의 문화재 현황과 귀중한 문화유적을 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행정구역별로 서술하였다.

4. 본문서술

1) 본문 서술은 학문적인 통설을 기준으로 참고문헌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기술하였다.
2) 본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괄호 안에 병기하였다.
3) 연대는 서기를 표기하고 필요한 부분에는 괄호 안에 왕조 년을 부기하였다. 단,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왕조 년을 먼저 표시한 경우도 있다.
4)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좌 · 우편 여백에 본문의 주요 내용을 도움말로 처리하였다.
5) 성남시사의 편집체제상 부득이 집필원고의 일부를 조정한 경우도 있다.
6) 집필위원 명기(名記)는 집필내용이 끝난 하단에 기재하고, 분야별 집필위원 명단과 참고문헌은 각권 말미에 수록하였다.

5. 찾아보기

1) 목차는 각권별로 편, 장, 절 위주로 수록하였다.
2) 사진목차는 각 권별, 편별 위주로 수록하였다.
3) 표 목차 및 그림 목차는 편별로 수록하였다.





제7편 정치

제1장 정당활동

제2장 선거

제3장 지방자치



제1장 정당활동

제1절 미군정시대

1. 국내 정치상황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하기에 앞서 조선총독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와 정무총감 엔도 류시쿠(遠藤柳作)를 통해 항복 후 조선에서의 치안유지 및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당시 민족주의자 세력의 중심 인물이었던 송진우(宋鎭禹), 여운형(呂運亨), 안재홍(安在鴻) 등에게 요청하였다. 여운형, 안재홍 등은 일본측의 요청을 수락하고 일제치하에서 비밀결사단체였던 조선건국동맹을 모체로 치안유지와 아울러 과도적인 독립정부 수립을 준비하기 위한 '건국준비위원회'를 1945년 8월 17일 결성하였다.[1]

건국준비위원회는 당초 좌·우 및 중도파 등 여러 계파의 인사들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점차 좌파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 안재홍 등 우익세력이 탈퇴하였고, 결국 여운형 중심의 건국동맹과 공산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한편 좌파세력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항하여 9월 1일에는 건준위에서 이탈한 중도우파인 안재홍 등이 국민당을, 9월 16일에는 송진우·김병로 등 우익세력들이 한국민주당을 창당하였다.

그러던 중 1945년 9월 9일부터 미군이 38선 이남지역에 진주하여 미군정이 남한지역의 통치를 맡게 됨에 따라 건국준비위원회와 조선인민공화



여운형, 안재홍 등은 일본측의 요청을 수락하고 일제치하에서 비밀결사단체였던 조선건국동맹을 모체로 치안유지와 아울러 과도적인 독립정부 수립을 준비하기 위한 '건국준비위원회'를 1945년 결성하였다.

1) 당시 일본측의 요구사항은 ① 전국의 정치범과 경제범을 석방할 것, ② 3개월간의 식량을 확보할 것, ③ 치안유지와 건국운동을 위한 정치활동에 대하여 간섭하지 말 것, ④ 학생과 청년을 훈련·조직하는데 대하여 간섭하지 말 것, ⑤ 노동자와 농민을 건국사업에 조직·동원하는데 대하여 간섭하지 말 것 등 5개항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73), 「대한민국정당사」 제1집(1945~1972), 121~122쪽.

국은 무효화되었으며,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좌익세력은 조선인민당으로 개편되었다. 하지(John R. Hodge) 장군을 사령관으로 하는 미군정은 공산주의자를 거부하는 입장에서 공산주의라고 생각되는 요소는 무조건 척결하였으며, 민족청년단과 대한독립청년단을 포함하는 많은 우익단체들에게 조직과 자금지원을 하여 좌익운동의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 미군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의 각종 정치적 폭동이 남한을 휩쓸었다.[2]

2) Gregory Henderson(1968),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p.136-147 참조.



〈사진 3-7 : 1〉(1948) 우남 이승만 대통령 취임선서

전후 한반도 문제의 처리를 놓고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 삼상(三相)회담'에서 한민족에 대한 5년간의 신탁통치안을 결의하였으나 한국인들의 극심한 반대에 봉착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미·소 공동위원회'가 소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남에 따라 한국문제는 유엔에 상정되었다. 이즈음 남한지역에서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단독정부 수립운동이 활발히 추진되었고, 미군정 당국의 지원 하에 1946년 6월부터 김규식(金奎植)과 여운형을 중심으로 좌우 합작운동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결국 '남북총선에 의한 정부구성'이라는 유엔의 결정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러한 정치 상황하에서 장기간의 망명생활 동안 미국에서 많은 교육을 받고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을 역임한 바 있는 이승만(李承晩)이 남한을 위한 가장 적합한 지도자로 등장하였다.

2. 정당활동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정당활동이 시작된 것은 미군정기간인 1946년 11월 23일에 미군정 법령 제 55호로 '정당에 관한 규칙'이 발표되면서부터이다. 특히 해방 후 정부수립 시까지 좌·우익간 이념갈등을 둘러싸고 수많은 정당들이 생성과 소멸 및 이합집산을 거듭하여 왔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국민당, 한국민주당,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한국독립당 등이다.

1) 국민당

국민당은 1945년 9월 1일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했다가 건준위의 좌경화에 불만을 품고 탈퇴한 중간우파의 안재홍(安在鴻)을 중심으로 공화당, 근우동맹(槿友同盟), 동지회, 사회민주당, 자유당 등을 흡수하여 창당되었다. 그러나 국민당은 여러 이질적 세력들이 연합하였던 관계로 지지기반이 불명확하고 미약하여 후에 일부는 환국한 임시정부의 주축인 한국독립당에 흡수되고, 또 일부는 오세창(吳世昌)·권동진(權東鎭)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신한민족당에 합류하였다. 그 후 1947년 7월 2일 당수 안재홍이 미군정청 민정장관에 임명됨으로써 국민당은 사실상 해체되었다.

2) 한국민주당

한국민주당은 해방직후 팽창일로에 있던 좌익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우익 민주세력의 총집합체로서 원세훈(元世勳)의 고려민주당, 김병로(金炳魯)의 조선민족당, 백남훈(白南薰)의 한국국민당, 송진우(宋鎭禹)의 국민대회준비위원회 등 4파가 연합하여 1945년 9월 16일에 창당되었다.[3]

한국민주당은 경운동 천도교기념관에서 있었던 창립총회 결의문에서 "우리는 독립운동의 결정체이고 현재 국제적으로 승인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에 소위 정권을 참칭하는 일체의 단체 및 그 행동은 여하한 종류를 불문하고 이것을 단호히 배격한다"[4]라고 하여 조선인민공화국을 전면적으로 배격하고 중경(重慶)의 임시정부를 합법정부로 인정하였다.

한국민주당은 1945년 10월 귀국한 이승만과 11월 귀국한 김구, 김규식 등을 지지하였으며, 모스크바 3상회의의 신탁통치안에 대하여 반탁운동(反託運動)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1946년 5월 8일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 이승만의 단독정부수립안을 지지하고 1948년 대한민국 수립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 후 정치정세에 따라 한국민주당에 참여했던 세력들은 민주국민당, 민주당, 신민당, 자유당 등 제 세력으로 분산되었다.

3) 한국민주당은 성격상으로는 대부분 보수파이고 기호파와 호남파들의 재벌 및 중산계층의 정당이었고 일제시대에 관료를 역임한 사람들이 많았다; 신명순(1993), 『한국정치론』, 법문사, 10쪽.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 134-135쪽.

3) 조선공산당(남조선노동당)

일제치하에서 지하로 잠복하였던 공산주의세력들은 해방 직후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 중에서 이영(李英), 최익한(崔益翰), 정백(鄭栢) 등 장안파가 먼저 활동을 재개하였으나, 박헌영(朴憲永)을 중심으로 한 콤그룹(세칭 재건파)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9월 12일 조선공산당을 결성하였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자 민족주의 진영은 반탁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조선공산당은 인민당과 연합하여 찬탁운동(贊託運動)을 전개하였다.

국내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분열과 투쟁을 일삼던 조선공산당은 1946년 9월에 미 군정청의 간부체포령에 의해 지하로 숨어들게 되었으며, 그해 9월부터 10월까지 철도, 출판, 전신, 전화, 전기 등 제 분야의 파업을 주도한 데 이어 10월에는 대구 폭동을 일으켰다.

조선공산당은 11월 23일 인민당과 신민당을 흡수하여 남조선노동당(남로당)으로 개편되었다. 남로당은 노동조합전국평의회(全評), 농민조합연맹(全農), 민주청년총동맹(民青), 부녀총동맹(婦盟), 문화단체총연맹(文聯) 등 사회단체들의 배후에서 북조선노동당과의 연락하에 질서의 교란과 민심의 선동을 일삼았으며, 1948년 4월의 제주도 폭동과 10월의 여수·순천사건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1949년 10월 대한민국정부로부터 정당등록 취소처분을 받음으로써 남로당은 완전히 비합법화되었다.

4) 조선인민당(근로인민당)

미 군정청이 남한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장악함에 따라 여운형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던 건국준비위원회는 고려국민동맹, 인민동지회, 일오회(一五會) 등을 흡수하여 1945년 11월 12일 조선인민당으로 개편되었다.

조선인민당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신탁통치안에 대하여 조선공산당과 함께 찬탁입장을 표명하였으며, 그 후 좌파와 우파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별로 활동하지 못하다가 1947년 5월 24일 근로인민당으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1947년 7월 당수인 여운형이 암살되자 당 조직이 와해되었다.

5) 한국독립당

중경(重慶)에서 귀국한 임시정부 세력을 주축으로 한 한국독립당은

1930년 상해에서 결성된 이래 김구(金九) 임정주석을 중심으로 유지해 오다가 1946년 4월 18일 국민당, 신한민족당과 통합하였다. 한국독립당은 한국민주당과 함께 우익진영의 양대 축으로서 반탁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으며, 좌우합작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나 좌우합작을 추진하는 김규식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독립당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수립을 주장하는 이승만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졌다.

1947년 11월 15일 유엔에서 남한만의 총선거를 결정하자, 한국독립당의 김구는 민족자주연맹의 김규식과 함께 남북협상을 시도하였다. 그 후 김구는 1948년 4월 19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협상회의에 참석하였으나, 공산당의 기만과 무성의로 그의 남북협상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 1949년 6월 김구가 암살된 후 한국독립당의 조직은 와해되었다.

3. 성남 · 광주지역의 정당활동

미 군정시기에 있어서 성남지역은 조선총독부령의 '면에 관한 규정' 및 '도의 관할구역'에 의해 대부분이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지역이었고 일부는 광주군 돌마면에 속하였다. 1946년에 행정업무를 관할하기 위하여 중부면 성남출장소(城南出張所)가 탄리에 개소되었다가 1948년에는 수진리로 이전되었다.[5]

5) 성남시(1998).「21세기 성남시 장기발전계획」, 성남시청, 28쪽.

이 시기는 정부수립 이전이고 근대적 의미의 정당이 이제 막 출범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지역단위의 정당활동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당시의 정당은 건국과정에서 좌 · 우간 이념갈등과 관련한 이합집산의 연속이었으며, 지역활동을 담당하는 지구당도 없었고 주로 중앙단위에서만 활동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제2절 제1공화국

1. 국내 정치상황

1948년 5월 10일 유엔감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제헌국회의 구성은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5명, 한국민주당 29명, 대동청년단 12명, 조선민족청년단 6명, 기타 정당·단체 13명, 무소속 85명 등으로, 이승만 노선을 지지해 오던 대한독립촉성국민회와 한국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건국 초 정부형태는 한국민주당 측의 의원내각제와 이승만의 대통령제 간에 이견이 있었으나, 결국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초대 대통령 선출과정에서 이승만을 지지했던 한국민주당은 초대 내각 구성에서 철저히 배제됨으로써 이승만과 결별하게 되었으며, 1949년 2월 10일 다른 당파들을 흡수하여 민주국민당(民主國民黨)으로 당명을 개칭한 후 제1공화국 전 기간에 걸쳐 야당으로서 이승만 정부와 투쟁을 전개하였다.

건국 초 정부형태는 한국민주당 측의 의원내각제와 이승만의 대통령제 간에 이견이 있었으나, 결국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되었다.

1950년 5월30일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회의석은 이승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대한국민당과 야당인 민주국민당이 각각 24석을 확보한 가운데 11개 정당과 사회단체 등에 널리 분포되었으며, 특히 무소속이 126석을 확보하여 정국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50년 6·25의 발발로 정부와 국회가 부산으로 피난한 가운데 이승만은 야당 세력이 많은 국회에서 초대 선거 때와 같이 국회에서의 간접 선거로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 하에 자신의 권력기반이 될 정당의 창설과 대통령의 직접 선출을 위한 개헌을 시도하였다.[6]

6) 신명순, 앞의 책, 14-15쪽.

신당 창당은 1951년 8월 15일 광복절을 기하여 이승만이 신당조직의 필요성을 밝힘에 따라 이승만 지지 세력들이 자유당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원내와 원외에서 각각 결성되었으며, 이 두 당은 1952년 3월 통합하여 자유당(自由黨)을 창당하고 당수에 이승만을 선출하였다.

한편,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이 1951년 11월부터 정부에 의해 통과가 시도되었으나 야당측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

하다가, 결국 1952년 7월 4일 야당안과 정부안을 절충한 발췌개헌안(拔萃改憲案)으로 상정되어 계엄령이 선포된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7]

1952년 8월 5일 제2대 대통령선거와 제3대 부통령선거가 실시되어 대통령에 자유당의 이승만(李承晩), 부통령에 무소속의 함태영(咸台永)이 당선되었으며, 1954년 5월 20일 실시된 제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총 의석 203개 중 자유당 114명, 민주국민당 15명, 대한국민당 3명, 국민회 3명, 무소속 68명 등이 당선됨으로써 자유당 지배체제가 확립되었다.

자유당은 제3대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뒤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하여 1954년 11월 27일 초대 대통령의 '3선제한' 철폐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당시 개헌안은 개헌에 필요한 국회 재적의원 203명의 2/3인 136표에서 1표가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어 부결이 선포되었으나 이틀 후 소위 '사사오입(四捨五入)' 원리에 의해 개헌안이 통과로 번복된 것이다. 그러나 사사오입 개헌은 부산 정치파동에 이어 영구집권을 위한 불법을 또 한번 자행한 것으로서 이승만 정권의 정통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야당계 인사들이 결집한 민주당이 발족되는 계기가 되었다.

1956년 5월 15일 실시된 제3대 대통령선거와 제4대 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에는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갑자기 서거한 가운데 자유당의 이승만(李承晩)이 무난히 당선되었으나, 부통령에는 민주당의 장면(張勉) 후보가 자유당이 심혈을 기울인 이기붕 후보를 누르고 당선됨으로써 자유당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1956년 8월에 실시된 시·읍·면장 및 시·읍·면의회 의원선거와 1958년 5월의 제4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자유당의 저조와 민주당의 약진으로 나타나 다시 한번 민의의 소재를 보여주었다.[8] 1956년 8월에 실시된 시·읍·면장과 시·읍·면의회 의원선거에서 자유당 당선자 비율이 크게 저하되고 민주당 또는 무소속 비율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자유당은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승리한 반면 민주당은 도시지역에서 승리함으로써 1960년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었다.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유당이 장기집권을 위하여 조직적인 부정 선거운동을 자행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위가 전개되었다.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학생·시민들과 경찰의 충돌로 야기된 마산사태를

7) 1952년 2월부터 시작하여 7월에 종료된 이 정치적 사건을 '부산정치파동'이라고 일컫는다.



대통령에는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갑자기 서거한 가운데 자유당의 이승만(李承晩)이 무난히 당선되었으나, 부통령에는 민주당의 장면(張勉) 후보가 자유당이 심혈을 기울인 이기붕 후보를 누르고 당선됨으로써 자유당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8) 1956년 8월에 실시된 시·읍·면장과 시·읍·면의회 의원선거에서 자유당당선자 비율이 크게 저하되고 민주당 또는 무소속 비율이 증가되었으며, 1958년 5월2일 실시된 제4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민주당 의석은 제3대 국회에 비해서 33석이 늘어난 반면 자유당 의석은 5석이 줄었다.

시작으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그 결과 이승만은 4월 26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남으로써 자유당 정권은 붕괴되었다.

2. 정당활동

제1공화국 시기에 있어서 정당은 제헌국회(1948년) 16개, 제2대 국회(1950년) 11개, 제3대 국회(1954년) 4개, 제4대 국회(1958년) 3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에 많은 정당 및 정치단체들이 난립하고 있었다가 점차 통합·정돈되는 모습을 띠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정당은 이승만 중심의 여당인 자유당과 이에 맞선 한국민주당 – 민주국민당 – 민주당 등으로 이어지는 야당세력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 밖에 원내에 진입하지 못한 소수 세력이지만 1950년대 중반부터 태동한 진보당·민주혁신당 등 혁신세력 정당이 있었다.

1) 자유당

자유당은 전쟁과정에서 야당 주도의 국회와 행정부간의 극심한 불화상황에서 1951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의 신당의 필요성에 관한 담화 발표를 계기로 원내의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원내자유당과 원외의 지지세력으로 구성된 원외자유당의 두 갈래로 추진되었다.

원내자유당 결성은 이미 5월 29일 94명을 소속의원으로 한 신정동지회와 공화구락부가 통합된 공화민정회(共和民政會)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으며,[9] 원외 자유당은 이 대통령의 담화 발표와 더불어 국민회, 대한청년단, 대한노동조합총연맹, 대한농민조합총연맹, 대한부인회 등을 중심으로 하여 9월 3일 신당발기준비협의회가 결성되면서 추진되었다.

원내와 원외에서 이원적으로 진행되던 신당 창당은 11월 30일 준비위원회를 통해 당명 및 정책문제를 협상하는 등 통합을 시도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원내세력은 12월 3일에, 원외세력은 12월 23일에 자유당(自由黨)이라는 하나의 간판아래 각각 원내자유당과 원외자유당을 설립하게 되었다.

9) 이시영 초대부통령의 사임으로 1951년 실시된 부통령 보궐선거에서 여당측의 신정동지회가 지명한 이갑성(李甲成) 후보가 민주국민당과 공화구락부가 합작하여 지지한 김성수(金性洙) 후보에게 패한 후, 정부측에서 야당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신정동지회와 공화구락부를 통합한 공화민정회라는 교섭단체를 만들게 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 210쪽.

원내자유당과 원외자유당이 대립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권력구조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으로, 원내자유당은 내각책임제 개헌을 통하여 이승만을 상징적 대통령에 앉히고 장면(張勉)을 내각책임제하의 국무총리로 추대하여 실권을 행사하고자 했고 원외자유당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하여 이승만을 대통령에 당선시키고 이범석(李範奭)을 부통령에 당선시킴으로써 실권을 장악하려고 하였다.[10]

10) 김운태 외(1999),「한국정치론」(제4전정판), 박영사, 381쪽.

따라서 1952년 1월 18일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의 국회 표결은 재석의원 163명중 원내자유당 93명을 포함한 143명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원내자유당이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에 반대함에 따라 원외자유당은 삼우장파(三友莊派) 의원 45명을 포섭하는 등 독자적 세력 확대에 치중하였으며, 그 후 원내자유당과 자유당으로 통합하면서 소위 발췌개헌안의 국회통과를 이루었다. 자유당은 1952년 8월의 제2대 대통령 및 제3대 부통령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에 이승만, 부통령 후보에 이범석을 지명했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이승만이 무소속의 함태영을 지지했기 때문에 투표결과 대통령에 이승만과 더불어 부통령에 함태영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승만은 부산정치파동에서 보여준 민족청년단의 강력한 조직력에 위협을 느껴 이범석을 견제대상으로 간주하고 선거에서 국무총리인 장택상을 시켜 함태영을 당선시킨 것이다.[11]

11) 지병문 외(2001),「현대 한국정치사의 새로운 인식」, 박영사, 137쪽.

이에 자유당의 족청계(族靑系)는 중앙당에서부터 지구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간부를 자파로 교체하고 특별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족청계를 숙청하였으며, 반면 이승만은 족청계 각료를 해임시키고 자유당 간부직에 민족청년단 출신을 기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족청계 제거작업에 착수하여 1954년 1월 이범석 등을 자유당에서 제명하기에 이르렀다. 자유당에서 족청계가 제거된 뒤 자유당의 지도체제는 이기붕 지도체제로 넘어갔으며, 이때 자유당은 중앙당의 조직강화를 위하여 1953년 11월 전당대회를 통하여 중앙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대신 중앙당의 부장·차장제도를 신설하였다.



다수의석을 바탕으로 초대 대통령의 중임조항 철폐를 골자로 하는 소위 '사사오입' 개헌안을 통과시켜 이승만과 자유당이 장기집권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기붕 지도체제로 당을 정비한 자유당은 1954년의 제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총 203석중 114석을 획득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그리고 다수의석을 바탕으로 초대 대통령의 중임조항 철폐를 골자로 하는 소위 '사사오입' 개헌안을 통과시켜 이승만과 자유당이 장기집권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

련하였다.

1956년 5월의 정 · 부통령선거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되었으나, 부통령선거에서는 자유당의 이기붕이 380만표를 얻어 400만표를 획득한 민주당의 장면(張勉)에게 패하였다.

그 해 8월에 실시된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자유당이 조직을 강화하고 경찰력을 동원한 결과 시 · 읍 · 면의회의원 선거에서는 평균 68%의 당선율을, 서울시와 도의회의원 선거에서는 57%의 당선율을 기록했다. 그 후 자유당은 1957년 3월 제8차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당헌개정과 당 기구 개편을 단행하여 그 때까지 부장 · 차장회의 중심으로 운영되던 당조직을 당무회의 중심으로 바꾸었으며, 1958년의 제4대 총선 결과 총 233석 중 과반수가 넘는 126석을 확보하였다.

자유당은 1960년 정 · 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1958년 12월 야당의원들을 배제한 채 신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주민이 직접 선출하던 시 · 읍 · 면장을 정부가 임명하는 등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1959년 3월 내무부장관 및 도지사, 경찰 수뇌부에 대한 인사를 자유당 출신 정치인들로 단행하여 관료 · 경찰조직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자유당은 1960년 3월의 제4대 정 · 부통령선거에서 무리한 부정선거 전략으로 제1공화국의 붕괴를 자초하였다.

2) 한국민주당, 민주국민당, 민주당

해방 후부터 제1공화국 수립 시까지 소위 인민공화국을 타도하고 그 후 미 · 소 공동위원회에 민족적 주장을 내세워 대한민국 수립에 많은 공을 세웠던 한국민주당은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 선거에서 총 의석의 불과 12.7%인 29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에 한국민주당은 위축된 당세를 만회하기 위해 대한촉성국민회의 신익희(申翼熙) 세력과 대동청년단의 지청천(池靑天) 세력을 규합하여 1949년 2월 10일 민주국민당(民主國民黨)을 결성하였다. 원내에 70석을 지닌 민주국민당은 우리나라 정당사상 최초의 야당이 되었다.[12]

1949년 농지개혁법안의 입법을 둘러싸고 민주국민당(민국당)은 소장혁신계 의원들과 대립하였는데, 민국당은 자당의 정치적 기반인 소작료수

12) 한국민주당 29석, 대한촉성국민회 55석, 대동청년단 12석으로 총 96석이지만 통합과정에서 일부가 이탈하여 70석이 되었다.

입 내지 경작제도의 붕괴를 우려하여 농지개혁을 기피하는 입장이었다. 민국당은 1949년 5월부터 7월에 걸쳐 남로당의 대남정치공작에 국회의원이 관련된 소위 '프락치사건'으로 인하여 소장파 의원 13명이 구속되는 정치적 상황을 이용하여 세력을 확장하는 한편 소속 국회의원들을 내각에 진출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민국당은 이러한 세력 확장을 기반으로 하여 이승만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민국당은 1954년의 제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총 203석 중 15석만을 획득하여 참패하였다. 그러나 민국당은 11월 29일 초대 대통령의 '3선 제한' 철폐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위 사사오입 개헌안의 통과로 무소속동지회, 순무소속의원 등과 함께 60명으로 호헌동지회(護憲同志會)라는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모체로 민주당(民主黨)이 창당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결국 자유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무리한 사사오입 개헌파동이 야당의원들을 단결하고 결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민주당 창당과정에서 좌익전향자, 독재 및 부패행위가 현저하여 사회규탄을 받는 자 등을 배제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조봉암(曺奉岩) 등 혁신계의 참여 여부가 주된 논란의 대상되었다. 신익희, 조병옥, 곽상훈 등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파는 혁신계의 참여에 반대한 반면, 장택상, 신도성 등 민주대동파는 혁신계의 참여에 찬성했다. 이 문제로 인하여 약 9개월 동안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혁신계가 배제된 채 보수계 인사들만을 중심으로 하여 1955년 9월 18일 민주당이 결성되었다. 민주당은 종전부터의 장면 · 정일형 등의 흥사단계, 현석호 · 이태용 등 자유당 탈당파, 무소속구락부 등을 규합하여 원내 세력 33석을 유지하였다.[13]



민주당 창당과정에서 좌익전향자, 독재 및 부패행위가 현저하여 사회규탄을 받는 자 등을 배제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조봉암(曺奉岩) 등 혁신계의 참여 여부가 주된 논란의 대상되었다.

민주당은 자유당 정권에 대항하는 범야세력을 결집시켜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그 결과 1958년 5월 2일에 실시된 제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은 제3대 총선에 비해 훨씬 많은 79석을 확보하여 자유당과 함께 양당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서울과 도시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은 자유당으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하여 야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게 했으며, 결국 1960년 3월 정 · 부통령선거에서 자유당의 붕괴를 초래하게 하였다.

13) 위의 책, 225쪽.

3) 혁신 정당

제1공화국 시기에 있어서 혁신진보 성향의 정당으로는 진보당과 민주혁신당을 들 수 있다. 먼저 진보당은 1956년 1월 26일 조봉암, 서상일, 박기출, 이동하 등이 진보당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나 창당과정에서 조봉암과 서상일 간의 의견대립이 첨예화되어, 결국 서상일 · 이동하 등은 민주혁신당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고 탈퇴하였다. 진보당은 3월31일 전국추진위원회 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정강 · 정책안을 채택하고 창당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에서 5월 15일 실시되는 정 · 부통령선거에 대비하였다. 제1야당 후보인 신익희(申翼熙)의 급작스런 서거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선거결과 진보당의 조봉암(曺奉岩) 대통령후보가 이승만 후보의 500만여 표에 비해 약 200만 표라는 적지 않은 득표를 기록했다.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1956년 11월 진보당 창당대회가 개최되어 위원장에 조봉암, 부위원장에 박기출(朴己出), 김달호(金達鎬), 간사장에 윤길중(尹吉重)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1958년의 제4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시점인 1월 11일 조봉암, 박기출 등 주요간부 10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검거되었으며, 2월 25일 진보당의 정당등록이 취소되었다. 그리고 그 해 7월 조봉암이 사형됨으로써 진보당은 완전히 해체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진보당의 등록취소 이유를 보면, ① 진보당은 대한민국과 UN의 입장을 무시하고 북한, 소련, 중공 등의 주장과 같이 체코, 폴란드, 인도 등 적성국가를 주로 하여 구성되는 감시단의 감시 하에 남북통일선거를 실시할 것을 공식선언하고 있고, ② 진보당 간부들은 북한이 밀파한 간첩 · 파괴공작대들과 항상 접선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당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없으며, ③ 진보당은 목적달성의 전제단계로서 공산당의 비밀당원 및 동조자들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그들을 통해 대한민국을 음해 · 파괴하려고 기도하여 왔다는 것 등이다.[14]

14) 위의 책, 234쪽.

민주혁신당은 1957년 10월 15일 진보당 창당과정에서 조봉암과의 의견차이로 탈퇴한 서상일(徐相日)을 중심으로 한 혁신세력이 창당한 정당으로, 통일방안으로 유엔감시하의 자유총선거를 지지하는 등의 정책을 표방하였다.

3. 성남 · 광주지역의 정당활동

제1공화국 시기에 있어서 성남지역은 군정시기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에 속해 있었다. 지역단위의 정당 활동은 몇 차례에 걸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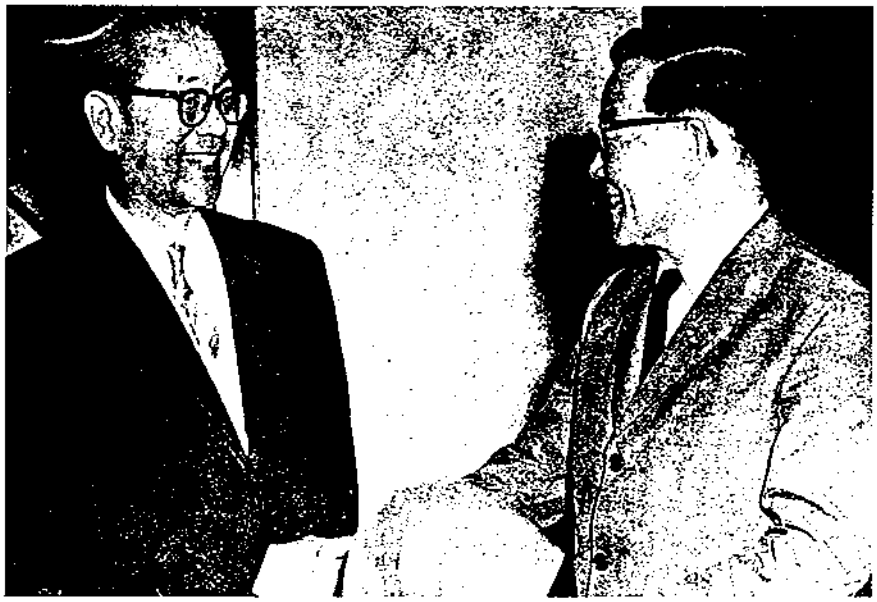
1948년의 제헌 국회시 지금의 성남지역이 속해 있는 광주군에서는 제헌국회의원으로 대한독립촉성회 소속의 신익희(申翼熙)가 무투표 당선되었는데, 그는 1950년의 제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민주국민당 후보로 입후보하여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당시 정당으로는 민주국민당 이외에는 수시로 이합집산하는 군소정당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들은 정당기반이 없다는 점에서 무소속이나 별 차이가 없었다.

1954년의 제3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여당인 자유당과 야당인 민주한국당 또는 민주당의 양자 대결구도가 정립됨에 따라 지역에서도 선거과정을 통해 여 · 야간의 대결이 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3대 총선에서는 자유당의 최인규와 민주국민당의 신익희가 입후보하여 신익희(申翼熙)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신익희 의원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유세중 서거함에 따라 실시된 1956년의 보궐선거에서는 자유당의 박재덕과 민주당의 신하균이 대결하여 신익희의 아들인 신하균(申河均)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1958년의 제4대 국회의원 선거시 자유당의 최인규와 민주당의 신하균의 대결에서는 최인규(崔仁圭)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3절 제2공화국

1. 국내 정치상황

4 · 19혁명으로 1960년 4월 26일 이승만대통령이 사임하고 제1공화국이 붕괴됨에 따라 외무부장관으로 수석 국무위원이던 허정(許政)이 이끄는



〈사진 3-7 : 2〉 윤보선 대통령(오른쪽)과 장면 국무총리

과도정부가 출범하였다. 허정 과도정부 수반은 4월 28일 담화를 발표하여 국민의 여망에 따라 3 · 15 부정선거의 책임을 밝혀 엄정 처단할 것과 경찰을 중립화하여 무질서한 상태를 회복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 후 정치 · 사회적 혼란 속에서 제2공화국 수립을 위한 개헌작업이 진행되어 그 해 6월 15일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민의원 총 의석 233석 중 175석을 획득했으며, 참의원에서도 총 의석 58석 중 31석을 차지하여 집권당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그러나 선거결과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내에서는 신 · 구파가 각각 당선자 대회를 열고 별도조직을 만드는 등 분당의 조짐이 역력했다. 신파는 1960년 8월 당선자대회를 열고 '13인 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구파도 별도로 당선자대회를 열고 '23인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민주당은 제1공화국에서부터 신파와 구파의 양대 파벌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집권당이 되면서 세력다툼이 노골화된 것이다.[15]

그 해 8월 8일 국회가 개원되자 민의원 의장단 선거에서 민주당의 신파와 구파는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신파측은 의장에 자파의 곽상훈(郭尙勳), 부의장에 구파의 이영준(李榮俊)과 무소속의 이재형(李載瀅)을 내정하고 그들의 당선을 위하여 온갖 정략을 폈으나, 결국 구파측의 정략이 주효하여

15) 구파는 신익희, 조병옥, 김준연, 윤보선 등 지주 출신으로 일본 · 미국 등에 유학한 사람들이고, 신파는 이승만으로부터 소외된 자유당 인사들과 흥사단계, 조선민주당계들로서 장면, 오위영, 조재천, 엄상섭 등이 중심인물이었다.

무소속 몫으로 배정한 부의장에는 이재형 대신 구파에 가까운 서민호(徐珉濠)가 당선되었다. 한편 참의원 의장단 선거에서는 신·구 양파가 의장에 무소속의 백낙준을, 부의장에는 신파측이 고의동, 구파측이 소선규를 각각 밀었으나 구파측의 승리로 소선규(蘇宣奎)가 부의장으로 당선되었다.

8월 12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는 구파의 윤보선(尹潽善)이 민의원·참의원 합동회의에서 재석 259명 중 208표라는 절대다수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의원내각제에서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는 국무총리의 선출문제에 있어서는 신파와 구파가 치열하게 대립했다. 윤보선 대통령은 8월 16일 국무총리로 구파의 김도연(金度演)을 지명하였으나, 국회표결에서 찬성 111표, 반대 112표로 재적 과반수보다 3표 부족하여 인준이 부결되었다. 이에 8월 18일 제2차로 장면(張勉)을 국무총리로 지명하였으며, 8월 19일 국회표결에서 재적의원 228명 중 찬성 117표, 반대 107표로 인준이 가결되었다.

장면 내각은 출범 후 민주당 구파와 소장파의 압력에 끊임없이 시달렸으며, 안정된 정치기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 구파는 별도의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고 1961년 2월 20일 신민당(新民黨)을 결성하였으며, 민주당내 소장파도 신풍회(新風會)를 결성하여 민주당 조기 전당대회 개최와 자파의 내각참여를 요구했다.



장면 내각은 출범 후 민주당 구파와 소장파의 압력에 끊임없이 시달렸으며, 안정된 정치기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사진 3-7:3〉 윤보선 대통령 취임

한편 4·19 혁명과제의 실천범위와 속도 등을 둘러싼 보수세력과 진보세력간의 갈등도 장면 내각의 정치적 입지를 축소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문제에 대해 장면 내각은 당초 소급입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1960년 10월 4·19 부상자들의 국회의사당 점거 및 소급입법 제정요구에 따라 결국 소급입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장면 내각은 처음에는 4·19 주도세력을, 그리고 나중에는 경찰 관료와 보수 세력을 소외시킴으로써 정치적 지지기반을 상실하였다.

제2공화국에서 정치·사회적 혼란과 혁신세력의 대두, 그리고 시위의 증가 등도 장면정부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전국교원노조연맹을 중심으로 한 교원노조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위와 진보적 학생



전국교원노조연맹을 중심으로 한 교원노조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위와 진보적 학생들의 외세철수 및 남북한의 직접교류 주장 등은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들의 외세철수 및 남북한의 직접교류 주장 등은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결국 장면 정부는 집권 후 약 9개월 동안에 정치권내에서 안정적 세력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압력에 슬기롭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2공화국 정부가 제시한 독재주의 배격, 법치주의 구현, 자유경제원칙 등 제반 민주적 가치들은 현대 한국정치사에 큰 의미를 가진다.[16]

16) 김호진 외(1995), 『한국현대정치사』, 법문사, 248-249쪽.

2. 정당활동

제2공화국 시기의 정당 활동은 4.19혁명 이후 정권을 잡은 민주당 내의 신 · 구파간의 갈등 및 대립으로 요약될 수 있다. 결국 구파는 신민당이라는 다른 정당으로 분리 · 발족하였으나 5 · 16쿠데타로 곧 해산되었다. 그 밖에 제1공화국의 자유당 잔류파가 중심이 된 공화당과 사회대중당 · 한국사회당 등 혁신정당 세력이 있었다.

1) 민주당

민주당은 7.29총선에서 압승하여 제2공화국 정부에서 정권을 담당하였으나, 국무총리 인준과정에서 신 · 구파 간의 대립이 노골화되었다. 선거 직후 민주당 소속의원 당선자 세력분포를 보면 구파측은 민의원 84명 참의원 17명이고 신파측은 민의원 75명 참의원 13명이었으며, 중도파가 10여명이 되었다.[17] 장면 총리는 거국내각의 구성을 공약하였으나, 구파측의 입각 거부와 신파내 소장의원들의 반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신파중심 내각을 구성하게 되었다. 신파중심의 내각구성은 구파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으며 구파는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장면 내각의 3차례에 걸친 개각과정에서 양파간의 알력은 더욱 심화되어 결국 1961년 2월에는 구파가 신민당(新民黨)으로 발족하여 신파와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다. 그 동안 민주당의 신파와 구파는 연립내각 구성문제 등을 놓고 여러 차례에 걸쳐 협상을 하였으나 별 소득이 없었으며, 이철승(李哲承) · 김재순(金在淳) 등 18명의 신파 소장 의원들이 '소장동지회'를 구성

17) 김현우(2000), 『한국정당통합운동사』, 온유문화사, 341쪽.

하고 구파의 소장의원들과 협력하여 신 · 구파간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였으나 역시 성과가 없었다.

2) 신민당

제2공화국 정부의 국무총리 선출을 둘러 싼 경쟁에서 패배한 민주당 구파는 1960년 8월 구파의원들만을 중심으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구파민주당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것과 장면 내각에 입각을 거부할 것을 결정하였다. 8월 31일 구파는 86명의 의원으로 '구파동지회'라는 명칭의 교섭단체를 결성하고 원내총무에 유진산(柳珍山), 부총무에 이민우(李敏雨), 김영삼(金泳三)을 선출하였다.

구파동지회는 11월 8일에는 신당발기준비대회를 개최하여 선언 · 강령 · 정책 등을 채택하였으며, 1961년 2월 20일 신민당(新民黨)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신민당은 창당선언문에서 김성수, 신익희, 조병옥 등의 유업을 계승한 보수정당임을 자처하였으나, 신민당의 정강 · 정책이나 당헌 · 당규 등이 민주당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양당이 모두 보수정당이라는 점에서도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당시 신민당은 '반쪽만의 야당'이란 말을 듣고 있었는데, 신민당이 민주당에서 분당하여 나온 이유와 양당의 성향, 구성인물을 볼 때 신민당이 온전한 야당이 되기는 어려웠다.[18]

18) 위의 책, 363쪽.

3) 자유당, 공화당

제1공화국에서 집권세력이었던 자유당 의원들은 4.19혁명 이후 대부분 당을 떠났으며 조경규, 이활(李活) 등 일부 잔류파 의원들은 자유당 정권의 과오를 시인하고 보수혁신의 여러 정파들을 규합하여 자유당의 재건을 기도하였다. 1960년 6월 104명의 국회의원이 자유당을 탈당했으며, 그 중 4명은 '헌정동지회'를 결성하였다.

1960년 7 · 29 총선에 약 100여 명의 자유당 당원이 자유당, 헌정동지회 또는 무소속 등으로 출마하였으나, 민의원 의원과 참의원 의원을 합하여 10여 명만이 당선되었다. 이에 자유당 잔류파는 신민당의 중도파, 통일당,

조민당 중견파, 한국사회당 탈퇴자, 한국독립당 보수파, 노농당 탈퇴파, 민족주의민주사회당 잔류파 등 7개 정치세력과 연합하여 11월 15일 공화당(共和黨)을 결성하고 최고위원으로 김준연, 이갑성, 이윤영, 조경한, 조경규 등 5인을 추대하였다. 공화당의 창당으로 자유당은 소멸되었다.

4) 혁신 정당

제2공화국은 제1공화국에 비해 혁신 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혁신세력들은 정치적 입지와 지지기반을 구축하는 데 실패했으며, 더욱이 지도층 내부의 분열로 이합집산을 거듭했다. 제2공화국 시기에 있어서 혁신정당들로는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혁신동지총연맹, 통일사회당 등이 있다.



제2공화국은 제1공화국에 비해 혁신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혁신세력들은 정치적 입지와 지지기반을 구축하는 데 실패했으며, 더욱이 지도층 내부의 분열로 이합집산을 거듭했다.

먼저 1960년 5월 13일 진보계와 근민당, 민혁당 계열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사회대중당은 7 · 29 총선에서 민의원 의원 129명, 참의원 의원 6명을 공천하였으나 민의원에 4명, 참의원에 1명만이 당선되었다. 그 후 사회대중당 내부에서 진보당계와 비진보당계간, 그리고 진보당계 내부에서도 김달호(金達鎬)계와 비 김달호계 간의 견해 차이로 김달호계 만이 11월 24일 별도로 사회대중당을 창당하였다.

한국사회당은 1960년 5월 21일 전진한 등 민족주의민주사회당 세력이 결성한 정당으로, 7 · 29 총선에 총 21명의 후보를 공천하였으나 민의원에 1명, 참의원에 1명만이 당선되었다. 그 후 전진한이 8월 4일 탈당 선언을 함으로써 한국사회당은 와해되었으며, 일부세력은 사회당의 비진보계와 연합하여 독립사회당을 결성했다.

혁신동지총연맹은 1960년 5월 12일 김창숙(金昌淑), 장건상(張建相), 유림(柳林), 권오순(權五淳) 등이 결성한 정당으로, 7 · 29 총선에 14명의 공천자를 입후보시켰으나 전부 낙선하였다. 그 후 일부는 사회대중당의 비진보당계와 독립사회당의 결성을 추진하였으며, 장건상 등은 윤길중과 혁신당 결성을 추진하였다.

그 후 혁신정당의 각 파는 통합을 추진하여 1961년 1월 21일 서상일 등의 사회대중당 이탈파, 사회대중당의 윤길중계, 한국사회당, 혁신연맹, 고정훈의 사회혁신당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통일사회당을 결성하였다.[19]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73), 「대한민국정당사」 제1집(1945-1972), 258쪽.

3. 성남 · 광주지역의 정당활동

제2공화국 기간인 1960~1961년 사이 성남지역은 주로 광주군 중부면에 속하여 광주군 선거구에 편입되어 있었다. 1960년의 제5대 국회의원(민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광주군 선거구에 출마한 12명의 후보자들 중 2명만을 제외하고 10명이 모두 무소속 출마자들이었는데, 이는 자유당 정권이 붕괴된 상황에서 많은 구여권 인사들이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였기 때문이다. 이 선거에서는 무소속의 신하균(申河均)) 후보가 민주당과 자유당의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물리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당시 민주당 후보는 장동국, 자유당 후보는 박재덕이었는데 각각 5,835표, 2,564표로서 신하균 후보의 24,098표에 비해 역부족이었다. 당선된 신하균 후보는 본래 민주당 소속이었던 야권 인사로 제3공화국 초기에 가서 민주당 구파 중심의 민정당에 참여하게 된다.

제4절 제3공화국

1. 국내 정치상황

5.16 군사혁명 정부는 5월 19일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고 사법부를 통제하며 내각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발족시키고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공포하여 제2공화국의 헌법을 정지시켰다. 1961년 5 · 16쿠데타로 인하여 모든 정당 · 사회단체가 해체되고, 1960년 7.29총선을 통하여 수립된 제2공화국은 헌정(憲政)을 중단하게 된 것이다. 한편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2년 3월 16일 정치활동정화법을 제정하여 구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중단시켰다.

1962년 말에 이르러 군사혁명 정부에서는 민정이양준비로서 헌법 개정

을 비롯하여 정당법과 선거 관계법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대통령 책임제와 단원제를 골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이 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에 회부되어 유권자의 85.3%가 참여하여 78.8%의 찬성을 얻음으로써 확정되었으며, 개정헌법에 따라 정당 법안이 12월 31일 국가재건최고회의를 통과하였다.[20] 그리고 1963년 1월 15일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과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이 제정·공포되었다.

20) 이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정당관계법이 제정되었는데, 정당법 제정의 목적은 건전한 정당정치의 구현을 위하여 복수정당의 보장과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안희수(1995), 『한국정당정치론』, 나남출판, 373쪽.

1963년 1월 1일부터 정치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5.16 주체세력을 중심으로 한 민주공화당(民主共和黨)이 2월26일에 가장 먼저 창당되었으며, 이어 재야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민정당, 민주당, 신정당, 자유민주당 등이 창당되었다.

제3공화국에서 첫 번째 대통령선거인 제5대 대통령선거가 1963년 10월 15일 실시되어 민주공화당의 박정희(朴正熙)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11월 26일에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민주공화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했다.

제3공화국의 공화당 정부는 경제개발을 국가의 제1차적인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는 군사쿠데타로 인해 결여된 정치체제의 정통성을 보완하려는 의도와 당시 경제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21]

21) 1961년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 미만이었고, 가계소득 가운데 70% 정도는 의식주에 소비되고 있었다: 경제기획원(1975), 『한국통계연감』, 286~287쪽.

그 결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1962~1966)에는 연평균 8.3%,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1967~1971년)에는 연평균 11.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제3공화국 정부는 1964년 3월 여당과의 연석회의에서 5월중 한·일 국교를 정상화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정당, 민주당, 자민당, 국민당 등 야당들과 대학생들은 한·일 회담 반대시위를 전개했으며, 특히 학생시위는 6월까지 계속 확산되어 6월 3일에는 전국적으로 가두시위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1년여의 시간이 경과한 1965년 8월 11일 한·일 협정 비준안이 월남파병안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또한 1967년 5월 3일에 실시된 제6대 대통령선거와 6월 8일의 제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 정부는 1969년부터 대통령 3선을 허용하는 개헌작업에 착수하였고, 박정희 대통령은 '7.25 특별담화'를 통해 개헌

안을 자신의 신임과 결부시켜 국민투표에 회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개헌안은 통과를 저지하려는 학생시위와 야당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9월 14일 국회에서 공화당의 개헌 지지파 의원들만 소집된 가운데 변칙적으로 통과되었다. 그리고 '3선 개헌안'은 10월 17일 국민투표에서 약 65%의 찬성을 얻어 통과됨으로써 박대통령의 3선 출마의 길을 터놓게 되었다.[22]



〈사진 3-7 : 4〉박정희 제5대 대통령 취임

그 후 1971년 4월 27일 실시된 제7대 대통령선거와 5월27일의 제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장기집권과 성장우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으로 공화당은 어렵게 승리했다. 당시 야당인 신민당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약 95만표 차이로 선전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총 204석 중 89석 확보라는 예상외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그 밖에 공화당 정부의 정치 · 경제적 정책에 대한 불만은 1971년부터 의료파동, 사업파동, 광주단지 주민파동, 한진상사사건 등으로 표출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러한 정권적 위기에 직면하여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1972년 '10월유신'을 선언함으로써 보다 강화된 형태의 권위주의체제가 등장하였다.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 286쪽.

2. 정당활동

제3공화국 시기의 정당은 5.16 주도세력이 중심이 된 민주공화당과 민정당 · 민주당-민중당-신민당 등으로 이어지는 야당세력으로 대별된다. 제2공화국의 민주당 신파와 구파는 제3공화국 수립과 동시에 각각 민정당과 민주당을 창당하였다가 민중당으로 통합하였고, 민중당은 대통령후보 문제로 잠시 분당하였던 윤보선 등의 신한당과 함께 신민당으로 통합하여 제4공화국까지 이어졌다.

그 밖에 1963년 초 정치활동이 재개되면서 재야정치세력이 단일야당 형성을 위하여 발기한 연합정당의 성격을 가진 '국민의 정당'이 있었으나 약

1년여 기간 동안 존속한 후 민주당에 흡수 · 통합되었고, 혁신 정당은 거의 발을 붙이지 못했다.

1) 민주공화당

1963년 1월부터 정치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5 · 16 주도세력을 중심으로 신당 움직임이 가속화되었다. 1월 10일 김종필 등 12명이 최초의 발기모임을 가진 데 이어,[23] 1월 18일에는 재건동지회, 학술단체, 지식인층, 소수의 구정치인 등 78명의 발기인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공화당 창당을 위한 발기인대회가 개최되고 위원장에 김종필을 선출하였다. 신당 결성과정에서 당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5 · 16주도세력 내부에 반발세력이 나타났으나 2월 2일 창당준비대회를 개최하는 등 창당 작업은 김종필(金鍾泌)의 구상대로 진행되었다.[24]

그러나 당의 2원화 조직체계 도입 등 반발이 거세져서 창당의 산파역인 김종필은 결국 2월 25일 민주공화당(공화당) 창당을 하루 앞두고 외유길에 오르게 되었다.

공화당은 창당과정에서 빚어진 분규를 수습하고 2월 26일 창당대회를 개최하여 총재에 정구영(鄭求瑛), 당의장에 김정렬(金貞烈)을 선출했으며, 5월 27일 제2차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박정희(朴正熙)를 대통령후보로 지명했다. 그리고 그 해 8월에 개최된 제3차 전당대회에서는 정구영 공화당 총재가 당고문에 추대되고 박정희가 당총재로 선출되었다.

1963년 10월의 대선과 11월의 총선에 대비하여 김종필이 귀국하여 당의장을 다시 맡게 되었으며, 공화당은 제5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 후보를 당선시킴과 아울러 제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총 175개의 의석 중에서 지역구 88명과 전국구 22명을 당선시킴으로써 67.1%의 당선율을 기록하였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후 공화당은 당내 조직체계를 둘러싸고 육사 8기생 및 공화당 사무직원을 중심으로 김종필을 지지하는 주류와 김종필에 반대하는 군부출신 및 민간정치인들로 구성된 비주류간에 대립이 진행되었다. 그러던 중 1964년 한 · 일국교정상화를 반대하는 정치적 시위가 격화되자 김종필이 책임을 지고 당의장직을 사임하고 2차 외유를

23) 신당 조직을 위한 최초의 발기모임의 참석자는 김종필(金鍾泌), 김성진(金晟鎭), 김정렬(金貞烈), 김동환(金東煥), 김재순(金在淳), 김원전(金元全), 박현숙(朴賢淑), 서태원(徐泰源), 윤일선(尹日善), 윤주영(尹胄榮), 이원순(李元淳), 조응천(曺應天) 등 12명이다. 민주공화당(1973):『민주공화당사』. 공화출판사, 36쪽.

24) 김종필 플랜으로 알려진 당의 2원조직에 대해 김동하(金東河) 등이 비민주적이며 창당과정에 사용된 정치자금의 출처가 의심스럽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함으로써 민주공화당의 결성은 처음부터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떠나게 되었다.

1965년 1월 당헌을 개정하기 위한 주류측과 비주류측의 협상으로 오랫동안 정치적 쟁점이 되었던 공화당 조직체계는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당의 2원조직 문제가 일단락되고 사무총장에게 집중되어 있던 인사권과 재정권이 분리되었으며, 사무국 조직에 비해서 당소속 국회의원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지구당위원장이 지구당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요원의 임명제청권을 지니게 됨으로써 사실상 2원조직은 와해되고 지구당은 지구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일원화되었다. 사무국의 인원도 약 절반으로 축소되었으며, 반김종필세력인 비주류세력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자유당출신의 구정치인들이 공화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비주류에 가담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가시키고자 함으로써 공화당의 응집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유당출신의 구정치인들이 공화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비주류에 가담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가시키고자 함으로써 공화당의 응집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공화당은 1965년 12월 제3차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박정희를 총재로 재선출하고 김종필을 당의장으로 선출했으며, 1967년 2월 제4차 전당대회에서 박정희를 대통령후보로 공천하였다. 그리고 1967년의 제6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朴正熙) 후보는 신민당의 윤보선 후보보다 약 116만표를 많이 획득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 해 6월 8일 실시된 제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화당은 의원총수 175명 중 지역구 102명과 전국구 27명을 당선시켰다. 그러나 총선 후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야당과 학생들의 데모가 확산되면서 공화당은 사태수습을 위하여 관련자들을 몇 차례에 걸쳐 제명하였으며, 이로써 공화당 소속 의석은 개헌가능 의석수인 117석에 못 미치는 114석이 되었다.

제7대 총선 후 공화당 내부에서 발생한 몇 차례의 권력구조의 변동은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강화로 귀결되었다. 먼저 김종필 중심의 공화당 주류는 1968년 초 공화당의 정치적 후계자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국민복지회사건과 1969년 4월 8일 야당이 제출한 권오병 문교부장관 해임동의안의 국회통과와 관련한 '4·8 항명파동'을 거치면서 결정적으로 와해되었다. 그리고 김종필 세력의 몰락과 더불어 부상한 길재호(吉在號), 백남억(白南檍), 김성곤(金成坤), 김진만(金振晩) 등 4인체제도 오치성 내무부장관의 해임동의안을 둘러싼 '10·2 항명파동'으로 몰락의 길을 걸으면서 박정희를 정점으로 하는 친정체제가 확립되었다.[25]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 374-388쪽.

1971년의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은 박정희 후보를 내세워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와 접전끝에 승리하였으며, 그 해 5월의 제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총 국회의원 175명 중 지역구 86명과 전국구 27명을 당선시켰다.

2) 민정당

1962년 3월 윤보선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범야 대동단결로서 민간세력을 총규합하여 순수한 단일야당을 형성할 것"을 제창한 것을 효시로 하여, 1963년 1월 정치활동의 재개와 더불어 구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한 범야단일정당 형성운동이 본격화되었다. 각 정파가 몇 차례에 걸쳐 단일정당을 위한 협상을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결국 김병로(金炳魯), 윤보선(尹潽善), 이인(李仁), 전진한(錢鎭漢) 등을 중심으로 구신민당, 구자유당, 구민주당 등 일부와 무소속이 연합하여 민정당을 결성하기로 하고 1월 27일 창당발기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5월14일 창당대회를 개최하였다.

민정당은 6월 12일 윤보선을 대통령후보로 지명하고 대통령선거전에 돌입하는 한편, 당초 의도하였던 범야 단일정당 형성을 위해 신정당, 민우당과 3당이 통합하는 '국민의 당' 창당을 추진하였으나 대통령후보 지명문제에 대한 계파간 견해 차이로 결렬되었다.

1963년의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야당후보의 난립으로 고전하던 민정당은 10월 2일 허정(許政) 국민의당 대통령후보에 이어, 송요찬(宋堯讚) 자유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사퇴로 윤보선이 사실상 야당 단일후보가 됨으로써 종전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1963년의 제6대 대통령선거 결과 윤보선은 유효투표의 45%에 해당하는 약 450만표를 득표하였으나 근소한 차이로 박정희에게 패배하였다.

그 해 11월의 제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정당은 지역구 131석 중 27석과 전국구 14석을 획득하여 제1야당으로 등장하였다.



한·일 국교회담이 진행되면서 민정당은 민주당, 자유민주당, 국민의당과 함께 '대일저자세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한·일 국교협상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한·일 국교회담이 진행되면서 민정당은 민주당, 자유민주당, 국민의당과 함께 '대일 저자세 외교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한·일 국교협상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한편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의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인 윤보선계와 온건노선을 취한 유진산계간의 알력이 첨예화되어 1964

년 10월 8일 유진산(柳珍山) 의원이 민정당에서 제명되었다. 민정당은 당내 분규를 수습한 뒤 당세 확장을 위하여 자유민주당과의 통합을 추진하였으며, 11월에 제2차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자유민주당을 흡수·통합하였다. 자유민주당은 김재춘(金在春)이 주축이 되고 송요찬, 소선규, 김도연, 김준연 등이 규합하여 1963년 9월 3일 창당된 정당으로,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6명, 전국구 3명을 당선시키고 민주당, 국민의 당과 함께 삼민회(三民會)라는 명칭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었다.

민정당은 1965년 1월 초 한국군의 월남 파병문제가 제기되자 찬·반 양론을 벌인 끝에 월남파병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으며,[26] 한·일 국교정상화 문제가 다시 대두되자 민주당과 함께 '대일 굴욕외교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전국 순회강연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민정당과 민주당은 통합을 추진하여 5월 3일 통합야당인 민중당을 창당하였다.

26) 그러나 1965년 1월26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민정당 소속의원들이 분열한 가운데 한국군의 월남파병안이 통과되었다. 월남파병의 반대이유로는 ① 명분이 뚜렷하지 못하고 희생이 클 수 있으며, ② 국제적 연쇄반응과 이에 따른 국내정세의 우려할 사태 가능성이 있으며, ③ 출병으로 휴전선 방위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위의 책, 469쪽.

3) 민주당

1963년 1월부터 정치활동이 재개되면서 구 민주당출신인 박순천, 이상철, 홍익표, 현석호 등이 모임을 갖고 정당결성을 협의하였다. 민정당이 주도하는 범야단일정당 협상이 결렬되자 이들은 독자적인 창당 작업을 벌이기로 하고 2월 1일 민주당 창당준비대회에 이어 7월 18일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박순천(朴順天)을 당수로 선출하였다. 다른 정파와 달리 민주당은 지도적 인사들 대부분이 정치활동정화법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허정 등의 신정당(가칭)과 통합을 모색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1963년의 제5대 대통령선거에는 입후보자를 내세우지 않았으며, 11월의 제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8석과 전국구 5석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민주당은 자유민주당, 국민의 당과 함께 삼민회라는 교섭단체를 결성하여 국회 활동에 임했으며, 한일국교 정상화 문제가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자 민정당 및 재야 각계와 연합하여 '대일 굴욕외교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민주당은 1964년 9월 17일 '국민의 당'을 흡수·통합하였으며, 1965년 5월 3일 통합야당인 민중당을 창당하였다.



민주당은 자유민주당, 국민의 당과 함께 삼민회라는 교섭단체를 결성하여 국회 활동에 임했으며, 한일국교 정상화 문제가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자 민정당 및 재야 각계와 연합하여 '대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4) 국민의 당

국민의 당은 1963년 초 구정치인들에 대한 정치활동이 허용되면서 재야정치세력이 단일야당 형성을 위하여 발기한 연합정당의 성격을 가진 정당이다. 당초 국민의 당은 김병로 · 윤보선 등 민정당계, 허정 등 신정당계, 이범석 등 민우당계, 정민회, 무소속 등 이미 창당을 완료하였거나 창당 준비 중에 있는 정파들이 재야세력의 결속된 힘만이 군정세력과 맞설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추진한 통합운동이었다.[27]

27) 김현우, 앞의 책, 403쪽.

이러한 취지에서 1963년 8월 1일 창당발기인대회에 이어 9월 5일 창당대회를 개최했으나, 윤보선과 허정간의 대통령후보 조정 및 민정당계의 법통고수 문제로 국민의 당으로의 야권통합은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결국 9월에 민정당계 인사들이 별도로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고 윤보선을 대통령후보로 내세우기로 함에 따라 국민의 당은 비 민정당계만의 불완전한 야권통합을 이루게 되었다.

그 후 국민의 당은 대통령후보로 허정(許政)을 내세웠으나 선거전에 대통령후보를 사퇴하였으며, 제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2명만이 당선되었을 뿐이다. 국민의 당은 민주당, 자유민주당과 함께 삼민회를 구성하여 국회활동에 임했으며, 1964년에 민주당에게 흡수 · 통합되었다.

5) 민중당

국민의 당이 민주당에, 자유민주당이 민정당에 각각 흡수 · 통합됨으로써 야권은 크게 2개의 정당으로 정비되었으나 재야정당 단일화 여론이 고조되면서 1965년 5월 3일 양당이 통합하여 단일야당으로서의 민중당이 창당되었다.

5.3 통합선언 이후 6월 14일 개최된 민중당 창당대회에서 민정당계의 윤보선과 민주당계의 박순천이 대표최고위원 경합을 벌인 결과 소수그룹의 박순천(朴順天)이 선출되는 뜻밖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다수파인 윤보선이 소수파인 박순천에게 패배한 이유는 자유민주당계 일부 및 민정당계의 유진산계와 연합전선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28]

28) 전당대회 전의 양당의 의석수는 민정당 47석, 민주당 15석이었으며 소위 진산파 동으로 유진산계가 윤보선과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다: 위의 책, 449쪽.

한편 제3공화국이 출범한 후 여 · 야간 정치적 쟁점의 핵이었던 '한 · 일

협정'이 1965년 6월 22일 정식으로 조인되자 민중당은 국회비준을 저지하기 위해 연좌데모와 성토대회, 단상점거 등 장내·외 투쟁을 벌였다. 시국수습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7월 20일 박정희 대통령과 박순천 대표최고위원간의 여·야 영수회담이 열렸고, 이 회의에서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한·일 협정 비준동의안과 월남파병동의안을 다룬다는 것이 합의되었다.

한·일 협정의 국회비준과 관련하여 민중당내에서 박순천 중심의 온건 협상파와 윤보선 중심의 강경 반대파가 대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윤보선, 정성태, 서민호 등 강경파 의원들은 원외 세력과 연합하여 11월 1일 신당 결성을 선언하였고 1966년 3월 30일 신한당(新韓黨)을 창당하였다.

민중당은 당초 제6대 대통령선거의 대통령 후보로 원외인사인 유진오(兪鎭午)를 지명하였으나, 1967년에 접어들어 통합 야당과 대통령후보 단일화문제가 급진전되면서 2월 7일 신한당과 신민당으로의 통합을 선언하고 대통령 후보에 윤보선, 당수에 유진오를 선출하였다.

6) 신민당

민중당과 신한당의 통합야당인 신민당은 1967년의 제6대 대통령선거에서 윤보선(尹潽善)을 대통령후보로 내세웠다. 제5대 대통령 선거 때와 같이 박정희 후보와 윤보선 후보가 여당과 제1야당의 후보가 되어 두 번째로 격돌한 선거였는데, 윤보선은 약 452만표를 획득하여 약 568만표를 얻은 박정희 후보에게 약 116만표 차로 패배했다. 윤보선은 대통령선거 결과의 발표가 있은 후 정계은퇴 의사를 밝혔다.

1967년의 제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신민당은 지역구 27석 전국구 17석으로, 공화당의 지역구 102석, 전국구 27석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6.8 총선 이후 선거 부정사례들이 드러나면서 여·야간의 극한적인 대치상황이 장기화되자 공화당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의원들을 제명하고, 신민당과의 정국수습을 위한 대표회담을 개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대한 공동성명서와 의정서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제7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6개월가까이 끌어온 부정선거 파동은 일단락되고 국회개원 142일만에 국회가 정상화되었다.[29]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73), 「대한민국정당사」제1집 (1945-1972), 668쪽.

1969년에 접어들어 일련의 3선개헌 논의가 전개되면서 신민당은 8월 5일 '3선개헌 저지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전국순회시국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3선개헌 저지투쟁에 총력을 집중하였다.

한편 신민당은 3선개헌의 국회처리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에 지지의사를 밝힌 성낙현 의원 등 소속의원 3명을 제명하고, 이들의 의원직 박탈과 개헌저지를 위해 9월 7일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당의 해체를 결의했다. 이로써 신민당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남게 되었고, 이들은 곧바로 '신민회'라는 명칭의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국회에 등록했다.

신민당은 해체된 지 13일만인 9월 20일 창당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당의 체제와 인원을 그대로 복원하였다. 3선개헌 저지투쟁이라는 상황에서 한 정당이 해체되었다가 13일 만에 재건되는 비정상적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30]

30) 위의 책, 688쪽.

3선개헌안은 신민당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9월 17일 공화당 소속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10월 17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65.1%인 755만여 표를 얻어 확정되었다.

신민당은 1970년 1월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당수에 유진산(柳珍山)을 선출하였다. 이에 앞서 자유당과 한국독립당을 흡수·통합하고, 이철승 등 원외 인사 20명과 윤길중 등 혁신계 인사 16명이 신민당에 입당하는 등 당세를 확장하였다.

신민당은 1971년의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9월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였다.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둘러싸고 40대기수론을 제창한 김영삼(金泳三), 이철승(李哲承), 김대중(金大中) 등이 경쟁하였는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한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2차 투표를 한 결과 재석 884명 중 김대중 458표, 김영삼 410표, 무효 16표로 김대중이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다.

1971년의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는 약 539만표를 획득하여 약 634만표를 획득한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에게 패배하였다. 신민당 후보의 패인은 유권자들의 보수적 심리, 지역정서의 표출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당내 유력인사들이 국민당으로 당적을 바꾼 당내부의 결속 결여문제도 들 수 있다.[31]

31) 김한우, 앞의 책, 490쪽.

그 해 5월에 실시예정인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민당은 유진산 대표위원이 지역구를 포기하고 전국구 1번으로 등록하는 소위 '전국구 파동'이

발생함으로써 지도체제의 내분을 겪게 되었다. 유진산의 제명을 요구하는 김대중 등 비주류측과 이에 맞서는 주류측간의 협상과정을 거쳐서 유진산이 총재직 사표를 제출하고 김홍일(金弘壹) 전당대회 의장이 대표위원 권한대행을 맡기로 함에 따라 일단락되었다.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신민당은 유진산 대표위원이 지역구를 포기하고 전국구 1번으로 등록하는 소위 '전국구 파동'이 발생함으로써 지도체제의 내분을 겪게 되었다.

1971년의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은 지역구 65석, 전국구 24석 등 총 89석을 획득하는 예상외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총선 후 신민당은 7월 20일 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였다. 김홍일, 김대중, 양일동이 입후보한 가운데 1,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3차 투표에서 재석 975명 중 444표를 얻은 김홍일이 370표를 얻은 김대중을 누르고 대표위원에 선출되었다. 그러나 1972년에 신민당은 지도체제 개편문제를 둘러싸고 내분상황에 직면하였다. 9월 26일 전당대회에서 유진산(柳珍山)을 다시 대표위원으로 선출하였으나, 김홍일계 등 비주류측의 거부로 양파간의 분쟁이 격화되어 당 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신민당은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으로 국회 해산과 더불어 일체의 정당 및 정치활동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됨에 따라 당 활동이 중지되었다.

3. 성남 · 광주지역의 정당활동

해방 직후인 1946년 이래 설치 · 운영되어 온 광주군 중부면 성남출장소는 증가된 인구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1964년에 광주군 직할 성남출장소로 승격되었다. 그 후 1969년 5월부터 서울시 철거민 집단입주가 시작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1971년 9월에 경기도 관할 성남출장소로 승격되었다.[32] 그러나 아직 단독 선거구로 되지는 못하였으며, 제3공화국 시기에는 오히려 전국구 비례대표제 채택 등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으로 지역구가 줄어들면서 성남시가 속한 선거구는 광주군과 이천시의 통합선거구로 확대되었다.[33]

지역단위의 정당활동은 제3공화국 전 기간을 통해 5.16 주도세력이 중심이 된 민주공화당과 민정당 · 민주당-민중당-신민당 등으로 이어지는 야당세력간의 선거를 통한 대결로 압축할 수 있다.

32) 1971년 성남출장소의 관할 인구수는 14여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성남시, 앞의 책, 29쪽.

33) 제3공화국헌법 성립 후 이루어진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으로 지역구는 종래의 233개에서 131개로 축소되고 전국구가 그 3분의 1인 44석이 신설되어 총 175석이 되었다.

특히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창당 시부터 조직원리로서 인물중심의 정당 탈피, 국민적 정당을 내세우면서 중앙사무국 아래 시 · 도지부 사무국을 두고 그 밑에 지구당 사무국을 두었으며, 각 지구당 사무국은 읍 · 면 · 동 단위에 관리장과 관리차장을 두는 등 지구당 활동이 활발하였다.[34] 이 같이 민주공화당은 단위행정 조직마다 체계적인 기간조직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였는데, 성남지역이 속해 있는 광주지구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비해 야당세력들은 당헌상 지구당 조직은 있었으나 체계적인 지방조직을 갖추지 못하였다.

34) 그밖에 이 · 통 단위에는 활동장을 두고 그 밑에 활동차장, 청년활동차장, 부녀활동차장 등을 두었으며, 자연부락 및 반 단위에는 연락장 밑에 연락차장 및 핵심당원들을 두기도 하였다: 김운태 외(1985), 「한국정치론」, 박영사, 321쪽.

이 시기의 주요 정당들은 대통령선거시 중앙, 시 · 도, 지구당별로 대통령선거 중앙대책위원회, 대통령선거 시 · 도대책위원회, 대통령선거 지구당 대책위원회 등 별도의 선거대책기구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였는데, 1963년 제5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민주공화당의 지구당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하였다.[35]

35) 민주공화당, 앞의 책, 97쪽.

성남 · 광주지역의 정당으로는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창당 직후인 1963년 3월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지구당 창당을 등록하였고, 민정당과 민주당의 통합야당인 민중당이 중앙당 창당 2년 후인 1967년 5월에 지구당을 등록하였으며 그 후 민중당과 신한당의 통합으로 신민당이 되었다.

제3공화국 시기에 있어서 성남 · 광주지역의 지구당 현황을 등록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7-1]과 같다.

(표 7-1) 성남 · 광주지역의 지구당 현황

선거구	정 당	대 표 자	등록일자	소멸일자	비고
	민주공화당	유흥목(兪興穆)	1963. 3.13	1973. 6. 3	
광주군 · 이천군	자 유 당	엄유섭(嚴維燮)	1963.10.18	1973. 6.13	
	민주사회당	김홍수(金興洙)	1966.11. 3	1973. 6.29	
	통일사회당	김상균(金相均)	1967. 3.20	1973. 9. 4	
광주군 · 이천군	민 중 당	권오전(權五典)	1967. 5. 6	1973. 7. 2	
	국 민 당	곽인식(郭寅植)	1970.12. 4	1973. 7. 2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의 주된 정당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3공화국 시기의 성남 · 광주지역에 있어서의 국회의원 선거 상황을 살펴보면, 제3공화국 수립 직후 실시된 경기도 제5지구 선거구(광주군 · 이천군)

의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인 민정당의 신하균(申河均) 후보가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최하영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되었다. 그리고 1967년의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5.16 주도 세력인 민주공화당의 차지철(車智澈) 후보가 신민당의 신하균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앞질러 당선되었으며, 차지철 후보는 1971년의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신민당의 유기준 후보를 이겨 재선되었다.

제5절 제4공화국

1. 국내 정치상황



북소(北蘇), 북중(北中)간의 군사동맹 강화와 북한의 가중되는 남침위협은 냉전체제 완화와 평화공존체제라는 국제 해빙무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의 사각지대를 형성하였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소(北蘇), 북중(北中)간의 군사동맹 강화와 북한의 가중되는 남침위협은 냉전체제 완화와 평화공존체제라는 국제 해빙무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의 사각지대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금지 등 약 2개월간 초헌법적 조치를 단행하고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10월 27일 비상국무회의에 의해서 헌법개정안이 공고되고 11월 21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헌법개정안은 91.5%의 지지를 얻어 확정되었다. 12월 15일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실시되고 12월 23일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대통령선출이 있었으며, 12월 27일에는 박정희 후보가 제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유신체제(維新體制)에서 대통령은 2,000명에서 5,000명으로 구성되는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고 국군통수권,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1/3 지명권, 긴급조치선포권 등 강력한 권한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써 경쟁적 정치과정과 의회민주주의 질서가 실질적으로 붕괴되고 중앙집권적 권력에 의한 통제와 억압이 강화되었다.

유신체제 등장의 이유는 크게 보아 대의정치의 무능, 남북대화의 지원, 국제정세 변동에의 대처 등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동시에 첫 번째 이유가

다른 두 가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남북대화와 국제정세 변동은 급격히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데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 해도 현재와 같은 무능한 대의기구 하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하므로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혁신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신체제의 등장은 국제정치적 측면 내지는 남북대화보다는 국내 정치상황에 기인하고 있으며, 국내 정치상황이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가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에게 어렵게 이긴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재집권이 어렵다는 상황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36]

36) 안해균(1986). 『한국행정체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39-240쪽.

유신정권은 정치적으로 반대세력을 무력화시키고 권위주의체제를 성립시킨 한편 경제성장을 통해서 정통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화학 공업화를 국가의 우선적인 정책으로 설정하고 모든 인적 ·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였는데, 중화학 공업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장률 및 수출성장률 증가라는 효과와 아울러 소득불균형, 지역격차, 대기업 집중 등의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37]

37) 1973년에 상위 10대 재벌기업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이던 것이 1978년에는 10.9%로 증가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지역간 소득격차 등도 심각하게 나타났다.

제4공화국에서는 정당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축소되었다. 민주공화당은 유신정우회라는 교섭단체의 등장으로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반분할 수밖에 없었으며, 야당인 신민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도 제도적으로 정부 · 여당에 대항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극한 투쟁의 방법을 추구하였다.

신민당은 1973년 2월 27일에 실시된 제9대 국회의원선거에 이어 1978년 12월 12일의 제10대 총선에서 공화당 의석에 육박하는 한편, 득표율에서도 공화당을 앞섬으로써 집권층에게 위기감을 조성하였다. 한국 선거사상 처음으로 중선거구가 채택되어 여 · 야 후보가 동반 당선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였지만 신민당은 분명한 약진을 이루었다.

1974년에 들어 야당과 재야운동단체, 노동자, 농민, 학생 등을 중심으로 유신체제 반대를 위한 개헌 투쟁이 전개되었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 긴급조치를 선포하여 개헌논의를 금지시켰다. 1975년에 들어서도 개헌에 대한 공방이 계속됨에 따라 박 대통령은 헌법 제49조에 따라 2월 12일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야당의 반대 속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유신헌법은 총 투표자의 73.1%의 찬성을 얻었다.

1970년대 말로 접어들면서 종교인, 학자, 지식인, 해직기자, 인권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한 재야단체는 민주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동안 점차 증가세를 보여온 노동자 집단도 방림방적(1977), 청계피복(1977), 동일방직(1978), YH무역(1978-1979) 등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YH무역 여공들의 신민당사 농성사건은 민감한 정치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유신체제에 대한 도전은 대외적 차원에서도 제기되었는데, 미국의 카터 행정부는 인권문제 및 주한 미군철수와 관련하여 유신체제에 대하여 커다란 압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1977~78년 박동선(朴東宣)의 미국내 로비활동은 한·미관계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유신체제에 대한 도전은 대외적 차원에서도 제기되었는데, 미국의 카터 행정부는 인권문제 및 주한미군철수와 관련하여 유신체제에 대하여 커다란 압력을 행사하였다.

1979년 5월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선명 야당의 기치를 내건 김영삼(金泳三)이 중도통합론의 이철승(李哲承)을 누르고 총재로 선출됨으로써 제1야당인 신민당의 지도 체제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김영삼 총재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정권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 사건으로 10월 3일 국회에서 제명되었고, 이는 곧 부마(釜馬)사태로 발전하였다. 얼마 후 10.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함으로써 유신체제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2. 정당활동

제4공화국에 있어서 정당활동은 10월 유신으로 중선거구제, 후보자의 기탁금제, 무소속 출마의 허용, 선거유세의 대폭적인 제한 등 정당정치적 성격을 완화하는 제도개혁이 이루어진 가운데, 여당인 민주공화당과 야당인 신민당의 양대 정당체제로 요약된다. 그 밖에 이 시기의 정당으로 신민당 세력의 한 분파인 민주통일당과 혁신세력인 통일사회당이 있었다. 통일사회당은 1967년 이래 정당 활동을 해 오던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존속요건을 보완하지 못하여 1973년 7월 2일자로 등록이 취소되었다가 12월21일에 다시 창당되었다.

1) 민주공화당

민주공화당은 1972년 10월 대통령 특별선언이 있자 긴급 당무회의를

소집하여 대통령의 특별선언 등 일련의 조치를 지지할 것을 의결하고, 12월 27일까지 일체의 정치활동 및 정당 활동을 중단하였다. 1973년 1월 5일 정치활동 재개 후 첫 당무회의를 개최하여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유신과업을 수행한다는 목표 하에 새로운 강령을 채택하고 개정 정당법에 맞추어 시·도지부 사무국을 시·도 연락실로, 구·시·군 지소를 구·시·군 연락지소로 축소·개편하는 등 당헌을 개정하였다.[38]

38)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1). 「대한민국정당사」 제2집 (1972-1980), 74쪽.

2월에 실시된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146석 중 73석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3월 7일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이 추천한 73명을 유정회 의원으로 선출함에 따라 국회 내 친여세력은 공화당과 유정회로 이원화되었다.

한편 1974년 1월 민주공화당의 초대 총재와 4대 당의장을 역임한 정구영(鄭求瑛)과 사무총장을 역임한 예춘호(芮春浩)가 유신체제에 반대하여 탈당함으로써 충격을 주었다.

1978년의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68석을 획득하여 신민당의 61석보다 7석을 더 많이 획득하였으나, 득표율에 있어서 신민당보다 1.1% 뒤졌다. 이것은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평가가 점차로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 후 공화당은 11월 12일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당헌을 개정하고 김종필(金鍾泌)을 제3대 총재로 선출하였으며, 대통령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세우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1980년 2월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확정하기도 하였다.

한편 김종필 총재의 취임 후 박찬종, 오유방, 남재희 등 소장의원들을 중심으로 공화당의 쇄신과 체질개선을 요구하는 정풍운동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공화당 지도부는 정풍파 의원들을 회유·설득하여 17명중 8명이 정풍파 대열에서 이탈하였으며, 4월에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이후락, 임호, 박찬종, 오유방 의원을 공화당에서 제명시킴으로써 정풍운동을 일단락지었다.

그러나 1980년 5·17조치로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됨에 따라 민주공화당은 창당 17년 8개월 1일만에 헌법 부칙 규정에 의거하여 자동 해산되었다.

2) 신민당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으로 중단되었던 정치활동이 1972년 12월 재개되었으나, 9월 26일 전당대회에서 빚어진 유진산계와 김홍일계간의 분쟁이 격화되어 분당의 위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1973년 1월 유진산 당수가 조속한 시일 안에 당 기구를 정상화하고 선거대책본부를 정상화한 뒤 당수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힘으로서 신민당의 내분은 진정되었다.

신민당은 곧이어 정일형(鄭一亨) 당수 권한대행 체제를 갖추고 1973년의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였는데, 이 선거에서 146석 중 52석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선거 직후 유진산의 당수직 사퇴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하고, 5월 7일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헌에 따라 유진산(柳珍山)을 총재로 선출하였다.

1974년 8월 유진산 총재의 사망으로 후임 총재를 선출하기 위해 개최된 전당대회에는 김영삼, 김의택, 정해영, 고흥문, 이철승 등 5명이 입후보하여 3차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경선을 벌인 결과 김영삼(金泳三)이 총재로 당선되었다. 김영삼 총재체제하에서 신민당은 원내 · 외에서 개헌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당내에 헌법개정추진기구를 설치 · 운영하였다.

1975년에 접어들어 윤보선, 김대중, 김영삼, 양일동 등 재야 및 야당지도자들이 야당통합 원칙에 합의하고 신민당과 민주통일당의 합당, 재야인사 영입문제 등을 논의하였으나 양당간 견해차가 해소되지 않아 결국 야당통합은 결렬되었다.

1976년 초 김영삼 총재의 지도노선을 둘러싸고 신민당내 주류측과 비주류측간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결국 주류측과 비주류측간의 협상을 거쳐 신민당은 9월 15일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집단지도체제 당헌을 채택하고 대표최고위원에 이철승(李哲承), 최고위원에 신도환, 이중환, 유치송, 고흥문, 김재광 등을 선출하였다.

이철승 신민당 대표최고위원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정부 · 여당과 협력해야 한다는 중도통합론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선명야당의 회복을 주장하는 비주류측 당원들이 '야당성 회복 투쟁동지회'를 결성하고 이철승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주류측과 비주류측간의 노선투쟁은 1978년 제10대 총선 때까지 지속되었다.

1978년의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은 81명의 공천자 중 61명이 당선되었으며, 유효득표 면에서 공화당의 31.7%보다 1.1% 더 많은 32.8%를 획득하였다. 이에 따라 자신감을 얻은 신민당은 대여투쟁과 대정부 비판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종래의 집단지도체제에서 단일지도체제로 전환하는 등 당내 체제를 정비하였다.

신민당은 1979년 5월 개최된 전당대회에서 선명야당으로서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김영삼(金泳三)을 다시 총재로 선출하였다.



YH무역회사 여종업원들의 신민당사 농성사건과 일부 원외지구당 위원장들의 전당대회 시 대의원의 무자격을 이유로 김영삼 총재 등 총재단 전원에 대한 직무정지를 법원에 제소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이 있었다.

그 해 8월에는 YH무역회사 여종업원들의 신민당사 농성사건과 일부 원외지구당 위원장들의 전당대회 시 대의원의 무자격을 이유로 김영삼 총재 등 총재단 전원에 대한 직무정지를 법원에 제소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이 있었다. 결국 법원이 이들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신민당 총재단의 권한 정지와 아울러 전당대회 의장인 정운갑(鄭雲甲)을 총재 직무대행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신민당은 사실상 2원적인 운영을 하게 되었다.

한편 9월 16일자 뉴욕 타임즈에 김영삼 총재가 카터 미행정부에 대해 박정희 정부에 대한 지지 종식을 요구한 기자회견 내용이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여당 측이 이를 사대주의로 규정하고 김영삼 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10월 4일 국회에서 신민당 의원들의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영삼의 국회의원직 제명이 통과되었다. 이 사건 이후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던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66명 전원과 민주통일당 의원 3명은 10·26 사태 이후 11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퇴서가 일괄 반려되었다.[39]

39) 위의 책, 303~304쪽.

1980년에 접어들어 범야세력의 통합과 야권 대통령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김영삼 총재 등의 당권파와 김대중 등의 재야인사측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4월 7일 김대중이 기자회견을 통해 신민당 입당 포기선언을 함으로써 야권통합은 무산되었다.

신민당은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되면서 1967년 2월 11일 창당된 이래 13년 8개월 만에 헌법 부칙에 의거하여 자동 해산되었다.

3) 민주통일당

민주통일당은 1972년 9월의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유진산이 대표위원으

로 선출된 것에 반발하여 반진산연합파가 만든 정당으로, 1973년 1월 27일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대표최고위원에 양일동(梁一東), 최고위원에 김홍일, 윤제술 · 정화암 · 김선태 등을 선출하였다.

민주통일당은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57명의 공천자중 불과 3명이 당선되었으며,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63명의 공천자 중 3명을 당선시키는 데 불과하였다.

1975년부터 범야세력 결집의 명분으로 신민당과의 합당 논의가 여러 차례 진행되었으나, 결국 1980년 10월 제5공화국 헌법의 공포로 1973년 1월 30일 창당 이래 7년 9개월 만에 헌법 부칙에 의거하여 자동 해산되었다.

3. 성남 · 광주지역의 정당활동

성남시는 서울특별시 외곽도시의 합리적인 육성을 위한 '시 설치와 군의 폐치분합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73년 7월 1일자로 성남시로 승격되었으나, 국회의원 선거구는 제4공화국 기간에 있어서 광주군 · 이천군 · 여주군 등과 함께 경기도 제4선거구의 한 선거구로 편입되었다. 이렇게 선거구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제4공화국 헌법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종래의 1선거구 1인의 소선거구제에서 1선거구 2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선거구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제4공화국 헌법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종래의 1선거구 1인의 소선거구제에서 1선거구 2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민주공화당과 신민당의 동반 당선의 양상을 보였는데, 경기도 제4선거구(성남 · 여주 · 이천 · 광주)에서도 1973년의 제9대 총선에서 민주공화당의 차지철(車智澈) 후보와 신민당의 오세응(吳世應) 후보가 동반 당선되었다. 그러나 1978년의 제10대 총선에서는 민주공화당과 신민당이 아니라 민주공화당의 정동성(鄭東星) 후보와 무소속의 오세응(吳世應) 후보가 당선되었다. 신민당의 유기준 후보도 6만여표를 득표하여 당선된 두 사람의 7만여표 선에는 못 미쳤으나 선전하였다.

성남 · 광주지역의 정당은 여당인 민주공화당과 더불어 제1야당인 신민당이 제3공화국시기부터 존립하였는데, 1972년 10월 유신 이후 정당활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1973년에 다시 지역선거 관리위원회에 등록하게 되

었다. 그 밖에 신민당으로부터 분리된 민주통일당이 중앙당 창당과 더불어 1973년 1월 27일 지구당 창당을 등록하였다.

제4공화국 시기에 있어서 성남 · 광주지역의 지구당 현황을 등록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7-2]와 같다.

[표 7-2] 성남·광주지역의 지구당현황

선거구	정 당	대표자	등록일자	소멸일자	비고
성남시 · 여주군 · 이천군 · 광주군	민주통일당	이윤수(李允洙)	1973. 1.27	1980.10.27	1980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 공포로 정당 자동 해산
	민주공화당	차지철(車智澈)	1973. 6. 4	1980.10.27	
	신 민 당	오세응(吳世應)	1973. 6.13	1980.10.27	
	조선민주당	서병국(徐丙國)	1976. 6.18	1976. 7.24	
	한국기민당	민호영(閔浩榮)	1978.11.14	1979. 3. 3	

제6절 제5공화국

1. 국내 정치상황

10.26사태 이후 위기관리를 위하여 1979년 10월 27일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최규하 정부는 긴급조치 9호 해제와 민주 구속인사의 석방 및 복권 검토 등을 통해 정국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려 했으나, 국회 · 재야단체와 일반시민들의 성급한 정치참여 욕구의 폭발로 인한 사회혼란으로 5.17 전국 비상계엄 확대조치로 연결되고 급기야 광주사태라는 비극을 초래하였다.[40]

40) 안해균(1986), 『한국행정체제론』, 서울대출판부, 370쪽.

광주사태 직후 전두환, 노태우, 김복동 등 신군부 세력은 초헌법적 국가기관으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국보위 상임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주요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규하 대통령은 1980년 8월 16일 대통령직을 사임하였으며, 뒤이어 국보위의 상임위원장과 국군보안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던 전두환 장군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전두환 대통령의 새로운 위기관리 정부는 정부 단독의 개헌작업과 사회 개혁을 통하여 제5공화국 출범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으며, 10월 22일 새 헌법이 국민투표로 확정되어 10월 27일 공포되었다. 그리고 1981년 2월 11일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가 실시되고, 2월 25일 대통령선거인단회의에서 전두환(全斗煥)이 제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됨으로써 제5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제5공화국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의 5년 단임제를 채택함으로써 평화적 정권교체를 보장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선출 방법으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를 택하여 후에 대통령 직선제로의 강력한 개헌 논의를 유발하게 하였다.

광주사태 직후 전두환, 노태우, 김복동 등 신군부 세력은 초헌법적 국가기관으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국보위 상임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주요업무를 수행하였다.

1980년 11월 25일 정치활동 규제조치와 아울러 정치활동이 허용됨에 따라 1981년 1월부터 많은 정당들이 앞을 다투어 창당되었는데, 민주정의당(1.15), 민주한국당(1.17), 민주사회당(1.20), 한국국민당(1.23), 민권당(1.23) 등이 그것이다. 1981년 3월 25일 실시된 제1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정의당이 지역구 90석, 전국구 61석 등 총 151석, 민주한국당이 지역구 57석, 전국구 24석 총 81석, 그리고 한국국민당이 지역구 18석, 전국구 7석 등 총 25석을 획득하여 국회는 이들 3개 정당에 의해 운영되게 되었다. 제11대 총선은 대부분의 구정치인들의 참여가 제외된 상태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정치 신인의 원내 진출이 확대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985년 2월 12일의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



〈사진 3-7 : 5〉 최규하 제10대 대통령 취임



〈사진 3-7 : 6〉 전두환 제11~12대 대통령 취임

필 등 15명을 제외한 모든 정치활동 피규제 대상자에 대한 해금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거 직전 창당한 신한민주당이 제1야당이 되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보다 큰 정치적 변화는 제12대 총선이 끝난 직후인 3월6일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에 대한 전면 해금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들의 행보가 정가(政街)의 비상한 관심을 끌게 된 것이다.

1986년에 들어 정국은 개헌 논쟁으로 인한 대결과 파행의 연속이었다. 연초 야권을 중심으로 개헌 서명운동 등 장외에서 전개되던 개헌 문제는 '4 · 30 청와대회담'과 '5 · 3 인천사태'를 계기로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장내로 복귀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여 · 야간 개헌 논의는 교착상태에 빠졌으며 야권 내에서도 개헌노선에 분열상을 보이기도 했다.[41]

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2), 「대한민국정당사」 제3집 (1980-1988), 35-42쪽.

1987년에 들어서면서 제5공화국의 권위주의 체제는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1월에는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였고, 4월에는 국민들의 직선제개헌 열망을 무산시켜 버린 전두환 대통령의 4 · 13 개헌논의 금지담화가 발표되었다. 6월 10일에는 민정당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노태우 대표위원을 대통령후보로 지명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그 동안 누적되어 왔던 국민들의 불만을 폭발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다.

야당인 민주당과 재야단체인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주도한 6월 10일과 6월 26일의 국민대회는 33개 도시와 4개 군 · 읍, 그리고 270개 지역에서 150여만명이 참여하여 6월항쟁의 절정을 이루었다.[42] 위기에 몰린 정부 · 여당은 6월 29일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으로 하여금 8개항을 담은 '국민대화합과 위대한 국가로의 전진을 향한 특별선언'을 발표하도록 하기에 이르렀다. 6.29선언으로 통칭되는 발표의 내용을 보면, ① 대통령직선제로의 헌법 개정 ② 대통령선거법 개정 ③ 김대중씨의 사면 · 복권과 시국관련 사범들의 석방 ④ 새 헌법에서 기본권조항 강화 및 인권신장 ⑤ 언론자유의 창달 ⑥ 지방자치제 및 교육자율화 실시 ⑦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⑧ 사회정화조치 실시 등이다.

42) 한국정치연구회(1990), 「한국정치사」, 백산서당, 402쪽.

6 · 29선언에 의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이 10월 27일의 국민투표에서 확정되고 10월 29일 공포됨으로써 제6공화국 헌법이 발효되었다.

2. 정당활동



제5공화국에 있어서 정당활동은 많은 구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이 규제된 상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신인들을 중심으로 한 정당들이 출현하였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신군부세력을 중심으로 한 민주정의당과 구신민당계열 인사들의 민주한국당, 그리고 구공화당 인사들의 한국국민당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을 비롯한 중진급의 정치활동 규제대상자들이 점차 해금됨에 따라 민주한국당은 신한민주당-통일민주당·평화민주당으로, 한국국민당은 신민주공화당으로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그 밖에 혁신정당으로 민주사회당 등이 있었다.

제5공화국에 있어서 정당활동은 많은 구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이 규제된 상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신인들을 중심으로 한 정당들이 출현하였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1) 민주정의당

1980년 11월 21일부터 정당활동이 허용됨에 따라 권정달, 이종찬 등 신군부세력은 공화당의 잔여 조직과 이재형(李載瀅), 유석현(劉錫鉉), 윤길중(尹吉重) 등 자신들에게 협조적인 여·야 정치인들을 규합하여 1981년 1월 15일 민주정의당을 창당하였다. 민주정의당(민정당)은 창당대회에서 전두환(全斗煥) 대통령을 초대 총재 겸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였다.

그 해 2월 11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인단 선거에서 민정당 소속 후보자 중 74.4%가 당선되었으며 2월 25일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 실시된 대통령 선거 결과 전두환 후보가 제12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1981년의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정당은 총 276석 중 90석의 지역구 의석과 61석의 비례대표제 의석을 획득하여 원내 제1당이 됨으로써 다당제 구도 하에서 다수 여당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였다. 1985년의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35.25%의 득표율로 지역구 87석, 전국구 61석 등 총 148석을 차지하여 원내 다수당이 되었으나, 득표율 29.26%로 지역구 59석 전국구 17석 등 총 67석을 차지하여 제1야당으로 진출한 신생 야당인 신한민주당의 거센 도전을 받았다.

한편 정래혁(丁來赫) 민정당 대표위원의 부정부패 사건과 전두환 대통령의 인척이 관련된 이철희·장영자의 어음사기 사건은 민정당의 신뢰성에 커다란 타격을 입혔다.



정래혁(丁來赫) 민정당 대표위원의 부정부패 사건과 전두환 대통령의 인척이 관련된 이철희·장영자의 어음사기 사건은 민정당의 신뢰성에 커다란 타격을 입혔다.

민정당은 사회세력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1987년 노태우(盧泰愚) 민정당 대표위원의 6·29선언에 의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87년 12월 16일 야당 대통령 후보가 난립한 상황에서 노태우 후보가 제13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민정당은 어렵게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였다.

2) 민주한국당

민주한국당은 5.18 이후 정치활동 규제 대상자 중 정치활동 적격자로 판정됨에 따라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유치송, 김은하 등 구신민당 소속의원 17명과 각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1981년 1월 17일 창당되었다. 민주한국당(민한당)은 창당대회에서 유치송(柳致松)을 당총재 겸 대통령후보로 추대하였다.

1981년 2월의 제12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한당 후보인 유치송은 7.7%에 해당하는 404표를 얻는데 그쳤으며, 3월에 실시된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한당은 유효 투표수의 21.6%를 획득하여 지역구 57석, 전국구 24석을 확보함으로써 제1야당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1985년의 제12대 국회의원에서는 지역구 26석, 전국구 9석 등 35석의 의석을 얻는데 그쳐, 신생 야당인 신한민주당에 제1야당의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43]

43) 중앙관리위원회, 앞의 책, 28쪽.

유치송 총재는 제12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재직을 사퇴하였으며, 민한당은 3월 30일 제3차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조윤형(趙尹衡)을 새 총재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국회의원 당선자 중 30명이 신한민주당, 2명이 한국국민당으로 집단 탈당하는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민한당에는 3명의 국회의원만이 남게 되었다. 조윤형 총재는 집단 탈당의 책임을 지고 총재직을 사퇴했으며, 이에 민한당은 9월 10일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유치송을 총재로 다시 선출하였다.

민한당은 그 후 제6공화국에 들어 1988년의 제13대 총선에서 한 명의 후보자도 당선시키지 못함에 따라 정당법 제38조에 의거하여 해체되었다.

3) 한국국민당

한국국민당은 5.18이후 정치활동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김종철, 양찬우,

이만섭 등 구공화당 및 유정회 출신인사들을 중심으로 1981년 1월23일 창당되었다. 한국국민당(국민당)은 창당대회에서 김종철(金鍾哲)을 당총재 겸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였다.

1981년 2월의 제12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당의 김종철 후보는 총 유효투표의 1.6%에 해당하는 85표를 얻는 데 그쳤으며, 3월에 실시된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당은 지역구 18석, 전국구 7석 등 총 25석의 의석을 획득하여 제3당의 위치를 확보했다. 그리고 1985년의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신한민주당의 돌풍과 인물 빈곤으로 말미암아 지역구 15명, 전국구 5명 등 총 20석의 의석만을 확보하였다.

국민당은 김종철 총재가 총선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남에 따라 3월 22일 제3차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이만섭(李萬燮)을 새 총재로 선출하였다.

1987년 9월 28일 김종필이 정계복귀를 선언하고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하자 국민당의 최재구, 김효영, 신철균, 김용채, 강경식, 조용직 등 6명은 국민당을 탈당하여 신민주공화당에 입당하였다. 국민당은 10월 8일 소속의원이 19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교섭단체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그 후 소속의원들이 하나 둘 탈당함에 따라 1988년 1월말에는 이만섭 총재 1명만이 남게 되었다. 한국국민당은 1988년의 총선에서 한 개의 의석도 획득하지 못해 정당법 제38조에 근거하여 해체되었다.

4) 신한민주당

1984년 12월부터 정치규제에서 풀려난 이민우, 김동영, 신도환, 이기택 등 구신민당 중진과 민주화추진위원회 소속인사 등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작업이 진행되어 1985년 1월 18일 이민우(李敏雨)를 총재로 하는 신한민주당이 창당되었다. 신한민주당(신한당)은 창당 25일만에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선거 에서 지역구 50석, 전국구 17석 등 총 67석의 의석을 획득하여 기존의 제1야당인 민주한국당을 누르고 제1야당으로 부상하였다. 신한당은 총선 후 민한당과 국민당의 당선자를 대거 영입하여 103석의 의석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신한당은 다양한 계파의 연합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당내 통합을 이루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더욱이 대통령후보 문제와 관련하여 김영삼계와 김대중계가 첨예하게 대립함으로써 결국 신한민



대통령후보 문제와 관련하여 김영삼계와 김대중계가 첨예하게 대립함으로써 결국 신한민주당은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으로 양분되었다.

주당은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으로 양분되었다. 그 후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신한당 후보자가 한 명도 당선되지 못함으로써 정당법 제38조에 의거하여 신한민주당은 해체되었다.

5) 통일민주당

김영삼의 정치활동 재개와 함께 김영삼계와 김대중계가 연합하여 1987년 5월 1일 통일민주당이 창당되었으며, 총재에는 김영삼(金泳三)이 선출되었다.

통일민주당은 67명의 신한민주당 소속의원들을 흡수하여 창당과 함께 제1야당이 되었으며, 민통련 등 재야단체와 함께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전국적인 개헌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여당으로부터 대통령직선제 개헌합의를 얻어냈다.

10월 27일 대통령직선제를 골격으로 하는 새 헌법이 제정되자 통일민주당은 김영삼 총재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다. 그러나 1987년의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김영삼 후보는 유효투표수의 28.0%를 획득하여 36.6%를 득표한 노태우 민정당 후보에 이어 2위를 하는 데 그쳤다.

6) 평화민주당

1987년 6·29선언으로 김대중이 사면·복권되고 통일민주당의 제13대 대통령선거 단일화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이중재, 노승환, 이용희, 양순직 등 김대중계는 통일민주당에서 이탈하여 11월 12일 김대중을 총재로 하는 평화민주당을 창당하였다. 평화민주당은 창당대회에서 김대중(金大中)을 당총재 겸 대통령 후보로 추대했다.

1987년의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는 유효투표수의 27.1%를 획득하여 노태우, 김영삼에 이어 3위를 하는 데 그쳤다.

7) 신민주공화당

6·29선언 이후 각 정치세력의 활동이 활발해진 상황에서 구공화당 총

재 김종필은 1987년 9월 28일 정계복귀를 선언하고, 10월 30일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하였다. 신민주공화당은 창당대회에서 김종필(金鍾泌)을 당총재 겸 대통령후보로 추대했다.

1987년의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김종필 후보는 유효투표수의 8.1%를 획득하여 4위를 기록하였다.

8) 혁신 정당

그 밖에 고정훈을 당수로 하는 민주사회당이 1981년 1월 20일 창당되었는데, 민주사회당은 제1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고정훈(高貞勳), 백찬기(白燦基) 등 2명이 당선되어 5 · 16 이후 처음으로 혁신 정당이 원내에 진출하게 되었다. 그 후 민주사회당은 제1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2명을 당선시킨 신정당(대표: 金甲洙)과 1982년 3월 24일 신정사회당이란 당명으로 합당하였다가 1985년 7월 15일 사회민주당(대표: 金哲)에 통합 · 흡수되었는데,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확보에 실패하여 정당법에 의해 1988년 4월 29일 등록이 취소되었다.

3. 성남 · 광주지역의 지구당 현황

제5공화국 헌법이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된 후 1980년 11월 25일부터 그 동안 중단되었던 정치활동이 다시 허용됨에 따라 1981년 1월부터 민주정의당,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민권당 등 많은 정당들이 앞을 다투어 창당되었으며, 대부분 중앙당 창당에 이어 지구당 창당을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였다. 먼저 민주정의당이 1981년 1월중앙당을 창당한 직후인 2월에 지구당 창당을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였으며, 1월 20일을 전후하여 창당된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민주사회당, 민권당, 신정당 등도 중앙당 창당 후 곧바로 성남 · 광주지구당 창당을 지역선관위에 등록하였다. 제5공화국 시기에 있어서 성남 · 광주지역의 지구당 현황을 보면 [표 7-3]과 같다.

제5공화국에 있어서는 성남시의 인구 증가로 성남시와 광주군이 단일



성남시의 인구 증가로 성남시와 광주군이 단일 선거구가 되었는데, 대부분의 정당의 경우 성남시에 지구당 사무실을 설치하고 광주군에 당 연락소를 두고 정당활동을 전개하였다.

선거구가 되었는데, 대부분의 정당의 경우 성남시에 지구당 사무실을 설치하고 광주군에 당 연락소를 두고 정당활동을 전개하였다.

정당활동의 결과는 선거에서의 득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볼 때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오세응(吳世應) 후보가 제5공화국 기간에 해당되는 제11대 및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이어 당선됨으로써 정당조직 활동의 효과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쳐 동반 당선된 이대엽(李大燁) 후보의 당선은 신정당 또는 한국국민당이라는 정당의 역할보다는 개인적 인기에 기인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표 7-3 성남·광주지역의 지구당 현황

선거구	정 당	대표자	등록일자	소재지
성남시·광주군	민주정의당	오세응(吳世應)	1981. 2.21	성남시 신흥2동 218-5
	민주한국당	이웅배(李雄培)	1981. 1.17	성남시 신흥1동 180-4
	민주사회당	안재훈(安再薰)	1981. 2.21	성남시 태평2동 384
	한국국민당	강희규(姜熙圭)	1981. 2. 3	성남시 중동G지구 112
	민 권 당	황두영(黃斗英)	1981. 2. 7	성남시 신흥1동 191-15
	신 정 당	이대엽(李大燁)	1981. 1.24	성남시 신흥3동 218-4
	자유민족당	김대찬(金大贊)	1981. 1.24	성남시 태평1동 6146
	불 만 당	김진원(金振元)	1981. 3.31	성남시 성남동 4-40

제7절 제6공화국

1. 국내 정치상황

제6공화국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1987년 12월 16일의 제13대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국민들은 모처럼의 정권교체의 기회로 보아 야당후보 단일화를 열망하였으나 김영삼과 김대중이 각기 대통령후보로 나섬으로써 노태우(盧泰愚) 민정당 후보가 김영삼(28.0%), 김대중(27.0%), 김종필(8.1%)보다 앞선 유효 투표의 36.6%를 획득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88년 4월 26일에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여당인 민정당은 총 299석 중에서 125석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평화민주당 70석, 통일민주

당 59석, 신민주공화당 35석을 합치면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는 우리 의회정치사상 처음 보는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국회가 탄생하였다. 아울러 선거과정에서 지역기반에 기반을 둔 4당체제가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었다.[44]

여소야대의 구도로 시작된 국회에서는 일해재단, 광주민주화운동, 언론 등 일련의 청문회가 개최되었으며, 유신체제 이후 16년 만에 국정감사를 재개하였다. 국정감사에서는 삼청교육대 사망자, 언론통폐합과정, 부실기업정리과정, 전두환 친인척의 비리 등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었다.



〈사진 3-7 : 7〉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취임

한편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7월 7일 ① 각계의 남북교류 추진 ② 이산가족의 방문 생사확인 ③ 남북직접교역 · 문호개방 ④ 우방의 대북한 교역 인정 ⑤ 남 · 북간의 경쟁적 대결외교 종식 ⑥ 북한의 대미 · 일 관계개선 협조 등을 내용으로 하는 '7 · 7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대북정책에 고무 받아 일련의 재야인사 및 학생대표의 방북이 있었으며, 이에 제 6공화국 정부는 재야, 노동운동, 학생운동, 종교계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소위 공안정국(公安政局)을 조성하기도 했다.

여당인 민정당은 여소야대의 정국을 벗어나기 위해서 민주통일당, 신민주공화당과 함께 소위 '구국의 결단'이란 명분하에 1990년 1월 22일 3당 합당을 선언하고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창당하였다. 3당 합당을 통해서 안정적 정치기반을 확보한 민주자유당(민자당)은 1991년 3월 26일의 기초의회 의원선거와 6월20일의 광역의회 의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결국 30년 만에 실시된 지방의회 의원선거 실시 결과는 국회의석 2/3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여당으로 등장한 민자당을 더욱 비대하게 만들었고, 여 · 야관계의 극심한 불균형 상태를 초래하여 새로운 정치적 불안요인을 낳았다.

통합신당인 민자당은 1992년 3월 25일의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총 299석 중 과반수 의석에 못 미치는 149석(지역구 116석 전국구 33석)을 획득하여 제13대 총선 때 3당이 획득한 219석보다 70석이나 적었다. 이는 3당의 통합신당인 민자당이 다수 유권자들의 지지를 흡수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45]

44) 4당체제는 제13대 선거에서 점화되기 시작한 지역감정이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욱 첨예화되어 나타난 결과로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다: 신명순(1993),『한국정치론』, 법문사, 166쪽.

여소야대의 구도로 시작된 국회에서는 일해재단, 광주민주화운동, 언론 등 일련의 청문회가 개최되었으며, 유신체제 이후 16년 만에 국정감사를 재개하였다. 국정감사에서는 삼청교육대 사망자, 언론통폐합과정, 부실기업정리과정, 전두환 친인척의 비리 등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었다.

45) 김현우(2000),『한국정당통합운동사』, 윤유문화사, 694-695쪽.

1980년 후반 소련 · 동구권의 붕괴로 세계질서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한국의 대외관계 및 남북관계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사회주의권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990년대 초에 들어 동구권 국가, 소련 및 중국 등과 국교를 수립하는 한편, 남북한 관계에서도 남 · 북한 총리를 대표로 하는 고위급회담을 개최하는 등 남 · 북간 화해 및 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민자당은 1992년의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후보 선출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내분을 겪었으며, 우여곡절을 겪은 뒤 5월 전당대회에서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1992년 12월 18일 실시된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자당의 김영삼(金泳三) 후보는 유효투표수의 42%를 득표하여 민주당의 김대중, 통일국민당의 정주영 등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 정당활동

제6공화국에 있어서 정당구도는 초기에는 신군부 세력 중심의 민주정의당, 김영삼 중심의 통일민주당, 김대중 중심의 평화민주당, 김종필 중심의 신민주공화당 등으로 분할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3당 통합하여 민주자유당을 창당함에 따라 여당인 민주자유당, 제1야당인 평화민주당, 그리고 정주영이 새로 창당한 통일국민당 등의 3개 정당구도로 재편되었다. 그 밖에 3당 통합으로 야권에 잔류한 통일민주당 잔류파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이 있었다.

1) 민주정의당

민주정의당은 1987년 12월 노태우 후보를 제13대 대통령에 당선시킴으로써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1988년의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정당은 유효투표수의 33.96%의 득표로 총 299석 중 지역구 87석 전국구 38석 총 125석을 획득함으로써 과반수의석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민주정의당(민정당)은 원내 제1당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야당의 동의



민주정의당(민정당)은 원내 제1당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야당의 동의없이는 실질적인 국회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없이는 실질적인 국회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정당은 노대통령의 중간평가 연기문제에 대해서는 평민당과 연합하고 북방정책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공조하고,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공화당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정치적 이슈에 따라 야당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였다.

민정당은 사안마다 야당들과 힘겨운 교섭을 벌여야 하는 불편이 계속되자 당면한 불편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결과 민정당은 1990년 1월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총재, 김종필 총재 등 3인의 합당선언으로 2월1일 임시전당대회를 열어 통일민주당 및 신민주공화당과 합당을 의결하였다. 이로써 민정당은 1981년 1월 25일 창당된 이래 9년 만에 3당의 합당을 위하여 간판을 내리게 되었다.

2) 통일민주당

통일민주당은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46석, 전국구 13석 등 총 59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제3당으로 전락하였다. 제2야당의 한계를 느낀 통일민주당은 1990년 1월 임시전당대회를 열고 민주정의당 및 신민주공화당과 합당을 의결하였다. 이로써 통일민주당은 1987년 5월 1일 창당된 후 2년 8개월 만에 해체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기택, 노무현 등 3당통합에 합류하지 않은 통일민주당 잔류파들은 민주당을 창당하였다.

3) 신민주공화당

신민주공화당은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27석, 전국구 8석 등 총 35석을 확보함으로써 원내 제4당으로 부상하였다. 신민주공화당은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제 3야당으로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였으며, 사안별로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협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90년 2월 임시전당대회를 열고 합당을 위한 당의 해체를 의결하였다. 이로써 신민주공화당은 1987년 10월 30일 창당된 후 2년 3개월 만에 해체되었다.

4) 민주자유당

1990년 1월 민정당 총재인 노태우 대통령과 민주당 김영삼 총재, 공화당



3당 합당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국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입장과 1987년 대선 패배 후 제13대 총선에서 제2야당으로 전락한 김영삼의 입지, 군소정당의 형편을 면치 못하게 된 김종필의 궁지가 맞물려서 이루어진 것이다.

김종필 총재는 청와대에서 회동하여 3당 통합에 의한 신당 창당 및 자당 5인씩 15명으로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키로 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3당 합당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국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입장과 1987년 대선 패배 후 제13대 총선에서 제2야당으로 전락한 김영삼의 입지, 군소정당의 형편을 면치 못하게 된 김종필의 궁지가 맞물려서 이루어진 것이다.[46]

민주자유당은 개헌선인 198석을 웃도는 216석을 차지하는 거대 여당으로 탄생됨으로써, 과거 권위주의체제에서 나타났던 거대여당에 의한 독주와 다수의 횡포가 다시금 환원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군조직법 개정안, 방송관계법 개정안, 추곡수매가 동의안, 광주보상법안 등의 통과에서 여당에 의한 단독법안 상정과 단독 날치기 통과가 되풀이된 것이 그 예이다. 이에 대응하여 야당은 본회의장 농성과 국회 등원거부 등 과거의 행태를 재현함으로써 의회정치는 발전이 아닌 쇠퇴를 나타내었다.[47]

46) 김현우, 앞의 책, 644쪽.

47) 신명순, 앞의 책, 171쪽.

1992년의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자유당은 149석을 확보하였으나 과반수에 1석이 모자라는 여소야대 현상이 재현되었다. 그 후 무소속이나 군소정당 소속의원을 입당시켜 원내 과반수를 확보하기는 하였으나, 제14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었다. 결국 1992년 5월 개최된 민자당 전당대회에서 김영삼(金泳三) 대표최고위원이 대의원 66%의 지지를 얻어 33%의 득표를 한 이종찬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운동과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민자당을 탈당하였다. 1992년의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자당의 김영삼(金泳三) 후보가 41.4%를 득표하여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민자당은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5) 평화민주당

평화민주당은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였으나, 1988년의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54석, 전국구 16석 등 총 70석을 확보함으로써 통일민주당을 제치고 제 1야당으로 부상하였다. 평화민주당(평민당)은 제1야당으로서 5공청산 청문회와 악법개폐 등을 주도하는 한편 노태우 대통

령의 중간평가 연기에 동의하는 등 여당과 이슈별로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1990년 1월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으로 평민당은 정국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 후 평민당은 거대 여당인 민자당의 국회운영 독주에 맞서 의원직 사퇴 또는 단식투쟁 등 극단적인 방법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평민당은 1991년 4월 9일 김관석, 이우정, 오충일 등 신민주연합과 합당하여 김대중(金大中)을 총재로 하고 당명을 신민당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신민당은 6월에 실시된 광역의회선거에서 민자당 65.1%에 비해 19.1%를 당선시키는 데 그침으로써, 이를 만회하고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9월 16일, 1990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주당과의 통합을 성사시켜 당명을 민주당으로 하고 공동대표위원에 김대중(金大中), 이기택(李基澤)을 선출하였다.

6) 민주당

3당 통합 후 이기택, 김광일, 노무현 의원 등 통일민주당의 잔류파와 무소속의 이철, 박찬종 의원 등이 비호남권에서 야당 재건을 목표로 1990년 6월 15일 민주당을 창당하였다.

그 후 민주당은 평화민주당과 합당을 시도하였으나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2선 후퇴론'을 주장하는 통합반대파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다가 1991년 9월16일 평민당의 후신인 신민당과 통합하여 통합야당으로 새 출발하였다.

통합야당인 민주당은 1992년의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상외의 선전을 하여 지역구 75석과 전국구 22석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1992년의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김대중(金大中) 후보는 33.8%를 득표하여 42.0%를 득표한 민자당의 김영삼 후보에게 패배하였다.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발표된 직후 김대중은 정계은퇴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민주당은 1993년 3월 후계체제와 당의 진로를 논의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개최하였다.

7) 통일국민당

1992년 12월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주영(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을 중심으로 한 통일국민당이 김동길(金東吉) 등의 새한당을 흡수하여 2월 8일 창당대회를 개최하였다.[48] 제 6공화국의 정당사에서 통일국민당의 급성장과 그 시련을 하나의 이변이라고 할 수 있다.

48) 통일국민당의 창당동기는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여념이 없고 경제진망은 어둡기 때문에 창당하게 되었다고 한다: 김현우, 앞의 책, 687쪽.

통일국민당은 마케트식 홍보 전략과 조직력을 동원하여 3.24 총선에서 창당 한달 보름만에 지역구 24석, 전국구 7석을 획득하여 제3당으로 부상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1992년의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통일국민당의 정주영 후보는 유효 투표수의 16.3%를 득표하여 42.0%의 김영삼 후보, 33.8%의 김대중 후보에 이어 3위를 하는 데 그쳤다. 통일국민당은 대통령선거 이후 당내 분열과 혼선이 가중되었으며, 정주영 대표의 사퇴에 이어 국회의원직 퇴진으로 위기국면에 놓이게 되었다.

8) 기타

그 밖에 제6공화국 시기의 정당으로 신정당, 새한국당, 민중당 등이 있다. 신정당은 1992년 2월 25일 창당대회를 개최하여 박찬종을 대표최고위원으로 선출하였다. 3.24총선에서는 1명만이 당선되어 당의 명맥을 유지하였으며, 12월 18일 대통령 선거에서는 박찬종 후보가 6.4%의 지지를 획득하였다.

새한국당은 김영삼이 민자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후 반김영삼 기치를 내세운 이종찬, 채문식, 김용환 등이 1992년 10월 23일 창당하였으나,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부분이 통일국민당에 입당함으로써 입지가 크게 약화되었다. 이종찬(李鍾贊) 대표도 대통령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통일국민당에 입당하였다. 그러나 통일국민당과 새한국당의 통합은 그 절차상의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에도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제6공화국 하에 있어서 진보세력인 민중당은 1989년 11월 결성된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을 모태로 하여 1년 동안의 이합집산과

정을 거친 뒤 1990년 11월 10일 창당되었다. 진보정당준비모임은 한겨레민주당과 '민중의 당'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으며, 전민련의 백기완(白基玩), 계훈제(桂勳梯), 박형규(朴炯圭) 등의 참여로 활기를 띠었다.

1992년 3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민중당은 한 사람의 후보도 당선시키지 못했으며, 전체 득표율도 1.5%에 불과하여 지지기반의 미약함을 나타냈다.

제5공화국 시기에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벌였던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신한민주당 등은 1988년의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명의 후보자도 당선시키지 못함에 따라 정당법 제38조에 근거하여 모두 해체되었다.

3. 성남지역의 지구당 현황

제5공화국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는 성남지역과 광주지역이 함께 편성되어 있었는데, 제6공화국 시기부터 성남시는 독자적인 선거구로 되었다. 1987년 말 성남시의 인구는 약 49만명에 달해 전국 시규모 10위로 부상하였고, 1989년 5월1일에는 수정출장소, 중원출장소 등 2개 출장소가 각각 수정구와 중원구로 승격되었다.[49]



제5공화국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는 성남지역과 광주지역이 함께 편성되어 있었는데, 제6공화국 시기부터 성남시는 독자적인 선거구로 되었다.

성남시 선거구는 1988년의 제13대 총선 시에는 성남시 갑구와 성남시 을구로 분리되었다가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에 따라 1992년의 제14대 총선부터는 성남시 수정구 및 성남시 중원 · 분당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성남지역의 정당을 보면 먼저 성남시 갑구 지구당의 경우 1990년 1월 3당통합으로 민주자유당이 창당되면서 민주정의당의 김충호 위원장, 통일민주당의 장문영 위원장, 신민주공화당의 이대엽 위원장의 공동명의로 1990년 2월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지구당 창당등록을 하였으며, 3당통합 후 통일민주당의 잔류파들을 중심으로 창당된 민주당도 창당 다음 해인 1991년 9월지구당 등록을 하였다. 그리고 민주당은 곧바로 신민당으로 통합됨에 따라 1992년 2월 신민당지구당으로 다시 등록을 하였다. 한편 1992년 말의 대선을 앞두고 창당된 통일국민당도 1992년 10월지구당 등록을 하였다.

지구당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선거 시 득표상황을 보면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성남시 갑구에서는 신민주공화당의 이대엽(李大燁) 후보가

49) 1988년 7월1일 종래의 돌마출장소, 대왕출장소, 낙생출장소를 폐지하고 성남시 수정출장소 및 중원출장소를 설치하였다: 성남시(1998), 『21세기 성남시 장기발전계획』, 30쪽.

당선되고 성남시 을구에서는 평화민주당의 이찬구(李讚九)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제14대 총선에서는 성남시 수정구에서 민주당의 이윤수(李允洙) 후보가 당선되고 중원 · 분당구에서는 민주자유당의 오세응(吳世應)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6공화국에서의 성남시의 지구당 현황을 보면 [표 7-4]와 같다.

[표 7-4] 성남시의 지구당 현황

선거구	정 당	대 표 자	등록일자	소재지
성남시 갑구	민주자유당	김충호(金忠鎬)	1990. 2.15	신흥2동 135-1
		장문영(張文英)	(1992. 2.21)	
		이대엽(李大燁)		
	공명민주당	고석봉(高錫鳳)	1990. 5.23	태평4동 2058
	민 주 당	이윤수(李允洙)	1991. 9.16	신흥1동 5493-6
			(1992. 1.22)	
	통일국민당	허재영(許載瑛)	1992.10.19	태평2동 3363
	새 한 국 당	최상면(崔商勉)	1992.12.10	신흥2동 123-29
성남시 을구	민주자유당	오세응(吳世應)	1990. 2.15	금광1동 1789
	공명민주당	윤상열(尹相烈)	1990. 5.21	성남동 27-9
	사 회 당	한성수(韓聖洙)	1990. 9.12	수내동 87-8
	민 중 당	임통현(林東顯)	1990.10.31	은행동 1147
	민 주 당	조성준(趙誠俊)	1991. 9.16	성남동 27-9
	신정치개혁당	김기평(金基平)	1992. 2.24	중동 554
	통일국민당	이찬구(李讚九)	1992. 3. 3	성남동 27-9
	새 한 국 당	홍대원(洪大源)	1992.12. 5	성남동 28-11

* 후에 성남시 갑구는 수정구로, 성남시 을구는 중원 · 분당구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제8절 문민정부

1. 국내 정치상황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등 3당 합당으로 탄생된 민주자유당은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 대권을 쟁취하였으며, 이로써 1993년 2월 25일 32년 만에 문민정부(文民政府)가

출범하게 되었다.

김영삼 정부의 출범은 권력의 중심이 군부 · 군 출신으로부터 민간 정치인으로 이동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치사적 의미를 갖는다.[50]



〈사진 3-7 : 8〉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취임

비록 여당에서 야당으로의 수평적 정권교체는 아니지만 대통령 당선자 김영삼(金泳三)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저항해 온 야당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평적 정권교체였다.

김영삼 정권은 출범 초부터 3당 합당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5 · 6공 군부세력과의 차별화를 부각하려고 노력하였다. 우선 공직자 재산공개 등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작업을 통해 국회의장 등 고위공직자를 축재 혐의로 정치권에서 축출하기도 했으며, 전두환을 정점으로 했던 '하나회'를 해체 · 숙청하는 등 군의 파벌을 혁파하여 정치군인의 온상을 허물었다. 특히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으로 12 · 12 군사반란에 대한 재수사를 통해 전두환과 노태우 등 2명의 전직 대통령과 관련자를 구속 · 수감하는 대사건을 만들었다.[51]

그러나 김영삼 정권은 그 과정에서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표적 사정과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査定)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면서 '복지부동' 또는 '복지안동'이라는 용어가 회자되는 등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인 공직사회의 저항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1995년 1월 김영삼 대통령의 김종필 민자당 최고위원의 당직배제 발언과 그에 따른 김종필의 탈당은 자유민주연합이라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탄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1994년 3월에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라는 통합선거법은 종래의 대통령 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 등을 통합한 것으로 김영삼 정부가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52] 이 법은 1995년 6월의 지방선거에서 전국 규모로 처음 적용되어 그 효과를 발휘하였다.

제14대 대통령선거 직후 정계은퇴를 선언했던 김대중은 민주자유당의 분열로 김종필 대표가 분리해 나오면서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하자 비슷한

50) 김현우(2000), 「한국정당통합운동사」, 을유문화사, 714쪽.



김영삼 정부의 출범은 권력의 중심이 군부 · 군 출신으로부터 민간 정치인으로 이동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치사적 의미를 갖는다.

51) 김영삼 정부 수립 후 처음 맞은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박계동 의원이 10월19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폭로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11월16일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8인 후인 11월24일 김영삼 대통령이 강삼재 민자당 사무총장에게 5 · 18 특별법 제정을 전격적으로 지시하고 이른 '역사바로세우기'로 규정하면서 12월3일 합천으로 내려간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구속 · 수감하기에 이르렀다.

52) 민준기(2001), 「21세기 한국의 정치」, 법문사, 326쪽.

시기에 정계 복귀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6.27 지방선거 직후인 7월 18일 새정치국민회의의 창당을 선언하고 정계에 복귀하였다.

한편 민자당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회창, 박찬종 등 중량급 인사들의 영입과 아울러 2월7일 당명을 민주자유당에서 신한국당으로 변경하였다.[53]

53) 1990년 2월3당합당시부터 사용하던 당명을 변경한 것은 3당합당체제의 종식을 의미하는 동시에 기존의 당 이미지를 바꾸는 커다란 정치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김현우, 앞의 책, 742쪽.

이러한 정계변화를 바탕으로 1996년 4월 11일에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국당 139석, 국민회의 79석, 자민련 50석, 민주당 15석, 무소속 16석 등을 획득하였으며, 이로써 3당 정립구도의 정계 개편이 이루어졌다. 제13대 총선 이후 연속해서 여소야대의 구도를 낳게 된 상황 하에서 여당인 신한국당은 정국안정을 위해 무소속 당선자를 영입하여 여대야소 구도를 구축하였다.



김영삼 정권의 개혁은 그 방향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나 국민의 이해 부족, 그리고 추진과정의 독선으로 인해 국민적 공감대와 동참을 구하는 데 미흡했다.

김영삼 정권의 개혁은 그 방향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나 국민의 이해 부족, 그리고 추진과정의 독선으로 인해 국민적 공감대와 동참을 구하는 데 미흡했다. 그 결과 문민정부가 취한 개혁 작업은 법치가 아닌 인치(人治)라는 비판과 함께 군부 독재를 대신하는 문민 독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권은 역대 권위주의 정권에서 묻혀져 있었던 비리들을 과감하게 파헤치고 바로잡는 데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며, 정치영역의 확대와 기업의 자율화 추구 등으로 민주정치 체제의 요건이 크게 충족되는 바탕을 마련했다.

2. 정당활동

문민정부시기에 있어서 정당 활동은 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여당과 김대중 중심의 새정치국민회의, 김종필 중심의 자유민주연합, 그리고 야당계열인 민주당 등으로 나눠진다.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간의 합당 또는 연합이 이루어졌는데,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한나라당으로 합당하였고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대통령 선거전에 임하였다.

1)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민주자유당은 19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 새로운 집권당으로 거듭 태어났다. 집권 후 당의 지지도가 다소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개혁에 대한 명분을 굳건히 확보하고 정국 주도권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전 · 노(全 · 盧) 전직 대통령 부정축재 비리사건과 5 · 18 특별법 제정, 그리고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 창당 등 정국상황 변화로 민자당은 1996년 2월 7일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신한국당은 출범 직후 실시된 1996년 4월의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139석을 확보하여 79석의 새정치국민회의, 50석의 자유민주연합과 함께 3당 정립구도를 형성하였으며, 서울지역에서 47석 중 27석을 차지해 사상 첫 여대(與大)현상을 보였다.

신한국당은 일찍부터 차기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1996년 연말에 발생된 노동법 국회강행 통과사태와 한보사태, 그리고 뒤이은 대통령 차남 김현철 구속사태로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이러한 국면 속에 신한국당은 1997년 3월전국위원회를 개최하여 이홍구(李洪九) 대표의 후임으로 이회창을 새 대표로 선출했고, 7월에는 개정된 당헌 · 당규에 따라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이회창, 이인제, 박찬종 등 6명의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경선을 통해 60.0%을 획득한 이회창(李會昌)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다. 그 후 9월 30일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이회창 대표를 새 총재로 선출하고 대표최고위원에는 이한동을 지명하였다.

이회창 후보는 경선 직후 한때 지지도가 50%를 상회했으나, 야당에서 제기한 두 아들의 병역면제 문제와 이인제 후보의 탈당 및 당내 분란으로 지지도가 급락하여 고전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를 바로 앞둔 11월21일 신한국당과 민주당의 통합신당인 한나라당이 출범함으로써[54] 막판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와 접전을 벌이게 되었다. 한나라당의 대통령후보에는 신한국당의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총재에는 조순(趙淳) 민주당 총재가 선출되었다.

1997년 12월18일의 제15대 대통령 선거 결과 이회창 후보는 총 유효투표 중 38.7%를 얻는 데 그쳐 40.3%를 획득한 김대중 후보에게 패하였다.

54) 김현우, 앞의 책, 754쪽.

2)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은 정계은퇴 번복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민주당 내 추종자들을 이끌고 1995년 9월 5일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였다. 이 때 의석수 분포는 민주자유당 168석에 이어 65석으로 제1야당의 위치에 있었으며, 김대중 추종세력이 빠져나간 민주당은 이기택 세력과 스스로 구당파로 부른 반 이기택 세력간의 내분, 그리고 반김대중노선이라는 틀 속에서 30석으로 제3당의 위치를 유지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국민회의)는 창당 7개월여 만에 치러진 1996년의 제15대 총선에서 당초 목표했던 100석에 훨씬 못 미치는 79석의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다. 김대중 총재도 전국구 14번의 배수진을 치고 내각제 개헌 저지선인 100석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자신도 원외로 밀려났다. 더욱이 서울에서 국민회의 중진들의 대거 낙선은 충격을 더하였다.



당내·외의 '반김대중' 역풍에 휘말린 김대중은 재기의 발판으로 자유민주연합과의 연대를 추진했다. 총선 후 자민련 흔들기에 시달리던 김종필도 국민회의의 도움이 필요한 터이라 양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쉽게 손을 잡았다. 양당은 원내대책은 물론 경제·안보에도 협력관계를 유지하였고,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한 내각제 개헌 등 공조의 폭과 깊이는 더욱 발전하였다. 그러나 단일화의 관건인 내각제 문제가 매듭 되지 못한 상황에서 1997년 5월과 6월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각각 전당대회를 열어 김대중과 김종필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다. 국민회의는 이인제가 신한국당을 뛰쳐나와 대선에 출마하자 여권의 후보 난립에 따른 틈새를 적절히 이용하면서 김대중 총재의 독주채비를 갖춰나갔다.

이런 가운데 국민회의는 자민련과의 후보 단일화가 대선 필승카드임을 인식하고 전당대회 이후인 6월부터 적극적인 협상에 착수하여 5개월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헌정사상 초유의 정치적 실험인 야권후보 단일화를 성사시켰다.[55] 결국 김대중(金大中)은 1997년의 제15대 대통령 선거 결과 유효투표 총수의 40.3%를 획득함으로써 이회창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55) 김대중 총재가 10월27일 밤 자민련 김종필 총재의 청구동 자택을 은밀히 방문하여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한 것을 놓고 여론이 '밀실야합', '나눠먹기식 권력배분'이라고 몰아 붙여 한때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3) 자유민주연합

1994년 말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민주자유당의 김종필체제는 1995년 1월 김종필 대표의 사퇴 선언과 함께 끝나고, 5월 30일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의 창당으로 이어졌다. 김종필을 중심으로 한 자민련은 6 · 27 지방선거에 참여하여 놀랍게도 충남과 대전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획득하였다.

자민련은 1997년 6월 전당대회에서의 경선을 통해 김종필(金鍾泌)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고 '파워 JP플렌'의 기치 아래 김 총재의 유권자 접촉을 강화해 나갔다. 그러나 자민련은 자신들이 추진해온 내각제 개헌이 정치권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자 제15대 대선 승리를 통하여 내각제를 구현하기로 전술을 수정하기에 이른다.

자민련은 1997년 7월 국민회의와 야권의 대통령 후보 단일화 추진을 위한 회의를 갖고 양당 중심의 정권교체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후 양당은 '6인 협상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상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양당 총재는 11월 3일 국회에서 후보 단일화 협상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김종필 총재는 김대중 총재와의 후보 단일화 협상을 마무리 지은 후 곧바로 'DJP 연대'의 파괴력을 높이기 위해 무소속 박태준(朴泰俊) 의원을 포함하는 'DJT 연대'를 모색했다. 이에 박태준은 11월 21일 자민련 중앙위원회에서 제3대 총재로 선출되고, 김종필 총재는 명예총재로 추대되어 당무 일선에서 물러났다.

4) 민주당

김영삼의 3당 통합으로 야권의 한 축이 붕괴된 뒤에 제14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김영삼은 대통령에, 그리고 김대중은 정계에서 은퇴함으로써 1970년대 이후 4반세기 동안 한국 야권을 이끌어 왔던 김영삼과 김대중의, 이른바 '양 김'의 야당시대는 막을 내리는 듯했다. 김대중의 정계은퇴로 유일 야당인 민주당은 이기택(李基澤)을 중심으로 하는 9인 집단지도체제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구심점은 김대중이었고, 배후에 있는 김대중의 영향력은 전면의 이기택의 영향력보다 훨씬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김대중이 정계복귀와 더불어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함

으로써 민주당은 제3당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1995년 12월 민주당은 장을병(張乙炳) 등의 개혁신당과의 합당으로 통합민주당이 되었다가 1996년 6월에 다시 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다. 민주당은 통합민주당 시기인 1996년 4월의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국당 139석, 국민회의 79석, 자민련 50석에 이어 15석으로 제4당에 머물렀다.

민주당은 1997년 8월 전당대회를 열고 조순(趙淳)을 총재로 추대하였으며,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한국당과 합당하여 한나라당으로 창당되었다.

5) 국민신당

국민신당은 신한국당 경선에서 패배한 이인제를 중심으로 1997년 11월 4일 창당되었으며, 이인제(李仁濟)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12월의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인제 후보는 약 490만표를 얻어 3위에 머물렀다. 그 후 국민신당은 이만섭(李萬燮)을 총재로 선출하고 1998년 9월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에 흡수·통합됨으로써 창당 10개월여 만에 공식 해체되었다.

3. 성남지역의 지구당 현황

문민정부시기에 있어서 성남지역의 지구당은 초기에는 수정구와 중원구·분당구의 2개 지구당으로 나뉘었는데, 후기에 와서 중원구·분당구 지구당이 중원구 지구당과 분당구 지구당으로 분리되어 성남시의 지구당은 3개 지구당으로 확대되었다. 문민정부 시기의 성남지역의 정당으로는 먼저 1990년 3당통합 직후 지구당 등록을 한 민주자유당이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민주당과 통합하여 한나라당이 되면서 지구당 등록을 변경하였고, 야당들도 민주당, 신민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등 정당의 분리·통합 및 생성에 따라 지구당의 등록 및 명의변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문민정부 시기에 있어서 성남지역의 지구당은 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집권여당과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문민정부시기에 있어서 성남지역의 지구당은 초기에는 수정구와 중원구·분당구의 2개 지구당으로 나뉘었는데, 후기에 와서 중원구·분당구 지구당이 중원구 지구당과 분당구 지구당으로 분리되어 성남시의 지구당은 3개 지구당으로 확대되었다.

등 많은 야당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정당들의 현황을 보면 [표7-5]와 같다.

문민정부 시기에는 1996년에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번 있었는데, 수정구 · 중원구 · 분당구 등 3개 선거구에서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간의 3파전이었다. 성남시 수정구에서는 투표결과 새정치국민회의(이윤수), 자유민주연합(이대엽), 신한국당(유제인)의 순위를 보여 새정치국민회의의 이윤수(李允洙) 후보가 당선되었고, 중원구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조성준), 신한국당(정완립), 자유민주연합(강희규)의 순위로 역시 새정치국민회의의 조성준(趙誠俊)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러나 신도시 지역인 분당구에서는 신한국당의 오세응(吳世應) 후보가 새정치국민회의(나필열), 자유민주연합(권현성)을 앞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표 7-5》 정당지역위원회 현황

선거구	정 당	대 표 자	등록일자	소재지
성남시 수정구	민주자유당	김충호 · 장문영 · 이대엽 (金忠鎬 · 張文英 · 李大燁)	1990. 2.15	신흥2동 135-1
	신한국당	상 동	1998. 2.23	신흥2동 135-1
	민 주 당	이 윤 수(李允洙)	1991. 9.16	신흥1동 5493-6
	통일국민당	허 재 영(許載瑛)	1992. 10.19	태평2동 3363
	새한국당	최 상 면(崔商勉)	1992. 12.10	신흥2동 123-29
	대한민주당	최 진 선(崔珍善)	1993. 8.27	태평4동 1644
	신 민 당	허 재 영(許載瑛)	1994. 7. 8	태평2동 3363
	자유민주연합	이 대 엽(李大燁)	1995. 4.28	신흥2동 32
	새정치국민회의	이 윤 수(李允洙)	1995. 8.25	신흥1동 5493-6
	무당파국민연합	최 상 면(崔商勉)	1996. 3.11	단대동 4132
	통합민주당	김 준 기(金準基)	1996. 3.21	복정동 415
	21세기 한민족공동체 (바른나라정치연합)	한 봉 학(韓鳳學)	1997. 10.14	신흥3동 3792
	국민신당	유 제 인(柳濟仁)	1997. 10.28	신흥2동 923-1
	한나라당	김 동 선(金東銑)	1998. 2.23	신흥3동 3405-2

선거구	정 당	대 표 자	등록일자	소재지
성남시	민주자유당	오 세 응(吳世應)	1996. 3.19	금광1동 1789
중원구	민 주 당	조 성 준(趙誠俊)	1991. 9.16	성남동 27-9
분당구	신정치개혁당	김 기 평(金基平)	1992. 2.24	중동 554
	통일국민당	이 찬 구(李讚九)	1992. 3. 3	성남동 27-9
	새한국당	홍 대 원(洪大源)	1992. 12. 5	성남동 28-11
	대한민주당	이 병 목(李炳默)	1993.12.15	금광동 3551
	신 민 당	유 창 일(柳彰日)	1995. 6.22	성남동 15-35
	대한민주당	김 무 한(金武漢)	1993.10.15	금광동 3551
		김 종 우(金鍾宇)	1994.11.29	중동 3757
	자유민주연합	이 용 균(李龍均)	1995. 5.31	하대원동 125-5
성남시	기독성민당	김 종 우(金鍾宇)	1994.11.29	중동 3757
중원구	새정치국민회의	조 성 준(趙誠俊)	1995.12.13	성남동 5-17
	대한민주당	김 무 한(金武漢)	1993.10.15	금광동 3551
	자유민주연합	강 희 규(姜熙圭)	1996. 2.17	하대원동 125-5
	무당파전국연합	이 호 승(李鎬承)	1996. 3.12	성남동 84
	통합민주당	김 일 주(金一柱)	1996. 3.12	중동 789
	신한국당	정 완 립(鄭完立)	1996. 3.19	금광동 1789
	민 주 당	김 일 주(金一柱)	1996. 6.24	중동 789
	통일한국당	이 상 갑(李相甲)	1997. 9.12	상대원동 152-3
	21세기한민족공동체	신 창 호(申昶浩)	1997 .10. 8	금광동 산 21
	국민신당	최 인 식(崔仁植)	1997.10.30	중동 1191
	건설국민승리21	이 홍 성(李弘成)	1997.11.21	성남동 137-7
	한나라당	김 일 주(金一柱)	1998. 2.23	중동 789
성남시	민주자유당	오 세 응(吳世應)	1995. 8.24	야탑동 598
분당구	자유민주연합권	권 헌 성(權憲成)	1995.10.11	야탑동 360-6 분당메트로빌딩602호
	개혁신당	성 유 보(成裕普)	1995.11.24	야탑동 530-4 숭문상가 202호
	통합민주당	성 유 보(成裕普)	1995. 2.21	야탑동 530-4 숭문상가 202호
	새정치국민회의	나 필 열(羅必烈)	1996. 1.24	서현동248-1 대명프라자301호
	무당파국민연합	안 상 문(安相文)	1996. 3.12	야탑동 335 장미마을 825-1602
	신한국당	오 세 응(吳世應)	1995. 8.24	야탑동 598
	민 주 당	강 철 은(姜哲殷)	1997. 1.12	정자동 112 한솔주공5단지 종합상가 208호
	통일한국당	노 점 자(盧点子)	1997. 1.30	서현동90 올림픽스포츠센터114호
	21세기한민족공동체	김 인 기(金仁基)	1997. 10.13	구미동 무지개마을 205-4 브미엘프라자 3층
	바른나라 정치연합	상 동	1997. 10. 31	〃
	한나라당	오 세 응(吳世應)	1998. 2.26	수내동 83-3

제9절 국민의 정부

1. 국내 정치상황

1998년 2월 25일 김대중의 제15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성립된 '국민의 정부'는 헌정사상 첫 정권교체를 이룩한 정권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호남지역에 정치기반을 둔 새정치국민회의와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민주연합의 연대로 이룩된 정권으로서, 정권의 획득에서부터 양자간에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연합한 공동집권 형태의 상황이었다.[56]



〈사진 3-7:9〉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취임

공동정권은 1997년 후보 단일화 합의문에서 "공동집권 뒤 양측이 국정에 같이 참여하고 1999년 말까지 내각제 개헌을 한다."는 약속 내용에 따라 자유민주연합의 김종필을 국무총리로 하고 내각 각료를 안배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출범 초반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의 제동으로 국무총리 및 감사원장의 국회인준이 지연되는 등 정국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김종필 총리는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정권출범 반년이 지나서야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 '서리(署理)' 꼬리를 뗄 수 있었다.

공동여당은 2000년 4월 13일에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에서 명칭을 바꾼 새천년민주당은 선전을 한 반면, 자유민주연합이 극도의 부진을 보여 국회의석 273석 중 132석으로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였다. 이에 "인위적 정계개편은 않겠다."던 공동여당은 결국 구여권의 야당의원들을 영입함으로써 여소야대를 가까스로 여대야소로 만들었다.

그러나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의 공동정권은 당초 합의문에서 약속했던 내각제 개헌에 대한 견해 차이 등 두 당간 원천적 갈등요인과 함께 김대중 · 김종필 간의 불화가 노골화되면서 결국 2001년 9월 공조(共助)가 파기되었다.

56) 김영삼 정권이 외형상으로는 집권당의 정권유지였지만 내용상으로는 '세력 정권교체'였다면 김대중 정권은 외형상으로는 정당간의 수평적 정권교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민주화 세력과 5·16 쿠데타 및 유신주도 세력이 연합해 성립된 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의 제15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성립된 '국민의 정부'는 헌정사상 첫 정권교체를 이룩한 정권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초반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의 제동으로 국무총리 및 감사원장의 국회인준이 지연되는 등 정국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제16대 총선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대규모 선거유세, 청중동원 등 과거의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벗어나 TV 등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방식이 주도해 나가는 새로운 선거문화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는 것이다.[57] 또 하나는 정치권을 일신하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외침이 거세게 일었고 실제로 정치권에 대단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400여개의 시민단체가 연합한 총선시민연대는 사상 유례가 없는 공천반대운동과 낙선운동을 전개하였다.[58]

57) 민준기, 앞의 책, 329쪽.

58) 김용호(2001), 『한국정당정치의 이해』, 나남출판, 430-431쪽.



국민의 정부는 연합정권의 약점과 의회에서의 여·야 갈등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지도력'을 부각시켜 IMF 경제위기를 탈출하고 경제회생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기울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연합정권의 약점과 의회에서의 여·야 갈등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지도력'을 부각시켜 IMF 경제위기를 탈출하고 경제회생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기울였다. 특히 금융 및 대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외자유치 전략 등 경제개혁 조치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북문제와 관련하여 소위 '햇볕정책'을 수립하여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화해와 협력체제 구축을 도모하였으며, 월드컵·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가의 역량을 확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찬성과 비판의 엇갈린 견해가 공존한다.

2. 정당활동

1)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는 자민련과의 후보 단일화를 통하여 헌정사상 처음으로 선거에 의한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뤄내는 쾌거를 거뒀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회의는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총 299석의 국회의원 중 79석(지역구 66석 전국구 13석)의 약세를 면치 못하였으며,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의 득표율이 X자형의 양극화 현상을 보여 주듯이 호남지역에 치중된 지역정당의 모습에 불과하였다.[59]

59)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의 호남지역 득표율은 광주 97.3%, 전남 94.7%, 전북 92.3%인 반면, 영남지역에서는 경남 11.0%, 울산 11.8%, 대구 12.5%, 경북 13.7%이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이러한 지역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하려는 차원에서 2000년 1월 20일 새천년민주당으로 명칭을 개칭하고 4월의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 임하였다. 투표결과 새천년민주당은 제

15대 총선의 득표율 25.59%보다 약 10%가 상승한 35.87% 득표로 115석(지역구 96석, 전국구 19석)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공동정권의 한 축(軸)인 자유민주연합의 부진으로 공동여당의 의석은 과반수에 약간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새천년민주당은 2002년 12월의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3-4월경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競選)을 실시하였다. 한화갑, 노무현, 이인제, 정동영 등 7명이 입후보한 국민참여 선거인단 경선에서 극적인 반전과정을 겪으면서 최종적으로 노무현(盧武鉉)이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었다. 노무현 후보는 대통령 후보 등록일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월드컵 4강 진출로 급작스레 부각된 정몽준 후보와의 극적인 단일화 성공으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물리치고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997년 11월 21일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합당해 공식 출범한 정당으로, 1990년 1월의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등의 '3당 합당체제'는 이미 와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의 출범은 신한국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와 민주당 조순(趙淳) 총재의 당 대 당 통합을 통한 대선 연대추진이라는 결단에 따라 이뤄졌다. 직업 정치인이 아닌 두 아마추어 정치인의 주도로 탄생함으로써 한나라당은 당시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자민련 김종필 총재 등 3김이 주도해 온 한국 정치의 변화를 천명했다.



직업 정치인이 아닌 두 아마추어 정치인의 주도로 탄생함으로써 한나라당은 당시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자민련 김종필 총재 등 3김이 주도해 온 한국 정치의 변화를 천명했다.

한나라당은 1997년의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회창 후보와 조순 총재의 연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급조된 정당이라는 점에서 대선 패배로 인해 당을 지탱할 응집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당내 구조변화가 불가피했다.[60]

한나라당은 특히 구민주당과 구신한국당의 합당으로 인해 과거 '한 지붕 세 가족'으로 표현됐던 구민자당, 신한국당보다 더욱 복잡하게 계파가 혼재하고 있는 역학구조로서 불안정성은 더욱 컸다. 당내 역학관계는 구신한국당 안의 이회창 후보 직계, 민정계의 김윤환 고문계, 이한동 고문계, 민주계의 김영삼 대통령 직계, 김덕룡 의원계, 구민주당의 이기택 고문계 등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였다.

60) 한국정치사에서 대선이나 총선이 끝난 후 대·소규모의 정계개편은 편연적 정치현상이었고, 따라서 제15대 대선 이후에는 자연스러운 정계 지각변동과 아울러 한나라당의 진로는 정계개편에서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은 1998년 초부터 집단지도체제로의 개편과 당 지도부 경선 등 당 지도체제 개편논의가 공론화되는 복잡한 양상을 띠었으나, 김종필 총리 인준 반대투쟁 등 강력한 대여투쟁을 벌이면서 더욱 불거지지 않고 내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조순 총재-이한동 대표 등 당 지도부는 6월 지방선거까지 기존 지도체제의 고수를 주장했고, 이회창 명예총재-김윤환 고문 등 당내 비주류 측은 당 체질 개선을 강력히 주장했다.

8월 31일 전당대회에서는 이회창, 이한동, 김덕룡, 서청원 등 4명이 경합을 벌인 결과 이회창(李會昌)이 다시 총재로 당선되었으며, 조순 총재는 명예총재로 추대되어 당무 일선에서 떠났다. 그 후 이회창 체제는 계속되는 내·외의 시련 속에서도 당의 지도체제와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야당으로 면모를 갖춤으로써 재집권을 위한 기반을 쌓아갔다.

2002년 12월의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도 4~5월경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 경선을 실시하였다. 경선과정에는 이회창, 최병렬, 이부영, 이상희 등 4명이 입후보하였으며, 이회창(李會昌)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는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에게 패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하였다.

3) 자유민주연합

자유민주연합은 공동여당으로 내각제 개헌을 둘러싸고 국민회의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김종필의 국무총리 취임 등 집권 여당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였다. 김종필의 후임으로 한나라당에서 탈당한 이한동(李漢東)이 한 때 대표를 맡았으나, 이한동은 양당간 공조파기 이후 국무총리직을 택함에 따라 제명되었다. 자유민주연합은 2000년 4월의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에도 못 미치는 17석(지역구 12석, 전국구 5석)을 획득하는 데 그쳤으며,[61] 그 후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탈당사태가 이어져 당의 진로와 관련하여 고초를 겪었다. 그런 가운데 자유민주연합과 새천년민주당으로 이루어진 공동여당간의 정책 혼선이 가끔 벌어져 권력구조의 갈등을 드러냈으며, 결국 2001년 9월두 당간 공조가 파기되어 공동 여당은 해체되었다.

61) 자유민주연합은 제15대 총선에서 50석(지역구 41석, 전국구 9석)을 획득하였다.

4) 기타

그 밖에 민주노동당, 하나로국민연합, 사회당, 호국당 등 4개 정당은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 대통령후보를 내세웠다. 민주노동당의 권영길(權永吉) 후보는 투표자 수의 3.9%에 해당하는 95만 7천여 표를 얻어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다.

3. 성남지역의 지구당 현황



국민의 정부 시기에 와서 성남지역의 선거구는 분당구 인구의 급속한 유입으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등 3개로 분화되었으며, 후에 분당구가 갑·을 선거구로 다시 나뉘어짐에 따라 4개 지역구로 증설되었다. 성남지역의 정당으로는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등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갑, 분당구 을 등 모두에서 문민정부 이래(이 시기에는 3개 선거구) 활동하고 있었으며, 민주노동당이 분당 갑구를 제외한 3개 선거구에서 활약하였다. 국민의 정부 시기에 있어서 성남지역의 지구당 현황은 [표 5-6]과 같다.

국민의 정부 시기에 와서 성남지역의 선거구는 분당구 인구의 급속한 유입으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등 3개로 분화되었으며, 후에 분당구가 갑·을 선거구로 다시 나뉘어짐에 따라 4개 지역구로 증설되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성남시 수정구의 경우 새천년민주당(이윤수), 한나라당(김동선), 자유민주연합(김을동) 등 3당이 경합을 보인 가운데 새천년민주당의 이윤수(李允洙) 후보가 큰 표 차이로 당선되었으며, 중원구에서는 새천년민주당(조성준), 한나라당(김일주), 민주노동당(정형주) 등의 3당 경합 속에서 새천년민주당의 조성준(趙誠俊)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분당 갑구와 을구에서는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의 경합 속에서 각각 한나라당의 고흥길(高興吉) 후보가 새천년민주당의 강봉균 후보를, 한나라당의 임태희(任太熙) 후보가 새천년민주당의 이상철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되었다.

(표 7-6) 성남지역의 지구당 현황

선거구	정 당	대 표 자	등록일자	소재지
성남시 수정구	한 나 라 당	김 동 선(金東銑)	1998. 2.23	신흥3동 3405-2 남성빌딩 401호
	새천년민주당	이 윤 수(李允洙)	2000. 1.18	신흥1동 5496-3
	민주노동당	박 우 형(朴祐亨)	2000. 5.24	태평3동 3661
	녹색평화당	박 재 영(朴在永)	2002. 5.16	수진1동 663-2
	복지민주통일당	박 종 훈(朴宗勳)	2002. 9.19	수진1동 1273-1
	민주광명당	박 행 규(朴幸圭)	2002. 9.19	수진2동 3347
	국태민안호국당	김 수 길(金壽吉)	2002.11.25	수진1동 1359
성남시 중원구	한나라당	김 일 주(金一柱)	1998. 2.23	중동 789
	새천년민주당	조 성 준(趙誠俊)	2000. 1.21	중동 550
	민주노동당	정 형 주(丁炯周)	2000. 5.24	중동 898
	노년권익보호당	조 세 환(趙世煥)	2002. 5. 2	성남동 3348
	녹색평화당	이 창 열(李昌烈)	2002. 5.17	상대원동 4226
	복지민주통일당	이 창 경(李昌景)	2002. 9.24	상대원동(동환빌라 A-212)
	국민통합21	이 영 성(李英成)	2002.11. 4	하대원동 143-1
성남시 분당구	자유민주연합	오 성 수(吳誠洙) *직무대리자	1999. 1.20	야탑동 세신옴니코아 513호
	새천년민주당	나 필 열(羅必烈)	2000. 1.24	정자동46-1 명진상가402호
성남시 분당구 갑	새천년민주당	강 봉 균(姜奉均)	2000. 3. 2	서현동 251-2(주)대우자판 B/D층
		허 운 나(許雲那)	(2002. 3.18)	야탑동 290-1 중탑상가 B/D 2층
	한나라당	고 흥 길(高興吉)	2000. 3.13	야탑동 352-2
	자유민주연합	강 대 기(姜大基)	2000. 3.20	야탑동 382-8 광명프라자 306호
	민주국민당	양 재 헌(梁在憲)	2000. 3.27	야탑동 290-2 복정B/D 303호
	통일한국당	노 점 자(盧点子)	2000. 8.22	서현동90올림픽스포츠센타114호
	하나로국민연합	강 대 기(姜大基)	2002.12.19	야탑동 399 장미현대831-406
성남시 분당구 을	새천년민주당	김 재 일(金在日)	2002. 3.18	구미동 25-2 엘레강스프라자1동 704호
	한나라당	임 태 희(任太熙)	2000. 3.23	구미동 252-2 엘레강스B/D 502호
	자유민주연합	오 세 응(吳世應)	2000. 3.27	수내동 83-3 수협B/D 2층
	민주노동당	김 현 경(金鉉京)	2002.12. 6	정자동 63-8
	개혁국민신당	김 병 욱(金炳旭)	2002.11.25	정자동 한솔청구101-402

제10절 참여정부

1. 국내 정치상황

2002년 12월의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2003년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3대 국정목표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실현,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건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건설 등이며, 4대 국정원리는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 등이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경제난, 대북문제, 이라크 파병안 처리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극도의 여소야대 정국하에서 출범 초기부터 국무총리 및 감사원장 인준처리,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등 어려움이 많았다.



〈사진 3-7 : 10〉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취임

대통령 측근 비리 및 대선자금 수사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제17대 총선 정국을 맞고 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과 2003년 새로이 창당된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정당간의 격전이 치열했다.

2. 정당활동

참여정부의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한 정권의 정당활동을 기술하기에는 이르다. 다만 2004년 1월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등의 4당 구도로 정립되어 있다. 그 밖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급진전을 보인 민주노동당의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1)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제15대에 이어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이회창 후보가 연이어 패배함으로써 당 지도체제 및 대선자금 수사 등 당내·외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번 대선을 지휘하였던 서청원 대표에 이어 최병렬(崔秉烈) 대표 체제가 구축되어 당 운영을 맡고 있다. 현재 과반수 의석을 가진 국회 다수당으로서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잡고 있으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원내 다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최대의 과제였다.

2) 새천년민주당

새천년민주당은 노무현 후보를 내세워 재집권을 창출한 집권당이면서도 집권 주도세력의 탈퇴로 야당의 위치로 전락되었다. 지난번 대선시 당 대표였던 한화갑이 물러난 후 정대철, 박상천을 거쳐 현재는 조순형(趙舜衡) 대표체제가 구축되어 당 운영을 맡고 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 의석 확보와 아울러 지역정당으로부터의 탈피가 최대의 과제였다.

3)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은 참여정부와 맥을 같이하는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나라당 탈당파, 개혁당 등 혁신 성향의 인사들이 2003년 11월 결성한 정당으로, 김원기 대표에 이어 정동영(鄭東泳) 의장 체제가 구축되어 당 운영을 맡고 있다. 탈호남의 전국 정당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다수 의석 확보로 현정권의 안정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과제였다.

4) 자유민주연합

현존하는 정당으로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당세가 위축되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소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였다.

5) 기타 정당

그 밖의 여러 정당 중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당시의 활동상이나 현재의 사회분위기로 미루어 볼 때 민주노동당의 활동이 주목된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은 1% 이상을 나타냈으나 국회의석은 확보하지 못하였다.

3. 성남지역의 지구당 현황

성남시의 지구당은 국민의정부 시기에 있어서와 같이 수정구, 중원구, 분당 갑구, 분당 을구 등 4개 선거구로 되어 있다. 4개 선거구 모두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등을 중심으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한 치열한 득표활동을 하고 있다. 2004년 1월현재 성남시 지역의 지구당 현황을 보면 [표 7-7]과 같다.

참여정부 시기에 와서 정당활동의 특징은 2003년 11월 열린우리당이 중앙당 창당에 이어 지구당을 창당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7-7〉 성남지역의 지구당 현황

선거구	정 당	대 표 자	등록일자	소재지
성남시 수정구	한나라당	김을동(金乙東)	1998. 2.23	산성동 844(4층)
	새천년민주당	이윤수(李允洙)	2000. 1.18	신흥1동 5493
	열린우리당	황수연	2004. 1.14	태평2동 3365-1(402)
	개혁국민정당	김태년(金太年)	2003. 3.18	태평2동 3365
	민주국민당	최상면(崔商勉)	2000. 3.28	신흥2동 139-3
	민주노동당	김미희(金美希)	2002.11.29	태평2동 3418
	녹색평화당	박재영(朴在永)	2002. 5.16	수진1동 663-2
	복지민주통일당	박종훈(朴宗勳)	2002. 9.19	수진1동 1273-1
	민주광명당	박행규(朴幸圭)	2002. 9.19	수진2동 3347
	국태민안호국당	김수길(金壽吉)	2002.11.25	수진1동 1359
	천주평화통일가정당	박노욱(朴魯旭)	2003. 3. 5	태평1동 6982
성남시 중원구	한나라당	김일주(金一柱)	1998. 2.23	중동 789 가곡빌딩 5층
	새천년민주당	조성준(趙誠俊)	2000. 1.21	중동 550 성보빌딩 3층
	자유민주연합	최인식(崔仁植)		금광1동 단대쇼핑별관 2층
	민주노동당	정형주(丁炯周)	2000. 5.24	중동 898
	통일한국당	이상갑		상대원1동 삼익@ 101-601
	노년권익보호당	조세환(趙世煥)	2002. 5. 2	성남동 3348 2층
	녹색평화당	이창열(李昌烈)	2002. 5.17	상대원동 4226
	복지민주통일당	이창경(李昌景)	2002. 9.24	상대원동(동환빌라 A동 212호)
	개혁국민정당	국중범(鞠重範)	2003. 3.18	은행동 1579(1층)
	천주평화통일가정당	권인진(權仁眞)	2003. 4.29	성남동 3982
	열린우리당	이상선		중동 865(3층)
성남시 분당구(갑)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	2000. 3.13	야탑동 352-2
	새천년민주당	허운나(許雲那)	2000. 3. 2	수내2동 코끼리상가 1층 66호
	자유민주연합	공 석	2000. 3.20	야탑동 382-8 광명프라자 306호
	민주국민당	양재현(梁在憲)	2000. 3.27	야탑동 290-2 복정 B/D 303호
	통일한국당	노점자(盧点子)	2000. 8.22	서현동90올림픽스포츠센타114호

선거구	정 당	대 표 자	등록일자	소재지
성남시	하나로국민연합	강대기(姜大基)	2002.12.19	야탑동 399 장미현대@ 831-406
분당구(갑)	개혁국민정당	김용준(金容俊)	2003. 3.28	야탑동 286-3, 203호
	천주평화통일가정당	장관용(張寬用)	2003. 5.19	야탑3동 44-2 동현빌딩 101호
	열린우리당	윤광열(尹光烈)	2003.11.11	이매1동 249-1
성남시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2000. 3.23	구미동 252-2 엘레강스 B/D 502호
분당구(을)	새천년민주당	김재일(金在日)	2002. 3.13	구미동 35-10
	자유민주연합	오세응(吳世應)	2000. 3.27	수내동 83-3 수협 B/D 2층
	민주노동당	김현경(金鉉京)	2000.11.25	정자1동 63-8, 지층
	개혁국민신당	김병욱(金炳旭)	2002.11.25	수내동 쌍용@ 503-1502
	천주평화통일가정당	이정섭(李正燮)	2003. 6.23	정자동 32-12
	복지민주통일당	윤학주(尹學柱)	2003. 9.18	정자동 194
	열린우리당	여운식	2003.12.15	구미동 24-1 현대벤처 B/D 308호

* 성남시 관내 3개(수정구, 중원구, 분당갑,을구) 선거관리위원회 자료(2004년 1월현재).

◎ 집필 崔恒洵 경원대학교 교수



제2장 선 거

제1절 대통령 선거

1. 초대 대통령 및 1·2대 부통령 선거

1948년 5월 10일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의회는 초대 국회의장에 이승만(李承晩), 부의장에 신익희(申翼熙)·김동원(金東元)을 선출하였다. 제헌의회는 대통령 중심제를 골격으로 한 헌법을 1948년 6월 2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62] 7월 17일 이승만 국회의장의 서명·공포로 대한민국 헌법이 발효되었다.

헌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통령선거는 재적의원 1/3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 투표로서 당선자를 결정하며, 2/3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하였다.

1948년 7월 20일 초대 정·부통령 선거가 국회의원들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에 의해서 실시되었는데, 대통령 선거에서는 [표 7-8]과 같이 재적의원 198명 중 196명이 투표한 결과 이승만(李承晩)이 김구 13표, 안재홍 2표 등을 훨씬 앞선 180표를 획득하여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62) 한국민주당은 당초 이승만을 국가원수로 하고 행정수반은 자당에서 점하고자 내각책임제를 기도하였으나 이승만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국가와 행정의 수반인 미국식 대통령제를 원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제로 수정하였다: 김현우(2000). 「한국정당통합운동사」. 은유문화사, 241쪽, 121-122쪽.



재적의원 198명 중 196명이 투표한 결과 이승만(李承晩)이 김구 13표, 안재홍 2표 등을 훨씬 앞선 180표를 획득하여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표 7-8〉 초대대통령선거결과(1948.7.20)

후보자 구분	득표수	비 고
이 승 만 (李承晩)	180	서재필은 외국국적 취득자로 무효 처리됨.
김 구 (金 九)	13	
안 재 홍 (安在鴻)	2	
서 재 필 (徐載弼)	1(무효)	
합 계	19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6),「역대대통령선거상황(초대~제14대)」.

그리고 부통령 선거에는 [표 7-9]와 같이 197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여 1차 투표결과 이시영 113표, 김구 65표, 조만식 10표 등으로 2/3 이상 득표한 사람이 없었으며, 최고 득표자인 이시영과 김구에 대해서 2차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시영(李始榮)이 133표를 획득하여 62표를 획득한 김구를 물리치고 초대 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표 7-9〉 초대부통령선거결과(1948.7.20)

후 보 자	1차투표 득 표 수	2차투표 득 표 수	비 고
이 시 영 (李始榮)	113	133	2차투표는 1차 투표의 최다득표자인 이시영 과 김구의 2인을 대상으로 하였음.
김 구 (金 九)	65	62	
조 만 식 (曺晩植)	10	–	
오 세 창 (吳世昌)	5	–	
장 택 상 (張澤相)	3	–	
서 상 일 (徐相日)	1	–	
이 구 수 (李龜洙)	0	1(무효)	
무 효	0	1(무효)	
합 계	197	197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6),「역대대통령선거상황(초대~제14대)」.

이시영 초대 부통령이 1951년 5월 9일 사임함에 따라 5월 16일 제2대 부통령 선거가 역시 국회 간선으로 실시되었다. 제2대 국회의 재적의원 210명 중 151명이 출석한 가운데 [표 7-10]과 같이 1차 투표와 2차 투표에서 2/3 이상을 득표한 사람이 없어 결국 3차 결선투표에서 김성수(金性洙)가 이갑성의 73표보다 많은 78표를 획득하여 제2대 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표 7-10〉 제2대 부통령선거 결과(1951. 5. 16)

후 보 자	1차 투표 득 표 수	2차 투표 득 표 수	3차 투표 득 표 수	비 고
김 성 수 (金性洙)	66	68	78	2차 투표는 1차 투표의 최다 득표자인 김성수와 이갑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3 이상 득표자가 없어 3차 결선투표에서 다수득표자가 당선됨.
이 갑 성 (李甲成)	53	65	73	
함 태 영 (咸台永)	17	10(무효)	–	
장 택 상 (張澤相)	11	5(무효)	–	
지 청 천 (池靑天)	2	2	–	
김 창 숙 (金昌淑)	1	1	–	
무 효				
합 계	151	151	15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6), 『역대대통령선거상황(초대~제14대)』.

2. 제2대 대통령 및 제3대 부통령 선거



초대 대통령과 1·2대 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었으나, 제2대 대통령과 제3대 부통령부터는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직선제 논의는 1951년 11월 30일 이승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이 때 대통령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려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서의 간접선거 방식에 의해서는 재선될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이다.[63] 당시 국회의 세력 분포는 원내 자유당 93석, 민주국민당 39석, 민우회 25석, 무소속 18석 등으로, 원외 자유당파에 속하는 소수를 제외하고 국회의원의 절대 다수가 야당 성향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제출한 개헌안은 1952년 1월 18일 표결결과 재적의원 163명 중 찬성 19, 반대 143, 기권 1로 부결되었다.[64]

63) 최한수(1996), 『한국선거정치론』, 대왕사.

64) 김현우, 앞의 책, 269쪽.

이렇게 국회가 정부 제출의 개헌안을 부결시킴과 아울러 4월 17일 내각제 개헌안을 제출하자 정부는 5월 14일 지난번 부결되었던 개헌안을 약간 수정한 대통령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발췌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5월 25일 경남 및 전남·북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 80여명이 감금된 상황에서 표결이 실시되었는데, 발췌 개헌안은 7월4일 재적의원 183명 중 166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63표, 기권 3표로 통과되었다.



〈사진 3-7 : 11〉 제2대 대통령 선거 벽보



〈사진 3-7 : 12〉 득표상황 게시

따라서 1952년 8월 5일에 실시된 제2대 대통령 및 제3대 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국민 직선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통령 선거에는 자유당의 이승만, 무소속의 이시영, 조봉암, 신흥우 등 4명이 입후보하였다. 투표율 88.0%를 나타낸 제2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결과 [표 7-11]과 같이 자유당의 이승만(李承晩)이 유효투표의 74.6%에 해당하는 5,238,769표를 득표하여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경기도에서 이승만은 657,174표를 얻어 차점자인 조봉암의 44,967표를 훨씬 앞섰으며, 광주군에서도 43,344표를 얻어 차점자인 이시영의 3,127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획득하였다.

제2대 대통령선거 결과(1952. 8. 5)

후보자 지역	자유당 이승만 (李承晩)	무소속 조봉암 (曺奉岩)	무소속 이시영 (李始榮)	무소속 신흥우 (申興雨)	유효투표수
전국	5,238,769	797,504	764,715	219,696	7,020,684
경기도	657,174	44,967	34,704	12,891	749,736
광주군	43,347	1,934	2,127	800	48,208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6),「역대대통령선거상황(초대~제14대)」.

1952년 8월 5일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제3대 부통령선거에는 자



〈사진 3-7 : 13〉 3대 부통령 선거 벽보

유당의 이범석, 이갑성, 민주국민당의 조병옥, 조선민주당의 이윤영, 여자국민당의 임영신, 대한노동총연맹의 전진한, 무소속의 함태영, 백성욱, 정기원 등 9명이 입후보하였다. 자유당은 대통령 후보에 이승만, 부통령 후보에 이범석을 지명하였으며, 이갑성도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로 입후보하였다. 그런데 선거도중 이승만이 무소속의 함태영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투표결과 [표 7-12]와 같이 함태영(咸台永)이 유효 투표수의 41.3%에 해당하는 2,943,813표를 득표하여 제3대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경기도에서 함태영은 347,799표를 얻어 자유당 이범석의 252,090표를 앞질렀고, 광주군에서도 함태영은 24,739표로 이범석의 15,205표보다 많이 앞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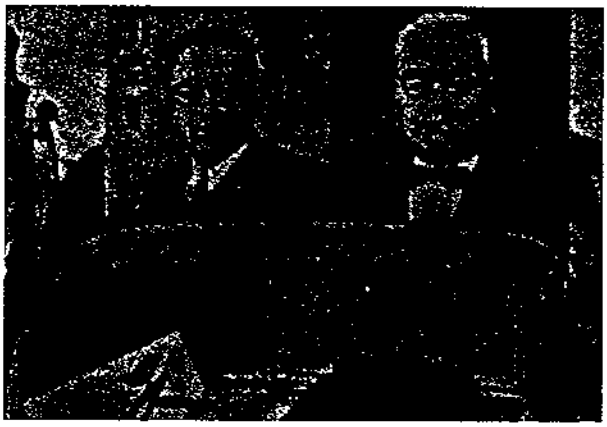
〈표 7-12〉 제3대 부통령선거 결과(1952. 8. 5)

지역	후보자	자유당		민주국민당	조선국민당	여자국민당	대한노총	무소속			유효득표수
		이범석(李範奭)	이갑성(李甲成)	조병옥(趙炳玉)	이윤영(李允榮)	임영신(任永信)	전진한(錢鎭漢)	함태영(咸台永)	백성욱(白性郁)	정기원(鄭基元)	
전 국		1,815,692	500,972	575,260	459,583	190,211	302,471	2,943,813	181,388	164,907	7,133,297
경기도		252,090	35,154	27,776	42,038	13,195	21,076	347,799	10,547	12,593	762,268
광주군		15,205	1,929	1,271	2,523	875	1,251	24,739	542	619	48,954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6), 「역대대통령선거상황(초대~제14대)」.

3. 제3대 대통령 및 제4대 부통령 선거

자유당은 1954년 실시된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정치적 기반을 바탕으로 1954년 9월 6일 초대 대통령의 종신 연임제와 일부 헌법 조항의 국민투표 회부를 골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헌법 개정안은 11월 27일 국회에서 재적의원 203명중 20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5, 반대 60, 기권 7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이틀 뒤인 11월 29



〈사진 3-7:14〉 신익희와 장면의 선거유세

일 자유당은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의 4사5입(四捨五入)은 135명이라는 근거로 야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헌법 개정안의 통과를 선포하였다. 헌법 개정에 의해서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중임 제한 조항에 적용되지 않고 종신 집권할 수 있게 되었다.

자유당은 3월 5일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대통령 후보에 이승만, 부통령 후보에 이기붕을 지명하였다. 이승만은 처음에는 불출마 의사를 표명하였다가 출마를 요구하는 시위가 있게 되자 3월 27일 민의를 수용하여 대통령 출마의 의사를 밝혔다.

야당인 민주당은 1956년 3월 28일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대통령 후보에 신익희, 부통령 후보에 장면을 지명하였다. 이와 함께 야당의 단일 대통령 후보를 내세우기 위해서 조봉암을 후보로 내세운 진보당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진전이 없었다. 그런데 선거전이 종반전에 접어든 5월 5일 호남지방의 유세에 나선 신익희(申翼熙) 후보가 뇌출혈로 사망함에 따라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이승만과 조봉암 간의 대결로 좁혀졌다.

투표율 94.4%를 나타낸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결과 [표 7-13]과 같이 자유당의 이승만(李承晩)이 유효 투표수의 70%에 해당하는 5,046,437표를 획득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무소속의 조봉암은 30%에 해당하는 2,163,808표를 획득하여 저력을 과시했다.[65]

경기도에서 이승만은 유효 투표수의 77.1%에 해당하는 607,757표를 득표하여 조봉암의 180,150표(22.9%)를 압도적으로 앞섰으며, 광주군에서도 이승만은 17,789표를 획득하여 조봉암의 6,872표를 훨씬 앞질렀다.

65) 조봉암의 선전(善戰)은 개인적 지지도 상승도 한 요인이겠으나 반이승만표 가운데 신익희를 지지하는 표가 대안으로 조봉암을 선택한 측면도 있다: 최한수, 앞의 책, 226쪽.

〈표 7-13〉 제3대 대통령선거 결과(1956. 5. 15)

후보자	자유당	진보당	유효투표수
지역	이승만(李承晩)	조봉암(曺奉岩)	
전국	5,046,437	2,163,808	7,210,245
경기도	607,757	180,150	787,907
광주군	17,789	6,872	24,66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6), 『역대대통령선거상황(초대~제14대)』.

1956년 5월 15일 제3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제4대 부통령선거에는 당초 자유당의 이기붕, 민주당의 장면, 조선민주당의 이윤영, 대한국민당의 윤치영, 진보당의 박기출, 무소속의 이범석, 백성욱, 이종태 등 8명이 입후보하였으나, 선거 도중 박기출 후보와 이종태 후보의 사퇴로 선거전은 6파전으로 압축되었다.

투표 결과 [표 7-14]와 같이 민주당의 장면(張勉)이 유효 투표수의 46.4%에 해당하는 4,012,654표를 획득하여 3,805,502표를 얻은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를 제치고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장면 후보는 경기도에서 450,140표를 득표하여 이기붕 후보의 424,104표를 앞섰으며, 광주군에서도 이기붕 후보의 12,993표보다 많은 26,559표를 득표하였다.

[표 7-14] 제4대 부통령선거 결과(1956. 5. 15)

후보자 / 지역	자유당 이기붕 (李起鵬)	민주당 장면 (張勉)	조선민주당 이윤영 (李允榮)	대한국민당 윤치영 (尹致暎)	무소속 이범석 (李範奭)	무소속 백성욱 (白性郁)	유효 투표수
전 국	3,805,502	4,012,654	34,926	241,278	317,579	230,555	8,642,494
경 기 도	424,104	450,140	6,768	40,720	55,621	25,216	1,002,569
광 주 군	12,993	26,559	253	1,589	1,859	1,220	44,4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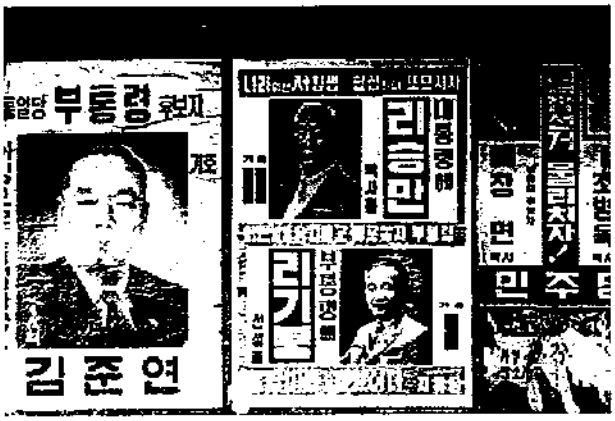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6), 「역대대통령선거 상황(초대~제14대)」.

4. 제4대 대통령 및 제5대 부통령 선거

제4대 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자유당은 1960년에 있을 정·부통령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개정, 야당 성향의 경향신문 폐간 등을 행하였으며, 특히 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헌법상 별도로 시행하게 되어 있는 정·부통령 선거 조항을 정·부통령 단일티켓제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개헌에 성공하지 못했다.

자유당은 1959년 6월 제9차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4선 출마를 지지하고 대통령 후보에 이승만, 부통령 후보에 이기붕을 지명하였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 지명 등의 문제로 신파와 구파간의 내분이 계속되던 중 중도파 및 신파의 곽상훈, 박순천 최고위원이 당직을 사퇴하고



<사진 3-7 : 15> 제4대 대통령선거 벽보

구파의 조병옥 대표최고위원이 대통령 후보 포기선언을 하기도 하였다. 결국 11월 26일 개최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구파의 조병옥이 대통령 후보로, 신파의 장면이 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그 밖에 반독재민주수호연맹의 장택상, 민족주의민주사회당의 전진한, 진보당의 김달호 등도 대통령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으나 실제로 입후보하지는 않았다.

그 후 민주당의 조병옥(趙炳玉) 후보가 1960년 2월 미국에서 병환치료 중 서거함에 따라 대통령선거는 단일 입후보의 경우 유효투표의 1/3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된다는 대통령선거법에 의해 단일 후보인 자유당의 이승만 후보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민주당의 대통령후보는 공교롭게도 1956년 선거와 1960년 선거 두 번에 걸쳐서 선거운동 기간 중 사망하는 불운을 겪었다.



<사진 3-7 : 16> 신병 치료차 도미하는 조병옥과 지지자들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단독 입후보하여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부통령 선거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더욱이 이승만 대통령이 고령으로 임기 중 사망할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유당은 이기붕 후보를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하였다.

제5대 부통령 선거에는 자유당의 이기붕, 민주당의 장면, 통일당의 김준연, 여자국민당의 임영신 등 4명이 입후보하였으나, 선거 양상은 처음부터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와 민주당의 장면 후보간의 경쟁으로 압축되었다.

투표율 97.0%를 나타낸 1960년 3월 15일의 정 · 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에는 [표 7-15]와 같이 단일 후보인 자유당의 이승만(李承晩)이 유효투표수 88.7%에 해당하는 9,633,376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었으며, 부통령에는 [표 7-16]과 같이 자유당의 이기붕(李起鵬)이 유효 투표수의 79.0%에 해당하는 8,337.059표를 득표하여 1,843,758표를 획득한 민주당의 장면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이승만 대통령 후보는 유효 투표수의 87.1%에 해당하는 1,139,927표를 획득하였으며, 이기붕 부통령후보는 955,804표를 득표하여 278,686표를 얻은 장면을 크게 앞질렀다. 그리고 광주군에서도 이승만은 유효 투표수의 88.0%에 해당하는 52,555표를 얻었으며, 이기붕도 41,865표를 득표하여 16,741표를 득표한 장면 후보를 훨씬 앞섰다. 그러나 1960년 3·15선거는 자유당이 4할 사전투표, 3인조·9인조 투표조 편성, 선거감찰반 동원 등 갖은 부정선거방법을 동원하였던 관계로 4·19혁명 직후인 4월 26일 소집된 국회에서 무효로 결정되었다.

〈표 7-15〉 제4대 대통령선거 결과(1960. 3. 15)

후보자 / 지역	자유당 이승만(李承晩)	비고
전 국	9,633,376	
경 기 도	1,139,927	민주당 조병옥 후보의 서거로 단독 입후보함.
광 주 군	52,555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6),「역대대통령선거상황(초대~제14대)」.

〈표 7-16〉 제5대 부통령선거 결과(1960. 3. 15)

후보자 / 지역	자유당 이기붕 (李起鵬)	통일당 김 준연 (金俊淵)	여자민주당 임영신 (任永信)	민주당 장 면 (張 勉)	유효투표수
전 국	8,337,059	249,095	97,533	1,843,758	10,527,445
경 기 도	955,804	20,372	8,771	278,686	1,263,633
광 주 군	41,865	249,095	184	16,741	307,885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6),「역대대통령선거 상황(초대-제14대)」.

5. 제4대 대통령 간접선거

1960년 3월 15일 실시되었던 정·부통령 선거는 4·19 이후 국회의 결의에 의해서 무효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제4대 대통령 선거는 1960년 7월 29일 총선에 의해 구성된 제5대 국회에서 다시 실시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하여 실질적인 행정수반인 국무총리와 국가원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하여 실질적인 행정수반인 국무총리와 국가원수로서의 상징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모두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었기 때문이다.

수로서의 상징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모두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었기 때문이다. 제4공화국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행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자가 당선되도록 하였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 국회의 인준을 받도록 되었다.

1960년 7월 29일 총선에 의해 구성된 제5대 국회는 민의원 의장에 곽상훈(郭尙勳), 부의장에 이영준(李榮俊), 서민호(徐珉濠)를, 그리고 참의원 의장에는 백낙준(白樂濬), 부의장에 소선규(蘇宣奎)를 선출하였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신파와 구파로 갈려 국회에서의 대통령 선출과 국무총리 인준을 둘러싸고 심각하게 대립하였다. 양 계파는 모두 상징적 국가원수에 불과한 대통령보다 실질적 권력 행사자인 국무총리에 자파 인사를 선출하고자 하였다.[66] 이렇게 민주당의 구파와 신파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곽상훈 등 중도파는 당의 분열방지를 위해서 1960년 8월 윤보선, 장면, 곽상훈 등의 3자회담을 주선하였으나 성과가 없었다.

66) 신파는 대통령에 구파의 윤보선, 국무총리에는 신파의 장면을 당선시키고자 한 반면, 구파는 대통령에 구파의 윤보선, 국무총리에 구파의 김도연이든지 또는 대통령에 신파의 장면, 국무총리에 구파의 김도연을 당선시키고자 하였다.

1960년 8월 12일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 합동회의에서 재적의원 263명 중 259명이 출석한 가운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선출이 있었다. 먼저 대통령 선거에서는 구파의 윤보선(尹潽善)이 [표 7-17]과 같이 출석의원 259명 중 압도적 다수인 208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신파는 대통령 선거에 있어 자파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구파의 결정에 동조함으로써 국무총리를 자파의 지도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표 7-17] 제4대 대통령 간접선거 결과(1960. 8. 12)

후보자	득표수	후보자	득표수
윤보선(尹潽善)	208	김시현(金始顯)	1
김창숙(金昌淑)	29	나용균(羅容均)	1
백낙준(白樂濬)	3	박순천(朴順天)	1
변영태(卞榮泰)	3	유옥우(劉沃祐)	1
김도연(金度演)	2	이철승(李哲承)	1
허 정(許 政)	2	무 효	6
김병로(金炳魯)	1	합 계	259(263)

* ( )안은 재적의원수임.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6), 『역대대통령선거상황(초대-제14대)』.

다음날인 8월 13일 양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에 취임한 윤보선은 헌법 규정에 따라 당적을 탈당하는 등 초당적 입장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것을 밝혔으나 8월17일 국무총리 후보지명에서는 구파의 김도연(金度演)을 지명하였다. 그러나 김도연 국무총리 인준 동의안이 신파 등의 반대로 민의원 재적의원 228명 중 2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11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됨에 따라, 윤보선 대통령은 8월 19일 제 2차로 신파의 장면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하게 되었다. 장면(張勉)은 민의원 의원 225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17표, 반대 107표, 무효 1표로 국무총리 인준을 받음으로써 내각책임제하의 국무총리로 선출되었다.

장면 내각은 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한지 3일 후인 5월 18일 계엄령을 추인하고, 내각 총사퇴와 군사혁명위원회에 정권이양을 결의하는 마지막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1960년 8월 23일 출범한지 8개월 만에 붕괴되었다.

6. 제5대 대통령 선거

5 · 16 군사쿠데타로 인해 효력이 정지되었던 헌법은 1962년 11월 5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발의되고 12월 17일 국민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78.8% 찬성으로 확정되었으며, 12월 26일 정식으로 공포되었다. 그리고 1963년 1월 1일부터 정치활동이 재개되면서 1월 16일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과 국회의원 선거법이, 2월 1일에는 대통령 선거법이 제정되었다. 새로운 대통령 선거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후보등록에서 정당의 추천을 요건으로 하고, ② 당선자는 비교다수로 하되 최고 득표자가 2인일 때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③ 대통령 후보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다.[67]



〈사진 3-7 : 17〉제5대 대통령 선거 벽보

67) 위의 책, 232쪽.

1963년 중 민정 이양이 결정됨에 따라 각 정치 세력은 대통령 선거에 대

비하여 정당을 창당하고 선거 전략을 구상하였다. 민주공화당은 2월 26일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5월 27일 전당대회에서 박정희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으며, 야당인 민정당은 5월 14일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윤보선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다.

한편 민주당은 7월 18일 창당대회를 개최하였으나 야권단일후보를 주장하여 대통령 후보를 내세우지 않았으며, 자유민주당은 9월 3일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송요찬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당은 9월 14일 창당대회를 개최하여 허정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다.

1963년 10월 15일 실시된 제5대 대통령 선거에는 당초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민정당의 윤보선, 국민의 당의 허정, 자유민주당의 송요찬, 추풍회의 오재영, 정민회의 변영태, 신흥당의 장이석 등 7인이 입후보하였으나, 선거도중 송요찬과 허정이 윤보선 지지를 선언하면서 후보를 사퇴함으로서 입후보자는 5인이 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선거전은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와 민정당의 윤보선 후보간의 경쟁으로 압축되었다.

윤보선은 서울, 경기, 강원, 충남·북 등에서, 박정희는 전남·북, 경남·북, 제주 등에서 강세를 보여 '표의 남북현상'을 나타냈다. 경기도와 광주군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 윤보선 후보가 박정희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획득하였다.

투표율 85.0%를 나타낸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결과 [표 7-18]과 같이 민주공화당의 박정희(朴正熙)는 유효 투표수의 46.6%인 4,702,640표를 획득하여, 민정당의 윤보선이 얻은 44,546,614표(45.1%)보다 약 15만 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윤보선은 서울, 경기, 강원, 충남·북 등에서, 박정희는 전남·북, 경남·북, 제주 등에서 강세를 보여 '표의 남북현상'을 나타냈다.[68]

경기도와 광주군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 윤보선 후보가 박정희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획득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윤보선이 661,984표를 득표하여 384,764표를 득표한 박정희를 앞섰으며, 광주군에서도 윤보선은 19,884표를 득표하여 12,078표를 득표한 박정희를 앞질렀다.

68) 안해균(1986), 『한국행정체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75쪽; 최한수, 앞의 책, 235쪽.

[표 7-18] 제5대 대통령선거 결과(1963.10.15)

지역 \ 후보자	민주공화당 박정희 (朴正熙)	추풍회 오재영 (吳在泳)	민정당 윤보선 (尹潽善)	정민회 변영태 (卞榮泰)	신흥당 장이석 (張履奭)	유효투표수
전 국	4,702,640	408,664	4,546,614	224,443	198,837	10,081,198
경기도	384,764	54,770	661,984	34,775	27,554	1,163,847
광주군	12,078	2,140	19,884	1,187	1,277	36,55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6), 『역대대통령선거상황(초대~제14대)』.

7. 제6대 대통령 선거



〈사진 3-7 : 18〉' 60년대 공명선거 포스터

제3공화국에서 강력한 정부 · 여당에 대응하여 야권통합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던 중 민중당과 신한당은 1967년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2월 11일 합당을 선언하고 신민당으로 출범하였다. 통합신당인 신민당은 대통령 후보에 윤보선, 대표위원에 유진오를 선출하였다.

여당인 민주공화당도 비슷한 시기인 2월 2일 제4차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박정희 총재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고 재집권의 총선 태세에 돌입하였다. 한편 제6대 국회의 개원 초부터 논의되어 온 대통령 선거법이 1963년 12월 3일 개정되었는데, 개정 선거법은 국외체류 부재자에 대한 우편 투표제도의 신설,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의 단축 등 사소한 문제를 제외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1967년 5월 3일 실시된 제6대 대통령선거에는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신민당의 윤보선, 대중당의 서민호, 한국독립당의 전진한, 민중당의 김준연, 통한당의 오재영, 정의당의 이세진 등 7명이 입후보하였다. 대통령선거전은 선거도중 서민호가 사퇴하여 6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와 신민당의 윤보선 후보간의 두 번째 대결로 압축되었다.

투표율 83.6%를 나타낸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결과 [표 7-19]와 같이 민주공화당의 박정희(朴正熙)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51.4%에 해당하는 5,688,666표를 획득하여 4,526,541표(40.9%)를 획득한 신민당의 윤보선 후보를 1,162,125표 차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윤보선은 서울, 경기, 충남, 전북, 전남에서 우세를 보인 반면 박정희는 영남지역에서 압승을 보임으로써 '표의 동서현상'이 나타났다.[69]

69) 김현우(2000),『한국정당정치 합운동사』, 윤유문화사, 474-475쪽.

이러한 현상으로 경기도와 광주군에서는 윤보선이 박정희보다 더 많은 득표를 보였다. 경기도의 경우 윤보선 후보는 674,964표를 획득하여 525,676표를 득표한 박정희 후보를 앞섰으며, 광주군에서도 윤보선 후보는 22,330표를 득표하여 14,283표를 득표한 박정희를 앞질렀다.

(표 7-9) 제6대 총선거결과(1967. 5. 3)

지역 \ 후보자	정의당 이세진 (李世鎭)	한국독립당 전진환 (錢鎭漢)	신민당 윤보선 (尹潽善)	민중당 김준연 (金俊淵)	민주공화당 박정희 (朴正熙)	통한당 오재영 (吳在泳)	유효득표수
전 국	98,433	232,179	4,526,541	248,369	5,688,666	264,533	11,058,721
경기도	11,209	25,306	674,964	23,248	525,676	22,383	1,282,606
광주군	542	1,100	22,330	1,031	14,283	1,051	40,337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6),『역대대통령선거상황(초대~제14대)』.

8. 제7대 대통령 선거



정부·여당에 의해 제안된 3선개헌안이 1969년 9월14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10월17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됨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의 3번째 집권을 위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

정부·여당에 의해 제안된 3선개헌안이 1969년 9월 14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10월 17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됨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의 3번째 집권을 위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 당시 헌법 제69조 3항은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으나 이를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라고 개정된 것이다.[70]

3선개헌 후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1971년 3월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박정희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는 등 제7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다.

통합야당인 신민당은 1970년 1월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유진산을 당수로 선출하고 3선개헌에 항의하여 6개월간 국회 등원을 거부했던 투쟁방식에 종지부를 찍고 국회 등원을 결정하였으며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등이 '40대기수론'을 제창한 가운데 9월 29일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2차례에 걸친 투표를 거쳐 김대중(金大中)이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한편 국민당은 윤보선을 중심으로 한 재야인사와 신민당의 일부 중진들을 흡수하여 1971년 1월 6일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윤보선을 총재로 선출하였으며, 3월 전당대회에서 박기출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다.

1971년 4월 27일 실시된 제7대 대통령 선거에는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신민당의 김대중, 국민당의 박기출, 통일사회당의 김철, 정의당의 진복기,

70) 위의 책, 488-489쪽.

자민당의 이종윤, 민중당의 성보경 등 총 7명이 입후보하였으나 선거도중 김철과 성보경이 입후보를 사퇴하여 결국 5명만이 선거를 치렀다.[71] 그러나 실제상 대통령 선거전은 세 번째 집권을 노리는 민주공화당의 박정희와 신민당의 40대 기수 김대중 간의 치열한 접전이었다.

투표율 79.8%를 나타낸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결과 [표 7-20]과 같이 민주공화당의 박정희(朴正熙)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53.2%에 해당하는 6,342,828표를 득표하여 5,395,900표(45.3%)를 획득한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를 946,928표 차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지역별로는 박정희 후보가 부산, 강원, 충북, 경북, 경남, 제주에서 압승하고 충남에서 우세를 보인 반면, 김대중 후보는 서울에서 압승하고 경기, 전북, 전남에서 우세하였다.

경기도에서 김대중 후보는 696,582표를 득표하여 박정희 후보의 687,985표를 근소한 차로 앞질렀으며, 광주군에서도 김대중 후보는 33,251표를 획득하여 30,478표를 획득한 박정희 후보보다 약간 우세하였다. 성남지역 역시 김대중 후보는 17,973표를 획득하여 15,318표를 획득한 박정희 후보를 약간 앞지르는 현상을 보였다.

71) 대중당은 1971년 3월4일 서민호를 대통령후보로 지명하였으나 서민호는 후보등록을 하지 않고 선거를 6일 앞둔 1971년 4월21일 신민당에 입당하였다: 위의 책, 48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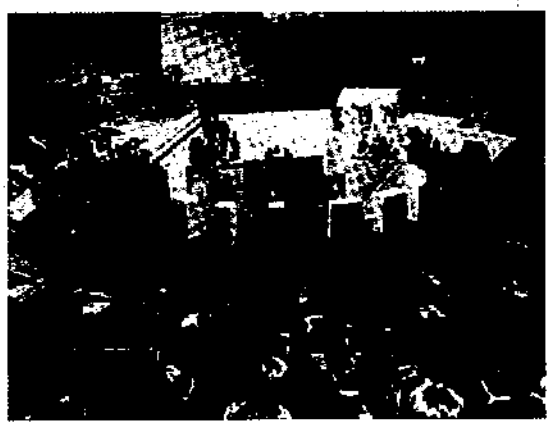
[표 7-20] 제7대 대통령선거결과(1971. 4. 27)

후보자 / 지역	민주공화당 박정희 (朴正熙)	신민당 김대중 (金大中)	국 민 당 박기출 (朴已出)	자 민 당 이종윤 (李鍾潤)	정의당 진복기 (陳福其)	유효득표수
전 국	6,342,828	5,395,900	43,753	17,823	122,914	11,923,218
경 기 도	687,985	696,582	6,547	2,995	13,770	1,407,879
광 주 군	30,478	33,251	380	211	779	65,099
성남지역	15,318	17,973	182	87	294	33,853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6),『역대대통령선거상황(초대~제14대)』.

9. 제8대 대통령 선거

1972년 10월 발표된 대통령 특별선언에 의해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이 중지되는 등 헌법의 일부 효력이 정지되었다. 이어 비상국무회의는 10월 27일 대통령의 3권 통제, 임기 6년의 간접 선거, 중임제한 철폐,



<사진 3-7 : 19>
통일주체국민회의



유신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 국회의원 1/3의 대통령 지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신헌법안을 의결하고 11월 21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하였다.

유신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통일주체국민회의법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를 추천하려는 대의원은 200명 이상의 추천장과 후보자 승낙서를 첨부하여 대통령 선거를 위한 국민회의 집회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통일주체국민회의 사무처에 등록하도록 했다.

유신헌법에 따른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접 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거방식은 1972년 12월 23일의 제8대 대통령 선거로부터 1978년 7월 6일의 제9대 대통령 선거, 1979년 12월 6일의 제10대 대통령 선거, 1980년 8월 27일의 제11대 대통령 선거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적용되었다.

제8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1972년 12월 15일 실시되었으며, 대통령후보 등록마감일인 12월 22일 곽상훈 등 515명의 대의원은 박정희를 대통령 후보로 국회사무처에 등록 신청하였다. 박정희(朴正熙) 후보는 단일 후보로서 [표 7-21]과 같이 12월23 일 개최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2,359명의 대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357표를 득표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표 7-21〉 제8대 대통령선거 결과(1972. 12. 25)

대의원 정수	재적 대의원	투표수	후보자 득표 박정희	무효	비고
2,359	2,359	2,359	2,357	2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73), 『대한민국선거사』(제2집).

10. 제9대 대통령 선거

민주공화당은 1978년의 제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신체제의 지속

을 당의 기본정책으로 정하고 선거에 임하였다. 한편 신민당에서는 1978년 초부터 대통령 선거에 당의 후보자를 낼 것인가를 두고 명분론과 현실론이 대립하였다. 명분론을 주장하는 측은 정당의 복표가 정권장악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현실론을 주장하는 측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한다고 해도 선거에 이길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결국 이철승 대표최고위원의 "승산이 희박한 대통령 선거보다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의 전력을 투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신민당은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72]

72) 위의 책, 534-535쪽.

제9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5월18일 실시되었으며, 곽상훈 등 507명의 대의원들은 대통령 후보 등록마감일인 7월5일 박정희를 대통령 후보로 국회사무처에 등록 신청하였다.

제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단독 후보인 박정희(朴正熙) 후보는 [표 7-22]와 같이 1978년 7월 6일 첫 집회를 가진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대의원 2,581명 중 2,578명이 참석한 가운데 2,577표를 득표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표 7-22] 제9대 대통령선거결과(1978.7.6)

대의원 정수	사퇴 · 사망	재적 대의원	투표수	후보자 득표 박정희	무효	기권
2,583	2	2,581	2,578	2,577	1	3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0), 『역대대통령선거상황』.

11. 제10대 대통령 선거

'10 · 26 사건'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 최규하 국무총리는 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제10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통일주체국민회의 집회일을 1979년 12월 6일로 공고하였다.

이에 앞서 민주공화당은 1979년 11월당무회의를 개최하여 박정희 총재의 사망으로 공석중인 당 총재에 김종필을 선출하고, 곧이어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대통령 보궐선거에 김종필 총재를 입후보 시킬 것을 의결하였으나, 김 총재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는 대통령 보궐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따라서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일인 12월 5일까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827명의 추천을 받은 최규하 후보만이 단일 입후보하였으며, 최규하(崔圭夏) 후보는 [표 7-23]과 같이 12월 6일 개최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 대의원 2,560명 중 2,549명이 참석한 가운데 2,456표를 득표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표 7-23》 제10대 대통령선거 결과(1979. 12. 6)

대의원 정수	사퇴 · 사망	재적 대의원	투표수	후보자 득표 최규하	무효	기권
2,583	23	2,560	2,549	2,465	84	1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0), 『역대대통령선거상황』.

12. 제11대 대통령 선거



과도적 권력기구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입법 · 행정 · 사법 등 3부를 장악하게 되자, 최규하 대통령은 8월16일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선례를 남기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최규하 대통령의 취임 후 노동자 시위, 학생 시위 등으로 정국이 불안한 가운데 12.12 사태 후 급부상한 신군부 세력이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과도적 권력기구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입법 · 행정 · 사법 등 3부를 장악하게 되자, 최규하 대통령은 8월 16일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선례를 남기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박충훈(朴忠勳) 국무총리서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으며, 8월 25일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전두환(全斗煥) 상임위원장을 대통령 후보로 추천하였다. 전두환 후보는 [표 7-24]와 같이 8월 27일 개최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 대의원 2,540명중 2,5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524표를 득표하여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표 7-24》 제11대 대통령선거 결과(1980. 8. 27)

대의원 정수	사퇴 · 사망	재적 대의원	투표수	후보자 득표 전두환	무효	기권
2,583	43	2,540	2,525	2,524	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0), 『역대대통령선거상황』.

13. 제12대 대통령 선거

전두환 대통령은 계엄 하에서 진행해 온 헌법개정안을 1980년 10월 10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0월 22일 국민투표에 붙여 찬성을 얻음으로써 제 5공화국 헌법이 확정되었다.

제 5공화국 헌법은 유신헌법의 내용 중 대통령의 권한에서 긴급조치권과 국회의원 1/3 추천권 및 법관임명권을 삭제하고, 대통령의 간선제 및 7년 단임의 임기제를 채택한 것이 주요골자이다.



제5공화국 헌법은 유신헌법의 내용 중 대통령의 권한에서 긴급조치권과 국회의원 1/3 추천권 및 법관임명권을 삭제하고, 대통령의 간선제 및 7년 단임의 임기제를 채택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새로운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5,000명 이상의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출되며, 대통령에 입후보하는 자는 정당 또는 일정수의 대통령 선거인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고 대통령 선거인단의 재적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되도록 하였다. 또한 1981년 1월 23일 개정된 대통령 선거법에서는 대통령 선거인 후보자 등록 시 요구되는 선거권자의 추천인 수 '200인 이상 300인 이하'를 '100인 이상 150인 이하'로, 인구 5,000명 미만 선거구에서의 '100인 이상 150인 이하'를 '50인 이상 70인 이하'로 하향 조정하였다.[73]

73) 국회사무처(1995), 『국가보위입법회의사』, 121쪽.

이는 대통령 선거인 후보자 등록시 요구되는 선거권자의 추천인수를 완화함으로써 대통령 선거인 후보자의 등록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는 1981년 2월 11일 실시되었으며, 제12대 대통령 선거에는 민주정의당의 전두환, 민한당의 유치송, 국민당의 김종철, 민권당의 김의택 등 4명이 입후보한 가운데 2월 25일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투표가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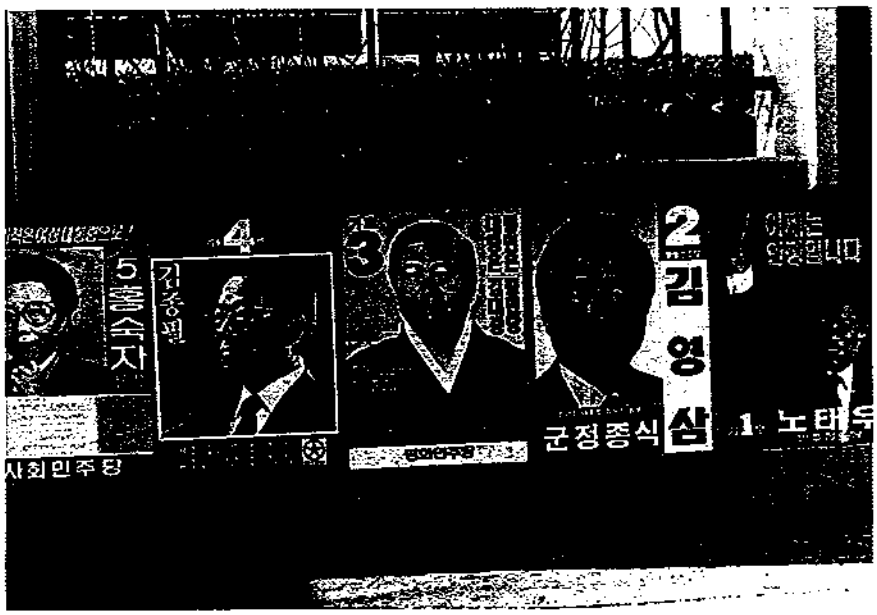
전국 77개 선거구에서 대통령 선거인 총 5,278명 중 5,271명이 투표한 결과 [표 7-25]와 같이 민주정의당의 전두환(全斗煥) 후보가 90.2%에 해당하는 4,755명의 지지를 얻어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전두환 후보는 투표자수 670표 중 620표를 획득하였으며, 성남시가 포함된 경기 제 4선거구(성남 · 여주 · 광주 · 이천)에서는 투표자수 101명 중 97표를 얻었다.

〈표 7-25〉 제12대 대통령선거 결과(1981. 2. 25)

후보자 지역	민주정의당 전 두 환 (全斗煥)	민주한국당 유 치 송 (柳致松)	한국국민당 김 종 철 (金鍾喆)	민권당 김 의 택 (金義澤)	유효투표수
전 국	4,755	404	85	26	5,720
경 기 도	620	43	4	3	670
성 남 시 *	97	3	0	1	101

* 경기도 제4선거구(성남 · 여주 · 광주 · 이천).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5), 『제12대 대통령선거총람』.

14. 제13대 대통령 선거



〈사진 3-7 : 20〉 제13대 대통령 선거 벽보

정권교체와 개헌 문제가 정국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6.10 민주항쟁과 이에 따른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의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가능하게 되었다.

1987년에 들어 정권교체와 개헌 문제가 정국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6.10 민주항쟁과 이에 따른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의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7월 1일 '시국수습에 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여 6.29선언의 8개항을 모두 수용하였으며, 여 · 야가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 직선제 합의 개헌을 이루면 임기 중에 새 헌법에 따라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1988년 2월 15일

후임 대통령에게 평화적으로 정부를 이양하겠다는 정치 일정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여·야는 바로 직선제 개헌작업에 착수하여 10월 12일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10월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정의당은 이미 6월 10일 전당대회를 통해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노태우 총재를 중심으로 선거전략을 착실히 전개한 반면, 야권은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등 3인의 주요 야당 지도자들이 각기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분열 양상을 보였다. 특히 김대중이 8월 8일 통일민주당에 입당하면서 김영삼과의 후보 단일화를 약속한 것과 달리 평화민주당을 만들어 대통령 후보로 나섬으로써 재야측의 간절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김영삼·김대중간 대통령 후보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74]

74) 김현우, 앞의 책, 616-617쪽.

1987년 12월 16일 실시된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사회민주당의 홍숙자, 일체민주당의 김선적, 한국의통일한국당의 신정일, 무소속의 백기완 등 8명이 입후보하였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홍숙자, 김선적, 백기완 등이 후보를 사퇴하여 대통령 후보자는 모두 5명으로 압축되었다. 이 선거는 1972년 유신체제 이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었으며, 선거기간 동안 30여 년에 걸친 군정 종식과 민주화 문제가 중요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후보와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후보간의 단일화 문제가 선거 마지막까지 관심을 끌었다.

투표율 89.2%를 나타낸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결과 [표 5-26]과 같이 민주정의당의 노태우(盧泰愚)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36.6%인 8,282,738표를 획득하여 김영삼 후보의 6,337,581표(28.9%), 김대중 후보의 6,113,375표(27.0%), 김종필 후보의 1,823,067표(8.1%)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경기도에서는 노태우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41.5%인 1,204,235표를 획득하여 차점자인 김영삼의 800,274표(27.5%)를 앞섰으며, 성남시의 경우는 김대중 후보가 유효투표수의 34.8%에 해당하는 91,230표로 노태우 후보의 88,476표(33.7%)를 앞질렀다.

〈표 7-26〉 제13대 대통령선거 결과(1987. 12. 16)

지역	후보자 / 민주정의당 노태우 (盧泰愚)	통일민주당 김영삼 (金泳三)	평화민주당 김대중 (金大中)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金鍾泌)	한국의 통일한국당 신정일 (申正一)	유효투표수
전 국	8,282,738	6,337,581	6,113,375	1,823,067	46,650	22,603,411
경 기 도	1,204,235	800,274	647,934	247,259	5,621	2,905,323
성 남 시	88,476	60,433	91,230	21,957	355	262,45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8),『제13대 대통령선거총람』.

15. 제14대 대통령 선거

제14대 대통령 선거는 여권과 야권이 각기 통합된 정치권의 재편 상황에서 실시된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에 커다란 관심이 모아졌다.

제14대 대통령 선거는 여권과 야권이 각기 통합된 정치권의 재편 상황에서 실시된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에 커다란 관심이 모아졌다. 먼저 1990년 3당통합으로 탄생된 민주자유당은 대통령 후보문제를 둘러싸고 각 계파간의 알력이 표출된 가운데, 1992년 5월 19일 여당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실시하였다. 이날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은 이종찬의 경선 거부로 단독 출마한 경선에서 총 투표수 6,660표 중 66.3%인 4,418표를 얻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75] 또한 1991년 평화민주당과 민주당의 합당으로 창당된 민주당은 5월 26일 개최된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김대중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다. 이로써 김대중은 1971년과 1987년에 이어 대통령 선거에 3번째 도전하게 되었다.

한편 1992년 1월창당하여 3.24총선에서 21석을 획득함으로서 급부상

75) 김영삼은 김대중 후보에 맞설 사람은 김영삼 밖에 없다는 김영삼 대세론이 확산되면서 민주자유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 것이다: 위의 책, 706쪽.



〈사진 3-7 : 21〉 제14대 대통령 선거 벽보

한 통일국민당은 5월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정주영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다.

1992년 12월 18일 실시된 제14대 대통령 선거에는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민주당의 김대중, 통일국민당의 정주영, 신정당의 박찬종, 정의당의 이병호, 무소속의 백기완, 김옥선 등 7명의 후보들이 입후보하였다.

투표율 81.9%를 나타낸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결과 [표 7-27]과 같이 민주자유당의 김영삼(金泳三)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42.0%인 9,977,332표를 획득하여 8,041,284표(33.8%)를 획득한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를 190만표 차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통일국민당의 정주영 후보는 16.3%인 3,880,067표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경기도에서는 김영삼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36.3%인 1,254,025표를 득표하여 김대중 후보 32.0%, 정주영 후보 23.1%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하였으며, 반면 성남시에서는 김대중 후보가 유효투표수의 41.2%인 140,288표를 획득하여 김영삼 후보의 108,891표(32.0%), 정주영 후보의 61,526표(18.1%)를 앞섰다. 그러나 분당구에서는 김영삼 후보가 18,505표를 득표하여 13,235표를 얻은 김대중 후보를 앞질렀다.

[표 7-27] 제14대 대통령선거 결과(1992. 12. 18)

후보자 / 지역	민주자유당 김영삼 (金泳三)	신민당 김대중 (金大中)	통일국민당 정주영 (鄭周永)	신정당 박찬종 (朴燦鍾)	정의당 이병호 (李丙昊)	무소속 김옥선 (金玉仙)	무소속 백기완 (白基玩)	유효투표수
전 국	9,977,332	8,041,284	3,880,067	1,516,047	35,739	86,292	238,648	23,775,409
경기도	1,254,025	1,103,498	798,356	239,140	6,299	13,685	36,392	3,451,395
성남시 (합계)	108,891	140,288	61,526	20,953	363	1,112	3,132	336,265
성남시 수정구	45,415	64,714	25,866	9,230	168	533	1,394	147,320
성남시 중원구	44,971	62,339	26,657	8,550	161	485	1,336	144,499
성남시 분당구	18,505	13,235	9,003	3,173	34	94	402	44,44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2),「제14대 대통령선거총람」.

16. 제15대 대통령 선거



〈사진 3-7 : 22〉 제15대 대통령 선거 벽보

김영삼 정권의 출범 후 민주자유당에서 당명을 바꾼 신한국당은 1997년 7월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경선을 통해 이회창을 대통령후보로 선출하였다. 집권당 최초로 이루어진 자유 경선에서는 이회창, 이인제, 박찬종, 김덕룡, 이한동, 이수성 등 6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이회창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다시 행한 2차 투표에서 총 투표수 11,544표 중 60.0%인 6,922표를 얻어 4,622표(40.0%)를 얻은 이인제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경선에 나섰던 이인제가 11월 4일 여론지지율을 이유로 국민신당을 결성하여 대통령 후보로 출마함으로써 신한국당은 대통령 선거전에서 시련을 안게 되었다.

신한국당은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바로 앞두고 당세의 확장을 꾀하던 중 김대중이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함으로써 분당사태를 겪게 된 민주당[76]과 합당하여 1997년 11월 21일 통합신당인 한나라당을 출범시키고 총재에 조순, 대통령 후보에 이회창을 선출하였다.

한편 정계복귀와 더불어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고 대통령후보로 나선 김대중은 자유민주연합의 김종필과 'DJP연대'를 구축함으로써 대통령 선거전에 대비하였다.

1997년 12월 18일 실시된 제15대 대통령 선거에는 한나라당의 이회창,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국민신당의 이인제, 국민승리21의 권영길, 통일

76) 민주당은 3당합당 당시(1990. 2. 9) 합당을 거부하였던 이기택 등 통일민주당 잔류파에 의해 결성된 민주당이 모태이다. 그 후 평화민주당과 결합하여 민주당이라는 야권 통합신당을 결성하였다가 김대중이 제14대 대선에서 낙선한 후 이기택 총재체제로 유지되었으며, 김대중의 정계복귀 후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함으로써 다시 분당된 것이다.

한국당의 신정일, 바른나라정치연합의 김한식, 공화당의 허경영 등 7명의 후보들이 출마하였는데, 실질상으로는 한나라당의 이회창후보와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간의 대결이었다. 투표율 80.7%를 나타낸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결과 [표 7-28]과 같이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金大中) 후보가 유효투표수의 40.3%인 10,326,275표를 획득하여 9,935,718표(38.7%)를 득표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약 39만표의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경기도에서도 김대중 후보가 유효투표수의 39.3%인 1,781,577표를 득표하여 1,612,108표(35.5%)를 획득한 이회창 후보를 앞섰다. 성남시의 경우 구시가지인 수정구와 중원구에서는 김대중 후보가 각각 49.4%인 70,909표, 49.2%인 73,650표를 얻어 93,818표(27.7%), 40,779표(27.2%)를 획득한 이회창 후보를 크게 앞지른 반면, 신시가지인 분당구에서는 이회창 후보가 51.1%인 109,195표를 득표하여 김대중 후보의 75,438표(35.3%)를 훨씬 앞섰다.

(표 7-28) 제15대 대통령선거 결과(1997. 12.18)

지역	한나라당	새정치 국민회의	국민신당	건설 국민승리21	공화당	바른나라 정치연합	통일한국당	유효투표수
후보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권영길	허경영	김한식	신정일	
전국	9,935,718	10,326,275	4,925,591	306,026	39,055	48,717	61,056	25,642,438
경기도	1,612,108	1,781,577	1,071,704	47,608	7,077	8,035	7,415	4,535,524
성남시 (합계)	189,792	219,997	90,806	4,677	541	907	429	507,149
성남시 수정구	39,818	70,909	30,914	1,362	188	265	151	143,607
성남시 중원구	40,779	73,650	33,343	1,299	182	254	154	149,661
성남시 분당구	109,195	75,438	26,549	2,016	171	388	124	213,88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8),「제15대 대통령선거 총람」.

17. 제16대 대통령 선거



〈사진 3-7 : 23〉 제16대 대통령 선거 벽보

2002년 말경에 실시될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환경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주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하나는 여·야 주요정당들이 대통령후보 확정을 위한 '당내 경선(競選)'에서 일반국민까지 참여시키는 소위 국민참여 선거인단을 통한 경선으로 후보자를 선출하였다는 점이다. 우리 정치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국민참여 경선과정에서 주요정당들은 2002년 연초부터 대선후보 경선에 일반국민을 선거인단으로 모집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선거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야 주요정당들이 대통령 후보 확정을 위한 '당내 경선(競選)'에서 **일반국민까지** 참여시키는 소위 국민참여 선거인단을 통한 경선으로 후보자를 선출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새천년민주당의 경우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라 구성된 국민참여 선거인단 7만명을 대상으로 2002년 3월 9일부터 4월 27일까지 김중권, 한화갑, 노무현, 이인제, 정동영, 김근태, 유종근 등 7명의 후보자들이 전국 16개 시·도를 순회하며 지역별 경선을 벌였는데, 극적인 반전과정을 겪으면서 최종적으로 노무현(盧武鉉)이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었다. 한나라당도 국민참여 선거인단 5만명을 대상으로 2002년 4월 13일부터 5월 9일까지 이회창, 최병렬, 이부영, 이상희 등 4명의 후보자들이 전국 11개 권역을 순회하며 지역별 경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였는데, 이회창(李會昌)이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었다.

또 하나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미디어 선거와 인터넷 선거가 급속히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15대 대통령선거시 제도적으로 처음 도입되었던 방송광고나 TV합동토론 등 미디어선거운동은 이번 선거에서 부동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정도로 활성화되었으며, 신문 및 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 언론기관 초청 대담 및 토론회 등 선거법에서 정한 모든 유형의 미

디어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활용, 인터넷방송·신문, 인터넷 동영상,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 발송, 전자메일 송부 등 인터넷과 휴대전화에 의한 다양한 선거운동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선거 환경의 변화 속에서 대선정국은 연초에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압도적인 우세가 점쳐졌으며 국민경선과정을 거치면서 한 때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앞서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월드컵축구 4강 진출로 무소속의 정몽준 후보가 급작스레 부각됨으로써 이회창, 정몽준의 우세 속에 노무현 열세의 판도가 대선후보 등록일 직전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 등록일을 바로 앞두고 노무현-정몽준 연합과 이를 통한 노무현으로의 대통령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이회창-노무현의 예측불허의 대결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선거일을 맞게 되었다. 2002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의 이회창,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하나로국민연합의 이한동,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사회당의 김영규, 호국당의 김길수 등 6명의 후보들이 출마하였는데, 투표 직전까지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와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간의 팽팽한 접전이 이루어졌다. 투표율 70.8%를 나타낸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결과 <표 5-29>와 같이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유효투표수의 48.9%인 12,014,277표를 득표하여 11,443,297표(46.6%)를 득표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570,980표 앞질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노무현이 유효 투표수의 50.7%인 2,430,193표를 득표하여 2,120,191표(44.2%)를 득표한 이회창을 앞섰으며, 성남시에서도 노무현은 유효 투표수 474,045표 중 245,690표를 득표하여 210,039표를 득표한 이회창을 앞질렀다.

성남시의 경우 구시가지인 수정구와 중원구에서는 노무현 후보가 각각 77,373표(60.5%), 79,181표(60.5%)로 이회창 후보를 앞선 반면, 분당구에서는 이회창 후보가 119,039(55.3%)를 득표하여 노무현 후보를 앞질렀다.

〈표 7-39〉 제16대 대통령선거 결과(2002. 12. 19)

지역	한나라당 이회창 (李會昌)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盧武鉉)	하나로국민연합 이한동 (李漢東)	민주노동당 권영길 (權永吉)	사회당 김영규 (金英圭)	호국당 김길수 (金吉洙)	유효투표수
전국	11,443,297	12,014,277	74,027	957,148	22,063	51,104	24,561,916
경기도	2,120,191	2,430,193	26,072	209,346	4,119	8,085	4,798,006
성남시 (합계)	210,039	245,690	1,166	16,202	311	637	474,045
성남시 수정구	45,122	77,373	325	4,652	102	219	127,783
성남시 중원구	45,888	79,181	365	5,060	233	94	130,821
성남시 분당구	119,039	89,136	476	6,490	115	185	215,44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3), 『제16대 대통령선거 총람』.

18. 역대 대통령(제1대~16대) 및 부통령(제1대~4대) 현황

1) 대통령 현황

제1대~3대 대통령 이승만



제4대 대통령 윤보선



제5대~9대 대통령 박정희



제10대 대통령 최규하



제11대~12대 대통령 전두환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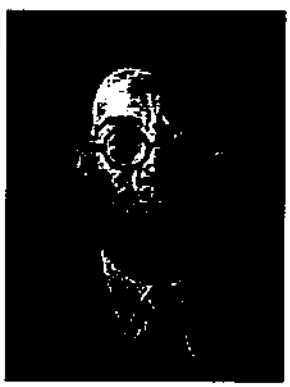


2) 부통령 현황

제1대 부통령 이시영



제2대 부통령 김성수



제3대 부통령 함태영



제4대 부통령 장면



제2절 국회의원 선거

1. 제헌 국회의원 선거



〈사진 3-7:24〉 제헌국회의원 선거 투표장면

미 군정당국은 한국의 법령은 한국인이 제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완전한 민정(民政)을 이루기 위하여 1946년 8월 24일 군정법령 제118호로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창설령'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그해 10월에 민선의원 45인, 11월에는 관선의원 45인이 선정되어 모두 90인으로 입법의원(立法議院)을 구성하고 12월 12일 개원식을 거행하였다. 입법의원은 의장에 김규식(金奎植), 부의장에 최동오(崔東旿)·윤기섭(尹琦燮)을 선출하고 각종 법안을 심의·제정하였다.

그러나 'UN임시한국위원단의 감시 하에 가능한 지역인 남한에서 총선거 실시'라는 UN에서의 한국 문제 결의와 관련하여 입법의원 내에는 찬성의 민선의원측과 반대의 관선의원측 간에 격심한 대립양상을 보였다. 결국 UN총회 결의에 따른 선거 가능한 지역의 총선 문제가 의제로 상정되면서 김규식 등 28명의 반대측 의원들이 사퇴한 가운데 총선 결의안이 1948년 2월 23일 본회의에서 채택되고 UN한국위원단에 송부되어 제헌의원 선거를 뒷받침하였다.

5.10 총선의 준비와 집행을 맡은 미 군정당국은 1948년 3월 17일 종전의 입법의원 선거법(남조선 과도정부 법률 제5호)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후 군정법령 제175호로 국회의원 선거법을 공포하였다. 전문 57조로 구성된 이 선거법은 ① 자유·평등·비밀·보통 선거를 원칙으로 임기 2년, 정원 200명을 규정하였으며, ② 선거권은 한국국적 소지자로서 만 21세, 피선거권은 만 25세에 달한 자에게 부여하였고, ③ 각 선거구마다 1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77]

제헌 국회의원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전국의 총 200개의 선거구 중에서 치안 관계로 선거시행이 보류된 북제주의 갑·을구를 제외한 198개의 선거구에서 실시되었다.[78] 5.10선거에는 의원정수 200명에 대하여 입후보자수는 948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4.7대 1이었으며, 좌익계와 남북협상파가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79] 대한독립촉성국민회 235명을 위시하여 48개 정당·사회단체가 선거에 참여하였다. 무소속 입후보자들은 총 입후보자의 44%에 해당하는 417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총 29개 선거구에 160명이 입후보하여 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광주군의 경우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소속의 신익희(申翼熙)가 단독 입후보하였다.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은 95.5%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였으며, 투표결과 [표 7-30]과 같이 무소속이 의원정수의 45.2%에 해당하는 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승만 노선을 지지해 오던 대한독립촉성국민회와 한국민주당이 각각 55석, 29석으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였다. 그 밖에 대동청년단 12석, 조선민족청년단 6석, 기타 군소정당 1~2석 등으로, 이렇게 군소정당이 난립한 것은 당시의 혼란한 정치상황과 의회정치의 미숙함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도 총 29개 의석 중 무소속이 16석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독립촉성국민회 7석, 한국민주당 2석, 대동청년단 3석, 한국독립당 1석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군에서는 단독 입후보한 대한독립촉성회의 신익희(申翼熙) 후보가 무투표로 제헌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선거 후 한국민주당은 무소속 및 다른 정파의원들을 영입하여 80석으로 세력을 확대하였는데, 당시는 정당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고 소속정당에 대한 충성심이나 귀속의식이 배양되기 전의 시기였기에 선거 후 쉽게 소속정당을 변경하는 의원들이 많았다.[80]

77) 김현우(2000), 『한국정당통합운동사』, 을유문화사, 236쪽.

78) 제주도에서는 선거방해를 위한 좌익세력의 소위 '4·3폭동'으로 2개 선거구가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였다가 1년 후인 1949년 5월10일에 실시되었다.

79) UN의 주관하에 미 군정당국이 제정한 국회의원선거법이 적용된 이 선거에는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김구, 김규식 등 중간노선의 정치세력과 좌익계열이 불참하였으며, 좌익계열은 선거를 전후하여 극심한 선거방해 및 파괴공작을 자행하였다: 김현우(2001), 『한국국회론』, 을유문화사, 504쪽.



군소정당이 난립한 것은 당시의 혼란한 정치상황과 의회정치의 미숙함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0) Richard G. Niemi and Herbert F. Weisberg(eds, 1984). Controversies in Voting and Behavior, Washington, D.C.: CQ Press, pp.106-131; 김현우, 앞의 책에서 재인용.

〈표 7-30〉 제헌 국회의원선거 정당·단체별 당선현황

구분 / 정당·단체	당선자수(명) 전국	당선자수(명) 경기도	득표율(%) 전국	득표율(%) 경기도
무 소 속	85	16	40.3	49.6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5	7	26.1	23.0
한 국 민 주 당	29	2	13.5	8.8
대 동 청 년 단	12	3	9.6	11.3
조선민족청년단	6	0	2.2	1.1
대한노동총연맹	1	0	1.6	2.3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2	0	0.8	0.7
기타 단체[81]	10	1	5.9	3.2
합 계	200	29	100	1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9). 「역대 국회의원 선거상황(제1대~11대)」.

81) 기타 단체 당선자 10명은 조선민주당, 대한청년당, 한국독립당, 교육협회, 남민회, 대성회, 유도회, 민족통일본부, 조선공화당, 무산15가락부 등에서 각각 1명씩이다.

〈표 7-31〉 제헌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광주군 투표결과(1948.5.10)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
광주군	대한독립 촉성국민회	신익희 (申翼熙)	57	입법의원 의장 자유신문사 사장	무투표

2. 제2대 국회의원 선거

제헌 국회는 제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미 군정법령이었던 구 국회의원 선거법을 폐지하고 1950년 4월 12일 국회의원 선거법을 제정하였다. 새 선거법은 기본적으로 미 군정하의 국회의원 선거법과 비슷하였으며, 선거구가 200개에서 210개로 늘어나고 피선거권의 일부 조항이 변경된 것만이 다를 뿐이었다.

제헌 국회는 제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미 군정법령이었던 구 국회의원 선거법을 폐지하고 1950년 4월12일 국회의원 선거법을 제정하였다.



〈사진 3-7:26〉 투표용지 발송 작업 모습

제헌 국회의원의 2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는 UN의 개입 없이 한국정부 자체의 힘에 의해서 치러진 최초의 선거이고, 제헌의원선거에서 불참하였던 중간파 세력과 혁신세력 등 모든 정치세력이 참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제2대 국회의원선 거의 입후보자는 의원정수 210개 의석에 대하여

2,209명으로 평균경쟁률이 10.5대 1에 달하였다. 여당인 대한국민당 165명, 야당인 민주국민당 154명 등 39개 정당·사회단체들이 선거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무소속이 총 입후보자수의 68.5%에 해당하는 1,513명에 이르렀다. 무소속 입후보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 불참하였던 남북협상파와 일부 중간파가 참여했기 때문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제헌국회의 29개 의석보다 1석이 늘어난 30개 의석에 대하여 314명이 입후보하여 10.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도 광주군의 경우 민주당의 신익희를 비롯하여 무소속 5명, 국민회 1명, 유도회(儒道會) 1명 등 8명이 입후보하였다.

선거에서 각 정당이 내세운 정책 중에는 유명무실한 것이 많았는데, 보수적 성격을 띤 민주국민당이 내세운 당의 정책 중 중요한 기본산업의 국유화 또는 통제관리, 그리고 근로대중 본위의 사회입법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 주목을 끌었다.[82]

82) 김현우(2000). 「정당통합운동사」. 은유문화사, 260-261쪽.

투표율 91.9%를 나타낸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결과 [표 7-32]와 같이 무소속이 의원 정수 210명의 60%에 해당하는 126명으로 가장 많이 당선되었으며, 대한국민당과 민주국민당이 각각 24석을 차지하였다.

경기도에서는 총 30개 의석 가운데 무소속이 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한국민당 6명, 민주국민당 3명의 순으로 당선되었다.

경기도 광주군의 경우 민주당의 신익희(申翼熙) 후보가 29,525표를 득표하여 압도적 다수로 제헌 국회의원에 이어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사진 3-7 : 25〉 광주군 출신 제헌 국회 의원 신익희

[표 7-32] 제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단체별 당선현황

구분	당선자수(명)		득표율(%)	
정당·단체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무소속	126	19	62.9	64.8
대한국민당	24	6	9.7	13.3
민주국민당	24	3	9.8	9.3
국민회	14	0	6.8	4.7
대한청년단	10	0	3.3	2.8
대한노동총연맹	3	0	1.7	1.2
사회당	2	1	1.3	1.2
일민구락부	3	1	1.0	1.8
한국독립당	0	0	0.3	0.3
기타단체[83]	4	0	3.2	1.0
합계	210	30	100	1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9). 「역대국회의원선거상황(제1대~11대)」.

83) 기타 단체 당선자 4명은 민족자주연맹, 대한부인회, 불교, 여자국민당 등에서 각각 1명씩이다.

〈표 7-39〉 제2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광주군 투표결과(1950.5.30)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
광주군	민주국민당	신익희(申翼熙)	59	국회의원	29,525
	무소속	이강목(李康穆)	29	공민교장	3,050
	무소속	강태연(姜泰演)	48	회사대표	3,605
	무소속	김낙규(金洛奎)	67	회사대표	493
	무소속	구성서(具聖書)	56	여중교원	사퇴
	국민회	안재정(安載珽)	48	상업	471
	유도회(儒道會)	이창선(李彰善)	44	의생	330
	무소속	선정식(宣正植)	63	농업	446
		합계(유효투표수)			37,920

3. 제3대 국회의원 선거



〈사진 3-7:27〉 피난지 부산에서 열린 6.25국회

제2대 국회는 1950년 6월 19일 개원하여 국회의장에 신익희(申翼熙), 부의장에 조봉암(曺奉岩)과 장택상(張澤相)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개원 6일 만인 6월 25일 한국전쟁의 발발로 국회의원 210명 중 사망 또는 피살된 의원이 8명, 납북 또는 행방불명된 의원이 27명이었다. 행방불명 또는 납북된 의원 중 경기도 출신의원은 안재홍(安在鴻, 평택), 김웅진(金雄鎭, 화성을구), 이종성(李宗聖, 이천), 유기수(柳驥秀, 용인), 김강배(金康培, 연백갑구), 백상규(白相圭, 장단) 등 6명이었다. 국회는 실종된 의원들이 다시 돌아와서 등록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이들 의원의 숫자만큼은 재적의원 수에 산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국회는 행정부와 함께 임시수도인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부산에서 1952년 중 실시될 제2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선출방법을 둘러싸고 개헌파동이 발생하였다. 1952년 7월 4일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으로 통과된 발췌 개헌안에 의하여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전시중인 것을 이유로 참의원은 구성되지 못하고 민의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으로 통과된 발췌 개헌안에 의하여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전시중인 것을 이유로 참의원은 구성되지 못하고 민의원만을 선출하는 제3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원만을 선출하는 제3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제3대 국회의원 선거의 의석수는 제2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210석이었으나, 휴전선 이북지역인 7개 선거구가 제외되어 203개 선거구에서만 선거가 실시되었다.

양원제의 구성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법이 변경되어야 했으나, 실제로 민의원 의원선거만 실시되었기 때문에 1950년의 선거법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자유당과 민주국민당이 각각 처음으로 정당후보 공천제도를 도입하여 정당정치의 기틀을 마련한 점이 주목된다. 정당 공천제도의 시행으로 정당의 소속의원 및 당원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이다.[84]

1954년 5월 20일 실시된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의원정수 203명에 대하여 입후보자는 1,207명으로 평균 경쟁률이 5.9대 1이었다. 여당인 자유당과 야당인 민주국민당 등 14개 정당이 선거에 참여하였으나, 후보자 10명 이상을 추천한 정당·사회단체는 4개에 불과하였다. 제2대 국회에 비해 선거에 참여한 정당·사회단체의 수가 감소하여 군소정당이 몰락하고 주요정당을 중심으로 정당정치의 틀이 잡혀가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무소속 입후보자는 전체 후보자의 66%에 해당하는 797명에 이르러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경기도에서는 30개 선거구 중 휴전선 이북지역인 개성시(開城市), 개풍군(開豊郡), 장단군(長湍郡), 연백군 갑·을(延白郡 甲·乙), 옹진군 갑·을(甕津郡甲·乙) 등 7개 선거구가 제외되어 실제 23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100명이 입후보하여 평균경쟁률이 4.3대 1이었다. 경기도 광주군의 경우 민주당의 신익희와 자유당의 최인규, 강태연 등 3명이 입후보하였다.

투표율 91.1%를 나타낸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결과 [표 5-34]와 같이 자유당이 의원정수의 56.2%에 해당하는 114석(공천자 99명, 비공천자 15명)을 차지하였으며, 민주국민당 15석, 국민회 3석, 대한국민당 3석 등의 득표상황을 나타냈다. 그리고 무소속은 자유당의 득표율 36.8% 114개 의석에 비해, 47.9% 득표로 67석을 차지함으로서 소선구제 다수 대표제의 폐단이 노정되었다.

경기도에서는 총 23개 의석 가운데 자유당이 16석을 차지하고 무소속 6석, 민국당 1석의 분포로 나타났다.

84) 자유당은 1953년 5월을 전후하여 원내·외 자유당이 통합하여 국회의석 과반수를 점한 자유당이 되었고, 반면 민주국민당은 29석으로 그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위의 책, 288쪽.

경기도 광주군의 경우 강태연 후보가 도중에 사퇴하여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와 자유당의 최인규 후보가 대결하였는데, 신익희(申翼熙) 후보가 24,218표를 획득하여 18,712표를 득표한 최인규 후보에게 승리하였다.

〈표 7-34〉 제3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단체별 당선현황

정당·단체 \ 구분	당선자수(명)		득표율(%)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무 소 속	67	6	47.9	31.0
자 유 당	114	16	36.8	43.7
민주국민당	15	1	7.9	5.2
국 민 회	3	0	2.6	0
대한국민당	3	0	1.0	0
제헌국회의원 동지회	1	0	3.8	20.1
합 계	203	23	100	1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9). 『역대국회의원선거상황(제1대~11대)』.

〈표 7-35〉 제3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광주군 득표결과(1954.5.20)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
광주군	민주국민당	신익희(申翼熙)	63	민의원 의장	24,218
	자유당	최인규(崔仁圭)	35	회사원	18,712
	자유당	강태연(姜泰演)	50	회사중역	사퇴
		합계(유효투표수)			42,930

그런데 신익희 의원이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호남지방 유세도중 1956년 5월 사망함에 따라 1956년 8월 23일 잔여 임기에 대한 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보궐선거에는 자유당의 박재덕, 민주국민당의 신하균, 무소속의 허호영, 이강목 등 4명의 후보들이 출마하였는데, 투표결과 [표 7-36]과 같이 고 신익희 의원의 아들인 민주당의 신하균(申河均) 후보가 20,014표를 득표하여 19,761표를 득표한 자유당의 박재덕 후보를 250여 표의 근소한 차이로 이겨 당선되었다.

〈표 7-36〉 제3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기도 광주군 득표결과(1956.8.23)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
광주군	민주당	신하균(申河均)	37	무직	20,014
	무소속	허호영(許浩永)	41	회사원	511
	무소속	이강목(李康穆)	36	목사	2,649
	자유당	박재덕(朴在悳)	36	농업	19,761
		합계(유효투표수)			42,935

4. 제4대 국회의원 선거

1958년의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하여 선거법 개정 문제가 정계의 큰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1952년의 발췌 개헌 이후 헌법은 국회를 양원으로 구성할 것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참의원 선거를 위한 법 개정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여 · 야는 각기 독자적인 선거법안을 마련한 후 '국회의원 선거법안 여 · 야 협상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측의 선거법안을 검토한 결과, 민의원 의원선거와 참의원 의원선거를 분리한 민의원의원선거법과 참의원의원선거법을 만들어 1958년 1월 1일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1월 25일 공포되었다.

개정된 민의원 의원선거법은 1950년에 제정된 국회의원 선거법 내용에 야당의 주장 중 투표참관인의 권한 확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일정 수에 대한 정당추천 허용 등이 수용되고, 여당의 주장 중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로 기탁금제와 선거 공영제, 선거비용 및 선거운동의 제한 등이 수용된 것이다.[85]

85) 김현우(2002),『한국의회사』, 유유문화사, 510-512쪽.

새로 제정된 참의원 의원선거법에 의하면 참의원 의원선거는 선거구를 각 시 · 도 단위로 구분하여 인구 60만에 2인씩 선출하고 선거구수는 30개, 의원정수는 70명으로 하며, 그 외 선거관련 사항은 민의원 의원선거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법 공포 후 1년 이내에 참의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민의원 의원선거만이 실시되고 1958년 5월2일 실시된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제3대 때보다 30개가 늘어난 233개 선거구에서 여당인 자유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14개 정당 단체가 추천한 841명이 입후보하여 평균경쟁률은 3.6대 1이었다. 군소정당의 난립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으나 무소속 후보가 총 후보자의 42.2%에 해당하는 357명으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25개 선거구에 88명이 입후보하여 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경기도 광주군의 경우 자유당의 최인규, 민주당의 신하균, 무소속의 김익준 등 3명이 입후보하였다.

투표율 90.7%를 나타낸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결과 [표 7-37]과 같이 자유당이 의원정수의 54.1%에 해당하는 126석(공천자 121명, 비공천자 5명)을 획득하였으며, 민주당이 79석, 무소속이 27석을 차지하였


〈사진 3-7:28〉 자유당 최인규 후보

다. 따라서 제4대 총선을 통해 자유당과 민주당 간의 양당구도가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4대 총선에서도 자유당은 42.1% 득표로 전체의석의 54.1%에 해당하는 의석을 점유한 반면, 민주당은 34.2% 득표로 전체의석의 33.9%에 해당하는 의석을 차지하는 등 제3대 총선에서와 같이 소선거구 다수 투표제의 폐단이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25개 의석 가운데 자유당이 14석을 차지하고 민주당 8석, 무소속 3석의 분포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광주군의 경우 자유당의 최인규(崔仁圭) 후보가 29,055표를 획득하여 16,497표를 획득한 민주당의 신하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표 7-37〉 제4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단체별 당선현황

구분 정당·단체	당선자수(명) 전국	당선자수(명) 경기도	득표율(%) 전국	득표율(%) 경기도
무소속	27	3	21.7	20.8
자유당	126	14	42.1	43.7
민주국민당	79	8	34.1	35.0
통일당	1	0	0.5	0
국민회	0	0	0.5	0
기타	0	0	1.1	0.5
합계	233	25	100	1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9), 『역대국회의원선거상황(제1대~11대)』.

〈표 7-38〉 제4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광주군 투표결과(1958. 5. 2)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
광주군	자유당	최인규(崔仁圭)	39	무직	29,055
	무소속	김익준(金益俊)	42	실업	3,995
	민주당	신하균(申河均)	39	민의원의원	16,497
		합계(유효투표수)			49,547

5. 제5대 국회의원 선거

4.19혁명 후 제1공화국이 붕괴되고 허정(許政) 과도정부가 수립되어 내각책임제 개헌과 총선거의 공정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다. 내각책임제와 양

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은 1960년 6월 15일 국회에서 가결되어 같은 날 정부에 의해 공포됨으로써 확정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은 내각책임제와 민의원 · 참의원의 양원제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제,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선거에 의한 선출제 등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선거연령이 헌법에 의하여 만21세에서 20세로 낮춰졌고, 참의원 의원의 피선거권은 35세에서 30세로 변경되었다.[86]



제2공화국 헌법은 내각책임제와 민의원 · 참의원의 양원제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제,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선거에 의한 선출제 등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86) 위의 책, 515-516쪽.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도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일주일 후인 6월22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그 개정 내용을 보면 ① 입후보 등록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천인제 대신 신고제 채택, ② 부재자 투표제도 신설, ③ 기탁금제도 신설(민의원 의원후보 30만원, 참의원 의원후보 50만원), ④ 투표 참관인제도 강화와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기입 등이다.

그리고 1960년 7월 29일 개정 헌법 및 개정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라 제5대 민의원의원선거와 초대 참의원 의원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과 4.19 후 활발해진 혁신 정당들이 대결하였고, 민주당에서는 신파와 구파간의 대결로 공천 문제가 큰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1) 민의원 의원선거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제5대 국회의원(민의원) 선거에는 민의원 의원정수 233명에 대하여 입후보자 총수가 1,563명이었으나, 등록 직후 45명이 입후보를 사퇴하여 입후보자 수는 1,518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6.5대 1이었다. 민주당을 비롯하여 14개 정당 ·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무소속 입후보자 수는 전체 입후보자 수의 64.3%에 해당하는 977명이었다.

민주당은 233개 선거구에 227명을 공천하였으나 신파와 구파가 당의 공식 공천자와 별도로 110명을 추가 공천하였으며, 혁신계 정당들도 많은 후보자를 내세웠다. 자유당 당원들은 대부분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며 자유당의 명칭을 내걸고 민의원에 입후보한 사람은 54명뿐이었다.

경기도에서는 민의원 의석 25석에 대하여 무소속 180명, 민주당 35명을 포함하여 총 243명이 입후보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9.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경기도 광주군에서는 민주당의 장동국, 자유당의 박재덕, 무소속의 신하균 등 모두 12명이 입후보하였다.

제5대 국회의원(민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은 84.3%를 나타냈으며, 이 선거에서 처음으로 부재자의 우편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결과 [표 7-39]와 같이 민주당이 41.7% 득표로 전체의석의 75.1%에 해당하는 175석을 차지하였으며, 다른 정당들은 사회대중당 4석, 자유당 2석, 그리고 무소속 49석에 불과하였다.


〈사진 3-7:29〉 광주군 무소속 후보 신하균

경기도에서는 민주당 후보 14명, 무소속 후보 11명이 당선되었으며, 경기도 광주군의 경우 무소속의 신하균(申河均) 후보가 24,098를 득표하여 2위인 민주당의 장동국 후보를 크게 앞질러 제3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어 재선되었다.

〈표 7-39〉 제5대 국회의원(민의원)선거 정당·단체별 당선현황

구분	당선자수(명)		득표율(%)	
정당·단체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민 주 당	175	14	41.7	33.7
자 유 당	2	0	2.7	5.2
무 소 속	49	11	46.8	56.7
사회대중당	4	0	6.0	1.6
한국사회당	1	0	0.6	0.4
통 일 당	1	0	0.2	0
한국독립당	0	0	0.2	0.7
기타단체	1	0	1.8	1.7
합계	233	25	100	1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9). 『역대국회의원선거상황(제1대~11대)』.

〈표 7-40〉 제5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광주군 투표결과(1960.7.29)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
광주군	무소속	신하균(申河均)	41	농업	24,098
	무소속	이진묵(李辰默)	54	사회사업	3,287
	무소속	김명진(金明鎭)	37	농업	2,014
	자유당	박재덕(朴在悳)	43	무직	2,564
	무소속	김해진(金海振)	46	농업	2,960
	무소속	이원영(李元榮)	53	회사원	3,598
	무소속	이강목(李康穆)	39	교육사업	1,826

〈표 7-40〉 제5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광주군 투표결과(1960. 7.29)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
	무소속	오봉규(吳琫圭)	35	회사원	867
	무소속	홍기복(洪基福)	50	상업	959
	민주당	장동국(張東國)	54	농업	5,835
	무소속	강태연(姜泰演)	56	회사대표	1,754
	무소속	이동상(李東商)	33	군인	1,912
		합계(유효투표수)			51,674

2) 참의원 의원선거

1952년의 발췌 개헌에 의해 양원제를 채택한 이래 제3대 및 제4대 국회에서는 민의원으로만 구성되었다가 1960년 7.29 총선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의원 의원선거와 함께 참의원의 원선거가 실시되었다. 개정된 참의원 의원선거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참의원 의원선거구는 서울특별시·도 단위로 하고, ② 의원정수는 선거구의 크기에 따라 2인 내지 8인으로 하여 3년마다 1/2씩 교체하며, ③ 투표자가 해당 선거구 의원 정수의 반수 이하의 후보자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제한연기투표제를 실시하는 것 등이다.

1960년 7월29일 민의원 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참의원 의원선거에는 의원정수 58명에 대하여 무소속 129명, 민주당 61명, 자유당 13명 등 총 218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경쟁률은 3.6대 1이었다. 경기도에서는 총 의석 6석에 대하여 22명이 입후보하여 경쟁률이 3.7대 1이었다.

참의원 의원선거의 투표자는 민의원 의원선거의 투표자보다 31,233명이 적은 9,747,688명이었다. 이것은 투표 절차상 민의원 의원 투표를 먼저 하고 참의원 의원 투표를 나중에 한 관계로 참의원 의원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투표결과 [표 7-41]과 같이 민주당이 39.0%를 득표하여 전체 의석의 53.4%에 해당하는 31석을 차지하였으며, 무소속 20석, 자유당 4석 등의 분포를 보였다.



투표 절차상 민의원 의원 투표를 먼저 하고 참의원 의원 투표를 나중에 한 관계로 참의원 의원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는 민주당 3명, 무소속 2명, 자유당 1명이 참의원 의원에 당선되었다. 득표순에 따라 여운홍, 정낙필, 신의식 등 3명이 임기 6년의 1부 참의원으로, 김용성, 이교선, 하상훈 등 3명은 임기 3년의 2부 참의원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표 7-1〉 제2대 참의원선거 정당·단체별 당선현황

구분 / 정당·단체	당선자수(명) 전국	당선자수(명) 경기도	득표율(%) 전국	득표율(%) 경기도
민 주 당	31	3	51.4	39.0
자 유 당	4	1	6.1	5.9
무 소 속	20	2	38.1	49.3
사회대중당	1	0	1.4	2.4
한국사회당	1	0	1.3	0.9
기 타 단 체	1	0	1.7	2.5
합 계	58	6	100	1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9), 『역대국회의원선거상황(제1대~11대)』.

〈표 7-2〉 제2대 참의원선거 경기도 투표결과(1960.7.29)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	비고
경기도	무소속	여운홍(呂運弘)	68	무직	439,755	제1부 (임기6년)
	민주당	정낙필(鄭樂弼)	62	무직	196,310	
	자유당	신의식(申義湜)	50	신문사사장	179,313	
	민주당	김용성(金龍星)	35	대학강사	170,282	제2부 (임기3년)
	무소속	이교선(李敎善)	57	무직	162,734	
	무소속	하상훈(河相勳)	69	무직	146,783	

6. 제6대 국회의원 선거

헌법 개정으로 국회는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뀌어 그 정치적 기능과 권한이 크게 감소된 반면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은 강화되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후 군사정권은 대통령 책임제와 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를 통하여 이를 확정시키고 12월 26일 공포하였다. 헌법 개정으로 국회는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뀌어 그 정치적 기능과 권한이 크게 감소된 반면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은 강화되었다.

5.16 군사정권은 1963년 1월 1일부터 정치활동 금지를 해제한 후 곧바로 1월12일 국가재건최고회의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법을 개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 선거권은 20세 이상,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고, ② 선거구는 지역구와 전국구로 구분하여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 전국구 비례 대표제를 병행 실시하며(국회의원 총수 175명, 지역구 131

명, 전국구 44석), ③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당 추천제를 실시하고 선거운동은 정당본위로 하며, ④ 공영선거제를 확대하고 선거운동방법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것 등이다.[87]

87) 안희수(1995),『한국정당정치론』, 나남출판, 360-362쪽.

1963년 11월 26일 실시된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원정수 지역구 131석, 전국구 44석에 대하여 입후보자는 지역구 847명, 전국구 154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지역구 6.5대 1, 전국구 3.5대 1이었다. 민주공화당에서는 지역구 131명 전국구 31명이, 민정당에서는 지역구 131명 전국구 30명이 입후보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지역구 의석이 25개에서 13개로 축소되었는데, 총 95명이 입후보하여 7.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현재 성남지역이 포함된 경기도 제5지구(광주군 · 이천군) 선거구에서는 민주공화당의 최하영, 민정당의 신하균, 민주당의 장동국 등 모두 7명이 입후보하였다.

투표율 72.1%를 나타낸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결과 [표 7-43]과 같이 민주공화당이 총 의석의 62.8%에 해당하는 110석(지역구 88석, 전국구 22석)을 차지하였으며, 민정당은 41석(지역구 27석, 전국구 14석)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민주당은 13석(지역구 8석, 전국구 5석), 자유민주당은 9석(지역구 6석, 전국구 3석), 국민의당은 2석(지역구)을 획득하였다.

경기도에서는 민주공화당 7명, 민정당 5명, 민주당 1명이 당선되었으며, 경기도 제 5지구(광주군 · 이천군)의 경우 민정당의 신하균(申河均) 후보가 32,353표를 득표하여 민주공화당의 최하영 후보를 누르고 제3대, 제5대에 이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표 7-43) 제6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단체별 당선현황

구분	당선자수(명)			득표율(%)	
정당 · 단체	지역구(경기도)	전국구	합계	전국	경기도
자유민주당	6(0)	3	9	8.1	4.7
국 민 의 당	2(0)	0	2	8.8	10.4
민 주 당	8(1)	5	13	13.6	16.7
민 정 당	27(5)	14	41	20.1	21.6
민주공화당	88(7)	22	110	33.5	27.0
기 타	0(0)	0	0	15.9	19.6
합 계	131(13)	44	175	100	1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9), 『역대국회의원선거상황(제1대~11대)』.

〈표 3-44〉 제6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제5지구 선거구(광주군 · 이천군) 투표결과(1963. 11. 26)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
광주군 · 이천군	민정당	신하균(申河均)	45	국회의원	32,353
	자유당	엄유섭(嚴維燮)	41	개발사업	3,174
	자유민주당	권오전(權五典)	57	농업	2,399
	국민의당	박종진(朴種振)	29	농업	2,411
	보수당	강태연(姜泰演)	60	농업	2,258
	민주당	장동국(張東國)	57	농업	5,183
	민주공화당	최하영(崔夏永)	55	농업	24,085
	합계(유효투표수)			71,863	

7. 제7대 국회의원 선거



〈사진 3-7 : 30〉 국회의원 선거 벽보

제6대 국회는 1966년 9월 22일 정당법과 선거관계법 개정안을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14일 국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명부사본 교부제도 신설, ② 선거운동 제한규정의 일부 완화, ③ 투표 통지표의 교부제도 변경 등이다.

1967년에 접어들어 여 · 야간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논란이 빚어졌으며, 야당인 신한당과 민중당은 2월7일 통합야당인 신민당을 창당하여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였다.

1967년 5월 3일 제6대 대통령 선거 바로 뒤인 6월 8일에 실시된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원정수는 지역구 131석, 전국구 44석에 대하여 입후보자는 지역구 702명, 전국구 119명으로 평균경쟁률은 지역구 5.4대 1, 전국구 2.7대 1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지역구 13개 의석에 대해서 총 72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현재 성남지역이 속하는 경기도 제5지구 선거구(광주군 · 이천군)에서는 민주공화당의 차지철, 신민당의 신하균, 민중당의 권오전, 대중당의 김흥수 등 4명이 입후보하였다.

투표율 76.1%를 나타낸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결과 [표 7-45]와 같이 민주공화당이 득표율 50.6%로 의원정수의 73.7%에 해당하는 129석(지역구 102석, 전국구 27석)을 획득하였으며, 신민당은 득표율 32.7%로 45석(지역구 28석, 전국구 17석)을 획득하였다.

경기도에서는 공화당이 10석, 신민당이 3석을 차지하였으며, 경기도 제5지역 선거구(광주군 · 이천군)의 경우 민주공화당의 차지철(車智澈) 후보가 56,683표를 획득하여 20,421표를 획득한 3선 의원인 신민당의 신하균 후보를 누르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사진 3-7 : 31> 민주공화당 차지철 후보

[표 7-45] 제7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단체별 당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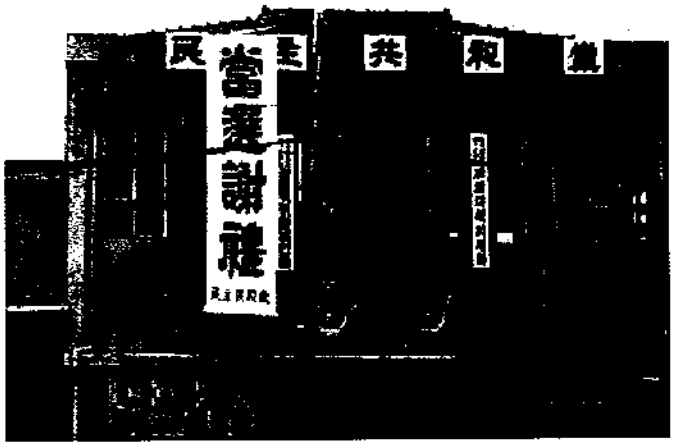
구분	당선자수(명)			득표율(%)	
정당 · 단체	지역구(경기도)	전국구	합계	전국	경기도
대 중 당	1(0)	0	1	2.3	1.5
신 민 당	28(3)	17	45	32.7	32.0
민주공화당	102(10)	27	129	50.6	54.6
기 타	0(0)	0	0	14.4	11.9
합 계	131(13)	44	175	100	1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9), 『역대국회의원선거상황(제1대~11대)』.

[표 7-46] 제7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제5지구 선거구(광주군 · 이천군) 투표결과(1967.6.8)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
광주군 · 이천군	민주공화당	차지철(車智澈)	32	국회의원	56,683
	민주당	권오전(權五典)	61	정당인	872
	대중당	김흥수(金興洙)	29	상업	1,368
	신민당	신하균(申河均)	48	국회의원	20,421
		합계(유효투표수)			79,344

8. 제8대 국회의원 선거



〈사진 3-7 : 32〉 민주공화당 지구 당사에 내걸린 당선사례 현수막

제7대 국회 기간 중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이 있었다.

제7대 국회 기간 중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이 있었다. 첫 번째의 선거법 개정은 제7대 총선 과정에서의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여·야간의 협상과정에서 발생하여 1968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① 지역구 15개 증설, ② 예비선거인명부제도 신설, ③ 선거운동 방법과 선거절차 개선 등이다.

두 번째의 선거법 개정은 1969년 10월 27일 3선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 후 여·야 협상과정에서 논의되어 1970년 12월 22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① 지역구를 146개에서 153개로 증설하고, ② 전국구 의석을 지역구 의석 5석 이상, 유효투표총수의 5/100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배분하고, ③ 국회의원 선거 기간을 30일에서 22일간으로 단축하고, ④ 선거운동방법을 개선하는 것 등이다.[88]

1971년 5월 25일 실시된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의석 지역구 153석, 전국구 51석을 대상으로 입후보자는 지역구 577명, 전국구 121명이었으며 평균경쟁률은 지역구 3.8대 1, 전국구 2.4대 1이었다.

경기도에서는 의석수 16석에 대해 57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현재 성남지역이 속하는 경기도 제6지구(광주군·이천군)의 경우 민주공화당의 차지철, 신민당의 유기준, 국민당의 곽인식, 대중당의 정기영 등 4명이 입후보하였다.

투표율 73.2%를 나타낸 제8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결과 [표 7-47]과 같이 민주공화당이 득표율 48.8%로 의원정수의 55.4%에 해당하는 113석(지역구 86석, 전국구 27석)을 획득하였으며, 신민당은 득표율 44.4%로 의원정수 43.6%에 해당하는 89석(지역구 65석, 전국구 24석)을 획득하였다.

경기도에서는 총 16석 중에서 공화당이 11석, 신민당이 4석, 민중당이 1석을 차지하였으며, 경기도 제 6지구 선거구(광주군·이천군)에서는 민주공화당의 차지철(車智澈)이 54,021표를 획득하여 36,898표를 획득한 신

88) 위의 책, 528-530쪽 참조; 최한수(1996), 「한국선거정치론」, 대왕사, 345쪽.

민당의 유기준 후보를 누르고 제7대에 이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표 7-47〉 제8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단체별 당선현황

구분 정당·단체	당선자수(명) 지역구(경기도)	전국구	합계	득표율(%) 전국	경기도
민주공화당	86(11)	27	113	48.8	50.5
신 민 당	65(4)	24	89	44.4	40.5
국 민 당	1(0)	0	1	4.0	4.0
대 중 당	0(0)	0	0	0.5	0.5
민중당	1(1)	0	1	1.4	3.7
통일사회당	0(0)	0	0	0.9	0.8
합계	153(16)	51	204	100	1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9). 『역대국회의원선거상황(제1대~11대)』.

〈표 7-48〉 제8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제6구 선거구(광주군·이천군) 득표결과(1971. 5.25)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
광주군·이천군	민주공화당	차지철(車智澈)	36	국회의원	54,021
	신민당	유기준(兪棋濬)	46	정당인	36,898
	국민당	곽인식(郭寅植)	32	정당인	1,692
	대중당	정기영(鄭起榮)	26	상업	862
		합계(유효투표수)			93,473

9. 제9대 국회의원 선거

1972년 10월유신 후 비상국무회의에서 마련된 헌법 개정안이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통과되고 한 달 후인 12월 27일 확정·공포됨으로써 제4공화국 헌법이 확정되었다. 개정 헌법에서는 국회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추천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였고, 의원의 임기는 지역구 의원 6년,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의원 3년으로 규정하였다.



개정 헌법에서는 국회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추천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였고, 의원의 임기는 지역구 의원 6년,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의원 3년으로 규정하였다.

곧이어 12월 30일 국회의원 선거법이 제정·공포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 지역구는 1구 1인 소선거구제에서 1구 2인 중선거구제로 전환하고, ②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146명, 통일주체국민회의선출 73명 등 총 219

89) 김현우(2002), 『한국의회론』, 윤유문화사, 533쪽.

명으로 조정하며, ③ 입후보자의 정당 공천 요건을 완화하고 무소속 출마를 허용하는 것 등이다.[89]

1973년 2월 27일 실시된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원정수 지역구 73개 선거구 146개 의석에 대해 민주공화당, 신민당, 민주통일당 등 3개 정당과 무소속에서 총 339명이 입후보하여 평균경쟁률은 2.3대 1이었다.

경기도에서는 8개 선거구 16개 의석에 대해 총 34명이 입후보하여 경쟁률이 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현재의 성남지역이 속한 경기도 제4선거구(광주군 · 이천군 · 여주군)의 경우 민주공화당의 차지철, 신민당의 오세응, 민주통일당의 유기준, 무소속의 이윤수 등 5명이 입후보하였다.

투표율 73.0%를 나타낸 제9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결과 [표 7-49]와 같이 민주공화당이 득표율 38.7%로 전 지역구에서 당선되어 73석을 획득하였으며, 신민당은 득표율 32.5%로 52석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민주통일당은 2석, 무소속은 19석을 차지하였다.

한 지역구에서 2인씩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의 경우 제 8선거구(포천 · 연천 · 가평 · 양평)에서 민주공화당의 김용채(金鎔采) 후보와 신민당의 천명기(千命基) 후보가 무투표 당선된 것을 비롯하여 총 8개 선거구 중 6개 선거구에서 공화당 후보와 신민당 후보가 동반 당선되었다. 현재의 성남지역에 속하는 경기도 제 4선거구(여주 · 광주 · 이천)의 경우도 여 · 야 의원의 동반 당선구에 속하는데, 공화당의 차지철(車智澈) 후보와 신민당의 오세응(吳世應) 후보가 각각 53,586표, 51,399표를 획득하여 국회의원에 함께 당선되었다.

[표 7-49] 제9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 단체별 당선현황

구분	당선자수(지역구, 명)		득표율(%)		비 고
정당 · 단체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민주공화당	73	9	38.7	43.4	
신민당	52	6	32.5	36.2	지역구 146
민주통일당	2	0	10.2	9.9	유정희 73
무소속	19	1	18.6	10.5	
합계	146	16	100	100	219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9), 『역대국회의원선거상황(제1대~11대)』.

표 7-50 제9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지역별득표(광주군·이천군·여주군)표결과(1973. 2. 27)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			
					광주군	이천군	여주군	계
광주군 이천군 여주군	민주공화당	차지철(車智澈)	38	정당인	20,389	15,544	17,653	53,586
	신민당	오세응(吳世應)	39	정당인	21,846	15,101	14,452	51,399
	민주통일당	유기준(兪棋濬)	48	정당인	23,105	6,208	3,187	32,491
	무소속	이윤수(李允洙)	33	무직	4,693	1,508	1,518	7,719
	무소속	서영석(徐英錫)	46	정당인	2,502	935	1,432	4,869
		합계(유효투표수)			72,535	39,296	38,233	150,064

10.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제9대 국회 기간 중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이 있었다. 첫 번째의 선거법 개정은 1973년 3월 12일 제9대 국회가 구성된 후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내용이 없었으며, 두 번째의 선거법 개정은 1977년 12월 31일 제10대 국회의원 선거를 1년여 남겨놓은 시점이었다. 이 시기는 긴급조치 제 9호(1975. 5. 13)에 의하여 유신체제에 대한 논쟁이 일체 금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선거법의 큰 골격에는 변화가 없었고 지엽적인 내용의 개정에 그쳤다. 개정된 선거법의 주요내용은 ① 선거구를 총 77개로 4개 증설하고 의원정수를 219명에서 지역구 154명,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 77명 등 231명으로 증원하며, ② 후보자 기탁금 액수를 정당추천후보자 200만원에서 300만원, 무소속후보자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③ 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 투표참관인제도를 신설하는 것 등이다.[90]

90) 위의 책, 535-536쪽.

1978년 12월12일 실시된 제10대 국회의원 선거는 증가된 지역구 의원정수 154석에 대해 민주공화당, 신민당, 민주통일당 등 3개 정당과 무소속에서 총 473명이 입후보하여 평균경쟁률은 3.1대 1이었다. 경기도에서는 16개 의석에 총 47명이 입후보하여 경쟁률이 2.9대 1이었으며, 광주군에서 분리된 성남시가 속해 있는 경기도 제 4선거구(여주 · 이천 · 광주 · 성남)의 경우 민주공화당의 정동성, 신민당의 유기준, 민주통일당의 박종진 등 7명이 입후보하였다.



<사진 3-7 : 33> 무소속 오세응 후보



<사진 3-7 : 34> 민주 공화당 정동성 후보

투표율 77.1%를 나타낸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결과 [표 7-51]과 같이 민주공화당이 득표율 31.7%로 전국 77개 지역구에서 68석을 획득하였으며, 신민당은 32.8%를 득표하여 61석을 차지하였다. 득표율에서 여당인 민주공화당보다 1.1%를 더 많이 득표한 신민당이 의석수에 있어서는 7석을 더 적게 획득하는 이변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야당의 득표율이 여당을 앞지른 것은 1948년 이후 총선에서 처음 있는 일로서, 그만큼 유신체제의 정치적 기반이 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경기도에서는 8개 선거구 16개 의석 중에서 7개 선거구에서 민주공화당 후보와 신민당후보가 동반 당선되었으며, 제 4선거구(여주 · 이천 · 광주 · 성남)에서만 공화당후보와 무소속후보가 동반 당선되었다.

경기도 제 4선거구에서는 민주공화당의 정동성(鄭東星) 후보가 76,569표를 얻어 75,076표를 얻은 무소속의 오세응(吳世應) 후보와 동반 당선되었다.

이렇게 야당의 득표율이 여당을 앞지른 것은 1948년 이후 총선에서 처음 있는 일로서, 그만큼 유신체제의 정치적 기반이 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단체별 당선자수

구분 정당 · 단체	당선자수(지역구, 명) 전국	당선자수(지역구, 명) 경기도	득표율(%) 전국	득표율(%) 경기도	비 고
민주공화당	68	8	31.7	35.7	
신민당	61	7	32.8	33.0	지역구 146
민주통일당	3	0	7.4	5.0	유정회 77
무소속	22	1	28.1	26.3	
합계	156	16	100	100	23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9), 『역대국회의원선거상황(제1대~11대)』.

제10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제4선거구(성남시·여주군·광주군·이천군) 개표결과(1978. 12. 12)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 성남시	여주군	광주군	이천군	계
성남시	민주공화당	정동성(鄭東星)	39	회사대표	33,664	17,601	11,469	13,835	76,569
	신민당	유기준(兪棋濬)	53	회사대표	31,171	5,377	13,605	10,623	60,776
여주군	민주통일당	박종진(朴鍾振)	44	정당인	12,087	1,447	3,923	1,625	19,082
	무소속	황두영(黃斗榮)	51	정당인	6,639	1,162	894	1,593	10,288
광주군	무소속	민호영(閔浩英)	40	정당인	1,398	1,416	574	910	4,298
	무소속	신동명(申東溟)	40	정당인	1,727	719	573	1,112	4,131
이천군	무소속	오세응(吳世應)	45	정당인	38,840	12,794	7,681	15,761	75,076
		합계(유효투표수)			125,526	40,516	38,719	45,459	250,220

11. 제11대 국회의원선거

1980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의해 제5공화국 헌법이 확정됨으로써 제10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었으며, 개정 헌법에 의해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새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981년 1월 29일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법을 공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거구를 지역구와 전국구를 구분하고 전국구 의원의 정수는 지역구의 1/2로 한다. ② 지역구는 총 92개로 하고 1지역구에서 2명씩 선출한다. ③ 지역구 선거의 경우 정당의 당원인 자는 정당의 추천을, 당원이 아닌 자는 선거권자 500인 이상 700인 이하의 추천장을 받아 후보자 등록을 신청한다. ④ 전국구 의석은 지역구 선거에서 최다의석을 얻은 정당에게 총 의석의 2/3를 우선 배분하며, 나머지 1/3은 그 밖의 정당에게 획득한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⑤ 후보자 등록시 무소속 후보자는 1,500만원, 정당추천 후보자는 700만원의 기탁금을 낸다.[91]

91) 김한우(2000), 『한국정당정치운동사』, 을유문화사, 568쪽.

1981년 3월 25일 실시된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지역구의 92개 선거구 184개 의석을 대상으로 민주정의당,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등 12개 정당과 무소속에서 총 635명이 입후보하여 평균경쟁률은 3.5대 1이었다. 경기도에서는 24석에 대하여 78명이 입후보하여 3.2의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성남·광주지역의 경우 민주정의당의 오세응, 신정당의 이대엽, 민주한국당의 이웅배 등 8개 정당과 무소속에서 9명이 입후보하였다. 그리고 전국구는 무소속을 제외한 12개 정당에서 총 228명이 입후보하여 2.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사진 3-7 : 35> 선거 유세

투표율 78.4%를 나타낸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결과 [표 7-53]과 같이 민주정의당이 득표율 35.8%로 90석을, 민주한국당이 21.6%를 득표하여 57석을, 그리고 한국국민당이 13.3%를 득표하여 18석을 획득하였



〈사진 3-7 : 36〉 신정당 이대엽 후보

다. 전국구 의석은 지역구 의석 점유율에 따라 민정당에게는 총 의석의 2/3에 해당하는 61석이 배정되었으며, 민주한국당 24석, 한국국민당 7석 등으로 배분되었다.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성남시와 광주군이 단일 선거구가 되었는데, 경기도 제4 선거구(성남 · 광주)의 경우 민주정의당의 오세응(吳世應) 후보가 81,093표를 획득하여 49,801표를 획득한 신정당의 이대엽(李大燁) 후보와 동반 당선되었다.

〈표 7-53〉 제1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당선현황

구분	당선자수(명)			득표율(%)	
정당 · 단체	지역구(경기도)	전국구	계	전국	경기도
민주정의당	90(12)	61	151	35.8	38.7
민주한국당	57(10)	24	81	21.6	23.1
한국국민당	18(1)	7	25	13.3	10.4
민주사회당	2(0)	0	2	3.0	3.3
민 권 당	2(0)	0	2	6.7	5.7
민주농민당	1(0)	0	2	1.4	6.8
무 소 속	11(0)	0	11	10.7	7.4
기타정당[92]	3(1)	0	3	7.5	4.6
합계	184(24)	92	276	100	1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9), 『역대국회의원선거상황(제1대~11대)』.

92) 기타 정당에는 한일민립당, 신정당, 안민당, 사회당, 한국기민당, 통일민주당 등이 있다.

〈표 7-54〉 제11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제4선거구(성남시 · 광주군) 득표결과(1981. 3. 25)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수 성남시	광주군	계
성남시 광주군	민주정의당	오세응(吳世應)	47	국보위입법위원	59,729	21,364	81,093
	신정당	이대엽(李大燁)	45	정당인	42,156	7,645	49,801
	민주한국당	이웅배(李雄培)	36	회사원	20,129	5,094	25,223
	한국민주당	강희규(姜熙奎)	41	약사	10,507	2,258	12,765
	민권당	황두영(黃斗英)	53	정당인	7,467	1,868	9,335
	한국기민당	김찬묵(金燦默)	35	건축사	6,083	1,653	7,736
	통일 민족당	윤주연(尹柱淵)	64	제조업	4,014	533	4,547
	민주사회당	안재훈(安再勳)	42	회사대표	2,656	955	3,517
	무소속	조경화(趙炅華)	45	의사	4,551	1,195	5,346
		합계(유효투표수)			157,292	42,565	199,857

12.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1985년 2월에 실시될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984년 7월 25일 국회의원 선거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 선거법은 선거제도의 기본골격에는 지역구, 전국구 의석 수 등 종전과 변화가 없고 선거운동 규제, 투·개표 참관인 제도 등이 부분적으로 바뀌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① 전국구 후보자는 선거일 공고일과 동시에 공무원 등의 직에서 해임토록 하고, ② 전국구 후보자도 지역구 후보자와 동일한 액수의 기탁금을 내도록 하고, ③ 투·개표참관인수를 늘리는 것 등이다.[93]

93) 김현우(2002), 『한국의회사』, 웅유문화사, 543쪽.

1985년 2월 12일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92개 지역구, 184개 의석을 대상으로 민주정의당,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신한민주당 등 9개 정당과 무소속에서 총 386명이 입후보하여 평균경쟁률은 1.39대 1이었다. 경기도에서는 10개 선거구 20석을 대상으로 43명이 입후보하여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성남·광주지역의 경우 민주정의당의 오세응, 민주한국당의 강원채, 한국국민당의 이대엽, 신한민주당 이윤수 등 5개 정당과 무소속에서 6명이 입후보하였다. 그리고 전국구는 92개 의석에 대하여 171명이 입후보하여 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투표율 84.6%를 나타낸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결과 [표 7-55]와 같이 민주정의당이 지역구 의석 184석 중 87개 의석을 획득하였으며, 신한민주당 50석, 민주한국당 26석, 한국국민당 15석 등의 분포로 나타났다. 전국구 의석은 지역구 의석 점유율에 따라 민주정의당에게는 총 의석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61석이 배정되었으며, 신한민주당 17석, 민주한국당 9석, 한국국민당 5석 등으로 배분되었다.



선거직전 정치활동 규제법에서 풀려난 정치인들로 조직된 신한민주당이 창당 한달도 안된 상황에서 선거에 참여하여 지역구와 전국구를 합하여 총 67석으로 제2당으로 부상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특히 선거직전 정치활동 규제법에서 풀려난 정치인들로 조직된 신한민주당이 창당 한달도 안된 상황에서 선거에 참여하여 지역구와 전국구를 합하여 총 67석으로 제2당으로 부상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경기도에서는 민주정의당이 10개 지역구에서 모두 의석을 확보한 데 이어 신한민주당 4석, 민주한국당 3석, 한국국민당 3석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경기도 제2선거구인 성남시·광주군의 경우 한국국민당의 이대엽(李大燁) 후보가 83,663표를 획득하여 70,046표를 획득한 민주정의당의 오세응(吳世應) 후보와 동반 당선되었다.

(표 7-55) 제1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득표현황

정당별	당선자수(명) 지역구(경기도)	전국구	계	득표율(%) 전국	경기도
민주정의당	87(10)	61	148	32.25	34.2
신한민주당	50(4)	17	67	29.26	28.0
민주한국당	26(3)	9	35	19.68	21.4
한국국민당	15(3)	5	20	9.16	13.4
신정사회당	1(0)	0	1	1.45	0.5
무소속	4(0)	0	4	3.24	2.0
기타정당[94]	1(0)	0	1	1.96	0.5
합계	184(20)	92	276	100	1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5), 「제12대국회의원선거총람」.

94) 기타 정당은 민권당, 자유민족당, 근로노동당, 신민주당 등이며, 의석은 신민주당 1석이다.

(표 7-56) 제12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지역선거구(성남시·광주군) 득표결과(1985.2.12)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수 성남시	광주군	계
성남시·광주군	민주정의당	오세응(吳世應)	51	국회의원	51,595	18,454	70,046
	민주한국당	강원채(康源采)	42	국회의원	35,076	7,754	42,830
	한국국민당	이대엽(李大燁)	49	국회의원	77,719	6,444	83,663
	신한민주당	이윤수(李允洙)	46	정치인	13,608	5,037	18,645
	신정사회당	김기평(金基平)	42	농업	7,004	1,624	8,628
	무소속	유기준(兪棋濬)	60	회사대표	22,976	26,081	49,048
		합계(유효투표수)			207,978	65,394	273,372

13.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이 1987년 11월 28일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됨으로써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는 개정된 제 6공화국 헌법에 의해 실시하게 되었다.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988년 3월 17일 여·야간의 극심한 대립상황 속에 국회의원 선거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① 종래 1구에서 2인씩 선출하던 중선거구제를 1구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바꾸고 ② 92개 지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이 1987년 11월28일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됨으로써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는 개정된 제 6공화국 헌법에 의해 실시하게 되었다.

역선거구를 224개로 늘리는 대신 전국구 의원수를 종래 지역구 의원 정수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감축하여 국회의석을 지역구 224석, 전국구 75석 등 총 299석으로 조정하였으며 ③ 전국구 의석 배분에 있어 제1당에 무조건 2/3를 배분하던 것을 제 1당이 획득한 지역구 의석이 50% 미만일 때 전국구 의석의 1/2을 배정하도록 하고 ④ 후보자 기탁금을 정당 및 전국구 후보자 1천만원, 무소속 후보자 2천만원으로 정하고 투표 통지표 교부 입회인 제도를 신설한 것 등이다.[95]



<사진 3-7 : 37>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홍보 포스터

95) 김현우, 앞의 책, 636쪽; 최한수, 앞의 책, 374쪽.

1988년 4월 26일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지역구 의석 224석에 대하여 14개 정당과 무소속에서 총 1,046명이 입후보하여 평균경쟁률은 4.7대 1이었다. 경기도에서는 28석을 대상으로 129명이 입후보하여 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성남시의 경우 갑구(수정구)는 민주정의당의 김충호, 통일민주당의 장문영, 평화민주당의 이윤수, 신민주공화당의 이대엽 등 4명이, 을구(중원구 · 분당구)는 민주정의당의 오세응, 통일민주당의 양건주, 평화민주당의 이찬구 등 5명이 입후보하였다. 그리고 전국구는 75개 의석에 대하여 7개 정당에서 173명이 입후보하여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투표율 75.8%를 나타낸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결과 [표 7-57]과 같이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득표율 33.9%로 지역구 의석 224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87석을 획득하여, 개정선거법의 규정대로 전국구 의석 75석의 1/2인 38석을 배분받아 국회의석 총 299석 중 125석으로 41.8%의 의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반면 평화민주당은 호남유권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구 54석, 전국구 16석 등 총 70석을 확보함으로써 제1야당으로 부상하였으며, 통일민주당은 59석(지역구 46석 전국구 13석), 신민주공화당은 35석(지역구 27석 전국구 8석)을 획득하였다.

경기도에서는 총 28석의 지역구 의석 중 민주정의당이 16석, 평화민주당 1석, 통일민주당 4석, 신민주공화당 6석 등의 분포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독자적인 선거구로 되어 갑구와 을



<사진 3-7 : 38> 평화 민주당 이찬구 후보

구로 나뉘어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성남 갑구에서는 39.1%의 44,625표를 득표한 신민주공화당의 이대엽(李大燁) 후보가 당선되었고, 성남 을구에서는 평화민주당의 이찬구(李讚九) 후보가 35.5%인 33,187표를 획득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표 7-37〉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당선현황*

구분	당선자수(명)			득표율(%)	
정당 · 단체	지역구(경기도)	전국구	계	전국	경기도
민주정의당	87(16)	38	125	33.96	36.1
평화민주당	54(1)	16	70	23.83	22.9
통일민주당	46(4)	13	59	19.26	15.9
신민주공화당	27(6)	8	35	15.59	18.1
신한민주당	0(0)	0	0	0.24	0.1
민주한국당	0(0)	0	0	0.17	1.3
한겨레민주당	1(0)	0	1	1.28	0.6
한국국민당	0(0)	0	0	0.33	0.4
무소속	9(1)	0	9	4.75	4.2
기타 정당[96]	0(0)	0	0	0.59	0.4
합계	224(28)	75	299	100	1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8), 「제13대국회의원선거총람」.

96) 기타 정당은 겨레정민당, 민중의당, 사회민주당, 우리정의당, 제3세대당, 한주의통일한국당 등이다.

〈표 7-38〉 제13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갑구 선거구 투표결과(1988.4.26)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수
성남시 갑구	민주정의당	김충호(金忠鎬)	57	회사대표	29,237
	통일민주당	장문영(張文英)	43	연구소	9,909
	평화민주당	이윤수(李允洙)	49	정치인	30,420
	신민주공화당	이대엽(李大燁)	52	국회의원	44,625
합계(유효투표수)					114,191

〈표 7-39〉 제13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을구 선거구 투표결과(1988.4.26)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수
성남시 을구	민주정의당	오세응(吳世應)	55	국회의원	30,056
	통일민주당	양건주(梁健柱)	49	정치인	7,448
	평화민주당	이찬구(李讚九)	46	정치인	33,187
	신민주공화당	김기평(金基平)	46	정치인	19,754
	한국국민당	정완립(鄭完立)	32	회사대표	3,096
합계(유효투표수)					93,541

14.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사진 3-7 : 39〉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안내 벽보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의 결과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던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1990년 1월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과 합당하여 거대여당 민주자유당을 창당하면서 다시 정계재편의 주도권을 잡았다. 따라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는 제14대 대통령선거의 예비전일 뿐만 아니라 3당 통합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중요한 관심대상이 되었다.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의 결과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던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1990년 1월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과 합당하여 거대여당 민주자유당을 창당하면서 다시 정계재편의 주도권을 잡았다.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 · 야 협상을 통해 공동 발의된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이 1992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되었다. 개정 선거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국회의석이 299석으로 종전과 같으나 지역구는 35만 이상 선거구의 분구로 13개 구 늘고 전국구는 13석 감소하였고, ② 전국구 의원 배정에 있어 총선결과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없으면 제1당에 전국구 의석의 1/2을 우선 배정하던 것을 의석비율에 의한 배정으로 바꾸었으며, ③ 후보자의 기탁금을 종전에는 정당 후보자(지역 및 전국구) 1,000만원, 무소속 후보자 2,000만원 하던 것을 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 구분 없이 균등하게 1,000만원으로 조정한 것 등이다. 그 밖에 선거운동에 있어 유급 선거원 제도를 폐지하고 자원봉사 선거운동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선거운동 관계자에 대한 수당을 폐지하고 실비만을 제공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정당연설회를 부활시키고 인쇄물의 호별 투입, 후보자 경력방송, 여론조사 등이 허용되었다.

1992년 3월 25일 실시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지역구 의석 237석을 대상으로 민주자유당, 민주당, 통일국민당 등 6개 정당과 무소속에서

1,206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경쟁율은 4.4대 1이었다. 경기도에서는 지역구 31개 의석을 대상으로 139명이 입후보하여 4.3대 1의 경쟁율을 보였으며, 성남시의 경우 수정구 선거구에서 민주자유당의 이대엽, 민주당의 이윤수, 신정당의 최상면 등 3명이, 중원구·분당구 선거구에서 민주자유당의 오세응, 민주당의 조성준, 통일민주당의 이찬구 등 6명이 입후보하였다. 그리고 전국구는 62개 의석에 대하여 5개 정당에서 154명이 입후보하여 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투표율 71.9%를 나타낸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결과 [표 7-60]과 같이 민주자유당은 득표율 38.5%로 지역구에서 116석을 획득하여 전국구 33석을 배정받아 총 국회의석이 과반수에 1석 모자라는 149석을 획득하였으며, 민주당은 득표율 29.2%로 97석(지역구 75석, 전국구 22석), 통일국민당은 17.4%를 득표하여 31석(지역구 24석, 전국구 7석)을 획득하였다.



〈사진 3-7:40〉 민주당 이윤수 후보

경기도에서는 총 31개의 지역구 의석 중 민주자유당 18석, 민주당 8석, 통일국민당 5석 등의 분포를 나타냈다. 그리고 성남시의 경우 수정구에서는 58,727표를 득표한 민주당의 이윤수(李允洙) 후보가 민주자유당 이대엽 후보의 55,013표를 앞질러 당선되었으며, 중원구·분당구에서는 민주자유당의 오세응(吳世應) 후보가 51,989표를 획득하여 41,583표를 획득한 민주당의 조성준 후보를 누르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표 7-60〉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당선현황

구분	당선자수(명)			득표율(%)	
정당·단체	지역구(경기도)	전국구	계	전국	경기도
민주자유당	116(18)	33	149	38.5	37.1
민주당	75(8)	22	97	29.2	31.8
통일국민당	24(5)	7	31	17.4	19.6
신정당	1(0)	0	1	1.8	1.6
공평민주당	0(0)	0	0	0.1	0.1
민중당	0(0)	0	0	1.5	2.0
무소속	21(0)	0	21	11.5	7.8
합계	237(31)	62	299	100	1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2),『제14대국회의원선거총람』.

〈표 7-61〉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선거구 득표결과(1992.3.24)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수
성남시 수정구	자유민주당	이대엽(李大燁)	56	국회의원	55,013
	민주당	이윤수(李允洙)	53	정치인	58,727
	신정당	최상면(崔商勉)	37	정치인	7,194
		합계(유효투표수)			120,934

〈표 7-62〉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분당구 선거구 득표결과(1992.3.24)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수		
					중원구	분당구	계
성남시 중원구·분당구	민주자유당	오세응(吳世應)	58	정치인	45,677	6,312	51,989
	민주당	조성준(趙誠俊)	43	정당인	38,549	3,034	41,583
	통일국민당	이찬구(李讚九)	50	국회의원	20,842	4,221	25,063
	신정당	김기평(金基平)	49	농장경영	4,712	340	5,052
	민중당	임동현(林東縣)	32	정당인	3,604	351	3,955
	무소속	홍대원(洪大源)	51	무직	2,573	782	3,355
		합계(유효투표수)			115,957	15,040	130,997

15.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총선거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여기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4년 3월 16일 공포된 것이다. 이 법의 제정으로 종래 별개의 선거법 체계로 되어 있던 대통령 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지방자치단체 의장 선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총선거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사진 3-7 : 41〉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홍보탑

거법 등이 하나의 단일법으로 통합되었고, 선거일이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로 법정화 됨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의 준비행위 및 선거관리 업무의 사전준비가 가능해졌다.[97]

97) 김현우(2000). 「한국정당통합운동사」. 윤유문화사. 554-556쪽.

그 밖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중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보면 ① 선거구는 종전과 같이 1선거구 1인의 소선거구제로 하되 제1당 여부에 관계없이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토록 하였고, ② 의원정수는 299명으로 고정시키고 지역구는 16개를 늘려 253개 선거구로 하고 전국구는 46석으로 줄였으며, ③ 후보자는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등록재산 대상에 대한 신고서를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④ 선거운동 규제 방법을 포괄적 제한·금지 방식에서 개별적 제한·금지 방식으로 전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도록 한 것 등이다.

1996년 4월 11일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지역구 253개 의석을 대상으로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등 8개 정당과 무소속에서 총 1,389명이 입후보하여 평균경쟁률은 5.5대 1이었다. 경기도에서는 38개 지역구 의석에 대하여 총 201명이 입후보하여 5.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성남지역의 경우 수정구 선거구에서는 신한국당의 유제인, 새정치국민회의의 이윤수, 자유민주연합의 이대엽 등 5명이, 중원구 선거구에서는 신한국당의 정완림, 새정치국민회의의 조성준, 자유민주연합의 강희규 등 5명이, 그리고 분당구 선거구에서는 신한국당의 오세응, 새정치국민회의 나팔렬 등 6명이 입후보하였다. 그리고 전국구 46개 의석에 대해 5개 정당에서 161명이 입후보하여 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투표율 63.9%로 종래에 비해 매우 낮은 투표율을 보인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결과 [표 7-63]과 같이 신한국당은 득표율 34.5%로 지역구에서 121석을 획득하여 전국구 18석을 배정 받아 총 139석을 차지하였으며, 새정치국민회의는 25.30% 득표로 79석(지역구 66석, 전국구 13석)을, 자유민주연합은 16.17% 득표로 50석(지역구 41석, 전국구 9석)을 획득하였다.

경기도에서는 총 38석의 지역구 의석 중 신한국당 18석, 새정치국민회의 10석, 자유민주연합 5석, 통합민주당 3석 등의 분포를 나타냈다. 성남시의 경우 수정구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의 이윤수(李允洙) 후보가 39,359표를 득표하여 37,863표를 얻은 자유민주연합의 이대엽 후보를 앞질러 당

선되었으며, 중원구에서는 40,022표를 득표한 새정치국민회의의 조성준 후보, 그리고 분당구에서는 49,674표를 획득한 민주자유당의 오세응(吳世應)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사진 3-7 : 42> 새정치 국민회의 조성준 후보

(표 7-63) 제15대국회의원선거 정당별당선현황

정 당	당선자수(명) 지역구(경기도)	당선자수(명) 전국구	당선자수(명) 계	득표율(%) 전국	득표율(%) 경기도
신한국당	121(18)	18	139	34.52	33.2
새정치국민회의	66(10)	13	79	79	27.4
통합민주당	9(3)	6	15	11.23	13.9
자유민주연합	41(5)	9	50	16.17	18.6
무소속	16(2)	0	16	11.85	6.5
기타 정당[98]	0	0	0	0.93	0.4
합계	253(38)	46	299	100	1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6),「제15대국회의원선거총람」.

98) 기타 정당에는 대한민주당, 무당파국민연합, 21세기한국당, 천민당 등이 포함된다.

(표 7-64) 제15대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선거구 득표결과(1996. 4. 11)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수
성남시 수정구	신한국당	유제인(柳濟仁)	48	변호사	20,644
	새정치국민회의	이윤수(李允洙)	57	국회의원	39,359
	통합민주당	김준기(金準基)	57	교육자	6,460
	자유민주연합	이대엽(李大燁)	60	정당인	37,863
	무소속	장문영(張文英)	51	민주문화연구소	1,662
		합계(유효투표수)			105,988

(표 7-65) 제15대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선거구 득표결과(1996. 4. 11)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수
성남시 중원구	신한국당	정완립(鄭完立)	40	정당인	27,355
	새정치국민회의	조성준(趙誠俊)	47	정당인	40,022
	통합민주당	김일주(金一柱)	43	정당인	7,318
	자유민주연합	강희규(姜熙圭)	56	기업인	21,700
	무소속	정형주(丁炯周)	31	사회운동가	8,794
		합계(유효투표수)			105,189

<표 3-7-39> 제16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선거구 득표현황(2000. 4. 13)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수
성남시 분당구	신한국당	오세응(吳世應)	62	국회의원	49,674
	새정치국민회의	나필열(羅必列)	59	정당인	38,439
	통합민주당	성유보(成裕普)	52	정당인	28,444
	자유민주연합	권헌성(權憲成)	37	정당인	29,240
	무소속	김종우(金鍾宇)	40	어린이집대표	1,668
	무소속	염형민(廉炯敏)	53	건설업	2,786
합계(유효투표수)					150,251

16.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사진 3-7:43> 시민단체의 공명 선거 캠페인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는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여는 길목에서 이루어진 첫 선거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1998년 8월부터 정치제도 개선 연구단을 구성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개진한 후 선거 직전인 2000년 2월 9일 국회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내용 중 우리나라 선거사상 처음으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마다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한 50명 이내의 선거부정 감시단을 구성·운영하고 후보자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후보자의 최근 3년간 재산세와 소득세의 납부실적, 금고 이상의 전과기록 등 후보자들의 자질검증을 위한 자료를 공개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국회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00년 4월 13일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8개 정당과 무소속에서 비례대표 139명, 지역구 1,040명 등 총 1,179명이 입후보하였으며,

지역구는 평균 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서는 지역구 의석 41석을 대상으로 171명이 입후보하여 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리고 성남시의 경우 수정구 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의 김동선, 새천년민주당의 이윤수, 자유민주연합의 김을동 등 6명이, 중원구 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의 김일주, 새천년민주당의 조성준 등 5명이, 분당구 갑 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의 고흥길, 새천년민주당의 강봉균 등 4명이, 그리고 분당구 을 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의 임태희, 새천년민주당의 이상철 등 3명이 입후보하였다.

투표율이 역대 총선 중 가장 낮은 57.2%로 나타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결과 [표 7-67]과 같이 한나라당이 득표율 38.96%로 지역구 의석 112석을 획득하였고 새천년민주당은 35.87%를 득표하여 96석을 얻었다. 자유민주연합은 9.84%를 득표하여 12석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비례대표 의석은 한나라당 21석, 새천년민주당 19석, 자유민주연합 5석 등으로 국회의원 의석 배분은 한나라당 133석, 새천년민주당 115석, 자유민주연합 17석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지역구 의석 41석에 대하여 한나라당 18석, 새천년민주당 22석, 자유민주연합 1석 등의 분포를 보였으며, 성남시의 경우 수정구 선거구에서 새천년민주당의 이윤수(李允洙) 후보가 37,602표를 얻어 한나라당의 김동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고 중원구 선거구에서는 새천년민주당의 조성준(趙誠俊) 후보가 43.64%인 40,187표를 획득하여 한나라당의 김일주 후보에 앞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한편 분당구 갑 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의 고흥길(高興吉) 후보가 44,857표를 획득하여 새천년민주당의 강봉균 후보를, 분당구 을 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의 임태희(任太熙) 후보가 50.86%인 40,036표를 획득하여 새천년민주당의 이상철 후보를 이기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후보자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후보자의 최근 3년간 재산세와 소득세의 납부실적, 금고 이상의 전과기록 등 후보자들의 자질검증을 위한 자료를 공개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사진 3-7 : 44〉 한나라당 고흥길 후보



〈사진 3-7 : 45〉 한나라당 임태희 후보

[표 7-67]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당선자수

구분	당선자수(명)			득표율(%)	
정당	지역구(경기도)	전국구	계	전국	경기도
한나라당	112(18)	21	133	38.96	39.08
새천년민주당	96(22)	19	115	35.87	40.90
자유민주연합	12(1)	5	17	9.84	12.38
민주국민당	1(0)	1	2	3.68	1.57

정당	구분 당선자수(명) 지역구(경기도)	전국구	계	득표율(%) 전국	경기도
희망의 한국신당	1(0)	0	1	0.41	0.05
공화당	0(0)	0	0	0.02	0.1
민주노동당	0(0)	0	0	1.18	1.23
청년진보당	0(0)	0	0	0.66	0.0
무소속	5(0)	0	5	9.38	4.69
합계	227	46	273	100	1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0), 『제16대국회의원선거총람』.

(표 7-68) 제16대국회의원선거(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선거구 투표결과(2000. 4. 13)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수
성남시 수정구	한나라당	김동선(金東銑)	56	정치인	23,952
	새천년민주당	이윤수(李允洙)	61	국회의원	37,602
	자유민주연합	김을동(金乙東)	54	대학겸임교수	19,018
	민주국민당	최상면(崔商勉)	45	경영컨설턴트	1,373
	공화당	김기평(金基平)	58	자영업	1,357
	무소속	허재안(許載顔)	47	대학시간강사	7,476
		합계(유효투표수)			90,778

(표 7-69) 제16대국회의원선거(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선거구 투표결과(2000. 4. 13)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수
성남시 중원구	한나라당	김일주(金一柱)	47	정치인	23,123
	새천년민주당	조성준(趙誠俊)	51	국회의원	40,187
	자유민주연합	최인식(崔仁植)	44	정당인	5,881
	민주노동당	정형주(鄭炯周)	35	정당인	19,781
	무소속	황한섭(黃漢燮)	54	회사대표	3,109
		합계(유효투표수)			92,081

(표 7-70) 제16대국회의원선거(경기도 성남시분당구갑 선거구 투표결과(2000. 4.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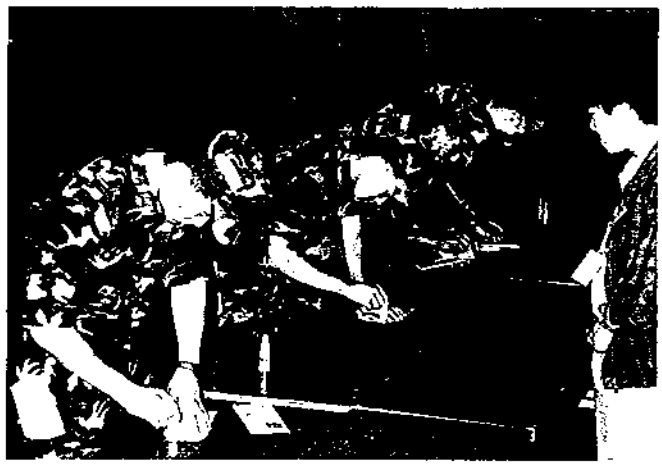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수
성남시 분당갑구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	55	정당인	44,857
	새천년민주당	강봉균(康奉均)	56	정당인	35,881
	자유민주연합	강대기(姜大基)	48	정당인	3,764
	민주국민당	양재헌(梁在憲)	44	자영업	2,026
		합계(유효투표수)			86,528

〈표 3-7-21〉 제16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무소속 선거구 득표결과(2000. 4. 13)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
성남시 분당을구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43	정당인	40,036
	새천년민주당	이상철(李相哲)	52	정당인	34,783
	자유민주연합	오세응(吳世應)	66	국회의원	3,895
		합계(유효투표수)			78,714

17.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제17대 국회의원선거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처음 실시된 전국적인 선거라는 점과 제16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역사적 사건속에서 실시되었다.



〈사진 3-7:46〉 군복무유권자들의 부재자 투표모습

역대 선거와 달리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존의 '1인 1표' 투표방식에서 비례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정당명부식 투표제도가 도입되어 '1인 2투표제 방식'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지역구 의석 2석과 함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선거에서 전국 득표율 12.9%를 차지함으로써 총 10석의 의석으로 사상 최초로 국회에 등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에 실시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2004년 4월15일 실시되었다. 이번 총선에는 14개 정당과 무소속에서 비례대표 190명, 지역구 1,175명 등 총 1,365명이 입후보하였으며, 지역구는 평균 4.8대 1, 비례대표는 평균 3.3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서는 지역구 의석 49석을 대상으로 229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4.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리고 성남시의 경우 수정구 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의 김을동, 새천년민주당의 이윤수, 열린우리당의 김태년, 자유민주연합의 서병선, 민주노동당의 김미희 등 9명이, 중원구 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의 신상진, 새천년민주

제17대 국회의원선거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처음 실시된 전국적인 선거라는 점과 제16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역사적 사건속에서 실시되었다.

당의 김태식, 열린우리당의 이상락, 민주노동당의 정형주 등 6명이, 분당구 갑 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의 고흥길, 새천년민주당의 김종우, 열린우리당의 허운나 등 5명이, 그리고 분당구 을 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의 임태희, 새천년민주당의 박인수, 열린우리당 김재일 등 5명이 입후보하였다.



〈사진 3-7 : 47〉 열린우리당 김태년 후보



〈사진 3-7 : 48〉 열린우리당 이상락 후보

전국 평균 투표율 60.6%를 나타낸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결과 [표 7-72]와 같이 열린우리당이 129석을 획득하였으며, 한나라당이 100석을 획득하였다. 새천년민주당은 5석을 얻었으며, 자유민주연합은 4석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또한 민주노동당 2석, 국민통합21 1석 및 무소속 2석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비례대표 의석은 열린우리당 23석(37.7%), 한나라당 21석(35.3%), 민주노동당 8석(12.9%), 새천년민주당 4석(7.0%) 등으로 국회의원 의석 배분은 열린우리당 152석, 한나라당 121석, 민주노동당 10석, 새천년민주당 9석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지역구 의석 49석에 대하여 열린우리당 35석, 한나라당 14석 등의 분포를 보였으며, 성남시의 경우 수정구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의 김태년(金太年) 후보가 43.9%인 47,478표를 얻어 한나라당의 김을동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고 중원구 선거구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이상락(李相樂) 후보가 39.2%인 42,770표를 획득하여 한나라당의 신상진 후보에 앞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한편 분당구 갑 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의 고흥길(高興吉) 후보가 54.1%인 56,421표를 획득하여 열린우리당의 허운나 후보를, 분당구 을 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의 임태희(任太熙) 후보가 54.0%인 55,171표를 획득하여 열린우리당의 김재일 후보를 이기고 각각 국회의원에 재선되었다.

〈표 7-72〉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당선현황

구분	당선자수(명)			비례대표 정당지지율(%)	
	지역구(경기도)	전국구	계	전국	경기도
열린우리당	129(35)	23	152	37.7	39.9
한나라당	100(14)	21	121	35.3	35.2
민주노동당	2	8	10	12.9	13.6
새천년민주당5	4	9	7.0	6.2	-
자유민주연합	4	-	4	2.8	2.2

구분	당선자수(명)			비례대표 정당지지율(%)	
	지역구(경기도)	전국구	계	전국	경기도
기타**	3	-	3	4.3	2.9
합계	243	56	299	100	100

* 자료: http://www.nec.go.kr.

** 기타에는 국민통합21, 민주국민당, 가자희망 2080, 공화당, 구국총연합, 기독당, 노년권익 보호당, 녹색사민당, 사회당, 무소속 등이 포함되어 있음.

〈표 7-73〉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선거구 투표결과(2004. 4. 15)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성별	직업	득표수
성남시 수정구	한나라당	김을동(金乙東)	58	여	방송인	32,665
	새천년민주당	이윤수(李允洙)	65	남	국회의원	10,666
	열린우리당	김태년(金太年)	39	남	연구소장	47,478
	자민련	서병선(徐炳善)	42	남	정치인	1,463
	민주국민당	최상면(崔商勉)	49	남	경영건설턴트	354
	녹색사민당	임미모(任美模)	44	남	노련사무국장	369
	민주노농당	김미희(金美希)	38	여	정당인	12,618
	무소속	양현덕(梁賢德)	46	남	기업인	1,429
	무소속	이규민(李揆珉)	45	남	교수	992
		합계(유효투표수)				108,034

〈표 7-74〉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선거구 투표결과(2004. 4. 15)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성별	직업	득표수
성남시 중원구	한나라당	신상진(申相珍)	47	남	의사	27,032
	새천년민주당	김태식(金台植)	64	남	국회의원	11,082
	열린우리당	이상락(李相樂)	50	남	정당인	42,770
	자민련	김기평(金基平)	62	남	자영업	1,456
성남시 중원구	민주노동당	정형주(丁炯周)	39	남	정당인	22,640
	무소속	이영성(李英成)	63	여	사회사업가	4,084
		합계(유효투표수)				109,064

〈표 7-75〉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갑 선거구 투표결과(2004. 4. 15)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성별	직업	득표수
성남시 분당구 (갑)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	59	남	국회의원	56,421
	새천년민주당	김종우(金鍾宇)	48	남	정당인	3,445
	열린우리당	허운나(許雲那)	55	여	교수	42,362
	무소속	강정길(姜正吉)	62	남	무직	1,215
	무소속	장명화(張明和)	63	남	무직	867
		합계(유효투표수)				104,310

〈표 7-6〉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을선거구 득표결과(2004. 4. 15)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성별	직업	득표수
성남시 분당구 (을)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47	남	국회의원	55,171
	새천년민주당	박인수(朴仁洙)	34	남	정당인	4,004
	열린우리당	김재일(金在日)	51	남	정당인	42,043
	녹색사민당	김태수(金泰壽)	52	남	약사	462
	무소속	주정모(朱珽模)	43	남	저술가	575
		합계(유효투표수)				102,255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8. 역대 성남지역 국회의원 현황(제1대 ~ 17대)

신익희(申翼熙)



제헌 · 2~3대 의원

- 와세다대학 정경학과 졸업
- 3 · 1독립운동 참가
- 상해(上海)임시정부 내무부장
- 입법의원 의장
- 자유신문 사장
- 국회 의장
- 제헌국회의원 당선(1948.5.10)
- 제2대 국회의원(1950.5.30)
- 제3대 국회의원(1954.5.20)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위원장
- 민주당 최고의원
- 제3대 대통령선거 입후보

차지철(車智澈)



제 6~9 대 의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 대학원 수료
- 5 · 16군사혁명 참가
- 육군 중령예편
- 청와대 경호실장(대통령 박정희)
- 대통령특사 중남미 순방
- 제6대 국회의원(전국구)
- 제7대 국회의원(1967.6.8)
- 제8대 국회의원(1971.5.25)
- 제9대 국회의원(1973.2.27)
- 월남시찰 단장

신하균(申河均)



3 · 5 · 6대 의원

- 중국 상해 광희상대 졸업
- 제3대 국회의원(보선에서 당선,1956.8. 23)
- 제5대 국회의원(1960.7.29)
- 제6대 국회의원(1963.11.26)
- 한국외국어대학 강사
- 민주당 중앙위원
- 민정당 경기제5자구당 위원장
- 민중당 정치훈련원장

최인규(崔仁圭)



제4대 의원

- 뉴욕대학 상학과 졸업
- 자유당 중앙위원
- 외자청장
- 동남아무역사절단 정부대표
- 대한 교역공사 이사장
- UNKRA 미국주재 한국대표
- 제4대 국회의원(1958.5.2)
- 내무부장관(1960.3.15 부정선거 주동)

오세응(吳世應)



제8~12,14~15대 의원

- 연세대학교 정외과 졸업
- 미 아메리간대학 정치학박사
- 민추협 초대회장
- 8대 국회의원(신민당 전국구)
- 9대 국회의원(신민당, 광주, 이천, 여주)
- 신민당 원내부총무
- 10대 국회의원(성남,광주,이천,여주 무소속당선)
- 11대, 12대국회의원(성남,광주민정)
- 14대 · 15대국회의원
- IPU한국대표 단장 및 집행위원
- 국회 문공위원장 · 국회 부의장

정동성(鄭東星)



제10~13대 의원

- 경희대학교 정외과 졸업, 동대학원 수료
- 미 웨스턴리저브대학 대학원수료
- 미 애리조나 주립대학 대학원수료
- 전국대학생 총연맹 의장
- 공화당 청년분과위원장
- 10대국회의원(성남,광주,여주,이천)
- 11,12대국회의원(여주,이천,용인)
- 국회교체위원장, 국회상공위원장, 민정당원내총무, 국회내무위원장, 체육부장관
- 민자당 여주지구당 위원장

이대엽(李大燁)



제11대~13대 의원

- 경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 일신 중 · 고교 교사
- 한국영화배우협회 부회장
- 제11대, 12대 국회의원(성남, 광주신정당)
- 신정당부총재,국민당중앙위원회의장
- 한 · 일 의원연맹 상임간사
- 제13대국회의원(성남 갑 공회당)
- 세계민간항공 명예총재 · 국회교체위원장 · 민자당성남수정지구당위원장
- (현)성남시장

이찬구(李讚九)



제13대 의원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내외문제연구회 통일문제 담당 보좌역
- 통일원 통일연구소 교수
- 민주사회당 용인, 이천, 여주지구당위원장,평민당당무지도위원
- 통일문제 특별위원장
- 제13대 국회의원 당선(성남을지구)
- 한국정신문화연구소장
- 삼단계 통일정책, 북한주민의 불안요인 분석, 한국병의 원인과 대책 등 저서 발행

이윤수(李允洙)



제14~16대의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신민당 김대중대통령 후보 경호실장 특별보좌역
- 산한 민주당 성남, 광주위원장
- 평화민주당 창당발기인
- 평화민주당 경기도광주 대통령선거대책위원장
- 민주당 김대중후보 비서실 차장
- 새천년민주당 원내 수석부총무
- 국회스카우트위원연맹 회장
- 국회환경노동위원장
-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고흥길(高興吉)



제16~17대 의원

- 서울대 정치학과 졸
- 성균관대 경제개발대학원 수료
- 미 미주리대 신문대학원 수학
- 경남대 북한대학원 정치학 석사
- 중앙일보 정치 외신 북한 사회부장, 편집국장, 논설위원
- 제16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총재 특보
- (현)국회 언론발전연구회 회장
- (현)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
- (현)사단법인 한국 혈액암 협회 회장
- 국회언론발전 연구회장

조성준(趙誠俊)



제15~16대 의원

- 고려대 법대 졸업
- 김대중 총재 특보
- 노사정위간사위원, 원내부총무
- 민주당 직능위원장
- 외국인노동자보호대책기획단장
- 平 · 太정책 연구회 책임연구위원
- 제15대 국회의원
- 제16대 국회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 새정치국민회의 원내부총무
- 새정치국민회의 직능위원회위원장
- 경기대 대학원 겸임교수

임태희(任太熙)



제16~17대의원

- 서울대 경영대 동대학원 졸업
- 옥스포드대학 수학
- 행정고시 합격
- 재무부 산업관세과 외환정책과 · 금융정책과, 재경원 예산정책과
- 청와대 경제비서실 근무
- 재경부 산업경제과장
- 제16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부대변인, 제2정조위원장
-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
- 국회재정 경제위원

김태년(金太年)



제17대 의원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
- 성남청년단체연합 의장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동북아연구소 소장
- 남북 경협살리기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지방분권 전국연대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미군기지 성남이전반대 범대위 사무국장
- 성남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이상락(李相樂)



제17대 의원

- 성남YMCA근로청소년야간학교교장
- 주민협동조합 이사장
- 사단법인 참사랑복지회 설립 ·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민주당 · 새정치국민회의 · 새천년민주당중원구지구당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서민생활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초대 성남시의회 의원
- 제4대 경기도의회 의원
- 제5대 경기도의회 부의장

제3절 기타 선거 및 투표

1.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1)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된 제 4공화국 헌법에 의해 설치된 헌법기관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임무를 보면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 1/3을 선거하는 외에도 중요한 통일정책을 심의 · 결정하고 국회가 발의 · 의결한 개헌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72년 11월21일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된 제 4공화국 헌법에 의해 설치된 헌법기관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1972년 11월 25일 제정 · 공포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과 그 시행령에는 선거구를 구 · 시 · 읍 · 면을 단위로 하여 전국 1,630개로 정하되, 인구 10만 미만의 선거구는 1개 선거구로 하고 인구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10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늘릴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① 소선거구제와 중선구제가 혼용되어 한 선거구에서 1명 내지 5명의 대

의원을 선출한다.

② 피선거권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30세 이상의 국민으로 해당 선거구에서 계속 2년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부여한다.

③ 선거운동은 철저한 공영제로 실시한다.

④ 후보자는 유권자 30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⑤ 정치인(국회의원, 정당의 당원)의 입후보는 금지한다.

1972년 12월 15일 실시된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에는 2,359명의 정원에 총 6,164명이 입후보하여 평균경쟁률이 3.4대 1이었다. 그러나 선거일까지 685명이 사퇴하고 1명이 사망, 44명이 등록 무효 됨으로써 결국 5,434명이 입후보하였다.[99] 경기도의 경우 280명의 대의원 선출에 714명이 입후보하여 경쟁률이 2.6대 1이었다.

99)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2), 「대한민국정당사」(제2집), 37쪽.

투표율 70.4%를 나타낸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투표결과 전국의 206개 선거구에서 225명이 무투표 당선되었는데, 경기도에서는 9개 선거구에서 총 12명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당시 성남출장소 지역에서는 [표 7-77]와 같이 5개 선거구에 총 16명이 입후보하여 1명이 도중 사퇴하고 4명이 무투표 당선되었으며, 11명이 투표로 선출되었다. 성남지역 5개 선거구의 11명의 당선자 중에서 중부 제3선거구의 노병천(盧秉天) 후보가 5,799표를 획득하여 최다 득표하였다.

〈표 7-77〉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 결과(성남출장소 지역: 1972. 12. 15)

선거구명	성명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비고
중부 제2선거구	강복현(姜福鉉)	38	고퇴	상업	–	무투표당선
	문영술(文永述)	45	대졸	수공업	–	무투표당선
	한백엄(韓百奭)	40	국졸	상업	–	무투표당선
	정덕봉(鄭德奉)	39	고졸	상업	–	무투표당선
중부 제3선거구	노병천(盧秉天)	43	대졸	상업	5,799	당선
	김진태(金振台)	35	대졸	상업	5,099	당선
	김영삼(金永三)	27	대졸	목축업	3,243	(당선후 사망)
	박용무(朴容武)	36	고졸	상업	3,383	(당선후 사망)
대왕선거구	안용성(安容成)	36	국졸	농업	1,490	당선
낙생선거구	김영훈(金永勳)	30	고졸	농업	1,716	당선
돌마선거구	이호규(李鎬珪)	53	중졸	농업	1,551	당선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72),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당선자 명부」.

2)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1977년 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이 대의원 선거구가 1,630개에서 1,665개로 35개 증설되고 대의원 수가 2,359명에서 2,583명으로 증가되는 등 일부 개정되었다.

1978년 5월 18일 실시된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에는 2,583명의 정원에 총 5,672명이 입후보하여 평균경쟁률이 2.2대 1이었다. 그러나 투표 전날까지 125명이 사퇴하고 35명의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5,417명이 입후보하였다. 경기도에서는 319명의 대의원 선출에 총 729명이 입후보하여 경쟁률이 2.3대 1이었다.

투표결과 무투표 당선된 자는 236개 선거구에 332명이었으며, 선거가 실시된 1,429개 선거구에서 2,551명이 당선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36개 선거구에서 총 39명이 무투표 당선되었으며, 선거가 실시된 지역에서 280명의 후보자가 당선되었다.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성남시는 3개 선거구로 구분되고 15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총 54명이 입후보하여 평균경쟁률이 3.6대 1이었다. 특히 제 2선거구에서는 5명 선출에 23명이 입후보하여 경쟁률이 4.6대 1로서 전국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다. 성남시의 15명 당선자 중에서 제 1선거구의 이대엽(李大燁) 후보가 7,792표를 획득하여 최다 득표하였는데, 성남시의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당선자 현황을 보면 [표 7-78]과 같다.

[표 7-78]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 결과(성남지, 1978. 5. 18)

선거구명	성명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비고
제1선거구	이경구(李京求)	39	대학원수료	상업	2,537	당선
	조영이(趙英二)	44	대학원수료	연예인	3,343	당선
	강희규(姜熙圭)	39	대졸	상업	3,235	당선
	이대엽(李大燁)	43	대졸	연예인	7,792	당선
	김찬희(金讚會)	40	고졸	상업	2,539	당선
제2선거구	박종민(朴鍾敏)	55	고졸	상업	2,212	당선
	문회식(文會植)	38	대졸	운수업	2,729	당선
	이형하(李亨河)	58	대졸	상업	2,146	당선
	양상근(梁相根)	44	고졸	상업	3,414	당선
	강복현(姜福鉉)	44	고졸	상업	2,019	당선

선거구명	성명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비고
제3선거구	노병천(盧秉天)	49	대졸	무직	7,106	당선
	김찬묵(金燦默)	35	대학원수료	건축설계사	4,035	당선
	공재현(孔在賢)	45	고졸	상업	3,060	당선
	이계남(李季南)	47	대졸	상업	3,715	당선
	김기식(金基植)	38	중졸	회사원	3,767	당선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78),『제2대 통일주체국민회 의대의원 당선자 명부』.

2.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

1980년 10월 22일 국민투표에 의해서 확정된 제 5공화국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 선출은 대통령 선거인에 의한 간접선거에 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80년 12월 26일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의결 · 통과된 대통령 선거법은 대통령 선거인단의 정수를 5,000명 이상으로 정하고, 대통령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당 또는 일정수의 대통령 선거인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고 대통령 선거인단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되도록 하였다.

제12대 대통령선출을 위한 대통령 선거인단의 선거가 1981년 2월 11일에 실시되었는데, 전국 1,905개 선거구에서 총 9,479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경쟁률은 1.8 대 1이었다. 그러나 선거기간 중 사퇴 186명, 사망 2명, 등록무효 7명 등으로 최종적으로 9,283명이 입후보하였다.[100] 성남시의 경우 모두 8개 선거구에서 총 78명이 입후보하여 그 중에서 37명이 선출되었는데, 당선자 현황은 [표 7-79]와 같다.

1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2),『대한민국정당사』제3집(1980-1988년), 10쪽.

(표 7-79) 대통령 선거인단선거 결과(성남시, 1981. 2. 11)

선거구명	성명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비고
제1선거구	박정호(朴廷鎬)	34	대퇴	회사대표	2,808	당선(민정당)
	이순영(李純瑛)	43	대졸	약사	3,440	당선(민정당)
	국중덕(鞠重德)	46	고졸	한의사	2,797	당선(민정당)
	서한규(徐漢奎)	43	고졸	제조업	2,750	당선(민정당)
	김종식(金鍾湜)	43	고졸	무직	4,285	당선(민권당)
제 2선거구	이우일(李宇一)	44	대졸	약사	2,190	당선(민정당)
	정상규(鄭商奎)	41	대졸	약사	2,503	당선(민정당)
	임명환(林明煥)	54	대퇴	상업	2,131	당선(민정당)

〈표 7-79〉 대통령선거인단선거결과(성남지부 1981. 2. 11)

선거구명	성명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비고
	강복현(姜福鉉)	47	고졸	상업	2,455	당선(민정당)
	라필주(羅必柱)	37	고퇴	사업	2,911	당선(민정당)
제 3선거구	김칠봉(金七峰)	45	고졸	회사대표	2,591	당선(민정당)
	김재구(金在九)	61	국졸	종교인	2,897	당선(민정당)
	강대웅(姜大雄)	39	고졸	상업	4,986	당선(민정당)
	임운택(林雲澤)	39	고졸	공업	3,129	당선(무소속)
	김기식(金基植)	41	고졸	상업	3,441	당선(민정당)
제 4선거구	신경호(辛慶浩)	49	대학원 재	상업	3,038	당선(민정당)
	지용규(池龍奎)	45	대졸	상업	2,744	당선(민정당)
	김동성(金東星)	40	고졸	건축업	1,937	당선(민정당)
	김형대(金炯大)	50	사범학교졸	상업	2,512	당선(민정당)
	양승준(梁承俊)	42	대졸	상업	2,614	당선(무소속)
제 5선거구	박광봉(朴光鳳)	34	고졸	상업	2,303	당선(무소속)
	김광길(金光吉)	47	고졸	무직	1,987	당선(무소속)
	고동일(高東一)	47	대퇴	사업		당선(무소속)
제 6선거구	윤수산(尹壽山)	47	대졸	상업	2,604	당선(민한당)
	이건동(李建同)	48	고퇴	상업	1,775	당선(민정당)
	정덕봉(鄭德奉)	48	중졸	건축업	1,875	당선(민정당)
	한백엄(韓百)	47	고졸	상업	1,726	당선(민정당)
	이상학(李相學)	40	고졸	건축업	1,477	당선(민정당)
제 7선거구	김종안(金鍾安)	52	고졸	상업	2,065	당선(민정당)
	조준환(曺駿煥)	43	대퇴	상업	2,679	당선(민정당)
	김찬희(金讚會)	43	대졸	사업	2,135	당선(민한당)
	임종섭(林鍾燮)	33	고졸	사업	3,739	당선(민정당)
	이용희(李龍熙)	57	중졸	무직	2,467	당선(민정당)
제 8선거구	안용성(安容成)	45	대졸	농업	2,759	당선(민정당)
	이종식(李鍾植)	40	대졸	상업	1,577	당선(무소속)
	강윤신(姜倫信)	42	고졸	상업	1,800	당선(민정당)
	박명원(朴明遠)	53	중졸	상업	1,397	당선(무소속)

3. 국민투표

1) 제1차 국민투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실시된 국민투표는 1962년 12월17일 5·16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안된 헌법개정안에 대한 것이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실시된 국민투표는 1962년 12월 17일 5·16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안된 헌법개정안에 대한 것이었다. 1962년 11월 5일 공고된 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대통령 책임제 채택, ② 부통령제 폐지 및 국무총리제 채택, ③ 국회 단원제 채택, ④ 정당제도 신설 및 복수 정당제도 보장, ⑤ 국회의원 정당공천제 채택 및 무소속 출마 불허 등이다.

당시 제1차 국민투표의 결과를 보면 [표 7-80]와 같이 유권자수는 12,412,798명이고 투표자수는 85.2%인 10,585,998명이었으며, 찬성 투표율은 78.8%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유권자 수는 1,512,281명이고 투표자 수는 84.4%인 1,275,898명이었으며 찬성 투표율은 77.2%로 전국상황과 비슷했으며, 지금의 성남지역을 포함하는 광주군에서는 투표자수는 유권자수 69,333명의 84.6%인 58,718명이고 찬성률은 74.4%로 나타났다.

(표 7-80) 제1차 국민투표 결과(1962.12.17)

구분 / 지역	유권자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자	투표율 (%)	찬성 투표율 (%)
			찬성	반대	계				
전국	12,412,798	10,585,998	8,339,333	2,008,801	10,348,134	237,864	1,826,800	85.2	78.8
경기도	1,512,281	1,275,898	985,104	259,816	1,244,920	30,978	236,383	84.4	77.2
광주군 (성남포함)	69,333	58,718	43,741	13,235	56,976	1,742	10,615	84.6	74.4

2) 제2차 국민투표

1969년에 접어들어 대통령의 3번째 중임을 허용하는 헌법개정 문제가 정계의 쟁점으로 부각하였다. 1969년 7월 25일 박정희 대통령이 개헌문제에 대한 특별담화를 발표함에 따라 민주공화당을 중심으로 헌법 개정작업이 이루어졌으며, 8월 7일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국회의원 정수를 150-200명에서 150-250명으로 증원하고, ②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임을 허용하고, ③ 대

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하고, ④ 대통령의 중임기간을 3기까지로 개정하는 것 등이다.

헌법 개정안은 9월 14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10월 17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표 7-81]과 같이 유권자는 15,048,925명이며, 선거권자의 77.1%인 11,604,038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65.1%의 찬성표를 얻어 확정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유권자는 1,609,925명이고 투표자 수는 1,249,443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찬성 투표한 사람은 총 투표자의 60.5%이었다. 그리고 당시 성남지역을 포함한 광주군의 경우 유권자는 54,057명이고 투표자 수는 77.6%인 42,018명이었으며, 찬성 투표율은 59.4%를 나타냈다.

[표 7-81] 제7차 국민투표 결과(1969.10.17)

구분 / 지역	유권자수	투표자수	유효투표 수 찬성	반대	계	무효투표수	기권자	투표율 (%)	찬성 투표율 (%)
전국	15,048,925	11,604,038	7,553,655	3,636,369	11,190,024	414,014	3,444,887	77.1	65.1
경기도	1,609,298	1,249,443	755,748	451,554	1,207,302	42,141	359,855	77.6	60.5
광주군	54,057	42,018	24,962	15,146	40,108	1,910	12,039	77.6	59.4

3) 제3차 국민투표

비상국무회의는 국민의 기본권 조항에 관한 조정, 정당기능의 약화, 헌법위원회의 신설, 경제조항의 보강, 헌법 개정절차의 이원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신헌법안을 마련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하였다.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에 의해서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이 중지되었으며, 곧이어 10월 27일 비상국무회의는 국민의 기본권 조항에 관한 조정, 정당기능의 약화, 헌법위원회의 신설, 경제조항의 보강, 헌법 개정절차의 이원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신헌법안을 마련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하였다.

1972년 11월 21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표 7-82]과 같이 유권자수는 15,676,395명이고 총유권자의 91.9%에 해당하는 14,410,714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91.5%의 찬성표를 얻어 헌법개정안이 확정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유권자는 1,727,059명이고 투표자는 1,626,187명이었으며, 이중에서 찬성투표한 사람은 총 투표자의 92.8%에 해당하는 1,508,712명이었다.

당시 성남지역이 포함된 경기도 광주군의 경우 총유권자는 113,000명이

었으며, 투표자는 96.7%인 109,289명이었다. 이 중에서 찬성투표수는 총 투표자의 91.8%에 해당하는 100,275표였다.

(표 7-82) 제5차 국민투표 결과(1972.10.21)

구분 / 지역	유권자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 수	기권자	투표율 (%)	찬성 투표율 (%)
			찬성	반대	계				
전국	15,676,395	14,410,714	13,186,559	1,106,143	14,292,012	118,012	1,265,681	91.9	91.5
경기도	1,727,059	1,626,187	1,508,712	104,759	1,613,471	12,716	100,872	94.2	92.8
광주군	113,000	109,289	100,275	7,525	107,800	1,489	3,711	96.7	91.8
성남지역	72,680	68,821	63,042	4,833	67,875	946	3,895	94.5	91.8

4) 제4차 국민투표

유신체제가 출범한 뒤 1974년부터 야당 및 반체제 인사들을 중심으로 반체제 운동이 전개되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1975년 1월 22일 특별담화를 발표하여 "현행 헌법에 대한 찬반뿐만 아니라 대통령 자신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1975년 2월 12일 유신헌법에 대한 찬 · 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는데, [표 7-83]과 같이 유권자수는 16,788,839명이고 투표자수는 총유권자의 79.8%에 해당하는 13,404,245명이었다. 이 중에서 총투표자의 73.1%에 해당되는 9,800,201표가 찬성표로서 유신헌법은 찬성을 얻게 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유권자수는 1,892,305명이고 투표자수는 1,603,494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찬성투표한 사람은 총투표자의 72.5%에 해당하는 1,162,887명이었다.

성남시의 경우 유권자수는 101,601명이고 투표자수는 76,695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찬성투표한 사람은 총투표자의 64.2%에 해당하는 49,241명이었다.

표 7-83 제4차 국민투표 결과(1975.2.12)

구분 지역	유권자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찬성	반대	계	무효투표수	기권자	투표율 (%)	찬성 투표율 (%)
전국	16,788,839	13,404,245	9,800,201	3,370,085	13,170,286	233,959	3,384,594	79.8	73.1
경기도	1,892,305	1,603,494	1,162,887	414,009	1,576,896	26,598	288,811	84.7	72.5
성남지역	101,601	76,695	49,241	25,839	75,080	1,615	24,906	75.5	64.2

5) 제5차 국민투표

1979년 10.26 사태 이후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하면서 표면화된 개헌 문제는 최규하 대통령의 재임기간인 1980년 3월 14일 헌법개정 심의위원회가 발족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그 후 전두환의 제11대 대통령 취임 후 마련된 헌법 개정안이 1980년 9월 29일 공고되고 10월 22일 국민투표에서 확정되었는데, 개정 헌법의 주요내용은 ①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제한, ② 대통령 임기 7년 단임제, ③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출, ④ 국회 권한강화 및 사법권 독립보장, ⑤ 국정자문회의 신설, ⑥ 국회의원 청렴조항 신설, ⑦ 국민기본권 강화, ⑧ 기존 정당 및 국회 해산 등이다.

1980년 10월 22일 실시된 제5차 국민투표에서 [표 7-84]와 같이 총 유권자수는 20,373,869명이고 투표자수는 총유권자의 95.5%인 19,453,926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찬성투표 수는 91.6%에 해당하는 17,829,354표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유권자수는 2,701,219명이고 투표자수는 2,604,212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찬성 투표한 사람은 총 투표자 수의 94.4%에 해당하는 2,457,368명이었다.

성남시의 경우 유권자는 190,747명이고 투표자는 유권자의 96.6%에 해당하는 184,258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찬성투표한 사람은 93.2%에 해당하는 171,656명이었다.

표 7-84 제5차 국민투표 결과(1980.10.22)

구분 지역	유권자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찬성	반대	계	무효투표수	기권자	투표율 (%)	찬성 투표율 (%)
전국	20,373,869	19,453,926	17,829,354	1,357,673	19,817,027	266,899	919,943	95.5	91.6
경기도	1,701,219	2,604,212	2,457,368	116,545	2,573,913	30,299	97,007	96.4	94.4
성남지역	190,747	184,258	171,656	10,398	182,054	2,204	6,489	96.6	93.2

6) 제6차 국민투표

1987년 6 · 29선언에 의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여 · 야 합의로 헌법 개정안이 마련되어 국민투표에 회부되었는데, 개정 헌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대통령직선제 채택, ②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및 국회해산권 폐지, ③ 국회의 국정감사권 부활, ④ 법관의 임명절차 개선과 헌법재판소 신설, 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 · 검열 금지 등이다.

1987년 10월 27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표 7-85]과 같이 유권자 수는 25,619,648명이고 투표자 수는 총유권자의 78.2%인 20,028,672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찬성투표는 93.1%인 18,640,625표였다.

경기도의 경우 유권자 수는 3,284,968명이고 투표자 수는 총유권자의 81.4% 인 2,674,509명이었으며, 찬성투표한 사람은 93.4%에 해당하는 2,498,639명이었다. 그리고 성남시의 경우 295,509명의 유권자 중 74.7%인 220,719명이 투표하였으며, 이 가운데 93.6%인 206.603명이 찬성 투표하였다.



<사진 3-7 : 49> 국민투표 홍보탑



<사진 3-7 : 50> 국민투표 홍보 포스터

[표 7-85] 제6차 국민투표결과(1987.10.27)

구분 / 지역	유권자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찬성	유효투표수 반대	유효투표수 계	무효투표수	기권자	투표율 (%)	찬성 투표율 (%)
전국	25,619,648	20,028,672	18,640,625	1,092,702	19,733,327	295,345	5,590,976	78.2	93.1
경기도	3,284,968	2,674,509	2,498,639	125,272	2,623,911	50,598	610,459	81.4	93.4
성남지역	295,509	220,719	206,603	10,943	217,546	3,173	74,790	74.7	93.6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와 권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중립성 보장이 특징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제3공화국 헌법에 의해 1963년 1월 21일 설치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시·도 및 선거구 단위로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직무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의 임기 및 신분을 헌법과 법률에 엄격히 규정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어떤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직무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의 임기 및 신분을 헌법과 법률에 엄격히 규정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어떤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성 보장을 위해 의사결정기구를 단독 결정기관이 아닌 합의제의 위원회 형식을 취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국회 및 법원에서 추천한 인사나 법관, 변호사, 교육자 등 중립적이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인사로 구성된다. 그리고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에의 관여를 금지함으로써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거관리 기관을 독립 위원회형의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세계적으로 그 예가 드물다.



〈사진 3-7:51〉 (구)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현) 중앙선거 연수원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으로는 다음의 열 가지를 들 수 있다. 즉 ① 규칙 제정권, ② 선거범죄 조사권, ③ 선거비용 확인·조사권, ④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권, ⑤ 불법시설물에 대한 조치 및 대 집행권, ⑥ 불법선전물의 우송 중지권, ⑦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권, ⑧ 선거범죄에 대한 재정 신청권, ⑨ 정치 관계법에 대한 제·개정 의견 제출권 및 ⑩ 선거사무에 관한 지시 또는 협조 요구권한 등이다.[101]

2. 성남시 선거관리위원회

101) http://home.nec.go.kr(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성남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04년 1월 현재 성남시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 · 운영되고 있다.

1)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

성남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 2월 7일『경기도 제7지역 선거구 관리위원회』로 창설되었다. 그 후 1971년 1월 26일 『경기도 제8지역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1984년 9월 6일에는『경기도 제2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 후 1987년 11월 7일『성남시 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88년 3월 17일『성남시 갑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1989년 5월 18일『성남시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102]

102) 성남시사관찬위원(1993), 「성남시사 20주년」, 성남시사편찬위원회, 669쪽.

2004년 1월 현재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선거별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 1개, 경기도지사 선거구 1개, 성남시장 선거구 1개, 경기도의회의원 선거구 2개, 그리고 성남시의회의원 선거구 14개 등이다.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경기도의회의원선거 성남시 제1선거구에는 신흥1동, 신흥2동, 신흥3동, 수진1동, 수진2동, 단대동 등 6개 동(洞)이, 성남시 제2선거구에는 태평1동, 태평2동, 태평3동, 태평4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등 10개 동이 포함된다.

그리고 성남시의회의원 선거 선거구는 경기도의회의원선거 선거구에 포함된 동(洞)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촌동 · 고등동 · 시흥동은 1개 선거구로 묶여 있다.



〈사진 3-7 : 52〉 개표참관인

2)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

1988년 3월 17일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해서 성남시 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1989년 5월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개정으로 인하여 성남시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103]

103) 성남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70쪽.

2004년 1월 현재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선거별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 1개, 경기도지사 선거구 1개, 성남시장 선거구 1개, 경기도 의회의원 선거구 2개, 그리고 성남시의회의원 선거구 10개 등이다.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경기도의회의원선거 성남시 제 3선거구에는 성남동, 상대원1동, 상대원2동, 상대원3동, 하대원동 등 5개 동(洞)이, 성남시 제 4선거구에는 은행1동, 은행2동, 중동, 금광1동, 금광2동 등 5개 동이 포함된다.

그리고 성남시의회의원 선거 선거구는 경기도 의회 의원 선거 선거구에 포함된 동(洞)별로 구성되어 있다.

3)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

1991년 10월 25일 신설된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개정에 의해 설치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2004년 1월현재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선거별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 2개, 경기도지사 선거구 1개, 성남시장 선거구 1개, 경기도 의회의원 선거구 4개, 그리고 성남시의회의원 선거구 17개 등이다.

성남시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국회의원 선거구는 성남시 분당구 갑 · 을 선거구로 구분되는데, 성남시 분당구 갑 선거구에는 야탑1동, 야탑2동, 야탑3동, 이매1동, 이매2동, 서현1동, 서현2동, 수내1동, 수내2동, 판교동, 운중동 등 11개 동(洞)이 포함되고, 성남시 분당구 을 선거구에는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수내3동, 분당동, 구미동, 금곡동 등 7개 동이 포함된다.

경기도 의회의원선거 성남시 제5선거구에는 야탑1동, 야탑2동, 야탑3동, 이매1동, 이매2동 등 65 동(洞)이, 성남시 제6선거구에는 서현1동, 서현2

동, 수내1동, 수내2동, 판교동, 운중동 등 6개 동이, 성남시 제7선거구에는 정자1동, 정자2동, 금곡동 3개 동이, 그리고 성남시 제8선거구에는 분당동, 수내3동, 정자3동, 구미동 등 4개 동이 포함된다.

성남시의회의원선거 선거구는 경기도 의회의원선거 선거구에 포함된 동(洞)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교동 · 운중동은 1개 선거구로 묶여 있다.

◌ 집필 崔恒洵 경원대학교 교수
尹斗燮 경원대학교 책임연구원



제3장 지방자치

제1절 지방자치 제도의 변천

1. 지방자치의 시작

1) 지방자치법 제정

1948년 구성된 제헌 국회는 개원 초부터 지방자치의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정을 서둘렀다. 그러나 국회의 이러한 입장과는 달리 행정부는 이것을 즉각 실시할 것이 아니라 1년 이내에 대통령 령으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국회와 행정부간의 대립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에 가서야 법률 제32호로 제정 · 공포되었다.

1948년 구성된 제헌 국회는 개원 초부터 지방자치의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정을 서둘렀다. 그러나 국회의 이러한 입장과는 달리 행정부는 즉각 실시할 것이 아니라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지방자치법의 주요골자를 보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서울특별시 · 도 및 시 · 읍 · 면의 2종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와 도는 단층제, 시는 2층제, 읍 · 면은 3층제로 하였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형태로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립시키는 기관대립형(機關對立型)을 채택하고 집행기관은 독임제로 하며 ③ 시 · 읍 · 면장은 당해 시 · 읍 · 면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하고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시 · 읍 · 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장 · 도지사는 국가공무원으로

하였다. ④ 지방의회는 4년 임기의 명예직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원 수는 인구를 기준으로 정하였다. ⑤ 지방의회의 의결권에는 제한주의를 채택하고 시 · 읍 · 면에 있어서는 의회의 시 · 읍 · 면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권과 시 · 읍 · 면장의 의회 해산권을 부여하여 견제와 균형을 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1949년 12월15일 법 제정 당시의 법 논리상 모순점과 현실적인 불합리성, 그리고 필수규정의 미비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되었다.

제1차 개정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지방의회의 구성이 오래 지연될 것을 예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권한 대행과 시 · 읍 · 면장의 선임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② 지방의회가 성립될 때까지 그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 장관의, 시 · 읍 · 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③ 시장은 대통령이, 읍 · 면장은 도지사가 각각 임명하도록 한 것 등이다.

2) 1950년대의 지방자치

지방자치법의 제정 및 제1차 개정 이후에도 지방 선거는 바로 실시되지 않았고 약 2년 후인 1952년 피난 수도 부산에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104] 당시는 정부가 제2대 정 · 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가 야당세가 강한 국회에 의해 부결된 직후로서 이승만은 국회에서의 간접 선거로는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가망이 없어지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의 정부측 입장을 지지해 줄 전국적인 세력기반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지방의회의 구성에 착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1952년 4월25일에는 시 · 읍 · 면 의회의원이, 그리고 5월 10일에는 도의회의원이 선출되어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민선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이 당시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은 시의회 378명, 읍의회 1,114명, 면의회 16,052명, 그리고 도의회 306명 등이다.[105] 제1대 지방의회는 전국적으로 17개 시의회, 72개 읍의회, 1,308개 면의회, 그리고 7개 도의회가 구성되어 각기 의정활동을 펼쳤는데, 시 · 읍 · 면 의회의 경우 시 · 읍 · 면장의 선출과 아울러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권이 부여되어 의회 우위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었다.[106]

104) 이는 우리나라 지방선거중 최초로 실시된 선거이나, 서울특별시는 물론 경기도와 강원도가 미수복된 한국전쟁 기간 중이었다: 김병준(2002).『한국지방자치론: 지방정치 · 자치행정 · 자치경영』, 법문사, 제 1편 제 3장.

105) 치안상태의 불안으로 전선지대에 인접한 한수(漢水) 이북의 지역과 계엄령이 선포된 전라북도 관내의 지리산록 8개면(완주군 상동면, 남원군 산내면, 주천면, 순창군 쌍치면, 북오면, 구림면, 정읍군 산내면, 내장면)의 선거는 연기되었다.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지방의회 해산권이 부여되기는 하였으나 감독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처럼 자유롭지는 못했다. 제1대 지방의회의 경우 불신임 의결권의 남용으로 전국적으로 단체장이 빈번히 해임되고 교체되었다. 1952년 제1대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래 최초 3년 동안 의회해산은 18건인 데 비하여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66건이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불신임 의결에 앞서 스스로 물러난 사직(辭職) 건수가 무려 1,166건이나 되었다. 당시 자신의 임기 만료 시까지 재임한 시·읍·면장은 40%에 불과하였고,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한 임기동안 3명이 교체되기도 하였다.[107]

제1대 지방의회가 가졌던 대표적인 권한으로는 조례 제정권, 예산 결산의 승인권, 청원수리 및 처리권, 의회규칙 제정권, 행정감사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권 등이 있다.

1955년 12월12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중 '도(道) 행정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의 변경'(지방자치법 제116조)을 골자로 한 제2차 개정 지방자치법에 이어 제3차 개정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종전대로 임명제로 하고 시·읍·면장과 동·리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며 ②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제도를 폐지하며 ③ 지방의회 의원과 시·읍·면장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는 것 등이다. 제3차 개정 지방자치법은 주로 제1대 지방의회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법제상 모순점을 시정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개정 지방자치법이 공포된 지 불과 5개월만인 1956년 7월8일 제4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야당측이 총퇴장한 가운데 자유당 의원 84표의 찬성을 얻어 통과되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제는 중앙정치에 몰려 그 본래의 의의가 퇴색해 갔고 지방자치법은 정치의 도구로 전락해 갔다. 제4차 개정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은 ① 서울특별시와 도의회의원 선거구 책정기준을 소선거구제로 변경하고 ② 4년 임기를 마치기 전에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지방의회 의원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 등이다.

제2차 지방선거는 1956년 8월 8일에 시·읍·면 의회 의원선거 및 시·읍·면장 선거를, 8월 13일에는 도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시·읍·면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106) 시·읍·면의회와달리 도의회는 도지사의 선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107)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일단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단체장은 15일 이내에 감독관청의 허가를 얻어 의회를 해산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의회를 해산하지 않으면 단체장은 당연 퇴직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를 해산하였을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원의 총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하며,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이 다시 이루어지면 퇴직하게 된다 http://www.rilc.re.kr/gov_index.asp?sel_menu=m01(지방의회발전연구원 홈페이지).

1956년에 처음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일부 시 · 읍 · 면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먼저 시장 선거는 전국 26개 시(市) 중에서 6개 시(강원도 1, 충북 2, 전북 2, 전남 1)에서만 실시되었으며 평균경쟁률은 4대 1이었다. 6개시의 평균 투표율은 86.6%였으며, 투표결과 자유당 4명, 무소속 2명 등이 당선되었다.

읍장 선거는 전국 76개 읍(邑) 중 30개 읍에서 실시되었으며, 총 102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경쟁률이 3.3대 1이었다. 투표 결과 당선자는 무소속 20명, 자유당 8명, 민주당 1명, 국민당 1명 등이며, 이 중에서 경기 이천읍, 충북 제천읍, 경북 의성읍 등에서 3명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경기도에서는 8개 읍 중 4개 읍에서 실시되었는데, 모두 14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경쟁률이 3.6대 1이었다.

면장 선거는 전국의 1,389개 면 중 544개면에서 실시되었으며, 총 1,797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투표결과 당선자는 자유당 282명, 무소속 243명, 민주당 9명, 국민회 6명, 농민회 3명, 기타 1명 등이었으며, 이 중에서 무투표 당선자는 87명이었다. 경기도에서는 185개 면 중 106개면에서 총 323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투표 결과 무소속 58명, 자유당 46명, 민주당 1명, 농민회 1명 등이 당선되었으며, 이 중에서 29명이 무투표 당선되었다.[108]

제2대 지방의회에서는 전국 1,481개 시 · 읍 · 면 의회에서 16,954명이, 그리고 10개 시 · 도의회에서 437명이 선출되었는데, 제1대 의회의 경우와 달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구분하여 단체장의 의회 해산권과 지방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권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신임 의결권이나 의회 해산권의 폐지는 의회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배격하게 하였다. 예컨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지방정부를 무예산 상태로 방치한다거나 부당한 의사 지연이나 부결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행정을 마비시키기도 하였다.[109]

1958년 12월26일 공포된 제 5차 개정 지방자치법은 시 · 읍 · 면장 직선제를 임명제로 바꾸었는데,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선제는 2년 반만에 폐지되었다.

108) 정세욱(2000), 「지방자치학」, 법문사, 96-98쪽.

109) http://www.rilc.re.kr/gov_index.asp?sel_menu=m01(지방의회발전연구원 홈페이지).

3) 1960년대의 지방자치

1958년 자유당 정권에 의해 무리하게 강행된 2 · 4 파동 등으로 제 5차 개정을 본 지방자치법은 4 · 19 혁명으로 인하여 제6차 개정을 맞이하게 되었다. 허정(許政) 과도정부 하에서 제4대 국회를 해산하고 선거로 구성된 새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먼저 개헌을 한 후 선거를 치를 것인가로 논란을 하다가 결국 선개헌(先改憲) 후선거(後選擧)로 귀결을 보게 되었다. 1960년 6월15일 공포된 개정 헌법은 내각책임제 도입과 함께 지방자치에 대한 조항을 개정 · 삽입하였다. 이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을 법률로 정하되 적어도 시 · 읍 · 면장은 그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기기관 선임원칙'을 헌법으로 보장하였다.

이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법률로 정하되 적어도 시·읍·면장은 그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기기관 선임원칙'을 헌법으로 보장하였다.

1960년 11월1일 개정된 제6차 지방자치법은 ① 서울특별시장 · 도지사, 시 · 읍 · 면장, 그리고 동 · 리 장까지의 지방자치단체장 전체를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며 ②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의 선거에는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를 적용하는 반면, 시 · 읍 · 면장 선거에는 중선거구제를 적용하며 ③ 부재자투표가 인정됨과 아울러 서울특별시장 선거에는 후보자의 이름을 적는 기명투표제도를 채택하고 ④ 각급 지방의회 의원정수는 종래의 인구비례제로부터 민의원 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개정하며 ⑤ 선거권을 21세에서 20세로 낮추고, 피선거권은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만30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만25세로 하는 것 등이다.

1960년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956년의 경우와 달리 시 · 읍 · 면장 선거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선거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4 · 19 혁명 후 정치적인 참여분위기가 지방자치제의 확대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시 · 읍 · 면장 선거는 1956년의 경우와 달리 전국의 시 · 읍 · 면 전체를 대상으로 1960년 12월 26일 실시되었다.

먼저 시장 선거는 전국 26개시를 대상으로 110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평균 투표율은 54.6%였다. 투표 결과 당선자는 민주당이 12명, 무소속 9명, 신민당 5명 등이었다. 경기도에서는 인천

과 수원의 2개시에서 총 10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리고 투표율은 52.6%로 저조하였으며, 투표 결과 민주당 출신이 2곳에서 모두 당선되었다.

읍장 선거는 전국 82개 읍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평균 72.7%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 결과 당선자는 무소속이 56명으로 전체 읍장의 68.3%를 차지하였으며, 민주당 23명, 신민당 3명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9개 읍장에 57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19.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평균 63.1%의 투표율을 보인 읍장 선거의 투표 결과 당선자는 무소속이 5명, 민주당 3명, 신민당 1명 등이다.

면장 선거는 전국 1,359개의 면을 대상으로 총 6,638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평균 81.6%의 투표율을 나타낸 면장 선거에서 투표결과 당선자는 무소속이 1,045명으로 전체 면장의 76.9%를 차지했으며, 민주당 297명, 신민당 13명, 기타 5명 등이었다. 경기도에서는 184개 면을 대상으로 총 1,078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5.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평균 74.6%의 투표율을 나타낸 면장 선거의 투표 결과 당선자는 무소속이 154명으로 83.7%를 차지했으며, 민주당이 27명, 신민당 1명, 기타 2명 등이다.

1960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 선거는 12월 29일 전국 10개 시 · 도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총 83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8.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투표율은 전국 평균 38.8%로 극히 저조하였으며, 투표 결과 당선자는 민주당 6명, 신민당 3명, 무소속 1명 등이었다. 경기도지사 선거의 경우에는 9명이 입후보하였는데, 투표결과 당선자는 민주당 소속 신광균(申光均) 이었다.[110]

110) 위의 책, 98-101쪽; 김병준, 앞의 책, 208-209쪽.

제3대 지방의회는 1960년 12월부터 1961년 5월까지로 불과 몇 달 되지 않았지만, 단체장과 의회가 소속정당을 달리함으로 말미암아 분화가 극심하던 시기이었다. 당시 시 · 읍 · 면 의회에는 무소속의 진출이 시의회 56.7%, 읍의회 82.7%, 면의회 81.8% 등으로 두드러졌으며, 도의회의 경우는 충남을 비롯한 9개 도에서 무소속이 우세한 형편이었다. 따라서 무소속 의원을 여당과 야당이 각기 자기편으로 흡수하려는 매수 운동이 심화되었다.[111]

111) 정세욱, 앞의 책, 97-100쪽.

장면(張勉) 정부의 초기 구상은 시 · 읍 · 면의 완전 자치화로 행정의 민



장면 정부의 초기 구상은 시·읍·면의 완전 자치화로 행정의 민주화를 기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인 도지사는 국가에서 임명함으로써 시급한 경제개발의 능률화를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당시의 지방자치 실패의 책임에 대해 주로 제도와 운영상의 결함, 무능력한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 국민의 낮은 정치의식 수준, 그리고 주민의 부족한 자치능력 등으로 그 원인이 지적되어 왔다.

주화를 기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인 도지사는 국가에서 임명함으로써 시급한 경제개발의 능률화를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제1공화국 시절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대정부 민주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완전 직선을 요구하였던 대국민 공약을 준수해야만 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던 1952-1961년간의 시작기는 흔히 자치의 실패였다는 평가가 통설처럼 되어있다. 당시의 지방자치 실패의 책임에 대해 주로 제도와 운영상의 결함, 무능력한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 국민의 낮은 정치의식 수준, 그리고 주민의 부족한 자치능력 등으로 그 원인이 지적되어 왔다. 물론 지방자치 실패의 원인이 제도상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아닌 집권자 측의 필요에 따라 출발하였고 그 시행과정에서도 시작 당시부터 짊어진 정치적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었다. 집권자 측은 지방자치단체를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지해 줄 하나의 지방정치의 기반 정도로 생각하였다.

정치권력의 개입은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는데, 선거에서의 관권 개입은 전반적으로 높지 못했던 당시의 민도(民度)를 더욱 낮게 평가하도록 만들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투표 과정에서 주민들이 관권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방주민의 민도가 낮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한국 특유의 정치·문화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초창기의 지방자치의 실패원인은 자치의 실패라기보다는 관치(官治)의 실패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1950년대는 지방자치가 정착하고 발전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방자치 실시 10년 동안 자치를 관치로 이용하려는 집권세력의 끊임없는 정치적 시도와 함께 미비한 환경적 요인까지 겹쳐서 지방자치는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많은 제약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과 환경 속에서도 지방자치의 경험이 결코 부질없는 시행착오가 아니라 주민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자치를 연습하고 익히는 좋은 훈련이 되었다.

2. 지방자치의 중단

1)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

제1공화국에 이어 제2공화국의 장면 내각 하에서 크게 발전할 뻔 했던 지방자치는 1961년 박정희를 앞세운 5 · 16 군사혁명에 의하여 그 막을 내렸다.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의 포고령 제4호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해산됨으로써 지방자치는 바로 중단되었으며, 곧이어 1961년 9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법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말살되고 말았다. 이후 1991년 지방자치가 재개될 때까지 30여 년간 지방자치단체는 철저히 중앙정부의 단순한 업무수행기관으로 전락하였으며, 자치사무의 처리는 일방적인 중앙의 지시와 명령에 종속되었다.

지방자치의 중단을 가져온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 이후 지방자치법은 사실상 사문화(死文化) 되었으며, 지방행정의 개편 등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임시조치법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하여 정비되었다. 즉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1961년 제정 · 공포된 이후 1981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래 지방자치법의 기능은 정지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제 4공화국에 와서 지방자치는 유신헌법에 의해 조국 통일 시까지 실시가 유예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중 관계조문 또한 폐지되었다.

2) 1960~70년대의 지방자치

1961년에 제정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지방자치 체계를 일부 개편하는 한편 지방자치의 중단을 공식화 했다. 먼저 지방자치체계의 개편과 관련하여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읍 · 면을 일반 지방행정기관으로 전환하고 그 대신 일반 지방행정기관이었던 군(郡)을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였다. 선출직이던 읍 · 면장은 군수가 임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중단하는 내용으로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와 도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시와 군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읍·연을 일반 지방행정기관으로 전환하고 그 대신 일반 지방행정기관이었던 군(郡)을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였다. 선출직이던 읍·면장은 군수가 임명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가 지닌 민주적 가치와 지역주민의 참여욕구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군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군사혁명 지도부는 지방자치제도나 지방자치단체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못했다. 지방자치가 지닌 민주적 가치와 지역주민의 참여욕구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정치·사회적 상황을 들어 이를 일시 중단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이들로서는 훨씬 유리한 선택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제3공화국 헌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절을 두어 지방자치제도를 인정했지만, 부칙에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의회의 구성시기에 관하여는 법률로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없게 하였다.

새로운 헌법에 의해 공식 출범한 박정희 정권은 강력한 개발 논리와 함께 대통령을 중심으로 권력을 집중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으로 계획경제의 틀을 확립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 관료조직을 동원해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였다. 부국강병의 논리로 민주주의의 논리를 밀어내고, 경제성장을 통해 집권과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적 태도는 1972년 10월유신과 함께 제4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대통령 직선제가 폐지되고, 국회의원의 1/3이 유정회 의원이란 이름으로 지명되는 체계가 유지되었으며, 지방자치 역시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시기였다. 유신헌법 부칙에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될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 실시 가능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부정되었다.[112]

112) 1973년 1월15일 제7차 지방자치법 개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만을 담고 있었을 뿐이며 지방자치법의 기능은 전무하였다.

3) 1980년대의 지방자치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60-70년대의 암흑기를 지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면서 간접선거를 통해 들어선 제5공화국의 전두환 정권에서도 지방자치를 완전히 부정하기보다는 상황논리를 들어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는 전략을 활용하였다. 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도 그 부칙에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시기는 법률로서 정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사실상 부정하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1985년 지방자치제 실시 연구회를 구성하여 각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연구하게 하고,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한 지방자치법 개정 작업을 시도한 점 등은 제3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방자치에 관한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1985년 지방자치제 실시연구회를 구성하여 각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연구하게 하고,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한 지방자치법 개정작업을 시도한 점 등은 제 3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방자치에 관한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1987년 6월의 시민항쟁과 6 · 29 선언에 이어 탄생한 10월 27일의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시 · 군 · 자치구 의회를 우선 구성하고, 그 다음 시 · 도 의회를 구성하되 실시시기는 잠정적으로 결정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 위임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에 따라 노태우 정권 출범 직후인 1988년 4월 6일 오랫동안 사문화되었던 지방자치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5 · 16 이후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어 왔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은 폐지되고 지방자치법으로 일원화되었다.[113]

113) 김병준, 앞의 책, 50-59쪽; 박응(1989), "과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실태와 교훈(1)" 「지방행정」 10월호; 장병구(2000). 「지방자치행정론」, 형설출판사, 52쪽.

6 · 29 선언 이후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지방자치 실시에 관한 유보조항이 폐지되고,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재개 근거가 마련되었다. 제6공화국 헌법을 통해 들어선 노태우 정부는 집권 후 지방자치 실시를 전제로 한 지방자치법 전문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제출된 법률안은 1988년 4월 6일 공포되었다. 현행 지방자치법의 기본 틀이 된 제8차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서울특별시(特別市)와 직할시(直轄市) 및 도(道)를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시(市)와 군(郡), 특별시와 직할시내의 자치구(自治區)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모두 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기관분리형(機關分離型)을 채택했고, 사무배분과 관련해서는 예시적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했다.



6.29 선언 이후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지방자치 실시에 관한 유보조항이 폐지되고,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재개 근거가 마련되었다.

1989년 12월 19일 제9차 개정 지방자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① 시 · 도의 부시장 · 부지사는 당해 시 · 도지사가 추천한 자를 중앙정부가 임명하도록 하되, 최초로 선출된 시 · 도지사의 임기만료까지는 종전의 임명제로 하며 ② 지방의회에 행정사무 감사권을 부여하고 ③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1990년 6월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며 ④ 농지개량조합, 산림

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의 임·직원을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 법은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선거구와 의원 정수에 관한 규정이 없는 기형적 지방자치법이 되고 말았다.

지방자치법은 1990년 12월에 제10차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992년 6월 30일 이내에 각각 실시하는 것 등이었다.[114]

114) 제10차 개정 지방자치법이 공포된 1990년 12월 31일에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도 함께 공포되었다: 정세욱, 앞의 책, 108-109쪽.

3. 지방화 시대의 개막

1) 지방자치의 재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재개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로부터 시작되었다. 지방자치법의 제9차·10차 개정을 통하여 연기되어 오던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여러 가지 정치적 난제(難題)들을 겪으면서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 선거는 1991년 3월 26일에, 그리고 시·도의회 의원 선거는 같은 해 6월 20일에 실시되었다. 5·16 군사혁명에 의해 지방자치가 중단된 지 30년만의 일이었다.[115]

115) 김병준, 앞의 책, 59-60.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통하여 1991년 4월 15일 시·군·자치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같은 해 7월 8일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4,304명의 기초의회 의원과 866명의 광역의회 의원에 의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정부와 여당의 미온적인 태도와 복잡한 정치일정 등으로 수차례 연기된 후 1995년 6월 27일 제2대 지방의회 의원 선거와 함께 지방선거사상 처음으로 전국동시 선거의 형태로 실시되었다.



1991년의 지방 선거는 지방자치의 재개를 공표했지만 지방의회 의원 선거만을 실시함으로써 절름발이 지방자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였다.

2)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

1991년의 지방 선거는 지방자치의 재개를 공표했지만 지방의회 의원 선



〈사진 3-7-53〉
제2회 지방동시선거
안내 현수막

거만을 실시함으로써 절름발이 지방자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였다.

지방자치법은 1994년 3월 제11차 개정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이나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을 도농통합(都農統合) 형태의 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시에는 동, 읍·면을 두도록 하였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하여 주민 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지방의회 의원의 명예직 제도를 유지하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월의정 활동비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⑤ 특별시와 직할시의 부시장과 도의 부지사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1인은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1인은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였으며, 시·군·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였다. ⑥ 시·도의 행정기구를 대통령 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시·도 조례로 정하고, 시·군·자치구의 행정기구는 시장·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⑦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읍·면·동장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임명하게 하였다. 그리고 ⑧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를 1995년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통일한 것[116] 등이다.

지방자치법은 1994년 12월에 제12차 개정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① 직할시를 광역시로 변경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으며, ②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자치구 외에 군(郡)도 둘 수 있도록 하고, 도농통합 형태

116)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1995년 선거에 한해서 임기를 3년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간의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적용된 것이다.

의 시의 구(區)에는 동 외에 읍 · 면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임은 3기에 한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겸직 제한 대상에 농 · 수 · 축협 등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의 임직원 등을 추가하였다. ④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 중 5급 이상의 공무원과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거나 직접 임용하도록 하였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직속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완화하는 것 등이다. 제12차 개정 지방자치법은 표면상의 개정 취지와는 달리 개정 법률의 일부 규정이 오히려 전면적인 지방선거 이후에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행사하려는 비민주적인 발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비판에 따라 재개정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은 1995년 1월 제13차 개정을 맞이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소속 국가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 5급 이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이 임용하도록 한 것 등이다.



새로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 법은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거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묶은 통합 선거법의 의미를 지닌 것이다.

반쪽짜리 지방자치는 1995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외형상으로는 완전한 지방자치의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에 의해 실시되었던 1991년의 지방선거와 달리 1995년의 선거는 1994년에 새로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 법은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거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묶은 통합 선거법의 의미를 지닌 것이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광역의회 의원 선거의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의회 의원 선거 모두에 정당의 후보추천을 허용한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정당의 후보추천 문제는 1995년 선거가 다가오면서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 한해 정당추천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조정되었다.

김영삼 정부 아래에서 치러진 6 · 27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전국 17,230개 투표소에서 치러졌다. 이 날 투표는 4가지 색깔의 투표용지를 두 차례로 나누어 기표하고 같은 색깔의 투표함에 넣는 방식에 따라 1차 투표에서 시 · 도 의회 의원과 시 · 군 · 자치구 의회 의원을 선출하고, 2차 투표에서 시장 · 도지사와 군수 · 구청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지방자치법은 6 · 27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2003년 7월까지 여덟 차례 개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개정은 1999년 8월의 제18차 개정 지방자치법이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① 20세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주민은 주민총수의 1/20 범위 안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② 주민 총수의 1/50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지방의회 정기회에 집중된 안건을 분산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정례회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결산 일정을 일부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④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을 지방의회의 위원회도 발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 또는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거나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때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부지사 · 부시장 · 부군수 · 부구청장이 권한대행 하도록 한 것 등이다.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지방화 시대가 개막되었고, 노태우 대통령 이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출현하여 지방화의 정착을 추진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도 대통령직속으로 정부혁신 · 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시기의 지방자치는 그 간의 권위주의적인 정치 · 행정 문화에 바탕을 둔 경제성 · 능률성 · 효과성 차원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민주주의 시대를 맞아 민주성의 정립에 최대의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민주성의 강조와 함께 지방자치 이념으로 중시했던 측면은 공공성의 보장이다. 지방자치 이념으로서의 공공성은 지방자치를 중앙이나 외부로부터의 간섭에서 보호하고 지방자치가 공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문제인데, 공공성 보장을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지방의정(地方議政)에 대한 감시활동과 주민참여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의 지방자치는 그 간의 권위주의적인 정치 · 행정 문화에 바탕을 둔 경제성 · 능률성 · 효과성 차원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민주주의 시대를 맞아 민주성의 정립에 최대의 중점을 두었다.

제2절 지방선거

1. 경기도지사 선거

1)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개황

1995년에 실시된 6 · 27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투표율은 68.4%로 나타났는데, 이 투표율은 1991년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선거 때의 투표율(55.0%, 58.9%)보다는 높았지만 1992년 대통령 선거 때의 투표율(81.9%)과 총선시의 투표율(71.9%)보다는 낮았다. 투표율을 시 · 도 별로 보면 제주도가 80.5%로 가장 높았고 인천광역시가 62.0%로 가장 낮았는데,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대도시 지역의 투표율은 낮고 도(道) 지역의 투표율은 비교적 높았다.[117]

117) 황아란 · 윤두섭(1995), 「6.27 4대 지방선거 결과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쪽.

제1대 시장 · 도지사 선거에서는 전국 15개 시 · 도에 총 56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3.7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투표결과 [표 7-86]과 같이 부산, 인천, 경기, 경북, 경남 등 5곳에서는 민주자유당 후보가, 서울, 광주, 전북, 전남 등의 4곳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그리고 대전, 강원, 충북, 충남 등의 4곳에서는 자유민주연합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118]

118) 내무부(1995),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선자 현황」, 내무부 선거업무자료 IX, 12-13쪽 ; 정세욱(2000), 「지방자치학」, 법문사, 123쪽.

[표 7-86] 제1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결과(1995)

구분	민자당	민주당	자민련	무소속	계
서울	–	1	–	–	1
부산	1	–	–	–	1
대구	–	–	–	1	1
인천	1	–	–	–	1
광주	–	1	–	–	1
대전	–	–	1	–	1
경기	1	–	–	–	1
강원	–	–	1	–	1
충북	–	–	1	–	1
충남	–	–	1	–	1
전북	–	1	–	–	1
전남	–	1	–	–	1
경북	1	–	–	–	1
경남	1	–	–	–	1

구분	민자당	민주당	자민련	무소속	계
서울	–	1	–	–	1
부산	1	–	–	–	1
합계	5 (33.3)	4 (26.7)	4 (26.7)	2 (13.3)	15 (100)

21세기를 열어갈 지방자치단체의 일꾼을 뽑는 1998년 6월 4일의 지방선거는 3년 전의 '6 · 27지방선거' 때에 비해 공정성 및 공명성의 측면에서는 다소 나아졌으나, 과열 · 혼탁 · 금품살포 등을 둘러싼 말썽은 두드러지게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질은 역시 저급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1998년에 실시된 6 · 4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196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설립 이래 전국 규모의 역대 선거 중 가장 낮은 52.6%로서,[119] 지난 1995년 6 · 27 지방선거 때의 68.4%보다 15.8%, 최근 선거 중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인 1996년 4 · 11 총선(63.9%)보다 11.3% 낮은 것이다. 또한 1991년 3월 11일 기초의회의원 선거(55.0%)와 6월20일 광역의회의원 선거(58.9%)의 투표율보다도 저조하였다.

제2대 시장 · 도지사선거에서는 전국 16개 시 · 도에 총 40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투표결과 [표 7-87]와 같이 한나라당 7명, 국민회의 6명, 그리고 자유민주연합 3명 등이 당선되었다.[120]

[표 7-87] 제2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결과(1998)

구분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	국민신당	무소속	계
서울	–	1	–	–	–	1
부산	1	–	–	–	–	1
대구	1	–	–	–	–	1
인천	–	–	1	–	–	1
광주	–	1	–	–	–	1
대전	1	–	–	–	–	1
울산	1	–	–	–	–	1
경기	–	1	–	–	–	1
강원	1	–	–	–	–	1
충북	–	–	1	–	–	1
충남	–	–	1	–	–	1
전북	–	1	–	–	–	1
전남	–	1	–	–	–	1
경북	1	–	–	–	–	1

119) 기록상으로는 1960년 12월 29일의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선거가 38.8%로 가장 낮은 투표율이었으나,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내빈 폭설, 거명 투표 방식 등의 영향이 컸다.

1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8a).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선자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분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	국민신당	무소속	계
경남	1	–	–	–	–	1
제주	–	1	–	–	–	1
합계	7	6	3	–	–	16
	(43.3)	(37.5)	(18.7)			(100)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6.13 지방선거는 건국 이래 전국규모 선거 중 최저인 40%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주권행사를 포기한 상황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1995년 지방선거(68.4%)에 비해서는 20.4%, 1998년 지방선거 때(52.7%)보다는 4.8% 낮은 것으로 선거 전문가들은 낮은 투표율이 후보 당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접전 지역이었던 광역시 지역의 투표율은 울산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도(道)보다 유난히 낮았고, 인천광역시의 경우 전국 최저인 38.6%에 그쳐 최대 투표율을 보인 제주도보다 27.5%나 뒤졌다.

투표율 저조의 원인은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선거 무관심에서 찾을 수 있다. 연이어 터진 권력형 비리사건과 지방자치단체장 중 40여명이 각종 비리혐의 등에 연루된 것은 정치혐오 냉소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선거전에 대선 후보자들이 앞장서서 선거를 주도하는 바람에 정작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지명도를 올리기가 쉽지 않았고, 지역별 현안들도 중앙정치의 공방에 묻힌 측면이 컸다. 월드컵 열기 또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멀리하는 데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3대 시장 · 도지사 선거에서는 전국 16개 시 · 도에 총 55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투표결과 [표 7-88]과 같이 한나라당 11명, 민주당 4명, 자유민주연합 1명 등이 당선되었다.[121]

121) 중앙선거관리위원(2002),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명부』, 451-457쪽.

[표 7-88] 제3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결과(2002)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무소속	계
서울	1	–	–	–	–	1
부산	1	–	–	–	–	1
대구	1	–	–	–	–	1
인천	1	–	–	–	–	1
광주	–	1	–	–	–	1
대전	1	–	–	–	–	1
울산	1	–	–	–	–	1
경기	1	–	–	–	–	1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무소속	계
강원	1	–	–	–	–	1
충북	1	–	–	–	–	1
충남	–	–	1	–	–	1
전북	–	1	–	–	–	1
전남	–	1	–	–	–	1
경북	1	–	–	–	–	1
경남	1	–	–	–	–	1
제주	–	1	–	–	–	1
합계	11 (68.8)	4 (25.0)	1 (6.2)	–	–	16 (100)

2) 제1대 경기도지사 선거

제1대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민자당의 이인제, 민주당의 장경우, 자민련의 김문원, 무소속 임사빈 등 4명이 입후보하였으며, 63.2%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결과 [표 7-89]와 같이 민주자유당의 이인제(李仁濟) 후보가 1,264,914표를 얻어 민주당의 장경우 후보보다 341,845표를 앞서 당선되었다.[122]

투표율 60.6%를 나타낸 성남시 지역에서는 투표결과 [표 7-90]와 같이 민자당의 이인제 후보가 133,402표를 득표하여 민주당 장경우 후보의 120,548표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성남시의 경우 구시가지인 수정구와 중원구에서는 민주당의 장경우 후보가 이인제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으며, 반면 분당구에서는 민자당의 이인제 후보가 장경우 후보를 큰 표차이로 앞질렀다.

122) http://home.nec.go.kr:7070/sinfo/sinfo.html(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정보데이터베이스 제1대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명부).

[표 7-89] 제1대 경기도지사 선거득표결과[123]

후보자	소속정당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이인제 (李仁濟)	민자당	남	46	대학졸업	정치인	1,264,914
장경우 (張慶宇)	민주당	남	53	대학졸업	정치인	923,069
김문원 (金文元)	자민련	남	54	대학졸업	정치인	316,637
임사빈 (任仕彬)	무소속	남	59	대학졸업	정치인	613,624

123) 경기도지사 선거시 선거인수는 5,043,174명이었으며, 투표자수는 3,188,871명이었다. 무효투표수는 70,627표이며, 기권수는 1,854,303표였다. 경기도지사 선거의 유효투표수는 3,118,244표였다.

〈표 7-90〉 제1대 경기도지사 선거 성남시 득표현황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민자당 이인제	민주당 장경우	자민련 김문원	무소속 임사빈	합계	무효 투표수	기권수
성남시 합계	553,044	340,862	133,402	120,548	28,782	24,380	225,877	4,014	212,182
성남시 수정구	181,291	110,971	39,330	42,027	9,878	17,439	108,674	2,297	70,320
성남시 중원구	190,201	113,965	41,540	43,186	8,992	17,813	111,531	2,434	76,236
성남시 분당구	181,552	115,926	52,532	35,335	9,912	16,567	114,346	1,580	65,626

3) 제2대 경기도지사 선거

한나라당의 손학규 후보와 국민회의의 임창열 후보의 맞대결로 관심이 높았던 제2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44.6%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투표결과 [표 7-91]과 같이 국민회의의 임창렬(林昌烈) 후보가 1,549,189표를 획득하여 1,303,340표를 얻은 한나라당의 손학규 후보를 물리치고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었다.

투표율 41.7%를 나타낸 성남시 지역에서는 투표결과 [표 7-91]과 같이 국민회의의 임창열 후보가 174,613표를 득표하여 손학규 후보의 140,768표를 앞섰다. 성남시의 경우 제1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와 같이 구시가지인 수정구와 중원구에서는 국민회의의 임창열 후보가 손학규 후보를 크게 앞선 반면, 신시가지인 분당구에서는 한나라당의 손학규 후보가 임창열 후보를 앞질렀다.

124) 경기도지사선거시 선거인수는 5,800,425명이었으며, 투표자수는 2,800,202명이었다. 무효투표수는 47,673표이며, 기권수는 2,900,223표이었다. 경기도지사 선거의 유효투표수는 2,852,529표였다.

〈표 7-91〉 제2대 경기도지사 선거 득표결과

후보자	소속정당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손학규 (孫鶴圭)	한나라당	남	50	대학졸업	정당인	1,303,340
임창열 (林昌烈)	국민회의	남	54	대학졸업	정치인	1,549,189

〈표 7-92〉 제2대 경기도지사 선거 성남시 득표현황

선거인구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한나라당 손학규	국민회의 임창열	합계	무효투표수	기권수
성남시 합계	631,622	319,954	140,768	174,613	315,381	4,573	311,668
성남시 수정구	182,711	90,928	34,284	55,040	89,324	1,604	91,783
성남시 중원구	190,779	94,722	35,211	57,913	93,124	1,598	96,057
성남시 분당구	258,132	134,304	71,273	61,660	132,933	1,371	123,828

4) 제3대 경기도지사 선거

제3대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한나라당의 손학규, 민주당의 진념, 민주노동당의 김준기 등 3명의 후보가 입후보하였으며, 44.6%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결과 [표 7-93]과 같이 한나라당의 손학규(孫鶴圭) 후보가 1,744,291표를 획득하여 1,075,243표를 얻은 진념 후보를 큰 표 차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투표율 41.7%를 나타낸 성남시 지역의 투표결과 [표 7-94]와 같이 한나라당의 손학규 후보는 160,639표를 득표하여 민주당의 진념 후보의 112,547표를 앞섰다. 성남시의 경우 한나라당의 손학규 후보는 제1대 및 제2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때와 달리 구시가지인 수정구와 중원구, 그리고 신시가지인 분당구 등에서 민주당의 진념 후보를 모두 앞섰다.

〈표 7-93〉 제3대 경기도지사 선거 투표결과

후보자	소속정당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손학규 (孫鶴圭)	한나라당	남	54	대학원졸업	정당인	1,744,291
진념 (陳念)	민주당	남	61	대학졸업	정당인	1,075,243
김준기 (金準基)	민주노동당	남	63	대학졸업	정당인	168,357

125) 경기도지사 선거시 선거인수는 6,777,575명이었으며, 투표자수는 3,024,844명이었다. 무효투표수는 36,953표이며, 기권수는 3,752,731표였다. 경기도지사 선거의 유효투표수는 2,987,891표였다.

(표 7-94) 제3대 경기도지사선거 성남시 득표현황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한나라당 손학규	민주당 진념	민주노동당 김준기	합계	무효투표수	기권수
성남시 합계	673,050	290,074	160,639	112,547	13,945	287,131	2,943	382,976
성남시 수정구	192,566	78,431	37,715	34,523	5,176	77,414	1,017	114,135
성남시 중원구	199,094	76,103	36,501	33,577	4,923	75,001	1,102	122,991
성남시 분당구	281,390	135,540	86,423	44,447	3,846	134,716	824	145,850

5) 역대 민선 경기도지사 현황

구 분	성 명	약 력
	이인제(李仁濟) (민선 제1대)	· 서울대 법대 졸업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제13대~14대, 16대 국회의원
	임창렬(林昌烈) (민선 제2대)	· 윌리암스칼리지 개발경제학과 졸업 · 통상산업부장관 ·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손학규(孫鶴圭) (민선 제3대)	·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영국 옥스퍼드대 졸업(정치학 박사) · 보건복지부 장관, 제14대~16대 국회의원

2. 성남시장 선거

1)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개황

제1대 시장·군수·구청장 선거에서는 전국 230개 시·군·구에 총 943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투표결과 민자당 70명(30.4%), 민주당 84명(36.5%), 자민련 23명(10.0%), 그리고 무소속 53명(23.1%)이 각각 당선되었다. 특히 서울에서는 25개 구청장 중에서 민주당이 23개 지역에서 당선되었으며, 민자당은 2개 지역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126] 1995년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투표결과를 보면 [표 7-95]와 같다.

126) 내무부, 앞의 책, 12-13쪽.

[표 7-95] 제1대 기초지방단체장 선거 결과(1995)

구분	민자당	민주당	자민련	무소속	계
서울	2	23	–	–	25
부산	14	–	–	2	16
대구	2	–	1	5	8
인천	5	5	–	–	10
광주	–	5	–	–	5
대전	–	1	4	–	5
경기	13	11	–	7	31
강원	9	1	1	7	18
충북	4	2	2	3	11
충남	–	–	15	–	15
전북	–	13	–	1	14
전남	–	22	–	2	24
경북	8	1	–	14	23
경남	10	–	–	11	21
제주	3	–	–	1	4
합계	70	84	23	53	230
	(30.4)	(36.5)	(10.0)	(23.1)	(100)

제2대 시장·군수·구청장선거는 전국 232개 시·군·구에 총 677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2.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투표결과 [표 7-96]과 같이 국민회의 84명, 한나라당 74명, 자민련 29명, 그리고 국민신당 1명 등이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등에서 공천 탈락한 무소속 후보들이 44개 시·군·구에서 당선되어 선전하는 현상을 보였다.

(표 7-96) 제2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결과 (1998)

구분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	국민신당	무소속	계
서울	5	19	1	–	–	25
부산	11	–	–	–	5	16
대구	7	–	–	–	1	8
인천	–	9	1	–	–	10
광주	–	5	–	–	–	5
대전	–	1	4	–	–	5
울산	3	–	–	–	2	5
경기	6	20	2	–	3	31
강원	13	1	2	–	2	18
충북	–	2	6	–	3	11
충남	–	–	11	1	3	15
전북	–	9	–	–	5	14
전남	–	15	–	–	7	22
경북	14	1	2	–	6	23
경남	14	–	–	–	6	20
제주	1	2	–	–	1	4
합계	74 (31.9)	84 (36.2)	29 (12.5)	1 (0.4)	44 (19.0)	232 (100)

제3대 시장 · 군수 · 구청장 선거는 전국 232개 시 · 군 · 구에 750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투표결과 [표 7-97]과 같이 한나라당이 140명, 민주당 44명, 자민련 16명, 민주노동당 2명, 그리고 무소속 30명이 당선되었다.

한나라당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모두 60%를 상회하는 당선율을 보였는데, 이는 역대 지방선거 및 총선에서 유례가 없던 일이었다.

(표 7-97) 제3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결과 (2002)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무소속	계
서울	22	3	–	–	–	25
부산	13	–	–	–	3	16
대구	8	–	–	–	–	8
인천	8	2	–	–	–	10
광주	–	4	–	–	1	5
대전	–	–	5	–	–	5
울산	3	–	–	2	–	5
경기	24	4	1	–	2	31
강원	15	2	–	–	1	18
충북	5	1	3	–	2	11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무소속	계
충남	4	2	7	–	2	15
전북	–	9	–	–	5	14
전남	–	16	–	–	6	22
경북	21	–	–	–	2	23
경남	16	–	–	–	4	20
제주	1	1	–	–	2	4
합계	140	44	16	2	30	232
	(60.3)	(19.0)	(6.9)	(0.9)	(12.9)	(100)

2) 제1대 성남시장 선거

제1대 성남시장 선거에는 민자당의 김종태, 민주당의 김병량, 무소속의 오성수 등 7명의 후보가 입후보하였으며,[127] 60.6%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결과 [표 7-98]와 같이 무소속의 오성수(吳誠洙) 후보가 130,374표를 얻어 122,797표를 얻은 민주당의 김병량 후보를 제치고 성남시장에 당선되었다.



<사진 3-7 : 54> 민선 1대 시장 오성수

127) http://home.nec.go.kr:7070/sinfo/sinfo.htm(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정보데이터베이스 제1대 성남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명부).

(표 7-98) 제1대 성남시장 득표결과[128]

후보자	소속정당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김종태(金鐘泰)	민자당	남	57	대학졸업	정치인	60,916
김병량(金炳亮)	민주당	남	59	대학졸업	정치인	122,797
김영복(金泳福)	무소속	남	53	대학원졸업	공익사업	12,027
오성수(吳誠洙)	무소속	남	60	대학원 수료	상업	130.374
유홍식(柳弘植)	무소속	남	48	대학원졸업	상업	3,532
이용균(李龍均)	무소속	남	46	대학원졸업	정치인	2,382
전해중(全海重)	무소속	남	52	대학원수료	건설업	2,703
합계(유효투표수)						334,731

128) 성남시장 선거시 선거인수는 552,824명이었으며, 투표자수는 340,853명이었다. 무효투표수는 6,122표이며, 기권수는 212,071표이었다. 성남시장 선거의 유효투표수는 334,731표이었다.



〈사진 3-7 : 55〉 민선 2대 시장 김병량

3) 제2대 성남시장 선거

제2대 성남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황한섭, 국민회의의 김병량 후보, 무소속의 오성수 등 3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였으며,[129] 50.5%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결과 [표 7-99]과 같이 제1대 시장선거에 이어 두 번째로 입후보한 국민회의의 김병량(金炳亮) 후보가 151,475표를 얻어 초대 민선시장이었던 오성수 후보를 35,352표 차로 누르고 시장에 당선되었다.[130]

[표 7-99] 제2대 성남시장 득표현황

후보자	소속정당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황한섭(黃漢燮)	한나라당	남	52	전문대중퇴	정당인	48,220
김병량(金炳亮)	국민회의	남	62	대학원졸업	정치인	151,475
오성수(吳誠洙)	무소속	남	63	대학 중퇴	성남시장	116,123
합계(유효투표수)						315,818

4) 제3대 성남시장 선거



〈사진 3-7 : 56〉 민선 3대 시장 이대엽

41.7%의 투표율을 보인 제3대 성남시장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의 이대엽, 민주당의 김병량, 자민련의 최인식 등 5명의 후보가 입후보하였으며, 41.7%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결과 [표 7-100]와 같이 한나라당의 이대엽 후보가 154,622표를 득표하여 110,408표를 얻은 전 시장이었던 민주당의 김병량 후보를 44,214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되었다.[131]

[표 7-100] 제3대 성남시장 득표현황

후보자	소속정당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이대엽(李大燁)	한나라당	남	67	대학졸업	정당인	154,622

129) http://home.nec.go.kr:7070/sinfo/sinfo.htm(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정보데이터베이스 제2대 성남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명부).

130) 성남시장 선거시 선거인수는 631,622명이었으며, 투표자수는 319,951명이었다. 무효투표수는 4,133표이며, 기권수는 311,671표이었다. 성남시장 선거의 유효투표수는 315,818표이었다.

131) 성남시장 선거시 선거인수는 673,050명이었으며, 투표자수는 290,073명이었다. 무효투표수는 3,876표이며, 기권수는 382,977표이었다. 성남시장 선거의 유효투표수는 286,197표이었다.

후보자	소속정당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김병량(金炳亮)	민주당	남	66	대학졸업	성남시장	110,408
최인식(崔仁植)	자민련	남	46	대학원졸업	정당인	6,672
최상면(崔商勉)	민국당	남	47	대학 졸업	경영컨설턴트	3,820
정원섭(鄭元燮)	무소속	남	49	대학원졸업	정치인	10,675
합계(유효투표수)						286,197

5) 역대 민선 성남시장 현황

구 분	성 명	약 력
제1대	오성수(吳誠洙)	· 건국대 행정대학원수료 · 광명시장 · 성남시장
제2대	김병량(金炳亮)	· 원광대 대학원 졸업 · 경기도 부지사 · 성남시장
제3대	이대엽(李大燁)	· 경남대학교 법률학과 졸업 · 신정당 부총재 · 제11대~13대 국회의원 · 한 · 일 의원연맹 상임간사

3.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

1) 광역지방의회의원 선거 개황

1961년 5월 16일 지방의회가 해산된 이래 중앙집권체제하에서 관치 지방행정 중심의 형식적인 지방자치의 명맥만을 유지하여 오다가 1990년 12월말 국회에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30년이란 한 세대 휴면을 깨고 새로운 민주주의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법에 의하여 1991년 3월26일 시 · 군 · 자치구 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된 이후 6월20일 시 · 도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투표율은 전국 평

균 58.9%를 나타냈다. 투표율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도가 74.7%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특별시가 52.4%로 가장 낮았다.

제3대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전국 15개 시·도에 총 2,877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투표결과 [표 7-101]와 같이 민자당 564명, 신민당 165명, 민주당 21명, 민중당 1명, 무소속 115명 등이 당선되었다.[132]

132) 한국지방행정연구(1991). 「지방의회의원 선거 분석을 위한 연구」, 182쪽.

(표 7-101) 제3대 광역의회의원선거 결과(1991)

구분	민자당	신민당	민주당	민중당	무소속	계
서울	110	21	1	–	–	132
부산	50	–	1	–	–	51
대구	26	–	–	–	2	28
인천	20	1	3	–	3	27
광주	–	19	–	–	4	23
대전	14	2	1	–	6	23
경기	94	3	2	–	18	117
강원	34	–	1	1	18	54
충북	31	–	2	–	5	38
충남	37	–	4	–	14	55
전북	–	51	–	–	1	52
전남	1	67	–	–	5	73
경북	66	–	5	–	16	87
경남	73	1	1	–	14	89
제주	8	–	–	–	9	17
합계	564	165	21	1	115	866
	(65.2)	(19.0)	(2.4)	(0.1)	(13.3)	(100)



제1대(1956. 8. 13)
제2대(1960. 12. 12)
1952년 5월 10일 실시한 도의회 의원선거는 서울시와 경기도, 강원도 지역에서는 실시하지 못하였다.

제4대 시 도의회 의원 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68.4%로 나타났는데, 지난 1991년 6월20일 시 도의회 의원선거(58.9%)에 비해 9.5% 상승하였다. 이는 과거 52~60년대 서울특별시와 도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서의 투표율 평균 8.1%(1952년 81.0%, 1956년 86.0%, 1960년 67.4%)보다는 낮은 편이나, 1991년의 선거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편이다.

제4대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전국 15개 시·도에 총 2,446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투표결과 [표 7-102]과 같이 민자당 286명, 민주당 352명, 자민련 86명, 무소속 151명 등이 당선되었다.

〈표 7-102〉 제4대 광역의회의원선거 결과(1995)

구분	민자당	민주당	자민련	무소속	계
서울	11	122	–	–	133
부산	50	–	–	5	55
대구	8	–	7	22	37
인천	13	18	–	1	32
광주	–	23	–	–	23
대전	–	–	23	–	23
경기	52	57	–	14	123
강원	27	6	1	18	52
충북	12	10	4	10	36
충남	3	2	49	1	55
전북	–	49	–	3	52
전남	1	62	–	5	68
경북	50	1	2	31	84
경남	52	–	–	33	85
제주	7	2	–	8	17
합계	286 (32.7)	352 (40.2)	86 (9.8)	151 (17.3)	875 (100)

제5대 지방의회의원 선거도 1995년의 지방선거에서와 같이 별도 시행에 따른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의원과 단체장 선거 등 4대 지방선거를 1998년 6월4일 동시에 실시하였다.

시 도의회 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52.4%로서 지난 1995년 시 도의회 의원 선거(68.4%)에 비해 낮아졌다. 이는 과거 1952-60년대의 서울특별시와 도의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의 평균 투표율 78.1%(1952년 81.0%, 1956년 86.0%, 1960년 67.4%)보다 낮은 편이며, 1991년과 1995년의 선거 때보다 현저하게 낮다.

제5대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전국 16개 시 · 도에 총 1,571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투표결과 [표 7-103]과 같이 한나라당 224명, 새정치국민회의 271명, 자민련 82명, 무소속 39명 등이 당선되었다.

〈표 7-103〉 제5대 광역의회의원선거 결과(1998)

구분	한나라당	새정치국민의회	자민련	무소속	계
서울	15	78	1	–	94
부산	43	–	1	–	44

구분	한나라당	새정치국민의회	자민련	무소속	계
대구	26	–	–	–	26
인천	4	20	1	1	26
광주	–	14	–	–	14
대전	–	–	14	–	14
울산	9	–	–	5	14
경기	18	61	9	–	88
강원	21	12	3	6	42
충북	–	3	17	4	24
충남	–	1	30	1	32
전북	–	31	–	2	34
전남	–	42	1	7	50
경북	44	–	5	5	54
경남	41	–	–	5	46
제주	3	8	–	3	14
합계	224	271	82	39	616
	(36.4)	(44.0)	(13.3)	(6.3)	(100)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제 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선거사상 최저라는 48.8%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그 막을 내렸다. 월드컵의 열기에 묻혀 투표율이 저조하지는 않을까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만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02년의 지방선거의 투표 결과를 보면, 최근에 실시된 각종 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도시지역의 투표율이 낮았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울산을 제외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투표율이 각각 45.7%, 42.4%로서 전국 평균 투표율을 밑돌았으며, 인천광역시는 39.4%라는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반면 도의 경우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투표율이 50%를 넘었으며, 이 가운데 제주도가 69.9%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제6대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전국 16개 시 · 도에 총 1,531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투표결과 [표 7-98]과 같이 한나라당 431명, 민주당 121명, 자민련 29명, 민주노동당 2명, 무소속 29명 등이 당선되었다.

표 7-104 제6대 광역의회의원선거결과(2002)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무소속	계
서울	82	10	–	–	–	92
부산	40	–	–	–	–	40
대구	24	–	–	–	–	24
인천	23	2	–	–	1	26
광주	–	16	–	–	–	16
대전	8	–	8	–	–	16
울산	13	–	–	2	1	16
경기	84	7	–	–	3	94
강원	31	6	–	–	2	39
충북	19	1	2	–	2	24
충남	7	3	19	–	3	32
전북	–	27	–	–	5	32
전남	–	44	–	–	2	46
경북	47	–	–	–	4	51
경남	44	–	–	–	4	48
제주	9	5	–	–	2	16
합계	431 (70.8)	121 (19.8)	29 (4.8)	2 (0.3)	29 (4.3)	612 (100)

2) 제3대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

제3대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총 114개 선거구에서 117명을 선출하는데, 성남시에서는 6개 선거구에서 각 1명씩 6명의 도의원을 선출하였다. 총 23명이 입후보하여 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전국 경쟁률(3.3대 1)이나 경기도 전체의 경쟁률(3.2대 1)에 비해서 다소 높은 편이었다.

투표결과 [표 7-105]와 같이 민자당 후보가 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신민당은 성남시 제 6선거구 한 곳에서만 당선되었다.

표 7-105 제3대 경기도의회 의원총선거결과(1991.6.20)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성남시 제1	민자당	강대웅 (姜大雄)	남	49	대학원수료	마을금고 이사장	10,817
성남시 제2	민자당	유중백 (柳重伯)	남	51	대학원수료	건설업	12,636
성남시 제3	민자당	금옥례 (琴玉禮)	여	56	대학졸업	의사	14,011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성남시 제4	민자당	안상문(安相文)	남	51	대학원수료	신용협동조합이사장	11,610
성남시 제5	민자당	정완립(鄭完立)	남	46	대학원수료	회사대표	12,984
성남시 제6	신민당	정형만(鄭亨晩)	남	40	대학원수료	정당인	9,635

3) 제4대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

제4대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는 의원정수 총 123명 중 성남시에서는 8개 선거구에서 각 1명씩 8명의 도의원을 선출하였다. 총 27명이 입후보하여 경쟁률이 3.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61.7%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성남시의 경기도의회의원 투표결과 [표 7-106]과 같이 민주당이 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민자당은 1명에 불과했다.

〈표 7-106〉 제4대 경기도의회의원선거결과(1995.6.27)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성남시 제1	민주당	김종식(金鐘湜)	남	50	고등학교 졸업	정당인	16,794
성남시 제2	민주당	손정문(孫正文)	남	58	고등학교 졸업	정치인	12,921
성남시 제3	민주당	허재안(許載顔)	남	42	대학원수료	정당인	18,140
성남시 제4	민주당	이일남(李一男)	남	49	대학졸업	공업	14,375
성남시 제5	민주당	이상락(李相樂)	남	42	대학원수료	기타	25,444
성남시 제6	민주당	정형만(鄭亨晩)	남	44	대학원수료	정당인	19,303
성남시 제7	민자당	강대기(姜大基)	남	43	대학원졸업	기타	22,060
성남시 제8	민주당	정소앙(鄭素昻)	남	29	대학원재학	정당인	22,941

4) 제5대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

제5대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는 의원정수 총 88명 중 성남시에서는 6개 선거구에서 각 1명씩 6명의 도의원을 선출하였다. 총 13명이 입후보하여

경쟁률이 2.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50%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성남시의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의 투표결과 [표 7-107]과 같이 새정치국민회의 4명, 한나라당 2명이 당선되었다.

[표 7-107] 제5대 경기도의회 의원 성남시 선거결과(1995. 6. 4)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성남시 제1	국민회의	손정문(孫正文)	남	61	고등학교 졸업	정당인	26,988
성남시 제2	국민회의	허재안(許載顔)	남	45	대학원 재학	경기도의원	무투표당선
성남시 제3	국민회의	이영성(李英成)	여	57	대학졸업	정당인	29,615
성남시 제4	국민회의	이상락(李相樂)	남	45	고등학교 졸업	경기도의원	29,450
성남시 제5	한나라당	강대기(姜大基)	남	46	중학교졸업	부동산임대업	30,474
성남시 제6	한나라당	정원섭(鄭元燮)	남	45	대학원졸업	상업	32,075

5) 제6대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

제4대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는 의원정수 총 94명 중 성남시에서는 8개 선거구에서 각 1명씩 8명의 도의원을 선출하였다. 총 19명이 입후보하여 경쟁률이 2.38대 1이었으며, 41.7%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성남시의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의 투표결과 [표 7-108]와 같이 한나라당 7명, 민주당 1명이 당선되었다.

제4선거구 이상락이 국회의원 후보로 도의원직을 사퇴하였고, 2004. 6. 5 보궐선거에서 이삼순의원이 당선 되었다.

[표 7-108] 제6대 경기도의회 의원 성남시 선거결과(2002. 6. 13)

선거구	소속정당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성남시 제1	한나라당	강선장(姜善章)	남	55	대학원재학	정당인	19,353
성남시 제2	한나라당	임정복(林正福)	남	46	고등학교 졸업	정당인	13,993
성남시 제3	한나라당	임봉규(林奉奎)	남	51	대학원졸업	사단법인 이사장	15,616
성남시 제4	민주당	이상락(李相樂)	남	49	독학	경기도의원	20,993
	열린우리당	이 삼순(李三順)	여	42	대학교 졸업	정당인	2004. 6. 5 보궐선거 당선

선거구	소속정당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성남시 제5	한나라당	강희철(姜熙喆)	남	42	대학졸업	사업	24,984
성남시 제6	한나라당	이태순(李泰淳)	남	43	대학졸업	학원경영	20,899
성남시 제7	한나라당	김현욱(金顯旭)	남	38	대학원졸업	회사전무	20,660
성남시 제8	한나라당	정재영(鄭在英)	남	47	고등학교 졸업	정당인	22,001

6) 역대 민선 경기도의회 의원(성남시 출신) 현황



강대웅(姜大雄) 의원(제3대)

- 경원대 경영대학원 및 중앙대 행정대학원 수료
- 단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경기도정 · 성남시정 자문위원
-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유중백(柳重伯) 의원(제3대)

- 고려대 경영대학원 및 경희대 경영 · 행정대학원 수료
- 유한주택건설(주) 대표이사
- 성남시정 자문위원
- 경기도의회 건설위원



금옥례(琴玉禮) 의원(제3대)

- 고려대 의과대학 졸업
- 영동의원 개원
- 여의사회 성남지부 회장
- 경기도의회 운영 · 보사환경위원



안상문(安相文) 의원(제3대)

- 경원대 경영대학원 수료
- 바르게살기운동 중원구 협의회장
- 경기도의회 내무위원
- 성남시 중원구 구정자문위원



정완립(鄭完立) 의원(제3대)

- 한국방송통신대 졸업, 고려대 경영대학원 수료
- 한국청년 YMCA 전국연맹 회장
- 민자당 중앙위원
- 경기도의회 내무위원



정형만(鄭亨晩) 의원(제3대~4대)

- 서울법대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사회경제법 전공) 수료
- 크리스찬아카데미 노동사회위원
- 경기도의회 도시위원
- 서울법대 동창회장(28회)



김종식(金鍾湜) 의원(제4대)

- 조양고 졸업
- 민주당 성남시 수정구지구당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



허재안(許載顔) 의원(제4대~5대)

- 경원대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 민주당 수정지구당 부위원장
- 경기도의회 문교위원장
- 새정치국민회의 경기도지부 정책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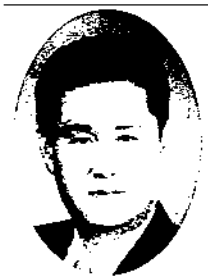
이상락(李相樂) 의원(제4대~6대)

- 성남시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성남발전연구소 운영위원



정소앙(鄭素昻) 의원(제4대)

- 서강대 정책대학원 재학
- 아 · 태재단 후원위원
- 지방자치실무연구소 객원연구원
- 국민회의 부대변인



정원섭(鄭元燮) 의원(제5대)

- 뉴욕대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 한화경제연구소
- 새천년민주당 중앙위원
- 아 · 태경제연구소 소장



손정문(孫正文) 의원(제4대~5대)

- 홍일고 졸업
- 민주당 중앙당 중앙위원
- 국민회의 성남시 수정구지구당 부위원장
- 간행물편찬위원회 부위원장



이일남(李一男) 의원(제4대)

- 경희대 졸업
- 성남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신용협동조합 성남시협의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강대기(姜大基) 의원(제4대~5대)

- 경원대 경영대학원 졸업
- 성남시의회 의원
- 농촌지도자 경기도 연합회장
-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



이영성(李英成) 의원(제5대)

- 이화여대 국문학과 졸업
- 경기도의회 의원
- 성남시 시정자문위원
-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



강선장(姜善章) 의원(제6대)

- 한국체육대 대학원 박사
- 풍생중 · 고등학교 교사
-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
- 경기대학교 겸임교수



임정복(林正福) 의원(제6대)
- 대동상고 졸업
- 대해약품(주) 대표이사
- 경기도 예술교육신문사 발행인 및 편집인
- 정의사회구현봉사단 단장



강희철(姜熙喆) 의원(제6대)
- 영남대 토목공학과 졸업
- 한보그룹 자카르타지사 근무
- 한국산업단지공단 업무과장
- 분당구 재활용센터 운영



김현욱(金顯旭) 의원(제6대)
- 고려대 노동대학원 졸업
- 한라건설(주) 기획실팀장
- 경기 환경포럼 회장
- 분당 노동문제연구소 소장



이삼순(李三順) 의원(제6대)
-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
- 사)한국웅변협회 성남시지부 지부장(현)
- 우리성남만들기 대표(현)
- 한반도재단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2004. 6.5 경기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



김선규(金善閨) 의원(제6대)
- 수원매향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장
- 성남시 시의회 의원
- 현) 제 6대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 간사
- 비례대표 (새천년 민주당)



임봉규(林奉奎) 의원(제6대)
- 미국 휴스턴 신학대학원 신학과 졸업
- 새천년민주당 중원구지구당 부위원장
-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관리이사
- 한나라당 중원구지구당 수석부위원장



이태순(李泰淳) 의원(제6대)
- 한남대 법정대학 졸업
- 분당구 축구연합회장
- 성남시 축구연합회 부회장
- 제2대~3대 성남시의회 의원



정재영(鄭在英) 의원(제6대)
- 효성고 졸업
- 낙생농협 전무
- 성남문화원 이사
- 한나라당 성남시 분당 을지구당 부위원장



장정은(張廷銀) 의원(제6대)
- 경원대학교 응요미술학과 졸업
- 현) 성남병원 기획조정부장
- 현)성남 시민포럼 감사
- 현)제6대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
- 비례 대표(한나라당)

4. 경기도 교육위원회 위원 선거

교육자치제 실시로 인하여 시 · 도교육위원회 위원이 시 · 도 지방의회에서 선출되었다. 선출방법은 1차로 시 · 군 · 자치구의회에서 2명을 시 · 도의회에 추천하면 시 · 도의회 의원들이 교육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1991년의 제1대 경기도 교육위원회 위원선거에서 위원정수는 26개 시 · 군지역 교육청별 1명씩 총 26명이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 위원 선거에서 성남시의 경우 1인을 대상으로 총 13명이 입후보하였는데, 이 가운데 교육경력 소지자는 5명이었으며, 비경력자는 8명이었다.

1991년 7월24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성남시의원 45명 중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후보자 등의 소견 발표회를 갖고 경력자로 전영수와 비경력자로 이창렬이 추천되었다. 8월 20일 경기도의회에서 투표결과 성남시 지역 교육위원으로 전영수(全永洙)가 당선되었다[133]

1995년 8월 22일과 9월 28일 두 차례에[134]걸쳐 실시된 제2대 경기도 교육위원회 위원선거에서는 총 25명의 위원이 선출되었다. 제2대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는 시 · 군 통합에 따라 강화군 강화교육청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으로써 제1대 교육위원회 위원정수보다 1명 줄어들었다. 교육위원 선출방식은 제1대 교육위원선거와 동일하며, 성남시 지역 교육위원으로 전영수(全永洙)가 당선되었다.

1998년 8월 18일 제3대 경기도교육위원회 위원 선거에서는 13명의 교육위원이 선출되었다. 교육위원 정수의 감소는 지역별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감소와 경제 불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위원회의 자구적인 구조조정 노력에 기인한 것이었다. 성남시가 포함된 경기 제4선거구(광주 · 성남 · 하남 · 여주 · 용인 · 이천)의 교육위원으로 강창희(姜昌熙)가 당선되었다.[135]

1998년 교육위원 선거에서부터 위원의 선출방식이 많이 달라졌는데, 제2대 교육위원까지는 시 · 군 지역 교육청 별로 해당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 · 도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던 것을 경기도를 6개 권역[136] 으로 구분하여 선거구를 구성하고 각 선거구에 속한 초 · 중 ·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들이 교육위원을 선출하였다.

2002년 7월 11일에 실시된 제4대 교육위원회 위원선거에서는 총 42명

133) 성남시사편찬위원(1993). 「성남시사」 711-714쪽.

134) 8월22일에 20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9월28일에 5명의 위원을 재선출하였는데, 이는 5개 시 · 군 지방의회의 구성이 늦어진데 기인한다.

135) http://www.ggbe.go.kr/introduce/introduce2.html(경기도 교육위원회 홈페이지).

의 입후보자 중에서 13명을 교육위원으로 선출하였다. 선출방식에 있어서 선거구는 제3대 교육위원회 위원선거와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위원 선거인을 해당 선거구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에서 학교운영위원 전체로 확대시켰다.

제4대 경기도 교육위원회 위원선거 결과 성남시가 포함된 경기 제4선거구에서는 7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강창희(姜昌熙)와 전영수(全永壽)가 교육위원에 당선되었다.

136) 제 1선거구 수원·화성·오산·평택·안성, 제 2선거구 부천·광명·시흥, 제 3선거구 안양·군포·안산·과천·의왕, 제 4선거구 성남·용인·광주·하남·이천·여주, 제5선거구 고양·김포·파주 등에서는 각 2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였으며, 제 6선거구인 의정부·남양주·구리·양평·가평·포천·연천·동두천·양주 등에서는 3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였다.

경기도 역대 교육위원 현황



전영수(全永壽) 위원(제1대~2대, 4대)

- 경희대 교육대학원 수료
- 춘천 성수여중·성수중 교무과장
- 성남시 체육회 부회장



강창희(姜昌熙) 위원(제2대~4대)

- 고려대 교육대학원 졸업
- 용인 태성중·고등학교 교사
- 제2대 2기 경기도 교육위원회 부의장
- 제3대 2기 경기도 교육위원회 의장

5. 성남시의회 의원 선거

1) 기초지방의회 의원 선거 개황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에 의해서 1991년 3월 26일 시·군 및 자치구인 기초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4,304명의 시·군 및 자치구 의원을 선출하였고,[137] 4월 15일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의회가 일제히 개원됨으로써 지방화 시대의 개막을 보게 되었다.

137) 기초의회 의원선거는 다른 지방선거와는 달리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있다.

1991년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 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55%였으며, 특히 서울의 42.3%를 비롯하여 부산 49.7%, 대구44.5%, 인천 42.7%, 광주 50.8%, 대전 49.0% 등 대도시 지역의 경우 평균을 밑도는 저조한 기록을 보였다.

전국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 양양군으로 84.6%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서울 서초구 갑구로 34.6%였다. 투표율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① 후보자의 낮은 지명도와 후보자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 ② 지방자치제의 의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부족, ③ 국민들의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사진 3-7:57> 투표하는 유권자

제1대 기초의회 의원선거에는 전국 260개 시 · 군 · 자치구 의회에 총 10,120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995년 6월 27일 동시 선거로 실시된 제2대 시 · 군 · 구의회 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은 전국 평균 68.6%로서, 이는 지난 1991년 3월 26일 실시된 시 군 구 의회 의원 선거의 투표율 55%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며,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은 낮은 반면 농촌지역은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제2대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전국 230개 시 · 군 · 자치구 의회에 총 11,970명이 입후보하고 4,541명의 기초의회 의원을 선출하여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998년 6월 4일 동시 선거로 실시된 제3대 시 · 군 · 구 의회 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전국 평균 53.2%로서, 이는 지난 1995년 6월에 실시된 시 · 군 · 구 의회 의원 선거의 투표율 68.6%보다 낮은 것이며,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은 낮은 반면 농촌지역은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제3대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전국 232개 시 · 군 자치구 의회에 총 7,754명이 입후보하고 3,489명의 기초의회 의원을 선출하여 평균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02년 6월 13일 세 번째 동시 선거로 실시된 제4대 시 · 군 · 구 의회 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전국 평균 48.8%로서, 이는 지난 역대 지방선거 사상 가장 낮은 것이며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은 낮은 반면 농촌지역은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39.4%의 투표율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는 5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제4대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전국 232개 시 · 군 자치구 의회에 총

8,373명이 입후보하고 3,485명의 기초의회 의원을 선출하여 평균 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991년부터 네 차례 실시된 역대 기초지방의회 의원 선거 실시현황을 종합하면 다음의 [표 7-109]과 같다.

[표 7-109] 역대 기초 지방의회 의원 선거현황 (단위:개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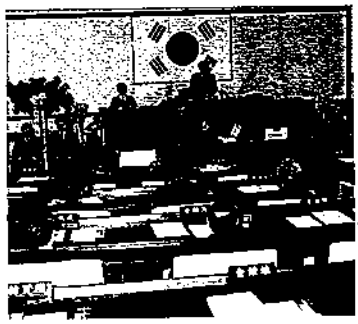
선거일	기초지방의회수	의원정수	입후보자수	평균경쟁률	평균투표율	비고
1991. 3.26	260	4,304	10,120	2.4:1	55.0	제1대
1995. 6.27	230	4,541	11,970	2.6:1	68.6	제2대
1998. 6. 4	232	3,489	7,754	2.2:1	53.2	제3대
2002. 6.13	232	3,485	8,373	2.4:1	48.8	제4대

138) 당선된 45명의 시의원 중에는 1991년 7월24일에 실시한 경기도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의 뇌물수뢰와 기타 법적사건에 의해 11명의 시의원이 제명, 퇴직, 사직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1992년 7월22일 재선거(1명)와 1992년 4월14일 보궐선거(4명)가 치러졌다.

2) 제1대 성남시의회 의원 선거



<사진 3-7 : 58> 제1대 의원 선서(1991.4.15)



<사진 3-7 : 59>첫 개회선언하는 손영태 초대의장



<사진 3-7 : 60>성남시의회 현판식(1991.4.15)

제1대 성남시의회 의원 선거에는 의원정수 45명에 대해 109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평균 경쟁률이 2.4대 1이었다. 투표결과 [표 7-110]와 같이 총 31개 선거구에서 45명이 시의원에 당선되었다.[138]

1992년 4월14일 보궐선거에서는 산성동의 정재의, 상대원 1동의 박치선, 김일도, 금곡동의 최병성 등이 당선되었으며, 1992년 7월22일 재선거에서는 상대원 3동에서 이영성이 당선되었다.[139]

139) 성남시의회(2001),「성남시의회사」, 성남시의회, 66-69쪽; www.sncouncil.com(성남시의회 홈페이지).

(표 7-110) 제1대 성남시의회 의원 성남시 선거결과('91년 3월기준)

선거구	성 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비 고
신흥1동	박용두 (朴鎔斗)	남	46	대학원 수료	상업	2,214	당선
	유선일 (劉鮮一)	남	48	중학교 졸업	상업	2,363	당선
신흥2동	조영이 (趙英二)	남	56	대학원수료	건설업	2,928	당선
	최명근 (崔明根)	남	53	대학졸업	무직	2,594	당선
신흥3동	성규삼 (成圭三)	남	47	대학원수료	약사	3,320	당선
태평1동	김종안 (金鍾安)	남	61	고등학교 졸업	관광업	1,414	당선
	정수웅 (鄭秀雄)	남	50	고등학교 졸업	건축업	3,059	당선
태평2동	장두영 (張斗榮)	남	60	고등학교 졸업	건축업	2,600	당선
	김삼근 (金三根)	남	46	고등학교 졸업	건축업	2,169	당선
태평3동	전형수 (全炯琇)	남	54	대학졸업	건축업	2,445	당선
	조명천 (趙命天)	남	43	대학원수료	상업	1,904	당선
태평4동	정덕봉 (鄭德奉)	남	57	중학교졸업	건축업	1,867	당선
수진1동	손영태 (孫榮泰)	남	49	대학원수료	상업	2,599	당선
	김종기 (金鍾基)	남	52	고등학교 중퇴	상업	2,048	당선
수진2동	김상문 (金相文)	남	57	고등학교 중퇴	상업	1,411	당선
단대동	송태섭 (宋泰燮)	남	53	대학원수료	건설업	2,793	당선
	정재의 (鄭在義)	남	48	고등학교 졸업	상업	2,214	'92.4.14보궐 선거에서당선
산성동	전윤실 (全允實)	남	56	중학교졸업	건축업	2,418	당선후 '92.4.14 제명(뇌물수뢰)
양지동	김종윤 (金鍾允)	남	47	대학원수료	기타	2,214	당선
복정동	윤민섭 (尹敏燮)	남	50	고등학교 졸업	농업	1,449	당선
신촌동	이희재 (李喜載)	남	53	고등학교 졸업	농업	1,056	당선

선거구	성 명	성별	연령	학 력	직 업	득표수	비 고
고등동	박선태 (朴先泰)	남	57	국민학교 졸업	상업	660	당선
시흥동	남장우 (南長祐)	남	52	고등학교 졸업	상업	608	당선
성남동	윤기중 (尹基重)	남	43	대학원수료	마을금고 이사장	3,028	당선
	김광숙 (金光淑)	남	45	고등학교 졸업	부동산 중개업	2,647	당선후 '92.2.14 사직(교육위원 선출과정문의)
중동	장명섭 (張明燮)	남	48	대학중퇴	회사대표	3,322	당선후'91.5.26형 확정판결에의하 여퇴직(금품수뢰)
	정상규 (鄭商奎)	남	50	대학졸업	약사	3,307	당선
금 광1동	홍순두 (洪淳斗)	남	42	전문대 졸업	상업	2,266	당선
	전동의 (田東儀)	남	52	중학교 졸업	부동산 중개업	2,439	당선후 '91.10.14 제명(금품수뢰)
금광2동	강운선 (姜雲善)	남	49	고등학교 졸업	건축업	2,428	당선후'91.10.14 제명(금품수뢰)
	라필주 (羅必柱)	남	46	대학원수료	건축업	2,958	당선
은행1동	김상현 (金常顯)	남	45	대학원수료	제조업	1,408	당선
은행2동	이상락 (李相樂)	남	37	고등학교 졸업	노동	1,676	당선후 '91.10.18 제명(의원품위손상)
	강부원 (姜富遠)	남	58	고등학교 중퇴	정당인	1,727	당선
상대원 1동	김종만 (金鍾萬)	남	40	대학원수료	보험업	3,110	당선후 '91.10.18 제명(뇌물수뢰)
	김민성 (金敏成)	남	42	대학원수료	건축업	2,381	당선후 '92.2.6사직 (아파트분양뭄의)
	박치선 (朴致先)	남	53	대학원수료	부동산	1,810	'92.4.14보궐 선거에서당선
	김일도 (金鎰道)	남	49	중학교졸업	상업	1,515	'92.4.14보궐 선거에서당선
상대원 2동	김영봉 (金永奉)	남	50	대학원수료	서비스업	3,235	당선
	윤석일 (尹錫日)	남	51	고등학교 졸업	상업	2,255	당선후 '91.7.5제명
상대원 2동	김종환 (金鍾煥)	남	49	대학원수료	상업	2,534	당선 후 '91.5.26 사직(변호사법위반)
	김동성 (金東星)	남	49	대학원수료	건축업	2,746	당선

선거구	성 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비 고
상대원 2동	이영성 (李英成)	여	50	대학졸업	상업	2,209	'92.7.22 재선거에서 당선
분당동	한백찬 (韓百瓚)	남	39	고등학교 졸업	농업	152	당선
이매동	강대기 (姜大基)	남	38	대학원수료	세차장업	903	당선
여수동	이용배 (李容培)	남	50	대학원수료	공업	3,609	당선
판교동	나철재 (羅哲在)	남	49	대학재학	상업	1,465	당선
금곡동	이종길 (李鍾吉)	남	48	고등학교 졸업	건설업	378	당선후'92.2.6사직 (변호사법위반)
	최병성 (崔秉成)	남	36	대학원수료	농업	431	'92.1.14보궐선거 에서 당선
운중동	이건영 (李建榮)	남	44	고등학교 졸업	농업	434	당선

3) 제2대 성남시의회 의원 선거

제2대 성남시의회 의원 선거에는 의원 정수 50명에 대하여 총 139명이 입후보하여 평균경쟁률이 2.78대 1로서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비해 경쟁률이 치열해졌다.[140] 성남시의회의 의원 정수는 1991년의 45명보다 5명이 늘어난 것이다.

투표율 58.97%를 나타낸 성남시의회 의원 선거의 투표결과 [표 7-111]와 같이 수정구 17명, 중원구 16명, 그리고 분당구에서 17명이 당선되었다.[141]

[표 7-111] 제2대 성남시의회의원 선거결과(1995.6.27)

수정구 선거구	성 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신흥1동	박용두 (朴鎔斗)	남	50	대학원 수료	상업	4,392
신흥2동	최명근 (崔明根)	남	58	대학 졸업	정치인	3,798
신흥2동	나운채 (羅雲埰)	남	57	대학원 수료	공익사업	5,016
신흥3동	박찬범 (朴贊範)	남	51	대학원 수료	상업	2,132
태평1동	정수웅 (鄭秀雄)	남	54	대학원 수료	기타	4,876
태평2동	김삼근 (金三根)	남	51	대학원 수료	상업	2,913

140) 황아란 · 윤두섭(1996),「지방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80-96쪽.

141) 성남시의회, 앞의 책, 480-484쪽.

수정구 선거구	성 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태평3동	김미희 (金美希)	여	29	대학 졸업	약사	2,341
태평4동	박용승 (朴用承)	남	33	대학원 졸업	정치인	2,644
수진1동	손영태 (孫榮泰)	남	54	대학원 졸업	정치인	4,741
수진2동	권태흥 (權泰興)	남	56	대학 졸업	기타	2,437
단대동	전준민 (田埈珉)	남	37	전문대 졸업	회사원	2,569
산성동	정재의 (鄭在義)	남	53	대학원	졸업상업	2,873
양지동	김종윤 (金鍾允)	남	52	대학원수료	정당인	2,295
복정동	강규식 (姜圭植)	남	58	고등학교중퇴	기타	857
신촌동	이인순 (李仁淳)	남	54	대학 졸업	상업	1,026
시흥동	남장우 (南長祐)	남	52	고등학교졸업	농업	778
고등동	이수영 (李洙永)	남	40	대학원 수료	농업	887

중원구 선거구	성 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성남동	윤기중 (尹基重)	남	47	대학원 수료	마을금고 이사장	4,031
성남동	김종수 (金宗洙)	남	36	대학 졸업	회사 대표	2,643
중동	장명섭 (張明燮)	남	53	대학 중퇴	건설업	4,253
중동	권찬오 (權鑽五)	남	59	대학원 중퇴	상업	2,711
금광1동	홍순두 (洪淳斗)	남	47	전문대 졸업	사업	3,787
금광1동	염동준 (廉東俊)	남	53	고등학교졸업	마을금고 이사장	4,563
금광2동	최병원 (崔丙元)	남	50	대학원 졸업	무직	3,842
금광2동	신현갑 (申鉉甲)	남	38	대학원 수료	사업	3,701

중원구 선거구	성 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은행1동	김상현 (金常顯)	남	52	대학원 수료	건축업	2,458
은행2동	강부원 (姜富遠)	남	62	고등학교중퇴	공제회 회장	무투표당선
은행2동	김원희 (金元熙)	남	47	대학원 수료	사업	무투표당선
상대원1동	김세환 (金世煥)	남	61	대학원 수료	부동산 임대업	3,212
상대원1동	최연옥 (崔蓮玉)	여	57	대학원 수료	상업	4,069
상대원2동	김영봉 (金永奉)	남	55	대학원 수료	시의원	4,420
상대원3동	김지숙 (金芝淑)	여	28	고등학교졸업	푸른마을 대표	3,586
여수동	안종대 (安鍾大)	남	49	대학원 수료	건축업	2,306

분당구 선거구	성 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분당동	오인석 (吳仁錫)	남	61	대학 졸업	건설업	5,027
서현동	김숙배 (金淑培)	여	59	대학원 수료	상업	4,094
서현동	장영춘 (張泳椿)	남	56	대학원 졸업	소비자보호소 소장	3,659
내정동	이태순 (李泰淳)	남	36	대학원 수료	학원 원장	2,954
정자동	최오균 (崔午均)	남	47	대학원 수료	운수업	4,246
정자동	김동환 (金東煥)	남	35	대학원 수료	회사 대표	3,266
초림동	홍양일 (洪良一)	남	53	대학 졸업	회사원	4,098
서당동	안정연 (安正演)	남	54	대학 졸업	회사원	3,915
수내동	김용준 (金容駿)	남	56	대학원 수료	무직	2,517
이매동	강주동 (姜周東)	남	42	대학원 수료	환경운동가	6,699
야탑동	유인갑 (柳寅甲)	남	37	대학 졸업	상업	3,710

분당구 선거구	성 명	성 별	연 령	학 력	직 업	득표수
중탑동	임봉규 (林鳳奎)	남	46	고등학교졸업	회사원	2,975
하탑동	석규섭 (石圭燮)	남	49	대학 졸업	회사원	4,820
매송동	김철홍 (金哲洪)	남	43	대학원 수료	상업	3,659
판교동	정재의 (鄭在儀)	남	59	대학원 수료	사업	827
금곡동	김준식 (金俊植)	남	42	대학원 재학	건축업	1,924
운중동	김두일 (金斗鎰)	남	36	전문대 졸업	상업	524

4) 제2대 의원 변동사항

제2대 성남시의회 의원수는 수정구 17명, 중원구 16명, 분당구 17명 총 50명의 의원으로 1995년 7월 1일부터 1968년 6월 30일까지 만 3년의 임기로서 초대(初代, 제1대) 의원의 경우 45명이었으므로, 5명이 증원된 셈이다. 초대의원의 임기는 만 4년 77일이다. 이는 4대 지방선거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제2대 의원 중에서 최오균(崔午均)의원이 97. 10. 30일 무단 전출로 직권 말소되고, 김동환(金東煥)의원은 96. 8. 2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강주동(姜周東)·김종수(金宗洙)·김준식(金俊植)의원 등 3명의 의원은 광역의원 출마 관계로 '98. 4. 5 사직하였다.

총 5명 의원의 변동이 있었으나, 3명의 의원은 불과 만기(1968. 6. 30) 2개월을 앞두고 광역의원 출마로 사직하였기에 "2대 의원총람"에 수록하였으며, 정자동의 최병성 의원이 97년 1월 30일 재선거에서 당선되어 임기말('98. 6. 30)까지는 실제적으로 2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당선자 명단에는 50명의 의원명단이 게재되었으나 "의원총람"에는 49명의 의원이 수록되었다.

5) 제3대 성남시의회 의원 선거

제3대 성남시의회 의원 선거에는 의원 정수 40명에 대하여 총 90명이 입후보하여 경쟁률은 2.25대 1이었다.[142] 성남시의회의 의원 정수는 제2대 성남시의회의 의원 정수 50명보다 10명이 줄어들었다.

142) www.sncouncil.com(성남시의회 홈페이지).

투표율 50.5%를 나타낸 성남시의회 의원 선거 투표결과 [표 7-112]과 같이 수정구에서 13명, 중원구에서 10명, 그리고 분당구에서 17명이 당선되었다.[143]

143) 성남시의회, 앞의 책, 802~805쪽.

[표 7-112] 제3대 성남시의회 의원 선거결과(1998. 6. 4)

수정구 선거구	성 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신흥1동	박용두 (朴鎔斗)	남	53	고등학교졸업	상업	4,704
신흥2동	나운채 (羅雲埰)	남	60	독학	성남시의원	4,589
신흥3동	우종수 (禹鍾秀)	남	46	대학 재학	회사 대표	2,811
태평1동	최유석 (崔裕碩)	남	39	대학 졸업	정당인	3,503
태평2동	표진형 (表振馨)	남	39	고등학교졸업	상업	4,432
태평3동	김미희 (金美希)	여	32	대학 졸업	약사	1,983
태평4동	박용승 (朴用承)	남	36	초등학교졸업	정당인	3,697
수진1동	홍경표 (洪慶杓)	남	60	중학교 졸업	상업	3,283
수진2동	이근연 (李根淵)	남	57	중학교 졸업	건설업	3,871
단대동	전준민 (田埈珉)	남	40	전문대 졸업	성남시의원	3,474
산성동· 복정동	강용득 (姜龍得)	남	57	고등학교졸업	건축업	무투표당선
양지동	김종윤 (金鍾允)	남	55	중학교 졸업	성남시의원	2,289
신촌동·고등동·시흥동	이수영 (李洙永)	남	47	고등학교졸업	농장경영	1,630

중원구 선거구	성 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성남동	김종수 (金宗洙)	남	39	전문대 졸업	무직	4,598
중동	권찬오 (權鑽五)	남	62	고등학교졸업	숙박업	5,292
금광1동	염동준 (廉東俊)	남	56	고등학교졸업	마을금고 이사장	4,898
금광2동	신현갑 (申鉉甲)	남	41	초등학교졸업	사진관 운영	6,040
은행1동	김상현 (金常顯)	남	55	대학 졸업	광고업	2,868
은행2동	강부원 (姜富遠)	남	65	고등학교중퇴	성남시의원	5,867
상대원1동	방익환 (方益煥)	남	45	대학원 수료	상업	4,724
상대원2동	이계남 (李季南)	남	66	고등학교졸업	사회사업	4,272
상대원3동	김두일 (金斗鎰)	남	39	전문대졸업	회사 대표	2,507
여수동	김민자 (金敏子)	여	56	고등학교졸업	회사 대표	3,069

분당구 선거구	성 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분당동	오인석 (吳仁錫)	남	60	대학 졸업	건축설비업	3,205
수내동	박권종 (朴權鍾)	남	38	전문대졸업	상업	무투표당선
초림동	홍양일 (洪良一)	남	56	대학 중퇴	회사원	3,239
내정동	이태순 (李泰淳)	남	39	대학원 졸업	학원경영	무투표당선
정자동	최병성 (崔秉成)	남	43	대학 재학	사업	3,808
불정동	홍방희 (洪芳憙)	남	46	고등학교졸업	회사 대표	무투표당선
신기동	이완구 (李玩求)	남	56	전문대 졸업	마을금고 이사장	4,504
서현동	장영춘 (張泳椿)	남	59	대학 졸업	성남시의원	4,882

분당구 선거구	성 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서당동	윤광열 (尹光烈)	남	43	고등학교졸업	제조업	3,410
이매동	방영기 (方榮基)	남	40	대학 재학	국악인	무투표당선
매송동	김철홍 (金哲洪)	남	46	초등학교졸업	사업	3,407
야탑동	박희동 (朴喜東)	남	40	고등학교졸업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3,747
종탑동	박문석 (朴文石)	남	35	대학 졸업	신문사 지사장	4,594
하탑동	석규섭 (石圭燮)	남	52	대학 졸업	무직	무투표당선
판교동 운중동	김대진 (金大振)	남	51	고등학교졸업	농업	1,795
금곡동	이호섭 (李虎燮)	남	40	고등학교졸업	사업	5,831
구미동	전이만 (全二萬)	남	58	대학 졸업	사업	6,559

4. 제3대 시의원 변동사항

제3대 의원정수는 40명으로 2대 의원수에 비하면 10명의 의원이 감소되었으나 5명의 의원 변동이 발생하였다. 태평동의 박용승(朴用承)의원, 복정동의 강용득(姜龍得)의원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으로 '99.2.23일에 퇴직, 양지동의 김종윤(金鍾允) 의원은 병역법위반 으로 퇴직(2000.5.12), 성남동 김종수(金宗洙)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퇴직('99.12.28)하였으며, 서현동 장영춘(張泳椿) 의원은 도의원 출마 관계로 사직(2000.5.27)하게 되어 결국 5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99.8.26 재선거에서 태평4동에는 한선상(韓善相) 의원, 복정동 장윤영(張允榮) 의원이 당선 되었고, 양지동에서는 박광봉(朴光鳳) 의원(2000.10.26), 성남동에서는 김선규(金善圭) 의원(2000.6.8), 서현동에는 김숙배(金淑培)(2000.10.26)의원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다. 결국 자진

사직 의원 1명, 법률 위반으로 4명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나, 재선거·보궐선거에서 5명의 의원이 당선됨으로써 3대의원의 정수인 40명을 유지하게 되었다.

5) 제4대 성남시의회 의원 선거

제4대 성남시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의원 정수 41명을 대상으로 총 102명이 입후보하여 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의원 정수는 제3대의 40명이 비해 인구증가에 따라 1명이 증가한 것이다.

투표율 41.7%를 나타낸 성남시의회 의원 선거 투표결과 [표 7-113]과 같이 수정구에서 14명, 중원구에서 10명, 그리고 분당구에서 17명이 당선되었다.[144]

144) 1http://www.sncouncil.com(성남시의회 홈페이지).

[표 7-113] 제4대 성남시의회 의원 선거결과(2002.6.13)

수정구 선거구	성 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신흥1동	문길만 (文吉滿)	남	43	중학교 중퇴	회사 대표	3,113
신흥2동	홍준기 (洪駿基)	남	62	대학 졸업	자영업	4,637
신흥3동	유철식 (柳哲植)	남	42	대학 졸업	기업인	2,440
태평1동	이상호 (李相晧)	남	39	대학 졸업	체육관 관장	3,204
태평2동	표진형 (表振馨)	남	43	독학	상업	2,749
태평3동	김완창 (金完昌)	남	52	독학	회사 대표	1,938
태평4동	한선상 (韓善相)	남	42	전문대 재학	회사 대표	2,187
수진1동	홍경표 (洪慶杓)	남	64	독학	상업	2,975
수진2동	정응섭 (鄭應燮)	남	45	고등학교 졸업	회사 대표	2,506
단대동	윤춘모 (尹春模)	남	37	대학 졸업	어린이집 경영	1,822
산성동	장운영 (張允榮)	남	42	대학 졸업	교육업	2,037
양지동	박광봉 (朴光鳳)	남	55	중학교 졸업	건설업	1,706

수정구 선거구	성 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복정동	홍용기 (洪容基)	남	51	고등학교 졸업	무직	무투표당선
신촌·고등·시흥동	이수영 (李洙永)	남	51	대학 재학	농업	2,094
중원구 선거구	**성 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성남동	강태식 (姜泰植)	남	59	전문대 졸업	요식업	4,895
중동	김유석 (金裕錫)	남	38	대학원 재학	학원 원장	4,572
금광1동	염동준 (廉東俊)	남	60	고등학교졸업	성남시의원	무투표당선
금광2동	신현갑 (申鉉甲)	남	45	초등학교졸업	사진관운영	4,488
은행1동	김상현 (金常顯)	남	59	대학 졸업	성남시의원	2,594
은행2동	최화영 (崔和永)	남	50	전문대 졸업	자영업	5,805
상대원1동	방익환 (方益煥)	남	49	중학교 졸업	상업	4,076
상대원2동	지관근 (池管根)	남	37	대학졸업	사회복지사	무투표당선
상대원3동	김기명 (金基明)	여	36	고등학교졸업	사회단체 활동가	1,713
하대원동	김민자 (金敏子)	여	60	전문대졸업	성남시의원	3,079
분당구 선거구	**성 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분당동	오인석 (吳仁錫)	남	64	대학 졸업	건축설비업	5,148
수내1동	홍양일 (洪良一)	남	60	대학 중퇴	회사 이사	4,167
수내2동	최윤길 (崔允吉)	남	43	고등학교졸업	회사 대표	2,527
수내3동	박권종 (朴權鍾)	남	42	전문대 졸업	성남시의원	2,855
정자1동	최진섭 (崔鎭燮)	남	44	대학원 수료	회사 대표	4,967
정자2동	김미라 (金美羅)	여	28	대학 졸업	푸른학교 대표	2,301

분당구 선거구	성 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정자3동	이형만 (李炯滿)	남	46	대학원 졸업	회사 대표	3,105
서현1동	김숙배 (金淑培)	여	66	대학 중퇴	성남시의원	5,832
서현2동	윤광열 (尹光烈)	남	47	대학 재학	제조업	3,950
이매1동	이영희 (李永熙)	남	43	대학 졸업	회사 대표	4,588
이매2동	김철홍 (金哲洪)	남	50	대학원 수료	상업	3,735
야탑1동	민동익 (閔東益)	남	50	초등학교졸업	자영업	3,378
야탑2동	장대훈 (張大勳)	남	43	대학 졸업	사업	4,213
야탑3동	지수식 (池洙植)	남	42	전문대 졸업	회사 노조위원장	3,850
판교· 운중동	김대진 (金大振)	남	55	대학 재학	농업	2,442
금곡동	이호섭 (李虎燮)	남	44	고등학교졸업	성남시의원	9,481 (63.7)
구미동	전이만 (全二萬)	남	62	대학 졸업	회사 대표	6,341 (55.4)

※ 집필 尹斗燮 경원대학교 책임연구원
徐辰錫 중부대학교 교수

6) 역대 민선 성남시의회 의원현황

제1대(초대) 성남시의회 의원총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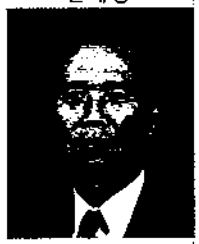
제1대 성남시의회 의원총람		의원임기 1991.4.15 ~ 1995.6.30까지	
전반기 의장 · 부의장		후반기 의장 · 부의장	
			
의장 : 손 영 태	부의장 : 김 영 봉	의장 : 손 영 태	부의장 : 이 용 배

수 정 구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박 용 두 신흥1동	• 밀양실업고등학교 졸업 • 성남시광고물제작협회장 • 동성남청년회의소 회장 • 상공회의소 2,3대 의원 • 사회체육회 이사 • 수정구청 구정자문위원 • 제1대 성남시의회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분당신시가지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 명 근 신흥2동
 조 영 이 신흥2동	• 한양대학 산업대학원 수료 • 성남서중 육성회장 • 서원건설(주) 회장 • 성남시청 자문위원 • 민족통일 성남시협의회 회장 • 성남시 용변협회회장 • 성공회의소 상임위원 • 광성라이온스회장 • 제1대 성남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	 성 규 삼 신흥3동
		 정 수 웅 태평1동

• 건국대학 정외과 졸업
• 이곡초등학교 교사
• 수정구 바르게살기협의회장
• 수원지검 청소년선도위원
• 성남시 방위협의회 위원
• 건국대재성남동문회장
• 제1대 성남시의회 총무위원회 간사

• 영남대 약학대 약학과 졸업
• 영남대 약학대학원 수료
• 육군군의학교 교관
• 성남시 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 수원지법 성남지원 조정위원
• 성남시방위협의회 위원
• 신흥3동 동정자문위원장
• 제1대 성남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 교통고교 졸업
• 경기도 청소년선도위원
• 성남시 새마을후원회 위원
• 수정구청 구정자문위원
• 태평1동 동정자문위원장
• 건축업
• 제1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김 종 안 태평1동	• 순천농고 졸업 • 새마을지도자 •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 태평1 · 3동 마을금고 이사장 • 평민당 성남갑지구당 위원 • 은성관광 대표 • 제1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손 영 태 수진1동	• 경원대 경영대학원 수료 • 성남중앙로타리클럽 회장 • 성남시새마을운동협의회 위원 • 시정자문위원회 행정분과위원장 • 성남지검선도협의회 간사 • 성남시사회정화협의회 회장 • 바르게살기성남시협의회 회장 • 제1대 성남시의회 전 · 후반기 의장
 장 두 영 태평2동	• 대전공고 졸업 • 성남로타리클럽 14대회장 • 새마을운동 성남시지회장 • 성남시 시정자문위원 • 수정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성남지청 선도협의회 수정구 회장 • 성남경찰서 보안지도위원장 • 제1대 성남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	 김 종 기 수진1동	• 군산상고 졸업 • 부안무송병원 근무 • 민정당수진1동 협의회장 • 미진섬유 대표 • 평민당 성남갑지구당 운영위원장 • 상업 • 제1대 성남시회 총무위원회 위원
 조 명 천 태평3동	• 성균관대학 경영대학원 수료 • 새마을문고 성남지부장 • 성남문화원설립 및 초대 · 2대 원장 • 한국문화원연합협회 경기도 부지부장 • 수정구청 구정자문위원 • 경기도 및 시 위민봉사위원 • 한성새마을독서대학장 • 제1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	 김 상 문 수진2동	• 물리고등학교 졸업 • 평민당 수정구 부위원장 • 수진2동 동정자문위원 • 수진2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제1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박 용 승 태평4동	• 경원대 경영대학원 수료 • 성남향토개발연구소장 • 민주당 성남시수정지구당 부위원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위원 • 아태재단후원 특별위원 • 제1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송 태 섭 단대동	• 경원대 경영대학원 수료 • 수정구새마을후원회 회장 • 수정구위민봉사위원장 • 재향경우회자문위원장 • 바르게살기 수정구 고문 • 성남경찰서 대공지도 운영위원 • (주)대성건설 회장 • 제1대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
 정 재 의 산성동	• 조치원농고 졸업 • 단대동 새마을지도자 • 한국반공연맹 단대동회장 • 향토예비군소대장 • 산성파출소방범자문위 부위원장 • 산성동 동정자문위원 • 제1대 성남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김 종 윤 양지동	• 수원중 중퇴 • 고등동방위협의회 위원 • 고등동파출소 방범위원장 • 수원지검 보호관찰위원 • 민자당고등동운영위원장 • 수정구새마을운영회 부회장 • 고등동 동체육회 고문 • 제1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총무위원장

성 명	학·경력 및 소속위원회	성 명	학·경력 및 소속위원회
 윤민섭 복정동	• 광서고등학교 졸업 • 새마을지도자 • 복정동방범위원장 • 복정동새마을금고 이사장 • 복정동 정화위원장 • 수정구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 • 제1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박선태 고등동	• 수원중 중퇴 • 고등동파출소방범위원장 • 수원지검보호관찰위원 • 민자당고등동운영위원장 • 수정구새마을운영회 부회장 • 고등동 체육회 고문 • 제1대 성남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이회재 신촌동	• 경기상고 졸업 • 광주군청 근무 • 대왕단위농협 근무 • 신촌동마을금고 이사장 • 신촌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 수정구농지위원 • 제1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사회산업위원장	 남장우 시흥동	• 효성고교 졸업 • 민정당지도장(성남시총회장) • 민정당 경기2지구당 성남부위원장 • 민정당성남갑지구당 부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장 • 수원지검보호관찰위원 • 제1대 성남시의회 전·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중 원 구

성 명	학·경력 및 소속위원회		
 김상현 은행1동	• 안동사범학교 본과졸업 • 국민학교 및 중학교 교사 • 은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동부파출소 방범위원장 • 은행1동 동정자문위원장 • 은행1동새마을금고 이사장 • 제1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총무위원장		
 윤기중 성남동	• 경원대 경영대학원 수료 •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 성남시 육상경기연맹회장 • 경기도위민봉사위원 • 경원대경영대학원 총동문회장 • 중원구새마을지회장 • 성남동새마을금고 이사장 • 재1대 성남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	 강부원 은행2동	• 영광고교 중퇴 • 영진기공사 대표 • 평민당성남을지구당 사무국장 • 민주당중원·분당지구 부위원장 • 진주강씨 성남종친회 회장 • 제1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정상규 중동	• 중앙대 약학과 졸업 • 성남시약사회 부회장 • 평통자문회의 성남시부회장 •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 성남시시정자문위원 • 중앙약국경영 • 제1대 성남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박치선 상대원1동	• 몰리고등학교 졸업 • 평민당 수정구 부위원장 • 수진2동 동정 자문위원 • 수진2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제1대 성남시의회 총무위원회 의원

성 명	학·경력 및 소속위원회
 홍순두 금광1동	• 영남공전 2년 중퇴 • 금광1동 민정당지도자 • 성남시자연보호감시관협의회 총무 • 금광1동 새마을금고 감사 • 금광1동 통장친목회 총무 • 제1대 성남시의회 전·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필주 금광2동	• 경희대 경영대학원 수료 • (주)신우설비 대표이사 • 경기도 육상경기연맹 이사 • 경기도 하키협회 회장 • 수원지검보호관찰위원 • 성남시시정자문위원 • 제1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사회산업위원장
 김동성 상대원3동	• 경원대 경영대학원 수료 • 11대 대통령선거인단 피선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위원 • 민주정의당 성남부위원장 • 성남시시정자문위원 • 성남시 홍보위원 • 제1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이영성 상대원3동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 민주여성유권자연맹 성남지회장 • 평화통일정책자문회 위원 • 성남시장학생 심의위원 • 성남문화원 이사 • 제1대 성남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

성 명	학·경력 및 소속위원회
 김일도 상대원1동	• 춘천고 2년 중퇴 • 상대원1, 3동마을금고 감사 • 대원파출소 방범위원장 • 상대원1동 동정자문위원 • 바르게살기 상대원1동위원장 • 중원구청 위민봉사위원 • 제1대 성남시의회 전·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영봉 상대원2동	• 경원대 경영대학원 수료 • 경기광주 J·C클럽 회장 • 성남대원로타리클럽 회장 • 농협중앙회 기획총무과장 • 상대원2동 동정자문위원 • 성남서고 육성회장 • 상대원파출소 방범위원장 • 제1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이용배 여수동	• 경원대 경영대학원 수료 • 여수동 동정자문위원장 • 여수동체육회장 • 하대원파출소 방범위원장 • 성남경찰서 방범자문협의회장 • 여수동마을금고 이사 • 제1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분 당 구

성 명	학·경력 및 소속위원회
 나철재 판교동	• 단국대 행정대학원 재학 • 서성남청년회의소 총무재정 이사 • 판교동 민정당지도장 • 판교동 방위협의회 위원 • 낙생국민학교 체육진흥회장 • 제1대 성남시의회 의원 • 제1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한백찬 분당동	• 동대문상고 졸업 • 분당동 새마을지도협의회장 • 율동정미소 대표 • 농업 • 제1대 성남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	 최병성 금곡동	• 방송통신대 법학과 재학 • 성남시4H연합회초대회장 • 남부경찰서선진질서 자문위원 • 중원구의료보험조합 감사 • 환경위생감시위원 • 92' 성남청년회의소 회장 • 제1대 성남시의회 전 · 후반기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기 이매동	• 경원대 경영대학원 수료 • 성남청소년회의소 회장 • 성남시새마을지도자연합회 회장 • 농촌지도자 성남시연합회 회장 • 경기도 4H동문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제1대 성남시의회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이건영 운중동	• 효성고등학교 졸업 • 낙생농협 근무 • 민정당 · 민자당협의회장 • 남북통일국민연합 도미연수 •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 낙생라이온스 이사 • 제1대 성남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

제2대 성남시의회 의원총람

제2대 성남시의회 의원총람 — 의원임기 1995.7.1 ~ 1998.6.30까지

전반기 의장 · 부의장		후반기 의장 · 부의장	
			
의장 : 강부원	부의장: 홍양일	의장 : 김영봉	부의장 : 박용두

수정구	 박용두 신흥1동	• 말양실업고등학교 졸업 • 성남시체육회 이사 • 동성남 J · C회장 • 상공회의소 2 · 3대 의원 • 수정구청 자문위원 • 성남시의회 제1대 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 •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장 • 성남시의회 제2대 후반기 부의장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최 명 근 신흥2동	• 건국대학교 법정대학 정외학과 졸업 • 총력안보협의회 안보강사 •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 부회장 • 검찰청 청소년선도위원 • 바르게살기운동 수정구협의회 회장 • 제1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 • 성남시의회 제2대 전 · 후반기 총무위원장	 박 찬 범 신흥3동	• 경원대 경영대학원 수료 •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 명예회장 • 신구전문대학교 기성회장 • 성남문화원 이사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범죄 예방위원 • 성남중부경찰서 보안지도위원 • 신흥3동 동정자문위원 • 제2대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나 운 채 신흥2동	• 새정치국민회의 수정지구당 부위원장 • 신흥2 · 3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제2대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위원	 정 수 웅 태평1동	• 중앙대학 사회개발대학원 수료 • 태평1동 동정자문위원 • 수정구 구정자문위원 • 제1대 성남시의회의원 • 중부경찰서 방범연합회 운영 위원 • 제2대 전반기 재무경제위원장
 김 삼 근 태평2동	• 경원대 경영대학원 수료 • 제1대 성남시의회의원 • 새정치국민회의 수정지구당 부위원장 • 호남향우회 부회장 • 아태재단 운영위원 •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대의원 • 성남시의회 제2대 보사환경, 재무경제위원	 전 준 민 단대동	• 경원공업전문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 국제 R · C부회장 • 생활체육조기축구 성남시연합회 이사 • (주)금성기업 대표이사 • 청소년 수련관 운영자문위원 • 성남시 국민생활축구 연합회장 • 제2대 성남시의회 보사환경,재무경제 위원
 김 미 희 태평3동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대한약사회 성남분회 이사 • 성남여약사위원회 위원 • 터사랑청소년회 정책국차장 • 건강한사회를 위한 약사회회원 • 성남여성의전화 이사 • 제2대 성남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 재 의 산성동	• 중앙대 행정대학원 수료 • 산성동 방위협의회 고문 • 국가정책연구소 회원 • 제1대 성남시의회의원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간사 • 제2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재무경제위원장
 박 용 송 태평4동	• 경원대 경영대학원 수료 •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대의원 경기도 상무위원 • 민주평화통일정책 자문위원 • 아태재단 후원회 특별위원 • 21C정책연구 소장, 향토개발 연구소장 • 제2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김 종 윤 양지동	• 단국대 경영대학원 수료 • 한국택견협회장, 경기도테니스 협회장 • 성남라이온스협회 회장 • 성남시의회 제1대 전반기 총무위원장 • 삼보의료재단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 수정구지회장 • 제2대 성남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손영태 수진1동	• 경원대 경영대학원 수료 • 제1대 성남시의회 전 · 후반기 의장 • 서울 대학교 육성회 이사 • 바르게 살기 운동 성남시 협의 회장 • 국제로타리 클럽 3600지구 총재 • 제2대 성남시의회 기획 총무위원
 권태홍 수진2동	• 한양 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 수진2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성남시의회 제2대 전 · 후반기 도시건설 위원장
 이수영 고등동	• 성남시 시정자문위원 • '86 아시게임 운영요원, 성화봉송주자 •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청년회장 •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은행중학교 육성회장, 제 2초등학교 장학회장 • 제2대 후반기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 한국 지방자치 연구원 수석 연구원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강규식 복정동	• 효성고등학교 중퇴 • 광신교통주식회사 전무이사 • 복정동새마을금고6 · 7 · 8대 이사장 • 수정구 구정자문위원 • 전국새마을금고 중앙연합회 대의원 • 동남토건 대표 • 제2대 성남시의회 재무경제,도시건설위원
 이인순 신촌동	• 성균관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졸업 • 성남시 '96결산검사위원회 위원장 • '96예산결산(추경)특별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민자당중원 · 분당지구당 조직장 • 자유 총연맹 성남지부 사무국장 • 제2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재무경제위원회 간사
 남장우 시흥동	• 효성고등학교 졸업 • 성남시의회 전 · 후반기 도시건설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제2대 성남시의회 전 · 후반기 보사환경위원장

중 원 구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윤기중 성남동	• 경원대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자유당중원지구당 부위원장 • 성남시 육상경기연맹 회장 • 중원구 새마을지회장 • 성남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제1대 성남시의회 의원 • 제2대 성남시의회 기획총무위원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홍순두 금광1동	• 영남공전 기계과 2년 중퇴 • 평통성남시 협의회자문위원 • 성남시 건축심의 위원 • 금광1동 건축심의 위원 • 금광1동 새마을금고 감사 • 하원초등학교 운영협의회 위원 • 제1대 성남시의회 의원 • 제2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염용준 금광1동	• 벌교상업고등학교 졸업 • 금광1동 동정자문위원장 • 금광1동 방위협의회장 • 중동파출소 방범위원장 • 중동파출소 청소년선도위원장 • 금광1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제2대 성남시의회 기획총무위원

성 명	학·경력 및 소속위원회	성 명	학·경력 및 소속위원회
 김 종 수 성남동	• 인천체육대학교 졸업 • 성남로타리클럽 사회봉사위원 • 성남시 육상경기연맹 회장 • 새시대·새정치연합 청년회장 • 제2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 제3대 성남시의회 전·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최 병 원 금광2동	• 경원대 경영대학원 수료 • 성남시 금곡동장 • 성남시 금광1동장 • 성남시 상대원1동 동장 • 성남시 금광2동 동장 • 제2대 성남시의회 의회운영,기획총무위원
 장 명 섭 중동	• 서울수도의대 중퇴 • 새정치국민회의 중원지구당 부위원장 • 제1대 성남시의회 의원 • 성호건설 대표이사 • 제2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 현 갑 금광2동	• 경원대 경영대학원 수료 • 성우신용협동조합 수석감사(현) • 성남시 직업사진작가협회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중원지구당 부위원장 • 남성남 R.C. 동성남J.C. 외무부회장 • 제2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보사환경위원회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간사
 권 찬 오 중동	• 이리공고 졸업 • 성남시 시정자문위원회 위원 겸 상임위원 • 성남시 방위협의회 위원 • 성남시 민방위협의회 위원 • 성남시 재해대책위원 • 성남시 재향군인회장 • 제2대 성남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김 상 현 은행1동	• 안동사범대 본과졸업 •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 • 은행1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성남교육청 교육행정 자문위원 • 제1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총무위원장 • 제2대 성남시의회 의회운영,기획총무위원
 강 부 원 은행2동	• 영광고등학교 중퇴 • 제13대 대통령선거 김대중후보 선거대책본부 사무장 • 진주강씨 성남시 종친회장 • 성남시의회 제1대 의원 • 제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2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김 영 봉 상대원2동	• 경기광주 J·C 회장 • 성남대원로타리클럽 회장 • 농협중앙회 기획총무과장 • 성남서고등학교 육성회장 • 성남남부경찰서 치안행정자문 위원장 • 제11·12대성남시 새마을회회장 • 제1대 성남시의회 전반기부의장 • 제2대 성남시의회 후반기의장
 김 원 희 은행2동	• 진주농고 졸업 • 은행시장(주)대표이사 • 상이군경회 성남시지부장 • 중원구 구정자문위원 • 일도라이온스클럽 회장 • 성남시의회 제2대 보사환경, 재무경제 위원	 김 지 숙 상대원3동	• 광주여자상업 고등학교 졸업 • (주)에프고아코리아 노조위원장 • 성남지역사회발전연구소 문화위원 • 성남지역 노동자회 정책위원 • 생활공동체 푸른마을 대표 • 아동폭력방지상담소 자문위원 • 성남시의회 제2대 재무경제,보사환경위원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최 연 욱 상대원1동	• 숭실대학교 대학원 수료 • 중원구 새마을부녀회장 • 중원구 구정자문위원 • 상대원1 · 3동 새마을금고 이사 • 중원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정책 자문위원 • 제2대 성남시의회 재무경제,의회운영 위원
 김 세 환 상대원1동	• 고려대학교 문리학과1년 중퇴 • 남부경찰서 방범연합회 위원 • 선경아파트 통장단번영회 자문 위원 • 신한국당 중원지구당 지도위원 • 민자당 중원 · 분당지구당 운영 위원 • 제2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안 종 대 여수동	• 경원대 경영대학원 수료 • 여수동 동정자문위원장, 체육회장 • 여수동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중원구 구정자문위원 • 민자당중원 · 분당지구당 부위원장 • 제2대 성남시의회 기획총무, 도시건설위원

분 당 구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오 인 석 분당동	• 중앙대학교 문리대학사학과 졸업 • 분당동 체육회장 • 분당구 구정자문위원 • 라이프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 민자당 중원 · 분당지구당 부 위원장 • 분당아파트입주자 대표회장 • 제2대 성남시의회 의회운영,도시건설 위원
 김 용 준 수내동	• 성남시 농촌지도소 지도사 • 성남시 녹지 · 산업계장 • 성남시 복정, 신흥1 · 3동,금광2동 · 성남동장 •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장 • 제2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기획 총무위원장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최 병 성 정자동	• 방송통신대 법학과 재학 • 성남시 4-H연합회 초대회장 • 성남청년회의소 회장 • 분당중학교 운영위원장 • 제1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 제1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2대성남시의회 기획총무 · 보사환경위원
 김 숙 배 서현동	• 창덕여고 졸업, 서울문리대 2년중퇴 • 한국방송공사 심의실 근무,헤럴드운영 • 서현동 새마을부녀회장 • 신한국당 분당갑지구당 부위원장 • 성남지원 민사조정위원 • 분당 한국통신 고객협의회 위원 • 제1대 성남시의회 의원 • 제2대 성남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장 영 춘 서현동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삼양식품(주) 검사역 • 동양전기 기획실장 • 대한주택공사 소장 •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 • 대책 특별위원장 • 제2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성 명	학·경력 및 소속위원회	성 명	학·경력 및 소속위원회
 홍양일 초림동	• 미국 웨스트민스터대학경영 학과 졸업 • (주)단일화학 부사장 • (주)동진산업 대표이사 • 분당구 구정자문위원장 • 분당구 입주자대표협의회 부회장 • 민자당 분당수석부위원장 • 성남시의회 제2대 전반기 부의장 • 토지공사 조성 분당시설물 인계 인수대책 특별위원장	 김두일 운중동	• 경원전문대 공업경영학과 졸업 • 성남시 체육회 이사 • 대일초등학교 운영협의회 회장 • 상대원3동 동정자문(방범)위원 • 남부경찰서 보안지도위원 • 성남시 볼링협회 자문위원 • 제2대 성남시의회 재무경제위원회 간사
 이태순 내정동	• 중앙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2년수료 • 분당구 학원협의회 회장 • 분당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 이사 • 성남시 학원연합회 이사 • 검찰청 상담지도위원 • 제2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정연 서당동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 LG기전(주) 생산본부장 • 중소기업청 전기부회 전문위원 • 한국전기공업 협동조합기술 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 제2대 성남시의회 기획총무,의회운영위원
 강주동 이매동	• 육군 제3사관학교 졸업·경리 장교 • (주)서한사 영업감사 • 민주평화통일정책 자문위원 • 우성교역 대표 • 제2대 성남시의회 의회운영,보사환경위원	 석규섭 하탑동	• 조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 호남향우회 회장 • 지방자치발전협의회 하탑동지역 회장 • 하탑동 방위협의회 위원 • 하탑동 동정자문위원 • 하탑동 방범위원회 위원 • 제2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김철홍 매송동	• 성남시 강원도민회 회장 • 분당경찰서 방범연합회 운영 위원 • 매송파출소 방범위원장 • 매송동 동정자문위원장 • 아름마을 태영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 제2대 성남시의회 재무경제,보사환경위원	 정재의 판교동	•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수료 • 성남로타리클럽 회장 •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판교동 동정자문위원장 • 분당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 고문 • 낙생파출소 자문위원 • 제2대 성남시의회 보사환경,도시건설위원
 유인갑 야탑동	• 한국 방송 통신대학 법학과 졸업 • 새정치 국민회의 분당 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 내외문제 연구회 정책위원 • 새시대새정치연합청년회 분당 지구회장 • 성남시의회 제2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감준식 금곡동	• 경원대 경영대학원 수료 • 분당지방자치협의회 공동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분당지구당 부위원장 • 분당발전시민의 모임 추진위원회 위원 • 분당 YMCA 운영위원회위원 • 청솔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제2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보사환경위원



임봉규
중탑동

- 충주공업전문대 졸업
- 자유총연맹 자문위원
- 중원구 위민봉사위원
- 해병전우회 축구단장
- 재향군인 회장
- 성남시의회 제2대 보사환경, 재무경제위원

제3대 성남시의회 의원총람

제3대 성남시의회 의원총람 | 의원임기 1998.7 ~ 2002.6.30까지

전반기 의장·부의장



의장 : 염동준



부의장: 오인석

후반기 의장·부의장



의장 : 박용두



부의장 : 전준민

수정구



나운채
신흥2동

- 성남시의회 제 2대 의원
- 신흥2동 방위·방범위원, 동정자문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수정지구당 부위원장 자문위원
- 성남시 건축위원회 위원
- 신흥2·3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제3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성남시의회 제3대 후반기 도시건설,의회운영위원

성 명	학·경력 및 소속위원회
 박용두 신흥1동	• 밀양실업고등학교 졸업 • 제 1·2·3 대 성남시의회 의원 •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장 • 제 2·3 대 성남상공회의소 의원 • 동성남청년회의소 회장 • 성남시체육회이사, 성남시방위협의회 위원 • 법무부범죄예방수정지구 회장 • 평통자문회의 수정지구 회장 • 제3 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우종수 신흥3동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석사과정) 수료 • 바르게살기운동수정구협의회장 • 대동은행 성남지점명예지점장 • 풍생고등학교 학부모대표회장 • 성남시 건축위원회 위원 • 제3 대후반기 성남시의회운영 위원장 • 제3 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최유석 태평1동	• 광운대학교 전자통신학과 졸업 • 새천년민주당 중앙당 대의원 • 호남향우회 부회장 • 태평1동 지방자치위원장 • 실업대책 추진위원회 위원 • 디자인 산업협의회 위원 • 지역 보건 협의회 위원 • 제3대 성남시의회 사회복지 · 의회운영 위원	 이근연 수진2동	• (주)충남 종합 상사 대표 • 분당 청년회의소 특우 회장 • 수진2동 방범 협의회 회장 • 동국건설(주)설립, 대표 • 새천년민주당 수정지구 부위원장 • 제3대 성남시의회 의원 • 제3대 도시건설, 행정경제위원
 표진형 태평2동	• 성남시 광고물 제작협회 지회장 • 경기도명예대민봉사 담당관 • 바르게살기운동 수정구 사무국장 • 성남시상수도수질검사위원회 간사 • 수진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경기도 행정모니터 요원 • 한국청소년지도자 수정구지회장 • 새천년민주당 수정구당부위원장 • 제3대 성남시의회 행정경제, 도시건설위원	 박광봉 양지동	• 은행 시장 설립 대표이사 • (주)우일산업 대표이사 • 성남시재향군인회 부회장 • 성남시 시정자문위원 • 수정구 구정자문위원 • 제3대 성남시의회 사회복지 위원회 위원
 김미희 태평3동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서울대 약학대학 학생회장 • 제2대 성남시의회 의원 • 실업자문제경기도 동부대책위원회공동대표 • 수진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터사랑청년회 지도위원 • 성남시의회 제3대 전반기 사회복지위 간사	 이수영 신촌 · 고등 · 시흥동	• 경원대문대학 경영학과 졸업 • 성남 문화상 심사위원 • 성남 청년회의소 회장 • 한국 여성유권자연맹 경기지부 자문위원 • 민주평통 지방행정 위원장 • 법무부 범죄 예방 위원 • 한국 지방 자치연구원 수석 연구원 • 성남시의회 제3대 후반기 사회복지위원장
 한선상 태평4동	• 성동고등학교 졸업 • 아태평화재단 후원회중앙위원 • 태평4동 자율방범대장 • 성남노타리클럽 국제봉사위 원장 • 남도라이온스클럽 이사 • 새천년민주당 수정지구당 부위원장 • 제3대 성남시의회 사회복지, 도시건설위원	 전준민 단대동	• 경원대학 정기공학과 졸업 • 제2대 성남시의회의원 • 성남시축구연합협의회 회장 • 환경크린시스템 국내최초실시 • 조기축구성남시연합회 회장 • 제3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 제3대 성남시의회 행정경제 위원회 위원
 홍경표 수진1동	• 중부새마을금고 이사 • 수진1동 동정자문위원장 • 수진1동 동정자문위원 고문 • 청송조기회 고문 • 새천년민주당 수정구부위원장 • 제3대 성남시의회 의원 • 제3대 의회운영, 행정경제위원	 장윤영 산성 · 복정동	• 한양공대 재료공학과 졸업 • 지역정보센터 소장 • 동성남 J · C국제분과 위원장 • 성남문화원 기획실장 • 제3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성남시의회 제 3대의원 • 제3대 의회운영, 행정경제위원 • 성남시의회 제3대 도시건설 행정경제위원

中院區

성 명	학·경력 및 소속위원회
 김선규 성남동	• 수원매향여자실업고등학교 졸업 • 성남시 시정자문위원 • 경기도소비자정책 심의위원 • 경기도 국정국민홍보위원 •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 경기도새마을부녀회 회장 • 경기도 제2건구범국민추진위원 • 새천년민주당 중원지구당 부위원장 • 제3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 위원
 권찬오 중동	• 이리공고 졸업 • 제2대 성남시의회 의원 • 성남시재향군인회 회장 • 성남시 방위협의회 위원 • 성남시 시정자문위원 및 상임위원 • 민주평화통일 성남시협의회 부회장 • 성남시조례 특별위원회위원장 • 제3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
 염동준 금광1동	• 벌교사업고등학교 졸업 • 제2대 성남시의회 의원 • 새천년민주당 중원지구당 수석부위원장 • 금광1동 방위협의회 회장 • 금광1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중동파출소 방범위원회위원장 • 금광1동 동정자문위원장 • 제3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신현갑 금광2동	• 성남시의회 제2대 의원 • 제2대전반기 보사환경위원회 간사·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중앙신용협동조합 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새천년민주당 중원구부위원장 • 천주교 단대동성당 청소년분과 위원장 • 제3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사회복지위원장
 김상현 은행1동	• 안동사범대학교(본과) 졸업 • 초등학교·중학교 교사 • 제1·2대 성남시의회의원(1대 후반기 총무위원장) • 성남교육청 교육행정 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 354B지구 2지대 위원장 • 중부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제3대 후반기 행정경제위원장
 강부원 은행2동	• 영광고등학교 3년중퇴 • 성남시의회 제1·2대 의원 • 제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성남시의회 제2대 전반기 의장 • 제13대 김대중대통령후보 성남시선거대책본부 사무장 • 새천년민주당 중원지구당 부 위원장 • 아태평화재단후원회 경기도지부사무국장
 방익환 상대원1동	•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회장 • 대한적십자 경기지사 대위원 • 법무부 선도보호 성남지역협의회 위원 • 상대원1동 방위협의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위원 • 제3대 성남시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위원
 이계남 상대원2동	• 상대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성남시 새마을문고 성남시 회장 • 상대원2동 동정자문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중원지구당 부 위원장 • 제3대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의회운영위원
 김두일 상대원3동	• 경원전문대학 공업경영학과 졸업 • 제2대 성남시의회의원, 후반기 경제위원 간사 • 성남시 체육회 이사 • 성남남부경찰서 보안지도위원 • 상대원3동 동정자문위원, 방범위원 • 성남로타리클럽 청소년봉사위원장 • 제3대 성남시 후반기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 민 자
여수동

- 강경 여고 졸업
- 한국 여성 유권자연맹 경기도지부 이사
- 새천년민주당 중원지구당 부 위원장
- 국제R.C 은행로타리 회장
- 법무부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제3대 성남시의회 사회복지,행정경제위원

분 당 구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오 인 석
분당동

- 중앙대학교 문리대학 사학과 졸업
- 제2대 성남시의회의원
- 양영중학교 운영위원
- 라이프(아)입주자 대표회장
- 분당동 체육회장
- 분장동 동정자문위원회 부 위원장
- 제3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홍 방 희
불정동

- 경원전문대 경영학과 졸업
- 성남시 공군보라매 회장
- 수내파출소 방범위원장
-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총동문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 협의회 총 간사
- 새천년민주당분당지구당 부위원장
- 제3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박 권 종
수내동

- 성남서고등학교 졸업
- 동서울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분당 청년회의소 회장
- 수내동 바르게 살기 운동 위원장
- 법무부 선도위원, 수내동 동 자문위원, 방범위원
- 행정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부 위원장
- 제3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행정 경제 위원회 간사



홍 양 일
초림동

- 미국 웨스트민스터대학 경영학과 졸업
- 제2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 한국해외개발공사 면접담당관
- 단일화학(주)부사장
- 동진산업(주)대표이사
- 분당구 구정자문위원회 위원장
- 제3대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사회복지위원



이 태 순
내정동

- 중앙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2년 수료
- 성남시의회 제2대의원, 전반기 의회운영위 간사
- 서울대성, 종로학원 강사
- 분당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부위원장
- 성남시 학원연합회 이사
- 제3대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최 병 성
정자동

- 경원전문대 경영학과 2년 수료
- 판교동 예비군 동대장
- 낙생라이온스클럽 제14, 15대 회장
- 낙생농협 제8, 9대 조합장
- 분당경찰서 방범연합회 회장
- 판교지구 개발추진위원장
- 제3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김 철 홍
매송동

- 제2대 성남시의회 의원
- 성남시 강원도민회 회장
- 매송동 동정자문위원장
- 매송동파출소 방범자문위원장
- 낙생로 방음벽설치 추진위원장
- 제3대 성남시의회 사회복지 위원회 위원

성 명	학·경력 및 소속위원회
 박문석 중탑동	• 목포과학대학 건축과 졸업 •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수료 • (사)한·베트남 청소년문화교류후원회 부회장 • 새천년민주당 분당지구당 정책실장 • 제3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석규섭 하탑동	• 제2대 성남시의회의원 • 성남J·C회장, 호남향우회고문 • 하탑동 동정, 방위협의회 고문 • 새천년민주당 분당지구당 부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제3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완구 신기동	• 중앙대학교 졸업 • 중앙일보 기자 • 서울산업대학교 초빙교수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감사 • 일도라이온스클럽 회장 • 신기동 체육회장 • 분당심포니오케스트라 단장 • 제3대 전반기 행정경제위원장 • 재 성남 경기도민회장
 김숙배 서현동	• 서울문리사대 2년중퇴 • 서울문리사대 총동창회 부회장 • 서현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제2대 성남시의회 의원 • 사단법인 한국 여성 유권자 연맹 경기지부장 • 중탑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 한나라당 분당갑지구당 부원장 • 제3대 성남시의회 사회복지 위원회 위원
 윤광열 서당동	• 경원전문대 경영학과 2년 수료 • 수내고등학교 운영위원 • 서당초등학교 운영위원 • 서당동 동정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서당동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 성남시 태권도협회 운영위원장 • 결식아동 후원회 감사 • 제3대 성남시 의회 의회운영, 사회복지 위원

성 명	학·경력 및 소속위원회
 방영기 이매동	• 대구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 졸업 • 중앙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한국국악협회 성남시 지부장 • 대구예술대학교 겸임교수 • 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 이수자 • 분당구 새마을협의회 회장 • 이매역사 추진위원장 • 이매동 동정자문위원장 • 제3대 성남시 의회 전반기 행정 경제 위원회 간사
 김대진 판교·운중동	• 경원전문대 경영학과 2년 수료 • 판교동 예비군 동대장 • 낙생 라이온스 클럽 제14, 15대 회장 • 낙생 농협 제8, 9대 조합장 • 분당 경찰서 방범 연합회 회장 • 판교지구 개발 추진위원장 • 제3대 성남시 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호섭 금곡동	• 성일상고 졸업 • 성남 4-H연합 회장 • 금곡동 체육진흥 회장 • 청솔 고등학교 급식후원 회장 • 바르게 살기 운동 분당구 협의 회장 • 낙생라이온스클럽 회장 • 제3대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사회복지 위원
 전이만 구미동	• 고려대학교 화학과 졸업 • 분당 고압 송전선 지중화를 위한 특별위원장 • 분당구 동정자문협의회 부회장 • 분당지역 초등학교 운영 위원장단 부회장 • 성남 문화원 이사 • 제3대 성남시 의회 도시건설, 행정경제 위원
 박희동 야탑동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과정 2년재학 • 성남서고등학교 졸업 졸업 • 성남서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야탑동 체육진흥 회장 • 야탑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분당 신협 초대 이사장 • 성남시의회 제3대 사회복지 도시건설 위원

제4대 성남시의회 의원총람

제4대 성남시의회 의원총람		의원임기 2002.7 ~ 2006.6.30	
전반기 의장 · 부의장		후반기 의장 · 부의장	
			
의장 : 김 상 현	부의장 : 이 수 영	의장 : 홍 양 일	부의장 : 김 민 자

수 정 구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문 길 만 신흥1동	• 분당청년회의소 회장 • 신흥1동 바르게살기위원장 • 신흥1동 동정자문위원회 위원 • 호남향우회 부위원장 • 시민연대환경365중앙회 부위 원장 • 제4 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4 대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유 철 식 신흥3동	•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상학과 졸업 • 공군사관학교 3학년 중퇴 • 국제와이즈맨 산성클럽회장 • 한국광고사업협회 성남시지회장 • 고도제한 범시민대책위 홍보국장 • 성남초등학교 학부모운영위원 • 한나라당 수정지구당 부위원장 • 제4 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4 대 전반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홍 준 기 신흥2동	• 건국대학교 상학과 졸업 • 사랑의봉사회 자문위원 • 수정새마을금고 이사 • 사)한국노인복지회 자문위원 • UN세계평화교육자 국제연합 한국대표부 환경전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위원 • 제4 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4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이 상 호 태평1동	• 성화대학 체육학과 졸업 • 성화대학체육학과 명예교수 • 한국초등학교 태권도연맹 국제분과 위원장 • 모란로타리클럽 리틀렉터위원장 • 한나라당 수정지구당부위원장 • 성남문화원 이사 • 성남시 체육회 이사 •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후원회 부회장 • 제4 대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표 진 형 태평2동	• 제3 대 성남시의회 의원 • 경기도행정모니터 요원 • 중앙청소년 지도위원장 • 바르게살기운동 수정구 사무국장 • 새천년민주당 수정지구당 부 위원장 • 수진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태평2동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제4 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4 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김 완 창 태평3동	• 태평3동 체육진흥회 회장 • 성남시 바르게살기운동협회 고문 • 성남시 충청향우회 고문 • 성남시시민화합협의회 고문 • 성남시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 • 국민은행 태평3동지점 명예 지점장 • 한나라당 수정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한 선 상 태평4동	• 서울 산업대학교 재학 • 태평4동 자율 방범 대장 • 금빛 초등학교 운영 위원장 • 서성남 로타리 클럽 국제봉사 위원장 • 성남 지역 발전 연구소 간사 • 제3대 성남시 의회 의원 • 남도 라이온스클럽 이사 • 제4대 전반기 도시 건설 위원장
 홍 경 표 수진1동	• 제3대 성남시 의회 의원 • 새천년 민주당 수정 지구당 부원장 • 중부 새마을 금고 이사 •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성남시 행정정보 공개심의 위원회 위원 • 충청도민회 자문위원 • 비전성남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 제4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4대 후반기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
 정 응 섭 수진2동	• 한나라당 수정지구당 부 위원장 • 한국 자유 총연맹 수진2동 위원장 • 성남재향군인회 수진2동 위원장 • 공직자 윤리 위원회 심의위원 • 동성남 청년 회의소 회장 • 중앙정보통신(주) 대표이사 • 제4대 전반기 자치 행정위원회 간사
 윤 춘 모 단대동	• 숭실대학교 정치외교 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 과정수료 • 사회봉사 후원회 이사 • 송림 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숭실대 ROTC 26기 동기회장 • 단대동 주민자치 위원회 고문 • 하람어린집 대표 • 제4 대 전반기 사회복지 위원회 간사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장 윤 영 산성동	• 한양 공과대학 재료공학과 졸업 • 경원대 행정학 석사과정(도시개발 전공 수료 • 행정개혁시민연합 집행위원 • 성남환경운동연합 추진위원 • 동성남 JC국제분과 위원장 • 성남문화원 기획실장 • 컴퓨터사용자 협의회 이사 • 제4대 전반기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박 광 봉 양지동	• (주)은행시장 대표이사 동성남로타리클럽 회장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재향군인회 성남시부회장 화랑무공훈장 수훈 한나라당수정지구당 부위원장 제3대 성남시의회의원 제4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제4대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
 홍 용 기 복 정 동	• 서울 실업고등학교 축산과 졸업 • 이천상공 회의소 근무 • 복정동 주민 자치협의회 부위원장 • 복정동 체육협의회 회장 • 수정구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 • 복정동 방범협의회 위원 • 제4 대 전반기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 • 제4 대 후반기 도시건설 위원회 간사
 이 수 영 신촌 · 고등 · 사송동	• 성남시시정자문위원회 위원 • 성남청년회의소 회장 • (사)한국지방자치연구원 수석연구원 • 민주평통자문회의 지방행정위원회 위원장 • 왕남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범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제3대 후반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4대 전반기 성남시의회 부의장

중 원 구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강 태 식 성남동	• 우송 대학교 관광 호텔 경영학부 재학 • 성남동 주민 자치위원회 고문 • 성남시 재향군인회 부회장 • 중앙초등학교 체육진흥회 고문 • 중원구 단체장협의회 회장 • 한국 음식업 중앙회 중원구 지부장 • 모란 홍능갈비 대표 • 제4대 전반기 자치 행정 위원회 위원
 김 유 석 중동	• 경원대 행정 대학원 복지학과 졸업 • 성남시 학원 연합회 정책부 회장 • 남부 경찰서 청소년 지도 위원회 감사 • 성일여고 운영 위원회 위원장 • 성남시 사랑의 손 봉사단 사무 국장 • 미래 제일 학원장 • 제4대 전반기 도시 건설 위원회 간사
 염 동 준 금광1동	• 벌교 상업 고등학교 졸업 • 제3대 전반기 성남시 의회 의장 • 시민 화합 협의회 회장 • 호남 향우회 회장 • 새천년 민주당 중원 지구당 부 위원장 • 미군 기지 성남 이전 반대 공동 대책 위원장 • 제4대 전반기 경제 환경 위원회 위원
 신 현 갑 금광2동	• 성남시 의회 제2 · 3 대의원 • 천주교 단대동 성당 총회장 • 새천년 민주당 중원 지구당 부 위원장 • 중앙 신용 협동 조합 이사 • 예술원 사진관 대표 • 제4대 전반기 사회 복지 위원회 위원
 김 상 현 은행1동	• 안동 사범학교(본관) 졸업 • 은행1동 새마을 금고 이사장 • 성남 교육청 교육 행정 자문위원 • 제3 · 4대 현대 아파트입주자 회장 • 국제 라이온스지역 지대 위원장 • 중부 초등학교 운영 위원장 • 제3대 후반기 행정 경제 위원장 • 제4대 전반기 성남시 의회 의장
 최 화 영 은행2동	• 철도 전문대학 졸업 • 은행 초등학교 체육 진흥 회장 • 은행중학교 육성회장 • 상원 초등학교 축구부 육성회장 • 성남시 학원 연합회 회장 • 제4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제4대 전반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방 익 환 상대원1동	• 바르게 살기 운동 성남시 협의 회장 • 중원 초등학교 운영 위원장 • 상대원1동 방위 협의회 위원 • 쓰레기 소각장 주민 협의회 위원 • 대한 적십자 경기지사 대의원 • 제3 대 성남시 의회 의원 • 제4 대 전반기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장
 지 관 근 상대원2동	• 한신 대학교 사회 복지 학과 졸업 • 성남시 사회복지 협의회 회장 • 성남시 기초생활 보장 위원회 위원 •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회 • 환경분과 위원장 • 대원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성남 환경 운동 연합회 자문위원 • 사회 복지사(자격취득) • 제4대 후반기 사회복지 위원회 간사
 김 기 영 상대원3동	• 숭신 여자고등학교 졸업 • 푸른 학교 학부모 회장 • 대일 초등학교 운영 위원 • 쓰레기 소각장 주민협의회 위원 • 민주 노동당 중원지구당 부 위원장 • 독거 노인 반찬 봉사단 운영 • 함께하는 주부 모임 부회장 • 제4대 전반기 운영 위원회 위원 • 제4대 전반기 도시 건설 위원회 위원



김 민 자
하대원동

- 경원 전문대학 졸업
- 은행 로타리 클럽 장학 위원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중원구 지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 성남시 여성특별 위원장
- 새정치 여성연대 성남시지 회장
- 성남시 태권도 연합회 자문 위원
- 하대원동 주민 자치 위원회 고문
- 제4대 전반기 의회 운영 위원회 위원
- 제4대 후반기 성남시 의회 부의장

분 당 구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최 진 섭
정자1동

- 경희대학교 조경학과 졸업
- 국립공원협회 연구위원
- 한나라당 분당 을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 공원 휴양학회 감사
- 월간 '환경과 조경' 객원기자
- 제4대 전반기 의회 운영 위원회 위원
- 제4대 전반기 자치 행정 위원회 위원



오 인 석
분당동

- 중앙대학교 사학과 졸업
- 민주평통자문회의 성남지회장
- 분당 입주자 대표회장협의회 자문위원
- 성남 환경 운동 연합회 자문위원
- 중앙 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2 · 3대 성남시의회 의원
- 제3대 전반기 성남시 의회 부의장
- 제4대 전반기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



김 미 라
정자2동

-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졸업
- 분당 청년회 교육 국장
- 분당 푸른학교 대표
- 미군 기지 성남 이전반대와 우리땅 되찾기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민주 노동당 분당 을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전반기 사회복지 위원회 위원
- 제4대후반기 사회복지 위원회 위원



홍 양 일
수내1동

- 고려 대학교 법과 대학 3년수료
- 제2,3 대 성남시 의회 의원
- 제2대 전반기 성남시 의회 부의장
- 분당구청 구정 자문위원 위원장
- (주)동진산업 대표이사
- 단일의료(주)이사
- 초림 초등학교 운영 위원장
- 제4대 전반기 경제 환경 위원회 위원
- 제4대 후반기 성남시의회 의장



이 형 만
정자3동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한나라당 분당을지구당 부위원장
- 단국대학교공과대학 학생회장
- 성남시대학생연합회 초대회장
- 성남시테니스협회 부회장
- 정자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장
- 제4대 전반기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제4대 전반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최 윤 길
수내2동

- 강릉 상업고등학교 졸업
- 분당라이온스클럽 직전회장
- 성남시 축구 협회 이사
- 성남시 골프 협회 총무 이사
- 재성남 강원도민회 부회장
- (주)고려케미칼 대표 이사
- 제4대 전반기 사회복지 위원회 위원



김 숙 배
서현1동

- 서울 문리사대 중퇴
- 한나라당 분당 갑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 복지재단 중탑복지관운영 자문위원
- 수원지법 성남 지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사)한국여성 유권자연맹 경기지부 회장
- 서현중학교 지역위원
- 제4대 전반기 사회복지 위원회 위원장
- 제4대 후반기 사회복지 위원회 위원

성 명	학·경력 및 소속위원회	성 명	학·경력 및 소속위원회
 박권종 수내3동	• 동서울 대학 통신공학과 졸업 • 한나라당 분당 을지구당 부위원장 • 수내 초등학교 운영 위원장 • 분당 청년 회의소 회장 • 성남서고 제4회 동창 회장 • 수내3동 자율 방범 회장 • 제3대 성남시의회 의원 • 제4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경제환경 위원장	 윤광열 서현2동	• 서울산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성남시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총간사및 부회장 • 새천년민주당 분당갑지구당 수석부위원장 • 성남시 아동 보육 위원회 위원 • 열린 우리당 분당 갑지구당 운영위원장 • 제3대 성남시의회 의원 • 성남시 태권도 협회 운영위 원장 • 분당 결식아동 후원회 회장 • 제4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사회복지 위원장
 이영희 이매1동	• 단국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 한나라당 분당 갑지구당 부 위원장 • ROTC중앙회 부회장 • 동산 라이온스 클럽 이사 • 분당 충청향우회 부회장 • 이매1동 주민 자치 위원회 고문 • 리더스 해운(주)대표이사 • 제4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경제환경 위원회 간사	 지수식 야탑3동	• 대림 공업 대학 졸업 • 삼영전자(주) 5~8대 노조위원장 • 한국 노총 금속노련 부위원장 • 성남 생활 체육 족구 연합회 회장 • 삼영 전자(주) 회사원 • 제4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
 김철홍 이매2동	• 제2,3대 성남시의회 의원 • 법무부 범죄 예방 위원회 위원 • 민주 평화 통일 자문회의 위원 • 재성남 강원도민회 고문 • 한나라당 분당갑지구당 부위원장 • 경성(주)대표이사 • 제4대 전반기 의회 운영 위원회 위원 • 제4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경제 환경 위원회 위원	 김대진 판교·운중동	• 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제3대 성남시 의회 의원 • 판교동 예비군 동대장 • 낙생 농협 제8·9대 조합장 • 분당경찰서 방범 연합 회장 • 한국 자유총 연맹 성남시 지부장 • 판교지구 개발 추진 위원장 • 제4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제4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민동익 야탑1동	• 한나라당 분당 갑지구당 부위원장 • 분당 신용 협동조합 이사장 • 재성남 충청 향우회 부회장 • 분당 경찰서 행정 발전 위원회 위원 • 명동 식품 대표 • 미림 CME(주) 회장 • 제4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치행정위원회 위원	 이호섭 금곡동	• 수원 삼일상업고등학교 졸업 • 금곡동 체육 진흥회 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분당구협의회 회장 • 제3대 성남시 의회 의원 • 한나라당 분당을 지구당 부위원장 • 제주 목장 대표 • 제4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경제환경 위원회 위원 • 제4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경제환경 위원장
 장대훈 야탑2동	•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 한나라당 분당갑지구당 부위원장 • 하탑 초등학교 운영위원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성남지회 이사 • 성남서고 총동문회 부회장 • 성남 시민의모임 운영위원 • LG프라자 대표 • 제4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 위원장	 전이만 구미동	• 고려대학교 4년졸업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불곡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분당고압송전선 지중화를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주)대정실업 대표이사 • 제3대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제4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제4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집필 趙潤濟 성남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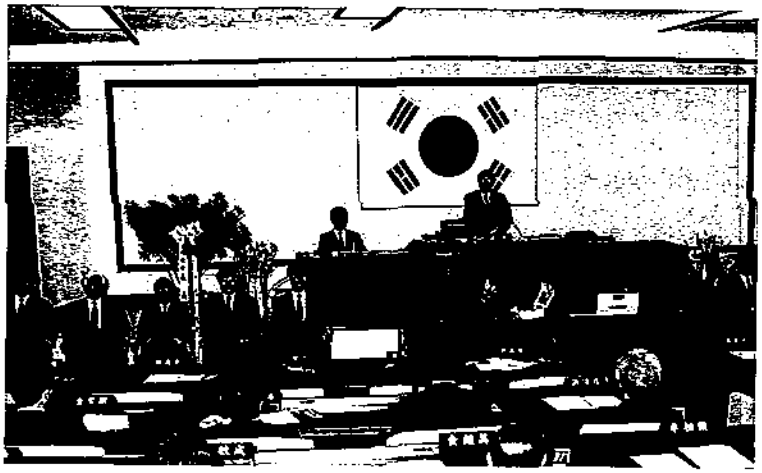
제3절 성남시의회의 조직과 활동

1. 성남시의회 조직

1) 성남시의회 기구도

성남시의회는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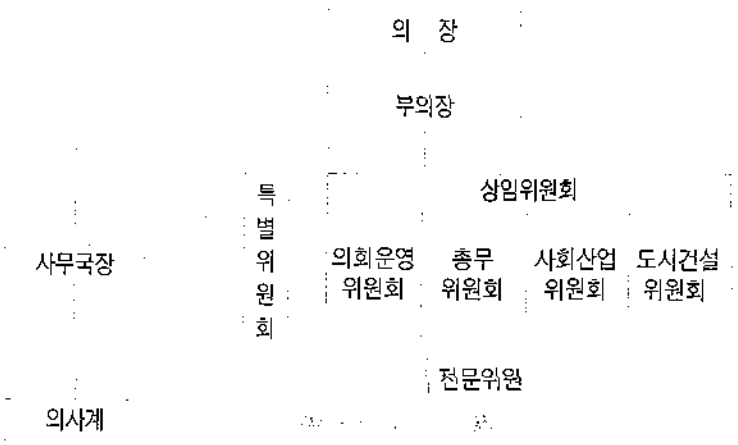
1991년 4월15일 45명의 의원(수정구 22명, 중원구 23명)들이 개원한 제1대 성남시의회는 의장, 부의장, 4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그리고 사무국(의사계) 및 전문위원 등의 체계를 갖추어 출범하였다.



<사진 3-7-61> 성남시 의회 전체 회의

제1대 성남시의회의 기구와 조직은 다음의 [그림 7-1]과 같다.

[그림 7-1] 제1대 성남시의회 기구 및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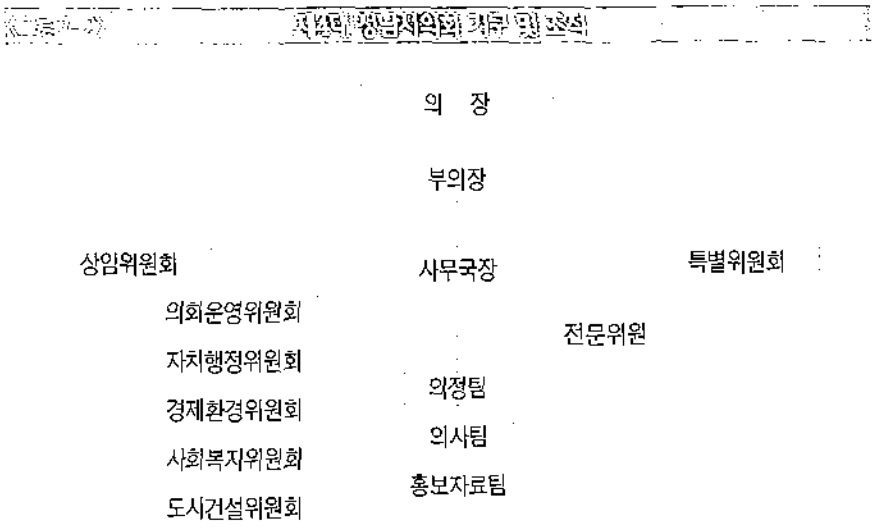


이러한 조직편제는 성남시의회 제1대를 기점으로 하여 1995년 7월 14일 50명의 의원(수정구 17명, 중원구 16명, 분당구 17명)들이 개원한 제2대와 1998년 7월 14일 40명의 의원(수정구 13명, 중원구 10명, 분당구 17명)들이 개원한 제3대 성남시의회에 이르기까지 그 골격을 유지한 채 의원 정수의 변경, 상임위원회의 확대와 축소, 그리고 의회 사무국 기구 개편 및 인력의 증원 등이 있었다.[145]

2002년 7월 9일 41명의 의원(수정구 14명, 중원구 10명, 분당구 17명)들이 개원한 제4대 성남시의회의 2004년 1월 현재 기구와 조직은 다음과 같다.[146]

145) 성남시의회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여 개원하고 있다. 제1대 성남시의회의 후반기 개원은 1993년 4월 12일, 제2대는 1997년 1월 9일, 제3대는 2000년 7월 5일 각각 개원하였다.

146) http://www.sncouncil.com(성남시의회 홈페이지).



147) 지방의회 의장단의 선출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① 지방의회가 의원 중에서 무기명무표로 호선하는 방법, ② 지방의회 의원선거 시 의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법, ③ 주민의 직접 선거로(또는 지방의회가) 선출한 자치단체장이 의장을 겸임하게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첫째의 예로는 우리나라와 일본, 둘째의 예로는 미국의 워싱턴 특별구, 셋째의 예로는 독일의 일부 읍·면, 미국·캐나다의 일부 시, 그리고 프랑스의 시·읍·면 등을 각각 들 수 있다. 한편 부의장에 관해서는 이를 두는 나라도 있고, 필요에 따라 임시의장을 두는 나라(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전자의 예로는 프랑스(약간명), 캐나다의 몬트리올 도시공동체(1명), 뉴욕시(1명), 일본(1명)을, 후자의 예로는 워싱턴특별구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장단은 의장과 부의장 약간명으로 구성되며, 선거권자의 직접 선출이 아닌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2) 성남시의회 의장단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장단은 의장과 부의장 약간명으로 구성되며, 선거권자의 직접 선출이 아닌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147] 의장단의 임기는 당초 4년으로 규정했으나, 1956년 2월의 지방자치법 개정시 1년으로 단축되었다가 1958년 12월의 개정에 의해 2년으로 연장되었다.

성남시의회는 의장단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여 선출하고 있는데, 제1대 전반기·후반기 의장에 손영태(孫榮泰)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2

대 전반기 의장에 강부원(姜富遠) 의원, 후반기 의장에 김영봉(金永奉) 의원이 선출되었다. 제3대 전반기 의장에는 염동준(廉東俊) 의원이, 후반기 의장에는 박용두(朴鎔斗)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4대 전반기 의장에 김상현(金常顯) 의원, 후반기 의장에 홍양일(洪良一) 의원 등이 선출되었다.

성남시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의회 대표권, 의사 정리권, 질서 유지권 및 사무 감독권 등의 권한을 가지며,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구성방식을 보면 ① 법률로서 규정하는 방식, ② 인구수에 따른 상임위원회 수를 법률로 정해 놓고 조례로 설치하는 하는 방식, ③ 집행부가 제출한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지방의회가 회기 중에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방식, ④ 자치헌장으로 규정하는 방식 등이 있다. 이러한 방식 중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조례에 의해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사진 3-7:62> 상임 위원회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위원회 수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의원정수 13인 이상 30인 이하인 의회는 3개의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 포함), 31인 이상 40인 이하인 의회는 4개 이내의 상임위원회, 41인 이상인 의회는 5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의회에 8개, 그 외의 시 · 도의회에는 4~7개, 그리고 시 · 군 · 구 의회에는 3~5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148]

성남시의회는 제1대에서 4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제2대에는

148)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20조의 2, 별표 7; 정세욱(2000),『지방자치학』, 법문사, 520쪽.
외국 지방의회의 경우 위원회의 수는 캐나다의 몬트리얼시의회 집행위원회, 독일의 Kreis위원회, 프랑스의 도의회 집행위원회와 같이 1개를 두고 있는 나라, 일본과 같이 인구비례원칙에 의하되 상한을 두는 나라, 그리고 미국의 일부 시처럼 지방의회가 임의로 그 수를 정하는 나라(시) 등 매우 다양하다. 대체로 유럽 제국의 지방의회 중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더라도 1개만을 설치하는 곳이 많으나, 미국의 지방의회는 의원수에 비하여 위원회를 많이 설치하는 점이 특징이다. 예컨대, 워싱턴 북빈구의회의 경우 의원수가 13명임에 10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뉴욕시의회의 의원수는 51명인데도 21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의회는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기능을 다루기 위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비하여 광역자치단체 의회는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관한 보완적 기능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의원정수의 증가로 5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제3대에서는 의원 정수의 감소로 4개의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었다가 현재 제4대에 와서는 5개의 상임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이다.

지방의회에 설치되는 위원회는 기초 자치단체 의회와 광역자치단체 의회에 따라 다르다. 대체로 기초자치단체의회는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기능을 다루기 위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비하여 광역자치단체 의회는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관한 보완적 기능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49]

과거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위원회 특성을 보면 ① 광역자치단체와 대도시의회 뿐만 아니라 소도시, 읍·면 의회에도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② 주민의 편익증진과 생활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의 개발 등 본질적인 업무를 다루는 위원회보다는 조직내부의 관리적 성격을 가진 위원회의 수가 많았으며,[150] ③ 광역자치단체 의회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에 설치된 위원회의 종류가 유사했으며, ④ 위원회별로 정원의 차이가 많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성남시의회 상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149)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캐나다 몬트리얼 도시공동체인데, 이 곳 의회의 기능과 그 구역 내 29개 시 의회의 기능간에는 중복되는 것이 없다.

150) 전자의 본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로는 경제환경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이 있으며, 후자의 관리적 성격을 가진 위원회로는 내무위원회, 정계·자격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이 있다.

(1) 제1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제1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는 1991년 4월16일 개최된 제 1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의회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총 4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었는데,[151] 위원회별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10명 내외의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제1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및 위원회별 소속의원 현황은 다음의 [표 7-114]과 같다.

151) 성남시의회(2001).『성남시의회사』, 성남시의회, 79쪽.

〈표 7-114〉 제1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운영

구분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박용두	강부원	김종운	김상현	나필주	이희재	남장우	남장우
간사	김일도	김일도	최명근	최명근	최병성	최병성	홍순두	홍순두
위원	최명근		장두영		성규삼		조영이	
	송태섭		이영성		김상문		박용두	
	강대기		조명천		정재의		정수웅	
	조영이		윤기중		박선태		김종안	
	홍순두		이건영		정상규		윤민섭	
	김종기		박치선		김영봉		김동성	
			한백찬		김종안		이용배	
			송태섭		강대기		나철재	
							박용승	
계	9명		11명		11명		11명	

(2) 제2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제2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는 1995년 7월 14일 개최된 제40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의회 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총 5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었다.[152]

[표 7-115]와 같이 제1대 의회에 비해 위원회 수가 1개 증가되었는데, 이는 의원 정수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152) 성남시의회, 앞의 책, 492-493쪽.

〈표 7-115〉 제2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운영

구분	의회운영 위원회		기획총무 위원회		재무경제 위원회		보사환경 위원회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장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박용승	장명섭	김용준	최명근	정수웅	정재의	남장우	남장우	권태홍	권태홍
간사	이태순	신현갑	박찬범	김미희	이인순	김두일	신현갑	이수영	김종수	김종수
	최명근	나운채	손영태	박찬범	최연옥	박용두	김삼근	박용승	박용두	강규식
	감상현	박찬범	김미희	손영태	정재의	나운채	전준민	김종윤	장명섭	장명섭
위원	안정연	강규식	윤기증	윤기증	강규식	정수웅	김종윤	권찬오	홍순두	홍순두
	최연옥	권찬오	염동준	염동준	나운채	김삼근	이수영	신현갑	김세환	김세환
	김삼근	최병원	최병성	최병원	김영봉	전준민	권찬오	김지숙	오인석	안종대
	김숙배	김상현	김상현	김상현	김지숙	이인순	김원희	홍양일	최오균	오인석
	김두일	강부원	최명근	김용준	홍양일	강부원	김숙배	최병성	김동환	장영춘
	김동환	오인석	안종대	이태순	이태순	김원희	강주동	김숙배	장영춘	석규섭

구분	의회운영 위원회		기획총무 위원회		재무경제 위원회		보사환경 위원회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	오인석 최오균	강주동 임봉규	안정연 유인갑	안정연 유인갑	김철홍 박용승	최연옥 임봉규	임봉규 정재의 김두일	강주동 김철홍 김준식	석규섭 김준식	정재의
계	12명	12명	12명	12명	12명	1명	13명	13명	12명	11명

(3) 제3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153) http://sn.council.or.kr/index_member.html(성남시의회 홈페이지).

제3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는 1998년 7월15일 개최된 제64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총 4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었다.[153]

[표 7-116]과 같이 제2대 의회에 비해 위원회수가 1개 감소되었는데, 이는 의원정수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표 7-116] 제3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현황

구분	의회운영 위원회		행정경제 위원회		사회복지 위원회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장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나운채	우종수	이완구	김상현	신현갑	이수영	김종수	석규섭
간사	박문석	장윤영	방영기	박권종	김미희	김두일	김대진	홍방희
	우종수	홍경표	박용두	홍경표	최유석	최유석	나운채	나운채
	최유석	방익환	표진형	이근연	한선상	김미희	우종수	우종수
	표진형	이태순	홍경표	전준민	김종윤	신현갑	이근연	표진형
	이근연	이계남	전준민	장윤영	이수영	이계남	장윤영	한성상
위원	전준민	최병성	김상현	염동준	김두일	홍양일	권찬오	김선규
	이수영	홍양일	강부원	강부원	김민자	최병성	오인석	권찬오
	강부원	이호섭	방익환	방익환	최병성	윤광열	홍방희	오인석
	김민자	나운채	이계남	김민자	윤광열	김철홍	장영춘	이완구
	박권종	박문석	박권종	이태순	김철홍	이호섭	박문석	박희동
	윤광열	김대진	홍양일	방영기	박희동	박광봉	석규섭	박문석
	나운채	우종수	이태순	전이만	이호섭	김숙배	전이만	김대진
	박문석	장윤영	이완구	김상현	신현갑	이수영	김종수	석규섭
			방영기	박권종	김미희	김두일	김대진	홍방희
계	12명	12명	13명	13명	13명	13명	13명	13명

(4) 제4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2004년7월현재)

제4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는 2002년 7월10일 개최된 제 99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의회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총 5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었는데, [표 7-117]과 같이 제3대 의회에 비해 위원회 수가 1개 증가되었다.[154]

[표 7-117] 제4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현황

구분	의회운영 위원회		자치행정 위원회		경제환경 위원회		사회복지 위원회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장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홍경표	전이만	방익환	박광봉	박권종	이호섭	김숙배	윤광열	한선상	김대진
간사	유철식	김완창	정응섭	이상호	이영희	문길만	윤춘모	지관근	김유석	홍용기
	표진형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문길만	장윤영	유철식	유철식	홍준기	홍준기
	최진섭	강태식	표진형	김완창	장윤영	이수영	최화영	윤춘모	홍용기	한선상
	문길만	이수영	김완창	홍경표	이수영	염동준	신현갑	신현갑	김기명	김유석
	김민자	박권종	홍경표	정응섭	염동준	김상현	지관근	최화영	오인석	김기명
	김철홍	이영희	박광봉	강태식	김민자	김민자	최윤길	최윤길	장대훈	오인석
	최화영	신현갑	강태식	방익환	홍양일	박권종	김미라	김미라	지수식	장대훈
위원	이형만	최윤길	최진섭	최진섭	김철홍	이영희	이형만	이형만	김대진	지수식
	홍준기	김숙배	민동익	민동익	이호섭	김홍철	윤광열	김숙배	전이만	전이만
	김기명	김유석	방익환	박광봉	박권종	이호섭	김숙배	윤광열	한선상	김대진
	전이만	오인석	정응섭	이상호	이영희	문길만	윤춘모	지관근	김유석	홍용기
	홍경표	전이만								
	유철식	김완창								
계	12명	12명	10명	10명	10명	10명	13명	13명	12명	11명

154) http://sn.council.or.kr/index_member.html(성남시의회 홈페이지).

2. 성남시의회의 역할과 활동

1) 성남시의회의 역할

성남시의회는 정책 결정자로서의 역할, 정책 문제의 발견 제안자로서의 역할, 집행의 감시 · 독려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분쟁 조정자와 민원 해결자로서의 역할 등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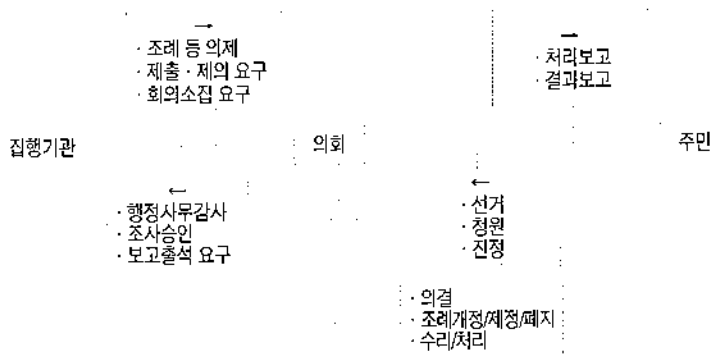
성남시의회는 정책 결정자로서의 역할, 정책 문제의 발견 제안자로서의 역할, 집행의 감시 · 독려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분쟁 조정자와 민원 해결자로서의 역할 등을 수행한다.

정책 결정자로서의 역할은 조례안 의결, 예산안 확정, 사용료 분담금 등의 부과 · 징수 등 중요 정책에 대한 심의 · 의결과 각종 동의에 대한 승인 등을 수행하는 것이고, 정책문제의 발견 제안자로서의 역할은 각종 건의안, 결의안, 청원채택과 질문 · 질의, 감사, 그리고 조사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집행의 감시 · 독려자로서의 역할은 행정사무 · 감사 및 조사, 자료요구 및 출석요구, 지방행정에 대한 질문 등을 수행하는 것이고, 분쟁조정자와 민원 해결자로서의 역할은 지역주민 민원해결(진정서 처리)과 청원심사 · 채택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다음의 [그림 7-3]은 이상과 같은 성남시의회의 역할을 종합하여 도시(圖示)한 것이다.

성남시의회는 시(市) 조례를 제정 · 개정 및 폐지하는 자치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 · 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재정권 등의 의안처리 권한을 가지며,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청원수리 및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처리한다.

《그림 7-3》 성남시의회의 역할



※ 도표안에 "→"표는 업무처리 추진순서임. 이하 같음.

(1) 의안 처리

성남시의회의 의안은 크게 조례안과 예산안 처리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먼저 전반적인 성남시의회의 의안처리과정을 보면 [그림 7-4]와 같이 성남시장 또는 성남시의회 의원 1/5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접수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면 의사담당보고와 제출 · 발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게 된다. 그 후 해당 위원회 심사를 걸쳐, 본회의에

서 의결하게 되면, 성남시장은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공포 또는 재의요구하게 되어 있다.

[그림 7-4] 성남시의회의 의안처리절차

			(회부)		(결과보고)		(이송)		
제출 발의	→	접수	→	본회의 상정	→	위원회심사	→	본회의 의결	→	공포 또는 재의요구

조례란 성남시의 법률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조례안은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있는 반면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있다. 다만 시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등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한다.

성남시의회의 조례제정절차를 보면 [그림 7-5]와 같이 성남시장 또는 성남시의회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발의되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리고 시의회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성남시장에게 이송하면, 성남시장은 20일 이내에 조례를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155]

[그림 7-5] 성남시의회 조례제정절차

발의	→	의결	→	이송	→	공포

예산이란 성남시의 한 해 동안 살림규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산안은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 확정하며,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성남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 · 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다.

먼저 성남시의회의 예산안 처리 절차는 [그림 7-7]과 같이 성남시장이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성남시의회에 예산안을 편성 · 제출하면, 성남시장이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성남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있게 된다. 그 후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예산을 의결하여, 의결된 예산을 3일내에 성남시의회 의장이 성남시장에게 이송하게 되면 확정된다.

155) 성남시 조례의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후에 발생한다. 그러나 성남시의회의 의결에 대해 성남시장이 재의요구를 하게 되면 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게 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그림 7-6] 성남시의회의 예산안 처리 절차

예산안 편성 · 제출 → 제안설명 → 상임위 예비심사 → 예결위 종합심사 → 본회의 심의 · 의결 → 예산확정

결산 승인 절차는 [그림 7-7]과 같이 성남시장이 성남시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말까지 성남시의회에 결산승인요구서를 제출하면,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를 거친 후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승인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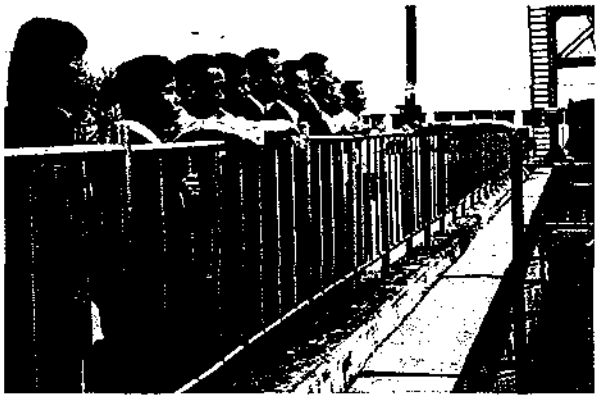
[그림 7-7] 성남시의회의 결산 승인 절차

결산승인 요구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예결위원회 종합검사 → 본회의심의 및 의결승인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 사무를 감사 및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지 확인, 서류의 제출과 시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 ·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2) 행정 감시권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 사무를 감사 및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지 확인, 서류의 제출과 시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 ·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이러한 성남시의회의 행정 감시권에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 사무조사가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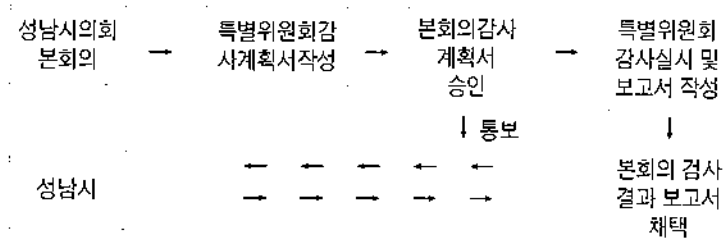
<사진 3-7:63> 탄천 하수처리 행정감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중 7일 이내에 시정 전반을 감사할 수 있으며, 행정 사무조사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먼저 성남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절차는 [그림 7-9]과 같이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감사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 특별위원회에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한 후 성남시의회 본회

의에서 감사 계획서가 승인되면 성남시에 통보하게 된다. 그 후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성남시에 통보하고, 성남시는 감사처리 결과를 성남시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그림7-8〉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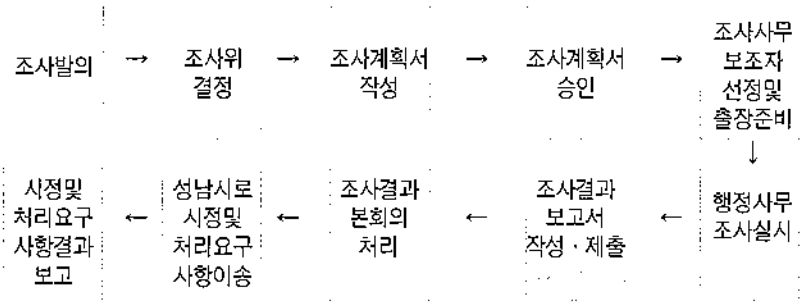


성남시의회의 행정 사무조사 절차는 [그림 7-9]와 같이 성남시의회 재적 의원 1/3이상의 조사 발의가 있게 되면 본회의에서 조사위원회를 결정한다. 그리고 조사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조사사무 보조자 선정 및 현지 출장 준비를 거쳐 보고 서류제출중인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고, 행정 사무조사를 실시한다. 그 후 특별위원회에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면, 성남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조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채택하여 성남시에 이송한다. 그리고 성남시에서는 성남시의회가 요구한 시정 및 처리 요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사진 3-7 : 64〉 행정감사

〈그림7-9〉 성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절차



(3) 자율권

성남시의회는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사항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이를 자율권이라고 하는데, 자율권에는 ① 임시회 소집, 개회, 휴회, 폐회, 회기 결정, ② 회의규칙 등 의회운영 관련 규칙 제정, ③ 위원회 구성 및 의안발의권, ④ 의장단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그리고 ⑤ 의원의 자격 · 징계 결정권 등이 있다.

(4) 기타 권한

그 밖에 성남시의회에서는 ①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② 기금의 설치, 운용,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③ 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처분, ④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그리고 ⑤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의결한다.

(5) 성남시의회의 회의 운영

성남시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구분되는데, 정례회는 연 2회 35일 이내로 집회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매 회기 15일 이내로 소집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쳐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먼저 정례회는 매년 7월5일에 집회하되,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정례회는 의결로 9-10월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는데, 집회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 집회된다.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는 35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개최되어야 하는데,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승인 등을 처리하며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의결, 행정 사무감사, 기타 부의 안건 등을 처리한다.

한편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 시에 집회되고, 15일 이내로 열리며 주요 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측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하거나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의 심사 등을 처리한다.

2) 제1대 성남시의회의 의정활동 실적(1991. 4.15 ~ 1995. 6.30)

(1) 회의 현황

1991년 4월 9일 지방자치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해서 성남시장이 최초 임시 집회일을 공고하였고, 성남시의회는 4월 15일 오전 10시 원(院) 구성을 위한 최초 집회를 가졌다.[156]

이 날 회의에서는 등록의원 수, 집회 일시 및 소집 요구장 등에 대한 이익수(李益洙)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었으며, 이어 상정된 부의안건은 의장, 부의장 선거에 관한 건이었다.[157]

제1대 성남시의회는 본회의 37회를 비롯하여 의회운영위원회 26회, 총무위원회 22회, 사회사업위원회 20회, 도시건설위원회 21회 등을 비롯하여 각 위원회 및 분과별 회의가 열렸다. 행정 사무감사는 각 위원회 및 분과별로 이루어졌다.

156) 원 구성 이전의 의원 좌석은 단상을 향한 앞일 우측부터 구청법, 선거구별 최다득표순으로 배치하여 의원활동에 임하게 되었다.

157) 성남시의회(2001),「성남시의회사」, 성남시의회, 70쪽.

〈표 7-18〉 제1대 성남시의회의 의정활동

회의명	개최횟수	회의명	개최횟수
본회의	37회	내무분과	1회
의회운영위원회	26회	산업경제분과	1회
총무위원회	22회	보건사회분과	1회
사회산업위원회	20회	도시분과	1회
도시건설위원회	21회	건설분과	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회	행정사무감사	각 위원별 감사
기획문공분과	1회	특별위원회	13개

* 참조: http://www.sncouncil.com(성남시의회 홈페이지

(2) 의안처리 활동 현황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의정활동을 벌인 제1대 성남시의회의 의안처리 현황을 보면 총 370건의 의안 처리 접수 건수 중 369건을 처리하였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1991년의 성남 시민헌장조례개정안, 1992년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1993년의 성남시 건축조례 개정(안), 1994년의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총 286건의 조례안 처리를 비롯해서 예산안 처리 12건, 의견 청취 30건, 결의안 7건 등이다.

제1대 성남시의회의 의안처리 현황을 각 연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 7-119] 및 [표 7-120]와 같다.[158]

158) 성남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1995년 6월까지로 되어 있으나, 성남시의회 활동실적은 1994년까지만 제시하고 1995년 전반기의 활동실적은 1995년 제2대 성남시의회 활동실적에 포함하였다.

〈표 7-119〉 성남시의회 의안처리 현황(1991~92년)

구분	(1991년) 접수	처리	처리내용 가결 원안	가결 수정	부결	철회	미처리	(1992년) 접수	처리	처리내용 가결 원안	가결 수정	부결	철회	미처리
합계	85	84	-	-	-	-	-	124	124	-	-	-	-	-
예산안	-	-	-	-	-	-	-	6	6	-	-	-	-	-
결산안	1	1	-	-	-	-	-	1	1	-	-	-	-	-
조례안	76	76	-	-	-	-	-	76	76	-	-	-	-	-
청원안	2	1	-	-	-	1	1	1	1	1	-	-	-	-
건의안	-	-	-	-	-	-	-	3	3	-	-	-	-	-
결의안	-	-	-	-	-	-	-	7	7	-	-	-	-	-
의견청취	-	-	-	-	-	-	-	24	24	-	-	-	-	-
기타	6	6	-	-	-	-	-	6	6	-	-	-	-	-

* 자료: 성남시의회(1992 · 1993), 『의정백서(1991 · 1992)』

〈표 7-120〉 성남시의회 의안처리 현황(1993~94년)

구분	(1993년) 접수	처리	처리내용 가결 원안	가결 수정	부결	철회	미처리	(1994년) 접수	처리	처리내용 가결 원안	가결 수정	부결	철회	미처리
합계	81	81	-	-	-	-	-	80	80	-	-	-	-	-
예산안	3	3	3	-	-	-	-	3	3	-	-	-	-	-
결산안	1	1	1	-	-	-	-	1	1	-	-	-	-	-
조례안	50	50	-	-	-	-	-	52	52	-	-	-	-	-
청원안	-	-	-	-	-	-	-	1	1	-	-	-	-	-
건의안	5	5	-	-	-	-	-			-	-	-	-	-
의견청취	3	3	-	-	-	-	-	3	3	-	-	-	-	-
기타	19	19	-	-	-	-	-	20	20	-	-	-	-	-

* 자료: 성남시의회(1994 · 1995), 『의정백서(1993 · 1994)』

(3) 행정 사무감사 현황

제1대 성남시의회의 행정 사무감사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는 3일간 실시되었으며, 1994년에는 7일간 실시되었다.

감사 결과를 보면 [표 7-121]에서와 같이 제1대 성남시의회 기간인 4년간에 걸쳐 총 274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와 건의 사항 등을 처리하였다.

(표 7-21) 제1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현황

구분	검사기간	합계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자료요구
1991	12. 5 ~ 12. 7	18	-	-	-
1992	11.30 ~ 12. 2	41	22	19	-
1993	12. 1 ~ 12. 3	69	45	24	-
1994	12. 1 ~ 12. 7	146	104	42	-

3) 제2대 성남시의회의 의정활동 실적(1995. 7. 1 ~ 1998. 6.30)

(1) 회의 현황

제2대 성남시의회는 1995년 7월 1일 개원한 후, 본회의 24회, 의회운영위원회 23회, 기획총무위원회 18회, 재무경제위원회 19회 등 총 104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최초의 회의는 1995년 7월 13일 개최된 제 40회 임시의회로서 50명의 시의원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황재영(黃在英) 사무국장의 보고에 이어 의장, 부의장 선출을 위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었다.[159]

159) 성남시의회, 앞의 책, 486쪽.

(표 7-22) 제2대 성남시의회의 현황

회의명	개최횟수	회의명	개최횟수
본회의	24회	도시건설위원회	17회
의회운영위원회	2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회
기획총무위원회	18회	행정사무감사	각 위원회별 감사
재무경제위원회	19회	특별위원회	1개
보사환경위원회	18회		

* 참조: http://www.sncouncil.com(성남시의회 홈페이지)

(2) 의안 처리 현황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의정활동을 벌인 제2대 성남시의회의 의안 처리 현황을 보면 총 300건의 의안처리접수 건수 중 294건을 처리하였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1995년의 성남시 주거환경 개선지역 조례중 개정 조례안, 1996년의 성남시 도시공원 조례(안), 1997년의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총 188건의 조례안 처리를 비롯하여 의견 청취 20건, 결

160) 성남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1998년 6월까지로 되어 있으나, 성남시의회 활동실적은 1997년까지만 제시하고 1998년 전반기의 활동실적은 1998년 제3대 성남시의회 활동실적에 포함하였다.

의안 18건, 청원안 3건 등이다.

제2대 성남시의회의 의안 처리 현황을 각 연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60]

(표 7-12) 성남시의회 의안처리 현황(1995~96년)

구분	(1995년) 접수	처리	처리내용 가결 원안	가결 수정	부결	철회	미처리	(1996년) 접수	처리	처리내용 가결 원안	가결 수정	부결	철회	미처리
합계	97	97	-	-	-	-	-	115	113	75	27	9	2	2
예산안	4	4	-	-	-	-	-	4	4	1	3	-	-	-
결산안	1	1	-	-	-	-	-	1	1	1	-	-	-	-
소계	63	63	-	-	-	-	-	74	72	47	20	4	1	2
조례안 의원발의	-	-	-	-	-	-	-	6	5	2	2	1	-	1
조례안 의원회발의	-	-	-	-	-	-	-	1	1	1	-	-	-	-
조례안 시장제출	-	-	-	-	-	-	-	67	66	44	18	3	1	1
재의안														
동의(승인)안								4	4	4				
청원안	1	1						2	2	2				
건의안								2	2	2				
결의안								9	9	6		3		
의견청취	7	7						7	7	5		2		
기타	21	21						7	7	6		1		
중요재산 취득처분								5	5	1	4			

* 자료: 성남시의회(1996 · 1997),『의정백서(1995 · 1996)』

구분	접수	처리	처리내용				
			가결		부결	철회	미처리
			원안	수정			
합계	88	88					
예산안	3	3					
결산안	1	1					
소계	53	53					
조례안	의원발의						
	의원회의 발의						
	시장 제출						
제의안							
동의(승인)안							
청원안							
건의안							
결의안	9	9					
의견청취	6	6					
기타	15	15					
중요재산 취득처분							

* 자료: 성남시의회(1998),「의정백서(1997)」

(3) 행정 사무감사 현황

제2대 성남시의회의 행정 사무감사는 1995년에는 5일간 실시되었으며, 1996년과 1997년에는 7일간 실시되었다. 감사결과 [표 7-124]와 같이 제2대 성남시의회기간인 3년간에 걸쳐 총 1,129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와 건의 사항, 그리고 자료 요구 등을 처리하였다.

(표 7-124) 제2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현황

구분	검사기간	합계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자료요구
1995	11.29 ~ 12. 3	345	227	78	40
1996	11.29 ~ 12. 5	359	161	147	51
1997	11.29 ~ 12. 5	425	189	161	75

4) 제3대 성남시의회의 의정 활동 실적(1998. 7. 1 ~ 2002. 6.30)

(1) 회의 현황

제3대 성남시의회는 1998년 7월 1일에 개원하였으며 그 후 4년간 본회의 35회를 비롯하여 의회운영위원회 27회, 운영총무위원회 4회, 기획총무위원회 7회, 행정경제위원회 21회 등 총 10개 위원회에서 141회의 회의가 열렸다.

제3대 성남시의회의 최초 회의는 7월 14일 개최된 제 64회 임시회로서 40명의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낙건(成樂健) 사무국장의 보고에 이어 부의 안건인 의원선서, 의장 선거, 부의장선거 등을 처리하였다.[161]

161) 성남시의회, 앞의 책, 808쪽.

표 7-125 제3대 성남시의회의 현황

회의명	개최횟수	회의명	개최횟수
본회의	35회	보사환경위원회	2회
의회운영위원회	27회	사회복지위원회	21회
운영총무위원회	4회	도시건설위원회	29회
기획총무위원회	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8회
재무경제위원회	2회	행정사무감사	각 위원회별 감사
행정경제위원회	21회	특별위원회	3개
사회경제위원회	7회		

* 참조: http://www.sncouncil.com(성남시의회 홈페이지)

(2) 의안 처리 현황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의정활동을 벌인 제3대 성남시의회의 의안처리 현황을 보면 총 461건의 의안 처리접수 건수 중 459건을 처리하였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1998년의 성남시의회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1999년의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2000년의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안, 2001년의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총 288건의 조례안 처리를 비롯하여 동의(승인)안 32건, 결의안 20건, 의견 청취 17건, 청원안 8건 등이다.

제3대 성남시의회의 의안처리 현황을 각 연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 7- 126] 및 [표 7-127]과 같다.[162]

162) 성남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2002년 6월까지로 되어 있으나, 성남시의회 활동실적은 2001년까지만 제시하고 2002년 전반기의 활동실적은 2002년 제4대 성남시의회 활동실적에 포함하였다.

(표 7-26) 성남시의회 의안처리 현황(1998~1999년)

구분	(1998년) 접수	처리	처리내용 가결 원안	가결 수정	부결	철회	미처리	(1999년) 접수	처리	처리내용 가결 원안	가결 수정	부결	철회	미처리
합계	96	96	67	27	1	1		122	121	68	48	5		1
예산안	4	4	2	2				4	4	1	3			
결산안	1	1	1					1	1	1				
소계	60	60	41	19				85	85	43	37	5		
의원 조례안 발의	11	11	10	1				10	10	4	4	2		
의원회의 발의 시장 제출	49	49	31	18				75	75	39	33	3		
재의안	1	1			1									
동의(승인)안	3	3	2	1				5	5	4	1			
청원안														
건의안	2	2	2					2	2	2				
결의안	7	7	6					6	6	5	1			
의견청취	3	3	1	1 (의견제시)				1	1		1 (의견제시)			
기타	11	11	9	2				14	13	10	3			1
중요재산 취득처분	4	4	2	2				4	4	2	2			

* 자료: 성남시의회(2000),『제3대 전반기 의정백서』.

(표 7-27) 성남시의회 의안처리 현황(2000~2001년)

구분	(2000년) 접수	처리	처리내용 가결 원안	가결 수정	부결	철회	미처리	(2001년) 접수	처리	처리내용 가결 원안	가결 수정	부결	철회	미처리
합계	133	132	94	34	1	2	1	110	110	73	31	6	–	–
예산안	4	4	2	2	–	–	–	5	5	4	1	–	–	–
결산안	1	1	1	–	–	–	–	1	1	1	–	–	–	–
소계	82	81	56	25	–	–	–	62	62	36	22	4	–	–
의원 조례안 발의	11	11	9	2	–	–	–	11	4	4	3	4	–	–
의원회의 발의	–	–	–	–	–	–	–	–	–	–	–	–	–	–
시장 제출	71	70	47	23	–	–	1	51	51	32	19	–	–	–
재의안	1	1	–	–	1	–	–	–	–	–	–	–	–	–
동의(승인)안	14	14	10	2	1	1	–	10	10	6	4	–	–	–
청원안	4	4	2	1(일부채택)	–	1	–	4	4	2	–	2	–	–
건의안	3	3	3	–	–	–	–	2	2	2	–	–	–	–
결의안	3	3	3	–	–	–	–	4	4	4	–	–	–	–
의견청취	7	7	5	2(1은 의견제시)	–	–	–	6	6	5	1 (의견제시)	–	–	–
기타	10	10	10	2	–	–	–	10	10	10	–	–	–	–
중요재산 취득처분	6	6	4	2	–	–	–	6	6	3	3	–	–	–

* 자료: 성남시의회(2002),『제3대 후반기 의정백서』.

(3) 행정 사무감사 현황

제3대 성남시의회의 행정 사무감사는 각 연도별로 모두 7일간 실시되었다. 감사결과 [표 7-128]과 같이 제3대 성남시의회 기간인 4년간에 걸쳐 총 1,152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와 건의 사항, 그리고 자료 요구 등을 처리하였다.

<표 7-28> 제3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현황

구분	감사기간	합계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자료요구
1998	11.27 ~ 12. 3	378	123	166	89
1999	11.26 ~ 12. 2	271	112	111	48
2000	11.27 ~ 12. 3	287	111	135	41
2001	11.28 ~ 12. 4	216	101	75	40

5) 제4대 성남시의회의 의정 활동 실적(2002. 6.30 ~ 2003. 12 현재)

(1) 회의 현황

제4대 성남시의회는 2002년 6월30일에 개원하였다. 제4대 성남시의회의 최초 회의는 41명의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7월9일 개최된 제 99회 임시회로 김형대(金炯大) 사무국장의 보고에 이어 부의 안건인 의장 선거, 부의장 선거 등을 처리하였다.[163]

제 99회 임시회부터 제 112회 본회의까지 총 14회의 회의가 열렸으며, 의회운영위원회 14회, 자치행정위원회 14회 등 각 위원회별 회의가 진행되었다.[164]

<표 7-29> 제4대 성남시의회 회의현황(2003년 12월 기준)

회의명	개최횟수	회의명	개최횟수
본회의	14회	도시건설위원회	13회
의회운영위원회	14회	예산결산위원회	8회
자치행정위원회	14회	행정사무감사	각 위원회별 감사
경제환경위원회	12회	특별위원회	3개
사회복지위원회	13회		

* 참조: http://www.sncouncil.com(성남시의회 홈페이지)

163) www.sncouncil.com(성남시의회 홈페이지).

164) 제4대 성남시의회의 2003년도 주요 의안처리 및 의정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시회 및 정례회 운영(임시회 개최: 6회 45일, 안건심의 83건, 정례회 개최: 2회 35일, 안건심의 45건, 시정질문 및 답변 46명 117건), 특별위원회 운영(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조사특별위원회: 2003. 6.27-9.16 제13차 회의개최, 성남시 현충탑 이전완년 건립현상 공모작품 선정문제점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2003. 6.26-8.31 제 7차 회의 개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회), 열린의회 운영(의장실 방청 및 개방 546명, 의장실 개방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32건, 의회에 바란다. 123건, 타 지역 기관 및 단체방문객 접견(외국인포함) 9회 83명), 의정활동을 위한 연구활동(국내 성남시의회 의원연수: 2003년 제1차 의정연수(2003. 3.26-28, 강릉), 2003년 제 2차 의정연수(2003.10.13-16, 제주도), 국외 의원연수: 2003년 해외연수(2003.11.14-11.24, 유럽 6개국: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의정포럼 개최(2003.3.4 중앙문화정보센터), 타 시 군 의회 벤치마킹 3회 4개 시 군, 현장방문 의정활동 3회 8지역), 봉사활동 전개(사회복지시설 2회, 전 의정대 2회, 기타(태풍피해지역) 2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성남시(2004). 비전성남 제103호, 성남시 공보담당관실, 6면.

(2) 의안 처리 현황

2002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의 제4대 성남시의회의 의안 처리 현황을 보면 총 189건의 의안처리접수 건수 중 186건을 처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2002년의 성남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2003년의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04건의 조례안 처리를 비롯하여 의견청취 10건, 동의(승인)안 5건, 결의안 5건, 청원안 2건 등이다.

제4대 성남시의회의 의안처리 현황을 각 연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 7-130]과 같다.[165]

165) 성남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2002년 6월까지로 되어 있으나, 성남시의회 활동실적은 2001년까지만 제시하고 2002년 전반기의 활동실적은 2002년 제4대 성남시의회 활동실적에 포함하였다.

(표 7-130) 성남시의회 의원처리 현황 (2002-2003년)

구분	(2002년) 접수	처리	처리내용 가결 원안	가결 수정	부결	철회	미처리	(2003년) 접수	처리	처리내용 가결 원안	가결 수정	부결	철회	미처리
합계	79	77	63	13	1	-	2	110	109	-	-	-	-	-
예산안	5	5	1	4	-	-	-	4	4	-	-	-	-	-
결산안	1	1	1	-	-	-	-	1	1	-	-	-	-	-
소계	36	34	26	7	1	-	2	72	71	69	2	-	-	1
의원 조례 발의	5	4	1	2	1	1	-	-	-	-	-	-	-	-
의회 발의	1	1	1	-	-	-	-	-	-	-	-	-	-	-
시장 제출	30	29	24	5	-	-	-	-	-	-	-	-	-	-
재의안	-	-	-	-	-	-	-	-	-	-	-	-	-	-
동의(승인)안	5	5	4	1	-	-	-	-	-	-	-	-	-	-
청원안	1	1	1	-	-	-	-	1	1	-	-	-	-	-
건의안	-	-	-	-	-	-	-	6	6	-	-	-	-	-
결의안	4	4	4	-	-	-	-	1	1	-	-	-	-	-
의견청취	10	10	10	-	-	-	-	-	-	-	-	-	-	-
기타	13	13	13	-	-	-	-	25	25	-	-	-	-	-
중요재산 취득처분	4	4	3	1	-	-	-	-	-	-	-	-	-	-

* 자료: 성남시의회(2002 · 2003), 의정팀 내부자료.

(3) 행정 사무감사 현황

제4대 성남시의회의 행정 사무감사는 각 연도별로 모두 7일간 실시되었다. 감사결과 [표 7-131]과 같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에 걸쳐

총 557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와 건의 사항, 그리고 자료 요구 등을 처리하였다.

<표 7-38> 제2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현황

구분	검사기간	합계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자료요구
2002	11.27~12.3	267	131	102	34
2003	11.29~12.5	290	89 (문책요구 3)	178	23

3. 성남시의회 사무국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의회에 사무국(과)을 별도로 두지 않고 지방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간사와 서기 등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1950~6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의회에 사무국(과)을 별도로 두지 않고 지방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간사와 서기 등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도(道)의 경우는 지방과에 의회계를 두어 의회사무를 전담케 하였는데, 이로 인해 인력과 예산은 절감되었지만 지방의회의 기능을 관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의회를 위해서 일했다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눈치를 살피며 사실상 집행기관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 도 의회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시 · 군 · 자치구 의회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각각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사무처장 · 사무국장 · 사무과장 및 직원)에 대한 임명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지 않고, 의장 추천에 의하여 단체장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사무국은 1991년 4월8일 의회사무국 기구설치(조례 제1123호)에 근거하여 1국, 1계, 17명으로 출범하였으며, 1992년 10월12일에 근거하여 1국, 2계, 23명으로 확대 · 개편되었다.

그 후 1998년 10월7일에 1국, 4전문위원, 2담당 27명 등으로, 2002년 9월12일에는 1국, 5전문위원, 2담당 30명 등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2003년 7월 단행된 의회사무국 기구개편에 의하여 1국, 5전문위원, 3팀장 30명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제4대 성남시의회 사무국의 기구 및 역대 사무국장 현황을 보면, [표 7-132] 및 [표 7-133]과 같다.[166]

166) http://www.sncouncil.com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표 7-132] 제4대 성남시의회 사무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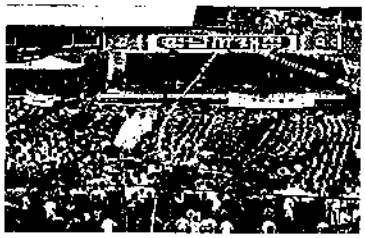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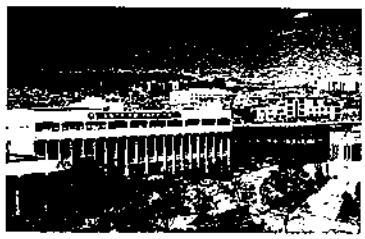
직급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기능7	기능8	기능9	기능10
정원	30	1 (사무국장)	3	5	7	1	1	-	9	3
현원	30	1 (사무국장)	3	5	7	1	1	5	7	-

[표 7-133] 성남시의회 역대 사무국장 현황

성명	재임기간
이익수(李益洙)	1991. 3.27 ~ 1993. 1.19
배기호(裵基昊)	1993. 1.20 ~ 1994. 5.25
황재영(黃在英)	1994. 5.26 ~ 1996. 7. 7
황민섭(黃敏燮)	1996. 7. 8 ~ 1998. 1. 2
성낙건(成樂健)	1998. 1. 3 ~ 1998. 9.22
신교철(申敎撤)	1998. 9.23 ~ 1998.10. 7
이상철(李相喆)	1998.10. 8 ~ 1999. 8.31
이경식(李敬植)	1999. 9. 1 ~ 2000. 4.30
박찬성(朴贊成)	2000. 5. 1 ~ 2000.12.29
김영기(金榮基)	2000.12.30 ~ 2001. 6.30
이경수(李慶壽)	2001. 7.18 ~ 2001.12.12
김형대(金炯大)	2001.12.13 ~ 2003. 1.29
김용겸(金龍謙)	2003. 1.30 ~ 현재

* 자료: 성남시의회(2001),『성남시의회사』, 성남시의회.

◌ 집필 尹斗燮 경원대학교 책임연구원
徐辰錫 중부대학교 교수


제8편 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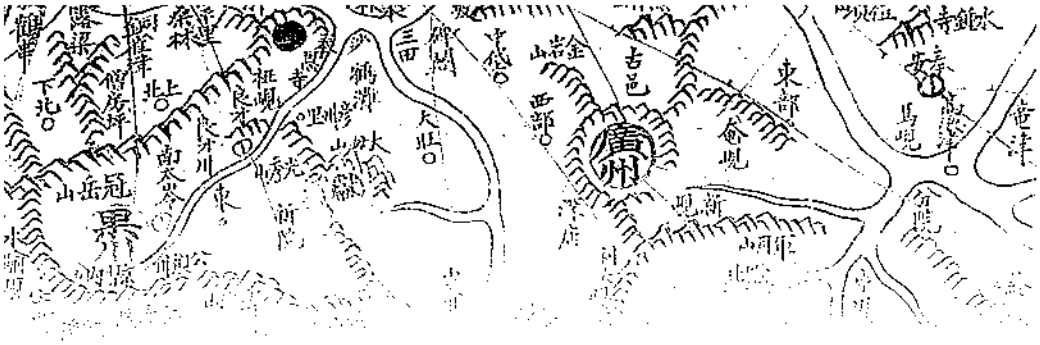
제1장 성남의 행정제도 변천사

제2장 성남시 행정 발전과 성과

제3장 성남시 행정조직

제4장 성남시 행정업무 현황

제5장 성남비전 2006



제1장 성남의 행정제도 변천사

제1절 근대 전 · 후 성남의 행정제도

1. 고조선 시대

성남지역의 최초 국가로는 마한(馬韓)을 들 수 있다. 진(秦)의 멸망(滅亡)으로 전란(戰亂)이 빈번(頻煩)하자 남하(南下)하는 유민(流民)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기자조선(箕子朝鮮)의 마지막 왕인 준(準)왕이 위만(衛滿)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수천 명의 사람들과 더불어 남하하여(B.C 194~180) 마한(馬韓)땅인 광주(廣州) 근처에 한(韓)이라는 나라를 세웠다(後漢書, 東夷傳, 韓傳).

2. 고구려 시대

B.C 18년 고구려(高句麗) 주몽(朱蒙)왕의 아들 온조(溫祚)가 남하(南下) 하여 백제(百濟)국을 세우니 이때부터 성남지역은 백제(百濟) 영토가 되었다. 서기 475년에 고구려(高句麗) 장수왕(長壽王)이 남하하여 한산성을 함락하고 북한산군을 설치하였다. 이때 개로왕(蓋鹵王 21년)이 죽고 왕의 제(弟) 문주(文周)가 웅진(熊津)으로 남하하여 백제(百濟)를 재건(再建)하니 이때부터 성남지역은 고구려(高句麗) 영토가 되었다.



성남지역은 본래 백제의 땅이었으나, 고구려의 침략을 받아 수도를 웅진으로 옮기고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3. 백제 시대

위와 같이 성남지역은 본래 백제의 땅이었으나, 고구려의 침략을 받아 수도를 웅진으로 옮기고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그러나 551년에 백제의 성왕(百濟 聖王)이 신라(新羅)와 연합하여 침공 탈환하여 곧 백제의 영토에 편입되게 된다. 그러나 2년 후인 553년에 신라 진흥왕(新羅 眞興王)에게 다시 빼앗겨, 이후부터 성남지역은 신라(新羅) 영토가 되었다.

4. 신라 시대

한강유역 일대를 빼앗은 신라(新羅)는 이곳을 다스리기 위해 행정구역을 새로 개편하였는데 성남지역은 신주(新州)에 속하였다.

진흥왕 18년(眞興王 557)에는 북한산주(北漢山州), 진흥왕 29년(眞興王 568)에는 지금의 이천(利川)에다가 남천주(南川州)를, 진평왕 26년(眞平王 604)에는 다시 북한산주(北漢山州)를 설치하여 성남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다. 그리고 문무왕 2년(文武王 662)에는 남천주(南川州)가 다시 복원되고, 동 4년 (664) 한산주(漢山州)로 개칭되었다가 경덕왕 16년 (景德王757) 에 한주(漢州)로 개명되었다.

5. 통일신라 시대



성남을 포함한 경기지역 일대가 통일신라의 전략적 중요한 요충지가 되었다.

통일신라 시대의 한주(漢州)는 상주(尙州) 10군 30현, 양주(良州) 12군 34현, 강주(康州) 11군 27현, 삭주(朔州) 11군 27현, 명주(溟洲) 9군 25현, 웅주(熊州) 13군 29현, 전주(全州) 10군 31현, 무주(武州) 14군 44현보다 관할 지역이 매우 넓어 지금의 경기, 황해, 충북 대부분 27군 46현을 영속(領屬)한 대규모의 요충지가 되었고, 특히 성남을 포함한 경기지역 일대가 통일신라의 전략적 중요한 요충지가 되었다.

6. 고려 시대

고려(高麗) 시대에는 태조 23년(太祖 940)에 성남지역이 처음으로 광주(廣州)라 개칭하여 목사(牧使)를 두게 되었다. 성종 14년(成宗 995)에는 전국에 12절도사(節度使)를 배치하면서 광주(廣州)에는 봉국군 절도사(奉國軍 節度使)를 두었다가 현종 3년(顯宗 1012)에 절도사제도가 폐지되고 안무사(按撫使)로 개칭하였다. 이후 현종 9년(顯宗 1018)에는 안무사(按撫使)를 파하고 4도호부사(都護府使), 8목사(牧使), 56지주군사(知州郡事), 28진장(鎭將), 20현령(縣令)을 설치하였는데, 광주목(廣州牧) 관할은 천령(川寧) 죽주(竹州) 과주(果州) 이천(利川) 등의 4군과 지평(砥平) 용구(龍駒) 양근(陽根) 등의 3현이 예속되었다. 충숙왕 1년(忠肅王 1314) 양광충청주도(陽廣忠淸州道)를 충청도(忠淸道)와 양광도(陽廣道)로 나누었는데 성남지역은 양광도(陽廣道)에 속하였다.

7. 조선 시대

조선조(朝鮮朝) 태조 4년(太祖 1395)에 양광도(陽廣道)를 경기좌우도(京畿左右道)로 나누었는데, 광주목(廣州牧)은 경기좌도(京畿左道)에 예속되었다가 태종 13년(太宗 1413) 경기좌우도(京畿左右道)를 통합하여 경기도(京畿道)라 칭하는 8도 체제로 16세기 초까지 지속되어 오다가 연산군 10년(燕山君 1504) 왕을 비방하는 벽보가 광주목(廣州牧) 관할인 양재역(良才驛)에 나붙은 사건으로 광주목(廣州牧)을 폐했다.

중종반정(中宗反正 1506)으로 연산군(燕山君)이 축출되자 광주목(廣州牧)이 주(州)로 복구되어 판관(判官)을 두었다가, 중종 11년(中宗 1516)에 주세(州勢)가 피폐하여 판관을 없앴다.

명종 14년(明宗 1559)에 목사(牧使)를 파견하고, 명종 21년(明宗 1566)에는 방어사(防禦使)를 겸하도록 하였다.

선조 6년(宣祖 1573)에는 토포사(討捕使)를 겸하게 하였으며 선조 10년(宣祖 1577)에는 광주부(廣州府)로 승격시켜 부윤(府尹)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였다. 선조 25년(宣祖 1592)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자

수어부사(守禦府使)를 겸하도록 하였다.

인조 원년(仁祖 1623) 광주부사(廣州府使)를 유수(留守)로 승격하여 수어사(守禦使)를 겸하도록 하였다. 인조 4년(仁祖 1626)에는 남한산성(南漢山城)이 대대적으로 개축되어 수어청(守禦廳)을 설치하였다. 인조 8년(仁祖 1630)에는 광주부윤(廣州府尹)으로 강등되었다가 인조 11년(仁祖 1633) 토포사(討捕使)를 겸하게 하였고, 1637년(인조 15년) 광주부(府)로 승격되어 부윤(府尹)을 두어 효종 2년(孝宗 1651)까지 지속되었다.

효종 3년(孝宗 1652)에 부윤 겸 수어부사(府尹兼守禦副使)로 변경되었다가 3년 후 혁파되었으며, 숙종 6년(肅宗 1680)에 다시 복구되고 숙종 9년(肅宗 1683)에 유수 겸 수어부사(留守兼守禦副使)로 승격되고, 숙종 16년(肅宗 1690)에는 부윤 겸 방어사토포사(府尹兼防禦使討捕使)로 되었다가 이듬해 겸수어부사(兼守禦副使)로 변경되었다.

영조 26년(英祖 1750)에 수어부사(守禦副使)를 파하고 유수(留守)로 복구하여 유수 겸 수어사(留守兼守禦使)를 설치하였다가 영조 35년(英祖 1759)에 유수(留守)를 혁파하고 다시 부윤 겸 수어사(府尹兼守禦使) 체제로 바꾸었다. 정조 19년(正祖 1795)에 유수 겸 수어사(留守兼守禦使)를 설치하여 고종 32년(高宗 1895) 갑오개혁(甲午改革) 때까지 이어왔다.

8. 근대 이후

근대 개화기에 들어서면서 오랜 전통의 행정구역은 고종 32년(高宗 1895) 5월 26일 전문 6조의 칙령 제98조에 의해 8도 체제에서 23부제로 개편되어 한성부(漢城府) 의 관할에 속하게 되어, 광주부에서 광주군(廣州郡)으로 편제되었다. 1896년(건양 원년) 8월 4일 칙령 제36호로 발표된 「지방제도관제봉급경비개정의건」에 의해 경기도 광주부가 되었다가, 1906년(광무 10) 9월 24일 칙령 제49호로 발표된 「지방구역정리의 건」에 의해 광주군으로 강등되어 광주군수를 두게 되었다.

1910년 11월 10일 총독부령 제8호로 공포된 「면에 관한 규정」에 의해 중부면은 산성리 935~3, 5번지 행궁터에 개소하였으며 1911년 3월 6일 낙생면사무소가 판교리 191번지에 개소하여 낙생면, 돌마면, 대왕면을 통

합 관할하다가 1911년 8월 29일 상적리에 대왕면사무소를 개설하였다.

돌마면은 1911년 말 정자리에 면사무소를 개설하였다. 1913년 12월 29일 총독부령 제111호로 공포된 「도의 관할 구역」에 의해 광주군 군내면 소속의 7개리(산성, 검복, 불당, 오전, 광지원, 용미, 상산곡리)와 세촌면 소속의 7개리 중 6개리(단대, 상대원, 수진, 복정, 창곡, 탄리)가 통합되어 중부면이 신설되었으며, 세촌면 1개리(하대원리)는 돌마면에 편입되었다.

1914년 개편을 통하여 현재의 성남시 지역은 돌마면(突馬面) 15개 동·리, 낙생면(樂生面) 14개 동·리, 대왕면(大旺面) 21개 동·리, 세촌면(細村面) 7개 동·리를 돌마면(突馬面) 11개 리, 낙생면(樂生面) 11개 리, 대왕면(大旺面) 14개 리, 중부면(中部面) 6개 리로 통합 정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8-1〉 1906~1914년 성남지역 개편내역

면	개편전(1906~1914)	개편후(1914)
돌마면 (突馬面)	葛峴里. 甕店里. 麗水洞. 梧野所洞. 下塔洞. 上塔洞. 二梅洞. 通路洞. 陽峴里. 遯書村. 栗里. 盆店里. 唐隅里. 薮內村. 亭子洞	葛峴里. 島村里. 麗水里. 野塔里. 栗里. 二梅里. 書峴里. 盆唐里. 薮內里. 亭子里. 下大院里
낙생면 (樂生面)	三街里. 板橋里. 柏峴里. 狀坪里. 宮內村. 金谷洞. 九美洞. 石雲里. 遠川洞. 東幕洞. 大庄里. 山雲里. 中山雲里. 下山雲里. 栗峴. 槐下洞. 池谷洞. 紫陽洞. 水西里.	板橋里. 栢峴里. 下山雲里. 石雲里. 大庄里. 金谷里. 三坪里. 雲中里. 宮內里. 東遠里. 九美里
대왕면 (大旺面)	逸院里. 隱谷洞. 細川里. 新村里. 梧野里. 深谷洞. 登子里. 高山里. 始興洞. 屯田里. 松峴洞. 沙村里. 遁土里. 金峴洞. 路上里. 路下里	新村里. 梧野里. 深谷里. 始興里. 屯田里. 水西里. 沙松里. 金土里. 上笛里. 高登里. 細谷里. 栗峴里. 逸遠里. 紫谷里.
세촌면 (細村面)	丹堂洞. 上大院里. 下大院里. 壽進洞. 炭洞. 福井洞. 細谷洞.	–
중부면(中部面) 일부	–	上大院里. 丹堂里. 倉谷里. 福井里. 炭里. 壽進里.

「城南市誌」(1982刊)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14년 개편시 세촌면(細村面)의 하대원리(下大院里)가 돌마면(突馬面)에 편입되었고 용인군의 수지면(水枝面) 원천동(遠川洞) 일부가 낙생면(樂生面)의 동원리(東遠里)에, 구미동(九美洞), 죽전동(竹田洞), 원천동(遠川洞) 각 일부가 낙생면(樂生面)에, 세촌면(細村面)의 세곡동(細谷洞)이 대왕면(大旺面)에 편입되었다.

대왕면(大旺面)의 신촌리 오야리, 심곡리, 시흥리, 둔전리, 사송리, 금토리, 상적리, 고등리는 1971년에 성남지역으로 편입되고 세곡리, 율현리, 수서리, 자곡리, 일원리는 1963년 1월 1일 서울시 성동구로 편입되었다.

9.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 광주군 중부면 성남출장소 설치

중부면은 면 중앙에 남한산성의 준령이 있어 그 서남 기슭에 취락이 형성된 지역적 여건으로 1946년 3월 3일 종전 세촌면(細村面) 관할 구역 6개리[단대(丹垈), 상대원(上大院), 창곡(倉谷), 복정(福井), 탄리(炭里), 수진(壽進)지역 27.43km]를 관할하는 중부면 성남출장소(中部面城南出張所)를 설치하여 탄리 275번지에 개소하였다가 1948년 수진리로 옮겨 사무를 보게 되었다.

2) 광주군 직할 성남출장소 승격

광주군 조례 제68호(1964. 2. 24공포)에 의거 '광주군직할 성남출장소'로 승격되어, 수진리 145번지에 성남출장소 건물을 신축 개소하여, 인구 및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광주군수 직할 지휘 감독체제로 전환하였다.

3) 일단의 주택단지 경영사업 실시

1968년 5월 7일 서울특별시가 건설부로부터 개발 인가를 받아 1969. 4. 1 '중부면 성남지구 일단의 주택단지 경영사업'을 시행함으로서 광주군의 '성남지구 도시건설사업소'와 서울시의 '광주대단지 사업소'가 설치되어 1969년 5월 2일부터 서울특별시 철거민 집단 입주가 시작되었다.

4) 사업소 설치 운영

광주군은 1968. 8.1~1971. 8. 31까지 '광주군 성남지구도시건설사업소'를 서울특별시는 1968. 9. 1~1971. 8. 31까지 '서울특별시 광주대단지사업소'를 각각 설치하여 도시계획 업무를 전담 수행함으로써, 기존의 '광주군 직할 성남출장소'를 합하여 개발 초기의 성남의 행정업무를 보는 관청이 셋이나 되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주민의 불편이 컸다.

5) 행정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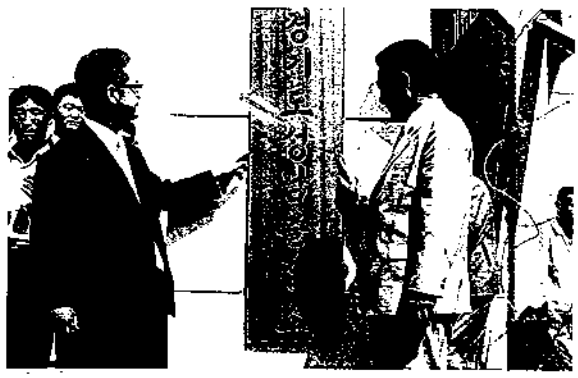
행정관할청과 사업시행청이 다른데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일단의 주택단지 경영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1970. 9. 19 경기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 광주군수 간에 행정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와 광주군은 일반행정을, 서울특별시는 용지매수 및 건설사업을 분담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다.

제2절 70년대 성남의 행정

1. 70년대 초 성남의 행정체계

1) 경기도 성남출장소 승격

일단의 주택단지 경영사업의 시행으로 광주군 성남출장소 관할 인구가 14만여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행정수요 충족이 불가피하게 되어, 1971년 8월 10일의 소위 8.10사태가 벌어졌다. 그 해 9월 8일 사태수습대책의 일환으로 내무부장관 주재 하에 내무부차관, 서울특별시



〈사진 3-8 : 1〉 경기도 성남출장소 현판식(1971.9.13)

장, 경기도지사, 내무부지방국장, 서울시기획관리관, 경기도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그동안 서울시에서 주관해 오던 광주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경기도에서 인수토록 합의하였다.

따라서 경기도 성남출장소는 경기도조례 제470호 (1971. 8. 18 공포)에 따라 부이사관인 소장 이하 5과 18계 6개 지소로 편제되었으며, 낙생면, 돌마면, 대왕면을 포함하여 128.5㎢로서 독립시 설치를 위한 구획을 조정하였다.

1971년 경기도 성남출장소의 행정기구의 편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편제

소 장

부 소 장

총무과	시민과	사회과	산업과	건설과
총무계	호적계	사회계	산업계	계발계
시정계	병무계	노정계	상공계	건설계
재무계	주민등록계	부녀아동계	청소계	도시계
공보계	민원계			지도계

단대지소	상대원지소	수진지소	대왕지소	낙생지소	돌마지소	보건지소	농촌지소
						보건행정계	낙생지소
						방역계	
						위생계	돌마지소

광주군통계연보,1971

2) 주택단지 경영사업 인수

이원적인 행정을 일원화하여 성남도시건설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1971. 10. 14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던 '일단의 주택단지 경영사업'을 경기도에서 인수하고 '성남개발 3개년 투자계획'에 의거 도시건설업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3) 성남보건진료소 설치

1972년 3월 23일에는 2개지소가 증설되고, 같은 해 4월 6일 경기도 성남출장소 관할의 성남보건진료소가 설치되는 등 13회에 걸친 기구 개편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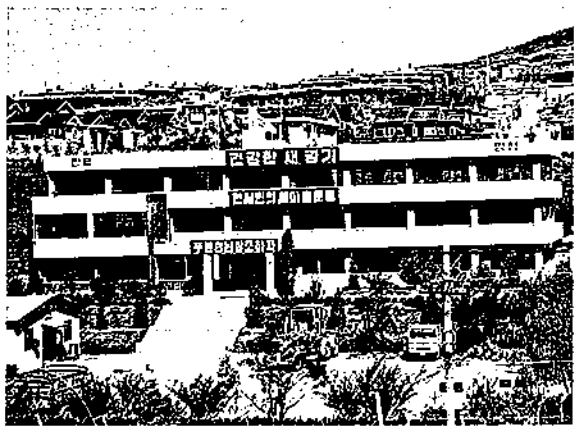
2. 성남시의 창설과 행정체계

수도권의 인구집중 억제와 수도권 주변의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 및 서울특별시 외곽도시의 합리적인 육성을 위한 법률 제2597호(1973. 3. 12) '시설치와군의폐치분합에관한법률'의 제정 공포로 1973년 7월 1일 성남시의 창설과 동시에 향후의 도시개발 및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기구를 대폭 확대 개편하였다. 성남시장 예하 1담당관, 1실, 10과, 42계, 2사업소, 2출장소, 41개 법정동과 18개 행정동 등이 증설되었다.

41개 법정동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사진 3-8 : 2> 시승격 하루를 앞두고 공무원과 통장들의 기념사진(1973. 6. 30)



<사진 3-8 : 3> (구)성남시청(1973)



<사진 3-8 : 4> 현 성남시청

《표 8-3》 법정동현황 1987년말

동 명	관 할 구 역
신흥동	광주군 중부면 탄리 16, 17,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49, 50, 51, 52, 53리. 단대리 17, 18, 19, 20, 21리. 창곡3리 일부 (253~264부럭)
태평동	광주군 중부면 탄리 1, 31, 32, 33, 34, 35, 36, 37, 38, 40, 41, 42, 43, 44, 45, 46, 47, 48리. 수진리 6, 7, 8, 9, 10, 11, 11, 12, 13, 14, 15리. 일부 (68, 69, 75, 76부럭) 16, 17리. 수진1리 일부 (141~169번지. 261~265번지. 산15~33번지)
수진동	광주군 중부면 탄리3, 4, 5, 6, 7, 8, 9, 10, 11, 12, 13, 14리. 수진1리 일부. (229~231번지. 237~240번지. 243~246번지. 248~251번지. 334~336번지. 338~349번지. 363번지. 산34~41번지). 3. 4. 5리 일부.(1.16.31.31-1.45.46.59.부럭)
성남동	광주군 중부면 탄리2, 4, 5리. 수진2. 18리. 돌마면 하대원 1리 일부 (1~89번지. 470~478번지. 산23~30번지) 2리 일원
중 동	광주군 중부면 단대3. 4. 5. 6. 7. 8. 9. 1-. 11. 12. 13. 14. 15. 16. 26. 27리 일원
단대동	광주군 중부면 단대2. 22. 23. 24. 25. 26. 27. 28. 29.30. 31. 32리.창3리 일부 (669~678부럭) 4리 일원
은행동	광주군 중부면 단대1. 33. 34. 35. 36. 37. 38. 39. 40.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리 일원
상대원동	광주군 중부면 상대원 1. 2. 3. 4. 5. 6. 7. 8. 9. 10. 11.12리 일부(307. 308. 395. 396. 400. 401. 402. 403. 469. 470. 471부럭). 13. 14. 15. 16. 17. 18. 19. 20. 31. 32리 일부(463. 464. 465부럭)
복정동	광주군 중부면 복정리 일원
창곡동	광주군 중부면 창곡1, 2리 일원
신촌동	광주군 대왕면 신촌리 일원
오야동	광주군 대왕면 오야리 일원
심곡동	광주군 대왕면 심곡리 일원
고등동	광주군 대왕면 고등리 일원
상적동	광주군 대왕면 상적리 일원
금토동	광주군 대왕면 금토리 일원
사송동	광주군 대왕면 사송리 일원
시흥동	광주군 대왕면 시흥리 일원
둔전동	광주군 대왕면 둔전리 일원
판교동	광주군 낙생면 판교리 일원

동 명	관 할 구 역
삼평동	광주군 낙생면 삼평리 일원
백현동	광주군 낙생면 백현리 일원
궁내동	광주군 낙생면 궁내리 일원
금곡동	광주군 낙생면 금곡리 일원
구미동	광주군 낙생면 구미리 일원
동원동	광주군 낙생면 동원리 일원
대장동	광주군 낙생면 대장리 일원
석운동	광주군 낙생면 석운리 일원
운중동	광주군 낙생면 운중리 일원
하산운동	광주군 낙생면 하산운리 일원
정자동	광주군 돌마면 정자리 일원
수내동	광주군 돌마면 수내리 일원
분당동	광주군 돌마면 분당리 일원
율 동	광주군 돌마면 율리 일원
서현동	광주군 돌마면 서현리 일원
이매동	광주군 돌마면 이매리 일원
야탑동	광주군 돌마면 야탑리 일원
여수동	광주군 돌마면 여수리 일원
갈현동	광주군 돌마면 갈현리 일원
하대원동	광주군 돌마면 하대원리 일원(10~469번지. 479~536번지. 산 1~22번지. 산 31~45번지)
도촌동	광주군 돌마면 도촌리 일원

자료: 「城南市史」 (1993년)

3. '70년대 중반의 행정체계

1975년 3월 17일 성남시청에 기획실, 총무국, 산업개발국이 신설되고, 건설담당 관제가 폐지되는 등 기구가 크게 개편되었고, 성남시 고등동에 대왕출장소, 판교동에 낙생출장소, 이매동에 돌마출장소 등이 설치되었다.

〈표 8-4〉 측정소 관할구역

명칭	위치	관할구역
대왕출장소	성남시 고등동	신촌동, 오야동, 고등동, 심곡동, 상적동,금토동, 사송동, 시흥동, 둔전동
낙생출장소	성남시 판교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궁내동, 금곡동,구미동, 동원동, 대장동, 석운동, 운중동, 하산운동
돌마출장소	성남시 이매동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율동, 이매동, 야탑동, 서현동, 여수동, 갈현동, 도촌동, 하대원동

1975년 5월 15일 성남시청 재무과내에 평가계를 신설하여 부동산 평가 업무를 관장케 하였으며, 같은 해 6월 19일에는 감사실을 신설하였으며, 총무과의 감사계는 폐지되었다. 또한 동년 10월 1일 내무부 도시동의 표준화 지침에 따라 신흥동과 태평동을 분리하고, 1976년 2월 25일에는 수진동과 단대동을 분리하였다.

1977년 6월 10일 그동안 법정동과 행정동을 복합적으로 사용해 오던 농촌지역의 행정동의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8-5〉 변경된 행정동명

변경전	변경후
복정동 창곡동	복 정 동
분당동 정자동 수내동 율동	분 당 동
이매동 서현동 야탑동	이 매 동
여수동 도촌동 갈현동 하대원동	여 수 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신 촌 동
고등동 상적동 둔전동	고 등 동
시흥동 금토동 사송동	시 흥 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판 교 동
금곡동 궁내동 동원동 구미동	금 곡 동
운중동 석운동 대장동 하산운동	운 중 동

자료: 『城南市史』, (1993년)

4. 70년대 후반의 행정체계

1) 성남시 기구 확대 개편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성남시의 기구도 대폭 확대 개편 되었는데, 1979년 5월 재무과를 세무과와 회계과로 분리하고, 청소과와 상공과를 신설하였다. 또한 예산계와 용도계도 신설하였다. 동년 7월에는 사회경제국을 사회산업국으로 개칭하고, 지적과와 하수과를 신설하였으며, 공해방지계를 신설하고, 시민과를 민원실로 개칭하였다.

2) 사업소 신설

사업소 역시 대폭 증설되었는데, 1978년에 위생처리장관리소가 신설되고, 1979년 부녀아동상담소, 화장장관리소, 도축장관리사무소가 신설되는 등 사업소가 7개로 늘어났다.

3) 분동

행정구역 역시 대폭 개편이 있었는데 1978년 12월 4일 상대원동이 1동과 2동으로 은행동이 1동과 2동으로 분리되었으며, 1980년 9월 1일에는 신흥2동이 2동과 3동으로, 태평1동이 1동과 3동으로, 단대2동이 2동과 3동으로, 상대원1동이 1동과 3동으로 각각 분리되었다.

제3절 80년대 이후 성남의 행정체계

1980년대 이후 성남의 행정체계는 비약적인 발전과 확대를 거듭해 왔으며 현대 광역체계의 대규모 행정체제를 이루고 있다.

1. 행정조직의 발전



<사진 3-8 : 5> 분당구청 개청식 (1991. 9. 17)

1) 사업소 신설

1981년 시민회관관리사무소, 어린이집관리소 등이 신설되었다.

2) 출장소 설치

성남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는 전국 시규모 제10위로 급부상하였고 비약적으로 증대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성남시조례 제858호(1988. 6. 3 공포)로 1988. 7. 1 성남시 수정출장소 및 중원출장소를 설치하고 기존의 돌마출장소, 대왕출장소, 낙생출장소를 폐지하게 되었다.

3) 구제(區制) 실시

1989.5. 1에는 성남시조례 제931호에 의해 수정출장소, 중원출장소 2개 출장소가 각각 수정구와, 중원구로 승격되었다.

4) 분당지구개발지원사업소 설치

1989. 4. 27 성남시 남쪽지역의 소위 '남단녹지'를 중심으로 분당지역 일대 540여만 평의 규모에 10만 5천 호의 주택을 건설 42만 인구를 수용하는 성남 분당지구의 신도시 건설 계획이 공식 발표 착수됨에 따라, 성남시조례 제971호(1989. 6. 20 공포)에 의거 분당지구개발지원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

5) 성남시 분당출장소 설치

분당신도시 입주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 시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남시조례 제1134호 (1991. 5. 27 공포)에 의거 1991. 7. 1 분당출장소를 서현동에 설치하여 이 지역 제반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6) 분당구청 승격

1991. 9. 17에는 성남시조례 제1152호 공포로 분당출장소에서 분당구로 승격 개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2004년 현재의 행정조직

2004년 6월 현재 성남시는 성남시청과 3개 구(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와 44개 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6개 사업소, 3개 보건소, 1개 지도소 및 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제4절 성남의 행정구역 및 기구 변천

성남의 행정구역 및 기구의 변천은 성남의 시 승격 이전과 성남시의 탄생에서 오늘날까지로 구분하여 시대별로 조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시 승격 이전의 기구변천

고대로부터 성남시 탄생시까지의 성남지역 행정구역 및 기구의 변천을 시대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B.C194.	고조선시대.	기자조선(箕子朝鮮)의 준왕(準王)이 나라를 위만에게 빼앗기고 남하하여 광주지역에 한(韓)나라를 세움.
B.C18.	백제시대.	온조왕은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한강 유역을 다스림.
475년.	백제시대.	개로왕 21년에 고구려 장수왕이 남침하여 개로왕(蓋鹵王)을 죽이니 백제는 웅진으로 남하하고 고구려 영토가 됨.
551년.	백제시대.	성왕 29년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몰아내고 백제 영토가 됨.
553년.	신라시대.	진흥왕 14년에 신라가 한강유역 6군(郡)을 빼앗아 신주(新州)를 세우니 신라 영토가 됨.
557년.	신라시대.	진흥왕 18년에 북한산주를 설치하여 한강유역을 다스림.
568년.	신라시대.	진흥왕 29년에 지금의 이천에다가 남천주(南川州)를 설치하여 다스림.
604년.	신라시대.	진평왕 26년에 북한산주(北漢山州를) 복원하였음.
662년.	신라시대.	문무왕 2년에 남천주를 다시 복원 치소(治所)를 옮김.
664년.	신라시대.	문무왕 4년에 한산주(漢山州)를 설치하였음.
757년.	신라시대.	경덕왕 16년에 한주(漢州)로 개명 26군 46현을 영속함.
940년.	고려시대.	태조 23년 광주(廣州)를 설치, 목사(牧使)를 둠.
995년.	고려시대.	성종 14년에 봉국군절도사(奉國軍節度使)를 두고 관내도에 예속.
1012년.	고려시대.	현종 3년에 절도사제 폐지 안무사(按撫使) 를 둠.
1018년.	고려시대.	현종 9년에 안무사를 파하고 목사를 둠(廣州牧).
1395년.	조선시대.	태조 4년에 광주목은 경기좌도에 예속됨.
1413년.	조선시대.	태종 13년에 경기좌우도를 경기도로 통합.
1504년.	조선시대.	연산군 10년에 연산군 비방사건으로 광주목 혁 파함.
1506년.	조선시대.	중종 1년에 광주목 복구 판관을 둠.
1516년.	조선시대.	중종 11년에 주세(州勢) 가 피폐하여 판관을 없앰.
1559년.	조선시대.	명종 14년에 목사를 파견.
1566년.	조선시대.	명종 21년에 목사가 방어사(防禦使를) 겸하도록 하였음.
1573년.	조선시대.	선조 6년에 토포사(討捕使) 를 겸하도록 함.
1577년.	조선시대.	선조 10년에 광주목을 광주부(廣州府)로 승격 부 윤(府尹)이 다스림.
1592년.	조선시대.	선조 25년 부윤이 수어부사(守御府使)를 겸하도록 함.
1623년.	조선시대.	인조 1년에 부사(府使)를 유수(留守)로 승격 수 어사(守禦使)를 겸하도록 함.
1626년.	조선시대.	인조 4년에 수어청을 설치함.
1630년.	조선시대.	인조 8년에 광부부윤으로 강등.
1633년.	조선시대.	인조 11년에 토포사를 겸하도록 함.
1637년.	조선시대.	인조 15년에 광주부로 승격 부윤을 둠.
1652년.	조선시대.	효종 3년에 부윤 겸 수어부사로 변경.
1655년.	조선시대.	효종 6년에 수어부사를 혁파함.
1680년.	조선시대.	숙종 6년에 수어부사를 다시 복구.
1690년.	조선시대.	숙종 16년에 부윤 겸 방어사토포사로 복치.

1750년.	조선시대.	영조 26년에 방어사를 파하고 유수 겸 수어사를 둠.
1759년.	조선시대.	영조 31년에 유수를 혁파하고 부윤 겸 수어사를 파견.
1763년.	조선시대.	영조 35년에 다시 유수 겸 방어사를 설치함.
1795년.	조선시대.	정조 19년에 유수 겸 수어사로 변경.
1895년.	조선시대.	고종 32년에 한성부관할의 광주군으로 개편됨.
1896년.	조선시대.	고종 33년에 경기도 광주부로 승격됨.
1906년.	조선시대.	고종 43년에 경기도 광주군으로 강등됨.
1946년.	해방이후.	중부면 성남출장소 설치(단대리, 탄리, 수진리, 복정리, 창곡지역을 관할함).
1964년.	제3공화국.	중부면 성남출장소를 광주군 직할 성남출장소로 승격 군수 지휘 감독체제로 전환함.
1968년.	제3공화국.	서울시 광주대단지사업소 설치.
1971년.	제3공화국.	성남출장소 관할 6개 리와 돌마면, 대왕면, 낙생면을 편입하여 경기도 직할 성남출장소로 승격함.
1973. 7. 1.	제4공화국.	성남시 탄생.

2. 시 승격 이후의 기구변천

성남시가 탄생된 1973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성남시의 행정구역 및 기구의 변천을 시기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73. 7. 1.	경기도 성남출장소 폐지와 동시 시제 실시(41개 법정동 관할). 대왕, 낙생, 출장소 신설(법률 제2,597호, 73.3.12 공시) 시조례 제20호('73.7.1 공시)). 보건소 설치(시조례 제65호). 18개 동사무소(행정동) 설치(시조례 제70호).
1973. 9. 1.	녹지과 신설(시규칙 제33호).
1975. 3. 17.	실, 국제 실시로 기획실, 총무국, 산업개발국 설치(시조례 제57호).
1975. 3. 17.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시조례 제132호). 돌마출장소 설치(시조례 제133호).
1975. 5. 15.	재무과에 평가계 신설(시규칙 제61호).
1975. 6. 16.	감사실 신설(시규칙 제64호) 총무과 감사계 폐지.
1975. 8. 1.	통 · 반 조정 358통 1,824반(시조례 제145호) 경기도 성남출장소 관할 때의 115통 1,104반 폐지.
1975. 8. 26.	민방위과 신설(시규칙 제69호).

1975. 10. 1. 신흥동을 신흥1동과 신흥2동으로, 태평동을 태평1동과 태평2동으로 분리(내무부 도시 동행정 표준화 시책에 의거 시조례 제147호). 행정동이 20개 동으로 증가.
1975. 10. 10. 새마을 상황실 신설(시규칙 제74호).
1976. 1. 1. 보건소 위생계가 사회과로 예속 변경(시규칙 제77호)
1976. 9. 25. 수진동을 수진1동, 수진2동으로, 단대동을 단대1동과 2동으로 분리(시조례 제84호) 행정동이 22개 동으로 증가.
1976. 11. 28. 통반 조정 358통 1,952반(시조례 제187호).
1978. 1. 20. 산업개발국을 폐지하고 사회경제국, 건설국 신설(시규칙 제132호).
3실 3국, 1과 48계, 3사무소, 3출장소, 22개 동 편제.
1978. 9. 22.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시조례 제297호).
1979. 1. 1. 상대원동을 상대원1동과 2동으로 분리(시조례 306호).
행정동이 23개 동으로 증가.
1979. 2. 28. 부녀아동상담소 신설(시조례 324호).
1979. 5. 1. 화장장관리소 신설(시조례 제336호).
재무과를 세무과와 회계과로 분리, 청소과 상공과 신설(시규칙 제167호).
1979. 7. 25. 도축장관리사무소 설치(시조례 제344호).
1979. 9. 15. 은행동을 1, 2동으로 분리(시조례 제348호).
24개 행정동.
1980. 9. 1. 신흥2동을 2, 3동으로, 태평1동을 1. 3동으로, 단대2동을 2. 3동으로, 상대원1동을 1, 3동으로 분동(시조례 제419호).
행정동이 28개 동으로 대폭증가.
1980. 10. 1. 시민과를 민원실로 명칭변경(시규칙 제219호).
1981. 3. 6. 시민회관관리소 설치(시조례 제445호).
시립어린이집관리소 설치(시조례 제447호).
1982. 2. 27. 부녀아동상담소 폐지(시조례 제485호).
1983. 2. 8. 성남시립도서관 개관(시조례 제572호).
1983. 4. 7. 도축장관리사무소 폐지(시조례 제586호).
1983. 10. 1. 단대1동을 단대1동과 단대4동으로 분리(시조례 제586호).
행정동이 29개 동으로 증가.
1984. 11. 27. 노인복지관 설치(시조례 제675호).
1984. 12. 5. 공설운동장관리사무소 설치(시조례 제676호).
1986. 10. 27. 위민실 설치(시조례 765호).
1986. 10. 30. 시민복지관 설치(시조례 제767호).
1987. 1. 6. 사회산업국 폐지,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도시계획국 신설(시규칙 제451호).
1실, 5국으로 개편.
1987. 6. 22. 여성복지회관 설치(시조례 제813호).

1988. 7. 1. 수정출장소, 중원출장소 설치(시조례 제858호).
돌마출장소, 대왕출장소, 낙생출장소 폐지(시조례 858호).
은행2동을 은행2동과 은행3동으로 분리(시조례 제858호).
30개 행정동으로 확대.

1989. 4. 4. 위민실 폐지(시조례 제924호).

1989. 4. 20.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설치(시조례 제946호).

1989. 5. 1. 수정출장소, 중원출장소를 수정구청, 중원구청으로 승격 (시조례 제946호), 구청제 실시.
단대1동을 단대동으로, 단대2동을 금광1동으로, 단대3동을 금광2동으로, 단대4동을 산성동으로 명칭 변경(시조례 제932호).

1989. 6. 20. 분당지구개발사업소 설치(시조례 제971호).

1990. 1. 1. 태평2동을 태평2동과 태평4동으로 분리(시조례 제1014호). 31개 행정동으로 확대.

1990. 3. 15. 성남보건소를 수정보건소와 중원보건소로 분리 설치(시조례 제1041호).

1990. 5. 17.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시조례 제1049호).

1991. 2. 13.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설치(시조례 제1109호).

1991. 4. 8. 시의회사무국 설치(시조례 제1123호).

1991. 7. 1. 분당출장소 설치(시조례 제1134호).
수정구 둔전동 일부를 중원구 성남동에, 수정구 사송동 일부와 중원구 여수동, 도촌동 일부를 분당구에 편입 (시조례 제1153호).

1991. 9. 17 분당출장소를 분당구청으로 승격(시조례 제1152호), 3구청제 실시

1991. 12. 10.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설치(시조례 제1163호).

1992. 5. 1. 분당구 분당동에서 서현동, 초림동으로 행정동 분리(시조례 제1192호).
33개 행정동. 중원구 금광동 일부를 은행동으로, 분당구 이매동 일부를 서현동으로, 분당구 백현동 일부를 서현동으로, 수내동 일부를 서현동으로, 수내동 일부를 분당동으로, 서현동 일부를 수내동으로, 정자동 일부를 수내동으로 편입, 법정동간 경계 일부를 조정(시조례 제 1193호).
위생처리장관리소와 하수종말처리장관리소를 통합 환경 사업소 설치(시조례 제1194호).

1992. 7. 15. 분당구 법정동간 경계조정(시조례 제1200호).

1992. 10. 12. 분당구 보건소 설치(시조례 제1222호).

1993. 1. 20. 분당구 분당동을 분당동과 서당동, 수내동으로, 이매동을 이매동, 매송동, 하탑동으로 분리(시조례 제1253호) 37개 행정동

1993. 5. 3. 시립어린이집 관리소 폐지(시조례 제1266호)

1993. 6. 5. 분당구 서현동 일부를 수내동으로, 정자동 일부를 수내동으로 편입, 법정동간 경계 조정(시조례 제1272호). 분당구 분당동에서 내정동이, 이매동에서 중탑동, 야탑동을 신설(시조례 1272호).
40개 행정동

1994. 5. 4. 공원관리사업소 설치(시조례 제1318호)

1994. 7. 27. 분당구 서현동 일부를 분당동으로, 율동 일부를 분당동으로, 수내동 일부를 정자동으로, 궁내동 일부를 수내동으로, 백현동 일부를 서현동으로, 법정동간 경계 조정(시조례 제1323호).

1995. 3. 6. 분당구 내정동을 내정동과 정자동으로 행정동 설치(시조례 제1360호). 41개 행정동
분당구 구미동 일부를 금곡동에, 금곡동 일부를 구미동에, 중원구 동원동 일부를 분당구 구미동에 편입, 법정동간 경계조정 (시조례 제1361호).

1995. 12. 4. 공원관리사업소 폐지(시조례 제1395호).

1996. 1. 15. 분당구 정자동을 정자동과 신기동으로, 불정동을 불정동과 금곡동, 구미동으로 분리 3개 행정동 증가(시조례 제1407호). 44개 행정동

1996. 5. 17.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폐지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시조례 제1431호).

1996. 11. 21.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단 설치(시조례 제1456호).

1997. 7. 11. 제2종합운동장 건설준비단 설치(시조례 제1498호).

1997. 7. 12. 재무국과 지역경제국을 재정경제국으로, 보건사회국을 보건환경국으로, 건설국을 도로교통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수도국 설치(시규칙 제1161호). 1실 6국

1997. 9. 29. 청소사업소 설치(시조례 제1509호).

1997. 9. 30. 도로교통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명칭 변경(시규칙 제1165호).

1997. 11. 17. 야외공연장관리사무소 설치(시조례 제1513호).

1998. 10. 7. 본청 1실 4국 5담당관 17과 의회 1국 4자문위원 3보건소 1센터 10사업소 3구청 44개동 21과 설치(시조례 제1553호).

1999. 1. 7. 실업대책반 설치(시조례 제1581호).

1999. 8. 28. 본청 5국 2담당관 21과 의회 1국 4전문위원 3보건소 1센터 8개 사업소 3구 44개 동과 21과 기구 조정(시조례 제1629호).

2000. 6. 16. 수정문화정보센터 설치(시조례 제1713호).

2000. 10. 18. 근로자종합복지관, 농수산물유통센터 폐지, 디자인지원사업소 신설(시조례 제1732호).
중원구 여수동을 하대원동으로, 분당구 수내동을 수내3동으로, 초림동을 수내1동으로, 내정동을 수내2동으로, 정자동을 정자2동으로, 신기동을 정자1동으로, 불정동을 정자3동으로, 서현동을 서현1동으로, 서당동을 서현2동으로, 이매동을 이매1동으로, 매송동을 이매2동으로, 야탑동을 야탑2동으로, 중탑동을 야탑3동으로, 행정 동명 명칭 변경(시조례 제1733호).

3. 성남시 행정구역 현황(2004년도 현재)

1) 지리적 위치

<표 8-6>

시청소재지	경도와 위도의 극점 단	지명	극단
동경 127°9′ (청백리길 10) 북위 37° 22′	극동	상대원동 산의 1	동경 127°11′ 22″
	극서	석 운 동 산의 20	동경 127° 1′ 17″
	극남	구 미 동 산의 83	북위 37°19′ 54″
	극북	창 곡 동 산의 1	북위 37° 23′ 23″

2) 총면적 : 141.82㎢

(1) 행정편제

① 수정구 : 45.99㎢, 16개 동 281개 통 1,569개 반
② 중원구 : 26.39㎢, 10개 동 268개 통 1,610개 반
③ 분당구 : 69.44㎢, 18개 동 508개 통 3,110개 반
계 44개 동 1,057개 통 6,289개 반

(2) 세대 및 인구수 : 328,533세대 총 946,44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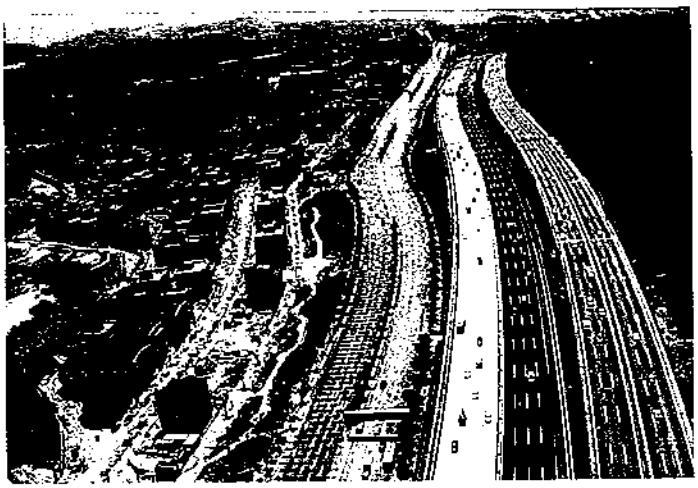
<표 8-7> (단위:세대, 명)

구분	세대			인구						
	총계	내국인	외국인	총계	남			여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총계	328,533	323,071	5,462	946,445	473,319	471,319	2,657	470,510	467,510	2,805
수정구	95,478	94,797	681	260,608	132,077	131,793	284	128,670	128,273	397
중원구	98,597	97,285	1,312	276,608	140,841	140,249	592	135,767	135,047	720
분당구	134,458	130,989	3,469	406,936	201,058	199,277	1,781	205,878	204,190	1,6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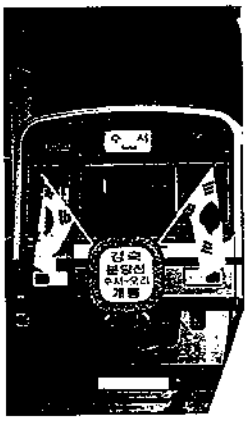
① 인구밀도 : 6.675/㎢, 증가율 : 9.9%
② 주택 : 190,151호, 보급률 : 77.7%

③ 1인당 지방세부담 : 733천원, 세대당 부담 : 2,094천원
④ 공무원수 : 2,196명, 1인당주민 : 431명
⑤ 상수도 사용(1인 1일) : 346 ℓ , 상수도 보급률 : 99.9%
⑥ 쓰레기 배출량 : 2,131톤, 분뇨 발생량 : 474㎥
⑦ 자동차 : 254,626대, 세대당 : 1.3세대당 1대
⑧ 의료시설 : 898개소, 1개소당 인구 : 1,054명
⑨ 교원 : 7,328명, 1인당 학생 : 23명(고등학교 이하)

4) 교통망



<사진 3-8 : 6> 성남시의 관문인 판교 · 구리 간 고속도로와 수서~청담 간 도시고속화 도로



<사진 3-8 : 7> 성남시도 지하철시대

성남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도로와 교통이 많이 변하고 발전해 온 지역이다. 1969년 개발 초기에는 천호동의 광진교가 유일한 서울로의 통로로 이용되어 오다가, 한남대교와 잠실대교를 통한 서울과의 도로교통이 주요 교통수단이었는데, 경부고속도로 개통으로 판교인터체인지를 통하여 전국 주요도시를 서울을 거치지 않고 직행할 수 있게 되었고, 경충국도가 확장 포장됨으로써 동부지방과의 교통여건도 좋은 셈이다. 그러나 일반대중의 교통수단은 '80년대 말까지 여전히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을 이용하였다. 도로의 발달로는 중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곤지암인터체인지를 이용한 전국 교통망이 형성되었고, 91년도 판교 구리 간의 순환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서울교통권을 완전히 벗어난 독립 교통망이 형성되었다. 더욱이 지하철 분당선이 '94년 9월 1일 개통되어 분당신시가지 주민들의 교통문제를 해소하였고, 지하철 8호선이 '96년 11월 23일 개통되면서 신 · 구시가지를 잇는 지하교통망을 확보하게 되어 주민들의 편익을 더욱 도모하게 되었으며, 전국 어느 도시 못지않은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 집필 張忠漢 향토사가
李載參 경원대학 교수



제2장 성남시 행정 발전과 성과

제1절 70년대의 행정체계

1. 70년대 초기의 주요 시정

1971년 8월 10일 일어난 소위 8 · 10사태 이후 주춤하던 부동산 경기가 1972년부터 호전되기 시작하여, 전국에서 모여든 이농자와 부동산 투기자들에 의해 건축경기에 활기를 불어넣어 1972년 827건에 불과하던 건축허가가 1973년 한 해 동안 2,226건으로 늘어났다.

1971년 8월 10일 성남출장소장으로 임명된 이석봉(李碩峰) 소장은 재임 4개월 동안 행정기본조사, 구호사업, 투자계획수립, 시체제의 기반조성 등 성남지역의 개발과 일반행정의 일원화를 통한 성남의 기반조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행정기본조사, 구호사업, 투자계획수립, 시체제의 기반조성 등 성남지역의 개발과 일반행정의 일원화를 통한 성남의 기반조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동년 12월 1일자로 이재덕(李載德) 소장이 부임하여 행정의 지표를 새도시건설, 사회질서확립, 생활기반조성 등 3개항을 설정하고, 새도시건설, 자활도시를 겨냥한 경공업 주거도시건설을 표방하고, 사회질서확립을 위한 부조리일소운동의 강력한 전개와 주민정신순화운동에 의한 모범시민육성을 활성화하며,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교통 · 통신, 고용증대, 중산층유치에 매진하였다. 또한 10대 역점사업으로, 민심선도와 주민조직강화, 새마을운동의 적극추진, 영세민 구호사업, 경공업육성 및 고용증대, 주민보건향상, 택지조성 상 · 하수도확충, 교통 · 통신망 확충, 도로망 확충 및 교량건설, 무허가건물과 불량건물 철거 및 개량 등에 행정력을 총동원하였다.

1972년 3월 23일에는 출장소관할에 2개 지소가 증설되고, 4월 6일에는 보건소가 설치되었으며, 7월1일에는 전메서가 들어섰다. 또한 동년 3월 27일부터 6월 30일 사이 분양지의 일제등록이 시행되기도 하였다.

(표 8-3) 시제 실시 전후 인구의 변화

구 분	단 위	'71.8.10	'73.7.1	'74.6.30	증 감 시제 전	증 감 시제 후
인 구 수	명	159,275	165,557	190,580	31,305	25,023
인구증가율	%		8.0	15.1	–	12.1
가 구 수	가구	33,637	35,176	39,980	6,343	4,804
농 가	가구	3,040	2,982	3,005	△85	23
비 농 가	가구	30,597	32,194	36,975	6,378	4,781
공 장 수	개	50	80	107	57	27
가동공장 수	개	8	53	71	68	18
가 동 률	%	14.3	66.0	66.7	52.4	0.7
취업자 수	명	32,410	44,685	56,849	24,439	12,164
실업자 수	명	21,412	11,821	8,419	△18,423	△2,402
취 업 률	%	60.3	79.1	87.1	26.8	8.0
실 업 률	%	39.7	20.9	12.9	△ 26.8	△8.0
시민소득	1/S	148	206	281	138	75
상 1일생산량	M/T	5,000	8,000	10,000	5,000	2,000
수 1일급수량	M/T	4,000	6,400	8,000	2,400	4,000
도 급 수 율	%	62.7	71.4	74.9	12.2	3.5
하수도연장	km	60.9	93.0	103.2	42.3	10.2
하수도보급률	%	20.6	61.2	74.3	53.7	13.1
도로연장	km	208.5	221.4	221.4	12.9	–
도 로 율	%	4.1	4.4	4.4	0.3	–
도로 포장률	%	4.3	12.3	15.2	10.9	2.9
주 택 수	동	19,287	21,070	25,799	6,512	4,729
주 택 률	%	57.3	59.9	64.5	7.2	4.6
전화대 수	대	716	1,974	2,303	1,587	829
전화 보급률	%	0.45	1.19	1.21	0.76	0.02
청소수거율	%	28.7	66.0	77.0	48.3	11.0
분료수거률	%	29.8	40.0	66.0	36.2	26.0
소방원 수	명	7	22	34	27	12
소방장비 수	대	2	3	6	4	3
소화전 수	개소	15	49	54	39	5
국민학교	개교	14	15	15	1	–
중 학 교	개교	5	7	7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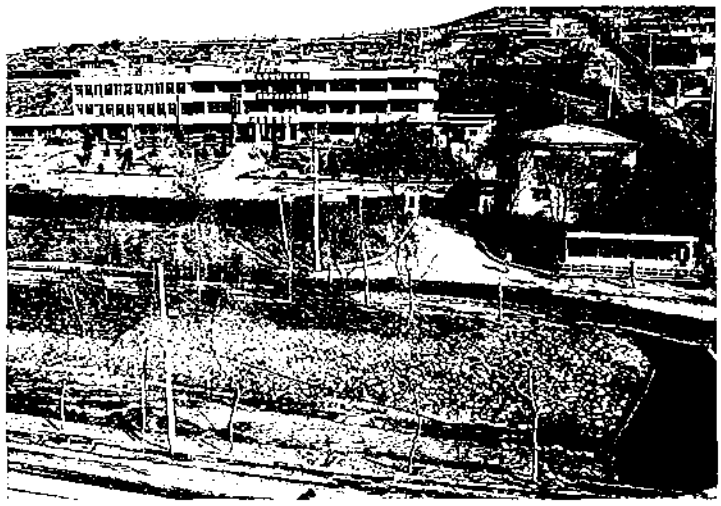
구 분	단 위	'71.8.10	'73.7.1	'74.6.30	증 감 시제 전	증 감 시제 후
고등학교	교	2	5	7	5	2
초급대학	개교	–	–	2	2	2
학생총수	명	25,452	35,543	41,083	15,631	5,540
법정동 수	동	–	–	41	41	41
행정동 수	동	–	–	18	18	18
통	개	–	–	115	115	115
반	개	739	1,197	1,104	365	△93
시공무원 수	명	135	276	347	212	71
행정기관	개	3	5	7	4	2

자료: 성남시지 (1982년)

2. 70년대 도시기반 조성 및 신도시 건설

박정희 대통령은 경기도 초도순시에서 성남시에 대한 영세민의 생계대책으로 하천개수 및 조경사업을 실시하여 노임을 지급하고, 녹화와 거리정비 및 무허가 건물(판잣집)의 신축을 금지하여, 조용하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1973년 한 해 동안 연인원 37만 명에게 1억 8천여만 원의 노임을 지급하여 1,045ha에 2백만분의 묘목을 심었고, 17km의 하천을 정비하였다.



〈사진 3-8 : 8〉 (구)시청앞 도로 (1973)

1974년은 유신과업 적극 추진의 해로 도시정비와 자립기반조성에 시정의 대부분을 노력하였고, 공무원의 유신이념 신념화를 위한 계도와 교육에 힘썼다. 도시새마을운동의 전개는 물론 농촌새마을운동과 학교새마을운동으로 소득증대, 환경정비, 저축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따라서 1974년 성남시의 서민의 생활안정과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남시에 대한 영세민의 생계대책으로 하천개수 및 조경사업을 실시하여 노임을 지급하고, 녹화와 거리 정비 및 무허가 건물(판잣집)의 신축을 금지하여, 조용하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 것을 지시하였다.



<사진 3-8 : 9> 단대천 복개 전의 새마을 취로 사업현장 (1970년대)

(1) 서민생활안정

- 영세민 취로(3,707가구)
- 노임지급(770,860천 원)
- 소득(가구당: 248천 원)

(2) 사업별 취로실적

- 취로사업: 연인원(753,322명)
  노임지급(270,329천원)
- 공공사업: 연인원(578,590명)
  노임지급(563,157천 원)

(3) 도시기반조성 건설사업

<표 3-9> 토지구획정리사업 내역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토지구획 정리사업	택지조성 : 144,000평	287,204천원
도로 및 교량	축조 : 2,700m	203,134천원
	포장 : 6,161m	
	교량 : 4개 소	
상 수 도	취수 : 5,000T/D	175,011천원
	배수관 : 14km	
하 수 도	9km	100,534천원
처 수 사 업	12km	58,556천원
공단부지 확장	132,600평	232,420천원
주 택 건 설	600동	390,000천원
합 계		1,446,859천원

자료: 『성남시사』 (1982년)

3. 70년대 중반의 주요 시정

1974년 11월 부임한 제2대 이남두(李南斗) 시장은 총화행정 구현, 서민생활안정, 도시기반 정비, 생산기반 확충을 시정목표로 정하고, 총화유신을 위한 봉사행정에 주력하였다.

1975년의 주요시정으로 희망대공원 조성, 공설운동장건설 추진, 접경지구 정화사업으로 K-16 기지 주변인 대왕면 둔전, 신촌, 오야, 심곡, 고등 등 5개 리 정비정화사업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동년 대형사업으로 "대원지구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는데, 76년 정부(박정희 대통령)의 5.4 조치 에 의해 중단되었다.

(1) 대통령의 지시사항

- 인구의 사회적 증가 억제
- 도시계획의 재정비
- 지속적인 건축통제(20평 이하의 대지 인근택지와 합병 추진)
- 신규전입 및 영세민의 취로 억제
- 상수도 5만 톤 확장사업 연차별 계획 및 재정대책 수립
- 나대지와 공한지 녹지사업 추진
- 대봉로 복개 민간자본 유치 검토
- 대곡교 연내 가설
- 애향심 고취로 모범도시 건설

(2) 성남시 도시계획 구역 설정

표 8-10 도시계획구역 설정표 (단위: ㎢)

구 분	기정면적	조 정	증 감	비 고
도시계획구역	132.588	132.588	-	
주거전용	-	2.284	2.284	신 설
주 거	8.920	6.204	△2.716	
상 업	1.081	0.876	△0.205	
공 업	1.625	1.600	△0.025	
자연녹지	-	121.624	121.624	
녹 지	120.962	-	△120.962	

자료: 『성남시사』 (1993년)

(3) 신 · 증축 제한조치

- 건축허가 : 1976년 5월 4일 이전 전입자에 한하여 건축허가 발급한다.
- 개발제한구역 및 남단녹지의 건축허가
  - -대지면적은 40평 이상이어야 한다.
  - -주택의 신축은 불가하며 증축은 39평까지 가능하고 부속건물은

10평까지 신증축이 가능하다.

-축사는 우사 30평, 돈사 30평 한도 내에서 신·증축이 가능하나 기존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토지 형질변경은 건축면적의 2배 이하이어야 한다.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300%로 제한한다.

• 주택전용지역 내의 건축허가

-대지면적은 60평 이상이어야 한다.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80%로 제한한다.

-3층 이상 건축은 불가한다.

-주거용 건축물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건축물에 한하여 허가한다.

• 주거지역 내의 건축허가

-대지면적은 27평 이상이어야 한다.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300%로 제한한다.

-일반점포 및 주택 건축이 가능하다.

• 상업지역 내의 건축허가

-대지면적은 60평 이상이어야 하며 폭12m 이상의 도로변에 접한 대지는 100평 이상이어야 한다.

-건폐율은 70%이며 방화지구는 80% 용적률은 1000%로 제한한다.

-일반상업용 건축물 및 오락시설 숙박시설 유흥시설 등의 건축은 불가한다.

4. 70년대 후반의 주요 시정

1976년의 5.4조치로 성남개발은 중단된 상태였다. 74년 한 해 2,547건, 75년에는 2,600건의 건축허가가 5·4조치 당해에는 1,342건으로 줄었다. 다만 도시녹화사업은 대통령의 지시로 76년 한 해 동안 160만 본의 묘목을 남한산성 주변과 나대지 주택지 등에 식재하였다.

1977년 7월 20일 박봉휘(朴峰輝) 시장이 부임하였다. 78년의 시정목표로는 건전도시건설, 시민본위시정, 시민총화의 구현 등 유신 말기 경직된 사회와 민심수습에 역점을 두었다. 즉 성남시의 역점사업으로는 새마을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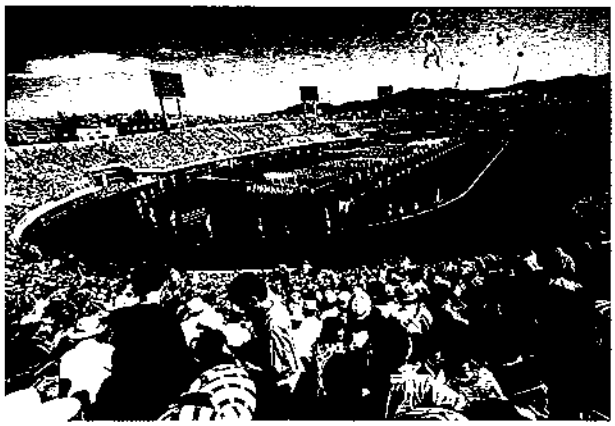
의 지속화, 도시개발시설 확충, 시민복지 증진, 도시기반시설 확충, 산업진흥 및 소득증대, 총화시정 구현을 추진하고 내실을 다지는 해로 정하였다.

이후 1979년 유신정권이 막을 내릴 때까지 성남시정엔 큰 변화가 없이 주택개량, 식량증산, 소득증대, 서민복지 등 시민정서 함양에 행정력을 도모하였다.

5. 70년대 성남시의 7대 특정사업

1) 공설운동장 건설

대원지구 개발사업과 함께 추진된 공설운동장 건설계획은 성남동 현 운동장 위치에 28,000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총사업비 17억 7천만원을 책정하였다. 그 내용은 종합경기장, 수영장을 갖춘 국제 C형의 운동장으로 1975년 착공하여 1979년에 완공한다는 것이다.



〈사진 3-8 : 10〉 성남 종합운동장

2) 대곡교 개통

세곡동을 통하여 강남 및 영등포로 통하는 성남의 관문으로 원래는 서울시에서 가설키로 하였으나, 미루어 오다 대통령의 성남순시로 성남시의 숙원사업인 대곡교 공사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 대곡교의 공사내역

－교폭 : 18m　　길이 : 17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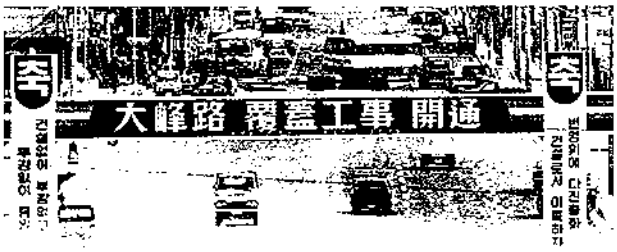
－암거폭 : 18m,　길이 : 24m

－공사비 : 6억 4천만 원

－준공일 : 1977년 3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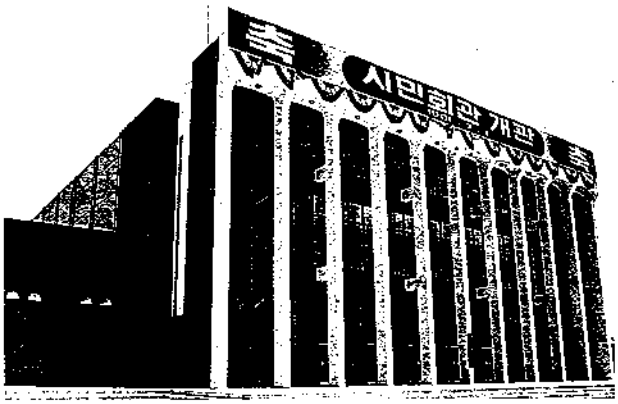
3) 대통로 복개

시청 앞의 독정천은 오물로 뒤덮여 악취가 진동할 뿐만 아니라 개천 양쪽





<사진 3-8 : 11> 시청 앞 독정천(대봉로 복개공사) 6차선 개통(1982년)



<사진 3-8 : 12> 시민회관 개관(1981. 7. 1)

으로 일방통행하는 도로는 노폭이 좁아 문제가 많았다.대통령 순시 시 보고를 하였으나 재정확보가 불가하므로 민자를 유치하도록 지시하였다. 민자유치가 어려워지자 3개년에 걸쳐서 복개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4) 시민회관 건립

- 위치 : 태평2동 3309-425, 3307-157
- 규모 : 대지 8,023평, 건평 1,721평
- 시설 : 대강당 1,114석, 소강당 296석, 전시실, 예식장, 이발관, 미용실, 연습실, 분장실, 사무실
- 구조 :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지하 1층, 지상 3층)
- 소요예산 : 22억 6천 5백만 원

5) 시립도서관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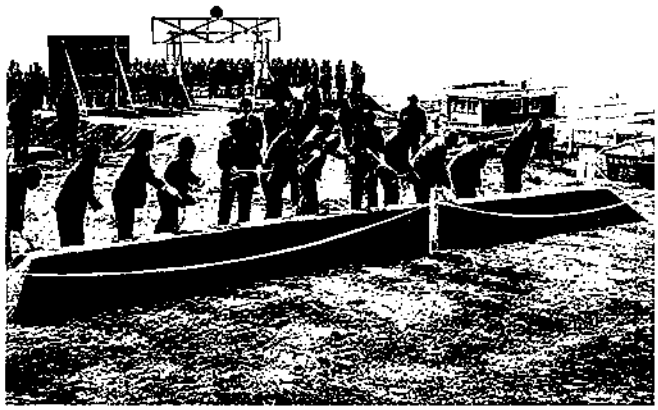
- 위치 : 신흥2동 293(희망대 공원 내)
- 규모 : 대지-1,179평, 건평387평(본관, 지상 5층, 부속관, 지하 2층, 지상 1층)
- 좌석수 : 767석
- 구조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 부대설비 : 태양열 설비
- 소요예산 : 10억 원

6) 시청사 신축

- 위치 : 태평2동 3309-425, 3307-157
- 대지 : 7,200평, 연면적 3,253.6평
- 본관 : 2,630.9평(지하 1층, 지상 5층)
- 시민홀 : 365.2평(지하 2층, 지상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

7) 고향심기 운동



<사진 3-8 : 13>현 시청사 기공식 (1980)

이남두(李南斗) 시장이 시제 실시 2주년 기념식에서 '고향창조운동' 전개를 제창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호적 옮기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고향창조운동의 일환으로 호적 옮기기 운동을 전개하여 주민의 정착 안정과 애향심을 기르며 새마을 협동심을 함양하는 데 있다.
-인적자원관리의 효율화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비교적 한가한 동절기를 이용하여 전개한다.
-각종 홍보매체를 최대한 이용하여 적극 계도한다.
-추진기간 : 1976년 11월 20일부터 1977년 4월 30일까지(6개월) 동절기를 이용한다.
-행정사항 : 각 동장 및 실, 과, 소장은 이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한다.

6. 70년대의 시세(市勢) 현황

1973년 시제 실시 직후 성남의 총인구는 190,580명이었는데 1980년 말의 총인구는 376.447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가구수 역시 39,980가구에서 86,325가구로 크게 늘어났다.

주택수는 27,374동에서 40,910동으로, 급수인구 역시 162,112명에서 3,676,447명으로 크게 신장하였다.



<사진 3-8 : 14> 1982년 시민회관 부근

《표 8-1》 70년대 성남시의 시세(市勢) 변동

구 분		1973년 12월 31일 현재	1980년 12월 31일 현재
총 인구		190,580명	376,447명
		남 : 95,781명 여 : 94,799명	남 : 187,755명 여 : 188,692명
주 택		27,374동(39,980가구)	40,910동(86,325가구)
수 도	취수	15,000M/T	42,340
	급수인구	62,122	3,676,447
	급수가구	34,281	86,325
	일일급수량	5,647	32,100
도 로	총연장	222.6	852.7
	국도포장	11.1	99
	지방도포장	8.3	22.6
	시도포장		5.37
차량분포	총계	81	2.747
	승용차	27	1,002
	화물차	233	1,575
	승합	9	95
전 력	호수	17,519	50,901
	동수	84,833	229,319
	KWH	8,195,609	15,817,123
공무원	총계	588	988
	본청	409	437
	사업소	45	229
	동	134	317
교 육	학교수	35	50
	학급수	575	1,408
	교원수	434	1,967
	학생수	39:053	88,258
문 화	라디오	28,995	68,516
	TV	3,216	65,032
	중앙신문	8,593	36,892
	지방신문	1,450	1,641

제2절 80년대의 행정시책과 성과

1. 1980년의 시정방향 및 성과

1980년은 제4공화국의 종말과 함께 유신시대의 막이 내려 민주화의 기

대가 큰 해였으나, 1979년의 12·12사태와 1980년 5월의 광주사태 등으로 정국이 혼미한 해였다.

1980년 3월 13일 제5대 이봉학(李鳳學) 시장이 부임하여, 뒷골목 환경정비, 새마을금고 육성, 새 생활 실천운동의 생활화, 자연보호, 소비절약 등 내실을 다지는 데 시정의 중점을 두었다.

2. 1981년의 시정방향 및 성과

1980년 11월 30일에 제6대 전영호(全英浩) 시장이 부임하여 81년 시정방향으로 「새 시대 꽃피는 새 성남」 건설을 시정지표로, 충직, 단합, 개발을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역점시책으로는 민심소재를 시정에 결집시키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의 적극적 사업화와 도시기반의 최대 정비, 서민생활의 절대보호, 복지시설 확충, 식량증산을 위한 경작면적 확대를 실시하여 제5공화국 첫해의 새 시대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민의결집에 전 행정력을 도모하였다.



<사진 3-8 : 15> 새마을 환경정비 기동대 발대식 (1981.시청앞)

주요 시정으로는 새 시대 새공직자상 확립을 위하여 공직자 윤리관 정립을 위한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대화행정과 대민봉사행정 확립을 위한 분위기 쇄신에 역점을 두어 사회단체와 각종 위원회, 반상회를 통한 화합기풍 조성에 주력하였다. 80년부터 범국가적으로 실시하던 사회정화운동도 범시민적 도덕운동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사회지도층과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자율정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80년부터 범국가적으로 실시하던 사회정화운동도 범시민적 도덕운동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사회지도층과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자율정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3. 1982년의 시정방향 및 성과

1982년 7월 9일자로 부임한 제7대 박제혁(朴齊赫) 시장은 시정방향을 「화합과 정의구현, 창의로 지역개발, 성실한 위민봉사의 해」로 설정하여 민

주시정 구현, 새마을운동의 활력화, 도시기반시설 정비, 서민생활의 알뜰한 보호, 복지시설의 최대한 확충, 식량증산과 지역산업 육성, 민방위 태세 확립, 88올림픽경기 대비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주요 사업실적으로는 연인원 40만의 시민교육을 비롯하여 대화행정, 반상회 운영, 감사활동 강화 등으로 시정의 민주화에 노력하였다. 뒷골목 정비, 거리질서, 자연보호,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도시녹화 등의 새마을운동 역시 확대 실시하였다. 그리고 도로의 개설 및 포장, 상수도 2차 5만 톤 증산을 위한 1,531m의 송배수관 부설, 하상 정리, 토지구획 정리 등의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다. 또한 노임 살포,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조성 운영, 의료시혜 등 서민생활보호와 1,520세대의 아파트건설, 시립 화장장, 복지회관, 도서관, 유아원 등 5건의 복지시설을 기공 또는 준공하고, 볍씨의 신품종 식재 확대를 통한 식량증산과 민방위태세 확립, 88올림픽경기 대비, 질서교육, 환경정비 등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4. 1983년의 시정방향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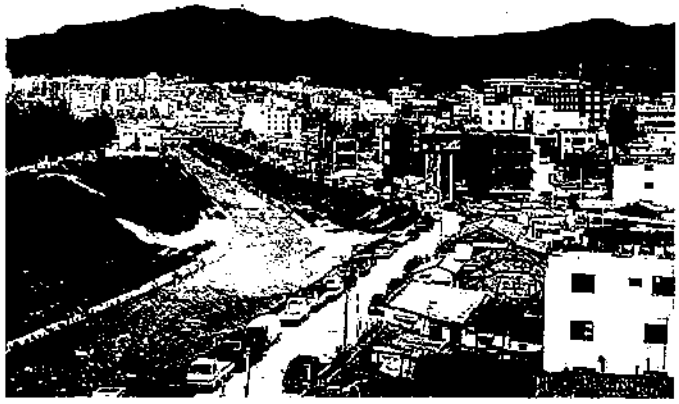
1983년 4월 14일 제8대 임경호(任敬鎬) 시장이 취임하였다. 동년 9월 8일 전두환 대통령(全斗煥大統領)의 특별지시사항인 K-16기지 주변 취락구조 개선사업과 6천 1백만 원의 특별지원으로 마을안길 포장, 진입로 포장, 하수도시설을 우선사업으로 추진하였는데, 진입로 포장, 마을식수, 택지매입, 주택부금 가입 등에 84년 10월까지 6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일반사업성과는 83년 한 해 동안 338억 원을 투자하여 316건의 사업을 추진 305건을 완료하고 11건은 이월하였다.

5. 1984년의 시정방향 및 성과

1984년의 시정방향은 시민본위, 생활편익, 선진추구를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지역사회안정, 위민봉사, 새마을운동, 사회복지,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내실 다지기에 역점을 두었다. 1983년 8월 8일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서울고속도로 진입로와 K-16 간의 마을을 취락구조 개념으로 정비하고, 진입도로 정비에 주력하여 1984년 말까지 총사업비 7억 6천 3백만 원을 투자하여 주택개량 25동, 주택보수 39동, 부속사 개량 25동의 기반시설 일식을 완료하였다.



<사진 3-8: 16> 중생중 · 고교앞 복개공사전의 단대천과 성남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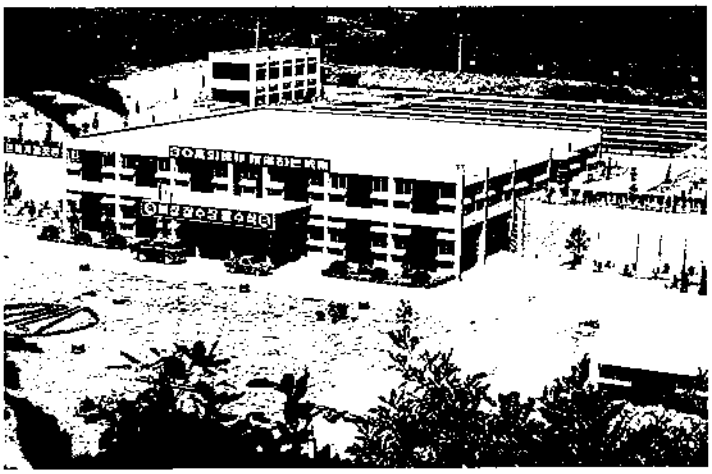
특별지원사업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50가구에 4천 6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우수새마을 특별지원사업으로 금곡동, 구미3동에 8백만원을 지원하여 마을안길 385m를 포장하였다.

일반사업 성과는 총 200건의 사업에 361억원을 투자하여 196건을 완료하고, 약진로 개설(공정 60%) 단대세천 복개(공정 70%), 희망대공원 개발사업(공정 50%), 보건소 건축(공정 40%)만이 계속사업으로 이월되었다. 대화행정의 확대, 민방위역량의 제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위민봉사행정의 실현 등의 시행으로 지역안정 구현에 역점을 두었다. 새마을운동, 사회복지, 도시기반 촉진 역시 확대 시행하였다.

6. 1985년의 시정방향 및 성과

1985년은 전두환 대통령(全斗煥大統領)이 성남시(城南市)를 연두순시한 해로 86아시안 경기대회와 88올림픽 체전에 대비하여 서울비행장 주변과 종합운동장 및 상무체육관 주변을 정리한 해였다.

동년 1월 11일 성남시청에 연두순시 차 내방한 전두환 대통령(全斗煥大統領)은 임경호(任敬鎬) 시장으로부터 시정보고를 받고, 86아시안경기대회, 88올림픽체전에 대비, 국제관문인 서울비행장 반경 5㎞ 이내의 마을과 주변 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품위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총사업비 236억 7천 6백만 원으로 85년과 86년 2개년 간의


〈사진 3-8 : 17〉 복정 정수장

사업기간에 18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사업 중 85년도의 성과로는 주거환경 정비 1,054동, 불량시설물 정비 296건, 주변지역 정비 87건 등 서울비행장 주변환경 정비에 주력하였다. 또한 특별지원사업도 계속 추진, 2억 4백만 원으로 2개 사업을 완료하고 200가구 846명에게 1억 9천 6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부녀복지회관 건립계획을 수립 85년 12월에 기공하여 86년 10월 완공목표로 단대동(丹垈洞) 4769번지에 5144㎡의 부지를 확보, 지하1층 지상 3층 연건평 2,1780㎡ 규모의 건물을 짓는데 사업비 7억 1천만 원을 투입키로 하였다.

85년의 주요 실적으로는 353건의 추진사업 중 348건을 완료하고 5건은 계속사업으로 이월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계속 사업

1) 상수도 3차 5만 톤 확장 공사 5만 T/D (20%)
2) 쓰레기소각장 설치 100T/D (5%)
3) 부녀복지회관 건립 2,174㎡ (5%)
4) 소방파출소 및 훈련탑 신축 683㎡ (7%)

7. 1986년의 시정방향 및 성과

신뢰행정의 실천을 위한 시민참여 행정의 확대, 위민봉사행정의 실천,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였으며, 민간주도의 자율실천을 통한 새마을운동과 시민생활 편익제고를 위한 도시기반 확충에 주력하였다.

1986년 7월 8일 부임한 제9대 김각현(金恪鉉) 시장은 신뢰행정의 실천을 위한 시민참여행정의 확대, 위민봉사행정의 실천,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였으며, 민간주도의 자율실천을 통한 새마을운동과 시민생활 편익제고를 위한 도시기반 확충에 주력하였다. 또한 올림픽 대비 사업으로 경기장 주변 9개 지역 222건을 정비하였고, 녹화사업으로 공원 1

계소 건설 및 2,096본의 나무를 식재하였으며, 선진시민상 정립을 위해 친절, 예절, 질서교육을 실시하였다.

1) 성남시의 특성

(1) 수도기능(首都機能) 분담 – 행정수요 급증

- 급격한 도시화 – 이질적 주민구성
- 생활권 서울 편중 – 산업, 경제, 교통 취약

(2) 개발제한, 군사보호구역 – 개발제약, 규제행정

- 개발제한구역 77㎢(54%)
- 군사시설보호구역 48㎢(34%)
- 구능형성(丘陵形成)도시–도로, 시가지 경사형
- 면　적 : 142㎢
  - –농경지 : 32㎢　　–임　야 : 80㎢(57%)
  - –대　지 : 9㎢　　–기　타 : 21㎢(15%)
- 가구 및 인구
  - –가　구 : 100,476세대　　–인　구 : 434,078명(증가율 4.1%)

2) 86아시안경기대회 성공적 완수

1986년은 아시안경기대회가 개최되는 해로 시정의 방향을 공무원의 국정방향 신념화, 시민의식의 선진화, 아시안경기대회 개최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신뢰받는 봉사행정, 고향의식으로 화합동참, 품격있는 도시조성의 해로 정하였다.

1986년의 주요 시정계획을 살펴보면 86아시안경기대회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서울비행장 주변 정리에 집중 투자키로 하였으며, 시민의 행정참여 확대를 위해 시장실 개방, 민원청취간담회, 조·석찬간담회 개최, 학생과 청소년의 대화를 수시 주선하기로 하고, 집단민원, 노사협조 등은 지역대책협의회가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친절, 공정봉사의 체질화와 자기반성의 시



〈사진 3-8 : 18〉 1986 아시안경기대회 육상경기 3관왕 임춘애 선수

간을 운영, 위민봉사행정을 실천하기로 하였다.

또한 통반장의 자질 향상과 사기를 진작시켜 반상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연인원 20만 명을 교육하여 시민정신 앙양과 경제실상을 주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조직 활성화 및 교육훈련의 내실화로 민방위태세를 확립하고, 1개소의 소방파출소를 신설하여 대형건물 및 취약시설 264개 소를 예방점검하여 화재예방에도 주력하기로 하였다.

사회정화운동은 민간주도 의식개혁으로 추진키로 하고 부탁 안하기, 줄서기, 사재기 안하기의 3대부정심리추방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특히, 모든 시민참여 행정과 사회정화를 위해 사회단체 및 유관단체를 활성화하기로 하였으며, 고향심기운동으로 고향 자랑하기, 전통 찾기, 뿌리 찾기, 정다운 이웃 만들기, 향토수 심기 등도 추진하며 도가(道歌) 및 시민의 노래 제창 보급도 시행하기로 하였다.

새마을운동을 민간정착의 해로 삼고 조직의 활성화, 민간단체지원, 지도자 정예육성, 교육확대, 지도자 사기앙양, 부녀지도자교육에 중점을 두기로 하여 86아시안경기대회 손님맞이운동과 환경정비, 청소, 근검절약, 국산품 애용 등 협동정신을 생활화 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판교(板橋)와 세곡동(細谷洞) 간의 노변을 공원화하기 위하여 2만8천 본의 나무를 식수하기로 하고 시내전역을 공원화하기 위해 꽃동산조성, 꽃길조성, 화분 내놓기 등의 사업도 추진하였다. 또한 자연보호운동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보호회 육성, 주말정화활동, 현장 계도단속, 오물주머니 제작활용에도 주력하였다.

영세민 생활보호 및 지원사업으로 총2,759세대 9,083명(총인구의 2%)에게 4억 7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2만 5천 명에게 의료혜택을 주기도 하였다. 특히, 세계 24개국에 진출해 있는 800세대의 해외취업자 가정의 가족보호운동으로 고충상담소 설치운영, 위안잔치, 정신교육, 서한(書翰) 발송을 추진하였다.

3) 1986년의 주요 실적

(1) 86아시안경기대회의 성공-시민의 자긍심 고양

(2) 도시환경 개선사업-10년 앞당긴 지역발전

(3) 86아시안경기대회의 완벽수행- 88올림픽 성공기반 구축

• 시가생활환경의 일신-쾌적한 도시면모 과시
• 시민의식 수준의 선진화 • 질서, 친절, 청결의 생활화
• 기반시설의 확충-지역발전 가속화
• 남녀 하키 세계 제패 -하키의 메카로 부상

(4) 서울공항 주변 정비- 반경 5㎞ 환경 개선
• 가시권 정비 -쾌적한 공항 환경 조성
• 가로공원 조성-도로정비 개선

(5) 고향심기운동 전개-애향심 함양
• 호적 옮기기 적극 추진 -애향심 함양
• 자랑스러운 시민상 제정 7개 부문(유공시민)
• 내 고향 향토수 가꾸기 - 지역별 대대적 전개

4) 86아시안경기대회의 성과

(1) 대대적인 정비사업-3,355건 991백만 원
• 생활주변 정비- 불량환경 중점
• 소공원 및 꽃길 조성-6개소 8.5㎞ • 하천 정비-7개소 9.3㎞
• 진입로 정비-10개소 1.3㎞

(2) 손님맞이운동-19개 분야 208백만 원
• 질서운동 추진-183회 15천 명
• 이용시설의 정비-시설정비 확충 1,114개소
• 서비스 종사원 교육-11천명

(3) 기반시설의 확충 -12,796백만 원
• 도로개설 및 포장 -30개소 15.6㎞
• 하수도시설 및 보수 - 60개소 6.4㎞
• 주택건설- 4,436세대 • 복지시설 확충 -3종 4동

(4) 대회성과- 화합과 단합의 결과
• 공설운동장 -남 · 녀 하키 세계 제패
• 상무체육관 - 20체급 중 9종목 우승

• 향토우수선수 발굴 -임춘애(林春愛) 외 2명(금메달 5)
• 응원, 관람, 봉사정신-시민의 적극적인 지지, 호응

5) 서울공항 주변 정비

(1) 쾌적한 환경 조성- 1,109백만 원
• 주택개량 및 취락개선 -242동 5개 마을 • 불량주택 보수- 2,059동

(2) 공항 권역 정비-14,067백만 원
• 도로개설 및 확장 - 2개소 10.5㎞ • 하천 정비 - 2개 천 11.2㎞
• 진입로 화단 조성-1.7㎞ • 가로수 식재 -2개 천 11.2㎞
• 가로소공원 조성 -3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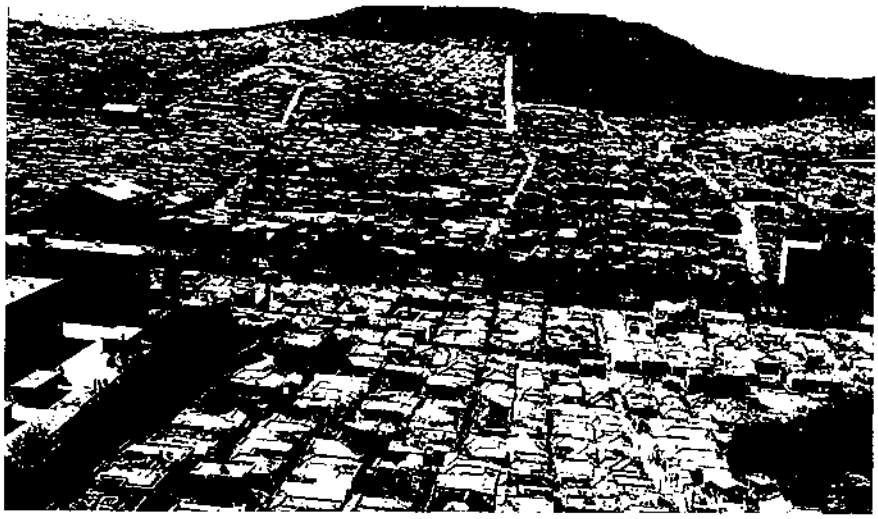
6) 고향심기운동 전개

(1) 호적 옮기기- 2,782세대 전적
(2) 종합예술제 제정- 문화, 예술전통 육성
(3) 주민숙원사업 성실 해결 -64건 2,467백만 원
(4) 재경성남 향우회 조직 -120명
(5) 향토수 심고, 가꾸기 - 2개소 시범지 육성

8. 1987년의 시정방향 및 성과

1986년 12월 24일 부임한 제10대 이해재(李海載) 시장은 1987년의 시정방향으로 모든 행정 및 재정은 시민만을 위해 집중 투자하여 시민으로부터 칭찬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 해로 정하고 정치적 사회불안과 노사분규 및 소요 무마에 역점을 두었다.

1987년은 정치적 격동기로 86아시안경기대회로 자제하던 노동쟁의가 급속 확대됨과 아울러 학원소요가 이른 봄부터 일기 시작하여 6월을 고비로 격화되자 그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자였던 노태우 후보가 6 · 29선언을 하게 되고, 헌법개정 국민투표와 대통령선거전으로 정치적 격변기의 해였다.



〈사진 3-8 : 19〉 중동에서 본 신흥동의 1980년대 모습

성남시는 86년 아시안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밑바탕으로 88올림픽 체전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환경조성사업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서울공항주변 정비사업을 거의 마무리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은사시, 이태리포푸라 등 850본을 서울공항 외곽에 식재하고 은행나무, 홍단풍, 꽃사과나무 등 6종 18,500주와 잔디 7,200평, 잣나무, 느티나무 등 9종 30,500주를 2차에 나누어 조경하였다. 서울공항 정문 담장 공사 1.7㎞를 붉은 타일로 교체하고 개나리 7,034본 소나무, 주목, 잣나무 265주를 식재하여 조경사업을 마무리 지었으며, 88년으로 이월된 사업으로는 담장 정비 300m, 건물 정비 60동, 가로공원 427㎡ 등이다. 특히, 고향심기운동의 성과로 2,960가구의 호적 옮기기와 차동차 240대의 차적을 성남으로 옮겼다.

그리고 성호시장과 하대원 사이 990m의 도로개설과 이배재고개와 하대원 사이 1,745m의 도로확장포장 공사를 착수하였다.

9. 1988년의 시정방향 및 성과

1988년은 제6공화국 집권의 첫해이고, 우리나라로서는 역사에 길이 남을 제24회 서울올림픽체전을 개최하는 해로, 올림픽 주경기장이 성남시와 인접할 뿐 아니라 주경기장을 두 곳이나 보유하고 있어 관민 모두가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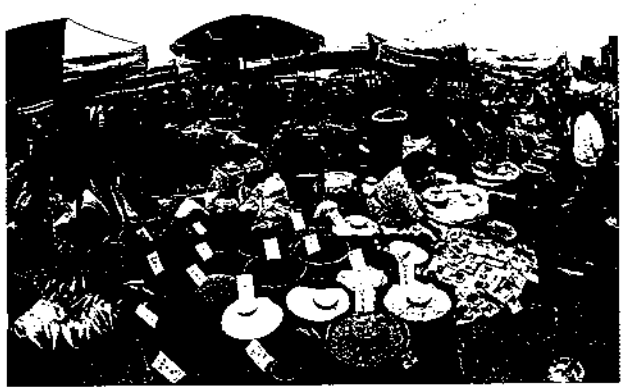
픽개최 준비에 가장 바쁜 해였다.

1988년의 시정방향은 새로운 시대적 이념의 시정 구현과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마무리사업에 역점을 두고, 지방자치 능력의 기반구축과 민주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권위주의적 자세 탈피가 우선적 과제였다.

올림픽 분위기 조성사업으로 2개소의 주경기장 건설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 2만 7천 명 수용 규모로 사용할 상무육상경기장, 도로공사구장(球場) (배구), 호남정유체육관, 판교에서 서성남 간 도로(사이클), 신촌(新村)에서 운중동 간 도로(마라톤과 경보)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했으며,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88올림픽체전 개최에 따른 긍지를 높이고 후손에게 올림픽을 치른 조상의 의지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건립하고 대형 꽃탑 2개소(운중동, 대봉로 입구), 올림픽파크 2개소(판교인터체인지, 복정동)를 설치하였다.

또한 복정동 아취탑 단장과 팜플렛 제작배포, 유선방송 활용으로 질서, 친절, 청결운동을 홍보하며, 마당놀이, 봉산탈춤, 농악놀이 등 성화봉송 환영행사도 거시적으로 추진하였다. 올림픽에 참가한 각국과 학교, 기업체 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기념품 증정과 응원 등 국제적 친선사업도 추진하였다.

그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방침을 세웠던 모란시장을 건전한 민속시장으로 정비 · 정화하여 올림픽관광 풍물시장화를 추진하였으며, 환경미화, 경기장의 교통해소 등에 봉사단체와 여성단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였다. '88년에는 새마을운동을 손님맞이운동으로 전환하여 거리질서, 상거래질서, 청소의 생활화, 새마을지도자 사명감 고취, 조직활동 강화에 중점을 두었고,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는 도시색채환경 개선, 광고물 정비, 노점상 · 포장마차 단속을 실시하였다.



<사진 3-8 : 20> 모란 민속시장

또한 전 시가지 꽃 가꾸기, 화단 만들기로 거리의 면모를 일신하였으며, 생활편익사업으로 생활주변환경 정비, 주민숙원사업 해결, 영세민 자활능력 배양에 힘쓰기도 하였다.

상수도사업으로 3차 5만 톤 확장공사로는 배수관부설 2.2㎞와 배수지 한 곳을 건설하

였고, 차집관거(遮集管渠) 2㎞의 부지를 매입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학계와 실업 계인사 40명 내외의 인원으로 「지역경제협의회」를 구성·운영을 추진하였으며, 관외 기업주의 지역사회 기여 유도 대책으로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성남종합예술제와 향토문화재,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문화예술진흥에 노력하였다.

1) 1988년의 주요 실적

(1) 주민자치행정의 기반 조성

- 지자제 실시 준비의 완결 – 자치법규 정비와 여건 조성
- 자치법규 정비 : 26건(조례 19, 규칙 7)
- 의회 사무실 확보 : 시 본청 5층 증축 250평

(2) 애향, 화합분위기 확산 –소외감 해소, 공감대 조성

- 전 계층의 대화 확산
- 반상회 자율참여의식 함양 : 수범사례발표 4회 39명

(3) 위민봉사의 신뢰행정 –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

- 내실 있는 위민실 운영 : 774건 해결
- 민원공무원 자세 쇄신 : 시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

(4) 시정발전 착상제도 운영 – 항상 시정을 연구하는 풍토 조성

- 착상발전지원협의회(着想發展支援協議會) 운영– 주 1회

(5) 올림픽대회의 성공적 완수

2) 공설운동장, 상무경기장의 쾌거

서울올림픽 참가 결과

- 하키 : 여자 – 은메달 – 8개국 참가 6전 4승 1무 1패
  남자 – 10위 – 12개국 참가 7전 1승 2무 4패
- 레슬링 : 2개 종목 47개국 참가 금메달 2, 은메달, 동메달 5
- 장애자 올림픽 : 7개 종목 금메달 14, 은메달 7, 동메달 3



<사진 3-8 : 21> 세계제패 기념 하키 기념탑

(1) 올림픽관련지역환경 정비 : 1,067건(경기장, 성화봉송로, 서울공항주변)

(2) 올림픽 "붐" 조성 – 전 시민의 총화 참여

- "붐"조성홍보 : 유선, TV방송 적극 활용
- 택시기사 홍보요원화 : 24개 업체 2,465명
- 올림픽참여 수기(手記) 현상공모 : 24개 부문 88개 분야

(3) 올림픽대회 지원

- 자원봉사 안전요원 배치, 자매결연 응원

(4) 시민위안

- 시민위안 잔치, 올림픽참여 수기, 경품추첨 시상, 자원봉사원 위로

(5) 손님맞이 새마을운동 – 올림픽 대비사업 연계 추진

- 범시민 3대운동 전개 –질서, 청결, 친절

(6) 새마을조직 활동 강화

- 환경정비 기동대 운영 : 44회 440평
- 조기 순찰 : 1일 15명–타 지역 비교 평가

(7) 시민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 생활민원 적극 해결
- 상수도 노후관 교체 18.9㎞
- 하수도 노후관 교체 1.95㎞
- 보안등 설치 23개소
- 숙원사업 해결 –시정 신뢰도 제고
- 도로포장:17.3㎞
- 노인정 신 · 증축 9동
- 교량시설 : 6개소
- 영세민 자활능력 배양–기술교육, 직업훈련, 취로사업

(8) 도시 취약 구조의 개발

- 도심지 주차장 설치 –대봉로의 10개소 634대

- 상수도 3차 5만 톤 확장 -25천t/일 →175t/일
-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 1일 165천 톤(전체공정 20%)
- 쓰레기소각장 시설 -1일 100톤 규모(국제계약 추진)
- 상대원~이배재 간 도로개설 -1,636m
- 중동~하대원 간 도로개설 포장 -990m
- 근린공원 개발 - 3개소 562평



<사진 3-8:22> 하수종말처리장

(9) 지역경제발전체제 강화

- 4대 애향운동 지속 추진
- 기업체 본사 이전 : 3개 업체
- 시민고용 : 543개 업체 2,995평
- 차적 옮기기 : 192대
- 내 고장 상품, 업소 애용하기 : 88개 품목 318,115천 원
- 저축증대 : 4,211억원 -'88년 도 평가결과 우수상 수상

(10) 문화예술 창달과 체육 진흥

- 문화활동의 장려-종합예술행사 개최
- 향토문화제 거행-호돌이 장사씨름대회, 전통혼례식 시연(試演)
-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7,000명 수용 89년 8월 준공
- 체육우수선수 장학금 지급 : 8명(중 · 고교생)
- 체육특기학교 육성 : 20개 교

(11) 특수시책 추진

- 「공부방」 설치 운영
- 학교 공부방 개설 운영 : 21개소, 31교실, 1,158명 수용
- 공부방 건립 : 3동, 302개석
- 도시새마을 소득증대 시범마을 육성
- 영세민 최대집단지역(달동네)-은행2동 14통
- 합동주택 건립 : 12동 24세대
- 복지회관 건립 : 1동 120평(마을회관, 공부방, 노인정, 공동작업장)
- 기반시설 : 하수도시설 600m
- 생활안정자금 융자 : 4세대 8,000천 원

(12) 청소행정 강화

• 2.5t 청소차량 10대 구입 – 4m 이하 뒷골목 운행

10. 1989년의 시정방향 및 성과

1989년은 지방자치기반 구축과 시민생활안정의 해로 86아시안경기대회와 88서울올림픽체전의 개최에 전념해온 행정력을 시민생활안정 기반구축에 총력을 추구한 해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1989년 봄이 되자 가격 상승이 절정에 달하여 몇 배씩 폭등하는 예가 속출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4월 27일 분당지역 일원에 50만 명 수용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분당신도시개발 계획이 발표되자 부동산 거래는 물론 가격이 주춤하였다. 이 발표는 성남시 일대에 전진적 변혁을 가져왔다. 처음 발표로는 성남시와 무관한 별도의 독립시를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주거구조와 도시기반이 취약한 기존의 성남시를 따로 떼어 제쳐두고 남단녹지만을 떼어 초현대식 주거도시를 건설한다는 방침에 모든 시민들이 당황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실제 추진단계에서는 신도시건설이 성남시로 흡수 추진되어 시세(市勢)의 일대 급변을 가져오게 되었다.

⊙ 1989년 주요 실적

(1) 주민자치행정의 기반 조성

• 지자제실시 준비 –의회사무실 1,429㎡
• 각계각층과의 대화 확대 –248회 79,741명
• 국민생활보호를 위한 공권력 확립 –법질서 정시풍조 일소 주력

(2) 저소득층 복지시책 적극추진

• 시민생활보호 –71천 명 3,003백만 원
• 사회복지시책 지원 –10개소 508백만 원

• 시민편익 증진 -의료시혜 37천 명, 가족계획 8,519명

(3) 시민편익 증진과 생활기반 확충

• 장애자시설 확충 - 352개소 55백만 원
• 민원직결사업 적극 해결 - 373개소 2,647백만 원

(4) 활기찬 새마을운동의 추진

• 가로환경 시설물 정비-광고, 게시판은 8,837건
• 체전대비 환경 정비- 1,137건 579백만 원

(5) 도시취약 구조의 지속 개발

• 도로망 확충 - 6개 소 4,746m 17,632백만 원
• 상수도시설 정비 - 40㎞ 1,378백만 원
• 주차장 확보 -11개 소 568대

(6) 지역경제발전 체제의 활성화

• 4대 경제애향운동 추진
• 기업체 본사 이전 3개 기업체, 시민 우선고용 3,015명
• 차적 옮기기 172대, 내 고장 상품애용 44건, 65백만 원
• 저축증대 추진 - 6,034억 원 '89년도 평가, 장려상 수상

(7) 문화예술 및 시민체육진흥

• 체전시설물 건립 - 롤러스케이트장(125링크), 성남체육관(지하1, 지상4)
• 전국체전 개최 -경기도 1위(성남 5개 종목 개최)

(8) 분당신도시건설 지원

• 지원사업소 설치 - '89. 6. 20. 2과 5계
• 주민의견수렴 건의 -이주 보상 등 75건
• 보상심의회 개최 - 21명 8회 9,575억 원(65%)
• 시범단지 분양 -1차 분 4,036세대

(9) 사업별 성과

- 법질서 확립 평가 -최우수(내무부)
- 산불방지 평가 -최우수(산림청)
- 소방장비관리 평가 -최우수(경기도)
- 제38회 4H경진대회 -종합우승(경기도)
- 체전대비 추석맞이 새마을대청소 우수(경기도)
- 청사 관리 평가 -우수(경기도)
- 세외수입 추진 평가 - 우수(경기도)
- 공예품경진대회 -우수(경기도)

1. 1990년의 시정방향 및 성과

1) 개 황

1989년 5월 1일 구청제도가 실시되고 동년 6월 20일 분당지구 개발지원 사업소가 설치되면서, 시세의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1989년 12월 26일 12대 오성수(吳誠洙) 시장이 부임하여 90년대를 여는 의욕 찬 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시정목표는 시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시정으로 전환할 것과 안전, 화합, 발전의 내실 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키로 하고, 정직 성실한 봉사행정, 시민화합과 지역안정, 균형발전과 복지증진을 시정방침으로 내걸고 다음과 같은 역점시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새마을운동 활력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지역안정의 책임수행과 건전사회 기풍 진작
-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 신도시건설의 분담기능 수행과 균형발전 촉진
- 신뢰 · 화합 · 참여의 민주시정체제의 강화
- 주민불편 해소와 복지시책의 추진
- 정서 깃든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시민체육 진흥
-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 능력 제고

2) 새마을운동 활력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1)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새마을운동의 활력화를 기하고 지도자의 사기 앙양, 교육 강화, 후원회 운영으로 자율추진을 제고하며, 질서, 청결, 검약 등 도시 새마을운동과 근교 농촌마을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증대를 이룩하며 새마을운동의 재점화를 기한다.

(2) 상수도 4단계 확장공사(55,000T/D), 노후관 교체, 정수시설 개량사업으로 단수 없는 맑은 물을 공급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수질개선, 상수원 수질을 보호함으로써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해결한다.

(3) 인근공원 개발과 놀이터시설 확충, 푸른도시 가꾸기,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도시 미화와 시민휴식공간 확충을 추진키로 한다.

3) 지역안정의 책임수행과 건전사회 기풍 진작

(1) 정보의 교환 및 공동대처와 정확한 분석과 보고로 지역방위체제를 공고히 하고 집단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풍조를 방지하며, 공공기관 자체방위태세 확립과 민방위조직 정비, 조기경보 체제 확립, 주민신고정신 강화 등으로 지역방위의 자주적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2) 교통질서 확립과 노점상을 단계적으로 정비 · 정리하여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그린벨트 내의 불법행위 단속과 보건위생퇴폐업소를 철저히 관리하여 법질서 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3) 맑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통반조직을 통한 사회불안 요인을 예방하며,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노사정(勞使政)간담회 개최,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노사간 불협 요인을 해

소하고, 퇴폐풍조 일소,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강화 및 불법행위에 강력대처하기로 하였다.

4)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1) 그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오던 기업체 본사 이전하기, 기업체 인력의 시민 우선고용, 차적(車籍) 옮기기, 내 고장 상품업소 애용하기의 4대경제 애향운동을 구체적·발전적으로 시행한다.
(2) 공예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안정시책으로 내 고장 유명공산품 전시장 운영, 우수공예품 개발 육성 지원, 부동산투기 억제,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 근검, 절약, 저축의 생활화, 제2금융권 (서은리스) 유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3) 기계화영농단의 육성, 우량볍씨 공급, 축산농가 육성, 유명특산물부락 육성, 영농전문기술교육, 농업기술대상 등의 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4) 도시의 4대 난제인 주택, 주차, 쓰레기, 공해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택개량 50동과 2,300여 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며, 주차관리 개선, 민영주차장 확대 추진, 쓰레기소각장 건설(100T/D), 환경교육 강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5) 도로망의 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제2공단과 경충국도 간의 도로개설 포장, 은행1동 진입로 확장 포장, 약진로 확장 포장, 단대천복개 등의 사업추진과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구 종점과 산성동 사무소 간의 도로를 가변차선화하여 차량진입도로 점용허가 개선과 도로굴착 및 복구업무를 개선하여 교통체증 완화를 꾀하도록 하였다.

5) 신도시건설의 분담 기능 수행과 균형개발 촉진

(1)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원활한 협의매수를 촉진한다.
(2) 주민동향을 파악하여 집단행동을 예방하며, 주민생활 안정과 편의지원 사업으로 아파트형공장 건설을 추진하며, 기존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을 재검토하고, 서울간 전철건설을 추

진하며, 분당지구 현 상태를 사진 촬영하여 신도시 기록보존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6) 신뢰, 화합, 참여 민주시정 체제의 정착

(1) 성남에 정(情)들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우회간의 자매결연, 영세민 집단지역의 환경개선, 통반장의 사기 진작,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정소식」지 발간 배포, "성남뉴스" 확대운영 등으로 시민의 일체감을 조성하여 애향심을 고취한다.

(2) 친절봉사의 체질화와 찾아가는 봉사행정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부각시키며, 도시계획과 건설행정 등을 수시 공개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으로 정직한 행정구현에 노력한다.

(3) 반상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민과 행정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원참여, 자원봉사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7) 주민불편 해소와 복지시책의 추진

(1) 통합공과금제 실시, 전화 적체 해소, 탁아소 운영, 야간금고 증설,자동차사무 전산운영 등 생활여건을 편리하게 조성한다.

(2) 하수도 노후관 교체, 하천(河川) 정비, 뒷골목 포장, 노인정 건립, 가로등 설치 등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3) 저소득층 보호와 자활기반 조성사업으로 한성 1,2자해지구에 29건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효율적인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4)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무의탁노인 요양시설 건립, 노인대학 운영 등의 노인복지사업과 1단체 1사업 추진, 고부교실운영, 부녀취업 훈련 등의 부녀복지사업을 시행하여 부녀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해 극빈자녀 장학사업, 그리고 산재근로자 및 근로자 임대아파트 건립 등 근로자복지에도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5) 가족계획사업의 내실운영, 취약지역 이동순회 진료, 정박아(精薄兒) 조기발견 및 전문기관 검사의뢰, 전염병예방의 만전, 시민보건

저해요인 퇴치 등 시민보건위생의 향상에 힘쓰며 보건소 1개소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8) 정서 깃든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과 시민체육 진흥

(1)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을 추진키로 하고, 우선 900평의 부지를 확보하며, 어린이합창단·시립합창단 운영 등의 문화예술시설 확충과 남한산성 축성놀이 전수학교 지정, 쌍용 줄다리기 등 우수 전통 민속놀이 육성, 「성남종합예술제」 개최,「향토문화제」 개최, 민속경기, 농악, 새농민대회 개최 등의 내실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2) 30개 학교의 체육특기학교 지원 육성, 직장체육팀 확장, 조기 에어로빅, 동호인 체육 활동 등 건전 사회체육을 권장한다.
(3) 국제 및 전국 규모의 경기대회를 유치하여 체육 열기를 확산 고취하기 위하여 36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의 대비, 친절, 질서 등 손님맞이 사업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9)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능력의 제고

(1) 의회관련 자치법규 31건을 정비하고 사무국인력 보강, 공무원의 지자제법규교육, "지방자치기획" 운영 등으로 지방의회 운영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자치행정의 기반구축을 위해 태평2동을 분동하고 구 청사 2개 동을 신축하며, 자립재정기반 확충시책으로 토지과표의 현실화, 공영사업의 발굴, 세원의 탈루 방지 등에 주력한다,
(3) 새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매사에 능동적 대처, 합리적 사고력 배양, 소신 있는 직무수행으로 새 공직자상을 확립한다.
(4) 전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함께 기강확립에도 역점을 두어 민간시정 모니터 운영과 정신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10) 90년의 시정 성과

(1) 중점시책

-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 정착화를 위한 철저한 추진
- 시영아파트 건립 -1,560세대 전국 최초로 보증금 없이 입주
- 장학기금 조성 - 20억 원 조성, 606명 배움의 길 마련
- 이웃돕기 연중 실시 - 접수 10억 원 17세대 지원
- 맑은 물 공급 - 50천T/D 증설, 팔당(八堂)의 1급수
- 시유지, 국유지 찾기 -미등기, 미복구 2,563필지 90만 평 색출
  ※등기 1,550필지 560,832평(미관리 등기 18필지 67,563평)
- 노점상 정비 - 2,205개소 완전정비, 깨끗한 도시 이룩
- 노상 적치물 정비 - 4,108건 과태료 부과 58건
- 단대천 고수부지 정비 - 1,368m 주차난 해소 및 수해 예방
- 모란 5일장 정비 - 대원천 복개지역 도시미관 조성
- 재래시장 정비 - 상대원, 현대, 중앙, 제일시장, 성호상가 등
- 구두닦기함 정비 - 56개소, 도시가로 환경미화
- 종합복지회관 건립 - 5개소 주민편익 증진
- 개인택시 우대배정 - 108대(81%) 운전기사의 '소망' 실현

(2) 일반시책

- 시민화합 및 자치역량 제고
  -신뢰받는 봉사행정 실천 : "365 기동봉사반", "민원직소제" 운영
- 시민과의 한마음 조성 -경조사 찾아보기, "시정소식"지 발간
- 지자제 준비 만전 - 집기 55종 60백만 원
- 저소득층 복지시책 확대
- 공부방 건립 - 7개소 540석 329백만 원
- 탁아시설 건립 -1개소 100평
- 생활안정자금 융자 - 85세대 251백만 원
- 주민편익 증진

-주차시설 확충 : 8,485면 증설
-쓰레기 매립장 운영 : 1개소 33천㎡ 158백만 원
• 종합공과금제 실시 : 6종 224억 원 부과
• 지역경제 자립기반 구축
-4대 경제애향운동 추진
-기업체 본사 이전 3개 기업체, 시민 우선고용 2,200명
-차적 옮기기 608대, 내 고장 상품 애용 52건 198억원
-상대원 공업용지 조성 : 50,091㎡ 48억 원(18개 업체 수용)
• 도로 및 가로환경 정비
-도로망 정비 : 5개소 3,112m, 11,851백만 원
-가각전제(街角剪除) 공사 : 6개소, 교차로구조 개선
-어두운 뒷골목 해소 : 보안등 1,700등, 가로등 145등
• 문화예술 창달과 체육 진흥
-전통 민속놀이 재현 : 쌍용 줄다리기, 남한산성 축성놀이
-제36회 도민체전 개최 : 시민 대화합 전진의 계기 마련

(3) 사업별 성과

• 국가 주요정책 유공 -기관포상(대통령)
• 체육 진흥 시책 평가 - 최우수(경기도)
• 도시행정업무 수행 평가 - 최우수(경기도)
• 제6회 시군행정 연수대회 - 최우수(경기도)
• 공예품 경진대회 - 최우수(경기도)
• 제39회 4H 경진대회 - 종합우승(경기도)
• 노점상 정비관리 평가 - 우수(경기도)
• 지방자치 재원확충 평가 - 우수(경기도)
• 전국 소방기술 경진대회 -개인부문 종합우승(내무부)

2. 1991년의 시정방향 및 성과

1) 개황

'91년의 시정목표로 자치역량 제고와 민주시정 구현, 현장 위주의 실질적 행정수행과 전국 제1도시 성남을 건설하는 것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은 역점시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의 자율적 정착화 추진.
- 자치역량 제고와 시민본위 봉사행정 구현.
- 저소득층 주민의 실질적 지원시책 지속 전개.
- 시민과의 약속 및 숙원사업의 착실한 실천.
- 지역안정과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기반시설의 확충.
- 지역경제의 활력화 추진 및 농가소득 증대.
- 문화공보 활동의 활성화와 시민체육 진흥.

2)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의 자율적 정착화 추진

(1) 범죄성 유해환경 단속에 대한 전 공무원의 지역별 책임제 실시
(2) 상설기동반 운영, 단속인력 · 장비보강,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 확립
(3) 홍보계도 및 범시민의 참여분위기 조성
(4) 학교경계 200m 이내 업소에 대한 별도 관리, 엄격한 법집행과 위법 시설물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철저한 관리.

3) 급증하는 교통량에 대비한 교통질서 확립

교통질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불법 주 · 정차를 강력 단속하여 주 · 정차 공간 확충

4)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1)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자연보호, 등산(山)쓰레기 투기 방지, 공해배출 업소 중점 단속, 환경정화 및 오염제거에 만전을 기한다.
(2) 1990년 10월 26일자 정비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 · 관리. 민간조직의 지원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실천 분위기 확산

3) 자치역량 제고와 시민본위 봉사행정 구현

자치행정의 기반 조성과 정직 · 성실한 공직풍토 조성, 민원실 환경 정비와 민원 편의 제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풍토 조성 등.

즉,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의회사무실 정돈, 선거사무 대비 시민의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법 내용 홍보교육, 의회 활동의 공개, 정직 · 성실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실천, 깨끗한 공직자세 정립, 공직 내부의 결속강화와 청사환경정비를 위하여 구청 2개소, 동사무소 4개 소, 소방파출소 1개소를 신축, 주민 관리의 전산화를 통하여 민원편의 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4) 저소득층 주민의 실질적 지원시책을 전개

사회복지시설 확충,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자활기반 조성, 가정복지사업의 증진, 시민보건 향상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1) 사회복지시설 5개소 = 연건평 1,500평의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노인 요양시설 건설을 추진하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한성 1, 2지구와 자혜지구에 21개 사업을 시행하여 650동의 주택 개량을 추진하고 1,312명의 생보자(生保者) 및 동 · 반장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이웃돕기를 연중실시하고 영세민의 생활안정 자금, 노점상 생업자금 지원과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취업알선도 시행하기로 하였다.

(2) 가정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 여성복지, 건전청소년육성, 새마을 공부방 운영, 탁아소 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청소년종합복지센터를 희망대공원 내에 3개년 계획으로 건설하기로 하였다.

(3) 시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 신축, 의료시혜 확대, 가족계획과 모자보건사업, 방역소독과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4) 시민과의 약속 및 숙원사업의 실천을 위하여 보증금 없는 아파트 5,000세대를 건설하도록 하였다. 90년도 건립 분 1,560세대 입주를 추진하고, 91년 계획 분으로 3,500세대를 착공 93년 12월 준공키로

하였고 50억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저소득층과 근로자 자녀 및 성남시의 영재(英才)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90년 분 20억 원 외에 91년도 분 3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하철 8호선 건설도 차질 없도록 하였다.

9) 주민숙원사업 해결

(1) 기반시설 정비 – 4,607백만 원
(2) 하수도 정비 – 12.8㎞ 1,353백만 원
(3) 뒷골목 포장사업 – 35개소 7.5㎞ 745백만 원
(4) 시가지 덧씌우기 공사 – 47.6㎞ 562백만 원
(5) 하수도 및 포장사업 – 11개소 1.9㎞ 227백만 원
(6) 도로시설물 보수 – 54.5㎞ 155백만 원
(7) 하수도구조물 보수 – 1,130개소 225백만 원
(8) 하천 정비 – 1,150m 115백만 원
(9)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1,225백만 원
(10) 생활시설 정비 – 600백만원
- 방범 비상벨 설치 – 12,060개 121백만 원
- 가로등, 보안등 정비 – 3,538등(燈) 295백만 원
- 어린이놀이터 보수 – 24개소 36백만 원
- 노인정 보수 – 10개소 10백만 원
- 시립도서관 보수 – 1개소 60백만 원
- 공중화장실 정비 – 46개소 26백만 원
- 새마을 시설물 보수 – 88개소 20백만 원
- 안내판, 게시판 보수 – 287개소 32백만 원

(11) 지역안정과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으로 지역안정의 지속화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 추진 및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기로 하였는데 지역방위능력 강화, 민방위역량 제고, 그린벨트 보존, 법질서 확립과 사회불안요인 해소, 재난 예방, 지역안정의 지속적 관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 추진,
행락철과 공휴일에 집중적인 자연보호활동 추진, 근검, 절약, 저축의 생활화와 노사간의 불협화요인 해소로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12)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안정과 생활주변 정비, 맑고 풍족한 수돗물 공급, 쾌적한 생활환경의 보전,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분당신도시건설 지원업무 추진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영임대아파트 3,500세대를 포함 12,091세대의 주택을 건설하고, 생활주변정비로, 희망대공원 조성, 산지녹화, 변두리마을 환경정비 250여건을 추진키로 하고 상수도 4단계(55,000T/D) 확장공사를 추진하여 맑고 풍족한 수돗물을 공급하며, 대왕저수지를 정화하여 비상 급수원으로 대비하기로 하였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지에 힘쓰고 오물처리 능력을 제고키 위해 성남쓰레기 소각장과 분당쓰레기 소각장을 각각 건설하고 도시가스공급 확대와 배연단속 강화로 대기 오염을 줄이도록 하였다. 또한 도로망을 확충하고 도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도로교통의 원활을 기하고, 주차장 확충, 교통 체계 관리 개선, 불법 주·정차단속을 강력하게 시행하기로 하였다.

분당신도시건설 지원업무 사업으로는 세입자 지원대책으로 임대아파트 제공, 이주보조금 지급 등을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세입자용 상가부지 매입, 미 이주자 이주 촉진과 기반시설 설치의 지원, 아파트형 공장 건설, 교통, 하수도, 전화 등에도 입주자의 생활편익에 힘쓰도록 하였다.

(13) 지역경제의 활성화 추진 및 농가소득증대사업으로 4대 경제애향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물가안정 대책 및 공예산업육성, 단대(丹垈)5거리와 교육청 사이 1.7㎞ 지하상가 건립 추진, 상대원시장, 국제시장, 성호시장 등 재래시장을 증축 또는 개축하며, 백화점 2곳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영농구조 개선책으로 근교농업을 육성하고 농산물수입개방에 대비 새로운 작물 재배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14) 문화공보활동의 활성화와 시민체육 진흥 시책으로 "성남시사" 발간으로 향토문화예술 진흥에 힘쓰며, 시민의 만남을 위한 한마당잔치, 종합예술제, 향토문화제. "시민의 날" 경축행사 등을 시행하고

"달라져 가는 우리성남"지를 발간하여 홍보에 노력하였으며 시민 체육의 생활화를 위하여 인근의 산(山) 체육시설 활용, 사회 체육의 진흥, 종합체육시설의 적극 활용, 씨름왕 선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상과 같은 일반시정 · 사업계획 외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판교, 구리(板橋, 九里) 간 고속도로 건설, 주택 200만 호 건설, 저소득층 자립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90년 10월 13일 노태우(盧泰愚) 대통령이 선언한 '범죄와의 전쟁'에 적극 대처, 전 공무원을 4개 조로 편성, 기동단속을 하며, 범인성 유해환경 일소, 교통거리질서 확립, 환경정화 및 오염방지, 민간조직의 지원활동 촉진, 활기찬 성남건설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6) 일반시책

(1) 신뢰받는 봉사행정 실천 – "시민과의 대화", "민원 직소제" 운영
(2) 시민과의 한마음 조성 – 경조사 참여하기, '시정소식'지 발간
(3) 생활안정자금 융자 – 66세대 210백만 원
(4) 4대 경제애향운동 추진
  • 기업체 본사 이전(3개 기업체), 시민 우선고용 2,500명
  • 차적(車籍) 옮기기(407대), 내 고장 상품애용 55건 256억 원
(5) 우수공예품 개발비지원 – 22개 업체 19백만 원
(6) 도로망 확장 및 개설 – 10개소 4,641m 5,873백만 원
(7) 가각전제(街角剪除)공사 – 5개소 80백만 원, 교차로 구조 개선
(8) 어두운 뒷골목 해소 – 보안등 1,260등 가로등 56등

7) 중점시책

(1)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 건전시민의식 재정립
(2) 장학기금 조성 지원 – 50억 원 조성, 1,746명 배움의 길 마련
(3) 이웃돕기 연중실시 – 접수 15억 원 24천 세대 지원
(4) 사유지, 국유지 찾기 – 미등기, 미복구 1,370필지 33만 평

※등기 420필지 143,866평(대지 3, 전 7, 답 3, 임야 1, 기타 406필지)

(5) 도시 정비 – 2,205명 투입 완전 정비, 깨끗한 도시 이룩

(6) 재래시장 정비 – 상대원, 국제, 현대시장, 성호상가 등

(7) 모란시범상가 이전 – 117개 점포 이주지 알선 및 생업자금 융자

(8) 단대천 고수부지 노점상 이전 – 401개소, 지하철 건설 및 수해 예방

(9) 도시공간 녹화 및 환경 조성 – 희망대공원 조경 외 5종 535백만원

(10) 경로식당 운영 – 2개 소 60천명 30백만원 경로효친 고양

(11) 은익(隱匿), 탈루세원 발굴 – 법인의 비업무 토지 등 5,480백만 원

(12) 공유재산 집단화 – 13천 평, 대체재산 조성 1,644백만원

(13) 주거환경개선사업 – 3개 지구 21개 사업 585백만 원

(14) 노인요양시설 건립 – 1개소 609평 1,229백만 원

(15) 주차시설 확충 – 87개소 425㎡ 25,521면

8) 대단위 사업

(1) 시영아파트 건립 – 1,560세대 입주 3,500세대 착공

※ 전국 최초로 보증금 없이 입주

(2) 맑은 물 공급 – 55천 T/D 증설, 팔당의 1급수

(3) 상수도 한강취수사업 – 300천 T/D 급수수요량 안정적 확보

(4) 복지시설 건립 – 13개소 주민편익 증진

(5) 공공청사(公共廳舍) 확보 – 중원구청 외 7개 소 6,166평

(6) 쓰레기소각장 건립 – 환경오염 방지, 100톤/일

(7) 대원천 복개 – 1,165m 6,900백만 원 교통체증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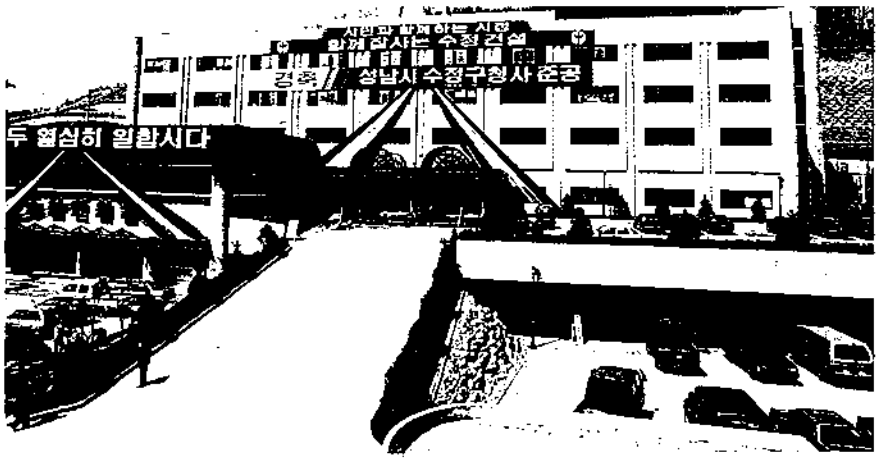
〈사진 3-8 : 23〉 대원천 복개공사 개통식(1992. 4. 8)

- 새 질서 새 생활실천 – 최우수(경기도)
- 주 · 정차질서 확립 종합 평가 – 최우수(경기도)
- 노 사 안정시책 평가 – 최우수(경기도)
- 제21회 공예품경진대회 – 최우수(경기도)
- 민방위행정세미나 – 우수(경기도)
- 제40회 4-H경진대회 – 우수(경기도)

3. 1992년의 시정방향 및 성남시

1992년은 분당 신 시가지 건설이 한창이었고, 구 시가지 역시 건설 붐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모했던 비약적 발전의 해였다. 8호선 지하철 공사와 분당선 전철 공사가 한창이었고, 단대천과 대원천의 복개 공사, 지하상가 공사, 중원구보건소, 쓰레기소각장, 등 시가지 전체가 건설현장으로 변하였다. 재래식 주거건물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다세대주택으로 탈바꿈해가는 도시기반 건설의 한해였다.

1992년 성남시는 자치역량의 제고와 민주시정 구현, 현장 위주의 실질적 행정수행, 전국 제1의 새 성남 건설을 시정목표로, 정직 성실한 봉사행정, 시민화합과 지역안정, 균형발전과 복지증진 등 다음과 같은 7대 시책을 역점 시정방향으로 삼았다.



〈사진 3-8 : 24〉 수정구청(1989. 5. 1) 개청

-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의 자율적 내실화 추진
- 지방자치의 정착과 시민본위 봉사행정 구현
- 시민생활의 안정과 복지시책의 지속적 추진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건전사회기풍 진작
- 도시 균형개발의 촉진과 기반시설 확충
- 지역경제의 활성화 추진과 사업평화 정착
- 향토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체육 진흥

1)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의 자율적 내실화 추진

(1) 호화(豪華), 사치(奢侈), 낭비(浪費)의 추방

- 공직사회 근검절약 솔선수범
- 범시민 근검절약 실천운동 전개
- 시민의식 생활문화 개선
- 일하는 사회기풍 진작

(2) 공중도덕과 질서의 확립

- 교통거리질서 캠페인 지속 전개
- 불법 주 · 정차 강력 단속(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까지)
- 주 · 정차 상설 단속반 운영(일반 38명 청경 21명)
-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 관리
- 행락질서 확립
- 범죄성 유해환경 정화

(3) 범죄와의 전쟁 지속 강화

- 방범 비상벨 설치가구 점검
- 주민자율방범 활동 지원
- 주민신고망 조직 정비
- 민생치안 경찰 활동 지원
- 우범지역 주민 순찰의 날 운영

(4) 비능률 비합리적인 관행의 개선

- 행정쇄신 대책반 구성 운영
- 민주 자율 지방화시대에 뒤떨어진 제도 정비

• 행정내부의 비능률 제거 • 민원 간소화

(5) 범사회적 실천 분위기 조성

• 실천 분위기 재점화 • 민간조직 등 지원 활동 강화
• 추진실적 평가

2) 지방자치의 정착과 시민본위 봉사행정 구현

(1) 자치행정 기반 활성

• 효율적인 의회 운영의 적극 지원 • 자주 재정력 확충
• 법정 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

(2) 정직 · 성실한 공직 풍토 조성

• 시민 편의 위주 행정실천 • 존경과 사랑받는 공직자상 정립
• 공직 내부의 결속과 사기 진작

(3) 민원실 환경 정리와 민원 편의 제고

• 청사환경 개선 • 민원 편의 제고

(4) 시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 강화

• 시정의 공감대 확산 •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

(5) 지역 안정의 지속관리

• 지역 방위능력의 강화 • 민방위 역량 제고
• 법질서 확립 대책 수립 • 불안정 요점의 해소

3) 시민생활의 안정과 복지시책의 지속적 추진

(1) 주거생활의 안정

• 시영아파트 건립(5,060세대 –'90건립 분 1,560세대, '91건립 분

3,500세대)
-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89 ~ '99)

(2) 자활 자립기반 조성

- 장학기금 조성 운영(100억 목표)
-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
- 이웃돕기 연중실시
- 생활안정 지원
- 취업 알선

(3) 가정복지사업의 증진

- 노인복지 향상
- 여성복지 향상
- 건전 청소년 육성
- 청소년 복지회관 건립
- 소년 소녀 가장세대 지원
- 마을 공부방 운영
- 새마을 유아원 운영 지원
- 탁아시설 운영

(4) 사회복지시설 확충

- 종합 복지회관 건립(노인정, 어린이집, 공부방, 공동작업장)

(5) 시민보건 향상

- 시민건강 증진
- 전염병 예방
- 청결한 위생환경 조성
- 보건소 청사 신 · 증축

4)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건전사회 기풍 진작

(1) 시민 휴식공간 확충과 도시 미화

- 도시공원 개발
- 희망대, 단대공원 조성
- 정취 있는 푸른 도시 가꾸기
- 변두리마을 환경정비

(2) 맑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

- 상수도 4단계 확장사업 추진
- 맑은 물 공급대책 수립
- 상수도 한강 취수 추진

(3) 쾌적한 생활환경의 보전

- 수질오염 방지(하수종말처리장 건설 : 복정, 분당)
- 오물 처리능력 제고
- 대기오염 저감대책 추진

(4)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

- 도시 새마을운동의 활력화
- 조직 활성화 추진
- 도시 새마을운동의 착실한 전개

5) 도시 균형개발의 촉진과 기반시설 확충

(1) 거대도시화에 대비한 도시계획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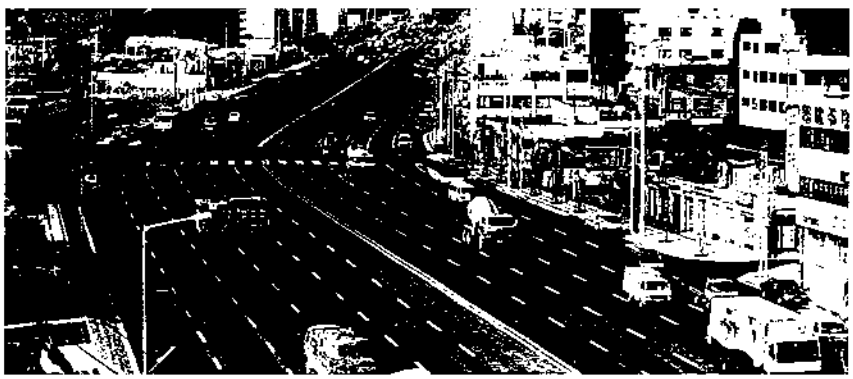
- 도시 기본계획 수립(2001년 목표)
- 도시 재정비계획 추진
- 성남지하철 건설
- 분당지하철 건설

(2) 분당 신시가지 건설 지원

합 계		'91		'92		'93 이후	
세 대	인 구	세 대	인 구	세 대	인 구	세 대	인 구
97,344	390,000	5,026	20,100	17,439	70,000	74,869	299,900

- 공공용 부지 확보
- 공공청사 신축
- 교통대책 수립
- 청소 환경대책 수립
- 하수처리대책 수립
- 입주주민관리 철저

(3)도로망 정비확충



<사진 3-8 : 25> 복개된 대원천의 모습

- 단대천 복개
-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 포장
- 종합운동장 앞 진입로 확 · 포장
- 대원천 복개
- 은행시장 ~ 은행2동 사무소 간 도로 확장
- 갈현동 경충국도 연결교차로 설치
- 광명로 순환도로 간 확장 · 포장
- 성남로 확장 · 포장
- 약진로 확장 · 포장
- 은행1동 ~ 동우아파트 간 도로 개설
- 중동 ~ 하대원 간 도로 개설
- 시청 ~ 교육청 간 도로 개설
- 대봉로 인도 정비
- 주요도로 공동구 설치

(4) 주차공간의 확충

- 주차장 확충(공영주차장 건설)
- 교통관리체계의 개선
- 교통시설의 보강
- 견인지역 확대

(5) 주민숙원사업 해결

- 기반시설 정비
- 생활시설 정비

6)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사업평화 정착

(1) 건실한 지역경제 기반 조성

- 근검 · 절약 · 저축의 생활화
- 물가 안전대책 추진
- 공예산업 육성
- 아파트형공장 건립
- 지하상가 건립
- 시영아파트 내 상가 건립

(2)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시설 현대화

- 재래시장 정비
- 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

(3) 근교농업 육성

- 영농구조의 개선
- 농산물 수입개방대책 추진

(4) 산업평화 분위기의 정착

- 노사간 이해와 신뢰기반 조성
- 근로자 사기 앙양과 복지시책 추진

7) 향토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체육 진흥

(1) 향토문화예술의 진흥

- 성남시사 발간
- 성남시 찬가 제정
-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공간 조성
- 문화예술 활동 지원
- 성남시 개성형성(CIP) 도입
- 시립합창단 운영 내실화
- 쌈지마당 활성화

(2) 내실있는 문화예술 활동 전개

- 성남종합예술제 지원
- 우수 전통민속놀이 육성
- 시민의 날 경축 행사
- 향토문화제
- 시민 만남을 위한 한마당 잔치

(3) 우리 성남의 홍보 적극 전개

- 시정소식지 발간
- 언론을 통한 시정 홍보
- 유선방송 활성화
- 시정홍보위원 운영 활성화

(4) 시민체육의 활성화

- 체육시설물 정비 확충
- 학교체육의 육성
- 성남시청 남자 하키팀 창단
- 사회체육의 진흥
- 예능특기학교 육성

8) 공약, 선언 및 지시사항의 실천

(1) 대통령 공약사항(완료)

- 4대도시 구제 실시
- 판교, 구리 간 고속도로 건설
- 주택 200만 호 건설
- 저소득층 자립 지원
-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 장학기금 조성

(2) 대통령 특별선언 실천

- 범죄와 폭력 퇴치
- 교통거리 질서의 확립
- 건전사회 기풍 진작 국민운동 전개
- 범죄성 유해환경 정화
- 환경오염 및 공해퇴치

(3) 도지사 지시사항 실천

- 공명선거 실시
- 물가안정
-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
- 행락질서 확립
- 공직기강 확립
- 하천 되살리기운동 전개
-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 쓰레기대책 수립

4. 1993년 시정방향 및 성과

1993년은 참된행정, 알찬경제, 밝은문화, 으뜸도시 건설을 시정목표로 확고한 행정추진과 공직사회 자율정화, 민편의(民便宜) 위주의 봉사행정 강화, 시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참된 행정을 구현하고, 기업 활동에 부담 주는 행정행태 개선,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 지원, 지방물가 안정기조의 정착으로 알찬 경제를, 문화·예술 공간과 휴식공간의 단계적 확충, 건전한 생활체육환경조성, 문화재 등 보존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밝은 문화환경을 조성하며, 기존 시가지와 신 시가지의 조화 있는 개발과 생활 편의시설이 정비된 도시 건설, 수도권의 중핵도시로 육성한다는 시정 방침 아래 다음과 같은 역점시책을 수립·시행하였다.

1)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1) 민편의 위주의 참봉사 행정체제 전환

- 잦은 관청방문에 따른 주민불편과 부담 최소화
- 공직자 의식 행태 개선

(2) 민원 1회 방문처리제 기능 강화

- 민원처리계 신설(시청 : 1, 구청 : 3)
- 민원 1회 방문처리위원회 설치운영
- 민원 1회 방문처리 실무종합심의회 설치 운영
- 상담창구 설치
- 민원불편신고센터 운영

(3) 민원1회 방문처리 실적

- 총접수 209건(처리 : 148건, 불가통보 : 61건)

2) 신 경기인운동 적극 추진

(1) 추진과제

- 공직자의 의식개혁(시 산하 공무원)
- 시민의 의식개혁(민간단체 중심)

(2) 추진방법

- 신 경기인 정신함양 교육
- 공중 질서지키기 범시민운동
- 건전한 민주시민 질서 확립 운동
- 사회지도층 앞서서 지키기 운동 전개
- 모범마을, 직장, 사회봉사단체 지도 육성

(3) 특수시책

- 공중도덕 시범학교 지정운영
- 새마을 알뜰 결혼예식장 운영
- 자전거 타기 또는 걸어서 출퇴근하기 운동
- 기관장 현장 대화의 날 운영

3)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전개

(1) 단계별 추진계획

- 1단계 –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 계도활동강화, 질서유도, 편의시설 확충 정비
- 2단계 – 예외 없는 집중단속 • 3단계 – 질서 지키기 생활화 단계

(2) 기초질서 지키기 시민 실천사항

- 7월 1일부터 행위 위반 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소정의 벌금 부과
- 처벌내용 – 생활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파괴하는 행위
  주변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
  법법사항을 범죄의식 없이 무심코 하는 행위

(3) 추진상황

- 편의시설 확충 정비
- 협조 서한문 발송
- 홍보용 녹음테이프 제작 배부
- 홍보용 VTR제작 배부
- 기초질서 지키는 날 운영
- 기초질서 지키기 범국민운동주간 운영
- 안내경고판 설치
- 각종 캠페인 전개
- 홍보물 제작
- 각종 교육 실시

4) 예방행정태세 강화

(1) 장마철대비 재해예상지역 시설 일제점검

- 점검자 – 시장 외 관계국 · 과장(16명)
- 대상 – 20개 재해위약지, 시설
- 점검회수 – 3회(수시점검)
- 점검결과 조치 – 위험요인에 대한 방지시설 및 예방대책 수립, 유관기관 안전조치 이행 촉구

(2) 1일 재해예방 점검의 날 지정 운영

- 운영일 – '93. 6. 30(1일간)
- 대상 – 재해위험 대상물 전부(82개소)
- 참여인원 – 시, 구, 동, 전 공무원
- 점검결과조치 – 위험요인 예방대책 수립

5) 365생활민원 기동봉사반 운영

(1) 일일 관내 순찰제 확행

- 대상 – 상하수도 청소, 도로 교통, 환경오염, 불법 무질서 등
- 운영체계 확립 • 기동순찰반 편성, 운영
- 순찰결과 조치

(2) 생활민원 신고센터 운영

- 신고대상 민원 – 시민생활 각종 불편사항 시정조치

(3) 처리반 운영

- 운영단위 – 시, 구, 동 44개 기관 연중실시
- 긴급출동체제 구축
- 운영요령 – 순찰반 지적사항, 신고센터 민원사항 신속처리

6) 기관장 종합순찰제 운영

(1) 구 단위 1일 종합순찰

- 구성 – 기관장, 구 담당국장, 시, 구 관련과장 · 계장
- 순찰방법 – 1일 1구 관내 전 지역(수시)
- 대상 – 가로환경정비, 각종 주요사업장 주변정비 및 현장 지도
  장마철 안전사고 위험 예상지역, 각종 불법행위 현장

(2) 민원 즉결처리 및 평가회 개최

• 순찰사항 즉시 조치 • 재발방지 및 향후대책 추진

7) 환경 정비의 날 운영

(1) 가로환경 정비(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 추진시기 – 매주 화, 목요일 14:00 ~ 16:00
• 참석대상 – 전 직원(일일평균 1,000명)
• 책임 역할 분담제(책임 정비구역 지정) • 장비 인력 합동단속
• 중점 정비대상 – 노상 적치물, 노점상, 불법 주·정차, 쓰레기, 불법 광고물, 환경오염방지 등
• 주민생활 불편초래 각종 불법행위 현장 시정조치

(2) 위생환경 정비

• 추진시기–매주 화, 목요일 • 29품목 개인서비스 요금 점검
• 개인 서비스요금 합동지도 단속 정례화

8) 여권 발급신청 교부창구 확대 실시

(1) 실시 시기 – '93. 7. 1부터
(2) 창구 설치 – 시 민원실
(3) 처리 업무(일반여권에 한함)

• 여권 발급 신청 접수 및 교부 • 일반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
• 대리인의 발급 신청 및 수령

(4) 구비서류

• 여권용 사진 5매, 주민등록증, 인장, 주민등록등본 2통, 신원진술서 3부
• 병역관계 서류 • 만 18세 미만인 자 부모의 동의서와 인감증명

(6) 여권의 종류 유효기간 수수료

• 복수여권(5년 45,200원)　　• 단수여권(1년 미만 15,200원)

9)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지원

(1) 융자 시기 – '93년 7월 하순
(2) 융자 대상 및 신청 가구(218가구)
(3) 융자 지원 규모

• 수정구 – 252백만 원　• 중원구 – 737백만 원
• 분당구 – 75백만 원

(4) 대출금리 및 상환 조건

• 대출금리 – 년 3%　　• 상환조건 – 2년치 일시 상환

(5) 자금관리 – 주택은행에서 특별계정 설치 관리

(대출발생에 따른 특별계정의 결손은 자치단체가 보전)

10) 신경제 5개년계획 추진

(1) 건전 재정 운영

• 예산절약 풍토 조성　　• 예산절약의 지방적 구현
• '93 세출 실행 예산편성(211,710백만 원)

(2)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금고 설립

• 자금조성 – 200억원　　• 조성방안 – 자금조성기간('93~'97)
• 조성내역(시비부담 – 100억, 은행 부담 – 100억)
• 자금융자계획 – 매년 60개 업체 40억 원

11) 향락질서 확립 및 하계 방역사업 추진

(1) 건전한 향락풍토조성과 향락지 시설 정비

- 향락 불편신고센터 운영
- 유원지 내 유해환경 일소
- 각종 이용시설물 안전진단

(2) 환경정화 활동전개

- 주말 자연정화 활동 추진
- 하천 되살리기 지속 추진
- 오·폐수 배출업소 관리

(3) 하절기 철저한 방역사업 추진

- 수질검사 철저(약수터 및 급수관 관리)
- 장마철 방역 강화
- 위생검사 철저
- 산림해충 방제

12) 분당구 신시가지 건설

(1) 건설개요

- 면적 – 약 19.64㎢(시 전체의 13.9%)
- 시행기간 – '89 ~'95
- 사업비 – 30,987억원
- 주택건설 – 97,334세대 390천 명
- 도시기본시설 – 공공시설(63개소), 학교(57개소), 지하철(32.2km), 도로(고속도 26.4km, 지방도 24.9km), 상하수도, 에너지, 쓰레기소각장(1,000t/D)

(2) 주민입주

- '93년 6월 말 현재 32,285세대 216,550명

(3) 신시가지 관련 정례회의(월1회)

- 대상기관 – 한국토지개발공사, 분당직할사업단
- 참석자 – 시장 관련 실·국·과장, 토개공 단장, 관련 부장

• 협의안건 – 기반시설 건설 추진상황, 생활편익시설,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주민건의 및 민원사항 등

(4) 공공청사 신축 – '93계획 3개소 131억 원

(5) 교통난 해소

• 버스노선 확충 • 신규 택시인가(50대 예정) • 도로건설

(6) 청소환경 대책

• 쓰레기 적기 수거 • 하수처리 대책

(7) 입주민 생활불편 해소

• 입주민 관리 • 입주민 편의 제공
• 행정안내센터 운영 • 공동 감리단 운영
• 입주확인 공동 지원반 운영

(8) 신시가지 관련문제 및 대책

• 성남 시립묘지 이전 • 도축장 이전

13) 수해 상습 침수지 해소

(1) 현황

• 지역 – 성남동 789번지 일원
• 원인 – 홍수 시 탄천의 범람으로 침수
• 주택 – 51동(허가 43, 무허가 8) • 거주민 – 108세대 411명

(2) 추진현황

• 취락구조 개선사업 시행 건의
• 무허가건물 세입자 시영아파트 입주
• 침수지역 유입수 차단장치 공사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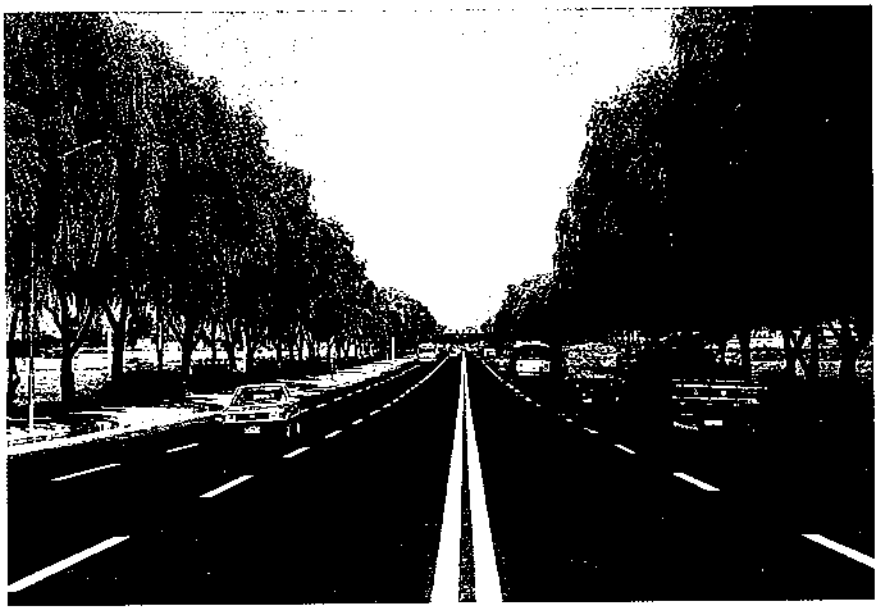
(3) 문제점

- 수서 분당 간 도로개설로 개축 기피
- 이주대책비 확보 지란
- 세입자 시영아파트 입주 후 재발생 예상

(4) 향후대책

- 토지매입 및 건물보상 개별 이주토록 행정지원

14) 성남로 확장 공사



<사진 3-8:26> 성남로 복정동 구간 (1990년)

(1) 사업개요

- 위치 – 서울시계~성남동
- 사업량–4.0km, 폭 : 50M
- 토지매입 – 11,500평
- 건물철거 – 32동
- 사업비 – 559억원

(2) 문제점

- 분당선 전철공사 완공 후 공사비 이중, 시민교통 불편 초래

• 재원확보 지란

(3) 향후대책 – '93년부터 착공 가능토록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지원 요청

5. 1994년의 시정방향 및 성과

1994년도의 주요 시정추진 사항으로는 지방세무 부정 방지와 현장행정 강화, 공직기강 확립과 사회기강 확립,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지도하며 쓰레기 감량을 위한 계도단속, 교통대책, 심야 퇴폐업소 단속, 지역안정과 주민참여를 중점 시책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1) 지방세무 부정방지대책 추진

(1) 지방세 부과 징수

• '94년 목표 242,746백만 원

(2) 장관지휘지시 9호 실천

• 세정보고회 개최 • 세무비리 관련 자정 결의대회 개최
• 지방세 전 세목 부과 징수 대상 확인

(3) 성남시 지방세 과징 실태

• 부과부서와 징수부서 분리 운영
• 일계표와 영수필 통지서 일일 검산 확행
• 자동차세 체납액은 특별징수계획 수립 징수(야간 및 공휴일)
• 부과는 행정기관 징수는 금융기관으로 대민홍보
• 세무직원, 법무사, 보조원, 수시교육 실시

(4) 개선대책

• 수납은행 및 등기관서 영수필 통지서 세무과장이 최종 확인 시행
• 등기관서의 영수필 통지서 통보기간 설정 운영
• 법무사가 사용하는 영수원부 실태 확인

(5) 성남시 특수시책

• 취득세 납부 전산프로그램 개발

2) 현장 행정 강화

(1) 동장 일일 가정방문제 추진

• 40개동 동장 1일 5 ~ 6가정 방문
• 주민의견 수렴, 애로 건의 등 민원처리

(2) 기관장 종합 순찰제

• 시장, 부시장 월 1회, 구청장, 부구청장 주 1회, 동장 1일 1회
• 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구 순찰

(3) 365 기동처리반 운영

• 일일 순찰 기동처리 108개 반 492명 연중무휴 순찰
• 상하수도, 청소, 도로교통, 가로환경, 불법무질서, 불편사항 처리 (61,759건)

(4) 생활개혁 중점 추진의 날 운영

• 매주 화요일(구청) 목요일(시청) 전 직원 참여
• 불법 주 · 정차, 노점상, 노상 적치물, 광고물 정비

3) 공직기강과 사회기강 확립

(1) 흔들림 없는 공직기강 확립

• 10대 취약업무 집중 감찰 • 미해결 민원 실태 파악

(2) 엄정한 법집행으로 사회안정 도모

- 3대 불법무질서행위 철저 단속(토지건축 불법행위, 주 · 정차, 심야 영업)
- 4대 질서 지키기 시민동참 계도(기초, 가로, 위락, 풍속)

4) 지방물가 안정 지도

(1) 연중무휴 상황실 운영

- 36개 생활필수품 상시관리 수급조절 물가동향 관리

(2) 전 공무원의 지도단속 요원화

- 업소별 담당제 실시(1,106개 소 287명)

(3) 물가 모니터 요원 활용

- 일일 물가동향 파악

(4) 물가대책위원회 및 간담회 개최

- 물가대책위원 현장 점검
- 사업자와 단체장 간담회

5) 도시 쓰레기 감량

(1)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추진

- 1일 쓰레기 발생량 870톤
- 쓰레기 처리 투자금 406억 원
- 중고품 재활용센터 설치
- 분리수거 전담차량 확보
- 음식물 고속 발효기 설치, 캔 및 페트병 압축기 설치

(2) 쓰레기 소각장

- 1일 100톤 소각처리 운영(600톤 증설 추진 중)

(3) 김포 쓰레기 매립지

- 자체소각 100톤, 재활용 분리 177톤
- 김포매립장 운송 593톤

6) 교통대책

(1) 순환도로 확장 포장 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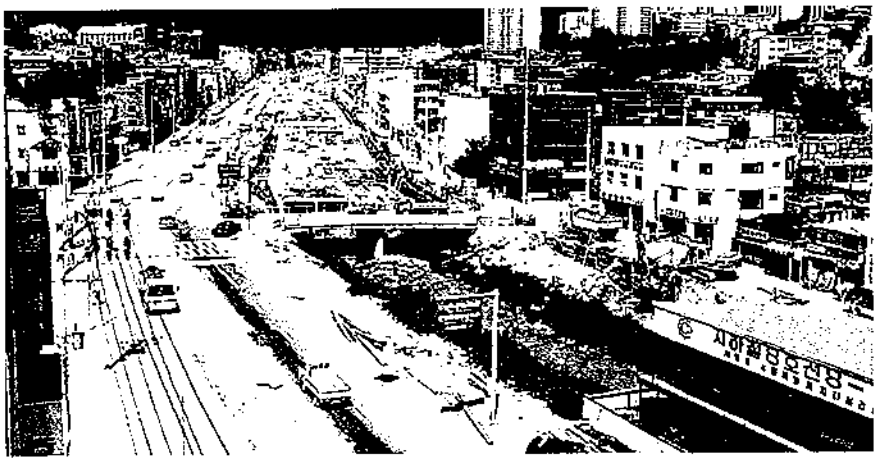
- 성남대로 4㎞(6차선-10차선)
- 약진로 2.2㎞(4차선-6차선)
- 단대천 복개도로 4.9km(8차선)
- 남한산성 순환도로 5.3km(6차선)

(2) 고속화도로 신설로 교통량 분산

- 분당 ~ 수서 5.9km
- 분당 ~ 내곡 7.9km

(3) 지하철 건설

- 분당선(분당 ~ 복정) 18.5km '94. 9. 1개통
- 성남 8호선(모란 ~ 잠실) 15.5km '95년 6월 완공 예정



<사진 3-8:27> 지하철 8호선 공사 현장

7) 심야 퇴폐업소 단속

(1) 위약지역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 집중 단속

- 총 업소 10,720개소(매일 단속)
- 합동 단속반 편성 수시 단속

8) 지역안정과 주민참여

(1) 재해 재난의 제로화 추진

• 지하철공사 등 대형 공사장 36개 소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

(2) 집단민원 사전예방책 강구

• 동장 – 현장 대화의 날, 시장 · 구청장 – 주민 애로창구 운영

(3) 주요시책 주민참여 확대

• 고속도로변 쓰레기 안버리기 캠페인
• 국도대청결과 맑은물가꾸기 373천 명 참여, 쓰레기 3,539톤 수거

9) 분당 신 시가지건설 현황

(1) 건설개요

• 시행기간 – '89 ~ '95년
• 사업비 – 37,518억 원(97,580세대 건설) • 공공시설 – 122개소

(2) 주민입주

• '94년 9월 말 현재 66,896세대 입주

6. 1995년 시정방향 및 성과

1995년은 민선 지자체 원년으로 4대 지방선거 이후 자치시대 본격화에 따른 계획과 책임 경영재정의 실천과 급증하는 재정수요 해결을 위한 지방세수 자구 노력의 강화는 물론 예산의 절감편성, 자율편성을 통한 투자재원의 확대 유도가 요구되는 해로 신규 대규모 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의 대규모 계속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며,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소규모 주민 숙

원 사업에 많은 재원을 배분하기로 하며, 환경 보건 위생문제와 맑은 강 가꾸기 사업 등 국토가꾸기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주민정서 함양과 의식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회교육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분야에 중점하기로 하였다.

1) 시민과 함께 하는 참된 현장행정 전개

(1) 지역발전의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의 전문화와 지역경제 능력 향상 도모

- 신지식, 신기술을 갖춘 행정서비스를 위해 행정발전 연구단 설치 운영
- 시정 시책 사업시상제 통합 운영 • 시정 확인 평가제 운영
- 성남시 홍보영화, VTR 제작 자긍심 고취
- 각종 시책, 행사, 생활민원, 공지사항 등을 영상그래픽으로 생동감 있게 방영,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민참여의식 고취
- 전산 및 외국어교육 확대로 공무원의 국제적 안목과 감각을 배양
- 고급 정보와 지식을 현장체험을 통해 습득 분야별 전문인 양성
- 4대 지방선거 업무의 완벽한 추진
- 시 종합민원실에 민원 자동안내 시스템(TOUCH SCREEN), 민원 자동전화 응답안내(ARS), 영상 시정홍보시스템을 총괄한 시정 종합정보센터 운영
- 민원인을 내 가족 내 이웃처럼 봉사하는 친절 배가운동 전개
- 자동차등록사업소 설치 • 지방세 업무 전산망 구축
- 내 고장 담배애용운동 전개
-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운동 전개
- 시민운동 단체 등 사회 각계의 자발적인 운동을 적극지원 의식개혁 운동 전개
- 함께하는 지역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밝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주민대학 개설

2) 사랑과 인정이 담긴 복지사회 구현

(1) 기본적 사회복지사업 확충

- 저소득층을 위한 학자금 및 생업자금 지원 확충
-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설치 운영
- 어린이 놀이터 현대화 사업 추진
- 영 · 유아 보육시설 확충
- 사랑의 모자 · 부자가정 지원
- 경로당 현대화
- 노인요양시설 확충
- 노인환자 전문병동 설치 운영
- 노인여가시설 확충
- 경로당 운동기구 보내기운동 전개
- 다목적 복지회관 프로그램을 전문화
-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
- 공공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노인정 순회이동진료, 보건사업, 순회예방접종 실시
- 시민생활편익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3) 골고루 잘사는 지역경제 발전 기틀마련

(1)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촉활동

- 유망 중소기업 우수상품 홍보책자 제작 배포

(2) 지역 물가안정과 시민생활 보호

- 시민 체감물가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 주부와 여고생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 실시
- 성남 민속 공예전시관 준공
- 농 · 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검토
-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보 지원

(3) 유통시설의 현대화 추진

- 지하상가 겸 지하도 건설
- 재래시장 정비

- 소매시장 개설
- 대형 종합유통센터 신축

(4) 노 · 사 · 정관계의 공동체 의식 확립

- 노 · 사 · 정 간담회 개최
- 노 · 사 순회교육
- 취업정보센터 운영
- 중소기업 지원 상담실 확대 운영

4) 밝은 문화, 건강한 시민체육 진흥

(1) 문화적 욕구 충족

- 종합문화 예술센터 건립
- 시립도서관 건립
- 야외 음악당 건립
- 제2시립도서관 건립
-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 시립예술단 창단
- 제10회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개최 준비 철저
-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활동공간 확충
- 가맹경기단체 육성 지원
- 학교체육 활성화
- 제2종합운동장 및 시립테니스장 건설

5) 깨끗한 도시환경 및 조화로운 주거공간 조성

(1) 도시환경의 일대변혁

- 맑은 하천 가꾸기 운동
- 국토대청소 운동
- 지역특색마을 안내표시판 설치
- 가로환경 정비
- 불법 광고물 정비

(2)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 추진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
- 쓰레기 수집 운반체계 대행 실시
-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 시설 확충

(3) 환경 오염방지 시책

- 환경 통신망 운영

•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 운영
• 하수 처리장 증설 • 쓰레기 소각장 건설 추진

(4) 다목적 교육센터 설립

• 시민 교양교육 • 기업체 연수교육
• 공무원 직무교육

(5) 도시 주택사업 분야의 계속 추진

• 공용의 청사부지 확보 • 이매 도시자연공원 개발
• 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 산성 유원지 개발
• 공단 공원아파트 건립

(6) 도심 주차난 해소 시책

• 철골조립식 주차장 건설 • 역세권 주차장 확충
• 지하철 8호선 개통 시점에 맞추어 버스로선 조정(지하철과 연계)
•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택시운동 전개

(7) 도로망의 확충 · 정비 사업

•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 남부경찰서 ~ 순환도로 간 확장
• 단대고가도로 건설 • 성남대로 확장공사 착신 시공

(8) 쾌적한 도시환경과 도로공간 확보

• 단대천 복개 • 운중천 개수
• 탄천하류 개수 • 사기막골 하천 복개

(9) 풍족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책

• 복정정수장 확장 공사 추진 • 노후 배급수관 대폭 교체

(10) 고지대 만성 출소불량지역 급수난 해소 사업

• 급수관 확장 • 수돗물 아껴쓰기 생활화
• 농촌동 수돗물 공급 사업 확충

(11) 학교주변 환경 개선

- 방음벽 설치
- 가로등, 안전등 정비

(12) 주민숙원사업 해결 시책

- 뒷골목 포장
- 시가지 넷씌우기
- 도로 시설물 보수

7. 1996년 시정방향 및 성과

지방자치 2년차를 맞은 1996년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목표로 성직 성실한 봉사행정, 시민화합과 지역안정, 균형발전과 복지증진, 환경보존과 문화창달을 시정방침으로 설정하여 분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100만 인구의 거대도시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50대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1) 50대 시책사업의 완벽한 추진 관리

(1) 개요

- 예산사업 – 8개 분야 43개 사업
- 비예산사업 – 4개 분야 7개 사업

(2) 추진사항

- 50대 시책사업 추진계획 수립
- 50대 시책사업 추진사항 심사 분석
- '96완료사업 5건 – 장학기금 200억원 추가확보, 청소대행 법인 설립 지원, 지하철 연계교통망 재조정, 자율방범순찰대 운영, 근교영농의 현대화 집단화 판로 개척

(3) 대시민 홍보

- 부실공사 방지 명예감시관 위촉
-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

• 각종 행사시 계기성 홍보 • 유인물 제작 배부



100만인구의 거대도시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50대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4) 추진계획

• 분기별 평가보고회 개최(분기 1회)
• 분기별 정기심사 분석(분기 1회) • 추진사항 시민 홍보(수시)

2) 시정 발전위원회 운영계획

(1) 개요

• 구성 – 6개 분과 130명 이내
• 기능 – 시정방향에 관한 의견 청취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문
• 운영체계 – 총괄(시장), 지원총괄 조정(기획실장), 실무운영 담당부서(기획담당관실)

(2) 추진사항

•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작성('96. 2. 1)
• 시정조정위원회 심의('96. 2. 2) • 의회 상정('96. 2. 13)

(3) 중장기 발전계획 자문(수시)

• 분과별 세미나 개최(2회) • 활동성과 보고회(수시)

3) 시설 관리공단 설립 계획

(1) 개요

• 설립 예정일 – '96년 상반기 • 명칭 :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 추진사업범위
  –주차시설 경영관리 및 불법주 · 정차 견인 업무
  –각종 시설 위탁 관리(시영아파트 아파트형공장)

(2) 추진사항

- 설립인가 신청('96. 1. 3)
- 시정조정위원회 심의('96. 2. 2)
- 의회상정('96. 2. 14)

(3) 추진계획

- 설립인가 개정조례안 보고('96. 3)
- 준비단 구성 운영('96. 4)
- 임원 선임('96. 5)
- 공단 발족('96. 7)

4)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1) 개요

- 참가자격 – 시 산하 전 공무원
- 제안심사 – 정기 또는 수시
- 처리절차 – 제안접수 : 관련부서
  검토 : 제안실무위원회 심사 –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 심사기준 – 창의성, 경제성, 능률성, 실효성 등
- 채택 제안 관리 – 표창 및 시상금 지급, 정책에 적극 반영, 인사 우대

(2) 추진사항

- 제안 심사위원회 개최(8건 심의)

(3) 추진계획

- 제안 접수 및 심의(월별)
- 시상 – 월례회의시 시상

5)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확인 행정 강화

(1) 운영개요

- 주관부서 – 시(기획담당관실), 구(기획감사과)

• 신고 접수 및 추진 부서 – 각 실, 과, 소 및 구청, 동 부서(야간은 당직실)
• 관찰 주체 – 전 공무원, 기관단체 임직원, 일반시민

(2) 관찰 및 신고 대상

•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 지도 단속 소홀로 불편을 주는 사항
• 자연환경 훼손 및 환경오염 행위
• 공사관리 부실 및 위험요소 방치사항 • 행정 시책 소외 사례
• 기타 시정 발전을 위한 시정요구사항

(3) 공무원 월1회 이상 교육실시

• 민간인 발굴 포상 • 반회보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 강화

6)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제도 개선 운영

(1) '95년도 운영방법

•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수행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일방적으로 자본 전출금으로 전출

(2) 문제점

• 일반회계 재정부담 가중
• 공기업 경영합리화 저해 우려
• 공기업 여유자금 발생시기가 도래되어도 일반회계로의 회수 불가

(3) 개선방안

• 단순 보전재원 전출금에서 시설자금 융자제도로 전환
• 공기업 흑자 도래 시 일반회계로 상환 조치

7) 조례, 규칙 심의회 운영

(1) 개요

- 심의회 개최 예정 – '96. 3. 1
- 심의회 운영–주 1회 개최
- 심의회 구성 – 시장(의장), 부시장(부의장), 위원(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보사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 심의사항 – 조례, 규칙, 예산안, 결산안, 의회 의결안건, 훈령, 예규, 공고, 고시

(2) 추진계획

- 조례, 규칙 심의회 운영(3월 시행)
- 기타 안건 심의(수시)

8)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 철저

연 도	합 계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합 계	79	24	29	26
'92년도	8		1	7
'93년도	4		1	3
'94년도	11		11	
'95년도	47	18	15	14
'96년도	9	6	1	2

성남통계연보 각년도

(1) 소송수행 대처 방향

- 시 고문변호사와 법률상담 변론대책 수립
- 상고제기 적극대처
- 소송수행자 수시교육

9) 시정 홍보

(1) 개요

• 홍보내용 – 시책 추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 홍보매체 – 신문 27개사, 성남유선방송

(2) 홍보절차 및 방법

• 보도자료 및 VTR촬영 보도 의뢰 • 시정 설명회 개최
• 시민의 날 등 기획 보도 • 기자간담회 등 개최

10) 중앙 시립도서관 건립

(1) 개요

• 위치 – 야탑동 164번지
• 규모 – 부지(5,670평), 건평(지하2층, 지상3층, 3,000평), 열람석(3000석)

(2) 추진사항

• 부지매입 완료 – '95. 12. 29 • 지장물 및 지질 조사('96. 1)

(3) 추진계획

• 착공 – '96. 12 • 완공–'98. 8

11) 수정구 시립도서관 건립

(1) 개요

• 위치 – 산성동 단대공원 부지 내
• 규모 – 부지(4,126평), 건평(2,400평, 지하2층, 지상3층), 열람석(2000석)

(2) 추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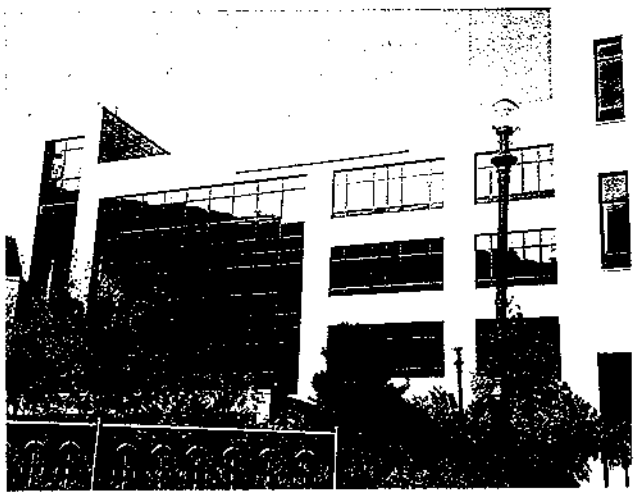
<사진 3-8:28> 수정구 시립도서관

• 부지확보 – '95. 12　　• 지장물 및 지질조사 – '96. 1

(3) 추진계획

• 투자심사 승인 – '96. 3　• 공원조성 계획변경 – '96. 8
• 착공 : '96. 12　　• 완공 – '96. 8

12) 중원구 시립도서관 건립


<사진 3-8:29> 중원구 시립도서관

(1) 개요

• 위치 – 중원구 성남동 산10-21
• 규모 – 부지(2,500평), 건평(3,000평, 지하2층, 지상3층), 열람석(2,000석)

(2) 추진사항

• 부지확보(기존 시유지) – 94년도 금광동 산9번지(황송공원 내)에 종합문화예술센터와 연계하여 건립추진 중 쓰레기 매립지로 부적합하여 현부지로 변경 추진

(3) 추진계획

• 투자심사 및 집행계획 승인('96. 3 ~ 4)　• 착공 – '96. 10
• 준공 – '98. 6

13) 야외공연장 건립

(1) 개요

• 위치 – 중앙공원 내
• 규모 – 부지(1,760평), 건평(3,000평, 지하1층, 지상2층)

(2) 추진사항



<사진 3-8 : 30> 분당 중앙공원 야외 공연장

• 실시설계 계약('95. 4. 15)　　• 기본설계 최종심의('96. 1. 19)

(3) 추진계획

• 착공 – '96. 6　　• 완공 – '97.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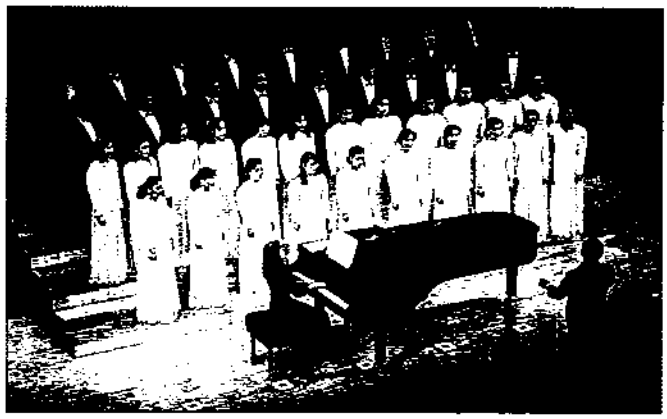
14) 문화 예술활동 지원

(1) 개요

•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및 교향악단 초청 연주
• 문예행사(산성문화제 외 9종)

(2) 추진사항

• '96. 1 – 연간공연계획 협의
• '96. 2 – 연간공연계획 확정



<사진 3-8 : 31> 성남 시립 합창단 연주회

(3) 추진계획

• 시립합창단 정기 연주회(24회)　　• 교향악단 초청 연주회(2회)
• 새봄맞이 축제　　• 청소년 예술제

- 전국사진 공모전
- 산성 문화제
- 우수 전통 민속놀이 경연
- 한여름밤의 축제
- 송년예술제

15) 제37회 전국민속경연대회 및 제3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경연대회

(1) 개요

- 기간 – 10. 15 ~ 10. 18
- 장소 – 성남종합운동장
- 주최 및 주관 – 문화체육부, 성남시
- 참가대상 – 15개 시, 도

(2) 추진사항

- 산성문화제와 연계 추진(전야제)
- 국악제
- 무용대향연
- 강정일당 시상 및 성남미스선발대회
- 경연 및 공연장소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시민회관

(3) 향후 추진계획

- 기본계획 수립
- 추진계획수립 시행
- 추진 기획단 편성

8. 1997년의 시정방향 및 성과

지방자치행정 3년차인 1997년은 50대 사업의 완성의 해로 시정 추진계획이 가장 많은 해이기도 하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시민생활 환경개선, 신 · 구 시가지 화합을 위해 시정의 지도 · 조정 · 통제기능의 강화로 시민의 만족을 위해 각 부서별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1) 기획담당관실 업무계획

(1) 시정 기본 운영계획

- '97주요업무계획 수립
- '97주요업무 확인 평가

• 시정홍보 • 각종 지시사항 관리

(2) 50대 시책사업의 완벽한 추진 관리

• 추진 세부실천계획 보고('97. 1) • 주간 추진사항 보고회 개최
• 추진사항 분기별 평가 보고회 • 추진사항 홍보
• 추진사항 정기 심사평가(분기 1회)

(3)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 시설관리의 효율화 및 전문화 • 주차 및 교통질서 확립
• 사업범위 – 시영아파트 관리사업, 주차장 관리 운영 및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등 각종 시설 및 수익사업 위탁관리
• 기구 – 이사장, 상임이사, 3과(383명) • 출자금 – 1,000백만 원
• 위탁관리 주차장 – 110개 소 16,389면 • 견인차량 – 15대
• 시영아파트 관리 – 49개 동 5,060세대
• 아파트형 공장 관리 – 5개동 368업체

(4)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 행정능률 향상 및 예산의 절감
• 시민편익 증진 및 공무원사기 진작
• 96실적 – 접수 12건, 채택 5건 • 제안접수 및 심의 (월별)
• 채택자 시상 – 27,000천 원

(5) 성남시정 책자 발간

• 민선 2년 동안 달라진 시정 홍보
• 역동적인 지역 공동체 비전 제시
• 발간 부수 – 5,000부 • 공무원교육 자료
• 유관기관, 단체 및 내방객에 제공

(6) 시정 백서 발간

• 시민의 시정 이해 및 참여도 제고
• 창의적인 시정수행의 지침서 활용

• 발간 부수 – 1,000부 • 유관기관의 행정 소개
• 시정발전을 위한 지침 자료로 활용

(7) 시 이미지 통일화사업(C.I.P) 추진



<사진 3-8 : 32> 성남시 캐릭터 심볼마크

• 알기 쉽고 친근감 있는 시 이미지 형성
• 한 가족의 긍지와 자부심
• 개발내용 – 심벌마크, 전용서체, 색채, 캐릭터
• 시 기관 사용현판, 실 · 과 · 소 명패 및 명찰
• 각종 서류 홍보물
• 시 경계표지, 안내표지, 근무복 모자류
• 시 기, 관용차량 등에 사용

(8) 생활안내 지도 제작

• 시설에 대한 필수 정보 제공 • 시정 주요시책 시민 홍보
• 민간비용으로 제작 배포 • 규격 – 2절 양면인쇄 (축적1/10,000)

(9) 시정 정책 토론회 개최

• 개최시기 – '97. 6 • 참석대상 – 학계 · 관계 전문가, 일반시민
• 산, 학, 연과 연계한 새로운 정책형성 기운 정착
• 시정에 대한 검증과 비판 기회로 활용

(10) 사업관리 카드제 실시

• 시 발주사업 총망라 관리 •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
• 관리대상 사업 – 100백만 원 이상
• 관리부서 – 총괄(기획실) 및 사업시행 부서
• 관리내용 – 사업개요, 공사관련 공무원, 사업내용, 위치, 특이사항
• 부실공사 사전 예방 유도 •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명확
• 사업 실명제 효과

(11) 각종 법령규제 완화 적극 추진

• 성남권 행정협의회 적극 활용 • 수도권 행정협의회 적극 지원

• 규제완화 최우선 과제 적극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 균형발전 촉진

2)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계획

(1) 시정홍보

• 홍보매체 활용 – 신문보도(정례적 기획보도), TV, 라디오 방송보도, 유선방송 활용
• 성남소식지의 활용 • 현장홍보활동의 강화
• 기자 간담회 활용 • 시정 화보 활용

(2) 시립도서관 건립

• 교육, 정보, 문화공간 조성 • 지역 우수인재 양성
• 시립 중앙도서관 – 위치(야탑동 산164), 규모(부지 5,670평, 건평 3,000평, 열람석 3,500석)
• 단대도서관 – 위치(산성동 2224번지), 규모(부지 4,127평, 건평 2,400평, 열람석 2,500석)
• 대원도서관 – 위치(성남동 산10-21), 규모(부지 2,500평, 건평 3,993평, 열람석 2,000석)
• 정자도서관 – 위치(정자동 208), 규모(부지 1,226평, 건평 2,536평, 열람석 2,005석)

(3)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건립

• 시민화합의 장 마련 • 위치 – 분당구 수내동 65
• 규모(부지면적 : 8,480㎡, 건평 : 1,009㎡, 무대면적 : 103평, 지하1층, 지상2층)
• 준공 – '97. 6

(4) 모란 민속시장 문화행사

• 장소 및 시기 – 모란 민속시장에서 매년 5월

- 참가대상 – 시민 및 상인
- 행사내용 – 전통민속놀이 및 농악한마당, 내고장 음식솜씨 자랑, 예쁜 강아지 선발대회, 판매왕 선발대회, 패션모델 선발대회

(5) 황송공원 장승거리 만들기

- 위치 – 금광2동 황송공원 내
- 설치방법 – 기업체, 단체, 시민참여
- 추진계획 – 97년 3월 계획수립, '97년 10월 제막식

(6) 동호인 교향악단 창단

- 자발적 참여로 교향악단 창단
- 연습비용, 단복, 행사 참여 경비 지원
- 공연 – 시립합창단과 협연(년 2회, 분기 1회), 정기공연, 관내 순회 공연
- 추진계획 – 세부계획수립 '97년 2월, 창단기념공연 '97년 6월

3) 총무과 업무계획

(1) 가칭 성남시 발전카드 추진계획

- 신용카드사와의 약정 체결로 일반신용카드 기능에 자치단체 신분표기 기능을 접속한 신용카드 발급, 수익금 중 0.1% 복지기금조성
- 대외홍보 효과 극대화 • 시민의 소속감 일체감 조성
- 추진계획 – 카드발급 계약 체결('97. 1), 발급 개시('97. 2)

(2) 간부공무원 현장 근무제 실시

- 현장행정 체험 기회 • 조직의 활성화 및 시정 발전 도모
- 대상 – 5급 이상 공무원(140명)
- 근무분야 – 민원발급, 가로청소, 주차단속, 쓰레기처리, 방범순찰대, 쓰레기소각장, 하수처리장, 노점상 단속, 사회복지시설 등

(3) 공무원 명함 휴대 사용하기

- 업무의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
- 시의 대외홍보 효과
- 대상-기능직 이상 전 직원

(4) 시장과 하위직 공무원과의 간담회 개최

-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
- 공직 내부의 결속 강화
- 대상 - 7급 이하 공무원

(5) 노후 교환기 교체

- 구형 노후 교환기를 신형 종합정보통신용(ISDN)으로 교체, 전화와 PC를 동시에 사용, 양질의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사업시기('97상반기 소요예산 : 300백만 원)

(6) 정보다중화장비 시설(E1 - MUX)

- 시도간 디지털 다중정보통신회선 교체로 전화 전산 FAX 등 시도간 통신회선 다중화
- 추진계획 -'97상반기 설치

4) 시정과 업무계획

(1) 선진행정구현을 위한 해외연수 실시

- 시정시책 추진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 국제적 안목 배양과 선진사례의 접목
- 연수대상 및 인원 - 일선기관 공무원 인원(45명)
- 하위직 공무원 해외연수 : 동남아 20명
-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 구미 40명
- 해외 배낭 연수 - 8개 코스 21개 국 100명 내외

(2) 공무원 외국어 위탁 교육

- 세계화 시대 대비
- 교육과목 – 영어, 일어, 중국어
- 교육대상 – 어학우수자 15명
- 학원비 전액 부담

(3) 공무원 소양고사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함
- 고사시기 – 년 1회
- 대상 – 7급 이하 전 공무원
- 과목 – 필수(행정법 지방행정 실무), 선택1(영어, 일어, 중국어 중 택1), 선택2(지방재정실무, 지방세정실무, 개발행정실무 중 택1)
- 성적우수자 시상

(4) 분당구 분구 추진

- 인구 – '96년 말 현재 380천 명, '97년 말 420천 명 추정
- 관할동수 – 23개동
- 시기 – 97, 12월

(5) 공무원 및 시민 한마음 교육

- 공직자상 정립 및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 공동체의식 함양과 건전한 민주시민상 확립
- 교육일정 – 공무원(년 5회), 시민(년 2회)
- 장소 – 새마을연수원

(6) 국제도시간 교류사업 확대

- 교류사업 및 대상도시 확대
- 자치단체의 국제경쟁력 제고
- 공무원 상호교환 근무
- 학생 상호교환연수
- 교류대상 도시 – 일본 가나가와현 아즈끼시, 일본 스즈오까현 시미즈시, 중국 요녕성 심양시, 독일 뮌스터시)

(7) 외국인 생활상담실 운영

- 번역서비스센터 설치 운영
- 통역서비스 운영
- 설치장소 – 시정과 내
- 간단한 생활민원 즉시 해결

• 대상언어 – 영어, 일어, 중국어

(8) 시정의 공감대 확산 및 주민화합 제고

• 구 방문 새해인사회
• 모범시민 간담회
• 아르바이트 학생과의 대화
• 봉사단체 임원과의 간담회
• 통 · 반 조직운영의 활성화
• 시민제언란 상설 운영
• 이동 시장실 운영
• '97시정 설명회 개최
• 분야별 초청 간담회
• 제언자 서한문 발송

(9) 반상회운영 내실화

• 열린 반상회 개최로 내실 있는 운영
• 시민제언란 상설 운영
• 지역소식 생활정보란 증설
• 모범 통 · 반 선정 시상

5) 사회진흥과 업무계획

(1) 자연보호 및 국토 대청소운동 전개

• 생활주변 산, 하천, 유원지 등 취약지 선정 중점 관리
• 홍보교육을 통한 시민환경의식 함양 및 참여 촉진시책 추진
• 명절 행락기 특별관리
• 환경보존 시범학교 운영
• 홍보활동 적극 전개

(2) 건강한 시민의식 함양 교육

• 시민의식 함양과 세계화, 자치화, 지방화에 부응하는 시민상 구현
• 교육방향 – 생활개혁, 도덕성 회복, 환경보호, 인보협동, 외래문화 추방
• 대상 –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 살기 위원, 동 정자문위원, 기타

(3) 이동 도서관 확대 운영

• 인원 및 장비 – 인원(7명), 장비(차량 3대), 도서(35,511권)



〈사진 3-8 : 33〉새마을 이동 도서관

• 확대 운영 – 지역 확대(78개 소), 인원과 장비(인원 2명, 차량 1대)
도서(10,000권)

(4) 불법광고물 정비

• 도시 미관을 해치는 광고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광고물, 노후 방치된 광고물, 불법광고물
• 1단계 – 옥외 광고물 금지지역 광고물, 노후 방치 광고물
• 2단계 – 도로변, 유흥가, 상가 등 다중집합장소
• 3단계 – 1, 2단계 정비대상 불법광고물 마무리

(5)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 불편 초래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 지도, 계몽 –'97. 2~'97. 3
• 정비단속 – '97. 4 ~ 12
•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 취약지 집중 단속

(6) 내고향 공원화 조성

• 식재지역 – 도로변, 도시공원, 농촌마을, 아파트 등 18동 275개소
• 계절별 꽃식재
• 시가지 꽃거리 조성
• 꽃박스 및 꽃길 조성
• 화분 내놓기 운동 전개

(7) 모란 민속 5일장 활성화

•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민속시장을 이전하여 모란 역세상권과 연계하고 모란 민속5일장을 활성화하여 전국 제일의 민속시장 형성
• 장날 분법주 · 정차 집중 단속

(8) 성호시장 현대화

•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건물을 현대화하고 재래시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함
• '96. 10 – 연구용역실시, '97. 3 – 최종안 확정, '97. 6 – 교통영향 평가
• '97. 11 성호시장 건립 기본설계 실시

(9) 제일시장 현대화

- 시설이 노후화된 재래시장을 현대화하여 유통방식 개선
-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공급 주민편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추진계획 – 지하4층, 지상14층(연면적 8,114평)

(10)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출전 지원

-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 지원(11개 대회)
- 전국 단위 체육대회 출전 지원(14개 대회)
-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및 생활체육 기반 조성
- 우수선수 조기발굴을 통한 스포츠 경쟁력 강화

(11) 생활체육 활성화

- 지원처 – 지원단체(30개 단체), 생활체육교실(7개 소), 생활체육진흥 사업(10교실), 어머니 배구단(1개 팀)
- 시 단위 체육대회(3회)
- 직장 체육팀 운영(2종목)
- 하키 18명, 육상 7명
- 직장 및 지역체육의 활성화
- 체육지도자 및 선수 양성
- 대회 입상으로 대외 홍보

(12) 학교체육 지원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 체육특기학교 육성 지원
-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
- 체육용 기구 지원
- 어린이 체육진흥 및 육성

(13) 체육 진흥기금 조성

- 시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 지원
- 체육시설의 확충 및 생활체육의 저변 확산
- 기금조성액 – 2억 원(누계 8억 원)

(14) 청소년 보호육성

- 청소년 수련관운영 외 9개 사업
- 청소년 수련관 운영
- 청소년 상담실 운영
- 청소년 야영장 설치

• 어려운 청소년 지원 강화

(15) 옹벽, 석축 등에 대한 도시 미관 조성계획

• 대상물 – 도로변 석축, 옹벽
• 조경계획 – 옹벽(벽화), 석축(담장이 식재)

(16) 범시민 기념식수 운동 전개

• 97년 나무심기운동 전개사업 연계
• 기념일 식수장려 • 비배관리 및 표찰 부착

(17) 내집 앞 내가 쓸기운동 활성화계획

•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 문화시민의식 제고
• 직능단체별 담당구역제 확행

6) 시민과 업무계획

(1)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운동 전개

• 공직자의 친절문화 정착 • 참봉사 구현으로 신뢰감 확산
• 친절봉사 선진기업 견학 • 친절한 마음 교육 실시
• 친절공무원 선발 표창

(2) 행정 모니터제 운영

• 주민편의 행정구현 • 열린시정 구현
• 공무원 친절도 평가 기능 부여 참여의식 고취
• 우수 모니터 발굴 표창

(3) 전자 주민카드 사업

• 정보화 세계화에 걸맞은 다기능 증명제도 도입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 등 · 초본 · 인감증명 지문

(4) 전자메일 운영의 실질화

- 비용 절감 및 보고의 신속 • 정보화 마인드 확산
- 행정의 과학화 조성 • 운영대상 – 간부공무원 및 전 실 · 과

(5) 컴퓨터 영상보고 시스템 도입

- 현장감 있는 업무보고 • 인쇄문서 감축 실현
- 대형 스크린에 의한 파노라마식 진행으로 관심 집중 유도
- 경비와 시간 절감

(6) 공무원 전산교육 실시

- 기 보급된 컴퓨터 활용도 제고 • 행정의 과학화 기반 구축
- 상설교육장 확보

7) 민방위 재난관리과 업무계획

(1) 민방위대 조직 운영의 활성화

- 민방위대 현황 – 민방위대(1,511대 134,357명)
- 교육대상 – 상반기(50,247명), 하반기(49,087명)
- 거주지 통 단위 및 지역단위로 지역 직장 민방위대 편성
- 기술지원대 편성 • 수방기동대 화생방분대 조직
- 민방위 교육관 난방시설 교체 • 분당구 민방공 경보싸이렌 설치

(2) 소방장비 현대화 추진

- 내폭 화학 소방자동차 1대

(3) 재난 예방활동 강화

- 재난 위험 시설물 – 4개소 •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 – 386개소
- 지속적인 안전 점검 • 합동점검실시로 효율성 극대화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훈련 강화

(4) 방독면 보급 5개년계획

- 총보급계획 – 42,534 • 현 보유량 – 18,684
- 보급계획 – 23,850

8) 종합운동장 업무계획

(1) 제2하키장 스탠드 및 락카룸 설치 공사 추진
(2) 운동장 도색 공사(주경기장, 로라장, 체육관)
(3) 주경기장 2층 화장실 보수 공사 (4) 주경기장 텍스 교체 공사
(5) 실내체육관지붕 배수로 보수 공사 (6) 녹지대 조경 공사

9. 1998년의 시정방향 및 성과

민선 1기 시정을 마무리하는 해로 시민과의 약속 50대 중점시책을 중심으로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생활환경개선, 신·구시가지 화합, 지역문화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새롭게 추진할 시책을 포함하여 각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1) 기획담당관실 업무계획

(1) 시정 기본 운영 계획

- '98년 업무계획수립(세부 및 시행) • '98주요업무 확인 평가
- '98년 시정홍보 •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시민 생활환경 개선 • 신, 구시가지 화합
- 각종 지시사항 관리(대통령, 장관, 도지사, 시장)

(2) 50대 시책사업의 완벽한 마무리

-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시민복지체계 구축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지역간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98추진 세부실천계획 보고 • 월간 추진사항 보고회 개최
- 추진사항 홍보 • 추진사항 정기 심사 평가

(3) 21세기 성남 장기발전계획 추진

- 공간 및 시간 – 성남시 전역, • '98 ~ 2018(20년간)
- 2천년대의 성남시 미래상 8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집행계획
- 미래지향적으로 신 · 구 시가지 균형발전계획
- 장기적인 지역개발 청사진 설정 · 도시 미래상 제시
- 추진계획 – 연구용역(국가 경쟁력 연구원, LG경제연구소, 고대경제연구소)
- 시민공청회('98. 6) • 세부추진계획수립('98. 10)

(4) 성남시 이미지 형성계획(C. I. P) 추진

- 알기 쉽고 친근감 있는 성남시 상징성 구현
- 개성 있고 효율적인 도시 이미지 관리
- 시민참여의식 유도로 애향심과 정주의식 고취
- 추진계획 – 최종보고회('98. 2), 세부추진계획수립('98. 3)

(5) 성남시정 책자 발간

-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구현 • '98시정 설명회시 사용

(6) 시정백서 발간

- 백서구성 – 시정개관, 부문별 성과와 전망, 유관기관의 행정 소개
- 시민의 시정 이해 및 참여도 제고 • 창의적인 시정 수행의 지침서
- 성남시 역사를 만드는 소중한 자료

(7) 의회 시정질문 · 답변 약속사항 관리

- 집행부의 책임성과 신뢰성 확립 • 재질문 및 촉구사례 발생
- 완료 추진 중 시기 미도래 등으로 구분 관리

• 책임 있고 확실한 답변체계 확립

(8) 예산의 적정배분

• 경상경비의 증가 억제
• 약속사업 및 계속사업 중점 투자 • 방만한 예산운용 사전예방
• 공공성, 생산성, 효율성 제고
•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건전 재정 도모

(9) 경영 수익사업의 활성화 운영

• 경영행정기획단 발굴사업의 지속추진
• 경영수익사업, 민자유치사업, 제3 추진가능사업 적극 발굴
• 공공성 위주의 지역부존 활용시설 선정
• 주민복지 관련 사업
•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 효과 큰 사업

(10) 타임 캡슐사업 추진

• 사업기간 – '97. 10 ~ '98. 7 • 타임캡슐 자문위원회 구성
• 성남시의 상징물이 될 수 있는 문물을 수장하여 현재와 미래 연결

(11) 성남 사랑하기 운동 추진

• 성남정신을 체계적으로 구현 · 승화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성남시민의 마음과 행동 기준을 정립하고자 함
• 성남상품 구매 운동 • 성남문화 가꾸기 운동
• 내 고향 인재 육성 운동 추진

(12) 시민아이디어 공모제 운영

• 시민의 자발적인 시정참여로 열린행정, 봉사행정 구현
•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 시정에 접목
• 분기별 심사 포상

(13) 법령정보 및 자치법규 전산화 추진

-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전산 프로그램 구입
- 성남시 자치법규 전산입력 추진 • 근거리 통신망(LAN) 구축 활용
- 정보화시대 행정업무의 신속 · 정확성과 사무의 효율성 제고

2) 공보 담당관실 업무계획

(1) 주민 속으로 파고드는 시정홍보

- 홍보내용 – 각종 시책 추진사항, 각종 공지사항, 시정현황, 생활민원, 시민관심 사항
- 홍보매체 – 방송사(3개사), 신문(34개사), 시정소식지, 유선방송, 조선일보 LED전광판, 지하철 와이드 칼라
- 시민의 참여의식 고취 • 시민의 알 권리 충족

(2) 케이블TV 활용 시정홍보

- 개요 – 한국케이블TV 성남방송, 29개 채널
- 생활정보의 신속 · 정확한 제공
- 방영시기와 회수 – 주 5회 일 2회

(3)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보도여건 조성

계		방송사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매체	기자인원	매체	기자인원	매체	기자인원	매체	기자인원	매체	기자인원
37	47	3	3	11	11	12	19	11	14

- 기자 간담회 개최 • 사전 브리핑제 실시

(4) 음향장비 구입 양질의 시정홍보 운영

- 초대형 증폭장치 • 고화질 멀티스크린

• 이동용 중계차량 • 모든 행사 자체 소화

(5) 시정홍보 우수부서 시상 추진

• 우수부서 평가 – 년 2회 • 대상부서 – 본청 실 · 과 · 소, 구청
• 평가분야 – 주요 시책사업 추진 홍보
• 지방자치시대의 열린 행정으로 시민 알 권리 충족

3) 문화체육 담당관실 업무계획

(1) 문화예술회관 건립

• 위치 – 야탑동 산 164번지 일대
• 규모 – 부지(26,967평, 건평 15,000평)
• 성남시에 걸맞은 문화공간 확보 • 시민화합의 장 마련
• 선진 문화인으로의 긍지와 고향의식 고취

(2) 시립중앙도서관 건립

• 건립 위치 – 야탑동 산 150번지 일원
• 규모 – 부지 29,507평, 건평 3,897평
• 열람석 – 3,500석 • 사업비 – 15,979백만 원

(3) 단대도서관 건립

• 건립위치 – 산성동 2,224번지
• 규모 – 부지 4,127평, 건평 2,400평 • 열람석 – 2,000석

(4) 대원도서관 건립

• 건립위치 – 성남동 산 10–21
• 규모 – 부지 2,500평, 건평 3993평 열람석 – 2,500석

(5) 시민광장 조성

• 위치 – 수내동 2번지(분당구청 전후) 면적 – 23,559평

- 주요시설 – 잔디광장, 조각분수대, 시민타워, 주차장, 조각공원, 문화거리
- 시민생활 속의 문화예술공간 확보로 삶의 질 향상

(6) 둔촌 이집 선생 고옥 신축

- 위치 – 하대원동 산 7번지
- 규모 – 3동 69평
- 전통문화 계승
- 교육의 장 마련

(7) 정일당묘 사당 주변공사

- 위치 – 수정구 금토동 661
- 규모 – 부지 2,772평, 진입도로 1,100m
- 사업내용 – 사당주변 조경공사, 진입도로 정비공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묘역주변 정비공사

(8) 제13회 성남문화예술제 개최

- 대표적인 종합예술제임
- 정체성의 확립과 일체감 조성
- 향토문화 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추구

(9)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

- 문화예술활동 권장 및 보호 육성
- 문화예술행사 지속적 유지
- 새로운 문화예술행사 개발 지원
- 지원단체 – 성남문화원(29개 사업), 예총성남지부(57개 사업)

(10) 학교 및 시민체육 진흥

- 어린이체육 진흥 및 육성
- 체육특기학교 육성 지원
- 체육용 기구 지원
- 야구 및 축구부 집중 지원
- 학생체육대회 개최
- 순회코치제 운영
- 생활체육진흥사업 운영

(11) 생활체육대회 활성화

- 시민체육대회 개최 1회
- 종목별 대회 지원

• 생활체육 활동 참여 유발 • 시민화합과 일체감 조성

(12) 체육대회 출전 지원

• 사업량 – 도단위 대회(11회), 전국단위 대회(14회)
•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및 생활체육 기반 조성
• 우수선수 조기발굴을 통한 스포츠 경쟁력 강화

(13) 제2시립 테니스장 설치

• 위치 및 면적 – 수내동 119-1 일원(3,099평)
• 주요시설 – 경기장 10면

(14) 청소년 보호 육성

•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청소년 비행 방지
• 용기와 희망을 주어 새로운 진로 개척

(15) 제2청소년 수련관 건립

• 위치 – 야탑동 165번지
• 규모 – 부지(15,654㎡), 건평(7,746㎡) • 기간 – '98 ~ 2000

(16) 청소년 심신 수련장 설치

• 위치 – 분당구 대장동 429번지 일원
• 규모 – 일일 1,000명 수용 가능(118,698㎡)
• 야영지 – 일일 500명 수용 (30,000㎡)
• 집회장 – 일일 500명(5,000㎡) • 체육활동장-6,000㎡
• 주차장 : 3,858㎡ • 기타 : 73,840㎡
• 심신수련 및 건전여가활동 장소 제공
• 밝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

(17) 경기단체 재정비

• 체육회 가맹단체 20개
• 생활체육협의회 가맹단체 13개

• 운영의 활성화로 경기력 향상 • 생활체육의 균형 발전
• 시민 관심도 제고를 통한 체육의 생활화 계기 마련

(18) 동계청소년 수련활동 계획

• 공동체 생활을 통한 가치관 습득 기회
•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에 위탁 수련활동 실시
• 청소년의 심신단련 및 정서함양으로 진취적이고 능동적 생활태도 배양

4) 전산통신 담당관실 업무계획

(1)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 운영

• 실 · 국장 이상 간부직원 인터넷단말기 설치
• 민원실 인터넷 단말기 설치 • 지속적 자료갱신 최신 상태 유지
• 인터넷 청내 근거리 통신망 구축

(2) 행정 전산화용 PC 및 프린터 보급

• 공무원 1인 1대 PC 보급(2001년까지)
• '98 추진계획 – PC 150대, 프린터 75대 보급 추진

(3) 공무원 전산교육 실시

•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 • 행정정보화 추세에 적극 대처
• '98추진계획 – 일반직 공무원 300명, 전산직 공무원 30명(전문교육)

(4) 지역 정보화 추진

• 지방행정 정보화로 대민 서비스 개선
• 정보문화환경 조성 • 지역정보센터 기반 구축
• 지역정보센터 운영 지원

(5) 시청 – 사업소 간 근거리 통신망 구축

•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 및 정보유통체계 확립

- 재정관리 S/W 운영
- 행정종합정보망 운영 확대
- 전자문서 송수신 관리시스템 운영 확대

(6) 정보 다중화 장비시설(E1-MUX) 설치

- 시 - 구청 간 행정통신망을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으로 교체
- 전용회선 요금 절감

(7) 행정시외 전산망(DDD)구축

- 시외전화요금 절감
- 비상사태 시 비상통신수단 절실
- 경기도 - 교환기 설치(1식), 성남시-B/W래피타 1식 및 전용선카드 1식

(8) 화상회의 전화시스템 구축

- 초고속망을 이용 시-도 간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 출장경비, 시간낭비, 교통난 등 문제 해결

(9) 행정자료실 운영 활성화

- 행정자료 지속 구입 및 수집
- 홍보로 시민 이용율 제고
- 실 · 과 · 소의 자료 제출 의무화
- 복사 무료 서비스

(10) 어머니 컴퓨터 교실운영

- 대상 - 관내 가정주부
- 인원 - 200명(10회 20명씩)
- 장소 - 청내 전산교육실

5)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1) 주경기장 스탠드기둥 보수 공사

- 스탠드 하부기둥 균열 16개소
- 재난사고 미연방지

(2) 주경기장 스탠드 바닥 우레탄 도막 방수 공사

- 스탠드 신축이음 부위 누수방지로 시설물 보호 및 사고 예방

(3) 주경기장 스탠드 의자 교체 공사

- 좌석수 – 21,242석
- 공사 시기 – '98. 7 ~ '98. 9

(4) 주경기장 파라밧드 크랙보수 공사

- 벽체 크랙 – 348m

(5) 주경기장 케노피 방수 공사

- 케노피 바닥면적 –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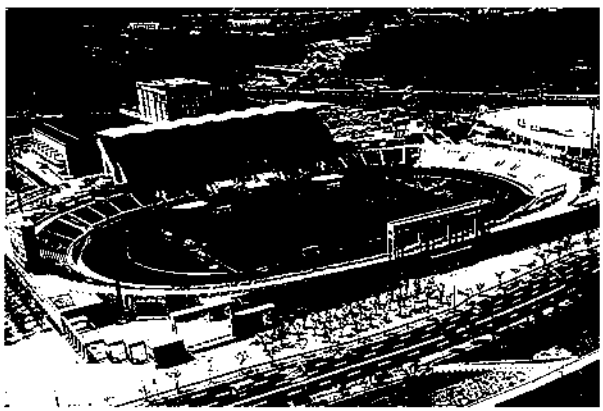
<사진 3-8 : 34> 성남 종합운동장

(6) 체육관 천정빔 고정볼트 조임 및 도색 공사
(7) 실내체육관 냉동기 수리 공사
(8) 주경기장 전기승압 공사
(9) 하키탑 이전 공사
(10) 주경기장 녹지대 나무식재 공사

6) 제2종합운동장 건립준비단 업무계획

(1) 제2종합운동장 건설공사

- 위치 – 분당구 야탑동485-6, 486번지
- 규모 – 부지면적 123,039.20㎡, 건축면적 92,126.42㎡
- 내용 – 축구장, 육상트랙, 야구장, 수영장, 빙상경기장, 테니스장,체육회



<사진 3-8 : 35> 성남 제2종합운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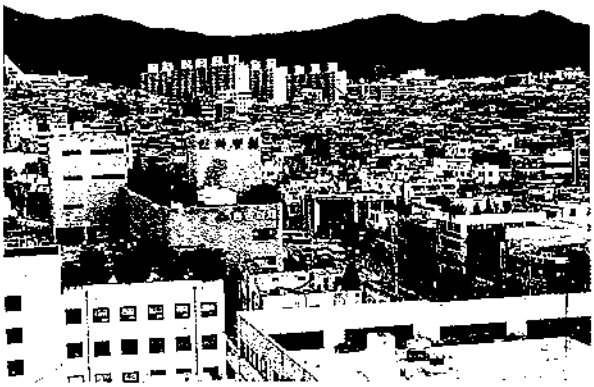
구 분	계	1997	1998	1999	2000	2001
사업비 (백만 원)	131,200	9,579	33,995	34,007	34,007	19,612
공정률 (%)	100%	7.3 (7.3)	25.9 (33.2)	28.9 (59.1)	25.9 (85.0)	15 (100)

'98 시정업무계획

10. 1999년의 시정방향 및 성과

힘찬 경제도시, 푸른 문화도시, 앞선 정보도시, 복된 화합도시를 시정방침으로 정한 민선 2기의 2년차 1999년의 7대 역점시책은 다음과 같다.

1) 안정된 지역경제 기반 구축



<사진 3-8 : 36> 인하병원을 중심으로' 90년대의 시가지 모습

(1)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지원 기술과 정보 제공
- 디자인 개발 지원, 중소기업 ISO인증 획득 지원
- QS, UL, CE마크 획득 지원
- 고유브랜드개발 등록 지원

(2) 상품시장 개척

- 무역법인 설립
- 해외구매단 초청 지원
- 우수상품 CATV 홍보
-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2) 고용안정과 실업대책 추진

(1) 취업 알선

-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 인력은행 운영
- 건설일용근로자 일일취업지원센터 운영
- 취업박람회 개최

(2) 취업교육 및 재취업 훈련

- 고용촉진훈련사업(25개 직종)
- 실직자 재취업훈련

- 여성취업 학교 운영
- 여성복지관 취업교실 운영
- 대학별 취업강좌 설치 운영
-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적 사업으로 전환 추진(61개 사업)
- 혹한기 공공근로사업의 옥내사업 전환 확대 추진
- 공공건설 공사 실직자 20% 고용운동 추진(관급공사 계약시 명시)
- 구직자 쉼터 설치 운영
- 실직자 사랑의 무료급식소 운영
-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추진
- 실직자 무료 진료
- 실직자가정 보육비 지원, 노숙자 보호

3)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기반 구축

(1) 판교지구 개발

- 면적 – 190만 평
- 첨단사업 유통단지(37만 평)
- 디자인파크(40만 평)
- 판교 민속마을(8만 평)

(2) 2001년 세계디자인대회 유치

- 산업디자인센터 건립(야탑동 – 지하 4층, 지상 8층,)
- 2001년 세계 디자인총회 유치(49개 국, 130개 기관, 연 10만 명)

(3) 화훼 테마공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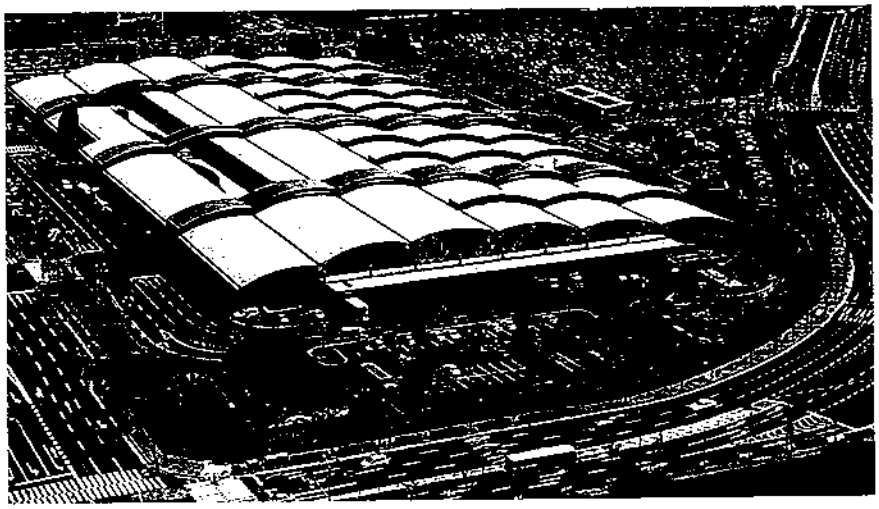
- 수정구 금토동 10만 평 생산시설, 유통시설, 화훼공원 등 조성
- '99년도 기본계획연구 용역

4) 유통시설의 현대화

(1) 농수산물 도매시장 물류센터 전환 건설

- 위치 – 분당구 구미동 174번지
- 부지(25,455평), 건평(15,003평)
- 공사기간 – '97. 7 ~ 2000년 상반기

(2) 농산물 직거래사업 추진



〈사진 3-8:37〉
성남 농수산물 센터

- 주말 농어민시장(5개 소)
- 구청민원실 농산물 판매 추진
- 농산물 직판장 추진
- 자매결연 직거래 추진

(3) 모란장 전국최고 민속시장 육성

- 민속행사 유치
-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

5) 푸른 문화도시 건설

(1) 문화관광벨트 조성

- 남한산성 – 중앙로 – 모란민속시장 – 분당 – 판교를 잇는 문화관광벨트 조성
- '99년계획 – 연구용역

(2)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 '99 ~ 2001까지 25억 조성
- '99년 계획 – 500백만원

(3) 남한산성 공원 조성

- 남한산성 문루, 전시관, 박물관, 야외공연장 등(12,550평)

(4) 성남 문화의 집 설치

• 위치 : 신흥1동 현 교육청사 • 면적 : 542평, 지상3층

(5) 시립도서관 건립

• 수정도서관 : '99. 12월 준공 예정
• 분당도서관 : '99. 8월 준공 예정
• 중원도서관 : '99. 12월 준공 예정
• 중앙도서관 : 2000년 준공 예정

6) 시민문화 향수 기회 확대

(1) 소규모 문화예술 활동공간 활용 활성화

• 희망대공원, 야외광장, 황새울광장, 야탑 · 서현 · 초림역 미관광장, 소공원 등
• 마을단위 소규모 행사

(2)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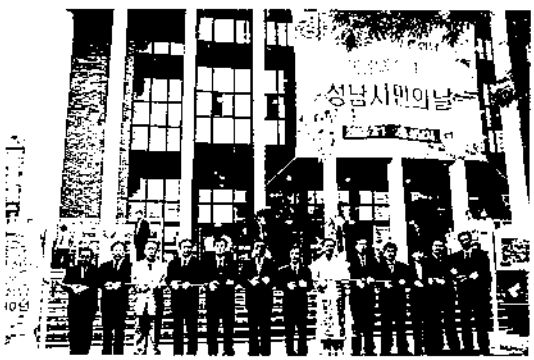
• 시립예술단 운영 다변화 • 공원테마축제 운영
• 예술 순회공연

(3) 시민의날 기념 문화행사

• 경축음악회, 영화제, 어린이연극제, 무용대향연, 시민백일장, 시가행진
• 시민대화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4) 제14회 성남 문화예술제

• 푸른 문화도시 활성화 붐 조성



〈사진 3-8 : 38〉
제30회 시민의 날 경축행사

• 국악제, 무용제, 영화제, 음악제, 연극제, 시민노래자랑, 사진작품전, 미술작품전, 시민백일장

7) 전통문화 계승발전 추진

(1) 정일당묘 사당 주변 정리(성남시 향토유적 1호)

• 위치 : 금토동 661번지 • 면적 : 196평

(2) 한산이씨묘 비갈 보호각 설치

• 위치 : 분당구 수내동 65번지 • 면적 : 12.6평

(3) 성남시 예술지 발간

• 성남예술문화를 집대성한 홍보기록, 자료집, 논문, 칼럼, 예술 현황 등.

8)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

(1) 체육진흥기금 조성

• 기금조성 : 20억 원 • 2000년까지 25억 조성

(2) 분당운동장 생활체육공간 전환 및 활용

• '99년계획 :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체육회관 공사

(3) 야외 수영장 건설

• 위치 – 낙생공원 부지 내 • '99년계획 – 설계 실시

(4) 인공암벽 설치

• 위치 – 종합운동장 내 • 규모 – 높이 13m, 폭7m, 3면

(5) 학교체육 지원

- 체육특기학교 육성 지원
- 운동용 기구 지원

(6) 생활체육대회 활성화

- 26회 시민체육대회 개최
- 성남시 씨름왕 선발대회
- 종목별 대회 개최 지원
- 생활체육 진흥사업
- 생활체육교실 운영

(7) 체육대회 출전 지원

- 경기도 체육대회
-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 도회장기 생활체육대회
- 전국체육대회
- 전국소년 체육대회
-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사진 3-8 : 39> 시민체육대회

(8)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천연잔디구장 전환

- 프로구단 유치로 시민화합 구현
- 대회 유치로 체육의식 활성화

9) 푸른 전원도시 건설과 쾌적한 환경 보전

(1) 도시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

- 재건축 추진(진로, 단대아파트)
- 금광아파트
- 하대원 주공아파트

(2)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 은행동 7개 지구
- 산성동 192개 동
- 농촌동 5개 지구

(3) 성남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 대상 – 성남시 전체(141.72㎢)
- 목표연도 – 2006년
- 기준인구 – 108만 명

(4)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 복정동 풍치지구 일원(130,867평)

(5) 분당 미개발 상업용지 용도 변경

- 택지개발지구(5,490평)

(6) 건축물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
-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 건의

(7) 시영아파트 분양 전환

(8) 아파트 관리비용 경감 대책 추진

- 공동주택 관리비용 경감에 대한 교육 실시(관리소장, 입주자대표)
- 우수관리단지 선정 및 시상 홍보

10)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



<사진 3-8 : 40> 도로망

(1) 서현동 ~ 야탑동 간 도로개설

- 사업규모 – L=3,800m, B=20m(4차선)

(2) 중앙로 ~ 대왕로 간 연결도로 개설

- 사업규모 – L=2,125m, B=20m(4차선)

(3) 금곡동 ~ 대장동 간 도로 확장

- 사업규모 – L=3,280m, B=12m(2차선)

터널설치 : L=350m

(4) 고등동 ~ 상적동 간 도로 확장

- 사업규모 – L=3,274m, B=15m(4차선)
- '99 계획(5,556백만 원)

(5) 성남대로 확장

- 사업규모 – L=1,365m, B=29m(4차선)
- '99계획 : (10,007백만 원)

(6) 중동 ~ 하대원동 간 도로개설

- 사업규모 – 교통광장 2개 소 도로개설 – L=1,840m, B= 30m

(7) 중앙로 ~ 탄천로 간 연결도로 개설

- 사업규모 – L=2,125M, B=20m(4차선)
- 교량 – L=125m, B=20M

11) 교통체증 해소대책

(1) 마을별 주차장 설치

- 주택가 주변 소규모 주차장 가능부지 매입 설치

(2) 주차장 요금 인하

- 소규모 주차장 주차요금 인하 공단주변 주차장 주차요금 인하

(3) 시민 교통불편 해소 대책

- 분당 ~ 강남 간 버스노선 확대 추진 농촌동 버스승강대 설치

(4)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폐지 조치

- 판교IC 통행료 1,000원 부담 폐지 추진

12)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푸른환경 조성

(1) 성남 의제21 추진

- 추진협의회 구성
- 실천 강령 제정 선언

(2) 환경 민간단체 활동 지원

- 사업위주 활동 지원

(3)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추진

(4) 자연형 하천조성

- 운중천, 상적천, 분당천, 여수천 – L=6,600m

(5) 환경보전 종합계획 연구용역

- 수질, 대기, 소음, 자연환경, 환경정책 등 21세기를 향한 환경보전대책

(6) 탄천 수질 보전

- 하천수질 측정망 운영
-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
- 수질오염 상황실 운영

(7) 대기보전 및 오염 저감대책 추진

-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 확대
-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
- 대기배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강화
- 오존 경보제 실시

(8)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

- 시민의식개혁 강화 추진
- 평가표에 의한 점수관리제 실시
-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글짓기대회 개최

13) 시민 휴식공간 확충

(1) 율동공원 조성

• 휴게광장, 피크닉장, 어린이놀이터, 자전거도로, 산책로, 분수대 등

(2) 영장산 공원 조성

• 자생식물원 조성(율동공원, 상적동)

(3) 도시녹화사업

14) 인간존중의 참교육과 미래형 교육터전 조성

(1) 장학재단 설립(청소년 육성) (2) 초, 중, 고 신설(구미동 중·고교)
(3) 중, 고교 중퇴자 복귀대안학교 운영
(4) 고등학교 급식시설 지원(21개교) (5) 방송대학 학습관 마련
(6) 청내 야간대학 운영 (7) 청소년 토론회 및 예절교육 운영
(8) 청소년 공부방의 내실운영 (9)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 단속
(10) 미적응학생 상담 및 사회봉사활동 실시
(11)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및 게임S/W 공모전 개최
(12) 전자도서관 구축 (13) 시민 무료 PC방 설치 운영
(14) 지역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15) 시민 정보화교육 실시

15) 시민이 주인인 열린 자치행정 실천

(1) 시민위주의 열린 시정구현

• 시민과의 대화 정례화(36개 단체) • 시민의 시정참여 제고
• 열린 시장실 운영

(2) 시정홍보의 다양화(홍보책자 발간) 시정백서 발간
(3) 홍보매체 활용의 극대화
(4) 시민 만족을 통한 친절행정 구현

- 보다 친절한 서비스행정
- 책임행정 구현
-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
- 시정의 정책형성 기능 강화
- 국내, 국제 간 교류활성화
- 복된 화합분위기 조성
- 제2의 건국운동 추진
- 행정의 생산성 제고
- 공직 내부의 결속과 사기 진작

16) 더불어 함께사는 선진복지사회 구현

(1) 밝고 훈훈한 복지시책 추진

- 노인복지의 대폭 확대
- 사회복지시설 확충
-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 장애인 복지시책 확충

(2) 여성 권익향상과 사회참여 지원

- 여성활동의 거점 마련
- 여성 사회 참여 확대
- 질 높은 보육서비스 확대

(3)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 자원봉사센터 민간운영 전환
- 범시민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4) 시민보건 향상

- 시민건강 증진
- 전염병 예방
- 청결한 위생환경 조성
- 국민건강 증진 조기정착

(5) 일반 사회복지시책 확대

- 장묘문화 개선
- 저소득 시민생활 안정 지원

17) 범죄와 사고가 없는 안전한 사회 건설

(1)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체제 구축

- 시장직할 유관기관 합동 재난관리단 운영
- 119 구급대 인명구조장비 보강
-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및 화생방 장비 보급
- 소방시설 전면 진단 보수

(2) 도로 시설물의 완벽한 시공 및 철저한 관리

- 재난위험 대상물 안전대책 추진
- 재난위약 시설물 안전점검
- 공동주택 하자보수 및 안전관리

(3) 분야별 사고예방으로 시민생활 안전 확보

- 민방위대 조직 운영의 활성화
- 재난재해구조 자원봉사단 운영
- 분당구 관내파출소 증설 지원
- 시민 방범활동 적극 지원

18) 관 · 학 자매결연 추진

(1) 결연대상 – 시 본청 및 사업소 : 6개 대학 145개 학과

- 결연기준 – 1실 1학과
- 시정발전시책에 대한 연구 검토

(2) 제안제도 개선 확대 시행

-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 절감에 관련된 창의적 의견이나 고안
- 분기별 우수제안에 대한 별도 심사 시상

19) 현안 및 건의

(1) 중국심양시 경기관, 성남관 설치

- 경기관, 성남관 공동설치 운영으로 중국진출 교두보 확보
- 전시관 임무 – 한국상품 홍보, 판로개척, 판매 지원

(2) 판교 I.C 통행료 폐지 건의

(3) 건축 고도제한 관계법령 개정

• 비행안전구역 재조정 및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으로 건축물의 고도 제한규정 완화 조치 건의

※'99시정의 분야별 수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올해의 최우수기관	대통령표창(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 전국 최우수기관 평가	최우수상(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경영 대상	우수상(행정자치부)
사무환경 대상	우수상(행정자치부)
지방물가안정관리 평가	최우수(경기도)
추계 도로정비실적 평가	최우수(경기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	최우수(경기도)
국토 공원화사업 추진실적 평가	우 수(경기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평가	장 려(경기도)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	장 려(경기도)
수도권 주거만족도 조사	최우수(국토연구원)

1. 2000년 시정방향 및 성과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 기반구축,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균형 발전과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멋과 낭만이 넘치는 문화예술 체육 진흥, 그늘진 곳에 빛을 주는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구현, 범죄와 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 건설 등 2000년의 7대 중점시책은 다음과 같다.

1)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 기반 구축

(1) 시민 정보화교육 확대

- 교육인원 : 10,000명(주부, 학생)
- 교육기관 : 34개소(기관 및 학교)

(2)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및 우수게임S/W 공모전

(3) 공공시설 인터넷 무료방 설치·운영(시, 구, 동 : 48개소 : 67대)

(4) 행정 산업정보화 구축

- 종합지리 정보시스템(GIS) 구축
- 정보통신단지 유치
- 중소기업 홈페이지 마련
- 행정정보통신망(LAN) 증설
- 홈페이지 확충
- 전자도서관 구축(2개소)

(5) 문화정보센터 건립

- 분당문화 정보센터 : 2,579평(지하1층 지상4층) 2,006석
- 중원문화정보센터 : 3,974평(지하2층 지상4층) 2,500석
- 수정문화정보센터 : 2,397평(지하1층 지상4층) 2,000석
- 중앙도서관 : 3,892평(지하1층 지상4층) 3,500석

(6) 교육여건 개선

- 초·중·고교 신설(구미동 중·고교, 사기막골 미니학교)
- 중·고교 중퇴자 복귀 대안학교 운영
- 중학교 급식시설 지원
- 장학금 지급
- 시청 내 야간대학 운영

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1) 디자인산업 거점도시 육성

- 새천년 맞이 디자인전 개최
- 디자인도시 성남 육성계획 수립

(2) 산업디자인센터 건립

- 규모 : 9,000평(지하4층 지상8층)
- 전시, 업무, 관람집회, 근린생활, 교육연구시설 등

(3) 판교지구 개발(210만 평)

- 디자인밸리, 첨단 산업단지, 주거단지, 판교민속마을, 유통업무시설 등

(4) 백현유원지 개발(63,650평)

- 컨벤션센터, 호텔, 디자인전시장, 휴양, 문화, 체육, 복지시설 등

(5) 첨단지식 정보산업 육성

- 성남아파트형 공장 – 분당테크노파크
- 벤처빌딩 건립
-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6) 중소기업 육성 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 지원
-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 특례보증 지원
- 해외 품질인증 지원
- 디자인 개발 지원

(7) 국제통상업무 활성화

- 결연도시 : 미국(오로라시), 중국(심양), 브라질(삐라시카바)
- 우수상품 해외홍보 지원
- 해외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 해외 바이어 초청 지원

(8) 취업알선

- 재취업교육 확대
-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9) 일자리 창출

- 공공근로사업 추진
- 공공건설 공사 20% 고용 지속 전개

(10) 생활안정 지원

- 실직자 무료급식소 운영
- 실직자 무료진료(3개 보건소)

(11)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

(12) 농수산물 직거래사업 추진 : 자매결연직거래, 주말 농민시장, 농산물 직판장 운영, 화훼직거래장터, 행사성 직거래 등

(13) 모란민속시장 육성 지원

3) 도시 균형발전과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1)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개발

-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 도시재개발사업 기본계획
- 복정동 토지구획사업
- 제1공단지역 상세계획 수립
- 재건축 지원기구 운영
-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사업 추진
- 주거환경 개선사업 : 농촌동(5개 지구), 개발제한지구(8개 지구), 자연취락 14개 지구 도로정비 등

(2)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

- 모란광장 ~ 야탑동 간 도로 개설
- 중동 ~ 하대원 간 도로 개설
- 야탑 ~ 서현동 간 도로 개설
- 모란광장 입체교차로 개설
- 새마을 연수원 진입로 확장
- 동원동 ~ 대장동 간 도로 확장
- 중앙로 ~ 탄천로 간 연결도로 개설

(3) 선진교통문화 정착

-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
-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설치
- 시민교통불편 해소
- 공영주차장 설치(450면)
- 이매역사 건립 재착수

(4)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건설

- 자연형 하천 조성(분당, 운중, 여수, 상적)

-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
- 쓰레기종량제봉투 형태 개선
- 불연성, 건설폐기물 배출용 PP 마대 제작 보급
-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성남 만들기
- 성남의제 21 추진
- 환경미화단체 활동 지원
- 수질오염 예방 보전 대책
-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

(5) 시민휴식공간 확충

- 자원식물원 조성(신구대학 실습농장)
- 수진공원 조성
- 영장공원 조성
- 여수공원 조성
- 도시녹화사업

4) 멋과 낭만이 넘치는 문화 예술 체육진흥

(1) 푸른 문화도시 건설

- 문화관광벨트 조성 추진
- 문화예술회관 건립(8,930평)
-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25억 원)
- 성남 문화의 집 운영(구 교육청)
- 전통문화 계승 발전

(2) 시민문화향수 기대 확대

-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 시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
- 성남문화예술제(푸른 문화도시 활성화 붐 조성)

(3) 생활체육 육성

- 시민레저스포츠공간 활성화
- 제46회 경기도체육대회 사전준비
- 학교체육 진흥
- 체육대회 출전 지원
- 생활체육대회 활성화

5) 그늘진 곳에 빛을 주는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

(1) 다함께 잘사는 복지정책

- 노인복지시책 확대

• 경로당건립(신흥3동, 중동, 금곡동) • 장애인 편의시책 확대

(2) 여성권익 보호와 복지증진

• 여성문화회관 건립(아탑동)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여성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

(3) 아동보호와 청소년 건전 육성

• 결식학생 중식 제공 •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 추진

(4) 기타 사회복지시책

• 사회복지욕구 조사 • 서로 사랑나누기 운동
• 저소득 시민생활 안정대책 마련 • 장묘문화 개선

(5)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 자원봉사센터 민간운영 전환 • 전국 제1의 자원봉사센터 육성

(6) 시민보건향상

• 시민보건 증진사업 추진 • 전염병 예방



<사진 3-8 : 41> 예방접종

6)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구현

(1) 시민본위의 열린행정 구현

• 시민감사제 운영
• 시정참여 포럼 공청회 세미나 개최
• 시민과의 대화 정례화
• 시정홍보 다양화(책자 발간, 신문, 방송매체 활용)

(2) 시민 만족을 통한 친절행정 구현

• 보다 친절한 서비스 향상 • 책임행정 구현(홈페이지 개설)
•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이동 민원실 운영)

(3)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로 행정의 생산성 제고

- 제2의 건국운동 활성화
- 목표관리제 운영
- 주민자치센터 전면실시
- 공직 내부의 결속과 사기 진작

(4) 자치행정의 역량증대

- 시정의 정책형성 기능 강화(성남 발전연구소 운영)
- 국내 · 국제 간 교류 확대(국내 – 2~3도시, 국제 – 5국 6도시)
- 시민화합협의회 활성화

7) 범죄와 사고가 없는 안전한 사회 건설

(1)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체제 구축

- 119구급대 인명 구조장비 보강
- 민방위 경보시설 및 화생방장비 보급
- 소방시설 전면진단 보수
- 시장직할 재난관리단 운영

(2)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대책

-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 소규모 민간시설물 무료점검 서비스
- 저소득층 밀집지역 전기시설 무료점검
- 공동주택 하자보수 및 안전관리

(3) 분야별 사고 예방으로 시민생활 안전확보

- 민방위대 조직운영 활성화
- 재난재해 자원봉사단 운영
- 시민방범활동 적극지원

※ 2000년의 시정성과 수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근로 우수사업장 평가	우수(행정자치부)
공공기관 장애인편의시책 평가	우수(행정자치부)
하수도 공기업경영 평가	우수(행정자치부)
물관리행정 평가	우수(환경부)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 강화	최우수(경기도)
지방물가 안정관리 시책평가	최우수(경기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	최우수(경기도)
2000개별 공시지가 조사업무 평가	최우수(경기도)
도로정비 평가	최우수(경기도)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	최우수(경기도)
정보화 추진실태 종합평가	최우수(경기도)
지방세관련 공공근로사업 추진평가	최우수(경기도)
2000 민원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경기도)
2000 소하천 분야업무 추진 평가	우 수(경기도)
2000 공공부문 경영혁신 종합평가	우 수(경기도)
세정업무 특수시책 평가	우 수(경기도)
2000 민방위대 정기검열 결과	우 수(경기도)
2000 민방위대 정기검열 결과	우 수(경기도)
체납액 역점시책 평가	장 려(경기도)
2000 하천분야 업무추진 평가	장 려(경기도)

ICSID(세계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세계 최초 지방자치단체로서 공식 가입

2. 2001년 시정방향 및 성과

디자인 특화도시, 지식정보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기반 구축, 자연친화적인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더불어 함께사는 생산적인 복지시책 추진,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예술·체육증진, 참여행정, 시민만족 서비스행정의 강화, 범죄와 사고가 없는 안전한 사회건설을 역점시책으로 방침을 세운 2001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 도시 성남」의 정체성 새롭게 정립

(1) 「디자인 도시 성남」 선언 행사

• 일시 : 2001년 10월 • 장소 : 코리아디자인센터(분당 야탑)

(2) 「디자인 도시 성남」시민 대토론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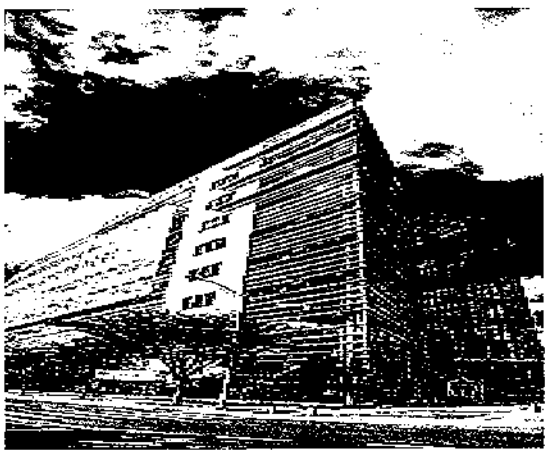
• 일시 : 2001년 3월 • 장소 : 시민회관 소강당

(3) 해외 디자인 우수도시와 국제교류 추진

• 대상도시 : 일본 나고야, 교토, 고베, 이태리 꼬모
• 교류기반 조성

2) 디자인산업 거점도시 육성

(1) 2001년 세계산업디자인대회



<사진 3-8 : 42>
코리아 디자인센터

• 주최 : ICSID(세계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 KIDP(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 KAID(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 주관 : 2001 세계산업디자인대회 집행위원회
• 참여인원 : 49개국 130개 기관

(2) 「코리아디자인센터」 건립

• 위치 : 분당구 야탑동 344-1번지
• 규모 : 연면적 46,946㎡, 지하4층, 지상8층

3) 디자인 마인드확산 및 인프라구축

(1) 「성남 디자인 EXPO 2001」행사

- 국제 제빵디자인 전시회(율동공원)
- 제6회 경기산업디자인전 유치 개최(주택전시관)
- 패션전시회 개최(중앙공원)
- 국제청년디자인 워크샵(새마을연수원/코리아디자인센터)
- 세계디자인사업대회

(2) 디자인도시 시민체감사업 및 인프라구축

- 도시환경시설물 Re디자인(디자인거리 조성)
-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우수디자인 인력 배출)
- 디자인 아카데미 유치(문화정보센터 등)
- 디자인 시민교양강좌 개설 운영(문화정보센터 등)
- 도심아파트 색채디자인 적용(주거공간 예술공간)

4) 지식산업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1) 지식정보산업 육성

- 성남벤처빌딩 운영
  - 위치 : 수정구 수진1동 588번지 외 3필지
  - 규모 : 부지 3,462㎡, 연건평 6,892㎡(지하1층, 지상 3층)
- 야탑벤처밸리 조성
  - 위치 : 분당구 야탑동 68번지 일원
  - 규모 : 연구원 1동, 벤처빌딩 3동
- 분당 벤처 Ⅰ · Ⅱ타운 조성
  - 위치 : 분당구 정자동 24 · 25번지
  - 규모 : 부지 17,752㎡, 2개 동 연건평 279,402㎡(지하4층, 지상26층)
-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
  - 산 · 학 · 관 · 연 업무협력 종합추진, 경영 및 마케팅 지원사업
  - 창업지원, 교육지원, 기술개발 및 인력지원사업, 성남벤처펀드 조성 등
-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
  - 동서울대, 서울보건대, 성남기능대, 신구대의 창업보육센터

• 창업 동아리 지원
  -창업 아이템개발비 지원　　-창업관련 행사참가지원
• 산 · 학 · 관 공동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 해외품질인증획득 지원
  -인증분야 : ISO, QS, UL, CE 등 해외 유명규격 인증
• 전자부품연구원(KETI)유치 지원
• 경기「성남벤처관 운영」(50개 기업 입주)

(2)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1,000억 원 조성 지원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육성(브랜드명 : 어울리오)
• 아파트형공장 건립 지원
• 시민 아이디어 특허 등 출원 지원

(3) 국제 통상업무 활성화

• 인터넷 무역 지원센터 운영
  -무역상담팀, 인터넷무역지원팀, 무역통상정보자료실
  -인터넷 무역포탈사이트 구축
• 수출 유망상품 해외홍보 지원　• 무역 전문인력 양성
•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 수출상품개발 및 규격인증 지원
• 국제교류 강화 및 확대

5) 고용안정과 실업대책 추진

(1) 취업알선

• 실직자 재취업교육 확대　•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산 · 학 · 관 간담회
•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2) 일자리 창출

• 공공근로사업 추진
• 공공건설공사 실직자 20% 고용운동 지속 추진

(3) 노사 화합분위기 정착

- 노 · 사 · 정 반남의 날 운영
- 노 · 사 · 정 등반대회
- 제2회 성남시장기 직장인 축구대회

(4) 생활안정 지원

- 실직자 사랑의 무료급식소 운영
- 실직자 무료진료(내과, 한방, 치과 방문진료 – 3개 보건소)

6) 생활정보 공유화 정착

(1) 시민 정보화교육 확대 실시

- 교육인원 : 20,000명(가정주부, 직장인, 학생 등)

(2)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및 우수게임 S/W 공모전

- 제3회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 제3회 멀티미디어 S/W공모전
- 제2회 인터넷 홈페이지 경진대회 「정보통신의 날」 네티즌 행사

(3) 공공 정보의 향상

- 공무원 정보화능력 평가
- 공무원 홈페이지 경진대회
- 전산자원 원격관리시스템 구축
- 시 · 구 · 동 인터넷 무료방 운영
- 민원업무 온라인화 및 성남시홈페이지 내실화

(4) 행정 · 산업 정보화 구축

- 행정종합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 인터넷 E-mail을 통한 사이버 시정홍보(cans21.net)
- 정보통신단지 유치(분당판교 벤처밸리 내)
- 중소기업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생산품 경쟁력 강화)
- 행정정보통신망(LAN)활용 증대
- 문화정보센터 전자도서관 구축
- 수정 · 중원 · 분당문화정보센터, 중앙도서관(특화사업 추진)

7)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개발

(1) 분당판교 벤처밸리개발

- 분당구 판교 · 삼평 · 하산운동 일원 9,315천㎡
- 2001계획(개발계획 수립)

(2)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 도시 재개발과 연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청사진 제시

(3) 수정 · 중원구 도시재개발 사업(245ha)

- 2001계획(도시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4) 복정동 토지구획정리 사업

- 복정동 풍치지구 일원 740필지 432,617㎡
- 2001계획(주택용지 조성 269,617㎡, 복정대학로 조성 1,400m)

(5) 제1공단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 수정구 신흥2동 2458번지 일원(제1공단) - 106,500㎡
- 상세계획안 작성(일반공업지역 → 주거 및 상업지역)

(6) 재건축(아파트, 주택) 지원 기구 운영

(7) 은행동 시영아파트 건립

- 25평형 426세대
- 2001 계획(아파트 골조 공사)

(8) 장기 미 집행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

(9) 분당지역 단위계획 재정비

- 분당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상업지역 3,063,624㎡

(10)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역 지정

- 수정구 산성동 창말지구 등 13개지구 571,917㎡

8)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

(1) 모란광장 ~ 야탑동 간 도로개설 공사

• 도로개설 : L=1,840m, B=20m
도로확장 : L=1,540m, B=25~35m
35~50m
• 2001계획(도로확장 900m, 교차로 설치)



〈사진 3-8 : 43〉 동원동~대장동 간 터널 관통(2003.10.29)

(2) 중동 ~ 하대원동 간 도로개설 공사

• 도로개설 : L=662m
• 터널설치 : L=775m
• 2001계획(도로개설 183m, 지하차도 설치)

(3) 야탑 ~ 서현동 간 도로개설 공사

• 도로개설 : L=2,344m • 터널설치 : L=850m
• 2001계획(도로개설 50m, 용지보상 50,000㎡)

(4) 남산한성 순환도로 공단구 간 도로확장 공사

• 중원구 상대원1동 171-4 ~ 358-11(L=850m, B=15→20m)
• 2001계획(도로확장 500m)

(5) 새마을연수원 진입로확장 공사

• L=1,520m, B=8 →20m • 2001계획(도로확장 1,120m)

(6) 동원동 ~ 대장동 간 도로확장 공사

• L=3,618m(터널 416m), B=12m
• 2001계획(도로확장 1,500m)

(7) 자전차 이용시설 정비 공사

• 90개 노선, L=228.2㎞(자전거주차장 - 2,3003개 소, 70,549분)
• 2001계획(5개 노선 20.04km)

(8) 대원로 연결도로개설 공사(L=340m, B=6m)

(9) 중앙로 ~ 탄천로 간 연결도로개설 공사

• 도로개설 : L=615m, 교량 : L=175m
• 2001계획(도로개설 390m, 교량 70m)

9) 선진 교통문화 정착

(1) 주택가 양면도로 일방통행로 설치 공사

• 8m이하 이면도로 중 교통혼잡이 극심한 도로

(2) 올바른 교통문화 만들기 추진

• 현장출동팀 운영(2개팀)
• 교통상황 현장 발굴 조사(8개분야 15개 항목)

(3)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4) 도로표지판 정비 공사(2001계획 – 150개소)
(5) 이매 역사 건립 재착수

• 규모 : 대합실 L=205m, A=3,292㎡
• 2001계획(굴착완료, 정차구조물 2층 중 1층 시공)

(6)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주차면수 533면)
(7) 환승주차장 건립(주차면수 550면)
(8) 성남4통 대형주차장 조성(주차면수 618면)
(9) 공영주차장 건설(주차면수 3,612면)

• 지하주차장 : 태평3 · 4동, 산성동, 은행1동, 중동, 상대원3동, 수내3동
• 주차빌딩 : 신흥1동, 태평4동, 은행2동, 상대원3동, 야탑3동
• 철골조립식 : 은행1 · 2동, 상대원2동
• 지평식 : 성남동, 사송동, 서현1동
• 2001계획(실시 설계, 공사 이행)

(10) 우리시 주변 난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 신분당선 전철 신설 : 분당 ~ 강남 ~ 용산
• 고속화도로 개설 : 용인 영덕 ~ 서초 ~ 양재, 분당 ~ 관악 · 신림

10)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건설

(1) 자연형 하천 조성

• 4하천 L=6,600m(분당천, 운중천, 여수천, 상적천)
• 2001계획(운중천 시범구간 준공 455m)

(2)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 확대

• 위치 : 수정구 태평1동 7004(폐기물종합처리장 내, 50톤/일)
• 2001계획(사료화 시설 준공 및 위탁운영)

(3)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확립

• 지역청소대행 효율적 운영 •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 불연성 폐기물배출 전용 PP마대 제작 보급

(4)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 추진

• 공무원 청소책임제 담당자 지정 • 청소 조기순찰반 운영
• 뒷골목 청소 자원봉사단 구성 • 불법투기 명예감시단 위촉
•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확대
•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지급 및 인센티브 제공
• 뒷골목 청소 우수기관 시상 및 자율참여봉사자 사기앙양책

(5) 「성남의제 21」추진

• 민간추진협의회 운영, 시민환경헌장 및 시민실천강령 제정 선포
• 푸른학교 가꾸기, 탄천 살리기 시민실천운동 전개

(6) 환경민간단체 활동 지원

• 민간단체 환경보전사업 계획 공모를 통한 지원

(7) 도시생태현황도 구축 사업

(8) 자연친화적인 발효화장실 설치(남한산성1, 청계산3, 불곡산1, 영장산1)

(9)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 진화헬기 임차

•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1대, 물용량 480ℓ

(10)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

• 음식문화개선 민간자율협의회 구성 운영

- 모범 우수업소 지정 확대 및 인센티브 지원
- 식생활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운동 전개
- 음식물 안남기기 자율실천 확산 유도

11) 시민 휴식공간 확충

(1) 자원식물원 조성

- 위치 : 수정구 상적동 산1-1 일대(신구대 실습농장), 49,393㎡
- 지피 · 수생 · 고산 · 난대식물원, 유실수원, 상록수원, 활엽수원 등

(2) 은행 근린공원 조성(17,180㎡)

- 위치 : 중원구 은행2동 산 24-7번지

(3) 대원 근린공원 조성(1,133,510㎡)

- 위치 : 중원구 성남동, 중동, 하대원동, 갈현동, 여수동 일원

(4) 단대 근린공원 재정비(210,700㎡)

- 위치 : 수정구 단대동, 산성동 일원

(5) 영장산 반딧불이 축제 활성화

(6) 도시 특화사업

- 도심 속 소공원 조성
- 녹지 유지관리
- 녹지 조성
- 공원 내 주민 편익시설 보완
- 공원 내 전기, 기계 시설 보완

(7) 율동공원 민속광장 조성

(8) 율동공원 국화꽃 축제 민간주도 실시

(9) 쓰레기소각장의 시민휴식문화 공간 활용

- 소각장 견학, 운동 및 휴식시설 개방, 환경관련 사생대회 개최 등

12) 다함께 잘사는 복지시책 추진

(1) 노인복지시책 확대

- 경로당 운영비 등 50% 확대 지원
- 노인병 및 치매전문병원 유치
- 실버타운 · 노인 주간보호센터 건립 • 노인 여가시설 건립

(2)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 장애인 직업재활기금 지원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증축
- 「장애인 사랑방」 홈페이지 운영

13)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1) 여성활동 거점 마련

- 여성문화회관건립 – 시설준공, 비품배치 및 운영프로그램 마련, 개관
- 여성발전기금 30억 원 조성 •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21세기 여성포럼과 문화사업 추진 •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 「여성의 쉼터」 운영 • 여성 교양, 취미교육 운영
- 전업주부 부업정보센터 운영
- 직장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컴퓨터 교육

(3) 여성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

- 민간 · 가정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 정부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4) 요보호여성의 복지향상

- 성폭력 · 가정폭력 관련시설 운영 지원
- 저소득 모 · 부자가정 지원
- 화목하고 건전한 가정 만들기

14) 아동보호와 청소년 건전 육성

(1) 아동보호사업

- 결식학생 중식 제공
- 학교 급식시설 지원

(2)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3) 건전한 청소년 활동 지원

- 청소년 공부방 운영
-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토론회와 예절교육 운영
- 청소년 음악회 개최
-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 단속
- 청소년, 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

15) 기타 사회복지시책 추진

(1) 현충탑 이전 건립(중원구 여수동 산21번지 외 11필지)

- 탑높이 30m 이내, 광장 5,046㎡, 주차장 2,071㎡ 부속건물 2동

(2) 보훈 복지기금 10억 원 조성

(3) 서로 사랑나누기 운동 추진

- 대상 : 생활보호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부자세대, 노숙자 등

(4) 저소득 시민생활 안정 지원

-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지원 대폭 확대
- 저소득 근로자, 실직자 무료 합동결혼식

(5) 장묘문화 개선

- 화장장 시설 현대화
- 성남공설공원묘지 이전

16) 자원봉사센터 운영 생활화

(1) 자원봉사센터 민간운영

(2) 자원봉사센터의 선진역량 강화

- 자원봉사 전산시스템 구축 및 Net-Work 강화
- 자원봉사센터 인적자원의 전문능력 배양
- 자원봉사센터의 장비 확충

(3)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화, 전문화

- 전문자원봉사자 확충 및 소그룹 활성화
- 자원봉사자 교육교재 발간 • 자원 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

(4) 자원봉사 시민참여분위기 확산

- 자원봉사 대축제 개최
- 1직장 · 1봉사팀 결연맺기 운동, 김장김치 전달하기 운동 등

(5) 자원봉사자 교육홍보 강화

- 자원봉사 선도자 교육 및 자원봉사 소양교육
-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

(6)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

- 자원봉사활동 실비 지급, 자원봉사유공자 표창, 간담회 등

17) 시민보건 향상

(1) 시민 건강 증진

- 영유아 보건사업 • 모성 보건사업
- 국민건강증진 사업 • 정신보건사업
- 방문보건사업 • 재활보건사업
- 임산부 · 영유아 전문교육센터 운영
- 무료치과진료소 운영 • 비만학생 성인병 검진 사업

(2) 전염병 예방

- 예방접종 사업 • 성병 · 에이즈, 결핵관리 사업
- 방역소독 사업 • 전염병 검사 • 암 조기진단

18) 푸른 문화도시 건설

(1) 문화관광벨트 조성

- 남한산성 – 종합시장 – 모란 민속장 – 서현권역 – 판교권역
- 2001계획(남한산성 유원지, 모란시장 권역)

(2) 문화예술회관 건립(분당구 야탑동 산 164일원)

- 부지 131,543㎡, 연건평 31,716㎡(지하2층, 지상3층)
- 대극장 1,802석, 중극장 1,041석, 소극장 440석, 전시실
- 2001계획(터파기 및 대극장 기초공사 완료)

(3) 문화예술발전기금 25억 원 조성

(4) 성남 문화의 집 운영(구. 교육청사)

(5) 초림 문화의 집 조성 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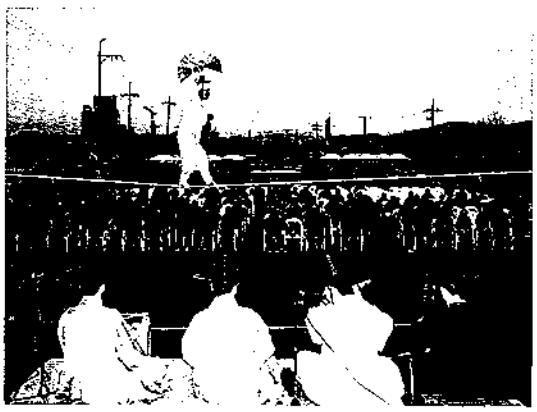
(6) 서현 문화의 집 조성 공사

(7) 전통문화 계승 발전

- 지역문화유적 지표 조사
- 천림산 봉수터 복원 공사

19) 시민문화 향수 기회 확대

(1) 지역문화 예술제 및 마을 축제 활성화



<사진 3-8 : 44> 모란 민속 5일장 축제

- 한여름 밤의 율동공원 축제
- 반딧불이 축제
- 마을단위 소규모 축제
- 공원별 테마 축제
- 예술 순회공연
- 가을맞이 페스티벌

(2) 모란 민속5일장 축제

- 세계디자인총회와 연계 실시하여 성남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

(3) 시민문화 축제

- 시민문화단체 주도 행사 진행

• 시민 대화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4) 제16회 성남문화예술제

• 시민의 일체감 조성과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푸른문화도시 활성화 붐 조성

20) 생활체육 육성

(1) 시민 레저스포츠 공간 생활화

• 제2종합운동장 건립
  -분당구 야탑동 486번지, 91,720㎡ : 지하4층, 지상8층)
  -2001계획(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체육회관 완공)
•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 건립
  -중원구 상대원1동 434-4번지외 5필지(5,250㎡ : 지하1층, 지상2층)
  -2001계획(공업지역 내 용도변경 : 산업시설 → 지원시설, 사업시행)

(2) 제28회 시민체육대회

(3) 전문체육 육성

• 성남시체육회 운영 지원
• 가맹경기단체 운영비 지원
• 체육특기학교 육성 지원
• 경기단체 대회출전 지원금
•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사진 3-8 : 45> 시민 체육대회

(4) 생활체육 활성화

• 생활체육 중심조직 중점 육성 •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
• 생활체육 행사 육성 지원 • 생활체육대회 출전

21) 교육여건 개선

(1) 장학금 지급

(2) 청내 야간대학 운영

(3) 시립중앙도서관(분당구 야탑동 산151-1번지 일원, 지하1층, 지상4층)

(4) 초, 중, 고교 신설

- 구미동 중, 고교 신설(교육청과 학교부지 재선정 협의)
- 사기막골 미니학교 건립(경기도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22) 시민본위의 열린시정 구현

(1) 시민의 시정참여 제고

- 옴부즈만제도 도입(시정참여와 책임행정 구현)
- 시민아이디어 공모제 운영
- 시정참여 포럼, 공청회, 세미나 등 적극 확대 추진

(2) 시민과의 대화 정예화

- 정례대화(매주 금)
- 수시대화(민원발생시, 면담요청시)
- 「열린시장실」 운영
- 「시민대화의 광장」 운영
- 인터넷 「시민과의 대화」 운영
- 생활현장 방문대화
- 시민 대토론회

(4) 시정홍보 다원화

- 시정 홍보책자 발간
-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 홍보
- 인터넷 동영상 방송제작 시정 홍보
- 가로기(街路旗)이용 홍보물 제작

23) 시민만족을 통한 친절행정 구현

(1) 보다 친절한 서비스 향상

- 친절전문교육업체 위탁교육
- 공직자 고객만족 서비스 자세 비노출 평가
- 전문기관을 통한 전화친절도 외부평가제 실시
- 「사이버 친절(Green) & 불친절(Yellow) 접수창구」 운영
- 「사이버 민원사무처리 서비스 만족도」 설문 실시

(2) 책임행정 구현

-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설치 운영
-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사전 감사
- 인터넷「시장에게 바란다」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3)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

- 생활민원 기동봉사반
- 민, 관 합동 이동민원실 운영
- 아파트관리비용 경감대책 및 이동 열린 행정기구 운영

24)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

(1)「일하는 방식」개선 적극추진

- 결재단계 축소, 전자문서유통 활성화, 다양한 결재방식 운영
- 회의시간 단축, 집합회의 횟수 및 규모축소, 회의비용 명시
- ON-LINE 보고체계 강화, 보고의 SOS (단순, 신속, 간소)

(2) 행정 경영쇄신을 위한 분위기 확산

- 행정 경영쇄신 발표회
- 우수발표자 시상금 지급 및 발표 모음집 발간 배부

(3) 행정의 생산성 제고

- 목표관리제 운영
- 시정시책「시민평가제」실시
- 주민자치센터 운영
- 정책아카데미 운영

(4) 공직 내부의 결속과 사기 진작

- 직원 휴양소 운영
- 공무원「삶의 질」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
- 계약직 · 대민서비스 우수공무원 우대

25) 자치행정의 역량 증대

(1) 시정의 정책형성기능 강화

- 성남발전연구소 운영
- 시정발전위원회 운영(3분과 위원회)
- 학 · 관 자매 결연
- 일일명예교사제 운영
- 소송업무 연찬 및 행정절차 운영 법무교육 분석

(2) 국내 · 국제 간 교류 활성화

- 국내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확대(1도시 → 2~3도시)
- 국제 교류도시 확대(3국 3도시 → 5국 6도시)

(3) 복된 화합분위기 조성

- 시민화합협의회 운영 활성화
- 1부서 1가정 가족만들기
- 수정 · 중원구와 분당구 자매결연 동 간 교류 활성화

26)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체제 구축

(1) 시장직할 유관기관 합동재난관리단 운영

- 안전대책위원회 역할 및 기능 강화
- 시청 무선국 설치 운영

(2) 안전관리 지도 · 점검 실시

- 재난위험 시설 · 지역
- 중점관리대상 시설 · 지역
- 월별 중점점검계획 및 필요시 점검대상을 선정 수시점검 실시
- 재난관리부서 주관으로 유지
- 관리부서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

(3)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와 화생방 장비 보급

(4) 소방시설 전면 진단 보수

27)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대책

(1) 재난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2) 소규모 민간시설물 무료 안전점검 서비스 운영

(3) 저소득층 밀집지역 전기시설 무료점검 및 보수

(4) 공동주택 하자보수 및 안전관리

28) 분야별 사고예방으로 시민생활 안전 확보

(1) 민방위대 조직 운영 생활화
(2) 재난재해구조 자원봉사단 운영
(3) 시민 방범활동 적극 지원

29) 「친절알림방」 설치 운영

(1) 개요

• 친절 우수 부서 선정 • 친절 그린카드 추천 공무원 알림방 게시

(2) 추진계획

• 「친절알림방」 게첨 장소 : 63개소
• 매월 친절 우수부서 및 공무원 선정 변경 게시
• 인센티브 부여 : 인사우대 및 포상휴가
• 친절우수부서 시상 및 친절공무원 간담회

30) 우수상품 세계디자인공모전 출품

(1) 개요

• 개발된 상품 세계적 공모전 출품
  - 미국 IDEA, 독일 국제 IF 제품디자인 공모전,
• 스위스 국제디자인 공모전 등

(2) 추진계획

• 지원 계획 수립 및 공고 • 희망업체(상품)신청 접수 및 심사 선정
• 디자인 개발 및 세계 디자인 공모전 출품

31) "장애인사랑방" 홈페이지 운영

(1) 개요

• 성남시 장애인 홈페이지 개설 운영

(2) 추진계획

- 장애인 홈페이지 개설에 따른 의견 수렴
- 2001년 6월 : 용역발주 및 설치 • 홈페이지 개설 운영

32) 안전한 등교길 도로환경 조성

(1) 개요

- 사업내용 : 초등학교 앞 노란색포장, 횡단보도 앞 적색 포장
- 사업대상지 : 초등학교 주변도로 54개소, 급커브 급경사지 등

(2) 추진계획

- 1차 시행계획 : 시범 대상지 5개소 설정
  -2001년 1월 : 사업 대상지 조사
  -2001년 2월 : 설계 -2002년 3월~5월 : 공사시행
- 2차 시행 : 시범결과에 따라 확대 시행

33) 분당판교 벤처밸리 개발사업 추진 지원

(1) 추진경위

- '97. 11. 20~ : 토지형질변경 제한(성남시)
- '98. 5. 1 : 성남도시기본계획 건교부 승인(개발예정 용지)
- '99. 2. 5 ~ 12. 18 :「판교지구 개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용역 완료
- '99. 3. 26 ~ 2000. 12. 31 : 건축허가 제한(성남시)

(2) 기본 구상 개요

- 위 치 : 분당구 판교, 삼평, 하산운동, 수정구 사송동 일원
- 면 적 : 9,315천㎡(281만 평)
- 사업기간 : 1998 ~ 2007년
- 개발방향
  - 자족도시 기능 확충
  - 저밀도 주거용지 조성으로 친환경적 도시환경 창출

• 문 제 점 :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지연
• 대 책
  – 판교지역의 개발은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선계획 후개발」체제의 계획적 사업 추진
  – 저밀도 주거단지 및 첨단지식기반 산업의 유치로 친환경적인 자족도시로 개발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승인에 따른 행정 협조 및 벤처산업 단지 개발 적극 검토 · 지원

34)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추진

(1) 개요

• 규제근거 : 군용항공기지법
• 규제대상(면적 – 83.1㎢, 가구 – 194천 가구)
• 군용항공기지법상 건축허용 고도제한

(2) 추진상황

• 1998. 11. 21 – 지방자치 정책협의회의 개최
• 1998. 11. 24 –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에 따른 국회 청원 건의
• 1998. 12. 1 –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제도 개선 건의
• 1999. 4. 7 – 고도제한 완화 건의문 제출
• 1999. 4. 20 – 군용항공기지법 개정(고도제한 완화)건의문 제출
• 1999. 4. 29 – 고도제한 완화 건의 및 현안 설명
• 1999. 5. 29 –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제료 제출 및 설명
• 1999. 9. 16 – 성남 군용항공기 고도제한에 따른 시민동향 보고
• 1999. 9. 29 –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정책토론회의 개최
• 1999. 10. 29 – 성남시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결성
• 1999. 11. 6 – 고도제한 완화 국회 청원 요청
• 1999. 12. 31 – 항공전문 자문위원회(고도제한) 위촉

- 2000. 2. 29 – 성남시 항공자문회의 개최
- 2000. 3. 21 – 고도제한 관련 군부대 설명회 개최
- 2000. 6. 23 – 성남시 고도제한 구역의 효율적 이용방안 용역
- 2000. 8. 10 – 자문위원회 개최 및 용역 중간 보고
- 2000. 11. 4 – 고도제한 공역이용 효율화에 따른 학술세미나 개최
- 2000. 11. 23 – 성남시 고도제한구역의 효율적 이용방안 결과보고서 제출
- 2000. 12. 12 – 고도제한 완화 개정 요구

(3) 향후 추진계획

- 고도제한 완화 지속적 추진 및 서울공항과 병행 장기 발전 방향 · 설정 및 방법 모색

35) 수정 · 중원구 도시재개발사업 추진

(1) 개요

- 위치 : 수정, 중원구 245ha
- 사업량 : 성남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 용역 1식
- 용역기간 : 2000. 4. 11 ~ 2001. 10. 2(540일간), 현공정 : 86.1%

(2) 향후 추진계획

- 환교개발과 연계한 재개발 추진을 이주용지 해소 및 도시균형 발전 도모
- 성남동 개발제한구역 내 이주용지 확보

36) 탄천상류 수질 오염방지 대책

지점 \ 연도별	1997	1998	1999	2000.4	비 고
용인탄천 (벽산아파트)	24.9	28.2	29.0	29.6	BOD
탄천하류 (위생처리장)	4.4	5.1	7.0	14.3	BOD

(1) 추진상황

- '95. 11. 11 – 구미동 소재 하수처리시설 가동 중단
- '96. 12. 25 – 탄천수계 하수 통합(105,000톤/일)처리 협약
- '99. 11. 20 – 탄천수계 하수 통합처리 변경협약을 용인시 및 한국토지공사에 통보
- 수지 1. 2지구 하수처리를 위한 성남하수처리장 40,000톤 증설및 차집관거 설치 추진

(2) 문제점

- 용인시, 한국토지공사와 당초 협약된 탄천수계 하수 통합처리
- 협약서 변경 지연으로 탄천수질 오염가중
- 용인시 하수처리 기본계획수립 지연으로 장기간 탄천 수질 오염

(3) 대책 및 건의

- 용인시,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하여 37,500톤/일은 성남시에서 통합처리하고 67,500톤/일은 용인시 관내에서 설치하도록 지속 협의
- 67,500톤/일은 2003 ~ 2005년 이후 착공 예정으로 장기간 소요되어 탄천오염이 가중되므로 빠른 시일 내 시공하도록 건의

37) 성남시 주변 난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1) 용인등 주변지역 개발현황

- 공공개발(토공 · 주공) : 유입예상인구 60만 명
- 민간개발(건설업체) : 유입예상인구 20만 명

(2) 난개발의 문제점

- 분당 ~ 수서 간 고속화도로 교통체증 심화
- 학교시설 미비로 분당지역 학교교육환경 악화
- 성남시의 주거환경 및 탄천수질오염 악화

(3) 교통난 해소대책

- 2000. 4. 7 건설교통부 광역교통망 계획발표
- 수도권 전철 조기건설
  - 분당선 연장(선릉 ~ 왕십리, 오리 ~ 죽전 ~ 기흥 ~ 수원)
  - 신분당선 신설(분당 ~ 강남 ~ 용산)
- 수도권 남부지역 광역도로망 조기추진
  - 용인 영덕 ~ 서초 ~ 양재 간 고속화도로 조기 완공
  - 분당 ~ 관악 신림 간 고속화도로 전환 조기 완공
- 광역교통대책협의회 구성 · 운영

※2001년의 시정 성과 수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평가	최우수(환경부)
국토공원화 사업 평가	최우수(행정자치부)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	최우수(행정자치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평가	우 수(행정자치부)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운동 추진 평가	우 수(행정자치부)
지방상수도 공기업 경영 평가	우 수(행정자치부)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평가	우 수(건설교통부)
공동주택 관리업무 평가	최우수(경기도)
옥외광고업무 평가	최우수(경기도)
경기도 자원봉사대회	최우수(경기도)
도로정비 평가	최우수(경기도)
여성정책 중앙평가	최우수(경기도)
공공부문 경영혁신 평가	우 수(경기도)
공공근로사업 평가	우 수(경기도)
민원시책 추진 평가	우 수(경기도)
산림녹지시책 종합 평가	우 수(경기도)
환경행정 평가	장 려(경기도)
지방세정운영 종합 평가	노력상(경기도)

3. 2002년 시정방향 및 성과

첨단지식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디자인 특화도시 정착 확산 추진, 자연친화적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생산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구축과 시민복지시책 확대, 특성화된 지역문화·예술·체육 진흥, 고품격 행정서비스로 시민만족 극대화, 재해와 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 건설을 역점시책으로 추진계획을 세운 2002년의 주요업무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진 3-8 : 46> 제3대 민선 이대엽 시장 취임식(2002.7.2)

1)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시책 추진

(1) 중소기업 육성 지원

- 중소기업육성 자금조성 지원
- 중소기업 특례보증, 중소기업 기술지도 • 특허 등 출원지원
-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지원 및 공동협력 사업
- 중소기업 기술지도

(2) 마케팅 지원

-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어울리오」육성
- 우수상품의 판로 개척과 중소벤처기업상품박람회

• 우수공예품 개발지원 • 제2회 성남시 전통민속공예품전 개최

2) 실업대책 추진으로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1)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 벤처기업 창업 지원, 해외 판로 개척 지원
• 노사화합분위기 장착
•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2002계획 : 사업시행자 공모 및 선정)
• 소비자와 함께 하는 물가안정
  – 물가안정정보센터 운영, 사이버 물가모니터 운용,
• 원별 물가조사 및 인터넷 공포 등

(2) 취업 알선 및 직업훈련

• 취업정보센터, 일일취업센터 및 무료직업 소개소
• 취업박람회 개최, 고학력 실업 해소 산 · 학 · 관 간담회
• 고용촉진 훈련사업, 16개 훈련기관 14개 직종

(3) 일자리 창출

•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사랑의 보금자리 등)
• 공공투자사업의 조기집행, 관급건설공사장 실직자 30% 고용운동 추진
• 공공기관(시설)유치 및 시설건립
  – 국립과학관, 영상영화단지 유치
  – 야탑벤처밸리 · 분당벤처타운 건립, 민자아파트형공장 건립지원
• 소자본창업 지원, 청년인턴제 운영, 외국인 투자유치, 창업보육센터 육성지원

(4) 실직자 생활안정 지원

• 실직자 사랑의 무료급식소 운영(7개소), 무료진료(3개 보건소)

3) 지식·정보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기반구축

(1) 벤처벨트 구축으로 벤처산업 육성 및 유치

- 벤처벨트 구축(성남벤처빌딩 ~ 분당테크노파크 ~ 야탑벤처밸리 ~ 분당벤처타운 ~ KDC임대벤처빌딩 ~ 판교벤처밸리)
- 벤처 집적지로서의 입지여건이 최적인 이점을 활용 벤처기업 유치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세제 혜택 등 지원)
- 벤처산업 육성
  - –성남벤처빌딩(22개 업체) : 벤처기업 종합지원단 운영 컨설팅지원
  - –KDC임대벤처빌딩(15개 업체) : 성남산업진흥재단 운영

(2) 벤처타운 조성 및 민자아파트형공장 건립 지원

- 야탑벤처밸리(전자부품연구원) 조성
  - –사업개요 : 연구관련시설 19,834㎡, 창업보육센터 4,958㎡
  - –2002계획 : 건설공사 계약 및 착공
- 분당벤처타운 조성
  - –사업개요 : SK컨소시엄, 벤처집적시설 지정, 1,000개 업체 입주 예정
  - –2002계획 : 공사 착공 및 진행
- 민자아파트형공장 건립 지원

(3)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 운영

- 중소 첨단기업 육성의 중추적 역할 수행

(4) 창업보육센터 등 운영 지원

- 창업보육센터, 창업동아리, 고등학교 발명부 육성지원

4) 국제통상 활성화

(1) 인터넷무역지원센터 운영(무역상담, 무역지원, 정보지원팀),무역 전문인력 양성

(2) 해외시장 마케팅 사업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 외자유치상담회 및 워크샵 개최
-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3) KOTRA 지사화 사업 지원

- KOTRA 지사화 사업 신청업체에 대해 경비 지원

(4) 수출상품규격 CE, UL 등 인증 지원(20개 업체)

5) 생활정보 공유화 정착

(1) 시민 정보화교육 및 정보화 이벤트행사 확대 실시

- 정보화교육(대상 : 시민, 주부, 청소년, 저소득층)
  -청소년 소프트웨어기술교육장 운영
- 정보화이벤트 행사
  -인터넷검색대회, 사이버문화축제, 홈페이지경진대회 등

(2) 생활 · 행정 · 산업 정보화 구축

- 도시생활정보, 건축행정(AIS)정보, 행정종합정보, 자원봉사정보, 문화예술정보시스템 운영
- 주민 1가구 E-mail 보급(매년 5만 가구씩 연차보급)
- 중소기업 홈페이지 운영(생산품 경쟁력 강화)
- 수정, 중원, 분당, 중앙문화정보센터의 전자도서관 활용
- 고속 단일통신회선 다중화장비(MUX) 설치(수정, 분당 34개동)
- 휴대폰 적외선 지불시스템운영(휴대폰, 신용카드 겸용)

6) 도시환경의 디자인화

(1) 도시환경시설물 디자인

- 공공기관 외벽, 가로등, 가로휴지통, 교량, 택시 등

• 횡단보도 대기보행자 헬핑 쉐어 설치(수정, 중원구 지역 8개소)

(2) 디자인거리 조성

• 성남대로, 복정대학로, 새마을연수원 입구
• 모자이크 디자인거리 조성(수정, 중원구 지역 옹벽과 계단)

(3) 도시경관 가이드라인 제시

• 도심색채, 공원,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작 배부

7) 시민 생활속에 함께하는 디자인 도시 경영

(1) 디자인전시회, 시민대토론회 개최
(2) 디자인교육 확대

• 계절디자인아카데미, 생활디자인 교양강좌

(3) 시민디자인 센서스 실시(디자인 관련 선별 조사)

• 디자인마인드, 디자인라이프싸이클, 도시색채 · 간판 · 시설물 등

(4) 지하철의 디자인열차 운행

• 지하철 8호선, 분당선, 전동차 1편성 3량 내외부 디자인

8) 디자인인프라 구축

(1) 디자인의 메카인 코리아디자인센터 디자인 중심지역으로 육성

• 디자인정보센터, 전시관, 체험관, 청소년창작센터, 디자인 아카데미 등 활용
• KDC 임대벤처빌딩, 경기임대벤처관, 중앙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원, 디자인관련 벤처기업 유치 등

(2) 디자인전시장 건립

9) 디자인산업 육성지원

(1)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제품, 포장, 시각디자인 등)
(2) 관내대학과 공동 디자인 시제품개발 지원
(3) 전국단위의 DSC상 시상 및 디자이너 선정
(4) 디자인산업진흥협의회 운영

10) 시가지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1) 분당판교지구 택지개발 사업

- 사업개요 : 판교지역 9,315천㎡(282만 평), 수용인구 59천 명
  저밀도 친환경도시, 선교통 후입주 원칙
- 2002계획(택지개발계획 착수)

(2) 수정, 중원구 도시재개발사업 추진

- 사업개요 : 20개 소(전면철거 6개 소, 수복재개발 14개 소)
- 2002계획
  -기본계획수립 공고, 재개발구역지정 용역 발주 및 신청, 이주단지 조성 추진, 재원 확보

(3)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 완화지역(83.1㎢, 194천 가구) • 완화내용 : 12m → 45m

(4) 복정동 토지구획정리 사업

- 사업개요 : 구획정리 740필지(432,617㎡, 복정대학로 1,400m 조성)
- 2002계획(주택용지 보상 227,617㎡, 복정대학로 조성 660m)

(5) 2002 성남시 도시개발공모전 개최

- 사업개요 : 도시개발계획
- 2002계획(공모전 신청 · 접수 · 평가, 전시회, 작품집 발간)

(6) 2021 성남도시기본계획 수립

(7) 지구단위계획 수립

• 분당지구 상업지역 단위계획 재정비 • 고등동 지구단위계획 용역

(8)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 사업개요 : 20호 이상 취락지역 • 2002계획(도시계획변경 용역)

(9) 은행시영아파트 건립(23평 432세대)

• 사업개요 : 23평형 432세대 • 2002계획(아파트골조공사)

(10)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시 관내 주거지역 • 2002계획(용도지역 세분 용역)

11) 사통팔달의 도로망확충사업

(1) 도로확장사업(3개구간)

• 새마을연수원 진입로 확장
  -L=1,520m, B=20m
  -2002계획(디자인거리 조성공사, 도로포장, 준공)
• 동원동 ~ 대장동 간 확장공사
  -L=3,618m(도로확장 3,202m, 터널설치 416m, B=12m)
  -2002계획(토공 및 구조물공사 추진)
• 남한산성순환도로 공단구간 확장 공사
  -L=850m, B=15 20m(2 ~ 3차선 → 4차선)
  -2002계획(공사완료)

(2) 도로개설공사(2개구간)

• 공원로 ~ 우남로 도로개설공사
  -L=1,828m(도로개설 1,391m, 터널설치 437m) B=17 ~ 19m
  -2002계획(용지보상, 토공 및 구조물공사)

- 야탑 ~ 서현동 도로개설공사
  - -L=3,230m(도로개설 2,318m, 터널 912m), B=27 ~ 40m
  - -2002 계획 : 1차 공사(야탑터널) 추진
- 이메역사 건립
  - -대합실 L=205m A=3,292㎡, 출입구 4개 소, 환기구 3개 소
  - -2002계획(정차구조물 시공)

12)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 조성

(1) 사송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533면)

- 2002 계획(보상완료, 공사착공)

(2) 성남4통 대형주차장 조성(622면)

- 2002 계획(공사완료)

(3) 수진역 환승주차장(500면)

- 2002 계획(실시설계 및 공사착공)

(4) 공영주차장 조성(8개소 1,245면)

- 사업개요 : 수정구(5개소), 중원구(2개소), 분당구(1개소)
- 2002 계획(실시 설계 및 공사착공)

(5)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727면)

- 2002 계획(공사착공 및 1개소 준공)

13) 선진 교통문화 정착

(1) 대중 교통수단 개선사업

- 대중교통체계 개선(94개 노선, 1,430대)
- 택시서비스 개선사업(운전자 서비스교육)
-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한 자전거도로 확충
  - -사업개요 : 90개 노선 278km

-2002 계획(4개 노선 13.6km)

(2) 올바른 교통문화 만들기 추진

-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확대 지정
- 버스전용차로제 실시(복정사거리 ~ 모란4.6km)
- 교통정책 참여기능 활성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 -교통모니터제도 운영
- 선진교통문화정착 10대 중점 준수, 운동 및 중점 단속
- 어린이 자전거면허시험장 운영 • 교통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3) 우리시 주변 난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 신분당선 신설(백궁 ~ 양재)
- 고속화도로 개설(용인 영덕 ~ 판교 ~ 양재, 분당 ~ 신림)
- 중장기 도로망 정비 계획 용역
  -사업개요 : 도로 중장기 계획 수립
  -2002 계획(용역 발주 및 추진)

14)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건설

(1) 아름다운 도시 조성

- 보행자 전용도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 공원관리 103개소(깨끗한 골목길 만들기 대청소의 날 운영)
- 아름다운 간판 선정 및 전시(응모, 선정, 순회전시)
- 음식문화 서비스 개선(7,771개소 자율참여 및 인센티브 부여)

(2) 도시녹화사업

- 도시녹화사업(11개소)
- 도시경관림 조성과 푸른 숲 가꾸기(37ha)
- 세계 산의 해 선포기념 산림문화축제
  -청계산(철쭉축제), 남한산성(단풍축제)

(3) 시민 휴식공간 확충사업

- 자원식물원 조성
  - -사업개요 : 상적동 대왕저수지 주변, 지피 · 수생 · 난대식물원 등
  - -2002 계획(토지 매수)
- 백현유원지 개발사업(민자 유치)
  - -사업개요 : 정자동1, 3-1번지(2필지), 210,413㎡(63,649평)
  - -2002 계획(사업시행자 공모 및 선정)
- 단대근린공원 재정비(마을마당 체육시설)
- 대원근린공원 조성
  - - 사업개요 : 성남 · 중동 · 여수동 일원(1,335,510㎡), 벽천분수광장 등
  - -2002 계획(사업착공)
- 양지공원 조성
  - -사업개요 : 양지동 일원(390,974㎡), 청소년 체험학습장 등
  - -2002 계획(실시설계, 사업착공)
- 은행동 수목관찰원 확장(18,760㎡) : 수목, 야생화 식재
- 등산로 휴게공간 조성(편익시설 및 등산이정표 정비 등)
- 은행2동 공공시설 정비형 공원 조성(22필지 7,104㎡)
- 율동, 중앙공원 순회 무료셔틀버스 운행

(4) 깨끗한 탄천가꾸기 사업추진

- 탄천수질관리팀 및 탄천유역 환경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 자연형하천 조성, 탄천고정보 수문설치
- 탄천고수부지 테마공간 조성
- 자정능력 증진을 위한 생태환경 복원
- 탄천수계 유지유량 확보방안 타당성 연구용역사업 추진

(5)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

- 분당 제2 배수지 송수관부설 공사(관부설 4,370m)
- 노후 상수도관 교체(수정 · 중원구 전 지역, 연장 L=11km)
- 농촌동 자연취락지역 상수도 확충(연장 L=4.95km)

- 사송동 판교IC 간 배수관 부설공사(연장 L=1.50km)
- 방류수 소독설비 설치, 하수처리장 탈취시설 개선
- 절수운동,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정수장 체험홍보관 운영

15) 자연친화적인 환경도시 조성

(1) 환경생태도시 조성

- 도시생태현황도 구축 사업
- 「성남의제 21」추진 : 청소년의제, 성남반딧불이축제 등
- 민간환경단체 활동지원 및 환경체험학교 운영
- 대기오염측정소 및 전광판 확충
- 천연가스(CNG) 시내버스 보급사업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확대운영
- 공단 내 사업장 생활폐기물 종량제 시행
- 100톤 유동상소각장 보완공사(하수슬러지 반입소각처리)

16) 노인복지시책 확대

(1) 노인복지시설 건립

- 경로당 건립
- 상대원 1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 실버타운 건립 유치(388세대)

(2) 노인 전문병원 조기 완공(서울대병원, 연강병원)

(3) 노인복지사업

- 경로당 운영비 등 확대 지원
- 직업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 취업알선창구, 실버대학 운영
-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한 효자효부 표창

17)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활동거점 마련

(1) 여성사회활동 지원 등 여성 복지향상

- 여성복지회관의 프로그램 다양화 및 전문화

- 여성능력개발교육, 부모교육
-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30% 확대, 자매도시 여성단체 교류
- 여성발전기금 지원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 여성소식지 발간, 성남여성발전사 발간

(2) 여성보호

- 요보호 여성의 쉼터, 성폭력 ·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 저소득 모 · 부자가정 지원

18) 장애인 복지시책

(1)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2)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설치
(3) 국 · 공립 보육시설 장애아반 운영
(4) 재가장애인 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5) 장애인복지기금 5억 원 조성, 직업재활사업 운영
(6) 장애인 PC교육 및 「장애인 사랑방」 홈페이지 구축 운영

19) 아동보호사업 및 건전한 청소년 활동 지원


<사진 3-8 : 47> 어린이날 행사

(1) 아동 · 청소년 보호

- 제80회 어린이날 행사
- 결식학생 중식제공 및 학교 급식시설비 지원
- 소년소녀가정 보호(생활안정비, 자립정착금 지원)
- 청소년 성교육, 저소득층자녀 여름캠프 실시, 청소년 쉼터운영,
- 청소년야간학교지원, 보육정보센터 운영
- 민간 · 가정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2) 건전한 청소년 활동 지원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다양화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운영

(3) 청소년 문화공간 확대

- 중원 청소년문화센터, 서현 청소년문화센터, 백궁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20) 저소득층 세대 지원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

- 생계비, 의료지원, 자활사업
-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직업훈련

(2)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3)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지원

(4) 월동기 생활안정 종합대책 수립 추진

(5) 근로자 임대아파트 재건축

(6)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 자원봉사은행제 운영, 전문자원봉사단 운영
- 우수자원봉사프로그램 공모, 소식지, 우수사례집 발간
- 자원봉사대축제, 박람회개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및 표창

21) 보훈복지사업 등 추진

(1) 현충탑 이전 건립(현충탑, 광장, 주차장, 부속건물)

  -2002 계획(부지재선정, 현상공모, 실시설계)

(2) 보훈복지기금 조성

(3) 성남시립공설공원묘지 지속이전

(4) 현대화된 화장장시설 운영

22) 시민 건강증진사업



<사진 3-8 : 48> 생활체육

(1) 보건사업

- 영유아보건(예방접종), 비만학생 성인병 검진, 모성보건
- 국민건강증진, 정신보건사업
- 재활보건사업
- 임산부 및 영유아 전문교육센터, 무료치과진료소 운영
-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보건사업

(2) 전염병 관리사업

- 예방접종사업, 전염병검사, 암조기진단, 성병 및 에이즈, 결핵
- 관리사업, 방역소독사업

(3) 방문보건사업

- 대상 : 독거노인, 거동불능 및 불편자, 만성질환자, 장애인시설 보호자
- 사업 : 방문(재활)간호, 병원진료, 재활용구대여, 야외나들이, 이동목욕, 복지서비스연계 추진

(4) 노인치매관리사업 : 상담실, 예방프로그램, 방문간호

23) 문화 · 예술 · 체육시설의 건립, 활동의 장 마련

(1) 문화 · 예술시설의 건립

- 문화예술회관 건립(분당구 야탑동)
  -사업개요 : 부지 131,341㎡, 연건평 31,716㎡(지하2층, 지상3)
  -2002년 계획(터파기, 1층 골조 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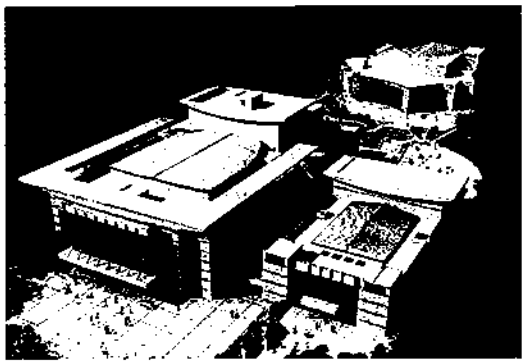
•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분당구 서현2동)
  -2002년 계획(공사착공)
• 서현 문화의집 건립
• 소규모 공연무대 개설

(2) 중앙문화정보센터 · 여성문화회관 운영

24) 문화예술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영(25억 원)

25) 문화의 집 운영

(1) 문화의 집 운영(44개 소)
• 성남 · 초림 · 청소년 문화의 집,
  동 문화의 집



〈사진 3-8 : 49〉 성남문화예술의전당 조감도

26) 문화 · 관광산업 육성

(1) 문화관광벨트 조성(5개권역)
• 2002계획(남한산성 유원지)

(2) 1일 관광코스 개발운영
• 공원 · 유원지, 역사관 견학, 쇼핑과 로데오거리, 문화 · 민속 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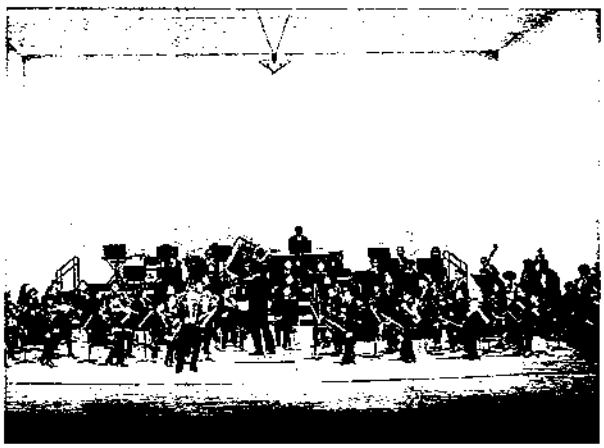
(3) 뮤지컬 전용극장 건립 유치(수내동, 연건평 6,564㎡)

(4) 전천후 에어돔구장 설치(구미동, 연건평 1,600㎡)
• 2002 계획(도시계획 변경승인, 설계, 착공)

27) 지역문화예술제 및 전통문화계승 등 문화예술 진흥

(1) 시립교향악단 창단

(2) 문화예술제 및 특성화된 마을축제 활성화
• 모란민속5일장축제, 시민문화축제, 제17회 성남문화예술제



<사진 3-8 : 50> 성남시립 교향악단

• 구별 축제, 공원별 테마축제, 순회공연
• 세계전통민속예술제
• 전통민속예술 계승

(3) 성남의 얼찾기 추진

• 향토사료관 운영(중앙문화정보센터)
• 성남여성발전사(여성복지과) 발간
• 행정기구변천사(총무과) 발간
• 문화유산 발굴보전 및 향토문화보급(문화체육과)
• 성남시사 편찬(2002 계획 : 편집위원회 구성, 자료수집, 집필)

28) 시민 레저스포츠 공간 활성화 및 전문 생활체육 육성

(1) 생활체육 중심의 제2종합운동장 운영
(2) 성남종합운동장 월드컵축구 준비캠프 운영
(3) 제29회 시민체육대회 (4) 전문체육육성
(5) 생활체육 활성화

29) 시민의 시정참여 제고 및 대화 정예화

(1) 옴브즈만제, 시민아이디어 공모제, NGO 시정참여, 정책토론회 등
(2) 열린시장실 운영 : 시장에게 바란다, 대화의 광장, 현장 방문 대화

30) 책임행정 구현 및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

(1) 책임행정 구현

• 시책평가 NGO 참여 • 민원부조리신고센터 운영
• 시민공사감독관제 운영, 부실공사예방 사전감사
• 까치도우미 운영

(2)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

• 생활민원기동봉사반, 아파트관리비용 경감기구, 전원종합관찰제

운영

-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 활성화

31) 자치행정의 역량 증대

(1)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

- 프로그램의 다양화 전문화,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 동청사 신 · 증축(복정, 성남, 상대원1동)
- 본청 실 · 과와 함께하는 동정 운영, 홈페이지 운영

32) 「일하는 방식」개선 및 행정경영 쇄신

(1) ISO9001 · 1400 운영, 목표관리제(4급이상), 공공부문 경영혁신과 제발굴

(2) 탄천수질관리 · 세원발굴팀 Task Force 운영, 차세대간부회의, 인터넷전자입찰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 근무관리 자동시스템 도입

(3)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33) 시정의 정책형성기능 강화

(1) 성남발전연구소 운영

(2) 시정발전위원회 운영

(3) 산 · 학 · 관 네트워크화

- 학 · 관 자매결연대학과 공동관심사업, 연구협력사업 추진

34) 국내 · 국제 간 교류 활성화

(1) 국내 · 국제 교류도시확대 및 공무원 파견 연수

- 3개국 3도시 5개국 6도시
- 공무원 해외파견 연수, 강원도 홍천군 자매결연 사업

(2) 시민화합협의회 단체 간 민간교류

35) 공무원 전문화와 사기진작

(1) 공무원 정보화능력평가제, 청내야간대학, 정책아카데미 운영
(2) 내실있는 공무원 능력개발 (3) 가정의 날, 연가, 취미모임 활성화
(4) 1부서 1가정 가족만들기, 일일명예교사제 참여

36)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체제 구축

(1) 재난종합상황실 및 유관기관 합동재난관리단 운영

• 재해 사전대비 점검반, 긴급구조본부 및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2) 방재기술 과학화에 따른 영상시스템 도입

• 기상 및 재해지역 신속히 파악 대처

37)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대책

(1) 안전점검 강화


<사진 3-8:51> 수해 복구

• 재난위험시설, 중점관리대상
• 저소득층 · 밀집지역 · 공동주택 안전점검
• 소방시설 전면 진단보수,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전산입력 관리

(2) 재난 안전의식 확산과 주민안전 대책

•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화생방방호장비 보급
• 시민안전신고센터 운영, 재난예방 홍보
•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가스안전 순회교육
• 제설 · 재난재해 등 월동기종합대책, 화생발방호대책 수립
•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

38) 분야별 사고예방으로 시민생활 안전 확보

(1) 민방위대 조직운영 활성화

- 실효성 있는 민방위대 조직운영
- 직장민방위대 운영체제 강화
- 민방위교육 개선(생활권 단위교육, 토일 야간교실, 위탁교육)

(2) 시민단체 참여활동 및 시민 방범활동 활성화 지원

- 재난재해구조 자원봉사단 운영, 주민신고체계 구축
- 자율방범대 지원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생활민방위 교실 운영

(3) 소화전 확대설치,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운영

(4) 부정불량식품근절 식품제조 · 판매업소 지도점검

(5) 전염병 · 식중독예방 감시체제 구축

-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
- 질병정보 모니터방 지정 운영
-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체계 구축

39) 도시환경 디자인 개선 사업

(1) 개요

- 성남시 디자인특화거리 조성사업
- 모자이크 공간(디자인 거리)시범 적용 설치
- 횡단보도 대기 보행자 Helping Chair 설치

구 분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모자이크 공간 시범적용	횡단보도 대기 보행자Helping Chair설치
위 치	성남대로 15.668㎞	옹벽 및 계단	수정 및 중원지역 주요교차로 횡단보도
사업량	1개소	20개소	8개소
사업기간	2001.10~2004.12	2002. 3 ~ 4	2002. 4
추진방법	특화거리 조성 용역	자체사업 추진	자체사업 추진

(3) 기대효과

- 도시환경 디자인을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디자인 특화도시로서의 성남의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
- 시설물의 디자인 시스템화로 관리 및 예산의 효율적 절감

40) 환경친화적 자연생태 보존 사업

(1) 개요

- 대상 : 탄천 등 지방2급하천 8개소 46.870km
- 사업량 : 어도 35개소, 날개수제 16개소, 어류서식처 18개소

구 분	1단계 (어도 및 수제설치)	2단계 (어도, 수제, 서식처 설치)
위 치	탄천과 분당천	여수천 등 8개 하천
사업량	– 어도설치 : 4개 소 – 수제설치 : 2개 소	–어도 설치 : 31개 소 –수제 설치 : 14개 소 –서식처 설치 : 18개 소
사업기간	2002. 3 ~ 12	2003. 3 ~ 2005. 12
추진방법	국립환경연구원과 공동추진	자체사업 추진

(3) 기대 효과

- 낙차공, 고정보에 자연형 어도 시범설치와 수제부에 어류산란처 서식처조성, 갈수기시 물고기 피난처 확보



<사진 3-8 : 52> 정보화 교육

41) 시민 1가구 E-mail 정보 생활화

(1) 개요

- 추진목표 : 300,000가구
- 메일서버도입 : 2002. 1월

(2) 추진계획

- 시 홈페이지 E-mail 등록 안내

• 메일계정 무료 보급　　• 메일활용 교육실시

(3) 기대 효과

• 공무원과 시민의 양방향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주민 의견수렴과 민원상담으로 대민 신뢰도 제고

42) 탄천 둔치 계절별 테마공원화

(1) 개요

• 계절별 탄천 테마공원 조성
• 겨울철새 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보리, 밀밭 조성 사업
• 나비 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유채, 메밀밭 조성 사업



<사진 3-8 : 53> 탄천 농구장

(2) 추진계획

• 2001. 10 ~ 11월 – 보리, 밀밭 조성사업 추진
• 2001. 11 ~ 2002. 3월 – 탄천 철새 모니터링 및 청소년 체험 학습
• 2002. 5월 – 유채꽃밭 조성　　2002. 8월 – 메밀밭 조성

(3) 기대 효과

• 겨울철새와 나비 등 생물서식 환경공간과 시민의 탄천관심 제고

43)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 추진

(1) 개발계획 개요

• 개발방향
　–저밀도 친환경시가지 조성
　–선교통 후입주로 교통혼잡 최소화
　–지구단위계획을 토대로 쾌적한 주거환



<사진 3-8 : 54> 판교개발

경 조성 관리

- 위치 : 분당구 판교 · 삼평 · 운중 · 하산운동 · 백현 · 이매 · 야 탑 · 서현 · 수내동, 수정구 사송 · 금토동 일원 (9,315천㎡)
- 수용인원 : 59,000명(19,700세대) 인구밀도 64인/ha
- 토지이용계획 : 개발계획 시 수요조사 실시하여 토지이용계획 조정

계	주택용지	상업 · 업무 지원시설	벤처용지	공원 · 녹지	도로 · 공공시설
280만 평	90만 평	5만 평	20만 평	66만 평	99만 평
	32%	2%	7%	24%	35%

(2) 추진상황

- 1998. 5. 1 : 성남도시기본계획 건교부 승인
- 1999. 12. 18 :「판교지구개발 타당성검토」용역 완료
- 2001. 9. 28 : 판교지구 개발계획 확정
- 2001. 10. 4 :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
- 2001. 10 ~ 2001. 11. 6 : 주민공람 및 전문가 의견 청취
- 2001. 11. 12 : 주민, 전문가 의견 제출
- 2001. 12. 26 :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고시

(3) 교통계획(2008년까지 완료)

- 신분당선 건설
  - -1단계 : 분당 ~ 양재
  - -2단계 : 양재 ~ 용산
- 분당선 연장 : 오리 ~ 수원(18.5km), 수서 ~ 왕십리(13.2km)
- 고속화도로 건설 : 영덕 ~ 판교~ 양재(24.5km), 분당 ~ 신림(22km)
- 지역 간선도로 추가건설 및 구시가지 연결도로망 개설
  - -판교 ~ 옛골, 백현 ~ 미동골, 판교 ~ 분당(3개 지역 9.0km)
  - -판교IC 완전 입체화

(4) 향후 추진계획

- 2002 ~ 2003년 : 개발계획수립 및 건교부 승인
- 2005. 6월 : 보상, 실시계획수립 및 택지분양
- 2005. 12월 : 주택분양
- 2008. 12월 : 교통대책,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 완료
- 2009. 1월 : 주택입주

(5) 기대 효과

- 선계획 후개발로 난개발 방지
- 성남시의 자족기능 마련 및 수도권 주택수급 안정 도모

44) 수정 · 중원구 도시재개발 사업 추진

(1) 사업개요

- 위치 : 수정 · 중원구 기성 시가지(20개 구역 241ha, 2.45㎢)
- 개발방식 :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 수복재개발 방식

(2) 추진상황

- 1998. 12. 18 : 도시재개발 기본계획 타당성 협의
- 1999. 12. 12 :「성남시 기성시가지의 주거지 정비방안」 연구 용역
- 2000. 1. 15 : 구시가지 재개발사업 공공시행합의서 체결
- 2001. 2월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 수립
- 2001. 3 ~ 4월 :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 2001. 5. 28 : 성남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조례 제정
- 2001. 5 ~ 11월 : 기본계획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 2001. 12. 20 : 기본계획안 건교부 승인

(3) 향후 추진일정

- 2002. 1월 : 성남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 공고
- 2002. 10월 :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용역 실시 및 지정 신청
- 2003 ~ 2016년 : 재개발사업 시행

(4) 선결과제 및 대책

- 순환재개발 이주용지 확보
- 판교개발예정지역
- 기성시가지 내 이주단지 확보
- 사업재원 확보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이주단지 조성
  - -재개발기금 운용 조례에 의한 기금 확보
  - -시의주차장 · 도로사업비 등의 재원 재개발사업지구에 할애
  - -판교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 일부 충당
  - -국 · 도비 지원 추진
- 군용 항공기지법에 의한 고도제한으로 사업성 결여
  - -2002. 1. 2 고도제한 완화 조치→군용 항공기지법 개정

(5) 기대 효과

- 수정, 중원구의 도시환경 개선 및 기성 신시가지 간 균형적 발전

45) 우리시 주변 난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1) 교통난 유발요인 및 유입 교통량

- 주변지역 유입 인구
- 시계지점 유입 교통량

(2) 광역교통망 계획

- 수도권 광역전철망
  - -분당선 연장 : 오리 ~ 수원
  - -신분당선 신설 : 백궁 ~ 양재
- 수도권 남부지역 광역도로망
  - -영덕 ~ 판교 ~ 양재 고속화도로
  - -분당 ~ 신림 고속화도로

(3) 교통난 해소대책(광역교통망 계획의 조기 건설 건의)

- 신 분당선의 조기건설
- 영덕 ~ 양재, 분당 ~ 신림 고속화도로 조기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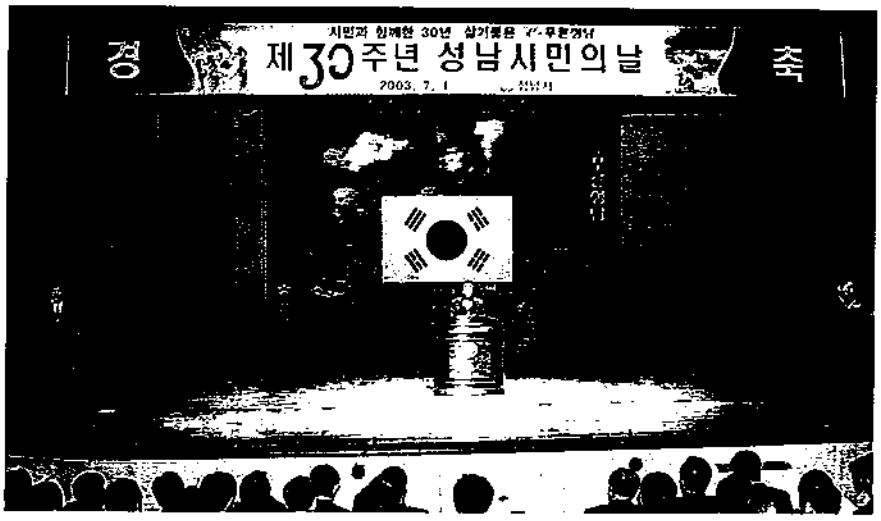
※ 2002년의 시정성과 분야별 수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공공근로사업 평가	최우수(행정자치부)
가족보건사업 평가	최우수(행정자치부)
월드컵4대시책 추진평가	우 수(행정자치부)
중앙 소양 고사	우 수(행정자치부)
옥외 광고물 평가	최우수(경기도)
공공근로 사업평가	최우수(경기도)
도정주요시책 평가(건설교통부문)	최우수(경기도)
건축행정 건실화대책 평가	우 수(경기도)
자원봉사센터 평가	우 수(경기도)
도로 정비사업 평가	3위(경기도)

4. 2003년 시정업무 추진방향

민선 3기 2년차인 2003년 역점시책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시책 추진과 균형 있고 안정된 도시여건조성, 지식정보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기반 구축, 삶을 윤택하게 하는 문화예술 체육진흥, 미래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행정 구현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 주민 생활 보장



〈사진 3-8 : 55〉 제30주년 성남시민의 날 기념식(2003. 7. 1)

(1)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 자활사업, 자활근로, 직업훈련

(2)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

- 자원봉사 은행제 운영
- 우수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
- 자원봉사 박람회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표창

(3)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추진

(4)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지원

(5) 월동기 생활안정 종합대책 수립 추진

(6) 근로자 임대아파트 재건축(15평형 ; 200세대)

2) 노인복지 향상

(1) 노인복지시설 건립

- 노인복지 보건센터 건립
- 경로당 건립(6개소)
-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상대원1동)
- 노인복지회관 건립(복정동)

(2) 노인 전문병원 개원(서울대병원)

(3) 노인복지 사업

- 경로당 운영비 확대 지원
- 노인 일자리 창출
- 효자효부 표창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3) 여성의 능력 개발 기회 증진

(1) 여성 사회활동 지원 등 여성복지 향상

- 여성 발전위원회 설치
- 여성지도자 양성 및 단체 활성화 지원
- 여성 공무원 적재적소 배치
- 여성 능력 개발교육
- 각종위원회 여성 참여 30% 확대
- 여성발전기금 지원

(2) 여성보호

- 요보호 여성의 쉼터 마련
- 저소득 모 · 부자가정 지원

4) 장애인 복지 향상

(1)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장애인 복지기금 10억 추가 조성
(3) 장애인 재활사업기금 효율적 운영
(4) 장애인 고용을 위한 복합사업장 건립

5) 아동보호와 청소년 활동 지원

(1) 보육사업 확대

- 민간, 가정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
- 직장 및 지역 영유아시설 확충
- 보육정보센터 운영

(2) 아동, 청소년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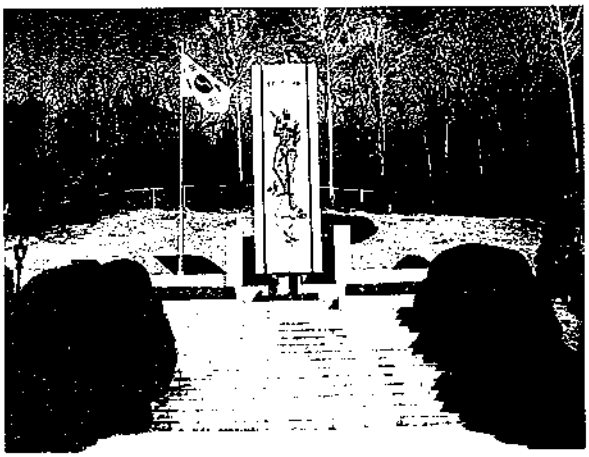
- 결식학생 중식 제공
- 소년소녀 가정 보호
- 청소년 성교육, 여름캠프 설치
- 청소년 야간학교 지원

(3) 건전한 청소년 활동 지원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 청소년 공부방 운영
- 청소년 상담실 운영
- 중학교 축구부 창단
- 청소년 문화예술제 개최

(4)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공모
(5)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 중원 청소년 문화센터(하대원동)
- 서현 청소년 문화센터(서현동)
- 정자 청소년 문화센터(정자동)



<사진 3-8 : 56> 현충탑

6) 보훈복지사업 등 추진

(1) 현충탑 이전 건립(여수동 산23번지 일원)
(2) 보훈복지기금 조성(20억)
(3) 성남시립공설공원묘지 이전
(4) 현대화된 화장장 운영
(5) 성남종합사회복지관 재건립

- 위치 – 금광2동 2957번지
- 규모 – 1007평(지하2층, 지상4층)

7) 시민 건강증진사업

(1) 보건사업

- 영유아보건, 모성보건
- 국민건강증진, 정신보건
- 재활보건
- 임산부, 무료치과진료소
-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보건

(2) 전염병 관리사업
(3) 방문보건 사업
(4) 노인치매 관리사업
(5) 호스피스 자원봉사 관리사업

8) 균형발전과 주거환경의 새 모델 제시

(1)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 수용인구 : 59천 명 저밀도 친환경도시 선교통 후입주 원칙
- 2003년 추진사항 : 택지개발계획 착수 개발지원단 운영

(2) 수정, 중원구 도시재개발사업 추진

- 사업개요 : 20개소(전면철거 6개소, 수복재개발 14개 소)

(3) 도촌지구 택지개발사업

- 개발규모 : 19,410명 6,470세대
- 2003년 계획 : 개발계획 승인, 보상

(4) 고도제한 철폐 및 서울공항 이전(장기과제)

(5) 복정동 토지구획정리 사업

- 사업개요 : 740필지(432,617㎡)
- 2003년 계획 : 주택용지 조성 12,000㎡

(6) 2021 성남도시 기본계획 수립

(7) 고등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8)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 20호 이상 취락지역(18개 지역)
- 2003년 계획 : 교통영향 평가, 용도제한

(9) 은행시영 아파트건립(23평형 432세대)

- 2003년 계획 : 공사완공 입주

9) 도로망 확충



〈사진 3-8 : 57〉 분당선 이매역 개통식

(1) 도로확장사업

- 동원동 ~ 대장동 간 확장
- 태평동 ~ 복정동 간 탄천로확장
- 수정로 ~ 중앙로 간 탄천변 도로 확장

(2) 도로 개설 공사

• 공원로 ~ 우남로 간 도로 • 야탑 ~ 서현동 간 도로

(3) 미래 대중교통 경전철사업(2003년 추진계획 : 기본조사 실시)
(4) 이매역사 건립(2003년 추진계획 : 전기통신 등 내부 공사)

10) 주차장 조성

(1) 사송동 시내버스 공동차고지 조성
(2)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수정구 : 6개 소, 중원구 : 6개 소, 분당구 : 3개 소)

• 2003년 추진 계획 :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

(3)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

• 사업개요 : 동중학교 이전 부지, 은행제1초등학교 신설 부지, 금빛 초등학교

11) 시민 위주의 교통흐름 개선



<사진 3-8 : 58> 탄천~ 한강 자전거 전용도로 개통식 (2003.9.26)

(1) 대중교통수단 개선사업

• 대중교통체계(143개 노선), 신호체계 개선(140개 교차로)
• 자전거도로 확충
• 탄천 ~ 한강 자전거하이킹도로 연결

(2) 올바른 교통문화 만들기

• 주택가 일방통행로 확대
•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 악성주정차 중점 단속

• 어린이 교통안전교육(황송공원)
• 어린이 자전거면허시험장 운영
• 교통단속시스템 구축
• 중앙로 교통종합개선사업 추진

(3) 판교개발 및 용인시 지역 난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 신분당선 신설 추진 : (분당 ~ 강남)
• 고속화도로개설 : 영덕 ~ 판교 ~ 양재,
분당 ~의왕 ~ 신림
• 중장기 도로망 정비계획 용역



〈사진 3-8 : 59〉 분당에서 한강까지 자전거도로

12) 지식, 정보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1) 벤처벨트 구축으로 벤처산업 육성 및 유치

• 벤처벨트구축 : 성남벤처빌딩 – 분당테크노파크 – 야탑벤처밸리 – 분당벤처타운 – KDC 임대벤처빌딩 – 판교벤처밸리
• 입지조건활용 벤처기업 유치 • 벤처기업육성지구 활성화

(2) 성남산업진흥재단 운영

• 임대벤처빌딩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정보지원, 교육연수, 첨단기업의 중추적 역할 수행

(3) 벤처타운 조성 및 민자아파트형 공장 건립 지원

• 야탑벤처 밸리조성(전자부품연구원) • 분당벤처타운 조성
• 지식정보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 민자아파트형공장 건립 지원

(4) 창업보육센터 등 운영 지원

• 창업보육센터, 창업동아리, 고등학교발명부 등

13)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1) 자금 및 기술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특허등 출원 지원
- 공동기술개발 및 공동협력사업

(2) 마케팅 지원

- 공동 브랜드"어울리오" 육성
-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
- 우수상품의 판로 개척과 중소벤처기업 상품박람회
- 제3회 성남시 민속전통공예품전 개최

14) 실업대책 추진으로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1)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 취업정보센터, 일일취업센터, 무료직업소개소 운영
- 취업박람회 개최
- 고용촉진 훈련

(2) 실직자 생활안정 지원

- 실직자 소자본 창업자금 지원

(3) 일자리 창출

-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추진

(4)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노사화합 분위기 정착
- 소비자와 함께하는 물가안정

(5)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

- 주요시설 : 환승주차장, 할인점, 웨딩프라자, 쇼핑몰, 오피스텔
- 2003년계획 : 환승주차장 착공

15) 국제통상 활성화

(1) 무역 실무교육(2회 80명)

(2) 해외시장 마케팅 사업추진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추진 • 해외 박람회 참가지원

(3) KOTRA 지사화 사업 지원(25개 업체)

(4) 수출상품 국제규격(CE, UL 등) 인증 지원(20개 업체)

16) 시민생활정보 공유화

(1) 시민정보화교육 및 정보화 이벤트행사 실시

• 정보화교육(10,000명 :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 학원)
•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 운영(전문과정, 웹디자인, 웹마스터)
• 정보화 이벤트행사(인터넷정보검색대회, 사이버 문화축제, 홈페이지)

(2) 생활, 행정, 산업정보화 구축

• 휴대폰 문자전송 서비스를 이용한 민원안내
• 위치정보, 건축행정정보, 행정종합정보, 자원봉사정보, 문화예술 정보 시스템 운영
• 1가구 1E-mail 갖기 운동 • 중소기업 홈페이지 운영
• 전자결재시스템 성능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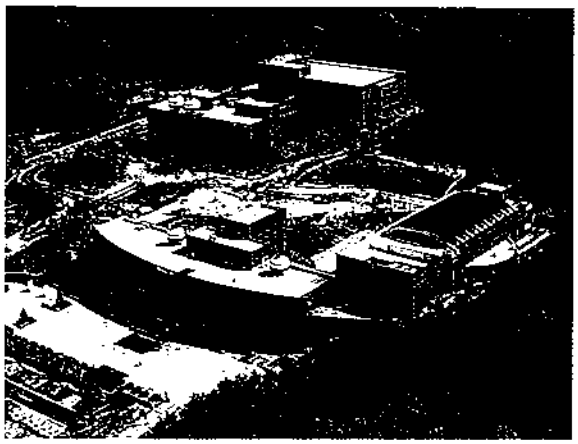
17) 문화예술공간 마련

(1) 문화예술시설 건립

• 문화예술회관 건립 : 부지 131,341㎡, 건평 31,716㎡(지하2층 지상3층)
• 2003년계획 : 대, 중, 소극장 골조공 사 완료

(2) 문화정보센터 운영

• 중앙문화정보센터(수정 · 중원 · 분당문화정보센터, 여성문화회관 총괄 운영)



〈사진 3-8 : 60〉 중앙문화정보센터와 여성문화회관

- 4개문화정보센터 : 1만 석의 전국 최대 열람석, 전자도서관, 행정향토자료 코너 문화정보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
- 여성문화회관 : 전시, 문화교육강좌, 보육시설, 수영장, 에어로빅장 운영

18) 문화산업 육성

(1) 문화관광 자원화 개발

- 2003년계획 : 분수광장, 산성벽천, 옥상정원

(2) 성남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 801평, 지하1층, 지상3층
- 2003년 계획 : 실시 설계 도시계획 변경

19) 시립예술단 창단 및 전통문화계승 등 문화예술 진흥

(1) 시립교향악단 창단, 시립국악단 창단

(2) 문화예술제 및 특성화된 마을축제 활성화
모란 민속시장 축제, 제17회 성남문화예술제, 성남세계전통민속예술축제, 구별 축제, 공원별 테마축제, 순회공연 전통민속예술 계승



<사진 3-8:61> 모란 민속시장 축제

(3) 성남의 얼찾기 추진

- 향토자료코너 운영
- 성남시사 편찬(2003년 계획 : 집필)

20) 생활체육 활성화 및 생활체육 육성 추진

(1) 생활체육 중심의 제2종합운동장 운영

- 주 · 보조경기장, 체육회관(빙상, 수영, 헬스, 스쿼시, 라켓볼) 테니스장 등

(2) 제30회 시민체육대회
(3) 엘리트체육 육성(22개 사업)
(4) 생활체육 활성화(17개 사업)

21)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1)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

- 공원관리(103개소)
- 옥외광고물 시범지역 지정
- 도로변 경관개선을 위한 완충녹지 조성

(2) 녹지공간 마련

- 도시녹화사업 추진
- 산림문화축제(청계산 철쭉제) 추진

(3) 시민 휴식공간 확충

- 자원식물원 조성
- 은행동 수목관찰원 확장
- 시계등산로 및 주요 등산로변 휴게공간 조성

(4)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탄천 가꾸기 사업 추진
(5)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

- 노후 상수도관 교체
- 농촌동 자연취락지역 상수도 확충
- 여과지별 탁도계 설치
- 노후 및 고장 계량기 교체
-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 공사

22) 아름다운 환경도시 만들기

(1) 환경 생태도시 조성

- 성남생태네트워크 구축 지침서 제작
- 도시생태현황도 구축사업
- 대기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 수립
- 성남의제21 추진
- 민간 환경단체 지원(5개 단체)
- 대기오염 전광판 확충
- 성남자생식물 안내책자 제작
- 소규모 습지조사 및 생태복원 용역
-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 지원
-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2) 도시환경 시설물 디자인개선

- 통합관리 체계화
- 디자인개발(시설물 등)
- 문화공간 벽화사업(옹벽, 육교 등 5개소)

23) 향기 있는 디자인문화 창출

(1) 시메뉴얼(CIP) Up-Grade 및 디지털화

(2) 생활디자인 마인드 확산

- 계절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 생활디자인 교양강좌 개설

(3) 디자인 상설전시장 운영

(4) 디자인 문화행사 개최

- 리빙뉴스21. 성남
- 2003. 성남국제디자인 포럼
- 시승격 30주년 디자인문화열차 운행

24) 디자인산업 지원

(1)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제품, 포장 시각디자인 등)

(2) 기업디자인 주치의제도 시행

• 제품, 포장, 환경, web디자인, CI, 인테리어, 디스플레이, 사보 및 편집디자인

25)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및 대화 정례화

(1) 시민아이디어 공모제, NGO 시정참여, 정책토론회 운영
(2) 성남시에 바란다, 대화의 광장, 현장방문 대화 활성화

26) 책임행정 실천 및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

(1) 책임행정 구현

• 정책실명제 실시(30대 공약사항 및 주요사업)
• NGO 참여 친절도 측정 • 민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 시민 공사감독관제 운영

(2)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

• 생활민원 기동 봉사반 운영 • 아파트관리비경감 기구
•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 활성화

27) 자치행정의 역량 증대

(1) 주민자치센터 문화의 집 활성화

• 프로그램 다양화, 전문화,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 동청사 신증축(복정, 시흥, 성남, 상대원1동)

(2) 문화의 집 운영 3개소

• 성남, 초림, 서현 문화의 집



〈사진 3-8 : 62〉 서현문화의 집

28) 일하는 방식 개선 및 행정 쇄신

(1) ISO9001.14001운영 목표관리제, 공공부문 경영혁신과제 발굴
(2) 탄천수질 관리팀. 정책 개발팀 운영, 인터넷 전자입찰제 도입
(3) 공무원 제안제도, 개방형 인사제도 운영

29) 시정의 정책 형성기능 강화

(1) 성남발전연구소 확대 운영

- 연구기능보강, 다양한 시책개발, 연구과제, 용역사업, 학술세미나

(2) 시정발전위원회 운영(3개 분과위원회)

-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 행정혁신 등 과제 토의(분기), 운영위원회 (연1회)

(3) 산, 학, 관 네트워크화

30) 국내 · 국제 간 교류 활성화

- 국내 · 국제 교류도시 확대 및 공무원 파견 연수
- 국내교류 : 강원도 홍천군(농산물 직거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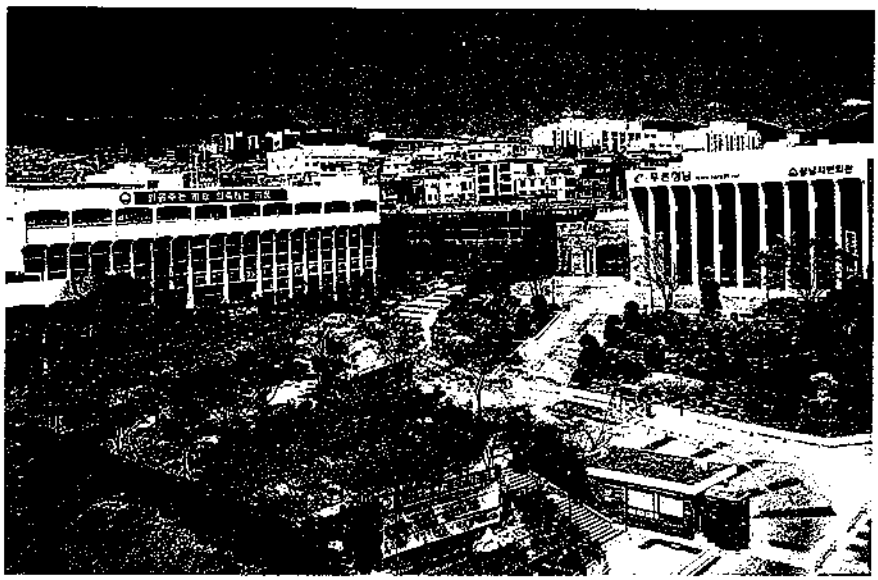
◌ 집필 張忠漢 향토사가



제3장 성남시의 행정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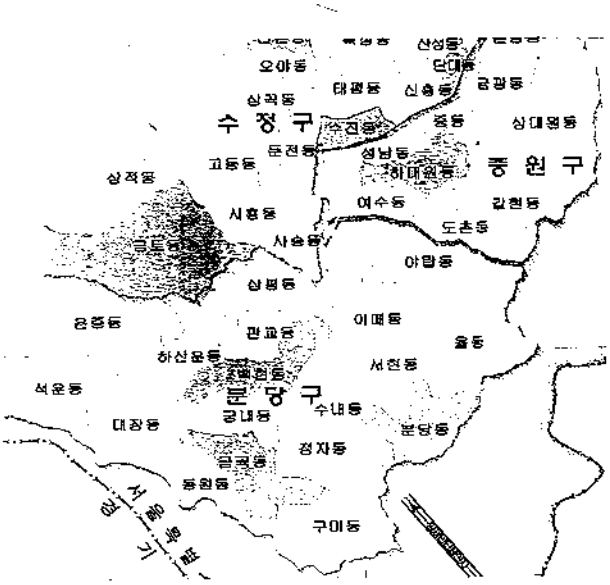
제1절 시 청

1. 성남시의 조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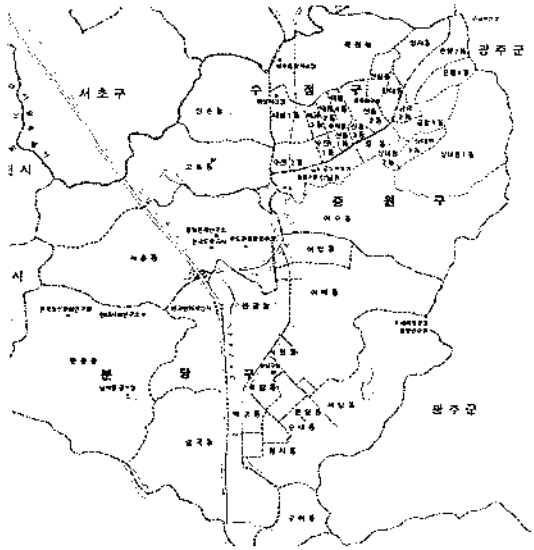


<사진 3-8 : 63> 성남시청

1973년 7월 1일 시로 승격될 당시 성남시청은 1담당관실, 1실, 10과, 42계, 2사업소, 2출장소, 18개 행정동과 행정인구 190,580명이었다. 그 후 30년이 경과한 2003년 성남시청의 조직은 5국, 2담당관, 22과, 99팀, 6사업소, 3구, 44개 행정동, 인구 937,780명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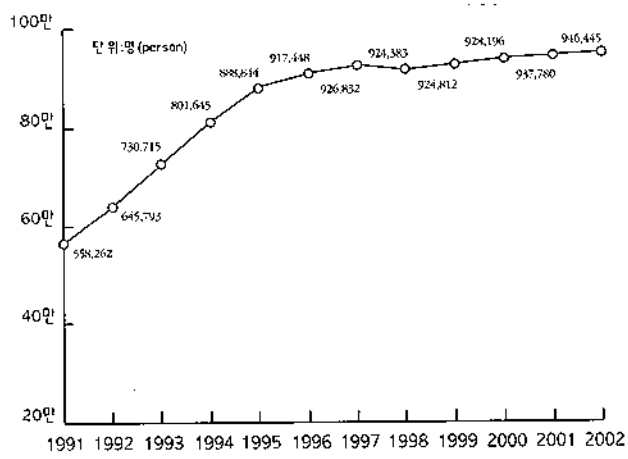


<사진 3-8 : 64> 성남시 법정동 안내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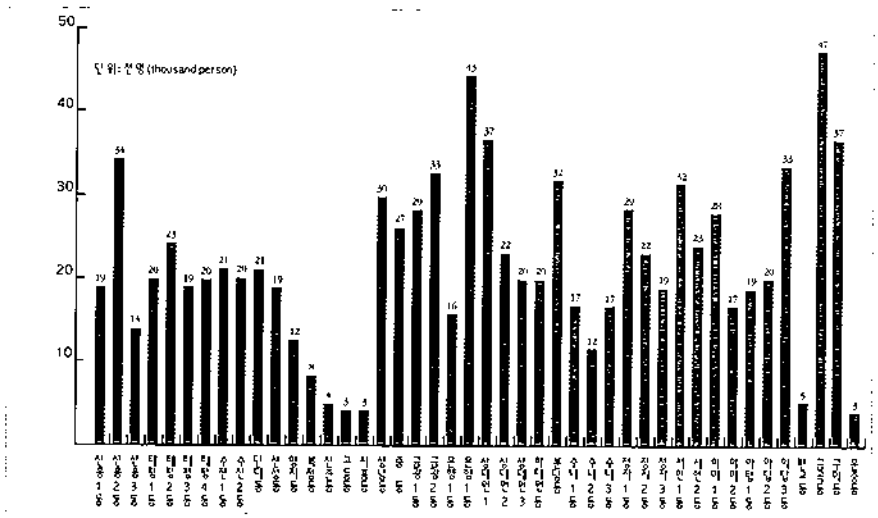


<사진 3-8 : 65> 성남시 행정구역도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1196호. 1998.10.7)에 의하면 성남시의 행정기구는 성남시를 통활하는 시장이 있고, 부시장, 시장보좌기관(비서실장,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각 국(행정국, 재정경제국, 문화복지국,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시장직속기관(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각 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 도시정비사업소, 중앙문화센터, 종합운동장관리소, 차량등록사업소, 영생관리사업소)), 하부행정기관(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및 각 동(44개 동)이 있다. 그리고 성남시 의회사무국이 있다.



연도별 인구증감 추이



동별 인구 현황

※ 2004. 5. 31 현재 성남시청의 조직체계는 다음과 같다.

시 장

부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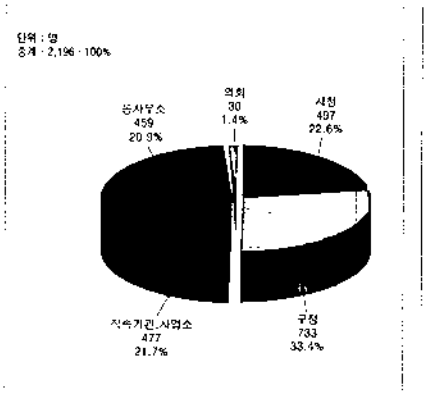
기 구	담당부서	사 무 분 장
	비서실장	수행비서
보좌기관	공보담당관	공보기획, 홍보
	감사담당관	회계감사, 기술 감사, 조사, 확인평가
각 국	담당부서	사 무 분 장
	총 무 과	총무, 의전, 인사, 민방위, 기록물관리, 후생복지
행 정 국	기획예산과	기획1, 기획2, 예산, 투자심사, 의회법무
	자치행정과	자치행정, 주민자치, 조직관리, 민원제도,민간협력
	정보통신과	정보기획, 정보개발, 정보관리, 통신, 지리정보
	세 정 과	도세운영, 시세운영, 세입관리
재정경제국	회 계 과	지출,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유통, 농정, 노사협력, 근로자교육, 고용증진
	산업지원과	기업지원, 국제통상, 벤처기업, 에너지관리, 디자인지원
	사회복지과	복지행정, 노인복지, 장애복지, 생활보호,의료보장
	여성복지과	여성복지, 여성생활, 자원봉사, 아동보육, 복지관 운영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문화, 예술, 관광
	환경위생과	환경행정,환경보호,위생관리, 식품위생, 장의문화
	체육청소년과	체육, 청소년, 시설관리

기 구	담당부서	사무분장
도시주택국	도시과	도시행정, 도시계획1, 도시계획2, 지적
	도시개발과	도시재개발, 특수개발, 녹지, 산림, 공원조성, 조경
	주택과	주택행정, 주택개발, 주택시설, 주택개발
	건축과	건축행정, 건축지도, 건축시설1, 건축시설2
	판교개발지원단	관리, 보상, 개발
	방재과	재난관리, 재해관리, 하천관리
건설교통국	도로과	도로행정, 도로시설, 도로관리, 기술심사
	교통행정과	교통기획, 교통행정, 운수행정
	교통지도과	교통지도, 교통시설, 주차장시설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의사, 의정, 홍보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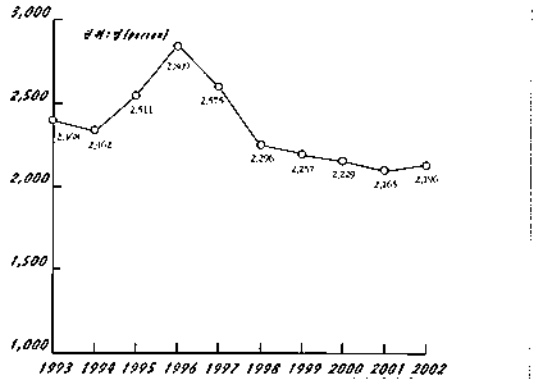
직속기관	담당부서	사무분장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행정, 기업회계, 요금, 계량기관리
	수도시설과	수도, 급수, 누수관리, 수도관보수
	정수과	정수생산, 시설운영, 수질시험
	하수처리과	하수행정, 하수시설, 하수처리, 수질관리
	공원운영과	공원관리, 운영1·2
도시정비사업소	자원관리과	청소행정, 자원시설, 재활용, 소각장 운영
	탄천관리과	탄천관리, 자연하천, 시설물관리
	관리과	관리, 문화교육, 시설운영
중앙문화정보센터	자료봉사과	수서정리, 정보봉사1, 정보봉사2
	분당분관	수서정리, 정보봉사
수정구 보건소		보건행정, 지역보건, 건강증진, 전염병관리
중원구 보건소		보건행정, 지역보건, 건강증진, 전염병관리
분당구 보건소		보건행정, 지역보건, 건강증진, 전염병관리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 기술보급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종합운동장 관리, 시설
차량등록사업소		차량 등록, 검사
영생관리사업소		영생 관리, 운영

총무과

2. 공무원 현황



성남시 공무원 구성표



공무원 연도별 추이

1) 공무원 총괄

연도별 기관별	총계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2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기능직	고용직
1998	2,296	1	67	1	14	105	243	507	450	249	1	10	636	12
1999	2,257	1	43	1	14	101	274	530	467	222	1	9	594	
2000	2,229	1	28	1	14	109	302	534	461	228	1	9	541	
2001	2,165	1	37	1	15	104	293	526	452	225	1	8	502	
2002	2,196	1	14	1	15	109	299	536	461	244	1	8	507	
2003	2,199	1	10	1	15	110	318	531	453	215		8	537	
2004	2,204	1	10	1	15	110	319	532	455	216		8	537	
시청	520	1	9	1	5	25	103	160	85	18			113	
구청	717				3	21	111	153	177	66			190	
수정구청	231				1	7	37	51	57	19			54	
중원구청	227				1	7	37	51	51	21			59	
분당구청	259				1	7	37	51	65	26			72	
직속기관	119				3	4	19	26	30	7		8	24	
사업소	359		1		3	13	39	62	34	12			195	
의회	30				1	3	5	7	1				13	
동사무소	459					44	44	124	132	113			2	
수정구	155					16	16	43	46	34				
중원구	121					10	10	34	32	34				
분당구	183					18	18	47	54	45			1	

2003년 성남시 통보연계

2) 시본청 공무원

연도별 실국과별	총계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계	2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고용직
1996	436	1	19	297		7	22	72	114	63	19	113	6
1997	589	1	16	344	1	7	24	85	125	75	27	222	6
1998	518	1	20	380	1	5	22	91	142	82	37	116	1
1999	486	1	18	358	1	5	23	86	135	75	33	109	
2000	492	1	16	363	1	5	23	94	137	78	25	112	
2001	485	1	16	362	1	5	23	92	141	76	24	106	
2002	497	1	9	378	1	5	24	95	146	83	24	109	
2003	515	1	9		1	5	25	102	159	83	22	108	
2004	520	1	9		1	5	25	103	160	85	18	113	
공보담당관실	13		2	6			1	2	2		1	5	
감사담당관실	17			15			1	4	9	1		2	
총무과	47	1	3	25	1	1	2	6	10	5		18	
기획예산과	23			20			1	5	6	7	1	3	
자치행정과	23			18			1	5	6	5	1	5	
정보통신과	20			14			1	4	7	2		6	
세정과	13			11			1	3	3	3	1	2	
회계과	43		1	16			1	4	7	3	1	26	
지역경제과	30			25		1	1	6	9	7	1	5	
산업지원과	25			22			1	6	9	6		3	
사회복지과	24			19		1	1	5	7	5		5	
여성복지과	21		1	17			1	5	6	5		3	
문화예술과	21			13			1	3	4	4	1	8	
체육청소년과	11			10			1	3	3	2	1	1	
환경위생과	22			19			1	6	7	3	2	3	
도시과	19			17		1	1	5	8	2		2	
도시개발과	26			23			1	6	11	5		3	
주택과	19			18			1	4	9	2	2	1	
건축과	23		2	20			1	4	12	1	2	1	
판교개발사업소	15			13			1	3	3	5	1	2	
방재과	16			14		1	1	3	4	4	1	2	
도로과	23			19			1	5	9	4		4	
교통행정과	13			11			1	3	4	2	1	2	
교통지도과	13			12			1	3	5	2	1	1	

2003년 성남시 통계연보

3) 시의회 사무국 및 사업소 공무원

연도별 기관별 실과별		합계	별정직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1997		28		17	1	3	4	8	1				11	
1998		27		16	1	2	4	8	1				11	
1999		27	3	13	1	1	2	8	1				11	
2000		27		16	1	2	4	8	1				11	
2001		27	3	13	1	1	2	8	1				11	
의회	2002	30	3	14	1	2	2	8	1				13	
사무국	2003	30		17	1	3	5	7	1				13	
	2004	30		17	1	3	5	7	1				13	
	1997	484		248	6	16	45	85	74	11	1	10	232	
	1998	522		254	5	16	49	84	64	25	1	10	262	5
	1999	532	4	278	5	15	52	97	73	26	1	9	250	
사업소	2000	527	1	286	5	17	62	104	74	24	1	9	240	
	2001	477	2	269	6	15	58	90	68	23	1	8	206	
	2002	477	1	270	6	16	58	90	68	23	1	8	206	
	2003	478	1		6	17	56	88	64	22	1	8	215	
	2004	478	1		6	17	56	88	64	19		8	219	
수정구 보건소		36		29	1	1	6	9	10	2			7	
중원구 보건소		36		29	1	1	5	8	11	3			7	
분당구 보건소		36		28	1	1	6	9	9	2			8	
농업기술센터		11		1		1						8	2	
수도행정과		66	1	13	1	1	4	3	3	1			52	
수도시설과		27		14		1	4	5	3	1			13	
정수과		49		16		1	3	6	6				33	
하수처리과		38		18		1	4	10	3				20	
공원운영과		18		13	1	1	3	5	2	1			5	
탄천관리과		15		11		1	3	5	2	1			4	
자원관리과		33		20		1	4	9	5	1			13	
중앙문화센터관리과		17		11	1	1	3	4		2			6	
자료봉사과		19		14		1	3	4	3	3			5	
분당분관		17		13		1	2	4	4	2			4	
종합운동장		18		8		1	2	4		1			10	
차량등록사업소		25		7		1	2	2	2				18	
영생관리업소		17		5		1	2	1	1	1		12		

2003년 성남시 통계연보

4) 구청 공무원

연도별 구청별	합계	별정직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996	878	15	612	6	38	143	148	164	113	224	27
1997	771	19	555	6	33	127	137	150	102	171	26
1998	652	24	463	3	21	99	119	144	77	159	6
1999	650	18	470	3	18	96	125	148	80	162	
2000	752	11	561	3	24	106	161	182	85	180	
2001	745	16	550	3	21	103	159	180	84	179	
2002	733		554	3	24	106	162	177	82	179	
2003	717		546	3	21	111	153	175	83	179	
2004	717		527	63	21	111	153	173	66	190	
수정구	231		172	1	7	37	51	57	19	59	
총무과	55		26	1	1	6	7	7	2	31	
시민과	26		24		1	5	6	8	3	2	
세무과	37		36		1	6	7	16	5	1	
사회경제과	24		21		1	4	8	5	3	3	
환경위생과	34		24		1	5	8	7	3	10	
건설과	34		24		1	6	8	7	2	10	
허가과	21		20		1	5	6	7	1	1	
중원구	227		169	1	8	37	51	51	21	59	
총무과	54		24	1	1	6	7	7	2	30	
시민과	25		22		1	5	6	6	4	3	
세무과	38		36		1	6	9	16	4	2	
사회경제과	22		20		1	4	8	2	5	2	
환경위생과	34		23		1	5	7	7	3	11	
건설과	33		23		1	6	8	7	1	10	
허가과	21		20		1	5	6	6	2	1	
분당구	259		187	1	7	37	51	65	26	72	
총무과	59		25	1	1	6	7	8	2	34	
시민과	28		25		1	5	6	9	4	3	
세무과	45		43		1	6	8	21	7	2	
사회경제과	25		22		1	4	8	5	4	3	
환경위생과	35		25		1	5	8	6	5	10	
건설과	42		25		1	6	8	8	2	17	
허가과	25		22		1	5	6	8	2	3	

2003년 성남시 통계연보

5) 동 공무원

연별 동별	합계	일반직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별정직	기능직
1996	701	533	44	44	167	166	112	40	128
1997	695	528	44	44	162	166	112	39	128
1998	577	467	44		154	159	110	22	88
1999	562	500	44	38	165	170	83		62
2000	431	431	44	38	128	127	94		
2001	431	431	44	38	128	127	94		
2002	459	459	44	38	130	132	115		
2003	459	459	44	44	124	132	115		
2004	459	457	44	44	124	132	113		
수정구	155	155	16	16	43	46	34		
신흥1동	11	11	1	1	4	2	3		
신흥2동	12	12	1	1	4	4	2		
신흥3동	10	10	1	1	2	4	2		
태평1동	11	11	11	11	4	2	3		
태평2동	11	11	1	1	3	3	3		
태평3동	11	11	1	1	3	3	3		
태평4동	11	11	1	1	3	3	3		
수진1동	10	10	1	1	3	3	2		
수진2동	11	11	1	1	3	3	3		
단대동	11	11	1	1	3	3	3		
산성동	10	10	1	1	3	3	2		
양지동	10	10	1	1	3	3	2		
복정동	8	8	1	1	2	4			
신촌동	6	6	1	1	1	2	1		
고등동	6	6	1	1	1	2	1		
시흥동	6	6	1	1	1	2	1		
중원구	121	121	10	10	34	32	34		1
성남동	13	13	1	1	3	5	3		
중동	12	12	1	1	4	3	3		
금광1동	12	12	1	1	4	3	3		
금광2동	13	13	1	1	4	4	3		
은행1동	15	15	1	1	5	2	6		
은행2동	15	15	1	1	5	2	6		
상대원1동	15	14	1	1	4	3	5		1
상대원2동	11	11	1	1	2	3	4		
상대원3동	10	10	1	1	3	2	3		
하대원동	11	11	1	11	3	4	2		
분당구	183	183	18	18	47	54	45		1
분당동	10	10	1	1	3	2	3		

연별 동별	합계	계	일반직 5급	6급	7급	8급	9급	별정직	기능직
수내1동	9	9	1	1	2	3	2		
수내2동	8	8	1	1	2	2	2		
수내3동	9	9	1	1	2	3	2		
정자1동	10	10	1	1	3	3	2		
정자2동	13	13	1	1	4	3	2		1
정자3동	9	9	1	1	2	3	2		
서현1동	12	12	1	1	3	3	4		
서현2동	12	12	1	1	3	3	4		
이매1동	10	10	1	1	3	3	2		
이매2동	8	8	1	1	2	2	2		
야탑1동	10	10	1	1	3	3	2		
야탑2동	9	9	1	1	2	2	3		
야탑3동	15	15	1	1	5	4	4		
판교동	7	7	1	1	1	3	1		
금곡동	16	16	1	1	4	5	5		
구미동	13	13	1	1	3	5	3		
운중동	6	6	1	1	1	2	1		

2003년 성남시 통계연보

3. 역대시장 및 시정방침

역대	성명	취임 연월일	취임 전임지	이임 연월일	이임 전출지	재직 기간	시정 방침
초대	 李載德	1973. 7.1	경기도 내무국장	1974. 11.12	수원시장	16개월	-푸른성남 창조하자- ⊙자립하는 시정 ⊙시민소득 증대 ⊙복지도시 건설
2	 李南斗	1974. 11.13	마산시장	1976. 7.25	대전시장	20개월	-성남을 빛내자- ⊙총화행정 구현 ⊙도시기반 정비 ⊙주민소득 증대 ⊙문화복지도시 건설
3	 洪晳杓	1976. 7.26	내무부	1977. 7.29	강원도 기획관리 실장	12개월	-문화복지도시 건설- ⊙총력안보 강화 ⊙새마을운동 촉진 ⊙건전도시 육성

역대	성명	취임 연월일	취임 전임지	이임 연월일	이임 전출지	재직 기간	시정 방침
4	 朴峰輝	1977. 7.30	내무부	1980. 3.12	대전시장	32개월	-30만의 총화약진한 성남- ⊙건전도시의 건설 ⊙도시본위의 시정 ⊙시민총화의 구현
5	 李鳳學	1980. 3.13	내무부 지방개발국 도시지도과장	1980. 11.29	내무부	8개월	-성남을 사랑하자- ⊙철저한 봉사행정구현 ⊙쾌적한 복지시 건설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
6	 全英浩	1980. 11.30	내무부 민방위본부 민방위국 기획과장	1982. 7.9	태백시장	19개월	-새시대 꽃피는 새성남 건설- ⊙충 직 ⊙단 합 ⊙개 발
7	 朴齊赫	1982. 7.10	부천시장	1983. 4.13	인천직할시 기획관리실	10개월	-푸른도시 복지성남- ⊙화합과 정의구현 ⊙창의로 지역개발 ⊙성실한 위민봉사
8	 林敬鎬	1983. 4.14	내무부 지방행정국 행정과장	1985. 7.7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 연구 발전부장	27개월	-화합, 안정, 약진- ⊙시민본위의 행정 ⊙생활편익 행정 ⊙선진추구 행정
9	 金恪鉉	1985. 7.8	경상북도 기획관리실장	1986. 12.23	시장. 군수반 교육입교	15개월	-밝은 새성남 건설- ⊙건전도시의 육성 ⊙시민본위의 행정 ⊙화합안정의 구현
10	 李海載	1986. 12.24	경기도 기획관리실장	1988. 12.31	내무부 감사관	24개월	-내고향 새성남- ⊙시민도시의 육성 ⊙시민본위의 행정 ⊙화합안정의 구현
11	 金炳亮	1989. 1.1	제주도	1989. 12.26	내무부 공보 담당관	12개월	-시민의 만족행복- ⊙시민을 위한 책임봉사 ⊙균형개발과 복지증진 ⊙화합단결의 신뢰사회

역대	성명	취임 연월일	취임 전임지	이임 연월일	이임 전출지	재직 기간	시정 방침
12	 吳誠洙	1989. 12.27	내무부 기획행정 연수원	1993. 1.11	광명시장	36개월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정직 성실한 봉사행정 ⊙시민화합과 지역안정 ⊙균형발전과 복지증진
13	 全永國	1993. 1.12	안양시장	1993. 5.3	수원시장	3개월	-활기찬 새성남 건설- ⊙신뢰받은 민주정치 ⊙화합으로 지역안정 ⊙균형있는 도시개발 ⊙격조 높은 문화창달
14	 任錫鳳	1993. 5.4	시흥시장	1995. 6.30	내무부 감사관	25개월	-새시대 꽃피는 시정- ⊙참된 행정 ⊙알찬 행정 ⊙밝은 문화 ⊙으뜸 도시
15	 吳誠洙	1995. 7.1	제1대 민선시장	1998. 6.30		3년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정직 성실한 봉사 행정 ⊙시민화합과 지역안정 ⊙균형개발과 복지증진 ⊙환경보전과 문화창달
16	 金炳亮	1998. 7.1	제2대 민선시장	2002. 6.30		48개월	-열린시정 편안한 시민- ⊙알찬 경제도시 ⊙푸른 문화도시 ⊙앞선 정보도시 ⊙복된 화합도시
17	 李大燁	2002. 7.1	제3대 민선시장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 ⊙함께하는 자치도시 ⊙앞서가는 경제도시 ⊙살맛나는 복지도시 ⊙아름다운 환경도시 ⊙향기있는 문화도시

4. 역대 부시장

순번	성 명	재 임 기 간	순번	성 명	재 임 기 간
1	朴仁敎	'73.7.1 ~ '76.4.7	2	具懿書	'76.4.7 ~ '79.6.30
3	鄭浩永	'79.7.18 ~ '80.4.30	4	宋成儀	'80.5.4 ~ '81.7.1

순번	성 명	재 임 기 간	순번	성 명	재 임 기 간
5	李載錫	'81.7.3~'82.9.19	13	張羊雲	'94.5.9~'95.4.11
6	吳世昇	'82.9.20~'85.3.10	14	禹鍾鎬	'95.4.12~'95.7.28
7	朴輔均	'85.3.11~'85.10.7	15	崔順植	'95.7.29~'96.7.17
8	權貴泰	'86.3.8~'88.6.10	16	愼重大	'96.7.18~'98.7.27
9	李承哲	'88.6.11~'88.12.31	17	崔順植	'98.9.29~'01.7.27
10	方濟煥	'89.1.1~'90.5.13	18	權斗鉉	'01.7.27~'02.7.30
11	宋仁植	'90.5.14~'93.3.29	19	徐品源	'02.8.1~2004.2.9
12	李相允	'93.3.30~'94.5.8	20	梁仁權	2004.2.10~현재

5. 시 국장 · 사업소장(2004. 7. 19 현재)

구 분	성 명	구 분	성 명
행정기획국장	한창구(韓昌求)	의회사무국장	김용겸(金龍謙)
재정경제국장	김형대(金炯大)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李洪宰)
문화복지국장	이용중(李容仲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具成秀)
보건환경국장	서형석(徐榮錫)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金宇泰)
도시주택국장	유규영(柳奎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李慶壽)
건설교통국장	김인규(金仁圭)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金榮基)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趙熹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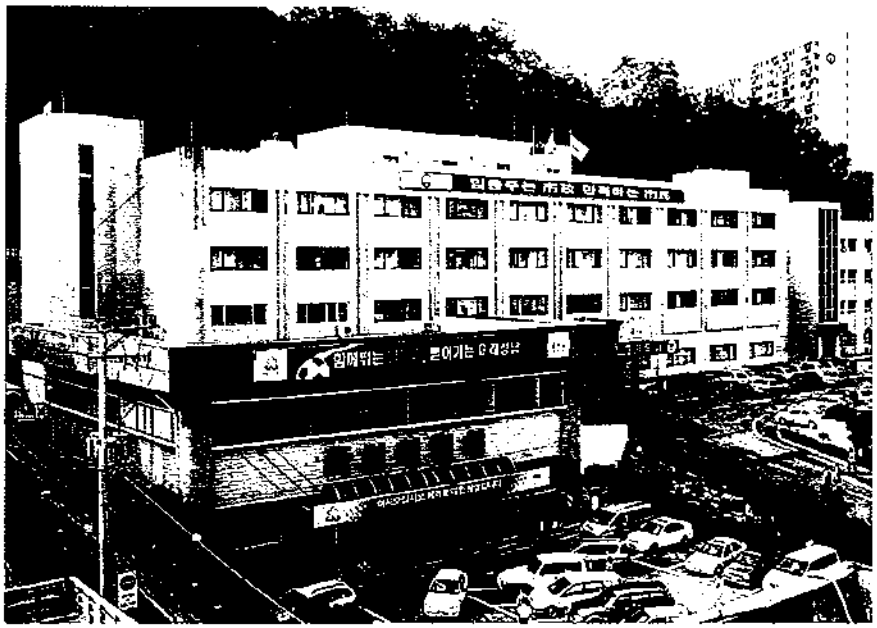
6. 시 담당관 · 과 · 소장(2004. 7. 19현재)

번호	구 분	성 명	번호	구 분	성 명
1	비서실장	이성주(李成柱)	11	기업지원과장	남봉림(南鳳林)
2	공보담당관실 과장	양경석(梁敬錫)	12	사회복지과장	이봉희(李鳳熙)
3	감사담당관실 과장	장민호(張敏浩)	13	여성정책과장	김영자(金榮子)
4	총무과장	박종창(朴鍾昌)	14	문화예술과장	황인상(黃寅相)
5	기획예산과장	정완길(鄭完吉)	15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朴革緖)
6	자치행정과장	조경희(趙慶熙)	16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장	고병국(高秉國)
7	정보통신과장	구복현(丘福鉉)	17	보건위생과장	박호신(朴鎬信)
8	지역경제과장	신현갑(申鉉甲)	18	환경보전과장	박제덕(朴濟德)
9	세정과장	한세기(韓世基)	19	녹지공원과장	박충배(朴忠培)
10	회계과장	이준영(李駿寧)	20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金榮善)

번호	구 분	성 명	번호	구 분	성 명
21	도시계획과장	김대연(金大淵)	34	수도시설과장	장현성(張鉉成)
22	도시개발과장	백충현(白忠鉉)	35	징수과장	김두만(金斗滿)
23	주택과장	장주성(張柱晟)	36	하수처리과장	박병한(朴炳漢)
24	도시정비과장	곽정근(郭程根)	37	공원운영과장	연명흠(延明欽)
25	판교개발사업단 과장	강효석(姜孝錫)	38	자원관리과장	한신수(韓新洙)
26	방재과장	김용덕(金容德)	39	탄천관리과장	진광용(陳廣龍)
27	도로과장	황호양(黃鎬瀁)	40	관리과장	이병용(李炳龍)
28	교통행정과장	정중완(鄭重完)	41	자료봉사과장	김병기(金丙基)
29	교통안전과장	이동선(李同先)	42	분당분관장	원창상(元昌常)
30	건설공사과장	김갑식(金甲植)	43	의회사무국전문위원	이준구(李埈求)
31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黃東榮)	44	의회사무국전문위원	김현일(金炫一)
32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金鎭璇)	45	의회사무국전문위원	강성희(姜聲姬)
33	수도행정과장	정걸호(鄭傑鎬)			

7. 구청장 · 과장(2004. 7. 19 현재)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부서	성명	부서	성명	부서	성명
구청장	**문금용(文金用)**	**구청장**	**남성현(南聖鉉)**	**구청장**	**박광일(朴光一)**
총무과장	이종우(李鍾佑)	총무과장	임규훈(任奎勳)	총무과장	송영수(宋永壽)
시민과장	최병문(崔炳文)	시민과장	신순호(申順浩)	시민과장	김남열(金男烈)
세무과장	문기래(文岐來)	세무과장	정창율(鄭昌律)	세무과장	정용길(鄭龍吉)
사회경제과장	엄기정(嚴基廷)	사회경제과장	강전규(姜全圭)	사회경제과장	노홍섭(盧洪燮)
환경위생과장	신희철(申熙澈)	환경위생과장	심변섭(沈玣燮)	환경위생과장	최대식(崔大植)
건설과장	박대성(朴大成)	건설과장	최운학(崔雲學)	건설과장	김응구(金應求)
허가과장	손순구(孫順九)	허가과장	전정룡(田正龍)	허가과장	김낙중(金樂重)



<사진 3-8 : 66> 수정 구청

1. 구청 현황

1) 연혁

1964년 2월24일 설치된 광주군 중부면 성남출장소 관할지역
1971년 9월13일 설치된 경기도 성남출장소 관할지역
1973년 성남시 승격
1988년 7월1일 수정출장소 신설(5과 20계)
1989년 5월1일 수정구로 승격(11과 34계)
1992년 4월1일 청사 준공(2644평)
1992년 5월1일 신청사 입주
1998년 10월 7일 직제개편(7과 34계)
2000년 10월31일 직제개편(8과 35담당)
2003년 7월16일 직제개편(7과 37팀)

2) 기본 현황

- 주소 : 수정구 수정로 365(신흥2동 30번지)
- 면적 : 45.99㎢ (시의 32.4%)
- 가구 및 인구 : 96,698세대 260,498명(2003. 1. 31 현재)
- 행정구역 : 16개 동 281통 1,569반

  신흥1동, 신흥2동, 신흥3동, 태평1동, 태평2동, 태평3동, 태평4동, 수진1동, 수진2동, 단대동, 양지동, 산성동, 복정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등 16개 행정동과 7개 법정동(창곡동, 오야동, 심곡동, 상적동, 둔전동, 사송동, 금토동)을 관할한다.

3) 구청기구

- 7과 37팀

구 청 장

과 별	사 무 분 장
총 무 과	총무, 기획감사, 주민자치, 경리, 민방위, 정보통신
시 민 과	민원, 호적, 지적정보, 지적, 토지관리
세 무 과	도세, 시세, 재산세, 세무조사, 체납세 관리, 체납세 징수
사회경제과	사회복지, 여성복지, 산업경제, 문화체육
환경위생과	환경관리, 환경보호, 위생, 청소행정, 녹지공원
건 설 과	건설행정, 방재. 토목, 소하천 관리, 교통지도, 가로경관
허 가 과	일반허가, 건축행정, 건축지도, 건축물 관리, 광고물 관리

5) 역대 구청장

순번	성명	재임기간	순번	성명	재임기간
1대	박종률 (朴鍾律)	1988. 7. 1 ~ 1989. 10. 19	7대	우병권 (禹炳權)	1998. 9. 23 ~ 2000. 4. 20
2대	김종수 (金宗洙)	1989. 10. 20 ~ 1992. 10. 7	8대	양태용 (梁泰容)	2000. 4. 21 ~ 2002. 2. 3
3대	박성진 (朴晟鎭)	1992. 10. 8 ~ 1994. 3. 28	9대	유재우 (兪在佑)	2002. 2. 1 ~ 2003. 2. 13
4대	김상희 (金相熙)	1994. 5. 12 ~ 1996. 12. 31	10대	이화순 (李和順)	2003. 2. 14 ~ 2004. 2. 9
5대	박중기 (朴中基)	1997. 1. 1 ~ 1998. 1. 2	11대	박광일 (朴光一)	2004. 2. 10 ~ 2004. 7. 2
6대	황재영 (黃在榮)	1998. 1. 3 ~ 1998. 9. 22	12대	문금용 (文金用)	2004. 7. 3 ~ 현재

6) 역대 부구청장

순 번	성 명	재 임 기 간
1 대	배기호(裵其昊)	1992. 4 .20 ~1993. 1 .29
2 대	김동승(金東昇)	1993. 1. 30 ~ 1994. 5. 25
3 대	장일남(張一男)	1994. 5. 26~ 1994. 12. 31
4 대	서완섭(徐完燮)	1995. 1. 1~ 1996. 12. 30
5 대	조수동(趙秀東)	1997. 1. 11~ 1998. 9. 22
6 대	성낙건(成樂健)	1998. 9. 23~ 1998. 10 .7

2. 동(洞) 현황(2004. 5. 30 현재)

• 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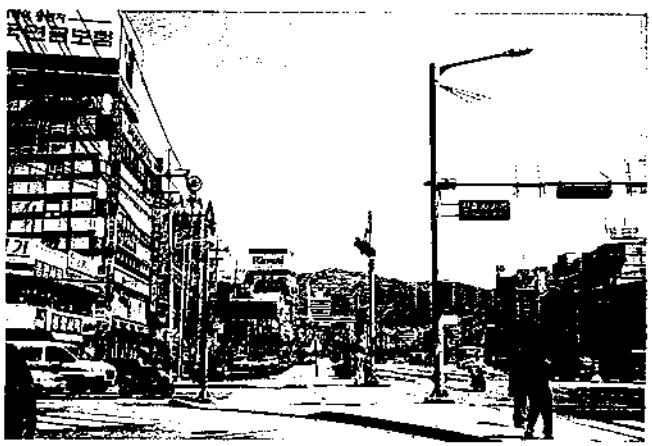
동장은 동 행정을 통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 동의 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를 담당한다.

1) 신흥1동

• 주소 : 수정구 신흥1동 5481
• 역대 동장 : 오승례, 송일선, 이무룡, 박도현, 전인호, 김용준, 조구호, 김진규, 서형석, 김우태, 박호신, 신동인
• 연혁 : 1973. 7. 1 성남시 신흥동사무소 관할
1975. 10. 1 신흥동을 신흥1동과 신흥2동으로 분동
1989. 5. 1 수정구 신흥1동으로 개편
• 공공 및 유관기관 : 성남 문화의집, 신흥동 복지회관, 소방파출소
• 주민자치 문화강좌 : 서예, 한국무용, 헬스교실, 중국어강좌, 댄스스포츠



〈사진 3-8 : 67〉 신흥 사거리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 수	인구 수	남	여
0.38㎢	1	23	120	7,840	18,344	9,217	9,127

2) 신흥2동



<사진 3-8 : 68> 신흥2동 사무소

- 주소 : 수정구 신흥2동 수정로 330(1741-5)
- 역대 동장 : 진보현, 최창수, 이종수, 안효열, 안일준, 양해통, 김원식, 서천일, 조경희, 이봉희, 정용길, 노수일, 오창선
- 연혁 : 1973. 7. 1 성남시 신흥동사무소 관할
  1975. 10. 1 신흥동을 신흥1동과 신흥2동으로 분동
  1980. 9. 1 신흥2동을 신흥2동과 신흥3동으로 분동
  1989. 5. 1 수정구 신흥2동사무소
  2002. 7. 15 (청사 신축 이전)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 수	인구 수	남	여
1.01㎢	1	37	199	12,423	24,028	17,150	16,878

- 공공 및 유관기관 : 수정구청, 신흥우체국, 성남여자중학교, 희망대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성남도서관, 우리은행

• 주민자치 문화강좌 : 영어회화(초 · 중급), 일어회화(초 · 중급), 중국어(초 · 중급), 어린이글쓰기(1~2학년), 어린글쓰기 (3~6학년), 컴퓨터기초(1,2반)

3) 신흥3동

• 주소 : 수정구 신흥3동 2819

• 역대 동장 : 안규환, 전인호, 송일선, 이선웅, 김용준, 조구호, 연명흠, 김동균, 이형선, 김병기, 최대식, 장길웅, 심변섭, 이형선

• 연혁 : 1973. 7. 1 성남시 신흥동 사무소 관할
1975. 10. 1 신흥2동 관할
1980. 9. 1 신흥2동에서 분동
1989. 5. 1 수정구 신흥3동사무소



〈사진 3-8 : 69〉 점차 주거지로 변모하는 신흥동 제1공단 (2003년)

• 공공 및 유관기관 : 성남 노동부 사무소, 성남우체국, 신흥3파출소.

• 주민자치 문화강좌 : 노래교실, 에어로빅, 헬스, 댄스스포츠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 수	인구 수	남	여
0.30㎢	1	16	79	6,049	14,100	7,095	7,005

4) 태평1동

• 주소 : 수정구 태평1동 6932

• 역대 동장 : 오승환, 김찬재, 이기남, 홍순창, 전인호, 정홍석, 안규환, 전문국, 안석태, 이근학, 박기수, 박신근, 한양희, 이종우, 안건준, 조경희, 정용길, 송기헌

• 연혁 : 1973. 7. 1 성남시 태평동사무소 관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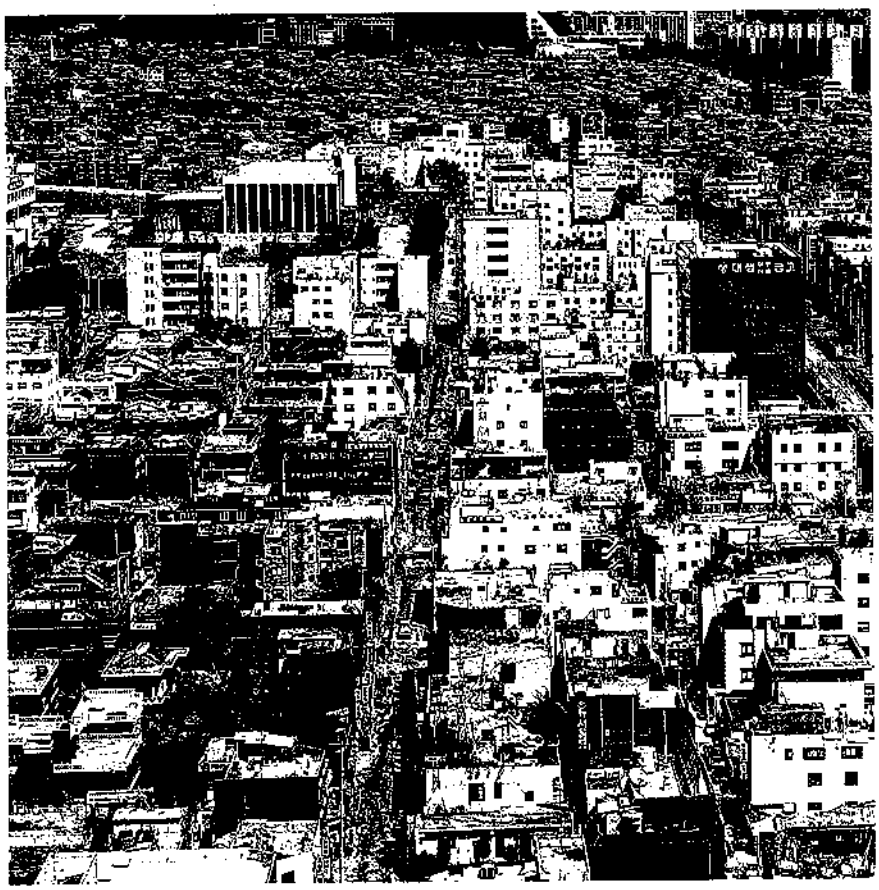
〈사진 3-8 : 70〉 모란 사거리에서 바라본 태평동

1975. 9. 1 태평동을 태평1동과 태평2동으로 분동
1980. 9. 1 태평1동을 태평1동과 태평3동으로 분동
1989. 5. 1 수정구 태평1동사무소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 수	인구 수	남	여
1.42㎢	1	19	113	8,422	19,744	10,036	9,708

- 공공 및 유관기관 : 중부경찰서, 태평중학교, 태평1파출소.
- 주민자치 문화강좌 : 피부관리, 사물놀이, 프레스플라워, 수족침, 바둑교실, 엄마와 함께 종이접기

5) 태평2동



〈사진 3-8 :71〉 태평2동을 중심으로 한 시가지

• 주소 : 수정구 태평2동 3307-2
• 역대 동장 : 송일선, 안석태, 이경상, 이선웅, 박용원, 김진규, 조재천, 이광렬, 임두빈, 심상화, 이수림, 우관명, 이종우, 김영재
• 연혁 : 1973. 7. 1 성남시 태평동 관할
1975. 9. 1 태평동을 태평1동과 태평2동으로 분동
1976. 3.13 신축청사로 이전
1989. 5. 1 수정구 태평동2동사무소
1990. 1. 1 태평2동을 태평2동과 태평4동으로 분동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 수	인구 수	남	여
0.45㎢	1	23	136	8,917	23,358	11,904	11,454

• 공공 및 유관기관 : 성남시청, 태평2동 우편취급소, 국민연금관리공단 성남지사, 태평낙원새마을금고, 태평2파출소
• 주민자치 분화강좌 : 종이공예, 바둑교실, 중국어(기초), 어린이 중국어 (기초), 노래교실, 선물포장

6) 태평3동

• 주소 : 태평3동 3752-1
• 역대 동장 : 정홍석, 이경상, 전인호, 이민구, 이선웅, 문금용, 지병조, 오준환, 김옥균, 신동인, 최성식, 임영순, 박동균, 김복녀
• 연혁 : 1973. 7. 1 성남시 태평동 관할
1975. 9. 1 태평1동 관할
1989. 9. 1 태평1동을 태평1동과 태평3동으로 분동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 수	인구 수	남	여
0.34㎢	1	20	134	6,872	18,173	9,288	8,885

• 공공 및 유관기관 : 성남서초등학교, 태평초등학교, 수진초등학교, 한국전력성남지점, 태평3파출소

• 주민자치 문화강좌 : 서예교실, 컴퓨터교실, 댄스스포츠, 종이공예교실, 일어교실, 중국어반, 장구교실, 예절교육.

7) 태평4동

• 주소 : 수정구 태평4동 3309-360
• 역대 동장 : 정홍석, 곽영각, 이종수, 김용흡, 이병용, 김영렬, 이성주, 임규훈, 이상범
• 연혁 : 1973. 7. 1 성남시 태평동 관할
1975. 9. 1 태평2동 관할
1990. 1. 1 태평2동에서 분동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 수	인구 수	남	여
0.37㎢	1	18	112	7,641	19,857	9,999	9,858

• 공공 및 유관기관 : 금빛초등학교, 태평4파출소, 성남초등학교
• 주민자치 문화강좌 : 한지공예, 종이접기, 민요교실, 노래교실, 인터넷기초, 스포츠댄스, 한자서당, 컴퓨터교실, 인터넷 가족신문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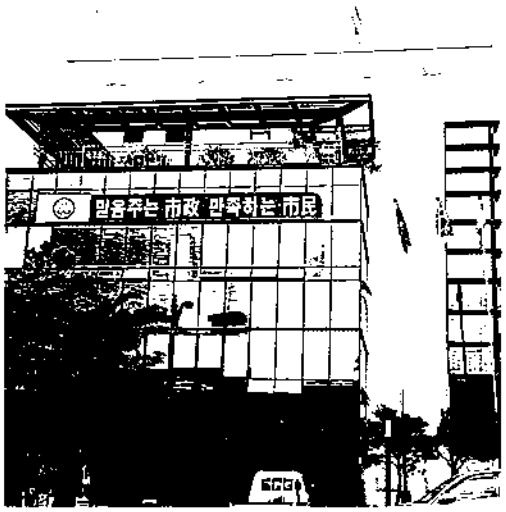
8) 수진1동

• 주소 : 수진1동 1281번지
• 역대 동장 : 우제팔, 이무룡, 진보현, 박용원, 이경상, 조재천, 한상현, 심상욱, 조희동, 이형수, 황문호, 양승기
• 연혁 : 1973. 7. 1 성남시 수진동 관할
1976. 10. 11 수진동을 수진1동과 수진2동으로 분동
1984. 11. 10 현청사 신축 이전
1989. 5. 1 수정구 수진1동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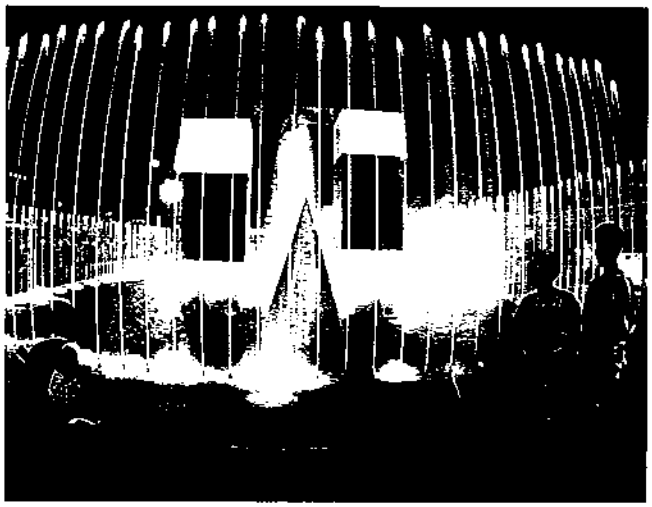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 수	인구 수	남	여
0.32㎢	1	22	129	8,450	20,378	10,294	11,084

• 공공 및 유관기관 : 농협성남시지부, 중부새마을금고, 수진1파출소, 수진1복지회관
• 주민자치 문화강좌 : 한국무용, 댄스스포츠, 노래교실, 풍물교실, 컴퓨터교실, 아동심리미술, 기초한글교실, 아동동화구연교실, 경기민요

9) 수진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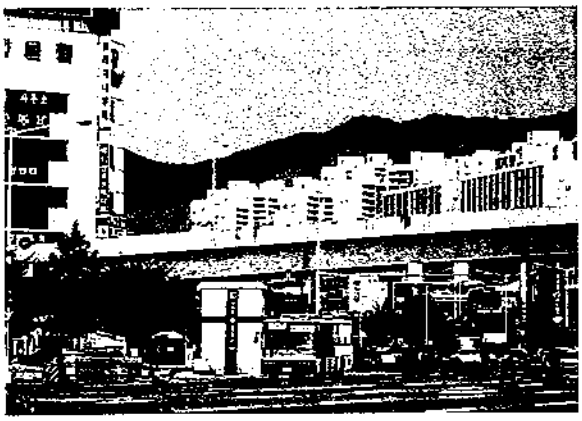
〈사진 3-8 : 72〉 수진2동사무소


〈사진 3-8 : 73〉 모란 거리 공원 분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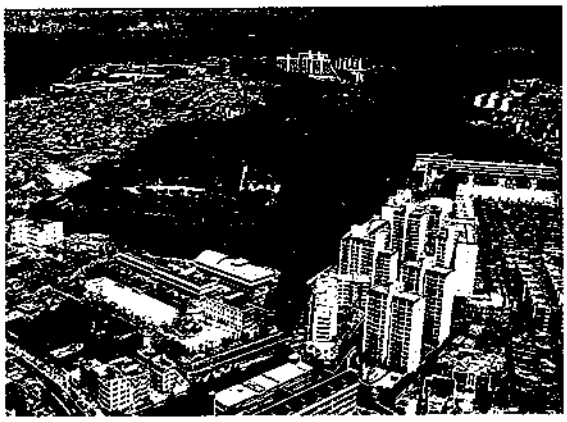
• 주소 : 수정구 수진2동 6205번지
• 역대동장 : 홍학선, 정철원, 손원배, 박도현, 권만수, 지병조, 장규호, 이동선, 정중완, 송기현, 김병기, 김성문.
• 연혁: 1973. 7. 1 성남시 수진동 관할
1976. 10. 11 수진동을 수진1동과 수진2동으로 분동
1989. 5. 1 수정구 수진2동 사무소
• 공공 및 유관기관 : 풍생고등학교, 풍생중학교, 성수초등학교, 성남제2초등학교, 수진2우체국, 성남소방서, 수진2파출소
• 주민자치 문화강좌 : 서예반, 한지공예,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단전호흡, 헬스, 건강발관리, 수족침, 영어회화, 바둑교실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 수	인구 수	남	여
0.82㎢	1	23	140	8,286	21,436	10,911	10,525

10) 단대동



<사진 3-8 : 74>단대오거리 고가차도



<사진 3-8 : 75>단대공원

- 주소 : 수정구 단대동 4012 번지
- 역대 동장 : 이병수, 이기남, 박도현, 서순택, 권만수, 이민구, 이근학, 이경상, 이인우, 이승춘, 이수림, 김원식, 최성식, 박창훈, 곽정근
- 연혁 : 1973. 7. 1 성남시 단대동 관할
  1976. 10. 8 단대동을 단대1동과 단대2동으로 분리. 단대1동으로 개칭
  1983. 5. 1 단대1동을 단대1동과 단대4동(산성동)으로 분동
  1989. 5. 1 수정구 단대동으로 개칭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 수	인구 수	남	여
0.78㎢	1	21	113	7,624	20,623	10,463	10,160

- 공공 및 유관기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성남세무서, 한국통신, 단대우체국, 단대파출소, 성보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문원 중학교, 상원여자중학교, 단대초등학교

• 주민자치 문화강좌 : 풍물놀이반, 서예교실, 기타교실, 영어회화교실, 에어로빅, 요가, 스포츠댄스, 탁구교실, 구연동화, 직장인탁구교실

11) 산성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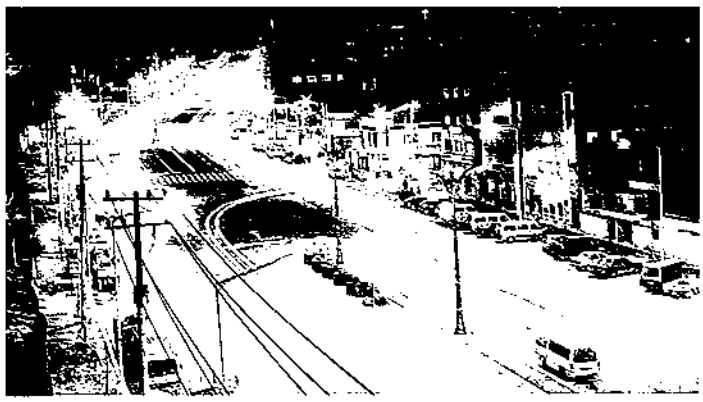
• 주소 : 수정구 산성동 2136번지
• 역대 동장 : 이병수, 손원배, 이의량, 박선각, 박용원, 임두빈, 안일준, 김영식, 노수일, 송기헌, 박동균, 김복호
• 연혁 : 1973. 7. 1 성남시 단대동 관할
1976. 10. 8 단대1동 관할
1983. 10. 1 단대1동을 단대1동과 단대4동으로 분동
1989. 5. 1 수정구 산성동으로 개칭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 수	인구 수	남	여
0.64㎢	1	19	118	6,964	18,513	9,423	9,090

•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 성남기능대학, 영성여자중학교, 창곡여자중학교, 창곡중학교, 성남북초등학교, 수정구보건소, 산성파출소, 수정문화정보센터
• 주민자치 문화강좌 : 어르신 글방 교실, 스포츠 댄스, 실버 노래교실, 저소득자녀학습지도반

12) 양지동

• 주소 : 수정구 양지동 874번지
• 역대 동장 : 안종만, 양해통, 한백민, 송의섭, 정완길, 여진구, 이동수, 이강진, 정병환
• 연혁 : 1973. 7. 1 성남시 은행동 관할
1979.12. 17 은행동을 은행1동과 은행2동으로 분동



<사진 3-8 : 76> 산성 유원지 입구 야경

은행2동 관할
1988. 7. 1 은행2동을 은행2동과 은행3동으로 분동
은행3동 관할
1989. 5. 1 수정구 양지동으로 개칭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 수	인구 수	남	여
1.26㎢	1	10	62	4,302	11,785	5,840	5,945

- 공공 및 유관기관 : 성남동중학교, 서울보건대학, 양지파출소, 성남시 청소년문화의집
- 주민자치 문화강좌 : 수지침교실, 서예교실, 건강발관리, 스포츠맛사지

13) 복정동



<사진 3-8 : 77> 복정동 주민 자치센터 개소식

- 주소 : 수정구 복정동 산32-15
- 역대 동장 : 홍학선, 오승환, 손원배, 이무룡, 서순택, 안석태, 김용준, 김진규, 조제천, 박용원, 박선각, 송의섭, 조성회, 서천일, 이재문, 최운학, 임두호, 전형조, 권준상
- 연혁 : 1973. 7. 1 성남시 복정동 창곡동 관할
  1977. 6. 10 복정동으로 통합
  1990. 6. 16 동 청사 신축 이전
- 공공 및 유관기관
  남성대 육군행정종합학교, 동서울대학, 경원대학교, 경원전문대학, 복정초등학교, 복정파출소, 창곡소방파출소
- 주민자치 문화강좌 : 요가(초 · 중급), 노래교실, 컴퓨터(기초 · 인터넷), 종이공예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 수	인구 수	남	여
6.78㎢	2	18	114	5,427	11,003	5,834	5,129

14) 신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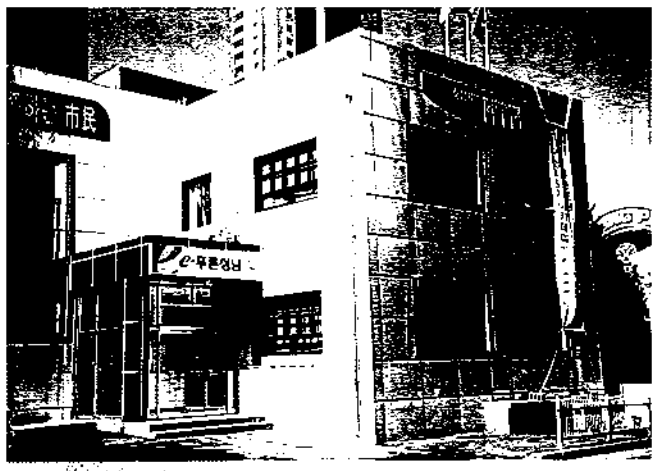
- 주소 : 수정구 오야동 257-5
- 역대 동장 : 이무룡, 서순택, 박유생, 박도현, 안석태, 이철구, 이근학, 김진규, 이준섭, 서천일, 김용식, 이상찬, 김상문, 송기현, 이갑열, 고병국, 김종한, 김진선, 전형조
- 연혁 : 1973. 7. 1 성남시 신촌동.오야동.심곡동 관할
  1977. 6. 10 신촌동사무소로 통합 개칭
  1989. 5. 1 수정구 신촌동사무소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 수	인구 수	남	여
5.01㎢	3	6	32	1,506	4,192	2,175	2,017

-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 효성고등학교
- 주민자치 문화강좌 : 노래교실, 헬스, 수지침

15) 고등동

- 주소 : 수정구 고등동 429-1
- 역대 동장 : 서순택, 손원배, 홍순창, 이근학, 전인호, 곽영각, 이종수, 한백본, 한백빈, 김성년, 정중완, 이준영, 최운학, 곽현성, 황호양
- 연혁 : 1973. 7. 1 성남시 고등동사무소 개소
  1989. 5. 1 수정구 고등동사무소



〈사진 3-8 : 78〉 고등동 사무소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수	인구수	남	여
13.47㎢	3	9	25	1,394	3,490	1,820	1,670

-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 성남농협대왕지점, 고등우체국, 왕남초등학교
- 주민자치 문화강좌 :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사물놀이, 서예반

16) 시흥동

- 주소 : 수정구 시흥동 83-6
- 역대 동장 : 안용수, 정공수, 이영식, 김운영, 전문국, 김용덕, 정홍석, 박기수, 허용, 한백빈, 임규호, 오준환, 김용흡, 유동운, 양경석, 김복호, 오홍석
- 연혁 : 1973. 7. 1 성남시 시흥동사무소
  1989. 5. 1 수정구 시흥동사무소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수	인구수	남	여
12.43㎢	3	9	27	1,150	2,892	1,508	1,384

-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성남권관리단, 세종연구소, 한국도로공사, 고등과출소.
- 주민자치 문화강좌 : 미개설

1. 구청 현황

1) 연혁

- 1964년 2월24일 설치된 광주군 중부면 성남출장소 관할지역
- 1971년 9월13일 설치된 경기도 성남출장소 관할지역
- 1973년 성남시 승격
- 1988년 7월1일 중원출장소 신설(5과 20계)
- 1989년 5월1일 중원구로 승격(11과 34계)
- 1991년 10월 20일 구청사 준공
- 1998년 10월 7일 직제개편(7과 34계)
- 2000년 10월31일 직제개편(8과 35담당)
- 2003년 7월16일 직제개편(7과 37팀)



〈사진 3-8 : 79〉 중원구청

2) 기본 현황

- 주소 : 중원구 성남동 3129번지
- 면적 : 26.39㎢ (시의 18.6%)
- 가구 및 인구 : 98,040세대 275,006명(2004. 5. 30 현재)
- 행정구역 : 10개 동 268 통 1,610 반

  성남동, 중동, 금광1동, 금광2동, 은행1동, 은행2동, 상대원1동, 상대원2동, 상대원3동, 하대원동

3) 구청기구표

• 7과 37팀

구 청 장

과 별	사 무 분 장
총 무 과	총무, 기획감사, 주민자치, 경리, 민방위, 전산통신
시 민 과	민원, 호적, 지적정보, 지적, 토지관리
세 무 과	도세, 시세, 재산세, 세무조사, 체납세관리, 체납세징수
사회경제과	사회복지, 여성복지, 산업경제, 문화체육
환경위생과	환경관리, 환경보호, 위생, 청소행정, 녹지공원
건 설 과	건설행정, 방재. 토목, 소하천관리, 교통지도, 가로경관
허 가 과	일반허가, 건축행정, 건축지도, 건축물관리, 광고물관리

5) 역대 구청장

순번	성명	재임기간	순번	성명	재임기간
1대	남중서(南重書)	1989. 5. 1 ~ 1991. 6. 26	7대	이경식(李慶植)	2000. 5. 1 ~ 2001. 12. 12
2대	박성진(朴晟鎭)	1991. 6. 27 ~ 1992. 10. 7	8대	남성현(南聖鉉)	2002. 12. 13 ~ 2002. 10. 29
3대	김종수(金宗洙)	1992. 10. 8 ~ 1995. 4. 11	9대	이수환(李秀煥)	2002. 10. 30 ~ 2003. 10. 10
4대	전태경(全泰憬)	1995. 4. 12 ~ 1995. 10. 26	10대	최경래(崔慶來)	2003. 10. 11 ~ 2004.7.2
5대	박진섭(朴珍燮)	1995. 10. 27 ~ 1998. 10. 7	11대	남성현(南聖鉉)	2004. 7. 3 ~ 현재
6대	임채국(林采國)	1998. 10. 8 ~ 2000. 4. 30			

6) 역대 부구청장

순번	성명	재임기간	순번	성명	재임기간
1대	황재영(黃在榮)	1992. 4. 20 ~ 1994. 5. 25	4대	신교철(申敎澈)	1998. 1. 3 ~ 1998. 9. 22
2대	허영회(許榮會)	1994. 5. 26 ~ 1997. 1. 1	5대	김영일(金英一)	1998. 9. 23 ~ 1998. 10. 7
3대	송기복(宋基福)	1997. 1. 9 ~ 1998. 1. 2			

2. 동(洞) 현황(2004. 5. 30 현재)

• 동장

동장은 동 행정을 통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 동의 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를 담당한다.

1) 성남동

• 주소 : 중원구 성남동 광명로 34(성남동 3292번지)

• 역대 동장 : 김찬재, 이선웅, 이경상, 우제팔, 권만수, 김창수, 안석태, 이의량, 김용준, 황병대, 한양희, 김병기, 정완길, 박창훈, 김대연, 전형조, 임두호, 김응구, 이병용

• 연혁 : 1973. 7. 1 성남시 성남동사무소
1989. 5. 1 중원구 성남동사무소
1990. 5. 1 동사무소 신축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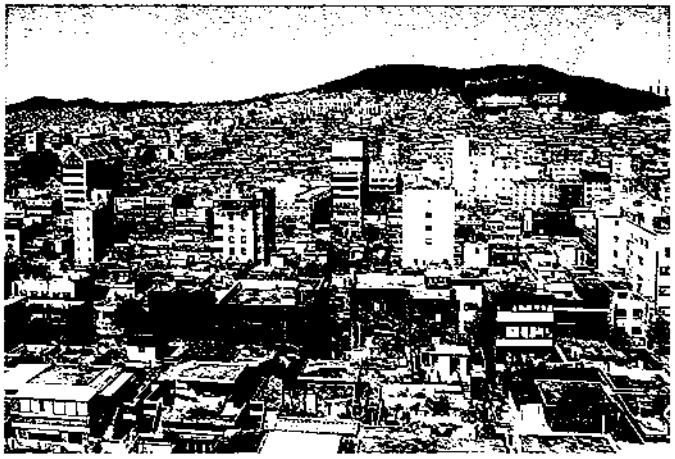
〈사진 3-8 : 80〉 모란 고가 차도 (성남동)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 수	인구 수	남	여
1.99㎢	1	28	158	12,035	29,768	15,046	14,702

• 공공 및 유관기관: 성호파출소, 중앙초등학교, 성남중학교, 성남여자고등학교, 성남서고등학교, 성일여자중학교, 성일여자고등학교, 성일정보고등학교, 성일고등학교, 성일중학교,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 주민자치 문화강좌 : 민요교실,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컴퓨터교실, 뜨게교실, 종이접기교실, 아동영어, 서예교실, 사진교실, 꽃꽂이교실

2) 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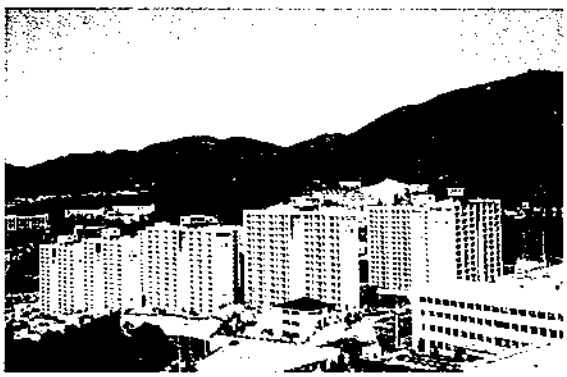


<사진 3-8 : 81>변모된 중동

- 주소 : 중원구 중동 광명로 523(7-1번지)
- 역대 동장 : 이홍종, 우제팔, 진보현, 정철현, 안효열, 정홍석, 김용덕, 박도현, 이의량, 김태옥, 박호신, 김우태, 최대식, 심변섭, 이형선, 장길웅
- 연혁 : 1973. 7. 1 성남시 중동사무소
  1989. 5. 1 중원구 중동 사무소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 수	인구 수	남	여
0.68㎢	1	30	187	11,103	26,598	13,552	13,046

- 공공 및 유관기관 : 중동파출소, 성남제1초등학교, 농협중앙로지점, 하나은행성남지점, 성남중앙신협, 중동새마을금고
- 주민자치 문화강좌 : 단전호흡, 스포츠댄스(초 · 중급반), 에어로빅, 우리춤체조, 서예교실, 게이트볼, 풍물교실(초 · 중급), 노래교실, 창교실(초 · 중급), 제과제빵교실



<사진 3-8 : 82>금광지구 시영아파트

3) 금광1동

- 주소 : 중원구 금광1동 1348번지
- 역대 동장 : 고유복, 최병원, 박기수, 심상옥, 전문국, 최병대, 조성희, 김용식, 정석모, 신수철, 한신수, 문경수
- 연혁 : 1973. 7. 1 성남시 단대동 관할
  1976. 10. 8 단대2동 관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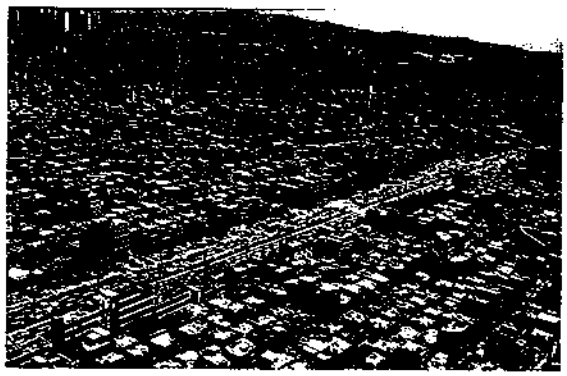
1977. 11. 14 청사신축 이전
1980. 9. 1 단대2동을 단대2동과 단대3동으로 분동
1989. 5. 1 단대2동에서 중원구 금광1동으로 개칭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 수	인구 수	남	여
0.72㎢	1	29	177	11,184	28,672	14,531	14,147

- 공공 및 유관기관 : 금광1파출소, 단남초등학교, 금상초등학교, 하원초등학교, 금광중학교, 대원여자중학교, 농협, 축협, 새마을금고
- 주민자치 문화강좌 : 발맛사지, 설장고, 사진반, 서예교실, 컴퓨터교실, 요가, 실버종이접기, 한글기초교실, 실버요가, 실버컴퓨터교실, 한국무용, 경기민요, 생활영어, 댄스스포츠, 사군자, 구슬공예, 종이공예, 퀼트공예, 펜글씨, 어린이발레, 바둑교실, 종이접기, 글쓰기교실, 공식한자(기초반)

4) 금광2동

- 주소 : 중원구 광명로 611(금광2동 3657번지)
- 역대 동장 : 김운영, 이영식, 서순택, 홍준표, 안석태, 최병원, 윤광섭, 김용덕, 김용준, 김용봉, 조기환, 김병기, 이종우, 임영순
- 연혁 : 1973. 7. 1 성남시 단대동 관할
  1976. 10. 8 단대2동 관할
  1980. 9. 1 단대2동을 단대2동과 단대3동으로 분동
  1989. 5. 1 단대3동에서 중원구 금광2동으로 개칭



〈사진 3-8 : 83〉단대 · 금광동 지역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 수	인구 수	남	여
1.01㎢	1	31	188	11,702	30,421	15,266	15,155

• 공공 및 유관기관 : 성남동초등학교, 하나은행, 금광우체국, 새마을금고, 축협, 중앙신협, 중앙병원, 신구전문대학, 숭신여자중학교, 숭신여자고등학교

• 주민자치 문화강좌 : 풍물놀이, 서예교실, 독서체험교실, 중국어, 노래교실, 아동공부방, 노인게이트볼, 공식한자주부반, 댄스스포츠, 컴퓨터교실, 요가반, 인터넷교실, 만남의장

5) 은행1동

• 주소 : 중원구 은행1동 은행길 10(2192번지)

• 역대 동장 : 박도현, 홍학성, 안석태, 홍순표, 박용원, 박선각, 허용, 이준섭, 이무룡, 한상현, 장규호, 나광일, 이해진, 원창상, 정용길, 남봉림, 정석모, 이준구, 박상복

• 연혁 : 1973. 7. 1 성남시 은행동 관할
1979. 9. 1 은행동을 은행1동과 은행2동으로 분동
1989. 5. 1 중원구 은행1동사무소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 수	인구 수	남	여
0.21㎢	1	14	88	5,125	15,315	7,724	7,591

• 공공 및 유관기관 : 새마을금고

• 주민자치 문화강좌 : 서예교실, 종이공예반, 종이접기반, 한문교실(초 · 중급), 어린이영어교실, 컴퓨터교실, 댄스스포츠, 주부노래교실, 중국어회화반, 영어회화반, 민요교실

6) 은행2동

• 주소 : 중원구 은행2동 2길 35
(1032번지)

• 역대 동장 : 송일선, 송시현, 홍순창, 윤광섭, 이무룡, 고유복, 김용덕, 양해동, 서천일, 박혁서, 김옥균, 이갑열, 조기환, 김복호, 문기

래, 김종한, 채수상

- 연혁 : 1973. 7. 1 성남시 은행동 관할
  1979. 9. 1 은행동을 은행1동과 은행2동으로 분동
  1989. 5. 1 중원구 은행2동사무소
- 공공 및 유관기관 : 은행2파출소, 은행소방파출소, 상원초등학교, 은행초등학교, 은행중학교, 국민은행, 우리은행, 동부새마을금고
- 주민자치 문화강좌 : 중국어반, 영어반, 주부노래, 단전호흡, 서예반, 동화구연, 헬스, 스포츠댄스(초 · 중급), 글쓰기, 영화상영, 비디오감상, 인터넷정보검색, 노인컴퓨터, 주부컴퓨터



〈사진 3-8 : 84〉남한산성 버스종점 부근 고가차도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 수	인구 수	남	여
2.54㎢	1	39	330	15.523	43,719	21,884	21,835

7) 상대원1동

- 주소 : 중원구 상대원1동 박석고개1길 69(1495번지)
- 역대 동장 : 김행시, 안효열, 송일선, 김창수, 박선각, 양해통, 안종만, 전문국, 임규호, 한백본, 남철현, 문기래, 김준철, 송영수, 이일용, 서정덕
- 연혁 : 1973. 7. 1 상대원사무소 관할
  1978. 12. 14 상대원동을 상대원1동과 상대원2동으로 분동
  1980. 9. 1 상대원 1동을 상대원1동과 상대원3동으로 분동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 수	인구 수	남	여
6.8㎢	1	35	201	12,669	35,694	18,572	17,122

• 공공 및 유관기관 : 상대원1파출소, 상대원1소방파출소, 중원초등학교, 상대원초등학교, 농협선경지점,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한미은행, 새마을금고, 성남 산업단지관리공단

• 주민자치 문화강좌 : 서예교실, 사군자반

8) 상대원2동

• 주소 : 중원구 상대원2동 3159 번지

• 역대 동장 : 이동선, 박용원, 정철현, 안효열, 조구호, 최병원, 김용덕, 황안상, 이갑열, 김병길, 김동균, 고병국, 이병룡, 노수일, 임규훈

• 연혁 : 1973. 7. 1 성남시 상대원동 관할
1978. 12. 14 상대원동을 상대원1동과 상대원2동으로 분동
1989. 5. 1 중원구 상대원2동사무소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 수	인구 수	남	여
0.68㎢	1	22	141	8,320	21,241	10,917	10,324

• 공공 및 유관기관 : 상대원2파출소, 대원초등학교, 농협상대원지점, 국민은행, 상대원우체국, 새마을금고 상대원지점

• 주민자치 문화강좌 : 풍물교실, 종이접기교실, 아동미술, 글쓰기교실, 과학교실,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서예교실, 동화구연, 인터넷, 독서실, 비디오방, 헬스, 아동스포츠댄스, 노래교실

9) 상대원3동

• 주소 : 중원구 상대원3동 박석고개길 116(856번지)

• 역대 동장 : 이종수, 이무룡, 박선각, 전문국, 이해진, 한상현, 박석현, 이용중, 이병룡, 송기헌, 송영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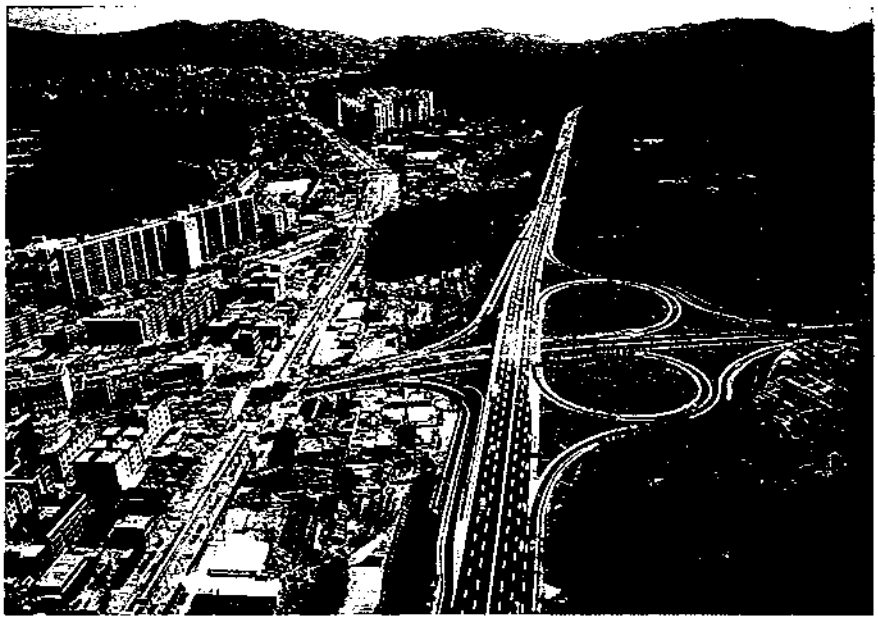
• 연혁 : 1973. 7. 1 성남시 상대원동 관할

1980. 9. 1 상대원1동에서 분동
1989. 5. 1 중원구 상대원3동사무소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 수	인구 수	남	여
0.31㎢	1	19	118	7,364	19,208	9,957	9,251

- 공공및 유관기관 : 상대원3파출소, 대일초등학교, 농협, 동부새마을금고
- 주민자치 문화강좌 : 도서열람, 인터넷검색, 헬스교실, 노래교실, 국선도교실, 스포츠댄스, 영어교실, 영화감상, 수지침, 무료이미용

10) 하대원동



<사진 3-8:85>경충국도 인터체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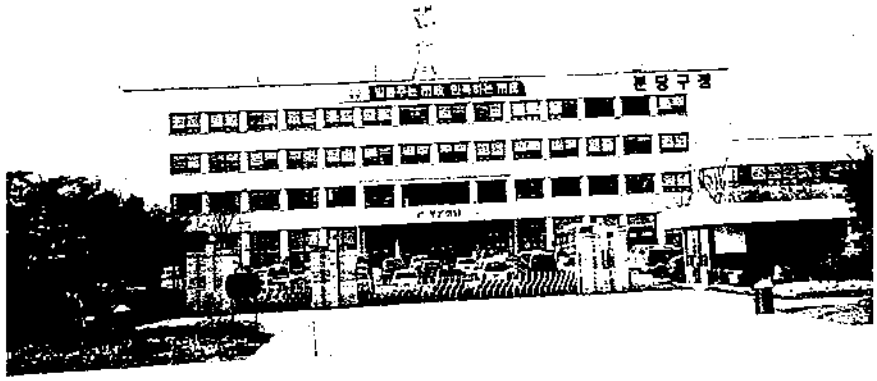
- 주소 : 중원구 하대원동 공단로 200(145-1번지)
- 역대 동장 : 박상규, 음수영, 전인호, 안석태, 권만수, 이의량, 김진규, 양해통, 고유복, 윤광섭, 지병조, 최병대, 이용희, 김용식, 조성희, 박종창, 김현일, 이준영, 백종춘, 김영자, 박창훈
- 연혁 : 1973. 7. 1 성남시 여수동사무소 관할 (여수, 도촌, 갈현, 하대원)
  1989. 5. 1 중원구 여수동사무소

1991. 9. 17 도촌동 여수동 일부를 분당구 야탑동에 편입
2000. 10.18 여수동을 하대원동으로 명칭 변경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 수	인구 수	남	여
11.9㎢	4	25	150	7,383	22,913	11,783	11,130

- 공공 및 유관기관 : 하대원파출소, 하대원복지회관, 검단초등학교, 대하초등학교, 영성중학교, 성남공업고등학교, 성남농협, 중원새마을금고
- 주민자치 문화강좌 ; 헬로빅스, 스포츠댄스, 시민건강강좌, 퀼트, 종이공예, 자동차정비교실, 리본선물포장, 서예사군자, 사진교실, 화초관리, 화훼장식, 풍물교실, 동화구연, 만화그리기, 한자교실, 독서지도, 실버건강교실, 중국어강좌, 영화감상, 인터넷방, 체련단련, 유아방

1. 구청 현황



<사진 3-8 : 86>분당구청

1) 연혁

- 1971년 9월13일 설치된 경기도 성남출장소 관할지역
- 1973년 성남시 관할
- 1988년 7월1일 중원출장소 관할
- 1989년 5월1일 중원구 관할
- 1989년 5월 27일 분당출장소 개소
- 1991년 9월 17일 분당구로 승격
- 1998년 10월 7일 직제개편(7과 34계)
- 2000년 10월31일 직제개편(8과 35담당)
- 2003년 7월16일 직제개편(7과 37팀)

2) 기본 현황

- 주소 : 분당구 분당로 22(수내동 1번지)
- 면적 : 개발지역 19.64㎢(구의 28%), 농촌지역 49.79㎢(구의 78%)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 9.32㎢
- 가구 및 인구: 134,369세대, 인구410,941명(2004. 5. 31 현재)
- 행정구역 : 18개 동 513통 3145반
  분당동, 수내1동, 수내2동, 수내3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서현1동, 서현2동, 이매1동, 이매2동, 야탑1동, 야탑2동, 야탑3동, 판교동, 금곡동, 구미동, 운중동

4) 구청 기구표

- 7과 37팀

구 청 장

각 별	사 무 분 장
총 무 과	총무, 기획감사, 주민자치, 경리, 민방위, 전산통신
시 민 과	민원, 호적, 지적정보, 지적, 토지관리
세 무 과	도세, 시세, 재산세, 세무조사, 체납세관리, 체납세징수

구 청 장

세 무 과	도세, 시세, 재산세, 세무조사, 체납세관리, 체납세징수
사회경제과	사회복지, 여성복지, 산업경제, 문화체육
환경위생과	환경관리, 환경보호, 위생, 청소행정, 녹지공원
건 설 과	건설행정, 방재, 토목, 소하천관리, 교통지도, 가로경관
허 가 과	일반허가, 건축행정, 건축지도, 건축물관리, 광고물관리

5) 역대 구청장

순번	성명	재임기간	순번	성명	재임기간
1대	김종태(金鍾泰)	1991. 9.17 ~ 1995. 5.19	7대	임채국(林采國)	2000. 5. 1 ~ 2001. 7.14
2대	박진섭(朴珍燮)	1995. 5.27 ~ 1995.10.26	8대	이상철(李相喆)	2001. 9.17 ~ 2002.10.29
3대	전태경(全泰憬)	1995.10.27 ~ 1997.12.31	9대	남성현(南聖鉉)	2002.10.30 ~ 2003.10.10
4대	박중기(朴中基)	1998. 1. 3 ~ 1998. 7.18	10대	이상철(李相喆)	2003.10.11 ~ 2004. 7. 2
5대	허영회(許榮會)	1998. 7.20 ~ 1998.10. 7	11대	박광일(朴光一)	2004. 7. 3 ~ 현재
6대	김영일(金英一)	1998.10. 8 ~ 2000. 4.30			

6) 역대 부구청장

순 번	성 명	재 임 기 간
1대	김문규(金文圭)	1992. 10. 1 ~ 1994. 1. 27
2대	임채국(林采國)	1994. 1. 28 ~ 1995. 5. 26
3대	최병석(崔炳哲)	1995. 5. 27 ~ 1996. 12. 31
4대	성낙건(成樂健)	1997. 1. 9 ~ 1998. 1. 2
5대	강예현(姜禮鉉)	1998. 1. 3 ~ 1998. 11. 16

2. 동(洞) 현황(2004. 5. 30 현재)

• 동장

동장은 동 행정을 통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 동의 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를 담당한다.

1) 분당동



〈사진 3-8 : 87〉분당 시가지 야경

• 주소 : 분당동 42번지

• 역대 동장 : 박명원, 이동선, 강태희, 권만수, 허용, 안석태, 이준섭, 이종수, 임규호, 이기현, 오준환, 이혜진, 김상문, 조경희, 고병국, 박석홍

• 연혁 : 1971. 9. 13 돌마면 관할에서 성남출장소 관할 개편

1973. 7. 1 성남시 승격에 따라 분당, 정자, 수내, 율동이라 칭하고 동사무소를 분당동에 개소

1974. 12. 31 분당동 157-28번지로 청사신축 이전

1991. 9. 17 분당 신도시 조성에 따라 서현동 89-4 시범단지내로 청사신축 이전

1992. 6. 1 분당동 42번지 현청사로 이전 개소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 수	인구 수	남	여
3.4㎢	1	37	201	10,983	31,842	15,631	16,211

• 공공 및 유관기관 : 장안파출소,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복합화력발전소, 분당대진고등학교, 당촌초등학교, 장안초등학교, 장안중학교, 한미은행

• 주민자치 문화강좌 : 수채화반, 댄스스포츠(초 · 중급), 리본공예, 한국무용, 아동미술(유치부), 아동미술(초등부), 종이접기(유치부), 종이접기(초등부), 수족침, 민요춤반, 차밍댄스, 탁구(초 · 중급), 서예반, 영어회화, 사물놀이

2) 수내1동

- 주소 : 분당구 수내1동 30번지
- 역대 동장 : 장규호, 조성희, 김용식, 이종우, 서동주, 임규훈, 오창선, 문기래, 박석홍, 정순방
- 연혁 : 1989. 5. 4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1991. 7. 1 분당구 출장소 설치
  1991. 9. 17 분당구 승격
  1992. 5. 1 초림동사무소 개소
  2001. 1. 1 행정동 일치로 동 명칭 변경 : 초림동 → 수내1동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 수	인구 수	남	여
1.03㎢	1	27	166	6,628	18,166	8,924	9,242

- 공공 및 유관기관 : 초림초등학교, 분당고등학교, 롯데백화점
- 주민자치 문화강좌 : 서예반, 무용반, 노래반, 종이접기반, 단전호흡반, 스포츠댄스(초·중급), 컴퓨터(기초반), 컴퓨터(중급)

3) 수내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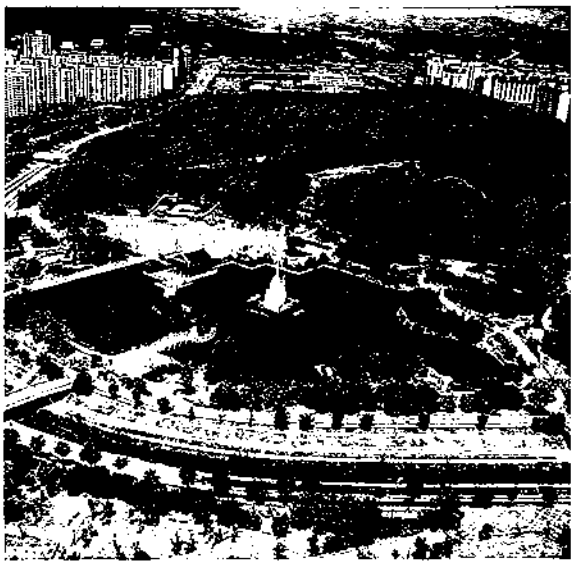
<사진 3-8 : 88>분당 중앙공원

- 주소 : 분당구 수내동 59
- 역대 동장 : 최웅렬, 김형대, 여진구, 박석현, 김복녀, 김종한, 정창율, 박충배
- 연혁 : 1993. 6. 5 분당동에서 내정동으로 분동
  1995. 3. 6 정자동 분동(한솔, 느티, 상록, 정든마을)
  2001. 1. 1 행정동 명칭 변경(내정동 → 수내2동)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 수	인구 수	남	여
0.81㎢	1	16	92	3,806	12,307	6,036	6,271

- 공공 및 유관기관 : 내정파출소, 내정우체국, 내정초등학교, 내정중학교, 하나은행(파크타운지점), 하나은행(분당지점), 외환은행
- 주민자치 문화강좌 ; 서예반, 수족침(초 · 중급), 하모니카(초 · 중급), 가야금, 신문활용교육(저학년), 신문활용교육(고학년), 생활영어(기초), 생활영어(일반), 한지공예, 기타교실, 종이접기(유아), 종이접기(중등), 동화구연, 크리스탈비즈공예, 탁구교실, 사물놀이(초 · 중급), 한국무용, 요가교실

4) 수내3동





〈사진 3-8 : 89〉분당중앙공원 설경(우)과 하경(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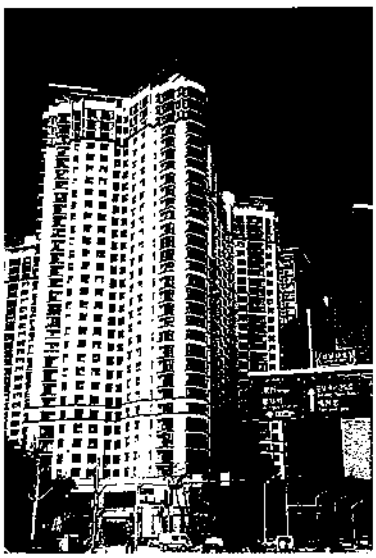
- 주소 : 분당구 수내동 80번지
- 역대 동장 : 김태옥, 김용준, 김정규, 윤판원, 강정환, 이병용, 남철현, 홍덕표, 강전규, 이희원, 차종희

• 연혁 : 1989. 5. 4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1991. 7. 1 분당구 출장소 설치
1991. 9. 17 분당구 승격
1993. 1. 20 수내동사무소 개소
2001. 1. 1 동 명칭 변경 : 수내동 →수내3동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 수	인구 수	남	여
0.94㎢	1	18	123	5,468	16,773	8,264	8,509

• 공공 및 유관기관 : 수내파출소, 동국대분당한방병원, 수내초등학교, 수내중학교, 수내고등학교, 수협, 조흥은행, 국민은행
• 주민자치 문화강좌 : 영어회화, 일어회화, 서예교실, 한문교실, 꽃장식 과선물포장, 구슬공예, 리본아트, 종이접기, 탁구교실, 발건강관리, 고전무용, 장구교실, 차밍댄스, 수채화, 어린이실용한자

5) 정자1동


〈사진 3-8 : 90〉 고층아파트 (정자동)

• 주소 : 분당구 신기길 35(정자동 147)
• 역대 동장 : 장규호, 한세기, 김성년, 김용덕, 한신수, 홍 규
• 연혁 : 1973. 7. 1 성남시 낙생출장소 금곡리 관할
1989. 5. 1 중원구 낙생출장소 금곡리 관할
1991. 9. 17 분당구 분당동 관할
1993. 6. 5 분당구 내정동 관할
1995. 3. 7. 분당구 정자동으로 분동
1996. 1. 15 분당구 금곡동과 정자동 일부를 나누어 신기동을 신설
2001. 1. 1 신기동을 정자1동으로 명칭 변경

• 공공 및 유관기관 : 내정파출소, 정자소방파출소, 신기초등학교, 늘푸른초등학교, 백현초등학교, 분당중학교,

정자중학교, 백현중학교, 국민은행정자지점, 국민은행 백궁지점, 하나은행 정자지점, 신한은행 정자지점, 낙생농협 신기지소, 성남농협 정자지소, 수협 분당지점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 수	인구 수	남	여
2.4㎢	1	46	266	13,440	38,731	19,155	19,576

• 주민자치 문화강 : 한지공예, 가야금, 어린이풍물교실, 수채화초급, 노래교실, 중국어초급, 요가A반, 요가B반, 공식한자중급반, 서예반, 만돌린(초 · 중 · 고급), 댄스스포츠(초 · 중급), 한국무용(초급), 한국무용(중급), 문인화, 강령탈춤, 한국무용(고급), 크리스탈구슬공예, 수채화초급, 섹스폰, 기타교실, 경기민요, 수채화중급, 풍물교실, 서예교실

6) 정자2동

• 주소 : 분당구 정자동 118번지
• 역대 동장 : 이용선, 이형수, 김성연, 임영순, 안건준, 송영수, 정석모, 최성식
• 연혁 : 1991. 9. 17 신도시 조성에 따른 분당동 개소
1993. 6. 5 분당동에서 내정동으로 분동
1995. 3. 7 내정동에서 정자동으로 분동
2001. 1. 1 정자2동으로 동 명칭 변경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 수	인구 수	남	여
0.54㎢	1	34	206	8,300	21,476	10,375	11,101

• 공공 및 유관기관 : 한솔초등학교, 한솔고등학교
• 주민자치 문화강좌 : 노래교실, 종이접기, 동화구연, 댄스스포츠, 장구교실, 서예교실, 수채화교실, 전통무용, 인터넷방,

문화사랑방, 체력단련장, 초등영어, 영어동화읽기, 중학영어, 글쓰기, 일어교실, 어린이한자교실

7) 정자3동

- 주소 : 분당구 정자동 201(돌마로 140)
- 역대 동장 : 최웅열, 정용길, 유동운, 이일룡, 김준철
- 연혁 : 1993. 6. 5 분당동에서 내정동으로 분동
  1995. 3. 7 내정동에서 정자동으로 분동
  1996. 1. 15 정자동에서 불정동으로 분동
  2001. 1. 1 불정동에서 정자3동으로 명칭 변경

면 적	법정동	통	반	기구 수	인구 수	남	여
1.92㎢	1	21	125	6,697	19,299	9,487	9,812

- 공공 및 유관기관 : 한국토지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통신공사, 탄천초등학교, 불정초등학교, 분당중앙고등학교, 게원예술고등학교, 이마트, 한미은행, 외환은행(토지공사지점), 외환은행(가스공사지점)
- 주민자치 문화강좌 : 영어회화(고급), 서예교실, 수채화반(성인), 퀼트, 동화와 독후활동 (저학년 1,2,3), 동화와 독후활동(고학년 4,5,6), 성인한문교실, 일어회화(초·중급), 영어동아리(외국인), 동양화(매월 2,3주), 가요교실, 영어회화(초·중급), 성인유화, 다언어교실, 창의성교실, 바둑교실, 어린이한문, 노래교실(씨씨클래시 등), 악기교실(플롯, 바이올린), 스포츠댄스(30~60대), 어린이수채화반, 중국어회화(초·중급), 악기교실(첼로), 고전무용, 체력단련(회원제), 인터넷방

8) 서현1동



<사진 3-8 : 91> 서현1동 삼성프라자 주변

- 주소 : 분당구 서현동 89-4번지
- 역대 동장 : 임규호, 한백빈, 김용식, 장민호, 김영선, 이봉희, 원창상, 백종춘, 한세기, 김종한
- 연혁 : 1989. 5. 4 택지개발 예정지구
  1991. 7. 1 분당출장소 개소
  1992. 5. 1 서현동 개소
  2001. 1. 1 서현1동으로 명칭 변경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 수	인구 수	남	여
7.57㎢	2	33	240	11,472	33,405	16,403	17,002

- 공공 및 유관기관 : 서현파출소, 서현우체국,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분당제생병원, 분당올림픽 스포츠센터, 국군통합병원, 서현초등학교, 분당초등학교, 서현중학교, 서현고등학교
- 주민자치 문화강좌 : 서예(초 · 중급), 리본공예, 일어, 영어, 한지공예,

판소리교실, 유화, 사진반, 주부노래교실, 중국어, 한자교실, 영어교실, 비즈공예, 퀼트

9) 서현2동

- 주소 : 분당구 서현동 296번지
- 역대 동장 : 이기현, 이준영, 한양희, 홍 규, 이일용, 김영자
- 연혁 : 1971. 9. 13 돌마면 관할에서 성남출장소 관할 개편
  1993. 1. 20 분당동 관할에서 서당동으로 분동 개소
  2001. 1. 1 분당구 서현2동으로 명칭 변경

(표 8-365) 행정현황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 수	인구 수	남	여
0.79㎢	1	24	149	7,480	22,582	11,178	11,404

- 공공 및 유관기관 : 없음
- 주민자치 문화강좌 : 탁구교실, 기공체조, 스포츠댄스, 한지공예, 동화구연, 일어회화(초·중급), 어린이미술, 서예, 유화, 노래교실, 사물놀이, 한자교실, 기공체조

10) 이매1동

- 주소 : 분당구 이매동 109
- 역대 동장 : 강태희, 김운영, 우제팔, 손원배, 고유복, 이철구, 양해통, 권만수, 이경상, 곽영각, 김태옥, 이철섭, 황동영, 이준구, 신수철, 이종우, 남철현
- 연혁 : 1964. 4. 1 광주군 직할 돌마출장소 설치
  1973. 7. 1 성남시 승격
  이매동사무소 및 돌마출장소 개칭
  1977. 6. 10 이매동사무소로 통합 개편
  1988. 7. 1 중원출장소 개소로 돌마출장소 업무를 중원출장소에 서인수

1989. 5. 1 중원구 승격으로 중원구 이매동으로 개편
1991. 7. 1 분당출장소 설치로 분당출장소 이매동으로 개정
1993. 1. 20 행정구역개편으로 매송, 하탑동으로 분동
1993. 6. 5 행정구역개편으로 야탑, 중탑동으로 분동
1993. 9. 15 동 청사 신축 이전(이매동 96-2 →109번지)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 수	인구 수	남	여
2.90㎢	1	30	209	10,026	30,337	15,119	15,218

- 공공 및 유관기관 : 이매소방파출소, 한국통신, 성남상공회의소, 안말초등학교, 이매초등학교, 이매중학교, 송림중학교, 송림고등학교, 돌마고등학교, 국민은행, 하나은행, 한미은행
- 주민자치 문화강좌 : 테디베어, 한지공예, 리본, 중국어(초 · 중급), 탁구(초 · 중급), 생활영어, 노래교실, 요가(초 · 중급), 우리춤체조교실

11) 이매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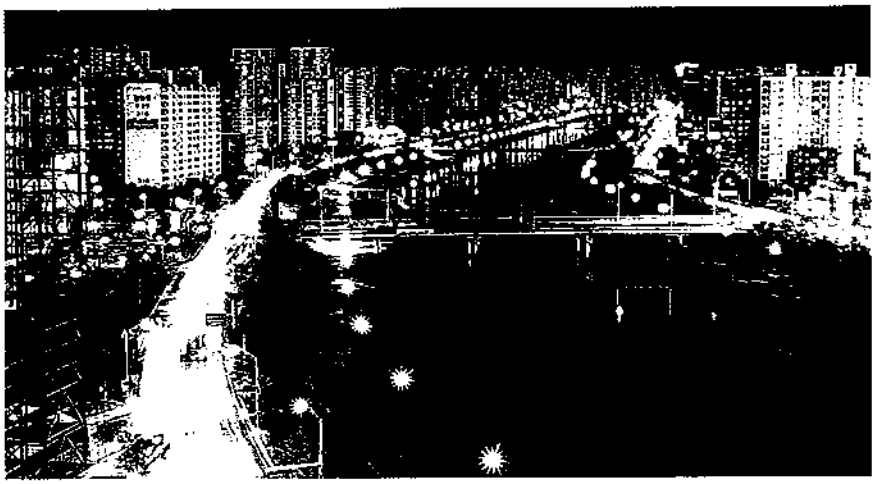
- 주소 : 분당구 이매동 138번지
- 역대 동장 : 안호욱, 양경석, 황효순, 엄기정, 이갑열, 안건준
- 연혁 : 1971. 9. 13 돌마면 관할에서 성남출장소 관할 개편
  1976. 6. 10 이매동사무소 설치 통합
  1991. 9. 17 분당구 이매동사무소
  1993. 1. 20 이매동에서 매송동으로 분동
  2001. 1. 1 매송동에서 이매2동으로 동 명칭 변경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 수	인구 수	남	여
0.68㎢	1	22	121	5,188	16,746	8,183	8,563

• 공공 및 유관기관 : 매송초등학교, 매송중학교, 이매고등학교, 우리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 주민자치 문화강좌 : 만화교실A · B, 다언어활동, 서예교실, 생활도자기, 노래교실, 에어로빅, 구연동화, 종이접기, 사군자교실, 요가교실, 춤체조교실

12) 야탑1동



<사진 3-8 : 92> 야탑동 탄천 야경

• 주소 : 분당구 야탑1동 363번지

• 역대 동장 : 김남구, 심상욱, 신현갑, 조기환, 오창선, 장길웅, 최대식, 이형선, 심변섭

• 연혁 : 1993. 6. 5 이매동에서 분동 야탑동사무소 개소
2001. 1. 1 행정동명칭 변경 (야탑동에서 야탑1동으로 개칭)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 수	인구 수	남	여
1.16㎢	1	24	173	7,596	20,883	10,364	10,519

• 공공 및 유관기관 : 야탑동우체국, 분당차병원, 야탑초등학교, 야탑중학교, 킴스아울렛, 까르푸, 세신옴니코아, 판보스포츠 쇼핑센터, 국민은행, 기업은행, 서울은행, 우리은행, 한미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분당신협

• 주민자치 문화강좌 : 서예, 수채화, 한지민속그림, 생활일어회화, 종이공예, 선물포장, 노래교실, 한국무용, 풍물교실(중급), 생활영어회화, 발마사지, 댄스스포츠, 요가, 미술심리(유아), 미술심리(아동)

13) 야탑2동

• 주소 : 분당구 야탑동 508번지
• 역대 동장 : 박신근, 이종수, 김용현, 최민성, 김영배, 김한섭, 최봉순, 이정하, 이병용, 문기래
• 연혁 : 1993. 1. 20 이매동에서 분당구 하탑동으로 분동, 동사무소 개소
2001. 1. 1 하탑동에서 야탑2동으로 동 명칭 변경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 수	인구 수	남	여
0.64㎢	1	23	148	6,537	19,763	9,591	10,172

• 공공 및 유관기관 : 야탑파출소, 하탑초등학교, 돌마초등학교, 하탑중학교, 에이스쇼핑, 농협, 조흥은행, 주택은행
• 주민자치 문화강좌 : 일본어(초급), 서예교실, 꽃집창업반, 수채화, 한지민속그림, 한국무용(초급), 노래교실, 사물놀이(초급), 수지침, 플룻 및 바이올린, 요가(초급), 지함공예(초급), 발맛사지, 중국어(초급), 스포츠댄스(초급), 바둑교실, 동기타교실

14) 야탑3동

• 주소 : 분당구 야탑동 307번지
• 역대 동장 : 김용흠, 유인선, 정걸호, 심상화, 정성모, 오홍석, 최성식, 고병국
• 연혁 : 1993. 6. 5 성남시 분당구 중탑동사무소 개소
2001. 1. 1 야탑3동사무소 행정동 명칭 변경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 수	인구 수	남	여
5.08㎢	1	43	266	12,646	35,754	17,917	17,837

- 공공 및 유관기관 : 야탑3파출소, 야탑3동대본부, 농협, 새마을금고
- 주민자치 문화강좌 : 다언어교실, 생활영어, 생활일어, 동양화, 장고교실, 기초데생, 스포츠댄스(초급), 종이접기교실, 창의력교실, 독후감활동, 헬스교실, 바둑교실, 중국어교실, 유화(데생), 닥종이공예, 수채화교실

15) 판교동

- 주소 : 분당구 판교동 259-15번지
- 역대 동장 : 이인범, 이무룡, 이철구, 인규환, 박도현, 전인호, 안종만, 임규호, 이선웅, 장민호, 안일준, 임두빈, 김복녀, 이재영, 진광용, 김대연, 김현일, 이병용, 곽현성
- 연혁 : 1910. 3. 6 광주군 낙생면 설치
  1971. 9. 13 경기도 성남출장소 낙생지소 설치
  1973. 7. 1 시제 실시(판교, 삼평, 백현)
  1975. 3. 17 낙생출장소 설치
  1976. 6. 10 판교동으로 변경
  1988. 7. 1 낙생출장소 폐지
  1989. 5. 1 중원구 판교동
  1991. 9. 17 분당구 판교동
  1992. 7. 7 판교동 258-32번지 청사 이전
  1997. 1. 18 판교동 259-15 청사 이전(현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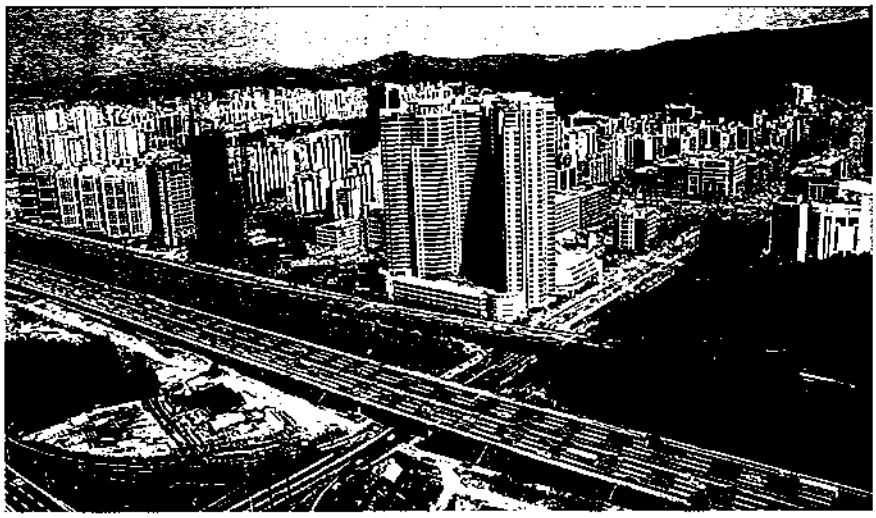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 수	인구 수	남	여
8.29㎢	3	8	31	1,596	4,222	2,262	1,960

- 공공 및 유관기관 : 판교파출소, 판교소방파출소, 판교동대본부, 판교

우체국, 낙생의용소방대,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석유품질검사소,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건설단, 낙생초등학교, 낙생고등학교, 낙생농협

• 주민자치 문화강좌 : 없음

16) 금곡동



〈사진 3-8 : 93〉 금곡동의 아파트 밀집지역

• 주소 : 분당구 금곡동 174번지

• 역대 동장 : 정철현, 송시현, 허용, 이철구, 안석태, 이민구, 최병원, 이의량, 안일준, 정홍석, 윤광섭, 최병대, 김용봉, 신향철, 김진복, 황문호, 김성문, 노홍섭, 신대우

• 연혁 : 1910. 3. 6 광주군 중부면 성남출장소 관할
1971. 9. 13 성남출장소 낙생지소 설치
1973. 7. 1 시제 실시로 금곡, 궁내, 구미, 동원동사무소 개소
1976. 6. 10 금곡동사무소로 통합
1991. 9. 17 분당구 금곡동사무소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 수	인구 수	남	여
9.72㎢	4	85	521	18,507	51,590	25,346	26,244

• 공공 및 유관기관 : 금곡파출소, 금곡동대본부, 미금우체국, 미금역, 한국도로공사, 청솔종합사회복지관, 분당YMCA사회관, 한국조폐공사 서울영업소, 분당소방서 구미파출소, 청솔초등학교, 미금초등학교, 청솔중학교, 불곡중학교, 분당정보산업고등학교, 불곡고등학교,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미은행, 조흥은행, 국민은행

• 주민자치 문화강좌 : 바둑교실(기초), 컴퓨터교실(기초), 컴퓨터교실(동호회), 인터넷교실(동호회), 인터넷교실, 홈페이지반, 자녀독서지도, 발레교실(초 · 중급), 단전호흡, 닥종이인형만들기, 일어교실(회화초 · 중급), 노래교실, 한국무용(초급), 댄스스포츠(초 · 중급), 부부댄스스포츠(초 · 중급), 한문, 예절교육, 영어교실(A · B반), 서예교실, 재즈댄스, 수지침, 수채화, 중국어(초급)

17) 구미동

• 주소 : 분당구 구미동 224번지

• 역대 동장 : 이용중, 김병길, 이재문, 이희원, 강전규, 임경선

• 연혁 : 1910. 3. 6 광주군 중부면 성남출장소 관할
1971. 9. 13 성남출장소 낙생지소 설치
1973. 7. 1 시제 실시로 금곡, 궁내, 구미, 동원동사무소 개소
1976. 6. 10 금곡동사무소로 통합
1991. 9. 17 분당구 금곡동 관할
1996. 1. 15 분당구 구미동 개소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 수	인구 수	남	여
4.77㎢	1	49	301	13,087	37,568	18,636	18,932

• 공공 및 유관기관 : 동대본부, 구미무지개 우편취급소, 대한주택공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관리공단, 구미초등학교, 오리

초등학교, 불곡초등학교, 농협성남유통센터, 까르푸

• 주민자치 문화강좌 : 스포츠댄스(초·중·고급), 요가교실, 닥종이인형(초급), 수채화교실, 십자수교실, 서예교실(매화), 서예교실(난초), 노래교실, 국악(장구)교실, 국악(민요)교실, 사물놀이(초·중급), 퀼트교실, 리본공예, 한지공예

18) 운중동

• 주소 : 분당구 운중동 63-3번지

• 역대 동장 : 이동서, 정공수, 이병수, 우제팔, 장덕석, 이근학, 최낙소, 윤광섭, 조구호, 허용, 안효열, 임상익, 김진선, 이정하

• 연혁 : 1971. 9. 13 성남출장소 낙생지소 관할
1973. 7. 1 성남시 승격으로 성남시 운중, 하산운, 대장, 석운동사무소 개소
1977. 6. 10 성남시 운중동으로 동 명칭 개칭
1988. 7. 1 성남시 중원구 운중동으로 동 명칭 개칭
1991. 9. 17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으로 동 명칭 개칭



〈사진 3-8 : 94〉 운중동사무소

면 적	법정동	통	반	가구 수	인구 수	남	여
18.11㎢	4	5	23	1,054	2,500	1,315	1,185

• 공공 및 유관기관 :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신성남전력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성노인의 집, 현대사회연구소

• 주민자치 문화강좌 : 없음

1. 수정구 보건소



<사진 3-8 : 95> 수정구 보건소

1) 주소

수정구 산성동 2177번지

2) 연혁

1969. 5 광주군 보건소 관할 업무 개시
1969. 12 광주군 보건소 성남지소
1972. 4 경기도 성남출장소 보건진료소로 개칭
1973. 7 성남시 보건소로 개칭(신흥3동 3436번지)
1985. 10 신축이전, 단대4동 4894-1
1989. 5 분구 및 동명 개칭 수정구 산성동 2177번지
1990. 4 수정구 보건소와 중원구 보건소로 분리 현재에 이름

3) 기구 및 관장 업무

보 건 소 장

보건행정팀	지역보건팀	건강검증팀	전염병관리팀
• 행정업무 • 민원실	• 영유아실 • 모성보건실 • 예방접종실 • 재활운동실	• 일반진료실 • 한방진료실 • 약제실 • 물리치료실 • 구강보건실	• 임상병리실 • 방사선실 • 검진실 • 결핵실

4) 보건 사업

- 모성보건 사업
- 건강검진 사업
- 방문보건 사업
- 재활보건 사업
- 건강증진 사업
- 가족계획 사업
- 방역 사업
- 치매관리 사업
- 구강보건 사업
- 정신보건 사업

2. 중원구 보건소

1) 주소 : 중원구 상대원1동 279-1번지



<사진 3-8 : 96> 중원구 보건소

2) 연혁

1969. 5. 2 광주군 보건소 관할 업무 개시
1969. 12. 5 광주군 보건소 성남지소
1972. 4. 20 경기도 성남출장소 보건진료소로 개칭
1973. 7. 1 성남시 보건소로 개칭(신흥3동3436번지)
1985. 10. 4 신축 이전, 단대4동 4894-1
1989. 5. 1 분구 및 동명개칭 수정구 산성동 2177번지
1990. 4. 1 수정구 보건소와 중원구 보건소로 분리
1992 12. 21 신축이전 현재에 이름

3) 기구 및 관장 업무 : 수정구 보건소와 같음

4) 보건 사업 : 수정구 보건소와 같음

3. 분당구 보건소



〈사진 3-8 : 97〉 분당구 보건소

1) 주소 : 분당구 야탑동 349번지

2) 연혁

1969. 5. 2 광주군 보건소 관할 업무 게시
1969. 12. 5 광주군 보건소 성남지소
1972. 4. 20 경기도 성남출장소 보건 진료소로 개칭
1973. 7. 1 성남시 보건소로 개칭(신흥3동 3436번지)
1985. 10. 4 신축 이전, 단대4동 4894-1
1989. 5. 1 분구 및 동명 개칭 수정구 산성동 2177번지
1990. 4. 1 수정구 보건소와 중원구 보건소로 분리
1992. 10. 12 성남시 중원구 보건소에서 분리, 분당구 보건소 설치

3) 기구 및 관장업무 : 수정구 보건소와 같음

4) 보건 사업 : 수정구 보건소와 같음

4. 농업기술센터



〈사진 3-8 : 98〉 성남시 농업기술 센터

1) 주소 : 분당구 이매동 96-2

2) 조직 및 분장 업무

(1)인력육성팀 : 조직관리 인사, 회계 및 예산, 학습단체 육성, 청사 관리
(2)기술보급팀 : 식량작물 재배기술 보급, 화훼 및 채소 재배기술 보급

농업경영 개선, 생활과학기술 교육, 과수 및 특작 재배기술 보급

5.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1) 주소

중원구 성남동 3110번지

2) 연혁

1984. 12. 5 주 경기장 건립
1985. 12. 5 공설운동장관리사무소 개소
1986. 9. 20~9. 30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하키)
1988. 9. 18~10. 1 제24회 서울올림픽(하키)
1989. 8. 31 실내체육관 건립
1989. 12. 31 종합운동장 직제 개편(2계 신설)
1989. 11. 14 종합운동장 사용조례 개정
1998. 주경기장 대대적 보수공사 착수

3) 조직 및 분장 사무

(1)관리팀 : 종합운동장 경기유치 계획,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사용허가
각종 행사 및 경기 관리
(2)시설팀 : 주요시설물 신설 및 보수공사 계획수립,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수립, 각종 시설물 장비 점검 및 유지 관리

4) 경기장 현황

(1) 주경기장

면 적	좌석 수	최 대 수용 인원	경기 가능 종목	비 고
24,400㎡ (7,381평)	21,149석	27,000명	축구, 육상	텐싱장 1개 소

(2) 실내체육관

면 적		좌석 수	최 대 수용인원	경기 가능 종목	비 고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13,889㎡ (4,201평)	648㎡ (196평)	5,770석	7,000명	농구, 배구, 핸드볼 복싱 외 10개종목	보조경기장 (배트민턴) 1개소

(3) 제2하키장

면 적	좌석 수	최 대 수용 인원	경기 가능 종목	비 고
5,880㎡ (1,779평)	2,000석	2,000명	하 키	하 키 전용구장

(4) 롤러스케이트장

면 적	좌석 수	최 대 수용 인원	경기 가능 종목	비 고
3,742㎡ (1,132평)	1,174석	1,500명	로울러 스케이트	로울러스케이트 전용구장

(5) 보조경기장

면 적	좌석 수	최 대 수용 인원	경기 가능 종목	비 고
17,000㎡ (5,142평)	-	500명	투포환, 투원반, 투창, 축구, 씨름 등	

(6) 인공암벽

면 적	개방시간	용 도	비 고
66평	05:00 ~23:00	인공암벽 등반 연습	

(7)공원녹지대

면 적	개방시간	수 종	용 도	비 고
35,134㎡ (10,628평)	05:00~23:00	관상수, 잔디	시민 휴식공간	

(8)기타 부대시설

면 적	개방시간	용 도	비 고
7,915㎡ (2,394평)	05:00~23:00	주차장 등	

면 적	개방시간	용 도	비 고
11,688㎡ (3,536평)	05:00~23:00	462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6. 차량등록사업소

1) 위치 : 분당구 삼평동 90번지

2)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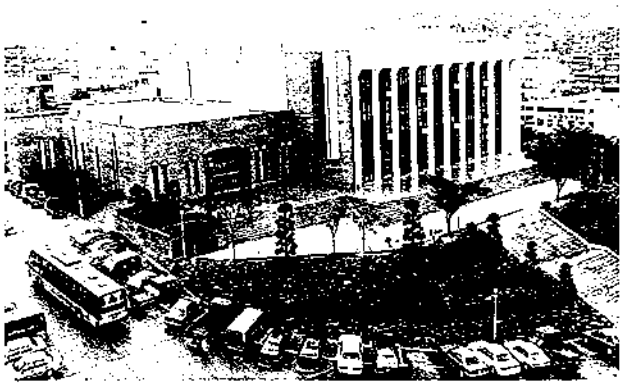
- 1983. 12. 28 총무국 시민과 차량등록계 신설
- 1995. 12. 4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 설치 및 개소

- 1996. 11. 28 등록계 검사계 설치
- 1996. 12. 30 견인계 신설
- 1997. 7. 21 견인계를 주차단속계로 개칭
- 1997. 9. 30 주차단속계 폐지(규칙 제1165호)
- 1998. 8. 10 등록담당 검사담당으로 편제

3) 분장 사무 및 안내

신규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주소변경신청, 구조변경신청, 자동차검사, 번호판재교부, 등록증재교부, 등록원부교부, 양도증명서발급, 세무안내, 강제이전 안내, 저당권 안내, 자동차상속 안내, 과태료 안내, 차고지 시설증명 안내, 건설기계관련 안내, 장애자 · 국가유공자 편익 안내, 검사유효기간 연장 안내

7. 시민회관



<사진 3-8 : 99> 성남시민회관

1) 연혁

- 1979. 8. 19. 착공
- 1981. 6. 20 준공
- 1981. 7. 1 개관

2) 대지 및 건물

- 대지 : 8,023평
- 건축면적 : 811.12평
- 연면적 : 1,781.49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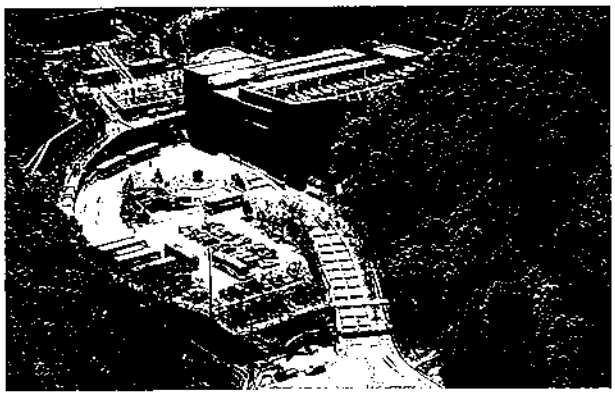
3) 시설 규모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시립합창단	지하실
면적	수용인원	면적	수용인원			
874.54평	1층 1,068석 2층 442석	231.78평	296석	32.32평	60.49평	460.19평

4) 주요 장비

무대시설	오케스트라리프트 1, 무대콘츠롤데스크 1, 바텐 9, 배경막 2, 스크린 2, 대막 2, 이동막 3, 이동식음향반사판13
조명시설	조명콘트롤데스크 1, 핀스스포라이트 1, 서스트라이트 48, 씰링 23
음향시설	음향콘트롤데스크 24채널, 핀무선마이크 6, 피아노 3, 릴녹음기 2, 앰프 15kw, 인터컴 2식, 카세트녹음기 4
영사시설	영사기 35m/m, 빔프로젝트 1대, 환등기 2
전기, 기계	수전설비 950kw, 발전기 300kw, 공조기 3조, 가스보일러 4톤, 냉동기 79.1RT, 온수보일러 20만kcal/h

8. 영생관리 사업소



<사진 3-8 : 100> 영생관리사업소

1) 주소 : 중원구 갈현동 112번지

2) 연혁

1982. 8. 3 화장장 관리사무소 개소
(화장로3기)
1992. 8. 31 화장로 3기 증설
1996. 10. 20 납골당(추모의집) 건립
1999. 10. 20 화장장시설 현대화 및
확장사업 착공
2001. 12. 26 화장장현대화 및 확장사업 준공

3) 직제 및 분장 업무

(1) 관리담당 : 일반행정 지원 및 시설 관리
(2) 운영담당 : 화장 업무 추진 및 납골 담당

4) 기본 시설

연면적 1,812평

- 화장장 화장로 15기, 수골실 3개 실, 고인대기실 4개 소

• 납골당 납골 가능 16,750위
• 부대시설 유택동산 1개 소, 야외제단 1개 소, 주차장

9.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1) 주소 : 중원구 상대원1동 269-1
2) 설립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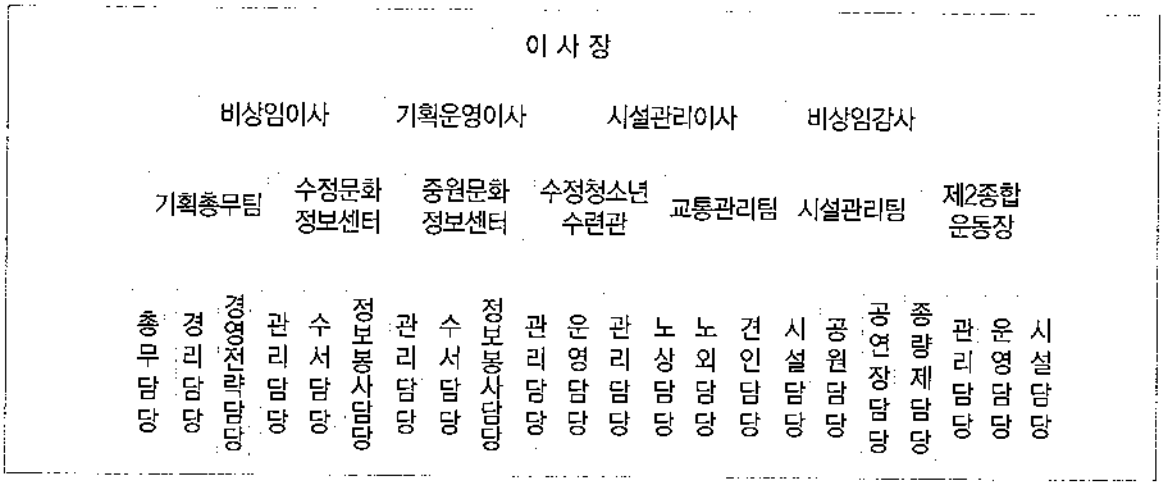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 의거 성남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관리업무와 자동차견인 및 관리업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서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연혁

• 1992. 9. 22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제정
• 1996. 12. 31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설립인가
• 1997. 4. 24 성남시시설관리공단 법인설립등기
• 1997. 5. 1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설립(공영주차장 관리, 불법 주차차량 견인, 시영아파트 관리)
• 1999. 1. 1 시 · 구청사 청소 위탁관리
• 1999. 6. 29 양지동사무소 복합건물 위탁관리
• 1999. 9. 3 율동자연공원 위탁관리
• 2000. 1. 1 시청 기계 전기시설물 분당정보센터 위탁관리
• 2000. 4. 1 롤러스케이트장 관리
• 2000. 5. 2 중원문화정보센터 관리운영
• 2000. 6. 1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 2000. 9. 1 황송터널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 2001. 7. 1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 2001. 11. 5 수정문화정보센터 관리운영
• 2001. 21. 1 제2종합운동장 관리운영

- 2002. 3. 11 종량제봉투 공급사업
- 2002. 6. 1 양지근린공원 위탁관리
- 2002. 12. 1 수정구 동청사 시설물 관리
- 2003. 3. 1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

4) 조직도 및 역대 임원 현황



직 위	성 명	재직기간	비 고
이사장	박성진	1997. 4. 22 ~ 1998. 6. 30	
이사장	김석영	1998. 7. 28 ~ 2000. 7. 1	
이사장	김완석	2000. 7. 3 ~ 2002. 9. 25	
이사장	백찬기	2002. 10. 1 ~ 2003. 9. 13	
이사장	이수환	2003. 11. 22 ~ 현 재	
상임이사 (관리이사)	박수종	1997. 4. 22 ~ 1998. 8. 12	
상임이사 (관리이사)	임봉규	1998. 9. 10 ~ 2002. 4. 9	
상임이사 (사업이사)	황민섭	1999. 12. 13 ~ 2002. 12. 13	
상임이사 (관리이사)	이순영	2002. 11. 1 ~ 2003. 7. 1	
상임이사 (사업이사)	강예현	2003. 2. 7 ~ 2004. 2. 13	
상임이사 (기획운영이사)	권태홍	2004. 2. 11 ~ 현 재	
상임이사 (시설관리이사)	고재혁	2004. 1. 15 ~ 현 재	

5) 사업 내용

- 수정문화정보센터 관리운영
- 수정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 공영주차장 관리
-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 복합건물 관리
- 율동공원 관리
- 번지점프장 운영
- 롤러스케이트장 관리
- 제2종합운동장 관리운영
- 중원문화정보센터 관리운영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 불법주차 차량 견인
- 시영아파트 관리
- 시구청사 관리
- 양지근린공원 관리
-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 종량제 물품 공급

※ 집필 李載參 경원전문대학 교수
金容洽 전 공무원



제4장 성남시의 행정업무 현황

제1절 공보행정

1. 공보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필요성과 추진현황 등을 시민에게 알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들이 시책을 이해하고 시정에 참여하여 시민들이 만족 할 수 있도록 하며, 성남시의 발전모습과 문화, 자랑거리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성남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성남시의 발전모습과 문화, 자랑거리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성남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1) 신문 ·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주요사업 추진 홍보사항 및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행정정보, 성남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미담사례 등을 발굴, 보도자료로 언론사에 제공하여 신문에 게재 및 방송국에서 보도하도록 하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사항은 광고를 통하여 시민에게 전달하고 있다.

2) 시정소식지 제작

• 비전성남 편집발간

각종 공지사항 및 시정시책의 최근 추진상황을 시정소식지로 제작하여 매월 250,000부씩 발간되는 시정소식지는 실제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상식 안내와 지역 미담수범사례 소개 등 주민 공동관심사항 위주로 흥미있고 유익한 시정소식지로 편집하고 있으며,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면을 할애 '시정소식' 퀴즈란, "부끄러운 양심을 고발합니다." "민선시장에 바란다."등을 신설하여 흥미 있고 친근감 있는 시정 소식을 전하고 있다.

3) 홍보물 제작

21세기 성남의 미래비전 및 변화하는 성남의 발전상과 시의 자랑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하여 시민, 국내 · 외에 배부 ·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성남시의 밝고 발전적인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고 있다(홍보용 안내책자, VTR, 화보, 인터넷 방송, CA-TV, CD 등).



성남시 로고



성남시 마스코트

2. 성남시 이미지 형성(CIP)

성남시만의 개성 있는 이미지를 창출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세련되고 앞서가는 도시 분위기 조성은 물론 다양한 활용으로 시의 품격을 높이고자 이미지 형성사업을 추진하였다(심볼마크, 로고타입, 시그니춰, 색상, 엠블럼, 서체, 픽토그램, 서식류, 사인류, 차량류, 홍보 물류, 장표류, 가로시설물, 마스코트 등).

1. 행정감사



공직사회의 의식개혁을 적극 추진함으로 써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목표를 구현하고자 감사 운영방침을 설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펼쳐온 사정 활동 결과 공직사회 정화의식은 확립되었으나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의 행정 행태가 일부 잔존하고 있어 공직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사정활동과 함께 비리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의식개혁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목표를 구현하고자 감사 운영방침을 설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다.

-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시민 위주의 투명한 감사 실시
- 불법 및 비리의 예방 · 지도감사 실시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사전 일상감사 및 현장감사 활성화
-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함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 확보와 선의의 공직자 보호

2. 자체감사

1) 정기(종합)감사

2000~2001년도 정기 종합감사 대상은 수정구청 등 3개 구청, 종합운동장 등 11개 사업소, 수정구 태평1동 등 44개동, 시설관리공단 등 총 59개 기관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는 바, 총 1,266건을 지적하여 행정상 시정 636건, 주의 630건을 처분하였고,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192명을 신분상 문책 조치하였으며, 재정상으로는 총 866,978천원에 대하여 회수 등의 조치를 하였다.

2) 기획감사

민원사무 처리 및 교통분야(주 · 정차 위반차량 단속업무 등)에 대한 기

획감사 등 총 20회를 실시하여 신분상 10명을 문책 조치하고, 행정상 주의 48건을 처분하였다.

3) 기강감사

소극적인 근무자세와 무책임, 무사안일의 근무형태를 척결하여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책임행정 풍토조성을 위하여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설, 추석, 휴가철 등 취약 시기에 총 72회에 걸쳐 출근, 근무실태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관련공무원 90명에 대하여 훈계 또는 주의하는 등 지속적인 감찰활동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였다.

4) 일상감사

시설공사의 과다 설계 및 불합리한 시공 공법에 의한 예산낭비 요인 사전 제거, 부실공사 방지 및 성실시공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시, 사업소, 구 발주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공사 발주 전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총 95건 8,293,188천원의 공사비 감액 조치 등으로 예산절감 효과와 행정의 시행착오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다.

3. 시민감사청구제

청구대상은 불합리한 제도,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공익에 저해되는 사항, 재무회계 처리 및 재산취득 처분과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공직자의 잘못된 관행과 부당사항, 기타 민생분야에 관련된 시정의 개선 향상이 필요한 사항 등

시민감사 기능의 제도화를 통하여 시민 · 단체의 시정참여와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98년 10월 1일부터 시민감사청구제를 시행하였다. 청구대상은 불합리한 제도,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공익에 저해되는 사항, 재무회계 처리 및 재산취득 처분과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공직자의 잘못된 관행과 부당사항, 기타 민생분야에 관련된 시정의 개선 향상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청구주체는 시의회, 시민단체, 시민 등이고, 청구방법은 청구서식에 의거 직접 방문 또는 우편, FAX 등의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시민감사청구 주체에 있어서 선거권을 가진 주민 총수의 1/50 또는 주민 3,000명 이상이 연서한 대표자로 하였으나, 청구요건 충족을 위한 과중한 시민 부담 등으로 청구실적이 저조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주민 1,000명이 연서하여 도지사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2000. 6. 16부터 변경 시행하였다.

1.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시민의 불편사항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시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시민만족의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민의 다양한 시정건의사항 및 주민불편 사항을 접수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생활민원에 대하여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서 현장 처리하는 열린 행정서비스 체제를 구현하고 있다.

시민의 생활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하고 시정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코자 인터넷민원(성남시에 바란다, 민원상담), 생활불편신고전화(국번없이 120번), 방문, FAX 등으로 24시간 생활민원 접수를 받아 신속히 처리하여 생활불편사항 처리 및 시민의 시정참여욕구를 확대시키는 등 시민본위의 행정서비스 제공 체제를 구축하였다.

2. 민원 행정

1) 현장민원봉사실 운영



<사진 3-8 : 101> 민원봉사실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덜어드리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편익을 제공하고자 1997년 11월 1일 분당구 삼성플라자 내에『성남시 현장민원봉사실』, 1999년 4월 1일 중원구 모란역사 내에 '중원구 현장민원봉사실'을 설치하여 FAX

민원발급, 생활민원상담, 가정복지상담(청소년, 노인, 여성), 행정정보자료 제공과 시정시책 홍보를 통하여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민원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 및 민원실을 편안한 쉼터로 제공하는 한편, 민원인의 고충을 직접 면담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현장 행정서비스로 사회행정을 구현하게 되었다.

2) FAX민원 확대 발급 실시

성남시에서는 1993. 11. 1부터 구, 동에서 발급되는 토지대장 등 19종의 증명민원을 FAX로 발급하기 시작하였고, 1999. 4월부터는 235종으로 확대하여 증명발급을 받을 수 있게 하여 2001년도에는 총 366,546건의 증명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등 시민본위의 행정을 도모하고 있다.

3) 인터넷, 우편, 전화를 이용한 민원처리

21C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민원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인터넷홈페이지에 민원사무편람 사이트를 개설하여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과 관련된 궁금한 모든 사항을 PC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민원서식을 인터넷으로 출력하여 사용토록 민원사무(인, 허가 등) 443종에 대한 처리절차, 심사기준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였고, 민원사무편람 150권을 시, 구, 실, 과, 소 및 동 민원실에 비치하여 시민에게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0. 5. 15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제도는 2000. 9. 1부터 기존 20종에서 28종으로 발급대상민원을 확대하여 145건의 민원서류를 접수처리 하였고, 2002. 2. 9부터는 전자정부단일창구를 통한 온라인 민원신청으로 통합 운영되면서 28종에서 54종으로 확대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시민이 불편해 하는 민원사항에 대한 우편 및 전화민원 47,715건을 접수 처리하였다.

4) 생활민원기동 봉사반 운영

시민생활 편익증진 및 시민만족의 서비스행정을 구현코자 찾아오는 민원에서 찾아가는 민원처리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생활불편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생활민원 기동 봉사반'을 운영하고 있다. 봉사반은 시, 구의 4개반 18명으로 구성되어 1일 2회이상 성

남시전역을 순찰하며 도로파손, 교통불편사항,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 보수, 환경오염 및 쓰레기 방치 등 시민생활 저변에 있는 불편한 사항을 적출 즉시 정비하고, 즉시 해결 불가한 것은 관련부서로 통보하여 빠른 시간내 조치토록 하는 등 생활불편사항을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 조치하여 시민 속에서 시민 중심의 현장행정책임을 실천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있다.



생활불편사항을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 조치하여 시민 속에서 시민 중심의 현장행정책임을 실천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있다.

5) 생활민원이동민원실 운영

행정기관과 원거리에 있고 기관방문이 어려우며 각종 행정시책에서 소외되기 쉬운 소외계층 주민들을 위하여 민간단체, 전문가 및 공무원 8명으로 구성된 '생활민원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월 2회 저소득층과 농촌지역, 영세민집단 거주지역, 지하철 역사 등을 순회 방문하여 법률, 지적, 소비자상담, 토목, 건축, 세무, 사회복지, 기타 생활민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면서 궁금증을 풀어주고 해결해 줌으로써 행정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여 찾아가서 해결하는 시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 민원후견인제도 운영

성남시에서는 1996. 3. 1부터 복합민원 중 처리기간이 20일 이상인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을 대변해서 처리해 주고자 민원후견인을 각 실과 6급 60명을 지정하여 민원의 처리 진행상황, 민원인의 대변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민원처리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표 8-68> 2002년 민원처리 현황

연별	2002	시	구	동
계	3,979,138	173,009	978,388	2,715,210
인가 허가	15,189	894	14,150	-
특허 면허	780	224	403	-
승인 지정	3,362	234	7,656	-
신고 등록	30,760	8,792	20,947	-
시험 검사		9	159	-
확인증명/교부	3,912,648	147,966	926,620	2,715,210
기 타	16,399	14,890	8,453	-

자료: 2003성남통계연보

3. 주민등록관리 및 호적등 · 초본

일선 행정기관에서 주요기능을 차지하고 있는 주민등록업무는 1962년 5월 10일 주민등록법이 제정된 이래,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10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날로 증가하는 대민업무와 그 복잡다양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1989년 4월부터 시작한 주민등록 전산화는 1991년 7월 동사무소 전산단말기로 주민등록 등 · 초본을 발급하기 시작하여 1994년 7월부터는 주민등록 등 · 초본에 대한 전국 온라인 교부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1995년 5월부터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출처리가 가능한 전출입통합관리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전입 즉시 주민등록 관련 민원서비스를 제공,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 또한 1999년부터는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사업계획에 의거 주요 인적사항 7개 항목을 수록한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급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3개구 44개동에 대하여 화상자료 입력시스템을 구축하여 2001년 말까지 총 688,585건에 대하여 새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사업을 마무리하였다.



1995년 5월부터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출처리가 가능한 전출입통합관리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전입 즉시 주민등록 관련 민원서비스를 제공,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8년부터 5년 동안 총 1,588억원의 예산과 공무원 및 정보시스템 전문가 6천여 명을 투입하여 추진한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2002년 전국 232개 시 · 군 · 구가 동시에 행정시스템 및 전자민원서비스 개통식을 갖고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성남시에서도 3개 구청과 44개 동사무소에서 호적등 · 초본을 전국 온라인 교부 전산민원시스템을 통해서 발급 받게 되었다.

4. 친절봉사 행정

1) 친절운동 전개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하여 친절 · 불친절공무원 접수창구를 운영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친절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널리 알림으로써 친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친절서비스 마인드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친절알림방』을 제

작하여 시, 구, 동, 사업소 민원실에 설치하고, 친절한 공무원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선정된 이들에게는 시장표창 및 꽃다발을 수여하고 있으며,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지표 완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2) 전화친절도 외부평가제 실시

성남시에서는 109개 부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 외부평가제를 매월 실시하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친절 우수공무원에게는 공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친절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 감점평점 및 친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친절에 대한 의미를 제고하여 전 공무원들이 친절을 체질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친절에 대한 의미를 제고하여 전 공무원들이 친절을 체질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5. 공무원 사기앙양

1) 포 상

2000년~2001년 공무원포상은 정부포상계획에 의한 우수 · 모범공무원 표창, 퇴직자 표창, 장관, 도지사 표창 및 시장이 수여하는 연말 우수 · 모범공무원,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표창 등이 있으며, 시 · 구인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사,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의 촉매제가 되도록 하였다.

2) 후생복지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 위해 공무원 연금기금을 활용하여 2000년, 2001년에 1,300명에 9,954백만원의 가계자금 대출 알선 등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였고, 739명에 1,596백만원을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으로 대부하는 등 지원, 직원후생복지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직원휴양소 운영, 공무원 선진지 견학, 청내야간대학 운영, 공무원취미모임 지원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주력하고 있다.

6. 행정정보공개 제도



행정정보공개란 집행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

행정정보공개란 집행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행정정보는 지방자치법령 등에서 정한 사무로서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및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등을 말한다.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목적은 행정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시정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하는데 있으며, 주민의 시정 참여기회 확대로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기 위함이다.

1) 행정정보공개 청구방법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단체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행정정보공개 청구서를 시 · 구청 종합민원실 또는 사업소, 동 공문서 접수처에 제출한다 (단, 청구인은 행정정보를 청구 목적에 맞도록 사용해야 하며,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부담한다).

공개청구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남시청 총무과 또는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에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2)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실적

1994년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한 이후 매년 공개청구 건수가 증가하여 행정정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더욱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 및 규칙 등을 정비하여 운영하고 있다.

7. 반상회 운영



반상회는 1976년 6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웃간에 막힌 벽을 헐고 대화를 통해 공통관심사를 찾아 마을일을 주민 스스로가 논의하고 해결하는 공동의 장으로서, 자치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반상회는 옛 선조들의 두레, 계, 향약에서 보듯이 명칭은 다르지만 근본은 같은 맥락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반상회 제도로 정착되었다. 반상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상호협동으로 주민공동의 관심사항을 해결하고, 주민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매월 1회(25일) 개최하고 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반상회는 1976년 6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웃간에 막힌 벽을 헐고 대화를 통해 공통관심사를 찾아 마을일을 주민 스스로가 논의하고 해결하는 공동의 장으로서, 자치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의 기초단위 회의장으로 반상회를 인식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반상회를 통하여 구청 및 동에 접수된 건의사항은 총 491건으로 그중 483건은 모두 해결되었고, 나머지 8건은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이었다.

8. 주민자치센터 운영

그 동안 읍, 면, 동 제도는 지방행정 계층구조 축소방안의 하나로 꾸준히 그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기능을 신규로 증대되는 주민 복지, 문화 관련 기능을 보완하여, 동사무소의 업무 중 민원위주의 업무만 동에서 처리하고 청소, 환경, 가로등, 선거업무, 각종 단속업무 등이 구청으로 이관하면서 인원도 감축함에 따라 생기는 여유공간을 주민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1) 추진현황
   - 동 기능 전환대상 : 44개동
   - 주민자치센터 운영 : 41개동
   - 주민자치센터 미운영 : 3개동
2)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953명
3)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 각종 문화강좌 등 622개 과목(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시민교육, 지역사회진흥 등)

9. 기획예산

1) 주요업무 계획

주요업무 계획은 매년 변화하는 시정여건 및 상황에 따라 1년간의 기간에 걸치는 각 부서의 주요시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 시정의 주요업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 및 계획수립 시 공공복지 증진과 지역사회발전, 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사업예정표라고 할 수 있다.

2) 주요사업 관리

기획예산과는 정부의 중요정책과 시정방향 및 시민이 바라는 바를 반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정방향을 해당 부서에 제시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시정방향 및 목표, 그리고 역점시책, 현안사항 등의 조건에 맞게 조정하여 기획예산과에 제출한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체계있게 검토·조정하고, 수정·보완을 거친다. 각 단위사업 및 시책별로 분류하고, 일정별, 공정별로 구체적인 물량을 산출하여 목표를 설정한 주요 업무시행계획안을 작성하고, 그 시행계획안을 선정·확정하여 관리한다. 2001년도에는 100개 단위사업으로 확정·작성하였으며, 민선 공약사항인 100가지 사업을 추가하여 총 200개 사업을 관리·추진하고 있다.



심사평가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인력 등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주요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그 집행상황을 관리하고 집행성과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책이나 사업추진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심사평가

심사평가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인력 등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주요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그 집행상황을 관리하고 집행성과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책이나 사업추진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1) 심사평가의 운용

2001년도 심사평가는 100가지 실천과제와 주요업무 시행계획 등 223

개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평가를 실시하였다. 매분기 말에는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집행성과를 평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였고, 평상시에는 전체 대상 사업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일부사업을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연 4회 이상 100가지 실천과제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기도 했다.

(2) 100가지 실천과제에 대한 예산

4개 분야에 예산사업 57건, 비예산사업 43건으로 소요재원이 총 6,186억원으로 국·도비 573억원, 시비 5,442억원, 기타 171억원으로 4/4분기까지 총 3,193억원이 이미 투자되었거나 예산이 편성되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3) 100가지 실천과제 추진실적

2001년 시정주요시책사업인 100가지 실천과제에 대한 4/4분기까지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괄적으로 우수사업 77건(77%), 보통사업 21건(21%), 부진사업 2건(2%)으로 우수사업과 보통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8%로 대부분의 제반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중임으로 지난 1년 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전자상거래(EC)기반구축, 중소기업 육성자금 1,000억 조성지원,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디자인 거점도시 육성 등 성남시 지역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고, 문화정보센터 개관,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문화예술 체육기금조성, 성남의제21 추진, 자연형하천 조성,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 등으로 푸른 문화 도시 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 한 환경보전에 힘썼으며, 현장생활민원 기동봉사반 운영, 아파트 관리비용경감 대책기구 발족,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 전세자금 융자지원 대폭확대 사업과 전공직자가 시민봉사자로서 열린시정 및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 성공적인 사업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다.



전공직자가 시민봉사자로서 열린시정 및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 성공적인 사업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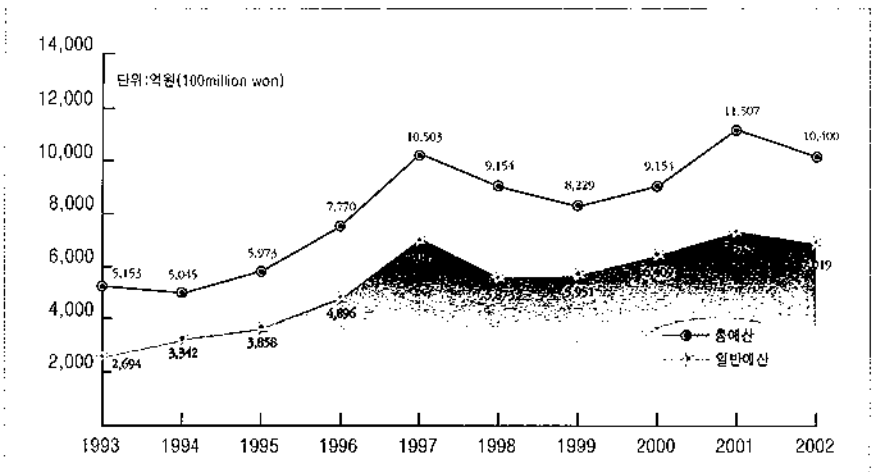
4) 예산운영

예산이란 수입과 지출의 예정액 또는 계획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재정활동의 지침 내지 사업계획의 윤곽을 나타낸 것이다.

지방자치 시대의 본격 돌입으로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대되고 다양하고 고급화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역의 균형개발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재정의 기능과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예산이란 수입과 지출의 예정액 또는 계획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재정활동의 지침 내지 사업계획의 윤곽을 나타낸 것이다. 예산의 편성 · 운용은 시의회에서 승인 확정됨으로써 자치재정을 보다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절감 운용, 경영성 향상을 위한 각종 제도 및 기준의 보완 등 예산의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재정 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특히 보다 많은 재원이 주민복리 증진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악속사업을 비롯한 주민 숙원사업을 예산에 우선 반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고, 경상비와 경직성 경비 지출을 억제하여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를 확대하였다.

(1) 2001년 예산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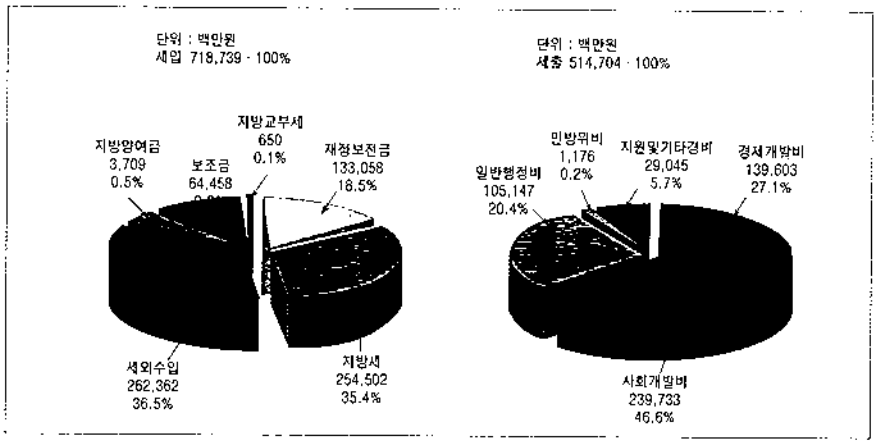


※연도별 예산규모 2003년 성남통계연보

2001년도 성남시 총재정규모는 1,004,986백만원이며, 일반회계

602,255백만원, 특별회계 384,731백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보다 219,714백만원에 28%가 증가 되었다. 회계별 예산규모의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62%, 특별회계가 3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① 일반회계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

• 세입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총 620,255백만원이며, 자체 세입은 558,783백만원, 의존 재원은 61,472백만원으로 재정 자립도가 90.1%이다. 지방재정의 자주적 운영이 이루어지려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비율이 높아야 하며, 지방세의 수입액 상황을 보면 2001년도 세입규모는 232,666백만원으로 전년도 206,061백만원 대비 12.9%가 증가하였다.

• 세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20,255백만원으로, 기능별로 분리하면 일반행정비 107,854백만원, 사회개발비 279,895백만원, 경제개발비 196,802백만원, 민방위비 1,459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4,245백만원이며, 다시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57,299백만원, 물건비 67,642백만원, 이전경비 143,660백만원, 자본지출 280,571백만원, 융자 및 출자융자금 1백만원, 보전재원 9,732백만원, 내부거래 40,198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9,417백만원으로 편성한 것이다.

② 특별회계

성남시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9개 기타특별회계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총예산 규모는 384,731백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274,365백만원으로 7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10,366백만원 28.7%로 편성하였다.

(2) 경영수익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수입 형태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세외 수입), 지방채 등이 있으며 경영수익은 이중에서 세외수입의 한 형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재정수입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계속 추진하며, 또한 새로운 수요와 여건에 맞는 대상사업을 개발하고 개선할 사항은 보완한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한지형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하여 국제축구 및 프로축구대회를 유치하고 있으며 또한 보조경기장 , 하키장, 롤러스케이트장 등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유료로 운영하는 등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① 사업별 추진내역

• 종합운동장

1998년~2000년(3년간) 총 1,051백만원을 투입하여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한지형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하여 국제축구 및 프로축구대회를 유치하고 있으며 또한 보조경기장 , 하키장, 롤러스케이트장 등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유료로 운영하는 등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양지동 사무소 복합건물 임대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전액 선납으로 납부되어 시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임대수수료 요율이 50/1,000으로 일원화되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이용도, 위치 등에 따라 경영수익차원에서 임대료의 자율적인 조정이 요망된다.

•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

공영주차장의 확대설치로 주차난을 해소함은 물론 이용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경영수익증대 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 번지점프장 및 공원매점 임대

율동공원내 부대시설인 매점 3개동과 번지점프장(높이45M, 타워

21M)1개소에 총 766백만원을 투입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에게 레저와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운영 하고 있다.

• 자금운영 관리 개선

현행 시재정자금 운용에 있어 여유자금을 고이율 장 · 단기 금융예치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의 획기적인 증대로 시 재정 운영과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②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지방재정의 계획적 ·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중복 과잉투자를 방지하며,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한다. 즉 재정운영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된 건전하고 생산적인 운영, 한정된 지방재원을 효율적 계획적으로 운영, 투자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객관성 등을 확보한다.

10. 제안제도 운영

1) 공무원 제안

행정전반에 대하여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사항을 더 좋게, 더 높게,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구 · 고안 · 착상 등의 아이디어로 행정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제안을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다.

(1) 제안의 종류

- 자유제안 : 제안자가 과제 선정을 정하여 제출하는 제안
- 지정제안 : 과제를 미리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
- 직무제안 :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

(2) 제안의 심사

- 1단계 : 실시 주관부서 의견조회 및 실무 주관부서 종합검토
- 2단계 : 제안실무심사위원회 사전심의

• 3단계 : 제안심사위원회(시정조정위원회) 본 심의

(3) 채택 및 혜택

접수된 제안은 분기별로 심사를 하게 되며, 심사내용은 이미 실시되고 있는지의 여부, 채택시 시행가능 여부 및 시행시 발생되는 예상 문제점, 예산절감액 및 조세증대액, 기타 창의성, 실효성, 경제성, 능률성 등을 실시 주관부서에서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실 · 국 주무과장 및 제안 관련부서 과장으로 구성된 실무심사위원회의 실무검토를 거쳐 제안심사위원회(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제안의 채택 및 시상 등급, 부상금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2002년도 접수된 제안은 총 8건으로, 2건이 채택되었으며, 1건은 까치상, 1건은 착안상을 시상하였다.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창의적인 방안을 시정에 접목시켜 행정의 능률성과 시정의 생산성 제고 및 시민편익 증진에 앞장선다.

2) 시민 제안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창의적인 방안을 시정에 접목시켜 행정의 능률성과 시정의 생산성 제고 및 시민편익 증진에 앞장선다.

(1) 제안 공모기간

• 상반기 : 매년 1. 1 ~ 6. 30(6개월)
• 하반기 : 매년 7. 1 ~ 11. 30(5개월)
• 제안자격 : 성남시에 거주하는 전 시민

(2) 채택 및 시상

접수된 제안은 상하반기 2회 심사를 하게되며, 주요심사 내용은 제안이 창의성, 경제성, 실용성, 계속성, 노력도 등을 담당부서에서 사전 심사후, 시행가능한 제안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채택 및 시상등급, 부상금을 최종 확정하게 되며, 2002년도 접수된 제안은 총 55건으로, 3건이 채택되었으며, 3건이 착안상을 시상하였다.

11. 정보통신

1) 행정전산화 추진

(1) 행정전산망(LAN) 구축

2000년 5월 공무원 1인 1단말기 기준으로 행정전산망(LAN)을 구축함으로써 『전자정부구현』의 기반을 조성하여, 본청 ↔ 구청 ↔ 사업소 ↔ 동간 초고속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 1월 외부 해커들로부터 행정전산자료의 보호를 위하여 성남시 전 행정기관의 단말기를 대상으로 보안시스템을 적용 · 운영 중이다.

(2) 시 · 군 · 구 행정종합 정보화 구축

민원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해온 시 · 군 · 구 행정종합정보화 1단계 10대업무가 2000년 10월 정상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24시간 ONE/NON-STOP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인 민원자동발급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신청한 민원을 인터넷을 통하여 안방에서 처리 진행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넷 홈페이를 구축 시정현황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으며, 최신의 자료 게재로 다양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여 사용자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로 이용자에게 대민정보서비스 제공 및 정보공개가 활성화되면서 더 많은 요구와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 시정현황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으며, 최신의 자료 게재로 다양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여 사용자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7. 12. 30부터는 인터넷 '성남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한글 영문, 일본, 중국어로 전세계에 서비스하고 있으며, 2002년 6월까지 자료 게재 39,634건이며, 2002년 6월까지 2,337,017명이 성남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였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시의회, 시정 소식지, 자치법규, 세입 세출 예산서, 어린이 홈페이지, 과별 홈페이지 등을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리고 성남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였고 '성남시에 바란다'는 사이버 공간에서 민원 불편사항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여론 수렴

을 통한 민원 해결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였고, 향후에도 홈페이지에 양질의 행정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

3) 시민 무료 PC방 운영

시민 누구나 관공서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문화자료 검색, 청소년 학습, 음악감상 등을 할 수 있도록 시청내 민원실에 멀티미디어 PC를 설치하고 초고속 통신망을 설치하여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무료 PC방을 운영하고 있다.

(1) 운영현황

① 일시 : 1998년
② 장소 : 시청 및 구청 민원실, 문화정보센터, 동 문화의집 등 52곳

(2) 향후 계획

2002년에는 PC방 이용자들의 다양한 불만 사항들을 수렴해 기존 PC방의 시설, 내용, 서비스, 환경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PC방에서의 무료교육 확산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정보화, 정보격차 해소 등 지역문화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다.

4) 시민 정보화교육 추진

지식정보화 시대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켜 자아 발전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고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1998년부터 시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을 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개설하여 정보화 사회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1) 교육대상 : 성남시민(단, 전문교육은 저소득층 청소년 우선)
(2) 교육과목 :

① 참여교육 : 한글 97, 윈도우98, 정보검색, 엑셀, 홈페이지 제작 등
② 사이버교육 : 파워포인트, 엑세스, 포토샵, 드림위버, 플래시 등
③ 전문교육 : 컴퓨터활용, 웹디자인 ,플레시, 디렉터, 웹 컨텐츠 제작,

비주얼 베이직, DB&웹 연동과정, 자바프로그래밍 등

(3) 교육 신청방법 : 본인신청

(4) 교육기관 : 29개소(공공기관 10개소, 초등교 1개소, 대학 2개소, 학원 10개소, 기타 6개소 등)

(5) 향후계획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정보화 교육 실시를 위하여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 및 문화정보센터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정보화 교육 실시를 위하여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 및 문화정보센터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12. 통계관리

1) 통계의 의의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원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되고, 공정하게 이용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통계라 함은 통계작성기관이 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 · 위탁하여 작성하는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정한 인구 및 경제 · 사회집단의 사실을 주어진 목적에 따라 계량적으로 파악 · 수치화한 것으로, 목적하는 집단에 대한 사실을 설명하여야 한다. 즉, 개별적인 정보를 종합하여 그 집단의 상태를 집약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계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정한 목적에 따라 적합한 정의와 분류기준이 적용되어 작성되어야 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최소의 비용을 들여 산출, 합리적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통계의 의의이자 기본이 되는 것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최소의 비용을 들여 산출, 합리적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통계의 의의이자 기본이 되는 것이다.

2) 통계의 필요성

경제사회 집단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정책 또는 경영사실의 확인과 그 원인을 규명하거나, 개개의 관찰로서는 얻지 못하는 사실들을 동일 동종집단의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그 법칙성을 발견, 정책경영과 민간

기업, 연구소 등의 기초 및 기획, 연구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수행을 위한 행정 기초통계의 중요성이 제고되고,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수집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관리 체계 구축과, 이를 위한 조직내의 전문성 향상과 인력, 장비 확충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통계 일반 업무

① 국가통계 : 인구주택총조사, 도 · 소매업총조사(5년), 광공업통계조사(매년), 한국도시연감자료수집(매년), 재정수지(매년), 행정지도제작(3년주기), 농 · 어업총조사(10년주기)
② 자체통계 : 주민등록인구통계(매년), 사업체기초통계(매년), 경기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매년), 시 · 군단위 지역내 총생산추계(매년), 성남통계연보(매년), 시정주요통계(매년)

(2) 행정자료실 운영

행정자료실을 운영하여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종합행정자료의 다량 비치와 최신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의 정보활용도 제고 및 시정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자료를 확보 · 이용토록 하여 행정시책 발굴의 산실 역할을 제고한다.

① 위치 및 규모 : 행정자료실 지하1층(20평)
② 비치 대상 도서 : 전문행정자료, 필수도서, 시 · 도 관련 문화제 등 자료 및 공무원 교양서적, 공무원 직무관련 전문서적 및 컴퓨터, 어학도서, CD-ROM 등
③ 행정자료 제공 서비스 확대
- 무료복사 서비스 실시
-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제공 : 통계연보 등
- 팩스, 이메일을 통한 자료 제공
- 내 · 외국인에 대한 시정 자료 제공 및 안내 서비스
- 시정홍보지 및 행정지도 무료 배부

• 대상 : 행정자료 5,000여권
• 추진방법 : 한국십진분류표에 의한 도서분류 KOLAS 프로그램에 의한 전산입력



시민생활과 밀접한 쇼핑, 교육, 요식, 생활, 공공부문에 대한 생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신속정확한 대시민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였다.

13. GIS 사업

시 종합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정비 등을 추진하여 분야별 활용체계의 개발로 각종사업 기간 단축과 유관기간별 협약체결로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전사고예방 등에 기여하였으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쇼핑, 교육, 요식, 생활, 공공부문에 대한 생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신속 정확한 대시민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였다.

1) 종합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구축 운영

(1) 기본지형도 수치도화 : 141.9㎢
(2) 상수도관리시스템구축 운영 : 1,194㎞
(3) 하수도관리시스템구축 운영 : 906㎞
(4) 도로관리시스템구축 운영 : 463㎞
(5) 새주소 관리시스템구축 운영 : 3개구 44개동

2) 도시(생활)정보시스템구축 운영 : 3개구 44개동

(1)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정보 제공
(2) 새주소 검색 및 위치정보 제공
(3) 각종 공사현황 안내

3) 종합지리정보시스템 수치지도 공동활용 : 153회 317장 5,287도엽

(1) 상수도 관로 위치 확인 및 설계활용 : 38회 125장
(2) 하수도 관로 위치 확인 및 설계활용 : 16회 23장
(3) 도로관리 및 설계활용 : 65회 169장

(4) 공원관리 등 각종업무 정보제공 : 29회 3,901도엽(file제공)
(5) 외부기관 업무협조제공 : 경기도 등 3개 기관 5회 1,386도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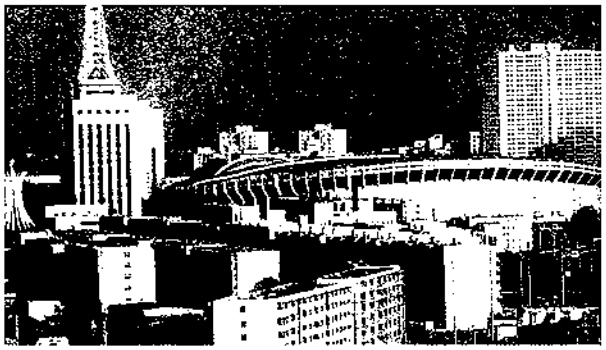
14. 자매결연(국제)



<사진 3-8 : 102>브라질 빠라치카바 (Pirachicaba, Brazil)



<사진 3-8 : 103>미국 오로라시(Aurorra, U.S.A)



<사진 3-8 : 104>중국 심양시(中國 沈陽市) (Shimyang, China)

국제 자매결연 교류를 통한 국위선양은 물론 산업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상호 도시발전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제공 등 우의증진 및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협력체제 증진을 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 브라질 쌍파울로주 삐라치카바시 (Piracicaba)

- 1986. 5. 28 : 삐라치카바시 호세 마차두(Jose Machado) 시장과 자매결연 체결
- 자매도시 현황 : 쌍파울로시로부터 152㎞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는 303,500명이다. 면적은 1,312㎢, 농업 및 경공업도시로 알콜, 제당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2) 미국 콜로라도주 오로라시(Aurora)

- 1992. 7. 27 : 에드워드 제이.타우어(Edward J. Tauer) 시장과 자매결연 체결
- 자매도시 현황 : 인구 276,000명의 작은 도시로 면적은 202㎢이며, 덴버 국제공항 접경지역으로 물류, 산업의 중심지이다.

3) 중국 요녕성 심양시(瀋陽市)

- 1998. 8. 31 : 진정고 (陣政高) 시장과 자매결연 체결

• 자매도시 현황 : 인구 720만명의 대도시이며, 면적은 13,008㎢, 동북 3성의 산업, 교통, 문화, 공업의 중심지이다.

※ 심양시와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지울 수 없는 특수성이 다분한 지역임.

• 삼학사(三學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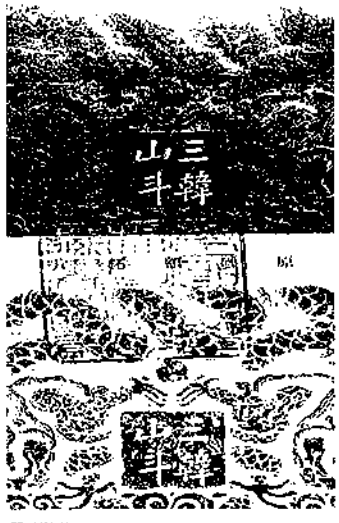
1936(인조 14년) 병자호란(丙子胡亂)당시 청나라에 끝까지 항전하기를 주장했던 척화신(斥和臣) 홍익한(洪翼漢), 윤집(尹集), 오달제(吳達濟) 등 삼학사는 호란이 끝난 후 심양에 볼모로 압송되어 항거하다가 1637년(인조 15년)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다.

심양시에는 유일하게도 우리민족 교육기관인 요녕발해대학(遼寧渤海大學)이 천문갑(千文甲 博士)학장의 집요한 노력으로 독존(獨存)하고 있는데, 우연한 기회에 삼학사 중수비를 발견하게 되어 현재 발해대학에 보관중에 있다.

삼학사비는 역사적으로 매우 고귀하다는데 뜻을 같이한 천문갑 학장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허창무(許昌武)교수, 신청(申晴)회장의 주선으로 탁본을 입수하게 되어 수록해둔다.



<사진 3-8 : 105> 삼학사 비문 탁본. 삼학사비 문 내용(왼쪽)



原碑祉片
비두에 "삼한신두" 라 함은 청태종이 우리나라를 높이 평가한 뜻이라 함.

15. 자매결연(국내)

지방자치 단체간의 상호교류를 통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농간의 상호이해와 우의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강원도 홍천군

- 1998. 4. 17 : 자매결연 체결
- 자매도시 현황 : 인구 76,954명(21,802가구), 면적은 1,818㎢이며 대부분 산악지역으로 주민들의 소득기반은 농·특산물에 있다. 특히 장류(막장, 된장, 고추장, 간장)와 찰옥수수, 감자 등이 유명하다. 청소년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삼봉자연휴양지, 가리산휴양림 등 많은 관광지가 있다.
- 교류내용 : – 농·특산물 직거래시장 운영
  –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 찰 옥수수 직거래장터 운영
  – 오리논쌀 직거래장터 운영
  – 시·군민의날 행사시 체육대회 참가와 축하방문
  – 수해복구 지원

2) 경기도 가평군

- 2003. 11. 5 : 자매결연 체결
- 자매도시 현황 : 인구 55,280명(20,245가구)이며 면적은 843.25㎢
- 교류내용 : – 농·축산물 직거래시장 개설운영
  – 주요 행사시 상호 축하방문
  – 기타 민간차원의 각종 교류사업

[illegible]

1. 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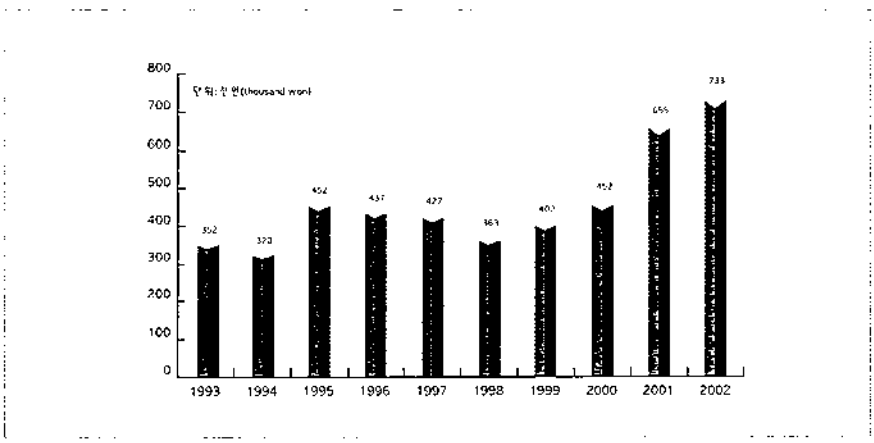
세정업무 계획 수립시 민주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있다. 시의원, 관내 대학교수 등 세정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학·관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세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1) 지방세

지방세는 17개 세목으로 되어있으며, 도세(7종)와 시세(10종)로 구분하여 부과·징수하고 있다.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이고, 시세는 주민세, 재산세, 종토세, 자동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이 있다.

지방세는 17개 세목으로 되어 있으며, 도세(7종)와 시세(10종)로 구분하여 부과 징수하고 있다.



※1인당 지방세 부담율

2) 지방세 과세 예고제

과세에 따른 납세자의 조세저항 및 불복 민원을 최소화하고 납세자를 이해 설득할 수 있도록 과세하기 전에 과세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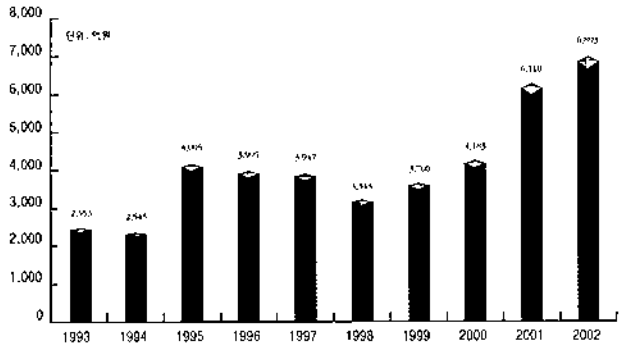
3)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미래의 납세자인 초등학생에게 건전한 납세의식 함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실제 세금이 쓰이고 있는 소

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견학으로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시켜 성실납세 풍토조성과 건전한 납세의식을 함양하고 있다.

4) 지방세 과징현황(2002. 6. 30현재)

	구분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비율(%) 목표대비	조정대비
현년도	합 계	525,354	363,117	7,033	7,033	60,807	56.2	81.3
	도 세	286,165	220,195	204,586	776	14,833	71.5	92.9
	시 세	239,189	142,922	90,691	6,257	45,974	37.9	63.5
	계	513,858	308,265	289,617	78	18,570	56.4	94.0
	도세계	281,971	207,354	201,551	3	5,800	71.5	97.2
	취득세	73,859	65,253	62,203	1	3,049	84.2	95.3
	등록세	123,072	101,689	101,427	–	262	82.4	99.7
	면허세	916	916	842	–	74	85.2	91.9
	레저세	12,100	6,527	6,527	–	–	53.9	100.0
	공동시설세	7,945	18	12	–	6	0.2	66.7
	지역개발세	16	7	6	–	1	37.5	85.7
	지방교육세	63,991	32,944	30,534	2	2,408	47.7	87.3
	시세계	231,887	100,911	88,066	75	12,770	38.0	87.3
	주민세	76,082	56,834	53,415	67	3,352	70.2	94.0
	재산세	20,001	39	24	–	15	0.1	61.5
	자동차세	28,606	23,293	13,925	8	9,360	48.7	59.8
	주행세	19,444	6,655	6,655	–	–	34.2	100.0
	도축세	–	–	–	–	–	–	–
	담배소비세	35,960	10,577	10,577	–	–	29.4	100.0
	종합토지세	25,140	401	395	–	6	0.3	98.5
	도시계획세	20,281	65	57	–	8	47.4	87.7
	사업소세	6,373	3,047	3,018	–	29	47.4	99.0
과년도	합 계	11,496	54,852	5,660	6,955	42,237	49.2	10.3
	도 세	4,194	12,841	3,035	773	9,033	72.4	23.6
	시 세	7,302	42,011	2,625	6,182	33,204	35.9	6.2



※지방세 징수 현황

2. 재산관리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부동산, 동산, 현금, 기타 권리의 전부를 뜻하나 지방재정법에서 말하는 공유재산은 부동산과 동산의 일부 특허 토지와 건축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시민의 생활양식, 의식변화에 따라 개별화, 다양화된 갖가지 행정수요가 대두됨에 따라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이용도가 높은 적정 규모의 시유지를 확보하는 일이 보다 시급하다고 하겠으며, 국·공유지 관리는 회계년도별로 계획수립, 재산의 매각, 취득, 교환, 점유재산의 대부계약 체결 및 변상금 부과 등을 통해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힘쓰고 있다.

1976년 12월 31일 국유재산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위임된 재산현황과, 1988년 5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 재산을 시유재산과 국유재산으로 분류하였으며, 성남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999년 국공유 재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

계		대지		경지		잡종지		임야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727	627	169	25	132	191	350	71	76	340

2) 공유재산

구분	계		대지		경지		잡종지		임야	
	수량	면적	수량	면적	수량	면적	수량	면적	수량	면적
토지(필지)	9,984	20,014	2,180	1,201	1,792	1,004	5,243	15,442	769	-
건물(동)	281	218,904	281	218,904	-	-	-	-	-	-
임목림(주)	296	7,355	-	-	-	-	-	-	296	7,355
무체재산(건)	597	-	-	-	-	-	597	-	-	-
유가증권(주)	8,291	-	-	-	-	-	8,291	-	-	-

3. 계약관리



일반적으로 계약은 공개경쟁으로 공고하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이행이 종료되어 대가를 지급함으로 완료된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공개경쟁으로 공고하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이행이 종료되어 대가를 지급함으로 완료된다. 계약방법결정→ 입찰공고→ 입찰등록→ 예정가격결정→ 입찰→ 낙찰자결정→ 계약체결→ 계약이행→ 검사→ 대금지급.

1) 입찰제도

입찰제도는 1993년 5월 1일 이전에는 우편입찰과 현장입찰만을 시행하여 입찰자 간 담합의 소지가 있고 입찰집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1993년5월 1일 이후 상시입찰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담합방지 및 입찰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예정가격 결정에 있어 1995년 7월 1일부터 예정가격을 10통 작성, 입찰 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에게 그 중 3통을 추첨케하여 평균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예정가격 88/100이상으로 최저가격을 낙찰자로 결정 하였으나, 예정가액 누설 등 의혹이 제기되어 1997년 1월 11일 이후 예정 가격을 15개중 4개를 입찰참가자가 추첨하여 평균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예정가격 90/100 이상으로 최저가격을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써 예정가격 누설 등 의혹을 말끔이 없애 공정 입찰질서를 확립하였으나, 그 후 무질서한 건설업계의 질서확립과 실질적으로 공사수행 능력이 있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9. 9. 9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전면 폐지하고 간이 적격심사 낙찰제도가 도입되었다.

2) 낙찰자 공시방법

입찰자 대부분이 상시입찰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입찰집행 당일 현장입찰 참가자가 소수 참석함으로써 입찰결과를 전화문의에 의존하는 불편이 있어, 신속한 입찰 정보를 위해 전화사서함을 1995년 2월 21일부로 개설하여 입찰결과가 자동응답으로 신속한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입찰공고 및 우선 낙찰 예정자를 공고하는 성남시 인터넷이 활용되고 있다.

4. 회계관리

회계관리는 행정수요와 조직이 날로 확대 증가함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조달, 관리, 사용하는 데 따른 경제활동에 관한 경리 절차를 수행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행정수요를 최대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회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년도 회계의 세입, 세출예산의 모든 계수를 결산한다. 즉 당해년도의 예산수납 및 지출을 총체적으로 점검 분석하여 그 결과를 익년도의 예산편성 및 심의와 중기 재정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행정수요를 최대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회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년도 회계의 세입, 세출예산의 모든 계수를 결산한다.

성남시의 재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결산 총괄1

연별	예산현액			세입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1996	776,977	489,627	287,350	827,478	564,432	263,046
1997	1,050,297	704,144	346,153	1,033,113	692,998	340,115
1998	915,444	587,292	328,152	884,514	602,550	281,964
1999	822,865	595,095	227,770	829,574	600,261	229,313
2000	915,431	640,933	274,498	917,849	651,927	265,922
2001	1,150,767	731,511	419,256	1,167,935	760,054	407,881
2002	1,040,009	701,971	338,038	1,071,230	718,739	352,491

2) 예산결산총괄2

연별	세출			잉여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1996	600,794	358,528	242,266	343,707	205,904	137,803
1997	674,997	485,516	189,481	358,116	207,482	150,634
1998	594,908	428,361	166,547	289,606	174,189	115,417
1999	511,800	411,530	100,270	317,774	188,731	129,043
2000	614,798	459,256	155,542	303,051	192,671	110,380
2001	860,984	600,162	260,822	306,951	159,892	147,059
2002	712,586	514,704	197,882	358,644	204,035	154,609

3) 일반회계 세입결산

연별	예산현액			결산			예산대
	금액			금액			
과목별	계	시	구성비(%)	계	시	구성비(%)	결산비율(%)
1996	489,627,351	489,627,351	100.0	564,432,736	564,432,736	100.0	758.6
1997	704,144,172	704,144,172	100.0	692,998,393	692,998,393	100.0	98.4
1998	587,291,591	587,291,591	100.0	602,549,612	602,549,612	100.0	102.6
1999	595,095,244	595,095,244	100.0	600,260,510	600,260,510	100.0	100.9
2000	640,933,216	640,933,216	100.0	651,927,235	651,927,235	100.0	101.7
2001	731,510,859	731,510,859	100.0	760,054,387	760,054,387	100.0	103.9
2002	701,970,716	701,970,716	100.0	718,739,394	718,739,394	100.0	102.4
지 방 세	244,852,071	244,852,071	38.2	254,501,970	254,501,970	39.0	103.9
세외수입	258,021,859	258,021,859	40.3	262,362,061	262,362,061	40.2	101.7
지방교부세	650,000	650,000	0.1	650,000	650,000	0.1	100.0
비방양여금	3,406,896	3,406,896	0.5	3,709,462	3,709,462	0.6	108.9
재정보전금	131,072,445	131,072,445	20.5	133,058,266	133,058,266	20.4	101.5
보 조 금	63,967,445	63,967,445	10.0	64,457,635	64,457,635	9.9	100.8
지 방 체							

4) 일반회계 세출결산

(표 참-9참)

연별 과목별	예산현액 금액 계	예산현액 금액 시	예산현액 구성비(%)	결산 금액 계	결산 금액 시	결산 구성비(%)	예산대 결산비율(%)
1996	489,627,351	489,627,351	100.0	358,528,479	358,528,479	100.0	73.2
1997	704,144,172	704,144,172	100.0	485,516,871	485,516,871	100.0	69.0
1998	587,291,590	587,291,590	100.0	428,360,847	428,360,847	100.0	72.9
1999	595,095,243	595,095,243	100.0	411,529,579	411,529,579	100.0	69.2
2000	640,933,216	640,933,216	100.0	459,256,459	459,256,459	100.0	71.7
2001	731,510,859	731,510,859	100.0	600,162,550	600,162,550	100.0	82.0
2002	701,970,716	701,970,716	100.0	514,704,439	514,704,439	100.0	73.3
일반행정	125,008,411	125,008,411	19.5	105,146,877	105,146,877	22.9	84.1
사회개발	292,854,446	292,854,446	45.7	239,732,866	239,732,866	52.2	81.9
경제개발	219,248,664	219,248,664	34.2	139,603,328	139,603,328	30.4	63.7
민방위비	1,513,048	1,513,048	0.2	1,176,251	1,176,251	0.3	77.7
지원및기타경비	63,346,147	63,346,147	9.9	29,045,117	29,045,117	6.3	45.9

5) 특별회계 예산결산

(표 참-9참)

연 별 회계별	회계수	예 산	세 입	세 출
1996	14	287,350,678	263,046,095	125,242,266
1997	15	346,153,487	340,115,428	189,480,893
1998	15	328,151,918	281,964,260	166,547,368
1999	12	227,769,933	229,313,113	100,270,687
2000	13	274,498,008	265,921,955	155,542,274
2001	12	419,256,216	407,880,726	260,821,525
2002	12	338,037,954	352,490,654	197,881,601
기 타 특 별 회 계	9	109,142,617	108,443,214	68,612,513
주택사업특별회계	1	3,922,668	4,040,103	3,920,362
의료보호특별회계	1	2,279,636	1,925,540	1,818,567
새마을특별지원특별회계	1	198,377	220,674	50,000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1	15,194,366	12,853,002	8,103,800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	1	676,690	711,053	242,686
교통사업특별회계	1	82,461,249	84,224,679	52,546,073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	251,151	251,175	

연 별 회계별	회계수	예 산	세 입	세 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1	3,003,418	3,054,225	826,403
유료도로관리특별회계	1	1,155,062	1,162,763	1,104,622
공 기 업 특 별 회 계	3	228,895,337	244,047,440	129,269,08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	61,232,107	61,088,054	47,022,207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	145,831,212	158,803,503	67,444,68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	21,832,018	24,155,883	14,802,194

자료: 2003성남통계연보

5. 지역경제

1) 물가안정

2000년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의 상승과 단위 노동비용의 하락세 둔화, 공공요금의 인상, 에너지 세제개편 등으로 전년 기준 2.7% 상승하였으며, 2001년에는 집세가 오른 주거비와 교육 및 교양오락 등이 상승한 데 비해 식료품과 공공요금의 인하로 연간 3.2% 상승하였다.

2002년 소비자물가는 부동산가격의 상승, 월드컵 및 4대지방선거의 영향, 국제 유가의 상승 등 물가상승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농수산물 가격의 안정을 비롯하여 각종 공공 서비스요금을 최대한 억제 관리하여 2002년 물가안정 목표치 3%대에서 안정세를 보였으며, 하반기에는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과 부동산 가격상승 및 대통령선거, 개인서비스 요금 등의 인상으로 물가상승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나, 원 · 달러 환율 안정으로 연평균 3%대의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체계적인 물가관리



성남시 물가상승률을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분당이라는 지역적 특성의 영향으로 전 도시 및 경기도 상승률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성남시 물가상승률을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분당이라는 지역적 특성의 영향으로 전 도시 및 경기도 상승률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주요생필품 및 개인 서비스요금의 가격동향을 수시로 파악한 후 시 홈페이지에 공표함으로써 유통업체나 업소간의 가격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설, 추석절, 연말 연시 등 물가인상 우려 시기별로 물가지도합

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가격인하 및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집중 관리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1) 물가안정대책 상황실 운영 : 4개소(시1개소, 구3개소)

(2)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공무원5, 유관기관5, 민간인10)

(3)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 지역현안 및 물가안정대책을 협의하고, 시장이 관여하는 공공요금 7건을 심의 · 결정하는 등 지역물가안정의 최고협의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2000년 1회, 2001년 4회, 2002년 2회).

(4) 소비자정책실무협의회 운영 : 경제통상국장, 지역경제과장, 위생과장, 주택과장, 문화 체육과장, 구 사회정책과장 3명, 구 환경위생과장 3명 등 총11명으로 구성되어 설, 추석절, 행락철, 연말연시 등 특정시기에 물가관련 실무 위원회를 연 4회 이상 개최하여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하였다.(2000년 4회, 2001년 7회, 2002년 6회).

(5)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 : 30명으로 구성된 요원들이 개인서비스요금 49품목을 월2회 조사하여 공표하였고, 주요 시장 및 대형매장의 주요생필품 40품목의 가격동향을 파악하여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공하였으며,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주관하에 실량검사, 품질 검사 지방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등 소비자 보호운동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3) 물가관리 실적 평가

성남시는 2000년, 2001년도 경기도 시 · 군 지방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 연말평가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구 물가관리추진상황을 상하반기에 평가하여 시정시책 종합평가에 반영하여 지방물가안정관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4) 상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공정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거래질서 문란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소비자보호와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공정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거래질서 문란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소비자보호와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1) 가격표시 의무업소 확대지정

모든 상품을 판매하는 33㎡이상의 소매업소와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소에 대하여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2) 부정(不正)계량 행위 단속 강화

모든 생활용품의 거래척도가 되는 계량기(주유기, 저울류 등)의 정밀 · 정확도를 수시 점검하여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6. 노사안정 및 취업알선

1) 노사안정

현재의 국제관계는 다변화되고 경제 전쟁으로 불리어질 만큼 국가간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 · 외의 제반여건 변화에 따라 노동운동 방향, 노사일체감 형성을 통한 동반자적인 관계 확립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남시의 노동운동은 비록 짧은 역사이지만 1980년대 말 사측의 노동조합 인식부족과 근로자들의 일시적 욕구표출로 악성 노사분규의 쓰라린 경험을 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경제위기 인식에 범국민적인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노사분규가 대폭감소 추세로 접어들었으나, 이제부터는 한 차원 높은 노사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바람직한 노동운동의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사용자측은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전환과 법테두리 내에서의 자율적인 노동활동의 최대한 보장, 기업경영의 공개 등을 통하여 노사일체감을 형성하여 회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근로자 계층은 사용자 측을 신뢰하며 회사의 발전과 함께하는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운동이 단순한 이기적 이익창출 보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노동조합운동이 단순한 이기적 이익창출 보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노동조합 조직 현황 및 운영

성남시노동조합은 2001년 12월말 현재 73개의 단위노조 또는 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원수는 10,16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조합 결성은 2000년 이후 소폭 감소추세에 있으며, 2001년 한해에는 7개 노조가 설립되고 10개 노조가 해산되었다.

2001년 임금협상 대상 업체는 51개 업체로서 전체의 80%인 40개 업체가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다. 2001년도 임금 협상이 없는 22개 업체는 주로 개별, 지역노조와 활동을 하지 않는 휴면 노조이다.

3) 노동쟁의 및 분규발생

1987. 6. 29 민주화 선언 이후 성행했던 노사분규는 199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화합 분위기 확산, 노사분규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사의 노력, 불법운동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으로 노사 분규가 감소되고 노사관계 안정기조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현재는 근로자 요구사항이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 협상 등 단순요구에서 벗어나 노조의 정치참여, 사회변화, 노동조합법 개정 등 다변화되고 있어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다양한 시책추진과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노동정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4) 노사화합 지원 시책

노·사·정 화합분위기 조성으로 산업평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사·정 연수회, 합동교육, 노조집행부 및 기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임단협이 집중되는 5월경에는 노사정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여 노사화합 결의문을 채택하고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임단협 조기 타결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관내 모든 직장단체가 참여하는 성남시장기 직장인 축구대회를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건전한 노사화합에 주력하여 왔다.



매년 임단협이 집중되는 5월경에는 노사정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여 노사화합 결의문을 채택하고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임단협 조기 타결을 유도하고 있다.

5) 건전한 노동조합 및 단체 육성

민원발생, 조직분규 등 취약노동조합을 중점으로 업무조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사법조치를 병행할 것이며, 건전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해외연수, 표창수여와 함께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6)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1)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성남시 1,270여개 기업체 4만5천여 근로자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생활편익시설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실질적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동상담과 각종 교육·훈련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노사관과 직업윤리관을 정립하여 건전 노조활동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산업사회 안정을 통한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근로자의 올바른 자아 및 가치관 정립으로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현 위치인 중원구 상대원1동 197-6번지 대지 6,632㎡에 사업비 3,515백만원을 투자, 지하 2층 지상 4층 연건평 1,315평의 건물을 1996. 7. 18일 개관하였다.

(2) 주요업무 내용 및 성과

① 근로자 취미·교양교육

근로자들의 자기소질 개발 및 정서함양과 기능, 기술훈련을 통하여 자격증을 취득케 하여 재취업 및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홈패션, 꽃꽂이, 제빵제과, 요리, 한지공예, 미용, 컴퓨터 등).

② 일반시민 취미·교양교육

일반시민 여가선용 및 자아발전을 통해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홈패션, 꽃꽂이, 제빵제과, 요리, 한지공예, 미용, 노래교실, 풍물놀이, 에어로빅, 컴퓨터 등).

③ 작품전시회 개최

근로자들에게 평소 갖고 있는 솜씨를 마음껏 과시하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잠재능력 배양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홈패션 등 6과목 400점).

④ 전문교양교육

근로자의 어학실력을 배양하고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실력 배양(영어, 일본어, 생활디자인 등).

⑤ 근로복지시설 개방 운영(체력단련실, 예식장, 식당, 근로자 어린이집-보육실).

7)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성남시 산업체에 근무하는 무주택 미혼 근로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다.

- 위치 :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2645번지 등 (3필지)
- 규모 : 대지 6,904㎡(2,092평), 건물 4,668㎡(1,412평)
- 수용능력 : 100세대 300명 (13평형 2개동)

8) 취업알선

기업체 등에 인력난 심화로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도와주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케 함은 물론, 구직자에게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 구청에 취업정보센터 4개소 및 동 취업상담창구 44개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질 높은 유효구인·구직 정보를 수시로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2000~2001년도 성과로서는 구인 10,930개 업체 26,382명, 구직 29,589명, 상담알선 44,890명, 취업 4,973개 업체 8,628명, 구직비율 1.12%, 취업률 29.2%이었으며, 취업자를 직종별로 보면 사무직 1,465명, 기술직 254명, 단순노무직 6,753명, 기타 172명으로 나타났다.



구인업체는 단순노무직 등 3D 업종을 요구하고 있는데 비해 구직자는 사무직 등을 선호하고 있어 직종, 임금, 근로조건 등이 상호간에 맞지 않아 취업알선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구인업체는 단순노무직 등 3D업종을 요구하고 있는 데 비해 구직자는 사무직 등을 선호하고 있어 직종, 임금, 근로조건 등이 상호간에 맞지 않아 취업알선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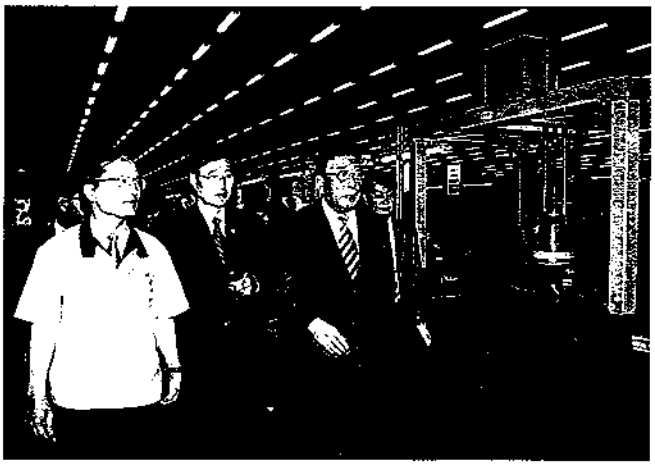
따라서 제조업체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직업훈련 확대 실시로 기술 및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또한, 구직자와 구인업체간 임금, 근로조건 등 상호 조정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한 취업알선이 요구된다.

9) 공공근로사업

2001년부터 공공근로사업 추진하여 매년 200,000명이 참여하였으며,

연간사업비도 10,000백만원이 소요되고 있다. 공공근로사업은 주로 도시 소공원 조성사업, 등산로 및 약수터 등 야산 가꾸기, 자투리 땅 이용 화단 조성, 녹색환경시범학교 조성,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사회복지시설 정비 및 따뜻한 사회만들기 사업, 정보화 추진 사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시민 홍보 등을 실시하였다.

10) 산업지원



<사진 3-8 : 106> 중소기업 현장 방문중인 이대엽 시장, 김상현 시의회 의장

(1)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관내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융자 및 적기 자금지원으로 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 도모 및 기업경영의 정상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2) 지원대상

성남시에 공장등록이 되어있고 가동중인 중소제조업체 및 벤처기업과 아파트형공장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구입(분양)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제조업체 및 벤처기업이다.

(3) 자금종류 : 운전자금, 창업자금 및 아파트형공장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분양자금

(4) 한도액 : 업체당 5억원 이내

(5) 은행별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3~4년(1년 거치 2~3년 분할 상환)

(6) 기금조성액 : 25,070백만원

(7) 자금대출현황 -2000년 : 89개업체 96억원
2001년 : 268개업체 615억원
2002. 6.30현재 : 45개업체 107억원

11) 해외통상지원

급변하는 세계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내 우수 중소수출업체의 수출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e-trade구축, 국제통상 전문인력양성, 해외박람회 참가 등 다각적인 통상진흥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1) 해외박람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업체 지원

관내 수출관련 중소업체의 해외마케팅 능력강화 및 수출증진을 위해 해외상품전시회 적극참여 등 무역거래를 다양하게 지원하여 국제경쟁력 강화

- 성남시관 단체참가 : 10회 40개 업체(상담건수 1,308건, 46,677천불)
- 전문박람회 개별참가 : 18회 18개 업체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 5회 25개 업체

(2) 관내 우수상품 해외홍보 지원

- 관내 우수상품의 해외홍보 지원을 통한 기업의 인지도 제고와 해외마케팅 능력 증대로 수출증대 도모
- 외국바이어에 대한 관내 우수상품의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시로 영문카달로그를 수집, 서울 주재 외국상무관, 외국상공회의소, 무역단체, 비지니스맨 투숙이 많은 호텔에 비치토록 순회 홍보
- 유망상품 영문카달로그 제작배포 : 6,000부

(3) 인터넷 무역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의 무역업무를 지원하고 인터넷을 통한 바이어발굴 및 무역정보의 제공 등을 통한 무역 인프라의 확충을 도모한다.



중소기업의 무역업무를 지원하고 인터넷을 통한 바이어발굴 및 무역정보의 제공 등을 통한 무역 인프라의 확충을 도모한다.

12) 외국자본 유치 적극추진

해외 투자자본의 관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홍보하여 투자로서의 인식을 제고하고 바이어와 성남시 기업을 연결토록 추진한다(외국자본 유치 홍보물 제작 배포 : 카달로그 형 500부, CD-ROM 400개 등).

제3절 환경 · 복지 행정

1. 사회복지

1) 국민기초생활보장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지원 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을 목적으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지원 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을 목적으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지원 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을 목적으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종전의 거택 · 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 ·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시 기준에 부적합한 대상자가 선정되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수급자 전반에 대하여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2)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생계유지에 필요한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는 10,083세대 22,109명에게 22,452백만원을, 2001년도에는 9,617세대 19,792명에게 26,621백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하였다.

3) 자립자활 능력 배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대한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자활촉진을 위하여 각종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이들의 자립의지를 고취시키는 데 만전을 기하였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지원센터를 지정받아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저소득가정의 자립은 자녀들이 성장하여 소득이 향상될 때 자립이 가능하므로 자녀들의 안정적인 학업을 위해서 학비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해주

고 있는데 2000년도에는 2,853명에게 3,77백만원, 2001년도에는 3,840명에게 2,452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소자본으로 자영업을 원하는 세대에게는 세대당 1,200만원 이내의 생업자금을 연리6.07%(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로 융자하고 있으며, 일반 저소득자에게는 세대당 500만원 한도로(3년 거치 4년 균등상환) 생활안정자금을 연리 5%로 융자 지원하여 저소득 서민의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4) 이웃돕기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장애인, 모자가정, 부자가정, 시설보호자 23,173명에게 953,740천원을 후원금으로 지원하였으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종교계, 공무원, 기업체, 정부투자기관, 일반 독지가들에게 홍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후원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2. 사회복지시설 운영

1) 사회복지관 운영



〈사진 3-8 : 107〉 을동 복지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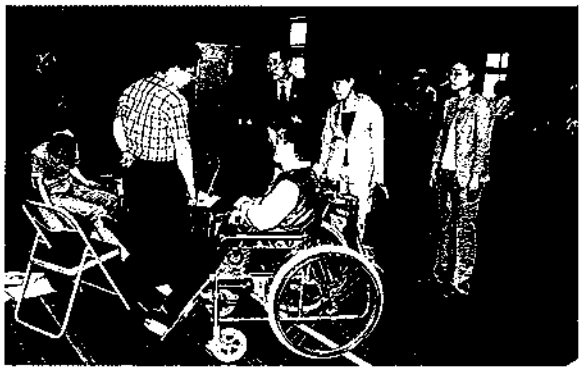
사회복지관은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을 배양하여 중산층으로 유도하고,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치료하여 지역사회 및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체로서,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성남종합사회복지관, 중탑종합사회복지관, 청솔종합사회복지관, 한솔종합사회복지관 등).

주요사업으로는 가정복지사업(가정문제종합상담, 직업 · 부업알선 · 취업 · 부업안내, 보건의료서비스, 부녀자 교양 및 취미교실,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상담), 아동복지사업(아동선도 및 사회교육, 어린이 공부방, 어린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치료하여 지역사회 및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체로서,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

이 기능교실, 유아보육교실 운영), 청소년 복지사업(청소년 상담 및 교양교육, 청소년 독서실, 청소년 기능교실 운영), 노인복지(노인사회교육, 여가지도, 불우노인지도, 노인부업, 노인식사 및 목욕 등), 장애인 복지사업(장애자서비스 알선 및 이송, 자립작업장 운영, 재가장애인 서비스 등), 지역복지사업(주민사회교육, 자원봉사자 양성, 후원자 발굴, 주민취미 교육, 주민편의시설 제공 등), 지역 복지사업 등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다.

3.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사진 3-8 : 108> 장애인 복지시설

2만여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재활작업장(30명), 한우리 주기 · 단기보호센터(60명), 장애인공동생활가정(8명)을 설치, 법인에 위탁 운영(949백만원지원)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생활시설로 150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소망재활원과 정신지체인생활시설로 53명의 장애인이 생활하는 예가원에 매년 2,39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해 1999년 2월부터 장애인 셔틀버스 2대를 구입 운영하고 있다.

장애 범주의 확대로 장애인이 급증하게 되어 중증장애인을 위한 이동목욕 차량 운영 및 장애인의 공원관람용 전동휠체어 5대를 구입 · 운영하며, 장애인결혼상담소를 운영하므로써 더 한층 피부에 와 닿는 장애인 복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장애로 인하여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업장과 재활훈련 및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관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1)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중증장애로 생활능력이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에게 치료 또

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소망재활원, 예가원은 근로능력을 상실한 장애인 150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양친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2)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모두가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이념을 실현하고자 설립되었다.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전인재활을 위한 상담,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재활과정을 통하여, 장애인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사회저변의 인식을 개선시켜, 장애인 모두가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이념을 실현하고자 설립되었다. 성남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신망애 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하며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상담실, 컴퓨터교실, 물리치료실, 심리 치료실, 언어치료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3) 장애인재활자립 작업장



장애인에 대한 기술습득 및 근로기회 부여로 장애인의 재활자립 능력제고와 사회참여도 제고를 통한 시민화합, 동참 분위기를 조성코자 건립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기술습득 및 근로기회 부여로 장애인의 재활자립 능력제고와 사회참여도 제고를 통한 시민화합, 동참 분위기를 조성코자 건립 운영하고 있다. 성남시 장애인재활작업장은 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30여 명의 장애인이 취업함으로써 재활자립에 기여하고 있다.

4) 장애인주기 · 단기보호시설 운영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기 · 단기보호를 실시 전문재활 서비스 제공과 재활자립 능력 제고 및 장애아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기회 부여로 경쟁력을 제고코져 건립 운영하고 있다. 한우리주기 · 단기 보호센터는 법인에 위탁 운영하며 주간 또는 단기간 동안에 장애 아동을 보호하여 장애아동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기회 부여로 경쟁력을 제고한다.

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지도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코자 건립 운영한다. 성남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8명의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립에 기여하고 있다.

4. 의료보호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이재민, 의사상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등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를 증진함에 그 목적이 있다. 2001년도 의료보호대상자는 9,383세대 19,298명에게 총진료비의 80%인 20,472,584,000원을 지원하였다.

5.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금 지원

소년소녀가장 아동 중 연령초과로 보호가 해지되었으나 자립기반이 미비한 이들에게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자 2002년부터 보호가 해지되는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1) 해지대상자 7세대 중 5세대 각 3,000천 원씩 15,000천원 지급
2) 지급대상 : 소년소녀가정 보호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으로 연령 초과자 5명.



문화행정은 성남의 지방문예진흥 기획 및 대책수립, 문화원지원육성, 문화재단 설립, 문화예술회관 건립, 문화원 지도관리, 문화시설 확보 및 관리, 성남시 문화상 관리, 사찰 및 종교단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6. 문화 · 예술

문화행정은 성남의 지방문예진흥 기획 및 대책수립, 문화원지원육성, 문화재단 설립, 문화예술회관 건립, 문화원 지도관리, 문화시설 확보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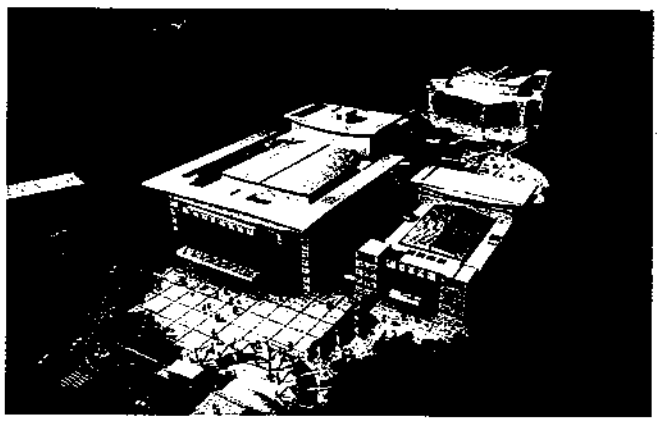
성남시 문화상 관리, 사찰 및 종교단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1) 문화재 관리(보물7, 도 유형문화재2, 도 무형문화재2, 도 기념물4, 도 문화재자료 2, 시 향토유적2 등).
2) 문화단체 지원

시민문화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전하고 세련되며 교양이 넘치는 시민상을 확립하여 시민 자긍심 고취를 통한 애향정신과 정서적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 생활문화, 외국어 과정에 대한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전통꽃꽂이반, 생활영어반, 생활중국어반, 생활일본어반, 전통무용반, 서화반, 풍물놀이반, 서예(기초, 중급)반, 민요 판소리반 등 운영).

3) 문화예술회관 건립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로 21세기 푸른문화도시 기틀마련과 시민 · 학생의 교육, 예술, 문화, 여가선용 등 문화활동 공간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한다(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산164번지 일원).



<사진 3-8 : 109> 성남 문화예술의 전당

4) 예술단체 지원

성남시의 외형적 성장에 걸맞은 시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관내 대표적인 예술단체인 예총의 예술행사를 비롯하여 일반예술단체의 예술행사도 적극 지원,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관내 대표적인 예술단체인 예총의 예술행사를 비롯하여 일반예술단체의 예술행사도 적극 지원,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5) 시립예술단 운영

문화도시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정서 함양을 위해 창단한 성남시

립 예술단은 많은 연주회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원들의 노력 및 시의 지원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합창단으로 발돋움 하고있다.

7. 체육과 청소년

1) 생활체육 저변확대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의 확충과 각종 생활체육교실 운영, 체육동호인 조직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발전에 따른 국민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과 여가선용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를 충족코자 국민의 체육에 대한 기대와 참여의 장이 확산 생활화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 성남시에서는 시민의 생활체육 욕구에 부응하고 쾌적하고 활기찬 생활여건 조성을 위하여, 100만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의 확충과 각종 생활체육교실 운영, 체육동호인 조직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동네체육 시설 35개소에 간이운동시설 5종 59면, 체력단련시설 369점, 부대편의시설 625점이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2종합운동장을 건립하여 체육관내에 수영장, 스쿼시장, 빙상장, 체력단련장 등을 설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체육동호인 조직 확대에 있어서는 민간 자율조직과 직장 중심의 동호인 조직결성을 유도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2) 건전청소년 육성

(1)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학업과 근무에서 오는 평소의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나 서로 어울려 우정을 나누고 함께 놀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1990년도부터 시 및 3개구에서 분기 1회 이상씩 청소년수련관 등 기존 시설을 활용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어울마당이 활성화되어 건전한 지역사회 청소년문화의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청소년 어울마당은 총 32회 개최에 26,661명이 참가하였다.

(2) 청소년공부방 운영

청소년공부방은 도서관 대체시설로 설치되어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으나, 최근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앙, 수정구, 중원구)문화정보센터 3개소 개관으로 청소년공부방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으며, 2002년도 현재 19개소를 운영중이나, 이용률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청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지도, 확인하고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3) 청소년수련원 운영

생활권 수련시설은 주로 일상생활권 안에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하며, 도보나 대중교통수단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택가, 도심지 또는 도심지 근교에 설치되며, 각종 취미활동, 문화활동, 체육활동 등 주로 숙박을 요하지 않는 당일 귀가형 수련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성남시 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 1개소와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다. 청소년수련관은 1994년 12월 7일 개관하여 수영장, 무용교실, 체력단련장(헬스장), 체육관, 공연장(418석), 상담실, 정보화 교실, 유아체능단,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고충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함께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기여하고 있다.



청소년의 고충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함께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기여하고 있다.

제6절 보건 · 환경행정

1. 위생

1) 위생업무

위생업무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건강을 의미하는 것으로 식품위

생과 공중위생을 주된 업무로 추진하고 있다. 식품위생이라함은 인간의 생명유지 및 건강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음식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식품과 관련된 위생상의 제반 위해요소를 없앰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며, 공중위생이라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사회적, 공간적 기능에 대한 위생관리를 말하는것으로서 생활수준의 향상과 다양화로 공중위생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공중위생이라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사회적, 공간적 기능에 대한 위생관리로서 생활수준의 향상과 다양화로 공중위생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성남시는 관내의 식품 · 공중위생업소의 선진화를 위해 '깨끗하고, 밝고, 친절한' 위생업소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1) 모범음식점 지정 확대

식생활개선운동 및 일반음식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모범 음식점의 지정을 전체업소의 5%수준까지 확대하고, 지정된 모범 음식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제 실시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 '좋은 식단제' 추진운동 전개

음식쓰레기로 인한 식량자원의 낭비 및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음식점에서의 '좋은 식단제'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음식점의 자율적 참여와 집단급식 시설의 시범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시민의 참여와 홍보를 위해 유선방송, 홍보책자 제작 등 다양한 홍보로 시민의 관심도 제고와 함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 불법영업 감시 활동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질서 확립과 청소년의 선도 및 과소비 불식 풍토 조성을 위해, 퇴 · 변태 유해업소, 심야영업행위업소, 무허가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영업소에 대하여 시 · 3개구 및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이고 과감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종전 단속대상 행위인 유흥접객원 고용, 미성년자 주류제공 및 출입묵인 행위, 일반음식점에서의 유흥형태 영업, 각종 시설기준 위반 등을, 시 구 상설기동단속반 4개반이 매일 순회 점검 지도단속하고 있으며, 유관

부서 및 유관기관(경찰)등 합동단속반도 병행 지도단속을 실시, 연간 4,729개 업소를 지도단속하여 635개소가 적발되어 13.4%의 위법 영업업소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불법 위반업소 635개소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37, 허가취소 178, 영업정지 205, 시설개수 34, 기타 시정지시 181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 건전 영업풍토 조성 및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 고용 및 출입 묵인 등 미성년자 관련 적발 건수가 149건으로 전체적발건수의 20.6%를 차지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지도단속은 물론 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 각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그 밖의 취약지역인 중동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에 대하여는, 각 구 위생지도계 직원으로 편성된 상설기동단속반이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심야영업의심업소에 대하여 지속적 홍보유인물 배포 및 업소방문 계도, 업주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자율적 실천 분위기 조성 등 다각도로 총력을 경주하였으나, 업주의 준법의식 결여로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부정 불량식품 지도 단속

시민생활수준 향상으로 식품의 제조, 가공 및 운반, 보존 등의 기술이 다양하게 되고 유통체계도 전국적인 형태로 확산, 복잡해지고 있어 식품의 안전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으며, 수입 개방화로 가공식품과 농·수·축산물들이 전세계에서 대량으로 수입, 유통 판매됨에 따라 농약(중금속)에 오염되었거나 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및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의 판매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건강보호 인식 증대에 따라 효능도 입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들이 다양하게 개발 또는 수입되어 과대, 허위광고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시민들의 건강보호 인식 증대에 따라 효능도 입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들이 다양하게 개발 또는 수입되어 과대, 허위광고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성남시는 식품의 위해요소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효과적인 단속체계를 수립하여 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아울러 행정기관(시·구),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소속 명예식품위생감시원(37명)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판매점, 유통식품의 관리강화 및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으며,

수입식품과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도 철저히 실시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식품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 환경녹지정책

1) '성남의제 21' 추진

성남시는 수정·중원·분당구 등 개발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생활권의 이원화로 주민간 공간적, 심리적 일체감이 미흡하고, 기존시가지의 무계획적 도시성장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서울시에의 종속성이 강하고, 수도권 정책의 영향으로 서울소재 직장에 많이 다니고 있어 도시의 정체성이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땅값 상승과 공장입지 규제 및 서울비행장과 개발제한구역으로 토지이용 제약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시의 환경실태를 살펴보면 수질오염 측면에서 볼 때, 용인지역 오·폐수의 직접유입에 따른 상류지역이 오염되어 있으며, 서울 경계지역 오·폐수의 탄천 직접유입으로 하류지역이 오염되고 있다.

한편 성남시의 환경실태를 살펴보면 수질오염 측면에서 볼 때, 용인지역 오·폐수의 직접유입에 따른 상류지역이 오염되어 있으며, 서울 경계지역 오·폐수의 탄천 직접유입으로 하류지역이 오염되고 있다. 또한, 탄천 수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상대적인 오염 악화 및 건천화와 지하수 고갈, 오수 및 우수관 오접이 원인이 되어 쾌적한 자연(수변) 휴식공간의 조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대기오염 측면으로 보면 자동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이 심각하고, 전국교통의 경유지로서 교통량이 매우 많으며, 지형적 여건 (분지형태)에 따른 오염물질의 이동 방해가 있고 대로변 차량통행량 급증으로 인한 소음피해가 크게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자연휴식 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삶의 질'이 저하되는 바, 녹지면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원 등 생활녹지공간이 협소한 현실이다.



울창한 숲이 살아있는 환경에서 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지방의제 21」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위기를 극복하고, 맑은 물과 쾌적한 공기, 그리고 울창한 숲이 살아있는 환경에서 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의제 21'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촉구가 필요한 바,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의식전환의 계기로 삼으며, 주요 그룹의 협조체계

구축하여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내 여론주도층 인사(opinion leader)들의 인식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 현안문제의 철저한 진단으로 사회통합을 이뤄 시민공동체를 구축하고, 성남시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세워 사회 경제적인 풍요를 이루고,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배양하고 주인의식 및 정주성(定住性)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2) '성남의제21' 추진방향

(1)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21세기 비전을 모색한다.
(2) 범지구적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지역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방법 제시와 행동계획을 수립한다.
(3) 민 · 관 · 기업 등이 서로 동반자 의식을 가지면서 광범위한 참여를 통한 환경적으로 쾌적하고, 사회 ·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문화적으로 건전한 세계속의 성남을 건설한다.

3) '성남의제21'의 기대효과

'성남의제21' 실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성남지역의 각종 환경 관련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유지 관리되며, 이를 바탕으로 생태, 수질, 대기 및 토양 등의 자연환경이 개선되고, 친환경적으로 조화롭게 발전하는 도시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에게 배려하는 정감있고 질서를 잘 지키며, 예절 바른 사회문화환경의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지역의 환경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시민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게 되고, 관련 단체들의 연합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그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 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향후 지역의 환경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시민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게 되고, 관련 단체들의 연합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그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 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지역의 정체성이 제고되어 한마음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시민 대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역사회의 역량이 결집되고, 시민과 지방정부가 하나되어 환경지

킴이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지방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얻게 되고 한국에서 대표적이며 나아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선진 환경 지방자치 단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성남시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3. 환경보전

1) 시민환경교육

현재 환경문제는 지역자체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지방정부 등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환경파수꾼으로서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21세기 꿈이 있는 푸른 성남'을 만드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취약한 지역내 환경 민간활동 기반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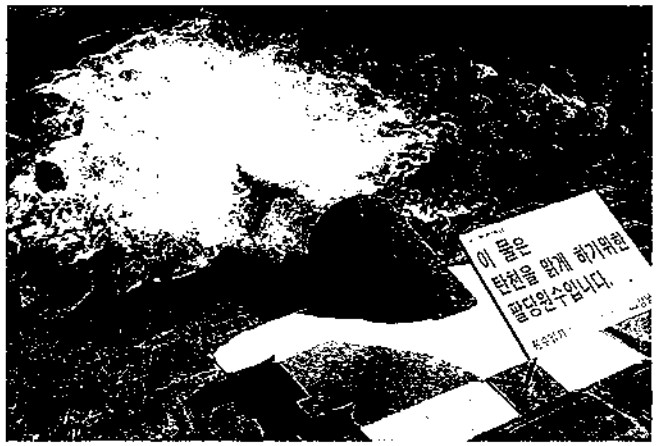
지역에서의 취약한 민간 환경보전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지역의 환경문제에 참여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써 그들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느낄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현장활동 및 체험위주의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그들의 자치활동으로 추진하게 함으로써, 지역에서의 환경체험교육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이들이 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파수꾼으로서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21세기 꿈이 있는 푸른 성남'을 만드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취약한 지역내 환경 민간활동 기반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수질관리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질 환경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 환경기준은 하천, 호소(湖沼), 해역으로 구분하고 상수원수, 자연환경, 수산용수, 수영(水泳)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환경보전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용 목적별 적

용대상으로 하천 호소에 1내지 5등급, 해역에 1내지 3등급으로 구분하여 수질환경기준을 정하고 있다.



<사진 3-8 : 110> 수질관리를 위하여 탄천에 유입되는 팔당 원수 공급

(1) 하천수질오염감시

성남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산업폐수는 복정동 소재 하수처리장에 유입되어 탄천으로 방류되고 있으나, 상류지역인 용인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탄천으로 직접 방류되고 있다. 환경부에서 운영중인 하천 수질측정망의 연도별 오염도 변화 추이를 보면, 상류지역인 용인 죽전교 지점과 중류지역인 여수대교 지점, 하류지역인 서울 대곡교 지점의 오염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용인지역에 조속히 하수처리장이 건설되어 운영된다면, 탄천수질이 개선될 것이다.

성남시에서는 탄천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질오염측정망을 운영하여 준용하천 및 소하천에 대하여 지속적인 수질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하천 순찰 공익요원을 활용하여 매일 하천순찰을 실시, 수질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 산업폐수 관리강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등급별(청, 녹, 적)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장마철, 갈수기 등 취약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폐수배출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폐수배출업소는 성남시 474개소, 성남공단은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고, 공단외 1~3종 사업장에 대하여는 경기도에서, 4~5종 사업장은 성남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방법은 최근 2년간의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삼아 사업장을 종별, 등급별(청색, 녹색, 적색)로 구분하여 점검 횟수를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주요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의 운영 관리 상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환경관리인 선임

및 준수사항 이행 상태 등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사후 이행 여부를 계속 감시하여 정상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3) 대기관리



대기오염은 인간의 활동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도 있다. 인공발생원에서 배출되는 물질은 연료의 연소, 광물의 운반과 적치, 연마작업, 화학공정, 난방, 교통기관에서 주로 배출된다.

대기오염은 인간의 활동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도 있다. 인공발생원에서 배출되는 물질은 연료의 연소, 광물의 운반과 적치, 연마작업, 화학공정, 난방, 교통기관에서 주로 배출되는 물질은 연료의 연소, 광물의 운반과 적치, 연마작업, 화학공정, 난방, 교통기관에서 주로 배출된다. 한편 자연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물질은 화산재, 꽃가루, 황사, 산불에 의한 매연, 산림에서 배출되는 탄화수소, 토양에서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 등이 있다.

대기오염을 배출하는 인위적인 배출원을 크게 3가지로 나누며 대규모 공장이나 발전소 등의 점오염원(點汚原), 일반 가정난방 등과 같이 넓은 면적에 고르게 분포된 면오염원(綿汚原),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과 같이 움직이는 교통기관에 의한 선오염원(線汚原), (이동오염원)이 있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2002년 6월 30일 현재 대기오염물질의 주요발생원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총 120개소로서,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서 성남공단지역에 소재한 7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공단외 지역 1~3종 배출업소 4개소를 관리하고, 공단외 4~5종 사업장 41개소를 성남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2) 자동차의 매연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자동차 운행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데 경유를 사용하는 트럭 등 대형차량에서는 매연(먼지) 및 질소산화물(NOx)이, 휘발유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에서는 일산화탄소(CO) 및 탄화수소(HC)가 많이 발생된다.

(3) 대기오염관리 추진대책

① 저황유 공급

연료사용이 계속 증가되어 상대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가속화

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연료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1991년 4월에 경기도 18개 시·군(성남 등)에 대하여 황함유율이 B-C유는 1.6%이하, 경유는 0.4%이하를 사용토록 하였다. 1993년 7월부터는 황함유율을 B-C유는 1.0%이하, 경유는 0.2%이하로 더 강화시켰으며 1997년 4월 및 1998년 6월에 걸쳐 연료사용 규제 고시 내용을 개정하여 황함유율을 강화시켰다. 이와 같이 저황유를 확대 공급함에 따라 아황산가스 배출량이 감소되어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낮아져 성남시의 대기의 질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연료사용이 계속 증가되어 상대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가속화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연료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②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연료사용규제고시에 의거 1991년 9월 1일부터 성남시 지역에 보일러 용량의 합이 2톤 이상의 업무용(영업용 및 공공용 포함)시설에 대하여 청정연료인 LNG사용을 의무화하기 시작하였으며, 1992년에는 0.5톤이상, 1995년에는 0.2톤 이상으로 확대하여 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중앙집중난방식 공동주택의 경우는 1991년 9월 1일부터 평균 전용면적 35평 이상에 대하여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하였고 1992년에는 30평이상 1993년에는 25평이상까지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며, 업무용 시설과 중앙집중난방식 공동주택의 사용연료를 청정연료 또는 경유로 정하고 있다.

③ 오존경보제 추진

오존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오염물질로서 특히 노약자, 유아와 환자에게 유해하며 천식이나 기종(氣腫)과 같은 호흡기 환자에게는 더욱 해가 된다.

일반적으로 오존은 눈의 염증, 두통 및 신체적 불쾌감을 유발하고 감기 및 폐렴에 대한 저항력을 감소시켜 만성적인 심장질환, 천식, 기관지염 및 기종을 악화시킨다. 또한 불포화지방산 잔재물을 포함하는 세포막을 공격하기 쉬워 폐수종, 폐출혈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오존경보제는 대기 중의 오존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지역거주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로서, 1990년 이후 자동차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오존오염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어 1997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오존오염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며 발령

(해제)권자는 경기도지사(환경국장)이다.

④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계획



효율적인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오존경보제가 시행되는 하절기에는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관내 정비업소 등과 함께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지속실시 할 것이다.

효율적인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오존경보제가 시행되는 하절기에는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관내 정비업소 등과 함께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지속실시 할 것이다. 또한,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배출허용기준 강화나 노상단속 등의 운행차 관리대책이 규제수단의 근간이 되어 왔지만, 이러한 수단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저감효과에 한계가 있어 결국 저공해 자동차인 천연가스 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⑤ 비산먼지 저감대책

비산먼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 또는 장소에서 분체상 물질의 쌓기, 내리기, 이송, 수송 또는 야적 공정중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먼지를 말하며, 비산먼지발생 대상 사업으로는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및 시멘트 관련제품 제조 가공업, 비금속물질 채취, 제조, 가공업, 제1차 금속 제조업, 비료 및 사료제조업, 건설업, 토사운송업, 운송장비제조업 저탄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고철 또는 곡물하역업을 대상으로 한다. 2002년 6월 30일 현재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현황을 보면 144개소이며, 이 중 대부분이 건설공사장으로 건설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4) 토양환경관리

(1) 토양환경 관리체계

토양을 오염시키는 물질은 개별 환경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의 모든 오염물질이 대상이라 할 수 있겠으나, 공기나 물, 폐기물 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토양을 오염시키는 물질의 관리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기존의 법령에서 1차 관리토록 되어 있고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저장시설의 누출 등 직접적으로 토양을 오염시키는 경우와 간접오염의 결과로 오염된 토양의 개선에 비중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

(2) 토양오염물질

토양에서 분해되지 않고 장시간 잔류하는 물질로 농작물의 생육을 저해하거나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의 작용으로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시안화합물, 페놀류, 유류(동식물성제외)등 15항목과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물질을 토양오염물질로 규정하여 관리한다.

(3) 토양오염 방지대책



토양에 대한 오염도 변화추이 등 오염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장래예측 가능한 토양오염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지역 토양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토양에 대한 오염도 변화추이 등 오염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장래예측 가능한 토양오염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소음 · 진동 관리

성남시에 소재한 소음 · 진동배출업소는 6개소가 있으며, 소음 · 진동 발생원은 공장 · 사업장의 소음, 건설작업 소음, 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의 교통소음, 이동행상의 마이크소음 등 일상 사업활동에 따른 다양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

(1) 생활소음 · 진동 방지 대책

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소음 발생원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특히 정온(靜穩)을 필요로 하는 학교, 병원 등의 주변 공장에 대하여 저소음 공정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소음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2) 공사장 건설 소음 저감 대책

공사장 소음 민원이 발생하기 쉬운 하절기에 소음 · 진동 규제지역안 대규모 토목공사 현장 및 건설 공사장에 대하여 집중 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방음벽 설치, 특정 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저감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3) 교통소음 저감대책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성남시에서는 교통소음을 주기적으로 측정 관리하고 있으며, 교통소음도에 따라 교통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교통소음 규제지역에 대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자동차의 속도 및 경음기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유관부서와의 협조를 강화하여 교통소음을 저감하고 있다.

6) 환경신문고 운영

한정된 단속인력만으로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순간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환경오염 행위의 감시·단속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이 폐수 불법 방류, 자동차매연배출 등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128 환경신고 전화, 인터넷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내용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있다.

3. 공원조성 및 관리



도시공원은 그 기능에 따라 다시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및 묘지공원으로 세분된다.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서, 시민의 여가선용과 이용도를 증진하고 공원별로 특성을 부여하여 개발함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공간을 의미하는데, 도시공원은 그 기능에 따라 다시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및 묘지공원으로 세분된다.

성남시의 도시공원은 영장근린공원, 수진공원, 은행공원, 단대공원, 대원공원, 양지공원 등 총121개소 18,765,295㎡이며, 조성된 공원에는 관리인을 상주시켜 청소, 제초 수목전지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시설물의 도색, 보수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제7절 도시 · 주택 행정

1. 도시

1) 성남의 도시계획

성남시의 도시계획은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개발초기 서울시의 주택지경영사업이 1단계로 보면, 1971년 8.10사태 이후 경기도 주관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2단계이고, 1973년 시승격후 성남시에서 수립한 1991년까지의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3단계이다. 1992년부터 2011년까지의 장기계획이 4단계, 1996년~2016년까지의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이 5단계 도시계획이다.

2) 성남의 도시현황

연별	기준년도	목표년도	인구		계획구역면적	용도지역			
			기준년도	목표년도		합계	소계	주거지역 일반주거	준주거
1996	1992	2001	561,000	1,050,000	145.80	145.80	19.73	18.64	1.09
1997	1992	2001	645,793	1,050,000	145.80	145.80	19.73	18.64	1.09
1998	1996	2016	917,448	1,200,000	145.80	145.80	19.73	18.64	1.09
1999	1996	2016	917,448	1,200,000	141.72	145.80	19.73	18.32	1.41
2000	1996	2016	917,448	1,200,000	141.72	141.72	19.74	18.34	1.40
2001	1996	2006	917,448	1,080,000	141.72	141.72	19.74	18.34	1.40
2002	1996	2006	917,448	1,080,000	141.72	141.72	19.74	18.34	1.40

연별	용도지역별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소계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공업	소계	일반공업	준공업	소계	보존녹지	자연녹지
1996	4.42	-	-	-	4.42	1.60	1.51	0.09	120.05	40.85	79.20
1997	4.42	1.69	2.07	0.66	-	1.60	1.51	0.09	120.05	40.85	79.20
1998	4.42	1.69	2.07	0.66	-	1.60	1.51	0.09	120.05	40.85	79.20
1999	4.42	1.69	2.07	0.66	-	1.60	1.51	0.09	115.97	37.94	78.03
2000	4.42	1.69	2.07	0.66	-	1.60	1.51	0.09	115.96	37.94	78.01
2001	4.42	1.69	2.07	0.66	-	1.60	1.51	0.09	115.96	37.88	78.08
2002	4.42	1.69	2.07	0.66	-	1.60	1.51	0.09	115.96	37.88	78.08

3) 2016년 성남의 도시기본계획

1984년 9월 29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01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고, 2006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1992년 12월 28일 변경 수립하였으나, 분당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급격한 인구의 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 광역교통수단인 지하철 2개노선(분당선, 8호선)의 개통 등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구 집중에 따른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요구에 부응하고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성남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998년 5월 1일 성남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1) 도시기본구상

- 지리적 특성상 도시발전 주축을 남북방향으로 설정
-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조화되는 연계체계 구축
- 기존 도시기능의 유지강화 및 도시발전축을 고려한 신규 기능 유치

(2) 도시의 미래상

- 서울 의존적 부심기능에서 탈피한 21세기 경기지역 중심도시
- 산업 · 경제가 안정되고 도시기반시설을 완비한 자족도시

- 2016년 인구 120만의 수도권 동남부지역 거점도시
- 산 · 학 · 연의 기능이 조화되는 첨단 정보 산업도시
- 교육 · 문화 · 사회복지 기능이 충족되는 선진 문화도시
- 자연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환경의 전원 주거도시

(3) 실천전략

① 도시공간구조의 개편
- 수도권의 주요기능 분담과 성남시의 자생력 제고방안 마련
- 이원화된 도시공간구조를 3핵 중심구조로 재편하고 신 · 구시가지의 균형발전 도모

② 토지이용계획체계 정비
- 생활권별 특성을 부각시켜 도시 위상 제정립
- 남부 보전녹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통해 전원적 환경 조성

③ 교통체계의 개선
- 신 · 구시가지의 연계체계 강화를 위한 가로망 계획 수립
- 주변지역과 연계강화를 위한 지역간 도로체계 확충

④ 지역경제기반 및 도시경쟁력 제고 전환 유도
-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첨단산업으로의 전환
- 지역기반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 자립도 확보

⑤ 도시생활 환경의 개선
- 기존시가지 :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 신시가지 : 기존시가지와 연계성 및 자족기능 제고

(4) 2016년 성남의 도시

① 계획인구 추정

연도	계획인구	기존시가지 인구	신 개발지 인구		외부유입 인구 벤처단지 및 연구단지
			분당지구	판교지구	
1996	917,448	545,034	372,414	-	-

연도	계획인구	기존시가지 인구	신 개발지 인구		외부유입 인구
			분당지구	판교지구	벤처단지 및 연구단지
2001	1,040,000	625,000	415,000	–	–
2006	1,080,000	645,000	415,000	10,000	10,000
2011	1,150,000	660,000	415,000	60,000	15,000
2016	1,200,000	670,000	420,000	85,000	25,000

②생활환경(1차 기본요소)

	구 분	단위	1996	2001	2006	2011	2016
인구 및 주택	계획인구	명	917,448	1,040,000	1,080,000	1,150,000	1,200,000
	가구당인구	명	3.1	3.1	3.0	3.0	3.0
	주택보급율	%	71.6	72.0	77.8	86.2	88.0
상·하수도	상수도보급율	%	99.0	100.0	100.0	100.0	100.0
	1인1일급수량	ℓ	347	350	400	450	50
	하수도보급율	%	97.0	100.0	100.0	100.0	100.0
	하수처리장	개소	1	1	2	2	2
교통·통신	도 로 율	%	27.3	34.5	32.5	34.0	35.0
	도로포장율	%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동차등록대수	대/천명	202	273	336	377	416
	전화보급대수	대/100명	46	50	60	65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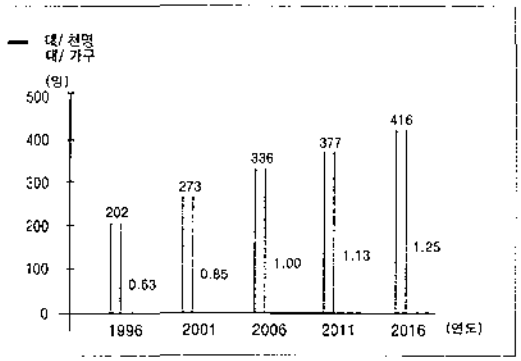
③ 토지이용 계획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당초	변경	변경후		
계	145.798	△4.078	141.720	100.0	용인시 일부 지역 개척
주거용지	20.240	△0.004	20.236	14.3	
상업용지	4.427	0.063	4.490	3.2	개발제한
공업용지	1.600	–	1.600	1.1	구역
녹지용지	119.531	△11.094	108.437	76.5	54.18㎢
개발예정용지	–	6.957	6.957	4.9	

④ 자동차보유대수 추정

(표 8) (00)

구분	보유대수 지표	
	대/천명	대/가구
1996	202	0.63
2001	273	0.85
2006	336	1.00
2011	377	1.13
2016	416	1.26



⑤ 주택수요 추정

(표 8) (00)

구분	단위	1996	2001	2006	2011	2016
총 인 원	명	917,448	1,040,000	1,080,000	1,150,000	1,200,000
가구당평균인원수	명	3.1	3.1	3.0	3.0	3.0
가 구 수	호	295,508	335,500	360,000	383,300	400,000
주택보급율	%	71.4	72.0	77.8	86.2	88.0
주택수요가구수	호	211,580	241,600	280,100	330,400	352,000
감실주택수	호	1,740	2,048	2,363	2,768	3,298
주택총수요	호	213,320	243,600	282,500	333,200	355,300
주택공급율	%	96.0	97.0	98.0	99.0	100.0
주택실수요	호	204,800	236,300	276,800	329,800	355,300

⑥ 주택 유형별 공급계획

(표 8) (00)

구 분	1996	2001	2006	2011	2016
계	173,547	236,300	276,800	329,800	355,3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독주택	58,200	76,325	83,594	89,376	88,825
	(33.5)	(32.3)	(30.2)	(27.1)	(25.0)
연립주택	7,952	11,106	13,286	16,160	17,765
	(4.6)	(4.7)	(4.8)	(4.9)	(5.0)
아파트	107,395	148,869	179,920	224,264	248,710
	(61.9)	(63.0)	(65.0)	(68.0)	(70.0)

⑦ 쓰레기처리 전망

구 분	단위	1996	2001	2006	2011	2016
계획인구	명	917,448	1,040,000	1,080,000	1,150,000	1,200,000
1인1일배출량	kg	0.74	1.0	1.0	1.0	1.0
총배출량	천톤/일	676	1,040	1,080	1,150	1,200
수 거 율	%	100.0	100.0	100.0	100.0	100.0
쓰레기소각장	개소	1	2	2	3	3
쓰레기매립장	개소	2	3	4	4	5

⑧교육시설 계획

구 분		단위	1996	2001	2006	2011	2016
초등학교	학 생 수	명	83,613	93,600	95,040	98,900	102,000
	학급당학생수	명/학급	45	40	35	30	28
	학 교 수	개교	54	65	75	92	101
중학교	학 생 수	명	43,896	49,920	50,760	52,900	54,000
	학급당학생수	명/학급	50	44	35	34	33
	학 교 수	개교	33	2	60	65	68
고등학교	학 생 수	명	43,105	42,640	44,280	46,000	48,000
	학급당학생수	명/학급	52	42	35	34	33
	학 교 수	개교	26	34	53	56	61
전문대학		개교	5	5	5	5	5
대학교개교			1	1	1	1	1

4)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지정한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구역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지정한다.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며, 개발 제한구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부상 필요한 시설, 농림수산업에 관련된 시설로 구역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시설, 구역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부락 공동시설,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 등이다.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도시의 확산에 대한 구역의 보전 및 현행제도 유지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나,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제완화 등 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되, 불법 훼손 행위에 대하여는 반드시 철거, 원상 회복토록 하여 법질서가 확립되도록 할 것이며, 규제완화를 통하여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한편, 구역관리를 강화하여 사후 단속에서 사전 예방적 차원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다.

(1) 주요 불법유형

- 허가 없이 토지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행위
- 허가면적을 위반하여 토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행위
- 승인 및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공사를 착공하는 행위
- 기타 물건 무단 야적 등 개발 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불법사항 조치

- 불법시설 등의 발생시에는 발견 즉시 자진 철거 또는 원상복구토록 계고하고 불응시에는 개발 제한구역 관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후 행정대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 행위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자진 철거 또는 원상 복구토록 시정 유도한다.
-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자는 불법행위가 경미하더라도 고발 등 의법조치한다.

5) 도시개발 사업계획

(1)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판교지구 택지 개발사업은 판교 신도시 건설목적으로 하여 저층 · 저밀도의 '친환경' 시가지 조성, '선교통 - 후입주' 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 최소화, '지구단위계획' 을 토대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관리 등을 주사업으로 한다.

① 지구현황 : 성남시 분당구 판교 운중동, 수정구 사송동 일원, 9,315천㎡(2,818천평)

② 사업기간 : 1999년~2011년

③ 개발방안 : 주거, 벤처, 녹지, 도로 등 상업용지
(주거용지 : 90만평, 벤처용지 : 20만평, 녹지 : 165만평, 상업용지 : 5만평 등)

④ 주택호수 : 총계 단독(70~150평형) 연립(50평형) 아파트 등 19.7천호

⑤ 실시계획 수립 및 택지 분양 : 2005년 6월, 주택분양 : 2005년 12월, 철도 · 도로 등 교통대책 완료 : 2008년 12월, 주택입주 : 2009년 1월.

⑥ 기대효과 : 저층, 저밀도의 친환경 시가지 조성

(2) 수정 · 중원구 재개발사업

수정 · 중원구 구시가지가 안고 있는 인구 과밀 및 과소 토지의 밀집, 공공 및 기반 시설 부족 등의 열악한 도시환경 개선과 신 · 구시가지간 환경격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재개발을 통하여 해소하고 상호 균형적 발전을 도모한다.

① 위치 및 면적 : 수정 · 중원구관내 241ha(73만평)[수정구 : 143ha(43만평), 중원구 : 98ha(30만평)]

② 사업량 : 20개 구역(수복 재개발 14개구역, 철거 재개발 6개구역)[수정구 : 11개구역(철거1, 수복10), 중원구 : 9개구역(철거5, 수복4)]

③ 사업기간 : 1999년~2016년

④ 기대효과

- 수정 · 중원구 기성 시가지의 도시환경 개선
- 기성 시가지와 신시가지간 균형적 발전

(3) 도촌지구 택지개발 사업

전세시장의 수급 불균형 해소와 저소득층의 안정적 주거기반 확보위한 임대 주택의 공급확대 및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 이주단지 활용

① 위 치 : 중원구 도촌동, 갈현동 일원[799천㎡(242천평)]

②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토지이용 : 전(82천평), 답(60천평), 대지(8천평), 임야(51천평), 기타(41천평)

③ 인 구 : 184세대, 525명, 개발규모 : 6,200세대(18,600명)

④ 소요예산 : 사업 시행자 부담사업

⑤ 기대효과

- 임대주택 공급확대 추진 및 재개발이주단지 활용

(4)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과 도시미관 정비 및 재난 위험요소 제거에 있다.

① 위 치 : 중원구 성남동 2067번지 외 219필지

② 토 지 : 220필지 32,660.8㎡(9,879평) [국유지 12필지 2,172.1㎡(657평)6.6%, 시유지 61필지 10,833.9㎡(3,277평) 33.2%, 사유지 147필지 19,654.8㎡(5,945평) 60.2%]

③ 개발방향 : 환승주차장, 할인점, 웨딩프라자, 쇼핑몰, 문화공간

④ 소요예산 : 비예산(민간자본 유치)

⑤ 사업기간 : 1995년~2007년

⑥ 대 책

사업 시행자의 사유지 매입 또는 동의(필지수의 ⅔이상과 면적의 60%)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시장)을 결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사유지 미확보시 환승주차장 사업만 민자로 추진한다.

⑦ 기대효과

- 재난 위험요소 제거 및 도시미관 정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5) 백현유원지 개발사업

백현유원지 부지에 뉴 밀레니엄을 이끌어 갈 시민 휴양, 문화, 체육, 복지 시설을 설치하여 국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시민에게 꿈과 희망 과 비젼을 심어주는 여가 선용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① 위 치 : 분당구 정자동 1, 3-1번지(2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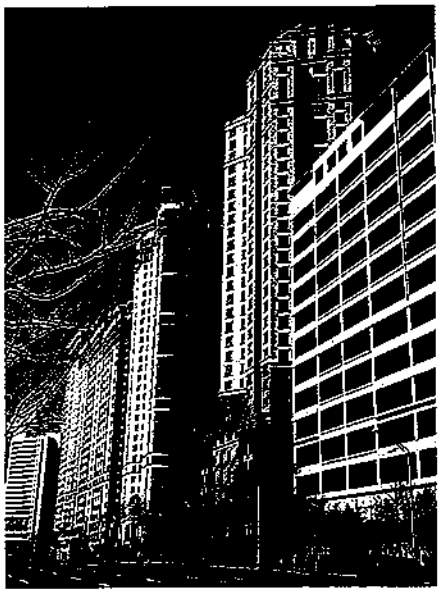
② 대지면적 : 210,413㎡(63,650평) [정자동 1번지 202,570㎡(61,277 평), 정자동 3-1번지7,843㎡(2,373평)]

③ 주요 개발사항 : 특급호텔(객실 300실 이상, 컨벤션센터, 전시장 포 함).

④ 사업 기간 : 2002년 8월~2005년 8월

⑤ 기대효과

- 시민에게 질 높은 여가선용의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 및 자족 기능을 높이며,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사진 3-8 : 111> 아파트 밀집지역(정자동)

2.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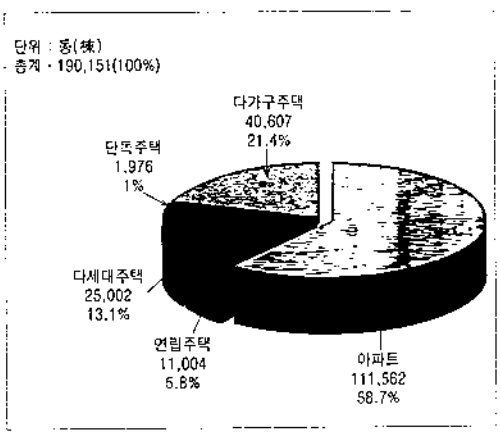
1) 주택 건설사업

주택 건설사업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며, 최근 지가의 상승과 아파트 건립의 적정부지 부족으로 민간업자는 사업성이 없으므로 민영주택 건설에 의한 주택공급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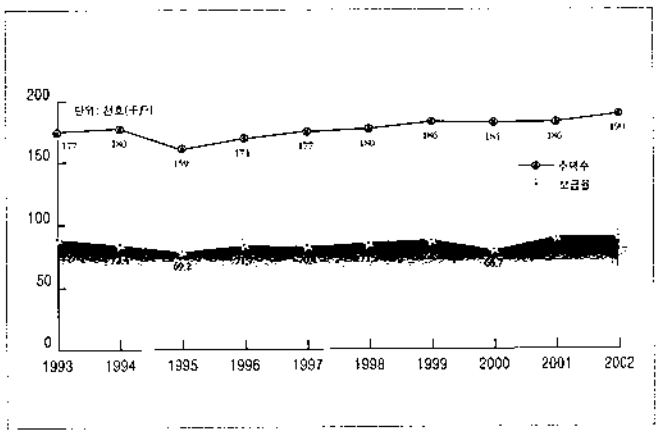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을 위하여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허가 및 도시계획 변경결정,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허가, 도소매업 진흥법에 의한 시장 개설허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및 가설 건축물의 신고 등 관련법에 의한 허

가, 승인, 신고, 인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해 처리함으로써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2) 성남시 주택현황



※종류별 주택수 현황



※주택 보급률

(단위 : 동, 가구)

연별 구별	합계 가구수	합계 주택수	합계 주택 보급률(%)	종류별 주택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1996	242,219	173,547	71.7	39,422	107,395	7,952	16,023	-	2,755
1997	251,907	177,427	70.4	41,352	107,755	8,350	17,061	-	2,909
1998	253,008	180,041	71.2	233	109,085	8,500	17,790	-	2,927
1999	256,076	186,212	72.7	44,517	111,358	8,611	18,669	-	3,057
2000	237,044	182,378	76.9	38,196	110,074	10,804	19,633	-	3,671
2001	242,202	186,803	77.1	1,976	111,349	10,927	21,646	37,527	3,387
2002	244,640	190,151	77.7	42,583	111,562	111,562	25,002	40,607	-
수정구	68,444	39,123	57.2	1,026	9,184	2,475	5,640	19,482	1,316
중원구	70,693	47,536	67.2	703	13,428	2,417	15,776	13,356	1,856
분당구	103,065	100,144	97.2	247	88,737	6,035	230	4,689	206

※ 1) 가구수=총가구-(단독가구+비혈연 가구+집단가구+외국인 가구)

2)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빈집포함

3) 다가구 주택 포함

(2) 건축허가

연별	합계		주거용		농림수산업		광공업용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1998	387	565,744	249	128,752	4	3,368	8	31,932
1999	621	87,575	408	394,199	2	5,259	22	104,981
2000	1,389	1,000,680	1,113	448,691	–	–	18	108,270
2001	2,020	2,718,121	1,600	1,276,788	–	–	20	243,084
2002	2,327	3,127,116	1,371	670,112	6	1,602	47	272,113

연별	상업용		공공용		문교용		사회용		기타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1998	104	352,239	1	295	4	41,542	5	2,036	12	5,580
1999	160	336,553	–	–	3	10,531	11	6,773	15	20,279
2000	222	302,026	2	61,565	5	5,356	12	58,679	17	16,093
2001	373	963,407	–	–	6	196,807	17	35,144	4	2,891
2002	589	1,968,587	10	7,535	문교·사회용				18	58,864
2002	–	–	7	–	동수		연면적		–	–
2002	–	–	–	–	123		148,303		–	–

(3) 아파트건립 누계

연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동수		1,599	1,613	1,631	1,631	1,635	1,637	1,640
가구수		107,395	107,755	109,085	109,085	109,129	109,264	111,562
규모별 가구수	33㎡ 미만	3,527	3,527	3,527	3,527	3,527	3,527	3,527
	33이상 66미만	44,879	44,879	45,183	45,183	45,183	45,190	45,236
	66이상 99미만	29,073	29,073	30,053	30,053	30,053	30,172	30,324
	99이상 133미만	15,879	16,239	16,285	16,285	16,285	16,294	18,394

연 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규모별가구수	133이상 166미만		12,034	12,034	12,034	12,034	12,034	12,034	12,034
	166이상 199미만		1,919	1,919	1,919	1,919	1,963	1,963	1,963
	199㎡ 이상		84	84	84	84	84	84	84
층수별가구수	5층 이하	동수	177	177	177	177	177	177	177
		가구수	6,790	6,790	6,790	6,790	6,790	6,790	6,790
	6~9층	동수	49	49	49	49	49	49	50
		가구수	2,437	2,437	2,437	2,437	2,437	2,437	2,485
	10~19층	동수	1,049	1,063	1,081	1,081	1,085	1,087	1,089
		가구수	73,659	74,019	75,349	75,349	75,393	75,528	77,778
	20층 이상	동수	324	324	324	324	324	324	324
		가구수	24,509	24,509	24,509	24,509	24,509	24,509	24,509

2003성남통계연보

3)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



저소득 전세세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저소득 전세 세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1) 2002년도 배정액 : 7,140백만원

(2) 융자대상 : 성남시 관내 1년이상 거주자, 만20세 이상으로 부양가족(직계존비속)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2002년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자(계약서 확인), 4,000만원 이하의 전세 세입자,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 거주자(건축물 대장 확인)

(3) 세대당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70%까지(2,800만원 이내)
(4)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전세 재계약시 2회 연장 가능)
(5) 대출금리 : 연리 3%
(6) 재 원 : 국민주택기금
(7) 지원기간 : 1990년 ~ 지속적
(8) 추진상황

① 2001년도 총 배정액 : 7,213백만원(융자 신청 1,963세대 21,163.7백만원, 융자지원실적 518세대 5,201.6백만원)
② 2002년도 총 배정액 : 7,140백만원(융자 신청 1,972세대 34,121.7백만원, 2002. 05. 31 현재 452세대 5,420백만원 융자지원)

4) 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

관내에 거주하는 전세 세입자에게 저리의 전세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이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1) 융자 지원 예정액 : 10,000백만원
(2) 융자대상 : 주민등록상 성남시에 거주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의 전 · 월세 세입자(세대주), 전세금이 2,5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의 전세 세입자 또는 예정자
(3) 세대당 지원금액 : 전세 보증금의 50%, 연간 소득 및 부채 금액을 감안(보증 한도 금액 : 연간소득(부채금액 20%)
(4) 대출금리 : 3년 이내(일시상환, 원리금분할상환) 연리8.75%, 4~5년(원리금 분할상환) 연리 9.25%.
(5) 상환조건 : 3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5년 분할 상환 중 택일(3년 이내 일시 상환과 원리금 분할상환 중 택일, 4~5년 원리금 분할상환)
(6) 추진상황

• 2001년도 추진 실적 : 2001년도 배정 금액 : 10,000백만원, 2001년 12월 31일 57세대 615백만원 융자 지원

• 2002년도 추진 실적 : 지원예정액 : 10,000백만원, 2002년 4월30일 현재 4세대 48백만원 융자지원

5) 아파트 관리비용 경감 대책기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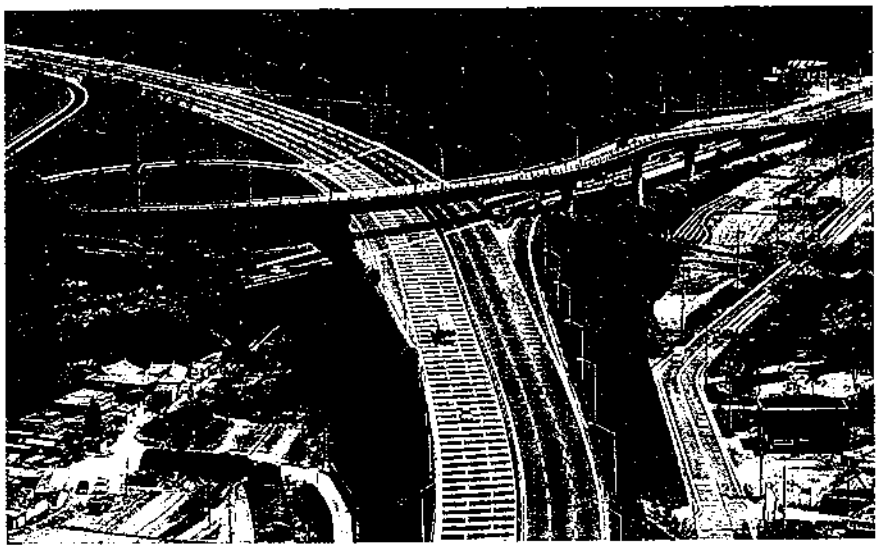
아파트 관리비용 경감대책 차원에서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점검 실시로 관리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자 한다.

제8절 건설 · 교통 행정

1. 도로

성남시는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은 물론, 보행자의 편안하고 쾌적한 보행로 확보에 주력하며 자전거 도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1) 도로현황



〈사진 3-8 : 112〉 경충(京忠)국도 입체교차로(20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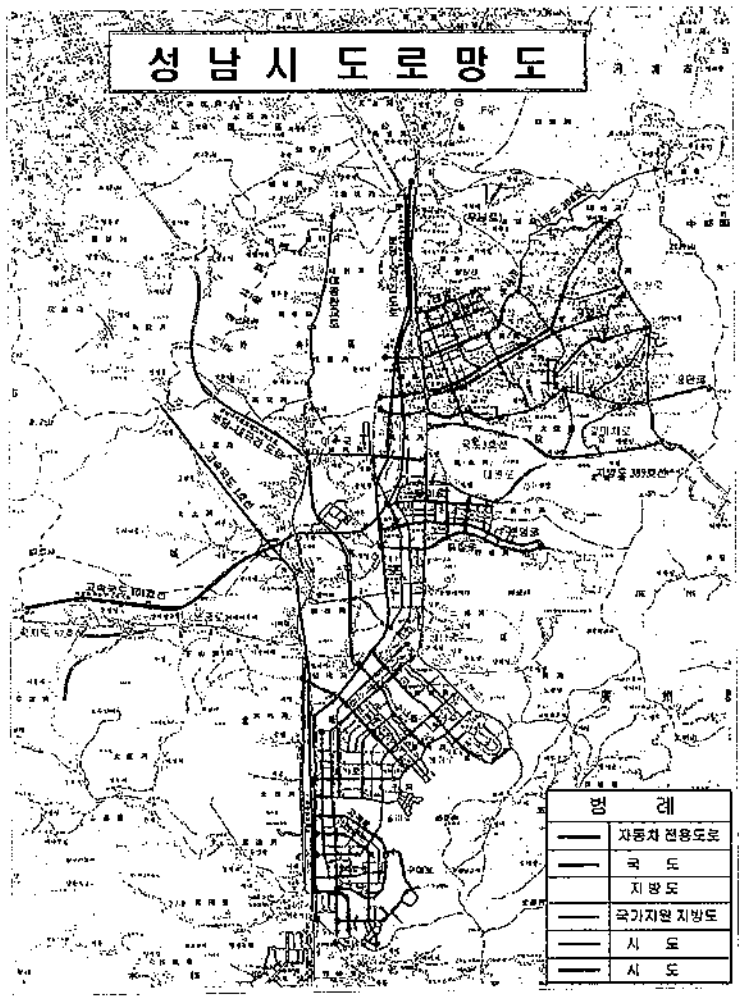
연별	합계			고속도로	일반국도		
	계	포장	포장율		계	포장	포장율
1996	509,982	509,982	100.0	25,660	9,900	9,900	100.0
1997	516,002	516,002	100.0	21,780	9,900	9,900	100.0
1998	485,846	485,846	100.0	25,190	9,900	9,900	100.0
1999	485,846	485,846	100.0	25,190	9,900	9,900	100.0
2000	498,444	498,444	100.0	25,190	9,900	9,900	100.0
2001	498,424	498,424	100.0	25,170	9,900	9,900	100.0
2002	543,506	494,868	91.1	22,270	9,900	9,900	100.0

연별	지방도(국가지원+일반)			시군도		
	계	포장	포장율	계	포장	포장율
1996	38,720	38,720	100.0	435,702	435,702	100.0
1997	38,720	38,720	100.0	445,602	445,602	100.0
1998	38,720	38,720	100.0	412,036	412,036	100.0
1999	38,720	38,720	100.0	412,036	412,036	100.0
2000	37,424	37,424	100.0	425,930	425,930	100.0
2001	37,424	37,424	100.0	425,930	425,930	100.0
2002	37,917	37,917	100.0	473,419	424,781	89.7

2)교량현황

연별	합계				고속도로		일반국도			
	계		가설		가설		계		가설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1996	88	7,730	88	7,730	–	–	3	56	3	56
1997	91	8,468	91	8,468	–	–	3	56	3	56
1998	95	8,648	95	8,648	–	–	3	56	3	56
1999	145	12,360	145	12,360	37	2,413	–	–	–	–
2000	144	11,482	144	11,482	37	2,413	–	–	–	–
2001	144	11,307	144	11,307	37	2,413	–	–	–	–
2002	204	14,785.8	204	14,785.8	92	5,741.4	–	–	–	–

연별	지방도				시군도			
	계		가설		계		가설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1996	8	277	8	277	77	7,484	77	7,484
1997	8	399	8	399	80	8,013	80	8,013
1998	8	399	8	399	84	8,193	81	8,193
1999	16	1,661	16	1,661	92	8,286	92	8,286
2000	14	751	14	751	93	8,318	93	8,318
2001	14	751	14	751	93	8,143	93	8,143
2002	14	751.0	14	751.0	93	8,293.4	98	8,293.4



〈사진 3-8 : 113〉 성남시 도로망도

3) 2001년도 도로건설 사업실적

성남시는 지형상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고, 기존 시가지와 분당 신시가지로 이원화되어 있어 전체 통행량의 41.2%가 시외 유출입 통행량인 바, 기존 시가지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중동~하대원동 간 도로 개설공사 및 모란광장~야탑동 간 도로 개설 및 확장 공사 등 총 5건에 사업비 249,292백만원을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및 교통편익 증진을 도모하였다. 2001년 성남시 도로정비 사업을 위하여 총 23건에 8,845백만원을 투자하여 도로를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였다.

4) 2002년도 도로건설 사업계획



성남시 가로망 형태를 보면 기존 시가지와 분당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남북간 도로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대부분의 교통량이 성남로에 집중되어 있고, 자동차 및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간 도로 개설에 주력한다.

성남시 가로망 형태를 보면 기존 시가지와 분당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남북간 도로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대부분의 교통량이 성남로에 집중되어 있고, 자동차와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간 도로 개설에 주력한다. 2002년도에는 분당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를 연결하는 야탑~서현동간 도로개설 및 광역(영덕~양재, 동배~학의)도로 연결을 통한 체계적인 외곽 도로망 구축을 위한 동원~대장동간 도로 확장공사, 남북간 도로 개설로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공원 우남로간 도로 개설 등 도로건설사업을 시행하며,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주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다수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큰 사업부터 중장기 계획에 의거 시행할 계획이다.

5) 추진방향

도로건설 사업 시 관련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조기재원 해결 및 사업예산 반영시 설계 용역비만 우선 계상하여, 사업비 확정 및 각 행정행위(도시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등) 이행 후 용지보상을 실시하여 약 50%이상 보상 완료시 공사 발주토록 하여 적정 공기 내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이다.

2. 교통

성남시는 지리적으로 서울의 남동부와 접하여 있는 도시로서 분당 신시가지의 개발과 도시의 고밀화 등으로 인하여 인구 100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수도권 중남부의 중심 위성도시이다.

성남시는 지리적으로 서울의 남동부와 접하여 있는 도시로서 분당 신시가지의 개발과 도시의 고밀화 등으로 인하여 인구 100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수도권 중남부의 중심 위성도시이다. 성남시의 가로망은 구시가지는 시청을 중심으로 한 격자형태를 분당은 계획 시가지로서 격자형 가로망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으나 구시가지는 대부분 노폭이 협소하고 경사가 심한 지형 때문에 교차로 및 도로 구조가 불량한 곳이 많아서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용인 · 수지지역 등 성남시 인근 지역의 급격한 개발로 교통 수요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도시의 장래 성장과 주변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수요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1) 도시교통 기본 및 중기 계획



<사진 3-8 : 114> 신흥사거리 도로모습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향후 도로망 및 문제구간에 대한 개선방안 및 도시교통의 기본틀을 형성하여 도시구조의 순환성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성남시의 도시구조는 2핵 구조를 띄고 있으며 향후

판교 개발에 따라 다핵 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교 개발 및 도심 재개발에 따른 도시구조의 공간적 변화는 도시교통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며, 새롭게 형성되는 신도심과의 연계성 및 순환성의 확보와 서울권과의 광역적 연계등 광역 교통체계 및 도시 교통체계의 변화가 동반되어야만 한다. 성남시는 이와 같은 변화요인에 따라 2001년 3월 성남시 도시교통 중기계획 을 수립 공고하여 장래 개발계획 및 교통 환경변화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교통정책 대책과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도시교통의 기본틀을 연차별로 시행계획에 따라 진행해 나가고 있다.



교통시설의 확충에는 도시교통의 한계점에 도달되고 있어 기존도로의 효율을 증진하는 방안의 차원에서 지능형교통체계가 도입되고 있다.

2) 지능형 교통체계의 도입

교통시설의 확충에는 도시교통의 한계점에 도달되고 있어 기존 도로의 효율을 증진하는 방안의 차원에서 지능형 교통체계가 도입되고 있다. 정부는 3개 첨단 교통모델 도시사업을 통해, 대전, 전주, 제주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도입하였으며, 향후 2차적인 확대 모델도시 선정을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 ITS 기본설계 대상 도시 선정에서 성남시가 광명시와 함께 설정되어 2001년 6월 ITS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향후 예산확보 및 인접 지자체와의 연계성 등 제반여건 등을 면밀히 고찰하여 교통 효율을 최대화하는 방안에서 지능형 교통체계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에 있다.

(1) 사업내용

①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
② 교통정보 제공 시스템
③ 시내버스 정보제공 시스템
④ 자동 교통단속 시스템
⑤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⑥ 교통 관제센터 구축

(2) 기대효과

① 교통사고 등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 체계 유지
② 실시간 교통정보 및 우회경로 정보제공 등을 통해 교통 혼잡 완화 20%~30% 개선 효과
③ 대중교통의 운행 정시성 향상, 정류장 대기시간 감소, 차내 혼잡도 개선 등 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④ 차량과 도로의 위험상황 제어 및 경고, 과속/과적 등 교통위반 단속의 자동화를 통한 교통위반의 감소 등 교통안전 증대

⑤ 교통 혼잡 완화로 오염물질 배출량 13%감소, 대중 교통으로의 수요 전환을 통해 환경보전 및 에너지 절감효과

3) 교통시설

(1) 도 로 망

2001년말 현재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를 포함한 성남시 도로 총 연장은 509km로서 전국 도로 연장의 0.73% 수준이다.



<사진 3-8 : 115> 성남시로 진입하는 3개의 도로망

(2) 도시철도

현재 분당선(오리~수서간)은 1994년 9월 1일 개통 운행중이며, 지하철 8호선(모란 ~잠실간)은 1996년 11월 23일 개통 운행되고 있다. 2002년 9월 1일자로 분당선 초림역이 수내역으로, 백궁역이 정자역으로 역사명이 변경되었다.

(3) 버스 정류장

성남시의 버스 정류장은 표지판만 있는 정류장이 394개소가 있으며, 이중 버스 대합실이 28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4) 일방 통행로

일방 통행제는 혼잡한 주택가 이면 도로의 교통 용량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매년 전수(全數)조사를 토대로 확충되고 있으며, 2001년도에만 20개소를 지정하였으며, 2002년도에도 10개소를 지정하여 현재 80개소에 29,332m가 일방통행 도로로 설치되어 있다.

4) 대중교통 이용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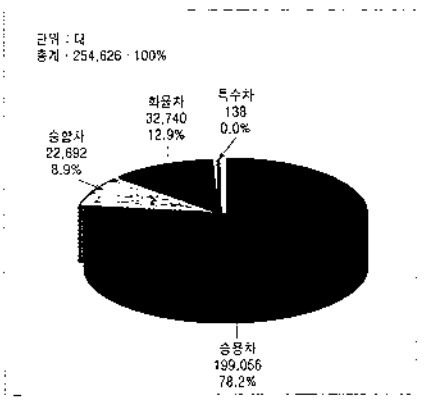
분당선 개통 전까지 유일한 대중 교통수단 역할을 해왔던 시내버스의 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의 경우 도시형 버스는 65개 노선 757대, 좌석 버스 48개노선 567대로 총 113개 노선 1,394대가 운행하였고, 현재는 일반 도시형 버스가 936대, 좌석 버스 650대로 총 116게 노선 1,586대가 운행중이다.

마을버스 운행실태를 보면 1999년 14개 노선에 65대의 버스가 운행하였으나, 현재는 백화점셔틀버스 운행중단에 따라 많이 늘어난 32개 노선에 137대가 운행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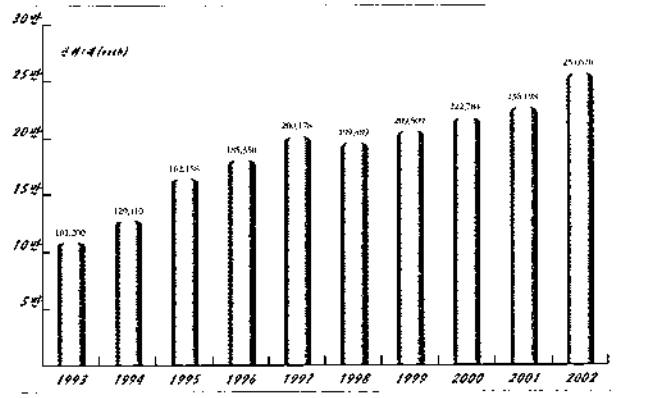
버스의 운행은 통행 밀도가 높은 지역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으며, 크게 성남 기존 시가지와 분당 신시가지 각각의 순환버스노선과 두 생활권을 연결하는 남북 방향의 노선으로 나눌 수 있다.

1994년 및 1996년에 분당선 및 지하철 8호선이 개통되어 4~8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이용 인구가 1일 194천명으로 성남시외를 나가려는 통행자 중 15.3%의 통행을 분담하고 있다.

5) 자동차 등록 현황



※차종별 차량등록현황(2003년 성남통계 연보)



※연도별 자동차 증가 추이

연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합계	계	185,350	200,178	199,499	209,509	222,784	236,198	254,626
	관 용	504	473	497	483	482	464	483
	자가용	180,389	195,206	194,357	203,266	215,767	228,466	246,200
	영업용	4,457	4,499	4,645	5,760	6,535	7,268	7,943
승용차	계	150,097	163,132	161,444	164,562	167,224	182,935	199,056
	관 용	127	132	140	135	135	122	121
	자가용	147,310	160,304	158,489	161,332	163,825	179,158	194,955
	영업용	2,660	2,696	2,815	3,095	3,264	3,655	3,980
승합차	계	12,887	13,972	14,464	19,211	27,280	22,579	22,692
	관 용	98	92	99	101	106	103	106
	자가용	11,673	12,773	13,268	17,889	25,896	21,158	21,326
	영업용	1,116	1,107	1,097	1,221	1,278	1,318	1,260
화물차	계	22,231	22,933	23,462	25,615	28,142	30,535	32,740
	관 용	243	228	237	226	221	221	241
	자가용	21,355	22,061	22,545	23,995	25,996	28,097	29,866
	영업용	633	644	680	1,394	1,925	2,217	2,633
특수차	계	135	141	129	121	138	149	138
	관 용	36	21	21	21	20	18	15
	자가용	51	65	55	50	50	53	53
	영업용	48	52	53	50	68	78	70
2륜자동차	계	29,499	32,232	33,205	23,507	23,753	22,574	23,349
	관 용	455	419	392	348	355	212	186
	자가용	29,044	31,813	32,813	23,159	23,398	22,362	23,163

자료: 2003성남통계연보

6) 주차장 확보

성남시의 차량 등록 대수는 2001년 12월말 현재 236,198대이나, 주차장은 노상 주차장 12,348면, 노외 주차장 18,161면, 부설 주차장 151,270면, 총 181,779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79.96%이고 부족율은 20.04%로 여전히 주차공간 부족현상으로 시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1) 공영주차장 확충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자가용 승용차의 급격한 증가를 동반하여, 교통소통문제 뿐만 아니라 주차, 교통 안전등의 도시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성남시는 지방인구의 대규모 유입과 분당신도시 건설 그리고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자가용 승용차의 급격한 증가를 동반하여, 교통소통문제뿐만 아니라 주차, 교통 안전 등의 도시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주차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져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교통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야간주차 공간의 부족은 이웃간의 다툼을 야기하고, 이면 도로의 무질서한 불법주차로 인한 긴급자동차의 접근 불능 상태는 긴급사태 시 초기진압의 실패로 대형사고 유발 및 보행자 안전을 침범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심각한 현재 현실이다.

(2)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

주택가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장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되는 등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성남시에서는 주택가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주택가 내 시유지의 주차장 건설 등 활용 가능한 공간에 주차장 조성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필요시 민자 유치를 통하여 대규모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① 지역단위 공동주차장 적극 건설 –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 우선 확보
- 시유지 및 사유지 매입으로 소규모주차장 확보
- 주택가 취약지 지하 주차장 건설
- 기존 지평식 주차장을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 설치(주차면수 증면)

② 주택가 인근 기존주차장 활용제고
- 노외 주차장 및 건축물 부설 주차장 유료화 및 야간 개방 유도
- 노외 주차장 설치 도로 폭 완화

(3) 주차장 현황

합 계

연별 구별	계		공영		민영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1996	3,858	140,152	628	21,926	3,230	118,226
1997	3,757	160,465	653	29,545	3,104	130,920
1998	6,627	169,828	654	31,334	5,973	138,494
1999	6,195	166,271	379	25,310	5,816	140,961
2000	6,752	178,456	614	32,516	6,138	145,940
2001	7,438	181,779	622	33,056	6,816	148,723
2002	8,591	192,534	633	34,501	7,958	158,033
수정구	1,716	24,815	231	9,550	1,485	15,265
중원구	2,040	30,714	296	15,852	1,744	14,862
분당구	4,835	137,005	106	9,099	4,729	127,906

노 상

연별 구별	계		공영		민영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1996	490	14,405	490	14,405	-	-
1997	381	14,146	381	14,146	-	-
1998	356	13,918	356	13,918	-	-
1999	73	5,694	73	5,694	-	-
2000	308	12,257	308	12,257	-	-
2001	310	12,348	310	12,348	-	-
2002	316	12,611	316	12,611	-	-
수정구	112	3,506	112	3,506	-	-
중원구	188	8,380	188	8,380	-	-
분당구	16	725	16	725	-	-

노 외

연별 구별	계		공영		민영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1996	273	12,600	138	7,521	135	4,806
1997	296	14,293	147	8,893	149	5,104
1998	320	15,092	166	10,075	154	5,017
1999	319	17,248	161	11,779	158	5,469

연별 구별	노외					
	계		공영		민영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2000	320	20,333	160	11,521	160	8,812
2001	322	18,161	164	11,758	158	6,403
2002	341	20,438	168	12,926	173	7,512
수정구	146	6,263	73	4,156	73	2,107
중원구	143	7,242	80	6,061	63	1,181
분당구	52	6,933	15	2,709	37	4,224

연별 구별	건축물부설					
	계		공영		민영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1996	3,095	113,420	–	–	3,095	113,420
1997	3,080	132,322	125	6,506	2,955	125,816
1998	5,951	140,818	132	7,341	5,819	133,477
1999	5,803	143,329	145	7,837	5,658	135,492
2000	6,124	145,866	146	8,738	5,978	137,128
2001	6,806	151,270	148	8,950	6,658	142,320
2002	7,934	159,485	149	8,964	7,785	150,521
수정구	1,458	15,046	46	1,888	1,412	13,158
중원구	1,709	15,092	28	1,411	1,681	13,681
분당구	4,767	129,347	75	5,665	4,692	123,682

자료: 2003성남통계연보

7) 불법 주정차 단속

(1) 단속지역

① 보도, 교차로, 횡단 보도, 건널목, 터널, 다리 위
② 교차로, 건널목, 도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장 10m이내
③ 소방용 기계기구 설치 5m이내
④ 화재 경보기 3m이내
⑤ 도로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 자리로부터의 5m이내
⑥ 기타 시장이 판단하여 지정한 상습 취약지역

(2) 단속활동

이면도로, 상습 불법 주차로 인한 통행 장애구역 등 주민 불편 취약지를 대상으로 조기 및 야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고, 공휴일 및 일요일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순찰 단속 활동을 실시하였다.

(3) 향후계획

주·정차 금지 구역을 확대하고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증빙자료의 확보 등 단속 업무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산처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3. 재해·재난 관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및 수습과 응급구조 기타 재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재난관리법 제1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대형 사고 등 재난의 예방 및 수습에 필요한 성남시 지역의 재난관리 정책을 심의 및 종합·조정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성남시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각종 재난사고의 수습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성남시 사고대책 본부 및 실무반과 성남시 긴급구조 구난본부를 구성·운영하여 우리 시의 재난관리 체제의 구축과 재난발생시의 응급구조 구난 체계의 확립을 도모하고, 재난관리 체계를 기능별로 정립하여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재난관리체제의 구축과 재난 발생시의 응급구조 구난 체계의 확립을 도모하고, 재난관리 체계를 기능별로 정립하여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1) 지역 재난관리 체제 확립

(1) 성남시 지역 안전대책 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 구성·운영

- 안전 대책위원회 : 성남시장(위원장) 및 위원 23명
- 실무 위원회 : 부시장(위원장) 및 위원 17명

(2) 운영계획

- 안전 대책위원회 : 연 2회(3월, 12월)
- 재난관리 계획의 심의 결정 및 기관별 재난관리 업무 협의
- 재난관리 책임기관별 재난관리 업무 추진실적 평가
- 기타 대형재난 발생시 수시 개최
- 안전대책 위원회 실무 위원회 : 연 2회(상 · 하반기)
- 기관별 재난관리계획 수정 · 보완
- 안전대책위원회 부의사항 실무 협의
- 기관별 협조사항 협의 등 기관 단체별 공조 체제 구축

(3) 재난대비 종합상황관리체제 구축

- 재난 상황의 24시간 관리체제 구축
- 행정자치부 ↔ 도 ↔ 시 ↔ 구 연계, 종합재난상황실 운영
- 시 · 구 · 유관기관 간 보고 · 전파 체계 유지
- 상황관리 전담요원 배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

(4) 임무

- 재난 현장에서 사고대책본부 현장지휘부 등과 긴밀히 협조 사고수습 및 복구지원업무 수행
- 사고수습 상황 등을 사고 대책본부에 수시 연락, 필요한 조치 강구

2) 비상근무대상 재난의 구분

(1) 1급 재난 – 전직원 비상근무

- 중앙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되어야 할 정도의 대형 재난
-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재난

(2) 2급 재난 – 관련실국 직원 비상근무

- 지역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수습 복구해야 할 재난
-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협조가 필요한 재난

(3) 3급 재난 – 재난재해관리과, 관련부서 직원 비상근무

- 중형규모의 재난으로 긴급조치가 필요한 재난

3) 재해 대책 추진

(1) 기본 방침

① 인명 최우선 방재체제 정착에 우선적 역점을 두어 제반 대책 추진
② 민 · 관 · 군 공조체제 강화로 한 단계 앞선 사전 예방활동 전개
③ 상습침수지 등 재해위험지구 및 대규모 공사장 등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
④ 기상 정보의 On-Line화 구축 완료에 따른 효율적 활용
⑤ 재해보고 체제의 전산화로 방제조직 효율적 운영
⑥ 가뭄 및 지진에 대한 대응체제 강화 ⑦ 시민자율 방재 의식 제고
⑧ 한해대책은 농 · 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2) 피해의 최소화

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계획 대피제' 확대 추진
② 사전대피 예상지역 관리체계 정립
③ 지역자주 방재체제 구축 ④ 자율방제체제 구축
⑤ 방재기반 확충 및 방재과학 기술의 발전 도모
⑥ 방재사업 및 방재기술 분야 투자 확대

4. 안전관리지도

1) 목적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정비 · 보수 시행으로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해소하고 재난 위험시설 등의 '점검 - 조치 - 사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재난을 예방한다(재난관리법 제18조(재난의 예방) 제1항 제4호 및 재난관리법 제20조(재난위험 시설 등의 관리) 제1항, 재난관리법 제22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등)

2) 안전관리 대상 시설

재난 위험시설 지역 및 중점 관리대상시설 · 지역, 기타 각급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시설 · 지역 등을 점검한다.

(1) 정기점검(재난위험시설) : 매월 1회이상
(2) 수시점검 :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주요 점검내용

①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일상 점검 수준 준용
②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심각한 손상 · 결함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하에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 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 지 확인
③ 소관 공공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④ 민간시설은 재난예방을 위해 자치단체 주관으로 안전점검(정기 · 수시)을 실시하되, 소유자 ·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관계법령(지침)규정대로 성실하게 관리하도록 지도
⑤ 사전고지 당해 시설 및 지역의 소유자 ·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안전점검의 목적 · 일자 등을 서면으로 또는 구술로 통지
⑥ 재난 위험시설은 관리카드에 점검결과와 안전조치 사항 등 기록 관리 유지

제9절 도시정비사업소

도시정비사업소는 환경녹지사업소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공원운영과, 자원관리과, 탄천관리과로 구성되어 있다.

1. 공원운영과



〈사진 3-8 : 116〉 모란거리 조각공원

공원운영과에는 관리팀, 운영 1팀, 운영 2팀이 있으며,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원유지 관리 행정의 계획 및 조정, 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조경, 토목, 건축, 기계, 전기분야 등), 미관 광장 유지 관리, ISO 9001품질행정 추진, 공원 민간위탁 부문 관리, 공원시설 점용 허가, 공원재산 및 예산관리, 공원내 녹지, 상하수도 및 재해 위험지 관리, 근린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공원조경(수목, 병해충 방제, 식재) 유지 관리, 분수대 유지(수질 운영)관리, 공원 인력 관리(관리원,미화원,공공근로,공익근무 요원 등), 공원내 교양문화시설운영,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업무, 위험 절개지 정비 및 산사태 복구사방사업수목관리, 기타 공원관련 민원업무를 관장한다.

2. 자원관리과

자원관리과는 청소행정팀, 자원시설팀, 재활용팀, 소각장운영팀이 있다.

청소행정팀에서는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조정, 폐기물 종합계획 수립, 폐기물 관련조례, 규칙제(개)정, 청소구역 및 수거방법 조정,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지도 단속, 폐기물 수집 운반증 발급 및 관리, 환경미화원 관리, 폐기물 관련 통계 관리 및 보고, 폐기물 배출자 신고, 관리 및 지도감독, 사업장 방치 폐기물 조치,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종량제 업무추진, 시민 대청소 추진, 청소관련 민원처리, OECF차관 상환 업무, 수도권 매립지 관리 업무, 감염성 폐기물 관리 및 지도감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자원시설팀에서는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설치, 청소차 주차장(태평동) 관리, 정화조 청소업(분뇨수집운반업)허가, 종합 처리장(태평동) 관리 운영, 600톤 소각장 정기점검, 축산 폐수관련 업무, 오수분뇨 관련 허가 등록 신고 및 업소 지도점검, 공중화장실 관련업무, 매립장(금곡동 및 하산운동) 관리, 계근량(計斤量) 조사보고, 미화원 감독 관리(차량운영), 공공 근로사업 및 공공근로자 관리운영 등을 담당한다.

재활용팀에서는 재활용 업무 기본계획 수립,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자원화(습식, 건식) 시설운영 관리, 스치로폴 위탁관련 업무처리, 폐기물 재활용신고 관련 업무, 재활용센타 설치운영 및 관리,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소 관리, 포장 폐기물 발생억제 대상업소 관리,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추진, 대규모 매장 그린 쿠폰제 추진 등을 담당한다.

소각장운영팀에서는 소각장 운영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소각장시설 개선방안 및 운영비 분석 등 연구, 100톤, 600톤 소각장 위탁관리 업무, 100톤 소각장 보완공사 책임관리 업무, 소각장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600톤 소각장 위탁관리 업무중 행정 기계 환경분야, 소각장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민지원 기금 운영 업무, 소각장 간접 영향권역 주민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3. 탄천관리과



<사진 3-8 : 117> 탄천 둔치 물놀이장

탄천관리과에서는 탄천관리 업무를 운영 총괄하며, 탄천관리팀, 자연하천팀, 탄천시설물관리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탄천관리팀은 탄천살리기운동 전개, 탄천시설물 사용 승인, 탄천유지용수 확보에 관한 사항, 탄천자연생태 정비사업, 탄천 양재천유역 환경행정 협의회 운영, 품질행정(ISO)업무추진 등을 담당한다.

자연하천팀은 자연형 하천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하천정화활동 전개, 하천내 불법행위 단속, 하천 현장민원 처리(불법행위, 환경미화 등), 하천 생물 다양성 증진사업을 도모한다.

탄천시설물관리팀은 탄천종합계획 수립 추진, 탄천시설물 관리 점검, 토목시설물, 보안등 점검 순찰,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및 화장실 관리, 물놀이장 관리, 하천시설물관리(공사부분) 조깅로 및 자전거 도로 설치 및 관리, 하천재방 관리, 하천조경 녹지에 관한 업무, 하천습지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4. 청소

1) 폐기물 배출관리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폐기물의 분류

1) 생활폐기물 : 가정, 사무실, 점포 등 사람의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외의 모든 폐기물

① 쓰레기 : 폐지, 폐프라스틱, 음식물찌꺼기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가. 일반쓰레기 :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모든 쓰레기(가연성 쓰레기, 불연성 쓰레기)

나. 음식물쓰레기 : 농 · 축 · 수산물의 유통과정과 가정 및 음식점 등에서 식품을 조리하거나 조리후, 남겨 버려지는 식품폐기물(조개껍질 등 패각류와 부수적인 포장재료는 제외)

② 재활용품 :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되거나 버려진 물품과 제품의 제조 가공, 수리, 판매나 토목 · 건축공사 등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품중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

③ 대형폐기물 :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장롱, 소파, 가구 등 생활에 필요 없게 된 물질로서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

(2) 사업장 폐기물

① 지정폐기물 :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물질

② 배출시설폐기물 :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환경배출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3) 건설폐기물 : 콘크리트, 아스콘, 목재 등 건축 ·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1회 5톤이상)

3) 수집운반 및 처리 : 지역청소 대행업체에서 수거 후 처리 · 소각 등 김포 매립

4) 위반시 처벌사항

(1)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1회용품 사용억제 및 포장 폐기물 발생억제 위반자 : 1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

(4) 사업장 배출자 신고 미필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별금

(5)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수집, 운반보관 또는 처리한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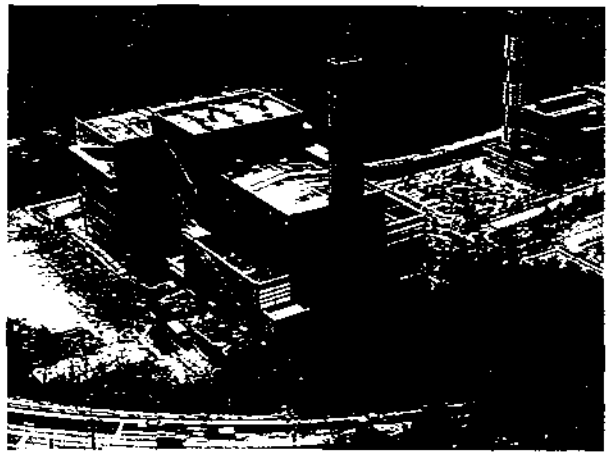
5. 폐기물 처리

(1) 소각장 운영(중원구 상대원1동 420번지, 부지면적 : 361,587㎡, 규모 : 100톤/일(50톤 2기), 600톤/일(300톤 2기)

(2) 쓰레기 반입 소각 처리(100톤 소각장 : 하수 슬러지 소각용 가동중(2001.11. 7 완공), 600톤 소각장 :가동중(1998.10. 7완공)

(3) 금곡동 쓰레기매립장(분당구 금곡동 385-4번지, 매립면적 : 69,260㎡, 매립 가능량 : 1,106,100㎥, 처리시설(침출수 처리시설(100톤/일), 계근(計斤)시설 : 1조)

(4) 폐기물종합처리장(수정구 태평1동7004번지 일원(면적 : 53,979㎡, 쓰레기 적환장, 음식물 쓰레기 압축·탈수 시설(100톤/일), 청소차량 종합차고지 시설(172면), 대형폐기물 처리, 음식물 사료화 시설(190톤/일),



<사진 3-8 : 118> 쓰레기 소각장

제10절 상·하수도 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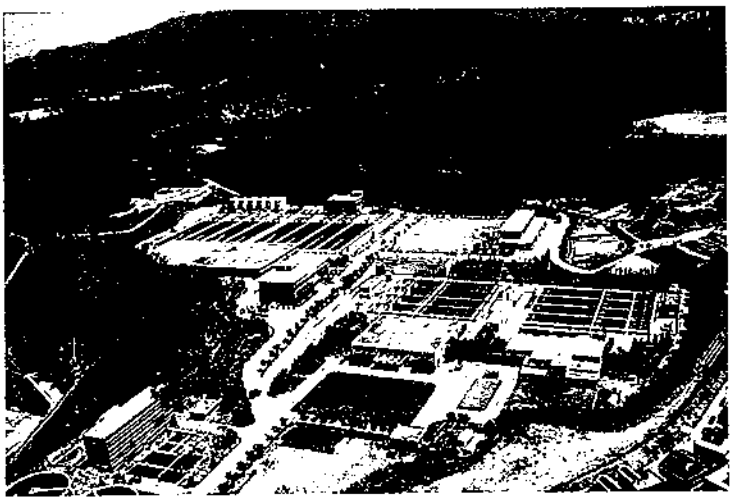
1. 수도

1971년 10월 14일 성남시에 수도과가 신설되었고, 1973년 7월 1일 상수도관리사업소가 신설되었으며, 1989년 5월 1일 구제가 실시되면서 3개

구청에 수도과를 두게 되었으며, 1997년 7월 21일 구 수도과를 수도국으로 변경하였다. 1998년 10월 7일 수도사업소의 직제개편, 1999년 8월 29일 상하수도사업소로 직제개편되어 4과 14담당의 308명의 직원들이 각각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에는 업무담당, 회계담당, 요금담당의 3개 담당을 두고, 수도과에는 수도담당, 급수담당, 누수관리담당, 수도관 보수담당, 계량기 관리담당의 5개담당, 정수과에는 정수생산담당, 시설운영담당, 수질시험담당이 있으며, 하수처리과에는 하수시설담당, 하수처리담당, 수질관리담당의 3개 담당이 있다.

1) 상수도 재정운영

(1) 예산현황



<사진 3-8 : 119>복정 정수장

성남시의 상수도사업은 1978년부터 공기업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운영경비는 원칙적으로 상수도 사업수익으로 충당하는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성남시의 2001년도 예산규모는 59,126,713천원으로 1978년도의 1,454,508천원에 비하면 4,065%의 괄목할 만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시설확장의 투자와 수요의 증가에 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

(2) 2002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1회 추가경정)

2002년 성남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60,470백만원으로 영업수익이 37,806백만원, 시설분담금 등의 자본잉여금 수입이 4,557백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수용가 미수금이 16,697백만원, 영업외 수익 및 특별 이익등 기타 수익의 1,410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 내역은 인건비가 4,985백만원, 물건비 26,237백만원, 자본지출

12,213백만원, 사업 및 자본예산 예비비가 7,945 백만원, 지급이자 및 이전경비 등 기타 지출이 9,090백만원으로 편성되었다.

(3) 2001년 결산

성남시 상수도사업의 2001년 결산서상의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즉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영업손익 상황을 보면 수익에 있어 영업 수익이 37,576백만원, 영업외 수익이 1,914백만원이고, 비용에 있어 영업 비용이 36,395백만원, 영업외 비용이 2,332백만원, 특별이익이 3백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이 766백만원 발생했다.

수익의 주요재원은 급수수익 34,189백만원으로서 총수익액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영업외 수익의 이자 수익으로서 1,914백만원인 5%와 그외 급수공사수익, 급수장치 손료 및 수수료 수익 등의 기타 영업수익, 타회계 부담금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용의 주요 사항은 영업비용이 총비용의 94%로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급수비, 일반관리비, 급수공사비, 감가상각비 및 대손상각비와 영업외 비용인 이자비용과 유형자산 제각손실로 구성되어 있다.

2)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상수도 요금부과 징수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체 전산화 구축으로 본청 및 구청 수도민원실을 설치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상수도 요금부과 징수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체전산화 구축으로 본청 및 구청 수도민원실을 설치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3) 상수도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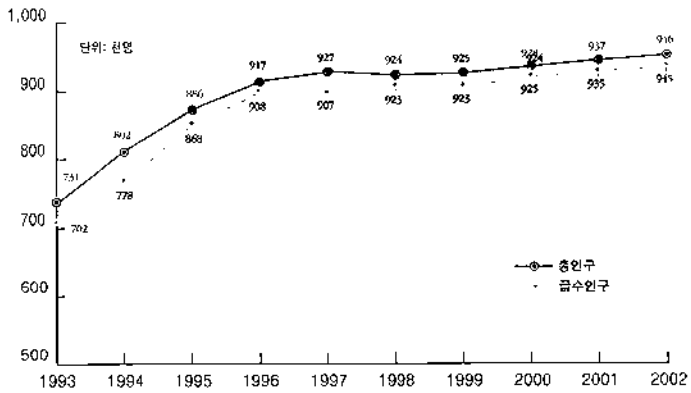
(1) 급수현황

성남시는 공기업 체계를 갖춘 지난 1978년도에 시설용량 25,000㎥/일, 인구 324,064명이 2002년 현재 시설용량 635,000㎥/일, 인구 944,671명으로서 인구증가와 함께 상수도 시설이 급신장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성남시 상수도 시설용량은 광역상수도 255,000㎥/일, 자체 공급시설

380,000㎥/일로서 총 635,000㎥/일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2011년도에 총 인구가 1,150,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시민들의 상수도 수요에 걸맞게 급수계획하고 있으며,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424ℓ로 선진국 수준까지 향상시킬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2) 연도별 급수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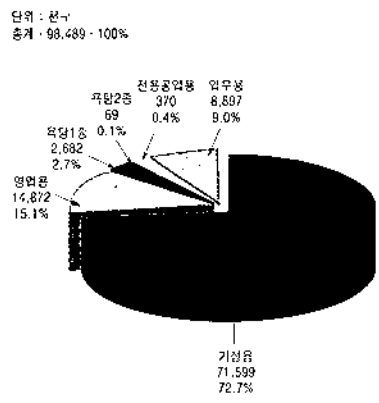
※급수 인구 현황

연 별	급수도시내 총인구(A)	급수인구 (B)	보급률(%) (B/A)*100	시설용량 (㎥/일)	급수량 (㎥/일)	1일1인당 급수량(ℓ)	급수전수 (개)
1996	917,448	907,920	99.0	515,000	314,762	347	72,196
1997	926,832	907,123	97.9	515,000	332,920	367	74,651
1998	924,383	923,117	99.9	515,000	303,926	329	76,224
1999	924,812	922,962	99.8	635,000	290,879	315	76,712
2000	928,196	925,421	99.9	635,000	304,631	329	78,534
2001	937,780	935,056	99.7	635,000	330,446	353	82,111
2002	946,445	945,702	99.9	635,000	327,606	346	87,369

(3)상수도관

	연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합계	1,121,861	1,134,529	1,160,122	1,182,487	1,205,203	1,219,527	1,233,156
송수관	계	76,074	77,200	91,608	110,842	115,542	123,027	120,007
	강관	39,602	40,728	50,316	69,469	74,169	75,711	78,634
	주철관	36,472	36,472	41,292	41,373	41,373	47,316	41,373
배수관	계	335,936	342,985	350,190	351,800	355,837	378,048	393,140
	강 관	8,636	11,159	14,812	14,812	14,337	16,457	16,571
	주철관	323,610	330,616	334,168	335,778	333,398	336,563	320,413
	기 타	3,690	1,210	1,210	1,210	8,102	25,028	56,156
급수관	계	709,851	714,344	718,324	719,845	733,824	718,452	720,009
	아연도강관	44,571	32,448	22,888	18,356	18,240	9,447	-
	주철관	264,599	265,749	265,749	259,127	254,558	230,285	217,779
	스텐레스관	399,961	416,147	429,687	442,362	461,026	478,720	502,230
	합성수지관	720	-	-	-	-	-	-

(4) 급수사용량



연별 구별	합계	가정용	영업용	욕탕용 1종	욕탕용 2종	전용 공업용	업무용	기타
1996	90,128	67,327	10,630	1,971	76	1,031	7,445	1,645
1997	98,011	71,986	12,057	2,272	94	1,818	8,067	1,714
1998	92,302	67,927	11,456	1,962	44	1,228	7,966	1,699
1999	94,638	71,047	12,466	1,997	105	1,342	7,681	-
2000	99,539	74,071	14,030	2,130	103	888	8,317	-
2001	97,651	71,467	14,279	2,366	88	686	8,756	-
2002	98,489	71,599	14,872	2,682	69	370	8,897	-
수정구	26,496	19,700	3,281	721	16	-	2,778	-
중원구	28,707	20,371	4,698	596	26	-	3,016	-
분당구	42,448	31,396	6,300	1,049	46	686	2,971	-

4) 맑은 물 공급사업

성남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 및 개량하고 있다. 1992년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25,667백만원을 투입 243㎞의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하여 맑은물 공급과 누수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21㎞의 노후관 갱생 및 세척공사를 병행시행함으로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여 신뢰받는 수도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매년 약 20여억의 예산을 투입 15㎞의 노후관을 교체 및 개량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수 있도록 맑은물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5) 누수방지사업



성남시에서는 수돗물이 누수되는 것을 예방하고 누수발생시 조기에발견 조치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공기업 경영효율을 증대시키고자 누수방지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에서는 수돗물이 누수되는 것을 예방하고 누수발생시 조기에 발견 조치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공기업 경영효율을 증대시키고자 누수방지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사업비 43여억원이 소요되는 본 사업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수정 · 중원구 지역을 70구역으로 소구획하여 구역별 용수량을 계량화하므로써 누수 원인을 조기에 찾아내어 수돗

물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상시 누수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02년도까지 48구역에 대한 용역과 24구역의 구획화를 위한 관로정비 공사 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 보유하고 있는 탐사장비를 활용하여 상시 누수탐사를 실시 1996년이후 연 4,850건수의 누수를 발견 9,442천㎥의 수돗물 누수를 예방하여 연간 3,499백만원의 예산낭비 요인 제거 및 절약효과를 가져왔다.

6) 물절약사업 추진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로 분류된 만큼 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 하여 성남시는 물절약시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로 분류된 만큼 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성남시는 물절약시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사업비 11억여원을 투입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양변기, 수도꼭지에 절수기기 25만개를 설치하여 연간 7억5천만원의 절수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2002년도에는 물다량 사용가구 및 학교, 공공기관 등을 집중적으로 절수기기를 설치하고 있다.

수도법에서 규정한 건축 연면적이 6만㎡ 이상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대규모 점포, 업무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이상인 공장 시설물에 대하여는 중수도 설치가 의무화함에 따라 건축 인 · 허가시 중수도 설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지붕면적이 넓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에는 빗물받이를 설치하도록 하여 물절약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물절약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 수돗물 아껴쓰기 홍보에 행정력을 다하고 있다.

(1) 건축 인 · 허가시 절수설비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절수기기 설치 이행 여부 확인
(2) 시정소식지, 유선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3) 단수홍보문안에 물절약 안내문 첨언 배포 및 프랑카드 게시
(4) 목욕탕, 대형음식점 등 물 다량 사용업소 적극 참여유도 홍보
(5) 성남시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물절약 홍보 등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시정을 전개하고 있다.

7) 시설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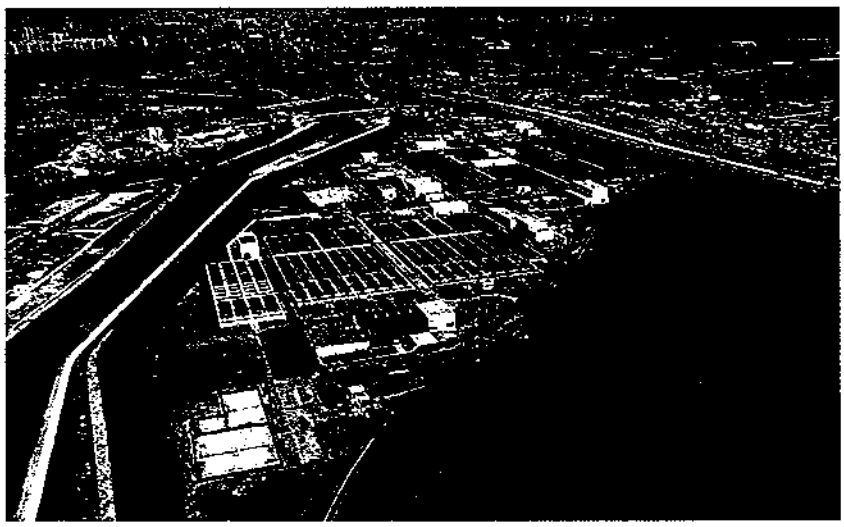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정수장 가동율을 향상시킴으로서 효율적인 상수도 공기업 경영에 기여할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의 상수도 시설용량은 635천톤으로서 일 평균공급량 328천톤에서 307천톤의 여유가 있어 확보된 상수도 시설용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효율적 인 유지관리를 위한 송 · 배수관망 구축과 미급수지역 및 출수불량한 농촌동 지역에 대한 송 · 배수관 시설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총 7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복정정수장에서 이매동 양현교 사거리앞까지 총 연장9.4㎞를 부설하여 복정정수장 정수를 분당 제2배수지까지 공급하고 송수관로를 성남정수장과의 수계 이원화 체계로 구축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정수장 가동율을 향상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상수도 공기업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촌동 자연취락지역 및 주변지역의 급격한 건축 증가로 수돗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상수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여수동, 석운동 등 6개 지구의 자연취락지역 등에 사업비 12여억을 투입 연장 6.4㎞의 배수관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 하수처리



〈사진 3-8 : 120〉 하수종말처리장

1) 하수도 유지관리

성남시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거환경 제공을 위하여 2001년도에 추진한 하수도사업은 하수시설물 개량 및 제해예방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으며 총 18건의 사업에 총 3,26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주민 편익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2) 하수처리장 현황

(1) 위치 : 수정구 복정동 317번지(부지면적 : 269,534㎡ (81,534평)
(2) 시설용량 : 435천톤/일(제1처리장-성남 · 합류식-220,000톤/일,
제2처리장-분당 · 분류식-215,000톤/일)
(3) 처리방법 : 표준 활성 슬러지법 및 고도처리공법(A /O)
(4) 처리량 : 430,981톤 /일 (100% 처리,2002.7.31현재) 분뇨처리 254톤/일 (하수와 연계처리)

3) 하수처리 현황

<표 8-4-18> 하수처리장 현황 (단위 : 톤/일)

연별	총인구 (D)	하수처리인구				하수종말처리인구			
		합계	1차처리	2차처리	3차처리	계(A)	1차처리	2차처리	3차처리
		(B=a+b+c)	a1+b1+c1	a2+b2+c2	a3+b3+c3	a1+a2+a3	a1	a2	a3
1996	917,448	-	-	-	-	-	-	-	-
1997	926,832	888,229	-	888,229	-	888,229	-	888,229	-
1998	924,383	903,727	-	903,727	-	903,727	-	903,727	-
1999	924,812	906,977	-	906,977	-	906,977	-	906,977	-
2000	928,196	912,716	-	912,716	-	912,716	-	912,716	-
2001	937,780	918,726	-	835,313	83,413	835,313	-	835,313	83,413
2002	946,445	932,022	-	932,022	-	932,022	-	932,022	-

4) 하수도 사용료 징수

본 업무는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에 따라 사용되는 오수가 공공 하수도관을 통해 배출되는 양을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업무로서, 하수도사용료 조례의 개정과 통합공과금제도의 폐지로 1994년 10월 1일 검침분부터 하수도사용료를 구에서 징수함에 따라 구에서는 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와 체납액 독촉, 지하수, 위반사용자 색출 등 전반적인 하수도 사용료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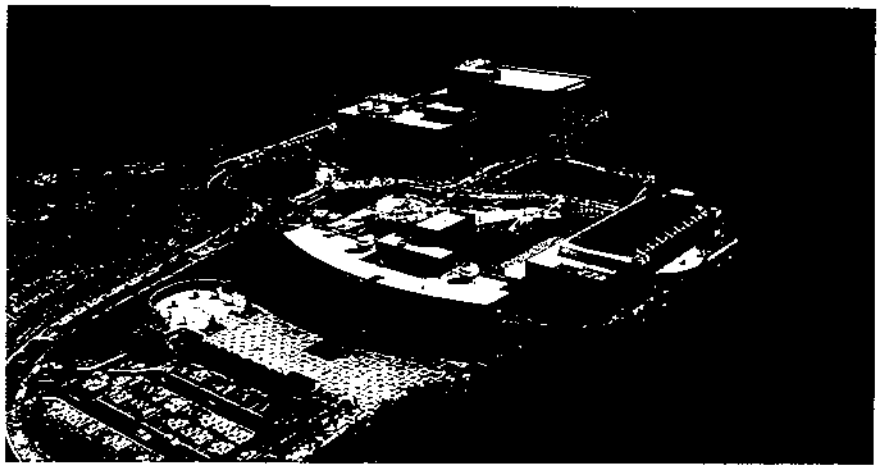
5) 향후 추진계획

하수도사용료 고액체납자 위주로 동산,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채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소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동별로 독촉고지서를 월별 우편 송달하여 자진 납부토록 독려할 예정이며, 지하수 사용 미신고, 부정사용, 지하수 무단 개발 등 하수도 사용조례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또한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제11절 문화·정보 행정

1. 문화정보센터

문화정보센터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최신시설과 운영시스템을 갖춘 미래를 향한 생활속의 도서관이다. 1999년 분당문화정보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중원, 수정, 중앙문화정보센터가 차례로 개관하여 전체 열람석 1만석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규모이며, 이를 바탕으로 최신자료 확보 및 활용 증대, 독서인구 저변확대, 평생교육 및 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문화·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사진 3-8 : 121〉 성남 중앙문화 정보센터

1) 연 혁

- 1999. 10. 27 : 분당문화정보센터 개관
- 2000. 5. 2 : 중원문화정보센터 개관
- 2000. 10. 25 : 수정문화정보센터 개관
- 2001. 11. 13 : 중앙문화정보센터 개관

2) 지식 및 정보제공

문화정보센터는 도서, 비도서, 시청각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보유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지식 ·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장서를 확충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자료를 각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도서관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고 있다.

3) 문화교육강좌

시민들의 문화 및 정보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강좌, 컴퓨터교육, 독서교육 등 다양한 문화교육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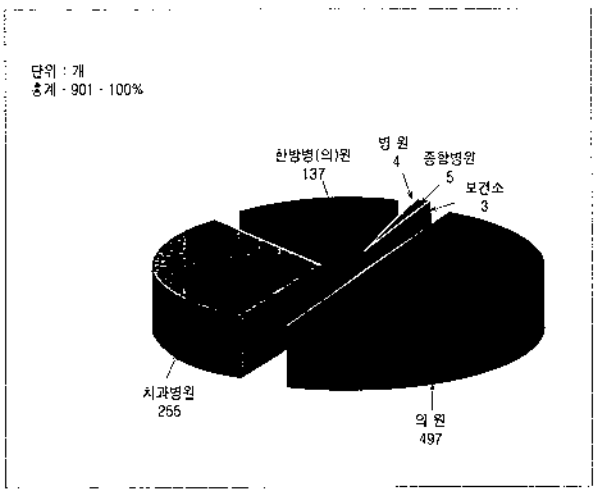
4) 독서 및 평생교육

도서관주간 행사, 독서의 달 행사 등 행사기간을 통하여 다양한 독서 및 평생교육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홍보하고 건전한 독서문화 정착으로 진정한 생활문화공간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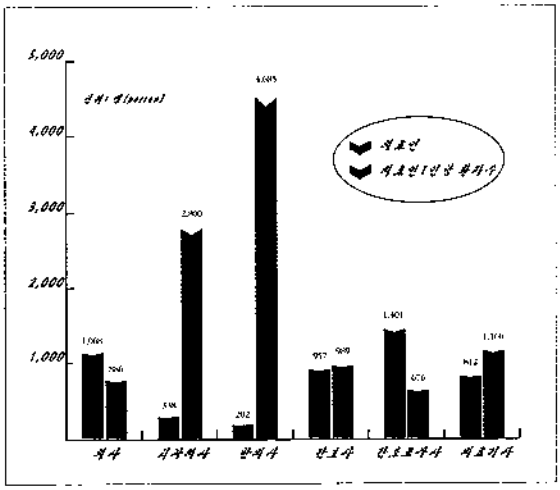
2. 여성문화회관

여성문화회관은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식 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우수 여성인력 양성을 목표로 여성문화강좌를 운영하며 또한 별도 운영되는 스포츠시설에서는 수영, 에어로빅, 헬스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12절 보건행정



※의료시설 현황



※의료기관 종사원 현황

1. 보건

1) 보건소 현황

(1) 수정구보건소 : 1990. 04. 1 산성동 2177번지에 개소
(2) 중원구보건소 : 1992. 12. 21 중원구 상대원1동 279-7번지에 개소
(3) 분당구보건소 : 1993. 9. 20 분당구 야탑동 349번지에 개소

2) 기구 및 직원 현황

수정구보건소에서는 소장 아래 보건행정, 지역보건, 건강증진, 전염병관리의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진료 및 보건사업

인구구조와 생활양식, 환경의 변화에 따른 주요 보건문제가 변화됨에 따라 보다 다양한 양질의 보건의료써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진료사업은 일반진료 및 한방 진료, 물리치료 등 1차 진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노인 및 저 소득층 주민 등 의료소외계층은 물론 주민 전체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업무도 신속 · 친절하게 처리하고 있다.



노인 및 저 소득층 주민 등 의료소외계층은 물론 주민 전체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 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업무도 신속 · 친절하게 처리하고 있다.

(1) 영유아 보건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통하여 질병을 조기발견 치료함으로서 건강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성장단계별로 적기에 예방접종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 관리하며,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건강을 보호함은 물론,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

(2) 모성보건사업

임산부의 산전, 분만, 산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3) 정신보건사업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주민 정신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4) 방문보건사업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질병양상의 변화로 만성퇴행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인구의 노령화 및 사고와 재해로 인한 재가요양환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문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가족을 직접 가정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주민의 편리, 고통경감과 의료비 절감을 유도하고 보건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한다.

(5) 지역재활사업

소외되어 있는 지역 내의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지속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게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6) 가족 보건사업

그 동안 가족계획사업을 인구둔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온 바, 1980년대 말 인구 증가율이 0.97%로 인구 억제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두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 등 인구 자질 향상 등의 질적인 측면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제는 가족계획사업이 현 출산력 유지를 위한 질적인 피임보급제공 및 저소득층 위주의 정부 피임서비스에서 자율 피임실천 정착화로 지속 보급과 정확한 피임 실천방법 보급으로 인공중절을 사전 예방하고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남녀 성비 불균형 해소 등 여성 건강 및 주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여 가족 보건사업이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 향상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확대 추진하고 있다.



남녀 성비 불균형 해소 등 여성 건강 및 주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여 가족 보건사업이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 향상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확대 추진하고 있다.

(7) 만성 전염병 관리

① 결핵관리

만성전염병 질환인 결핵은 아직도 선진국은 물론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10대 사망질환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보건소에서는 이를 조기발견 퇴치하기 위하여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엑스선 검진, 객담검사, 환자 및 가족에 대한 보건교육, 보건소등록 결핵환자에 대한 투약 및 검진을 실시하여 결핵퇴치에 앞장서고 있다.

② 한센병 관리

한센병 신환자 발견을 위하여 국가 치료기관인 나관리협회에서 피부질환자에 대한 무료치료 및 검진을 실시하고, 여기서 발견된 신환자를 보건소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③ 성병 및 에이즈 관리

가. 성병관리

성병은 남녀간의 성접촉 등으로 감염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감염원이나 사유가 분명하여 감염경로를 차단하면 충분히 전파를 차단할 수 있으므로 성병감염의 우려가 높은 직종의 종사자에게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하고, 감염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유도 및 등록관리를 연중 실시한다. 성교육 등을 통하여 문란한 성행위를 금지시키고 성에 대한 도덕적 가치관을 높여 성병예방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나. 에이즈 관리

에이즈는 인면역결핍바이러스가 혈액이나 정액 등을 통하여 인체에 들어와 면역기능을 약하게 만드는 질병으로 매년 감염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보건소에서는 관내 주민을 에이즈의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에이즈 사진판넬전시회, 리플렛 제작, 무료익명검사 등 각종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흥업소, 다방 등에 종사하는 감염위험 계층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진으로 감염자에 의한 전파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관내 등록관리 중인 감염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보건교육 및 상담을 통해 감염상태를 파악하고 지정병원으로 연계하여 약처방 및 면역검사를 실시하여 환자관리와 에이즈 퇴치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에이즈는 인면역결핍 바이러스가 혈액이나 정액 등을 통하여 인체에 들어와 면역기능을 약하게 만드는 질병으로 매년 감염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8) 급성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관리

기상변동으로 식중독 및 전염병의 발생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보건소에서는 전염병환자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 지역주민에 대한 예방접종 강화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전개, 대국민 홍보 및 계도 등으로 예방관리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9) 지역주민에 대한 예방접종 강화

예방접종은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인위적으로 부여해 주는 것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적기에 적량을 접종하여 전염병으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중점을 기울이고 있다.

(10)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하절기(4월-9월중) 도시, 농촌의 주거지역 및 취약지에 주기적인 살충, 살균소독으로 전염병의 매개체인 위생해충을 사전에 박멸하여 전염경로를 조기 차단하고자 차량연막, 차량분무의 소독방법을 이용, 집중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45개소의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하여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체를 통한 의무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11) 향후추진과제

전염병의 발생 양상을 신속, 정확히 파악 분석하기 위한 질병정보모니터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보건교육을 통하여 해외유행 전염병의 유입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여행사, 유선방송 등)하며, 3~9월중 수인성전염병 및 집단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 차원으로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회집, 어린이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구청 위생부서의 위생점검과 병행한 세균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가축사육장, 도심 밀집지역, 위생처리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한다.

2. 국민건강 증진 사업

국가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질병의 양상도 크게 변모하여 이전에 많았던 영양실조, 기생충과 같은 감염성 질환에 의한 이환율이나 사망률은 현저하게 감소되었으나, 현대생활의 다양성에 따른 사회환경적 변화와 만성퇴행성 질환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흡연, 음주, 운동부족, 불균형적인 식생활 등 생활형태의 변화로 중년기 이후에 만성질환 및 순환기계 성인병의 유병율이 급증하는 경향으로 중대한 보건문제가 대두되어 올바른 보건지식을 보급하여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한다.



올바른 보건지식을 보급하여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한다.

1) 보건교육 사업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대한 의식변화에 부응하고,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건강의식과 행동변화의 유도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 향상에 기여코자 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

2) 금연 사업

흡연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는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있는 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흡연의 유해성을 인식시켜 흡연서가에 접어들어도 스스로 흡연을 거부할 수 있는 자제력을 함양시키고자 금연사업을 실시하였다.

3) 영양개선 사업

지역주민의 식생활 개선으로 각종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수명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영양개선사업을 실시하였다.

4) 구강보건 사업

지역의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릴 때부터 유치검사를 통한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치아우식증(충치)과 치주병을 예방하는 치아관리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구강보건 사업을 실시하였다.

5) 의 · 약무 관리 사업

의 · 약업소 및 유사의료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작하여 불법의무행위, 의약분업 이행여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건전한 의 · 약업 육초조정 및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한다.

※ 집필 李載參 경원전문대학 교수
鄭完立 전)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제5장 성남비전 2006

성남비전 2006은 민선 3기 성남 시정의 종합계획이자 이대엽(李大燁) 시장의 업무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시정의 기본 방향을 '믿음 주는시정, 만족하는 시민'으로 정하고, 구체적으로 1. 함께하는 자치도시, 2. 앞서가는 경제도시, 3. 살맛 나는 복지도시, 4. 아름다운 환경도시, 5. 향기 있는 문화도시 등의 130개 역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지면 관계상 자세히 기록할 수 없어 부득이 사업별 제명만을 기술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제1절 시정방침

1. 계획수립

1) 성남비전 2006은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과 100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100개 시책 사업을 선정하였다.

(1) 성남비전 2006은 성남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10대 역점 · 30대 실천사업, 주요사업과 e-푸른성남 활성화 신규 사업을 총망라하여 수립하였다.

(2) 성남비전 2006은 성남시 시정 목표와 시정 방침을 뒷받침하는 실천계획서로서의 역할이 정립된 것이다.

2) 성남비전 2006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합리적인 예산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

성을 증대시킨다. 즉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사업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3) 성남비전 2006의 주요 시책을 5대 시정 방침으로 세분화하여 추진 계획을 작성함으로써 목표 달성의 이행 여부를 제고시킨다. 즉 사업추진 일정별·연도별·분기별 계획으로 도표화한다.

4) 성남비전 2006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평가 분석을 통하여 문제사업 도출 및 발전 대책을 마련한다.

5) 성남비전 2006은 자치단체의 고유 업무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주요 시책과 신규 시책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여 그때 그때 시정에 접목하여 나갈 계획이다.

2. 계획수립 범위 : 2002. 7월 ~ 2006. 12월

제2절 함께하는 자치도시

1. 행정타운 조성 - 회계과

1) 추진목적 : 시가지의 공간적 연계기능 강화로 시민화합과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 및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

2) 사업개요 - (1) 추진기간 : 2003. 7. ~ 2010. 5월
(2) 사업위치 : 중원구 여수동 일원(개발제한구역)
(3) 부지면적 : 1,188,000㎡(360,000평)

3) 사업비

총사업비	재원별				2003년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574,064	-	-	574,064	-	28,291	3,500	4,000	538,273

4) 추진실적 – (1) 2002. 11. 15. : 시청사 건립 관련 기조 자료 조사(성남시)
(2) 2003. 8. 11. : 행정타운 조성 추진 계획 수립(성남시)
(3) 2004. 1. 27. : 대 도시권 성장 관리방안 기본구상 토론회 개최(경기도)
(4) 2004. 5월 현재 : 광역도시계획 수립 중(경기도 계류 중)

5) 추진계획 – (1) 2004. 10월 : 사업 추진방안 검토 · 확정
(2) 2004. 11월 ~ : 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추진

2. 개방형 인사제도 도입 – 총무과

1) 추진목적 :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운영 실현

2)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 2003. 10월 ~ 2006. 12월
(2) 주요내용
• 인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실질심사 기능 강화
• 인사기준 사전 예고제 실시, 승진 심사시 다면평가 결과 반영 등

3) 사업비 : 비예산

4) 추진실적

(1) 2003. 7.~ 2004. 4월 : 인사위원회 운영(45회)
(2) 2003. 7.~ 2004. 4월 : 주요인사 기준사전예고(22회)

3. 정책실명제 운영 – 기획예산과

1) 추진목적 : 정책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시민에게 믿음과 만족을 주어 실질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사업개요

(1) 운영기간 : 2003. 1월 ~ 2006. 12월
(2) 사업대상 : 10대 역점 사업 및 30대 실천 사업 등

(3) 추진대상 : 전 공무원
(4) 추진방법
- 대외발송문서는 담당자 · 과장 및 소속 · 성명 기재 : 전 부서
- 공약사항, 대형공사 계획 수립시부터 실명관리 : 해당 부서
- 사공 · 감리회사의 회사명과 책임자 및 담당자 기재 : 발주 부서

4. 행정협의회 운영 - 기획예산과

1) 추진목적

(1) 인근 권역 행정문제를 상호협력 추진으로 내실 있는 지역발전 도모
(2)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자치단체 간의 지속적인 교류 · 협력 강화

2) 사업개요

(1) 운영기간 : 2003. 1. ~ 2006. 12월
(2) 대상 : 2개 협의회
- 동부권협의회 : 10개 시 · 군의 시장 · 군수
(성남, 구리, 남양주, 하남, 용인, 이천, 여주, 광주, 가평, 양평)
- 탄천 · 양재천유역 환경행정협의회 : 6개 시 · 구의 시장 · 구청장
(성남, 과천, 용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5. 주민소환제 도입 - 자치행정과

1) 추진목적

(1) 주민의 직접적인 단체장 통제수단으로 단체장의 독단적인 행정운영이나 비리가 있을 경우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발의하여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파면 또는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시민이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정착 및 발전 도모

2) 사업개요

(1) 도입기간 : 2003. 6 ~ 2006. 12월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에 소환발의 주민의 청구 수, 소환발의 요건 및 대상, 발의절차, 소환결정방법 및 효과 등에 관한 조항 신설

6. 성남발전연구소 확대 운영 - 기획예산과

1) 추진목적 : 시정발전 과제를 체계적으로 연구 · 자문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시의 씽크탱크로서의 역할 수행

2) 사업개요

(1) 운영기간 : 2003. 1월 ~ 2005. 3월
(2) 성남발전연구소 현황
• 구 성 : 성남시+경원대학교
• 조직구성 : 28명(운영위원회 14명, 연구위원 10명, 사무요원 등 4명)
(3) 주요내용
• 연구소 기능 대폭 강화 →중추 연구기관 도약
– 연구위원 보강 및 자문위원 위촉, 대형프로젝트 수행능력 확보
• 재정적 지원 확대 : 목표 30억원(출연금 연도별 증액)
• 연구위원 보강(10명⇒20명 이내), 책임연구원 신규임용 검토(1명)

7. 업무추진비 공개 - 총무과

1) 추진목적 : 업무추진비 공개를 통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구현

2) 사업개요

(1) 공개시기 : 매년 2회 (2월, 8월)
(2) 공개범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 공개형태 : 성남시 인터넷홈페이지 공개
(4) 공개내용 : 월별, 성질 · 유형별 금액

8. 여성공무원 적재적소 배치 및 승진 차별 해소 - 총무과

1) 추진목적 : 공직사회의 경쟁원리 적용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 제고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1. ~ 2006. 12월
(2) 여성공무원수 : 631명(총원 2,162명 대비 29%)
• 일반직 505, 별정직 4, 기능직 114, 계약직 4, 연구 · 지도직 4
(3) 여성공무원 분포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본청 · 의회	사업소	구	동
인원수	631	110	130	195	196
비율(%)	100	17	21	31	31

9. 비전성남 제작 – 국보담당과

1) 추진목적 : 시정의 주요시책과 시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

2) 사업개요

(2) 사업기간 : 2003. 1. ~ 2006. 12월
(3) 발행시기 : 월 1회(성남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에 의거 발간)
(4) 편집위원회구성 : 15명(행정국장 1, 시의원 2, 시민 4, 국 주무과장6, 편집 경력 공무원 2)
※ 매월 18일 전후 편집위원회 개최, 편집안 심의 결정
(5) 편성 및 규격 : 타블로이드 16면(칼라 8, 흑백 8)

10. 투명한 행정확립 감사운영 – 감사담당관실

1) 추진목적

(1) 시민위주의 투명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보다는 예방 · 지도 차원의 감사 실시
(2)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업무의 발전을 도모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1. ~ 2006. 12월
(2) 주요내용
- 정기 종합감사 실시, 민생불편 취약분야 감사
- 시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감사체계 구축, 취약시기 특별감찰 실시

11.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 - 총무과

1) 추진목적 : 공직자의 능력개발과 가족과 함께 하는 휴양시설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명랑하고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

2) 사업개요

(1) 업기간 : 2003. 1월~ 2006. 12월
(2) 주요내용
- 휴양시설 이용 확대지원 : 콘도회원 이용권 추가 구입 및 이용 지원
- 공직자 취미모임 활동지원 : 동호인별 공동경비 지원
- 해외배낭여행 : 항공료 및 유료패스비, 여행준비금 지원
-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 : 어학, PC 등 능력개발을 위한 수강료 보조
- 생일 축하케익 전달 : 생일 전날 근무지로 배송 부서장 전달
- 체력단련비 지원 : 월 이용료의 50%이내 30,000원 한도내 지원
-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 친절, 시책유공 공무원 등 산업시찰 추진
- 30년 근속 해외시찰 : 부부동반 해외시찰
- 산업체 위탁교육 : 청내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학비 일부지원
- 청내 외국어 위탁교육 : 영어(초급), 중국어(초·중급) 위탁수강료 지원

12. 보존기록물 자료관 DB 구축 - 총무과

1) 추진목적

(1) 중요 기록물의 전자매체 관리로 기록물의 훼손·멸실방지 및 보존성 향상
(2) LAN망을 활용 실·과내 PC로 보존문서 열람·검색 행정능률 제고
(3)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신속한 정보 서비스로 시민 만족의 행정기반 구축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4. 1월~ 2006. 12월
(2) 주요내용
• 보존기록물 분류 · 정리 및 정비 • 자료관 시스템 등록
• 준영구 이상 중요 기록물 스캐닝(인코딩), 보존매체 수록

13.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자치행정과

1) 추진목적 : 주민자치, 지역공동체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보급으로 주민 간의 화합분위기 조성과 자치역량 증진

2) 사업개요

(1) 운영기간 : 2003. 1월~ 2006. 12월
(2)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동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설문조사 실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수사례 및 작품발표회 개최, 우수사례집 발간

14. 시민의 날 행사 개최 - 자치행정과

1) 추진목적

(1) 100만 시민의 참여 속에 다양한 축제의 장을 개최하여 우리 시민의 정주의식 고취
(2) 시민공모를 통한 시민의 날 행사시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사를 개최하여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구현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6 ~ 2006. 10월
(2) 주요내용 : 기념식 개최, 모범 시민상 시상, 식전식후 행사
시민의 날 전후 행사, 시민공모로 각종행사 아이디어 발굴 개최

15. 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 회계과

1) 추진목적 : 쾌적하고 편리한 주민이용시설 확충 및 주민복지증진

2)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 2003. 3 월~ 2007. 12월
(2) 대상 : 14개동(신흥3, 태평1 · 2 · 3, 산성, 복정, 시흥, 금광1, 신촌, 상대원1 · 3, 수내1, 판교동, 운중동)
(3) 위치 : 신흥3동 2819번지 등 14개소
(4) 규모 : 14개 동(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00평 상당)
※ 태평1동(1,000평), 신흥3동 · 산성동(1,600평)

3) 사업비

총사업비	재원별				2003년 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53,408			53,408		6,349	13,331	23,172	10,556

4) 추진실적 – (1) 2003. 12월 : 복정동, 상대원1동 준공
(2) 2004. 4월 : 태평1 · 2동(설계완료), 시흥 · 상대원3 · 수내1동 (설계 착수)

16. 시민체육대회 개최 – 체육청소년과

1) 추진목적 – (1) 구 · 동 대항 체육대회와 친선 체육경기로 시민 대화합에 기여
(2) 시민의 날 축제행사와 병행 개최로 내실화된 행사로 추진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6.~ 2006. 10월
(2) 대회명 : 시민체육대회(시 단위, 동 단위)
(3) 장소 : 종합운동장 등
(4) 참가규모 : 44개 동 16,000명

3) 사업비

총사업비	재원별				2003년 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1,600				1,600	400	400	400	400

17. 재난 · 재해 사전안전 대책 – 방재과

1) 추진목적 – (1) 안전관리 지도 점검으로 사전에 위험 요인을 해소하여 재난사고 예방
(2) 재해취약지역 사전 점검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2)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 2003. 1.~ 2006. 12월

(2) 주요내용
- 재난관리대상시설(1,176개소)사전 안전관리 지도점검
  - 건축물 : 1,068개소(공공청사, 공동주택, 건축공사장 등)
  - 시설물 : 108개소(도로시설, 토목공사장 등)
- 시특법 대상시설(790개소) 안전점검 : 도로 57, 건축물 731, 상 · 하수도 2

18. 재건축 이동민원실 운영 – 주택과

1) 추진목적 : 재건축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1월~ 2006. 12월

(2) 공동주택 현황
- 206개 단지 1,942동 116,812세대
  - 아파트 : 166개 단지 1,625동 111,195세대
  - 연립주택 : 40개 단지 317동 5,617세대

(3) 사업대상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등

(4) 이동민원팀 구성 : 주택과장 등 5명
(5) 기능 : 재건축조합결성과 사업추진 관련 민원의 신속처리 및 법률,행정절
차자문 사전지식 제공 등

제3절 앞서가는 경제도시

1. 어린이 종합교육 · 문화시설 건립 - 산업지원과

1) 추진목적

음악회, 발표회, 어린이연극, 뮤지컬 등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 제공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4. 3 ~ 2006. 12월
(2) 대상지 : 1개소(분당구 관내)
(3) 건축규모 : 지상10층, 지하2층 건물
(4) 사업방식 : Fun Station코리아(미국)의 외자유치
(5)주요시설 : 놀이시설, 교육센터, 공공시설, 뮤지컬, 어린이 연극시설 등

3) 사업비

총사업비	재원별				2003년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62,000	-	-	-	62,000	-	20,000	22,000	20,000

2. 신교통 사업 추진 - 도로과

1) 추진목적 - (1) 신교통 건설로 지하철과 연계한 효율적인 수송체계 확립
(2) 환경 친화적인 첨단 대중교통수단 도입

2)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 2003~2012년

(2) 사업량 : 3개노선 35.89km
- 제1노선 (구시가지) : 9.44km
- 제2노선 (판교~도촌택지개발지구) : 10.58km
- 제3노선 (판교택지개발지구~분당) : 15.87km

3.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 - 판교개발사업단

1) 추진목적

(1) 계획적인 개발로 난개발 방지 및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
(2) 부족한 주택난 해소와 보급률 확대, 우리시 참여로 개발이익 투명성 제고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 2011년
(2) 위치 : 분당구 판교·삼평·운중·하산운·백현·이매·야탑·서현·수내동, 수정구 사송·금토동 일원
(3) 사업면적 : 9,376천㎡(2,836천평) ⇒ 녹지율 62.7%
(4) 계획인구 : 29,700세대(89,100명) ⇒ 인구밀도 96인/ha(분당의1/2)

3) 사업비

총사업비	재원별				2003년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5,960,000	-	-	430	5,959,570	430	2,676,861	600,000	2,682,709

4) 추진실적

(1) 2003. 9월 : 공동시행자간 기본협약 체결
(2) 2003. 12월 : 토지 및 지장물건 협의보상 착수
(3) 2003. 12월 : 판교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

5) 추진계획

(1) 2004. 5월~ 12월 : 수용재결 완료 및 실시계획 승인, 택지조성사업 착수

(2) 2005. 6월~ 2006. 12월 : 택지분양, 주택 분양

4. 수정 · 중원구 주택재개발사업 - 도시개발과

1) 추진목적 : (1) 구시가지의 열악한 도심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
(2) 신 · 구시가지간 환경격차 해소 및 조화로운 발전 도모

2)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 1999 년~ 2016년
(2) 면적 : 241ha(73만 평) 〔수정구 143ha(43만 평), 중원구 98ha(30만 평)〕
(3) 사업량 : 20개 구역(수복재개발 14개 구역, 철거재개발 6개구역)

• 수정구 : 11개 구역(철거1, 수복10), 중원구 : 9개 구역 (철거5, 수복4)

(4) 시 행 자 : 성남시, 주택공사, 재개발조합

5. 지식정보산업비지니스센터 건립 - 산업지원과

1) 추진목적

(1) 창업 활성화 및 지식정보산업 시대에 능동적 대비
(2) 산업구조 고도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와 고용창출
(3) 금융, 기술, 유통, 고용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1월~ 2005. 6월
(2) 위치 : 분당구 정자동 24 · 25번지
(3) 사업규모 : 지상 7 ~ 지상 22층(22,968㎡ 6,948평)

6. 고도제한 철폐(서울공항 이전) - 건축과

1) 추진목적 : 성남시 주민들의 재산권 관련 등 오랜 숙원 해결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시가지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2월 ~ 2006. 12월
(2) 규제근거 : 군용항공기지법
(3) 규제대상 : 수정구와 중원구 26개동 중 24개동 피해
- 면적 : 83.1㎢(전체면적 141.8㎢의 58.6%)
- 가구 : 194천 가구(총 가구의 64%)

(4) 군용항공기지법상 건축허용 고도제한
- 제 5구역 : 해발 73.04m까지 허용
- 제 6구역 : 해발 73.04m ~ 179.04m까지 허용

※2002. 8. 26. 고도제한 완화 법률공포(지표면 기준 12m → 45m)

7.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 산업지원과

1) 추진목적 : 소득증대를 원하는 모든 계층에게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저변을 실버의류실용화기술지원센터를 통해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4. 3. 5.~ 2008. 12. 31.
(2) 참여대상 : 청년실업자, 주부, 활동이 가능한 노인계층 등
(3) 주요내용
- 실버의류 자동화 시스템 구축 및 첨단 고가장비 무료이용
- 노인 및 장애노인을 위한 기능성 디자인 및 패턴개발, 소재연구

3) 사업비

총사업비	재원별				2003년 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6,014	4,000	400	200	1,414	-	554	1,540	3,920

8. 첨단기술 연구시설 건립 - 산업지원과

1) 추진목적 : 첨단기술 연구 개발기관 유치로 첨단산업 인프라 조성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2. 12월 ~ 2004. 12월
(2) 위치 : 분당구 야탑동 68번지
• 부지면적 : 30,836㎡(9,328평)
(3) 건물개요 : 26,117.77㎡(7,900.62평) ⇒지하2층 지상5층
(4) 입주기관 : 전자부품연구원(KETI)

9.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 정보통신과

1) 추진목적

(1)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지리정보 구축으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
(2) 유관 기관과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정보화 효과의극대화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2월 ~ 2006. 12월
(2) 위치 : 시 전역
(3) 사업량 : 도로, 상/하수도 조사탐사 및 DB구축(2,611㎞)

10. 시민정보화 교육실시 - 정보통신과

1) 추진목적 : 시민들의 정보화 대응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참여 확대의 폭을 넓히고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적응 능력 배양

2) 사업개요

(1) 추진기간 : 2002. 7월 ~ 2006. 12월
(2) 참여대상 : 성남시민
(3) 주요내용
• 인터넷 중심의 교육과 컴퓨터기 초교육

• 청소년 SW기술교육을 통한 전문교육

11. 정기분 지방세 징수율 제고 - 세정과

1) 추진목적 : 자진납세 풍토 조성으로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여 건전재정 운영 및 지방재정 확충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5월 ~ 2006. 6월

(2) 주요내용

• 대중교통 활용 지방세 납부 홍보

• 지방세 퀴즈 응모제 운영 등 납세자 참여 시책 추진

12. 지방물가 안정관리 - 지역경제과

1) 추진목적

(1) 지방물가 안정목표 3%대로 설정, 시민생활의 안정화 도모

(2) 시민 ·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참여를 통한 자율기능 강화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1월~ 2006. 12월

(2) 관리대상 : 장바구니물가 57품목 및 개인서비스요금 45품목

(3) 장바구니물가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 장바구니물가 : 13개 시장(대형유통점 및 재래시장)

• 개인서비스요금 : 3개 구 44개 동

13.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 산업지원과

1) 추진목적

(1)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체에게 이자부담 경감

(2)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 도모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1999. 6월 ~ 2006. 12월
(2) 지원대상
- 관내에 공장 등록이 되어있고 공장이 가동 중인 중소제조업체 및 벤처기업
-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을 구입하는 중소제조업체 및 벤처기업

(3) 한도액 : 업체당 5억원 이내(대출이율 4.20% ~ 7.75%, 변동금리)
(4) 지원방법 : 협약은행의 자금으로 대출하고 조성기금의 예금이자로 이자 차액(2%) 보전, 상환기간(3~4년)
(5) 협약은행 : 8개 금융기관(농협, 한미, 중소기업, 하나, 국민, 우리, 외환, 신한은행)
(6) 기금조성액 : 26,470백만원(2003년말 현재)

14. 성남산업진흥재단 운영 - 산업지원과

1) 추진목적

(1)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2) 지역내 고용 · 소득 창출, 중소벤처기업 네트워크화 및 구심체 역할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1월 ~ 2006. 12월
(2) 설립형태 : 재단법인(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3) 위치 : 수정구 수진1동 587번지(성남벤처빌딩 2층)
(4) 기구 : 165억원(시 출연)

15. 성남시 공동브랜드 「어울리오」 육성 - 산업지원과

1) 추진목적

(1) 공동브랜드 사업을 통해 브랜드 개발, 광고, 유통, 마케팅체제 구축 등 시장개척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과 위험부담 경감
(2) 중소기업의 좋은 상품을 공동 홍보, 마케팅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1월 ~ 2006. 12월
(2) 브랜드명 : 『어울리오』
(3) 참여대상 : 성남시의 중소기업으로 의류, 신발 등 신변잡화 제조업체
(4) 운영방식
- 성남시 : 브랜드사용권 부여, 홍보
- 참여업체 : 상품생산 및 판매

16. 관급공사장 실직자 50% 고용운동 추진 - 회계과

1) 추진목적 : 고용창출 여건을 조성 실업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4월 ~ 2006. 12월
(2) 대상
- 우리시에서 발주하여 시공중인 1억원 이상 공사
- 매년 신규 발주되는 1억원 이상 공사

(3) 주요내용
- 성남시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 제17조에 우리시 실직자 50% 이상 고용토록 입찰 공고시 공고하고 계약시 특수조건에 명시

추진일정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 계획수립 및 홍보				—				—				
▶ 실직자 50% 고용운동 추진	—	—	—	—	—	—	—	—	—	—	—	—

17. 수출업체 해외마케팅 지원 - 산업지원과

1) 추진목적 : 국제 경쟁력 있는 상품의 해외소개, 해외판로 개척 기회확대 제공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1월 ~ 2006. 12월
(2) 주요내용
- 전문상품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해외 유명 상품전시회 참가

• 세계 주요 시장개척 가능지역 시장개척단 파견

3) 사업비

(단위: 백만원)

총사업비	재원별				2003년 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1,133	–	–	1,133	–	149	328	328	328

4) 추진실적

(1) 2003. 1월 ~ 12월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업체 지원(16개사)
(2) 2003. 5월, 6월, 8월 : 해외전시회 성남관 운영(3회 12개사)
(3) 2003. 3월, 7월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2회 5개사)

18. 국제교류 강화 – 산업지원과

1) 추진목적

(1) 국제도시간 활발한 교류사업을 통하여 국제통상 기반 마련
(2) 문화교류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5월 ~ 2006. 12월
(2) 결연현황
• 국제자매도시 : 미국(오로라시), 중국(심양시), 브라질(삐라시카바시)
• 우호교류도시 : 일본(시즈오카, 오미야)
(3) 주요내용
• 자매/우호도시 확대 : 대륙권별(유럽, 동남아, 오세아니아 등)
• 국제교류 공무원 파견, 자매/우호도시 간 경제통상 교류 추진

19. 도촌지구 택지개발사업 – 도시개발과

1) 추진목적 : 기존 시가지 재개발 이주단지 활용 및 주거생활 안정과 주민복지 증진, 저소득층의 안정적 주거기반 확보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2. 6월 ~ 2007. 12월
(2) 위치 : 중원구 도촌동 일원
(3) 면적 : 801천㎡ (242천평)
(4) 개발규모 : 5,242세대(15,726명)
(5) 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3) 사업비

총사업비	재원별				2003년 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395,000	-	-	-	395,000	5,000	250,000	71,000	69,000

20.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 - 주택과

1) 추진목적 : 저소득 전세 세입자들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 도모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1월 ~ 2006. 12월
(2) 융자대상
- 신청일 현재 성남시 실거주자(신청접수 후 현지 확인)
- 만20세 이상으로 부양가족(직계존비속)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 신규 전세금이 4,000만원 이하인 자,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3)세대당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70%까지(2,800만원 한도)
(4) 대출금리 : 3%(상환조건 2년거치 일시상환)
(5) 자금관리 및 대출취급기관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성남전지점 (국민주택기금)

3) 사업비

총사업비	재원별				2003년 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115,009	-	-	-	115,009	25,009	25,000	30,000	35,000

4) 추진실적

(1) 2003. 1월 ~ 2004. 4월 : 1,620세대 25,009백만원 융자 지원

21. 건축행정정보화(AIS)사업 - 주택과

1) 추진목적 : 건축물 사용승인과 동시에 건축물대장이 자동 작성되고 즉시 발급되므로 민원편익증진 및 행정신뢰도 제고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3월 ~ 2006. 12월

(2) 주요내용

- 건축 인 · 허가, 아파트사업승인, 도면관리 등 건축/주택 행정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신속 · 정확하고 편리하게 전산처리하는 시스템
- 건축허가 등 신청시 기존의 신청서와 도면대신 디스켓, CD로 접수

추진일정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 건축물대장자료 변환 작업	———	———	———									
▶ 업그레이드 작업등		———	———	———	———	———	———	———	———	———	———	———
▶ 건축 인허가 업무 전산처리					———	———	———	———	———	———	———	———

제4절 살맛나는 복지도시

1. 노인보건센터 건립 - 중원구 보건소

1) 추진목적 : 치매 · 뇌졸중 등 만성질환 노인들에게 양질의 보건 ·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해당 가족들의 경제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2) 사업개요

(1) 추진기간 : 2003년 ~ 2007년

(2) 위치 : 중원구 상대원 1동 269-1

(3) 규모 : 부지면적 : 5,512㎡(1,667평) 지하 2층, 지상 6층

(4) 건축 계획

- 건축면적 : 1,650㎡(500평)
- 연면적 : 16,500㎡(5,000평)

3) 사업비

총사업비	재원별				2003년 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30,897	–	–	30,897	–	30	30	30,837	–

4) 추진실적

(1) 2002. 11월 :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건립 운영 계획 수립

(2) 2003. 10월 : 노인보건센터운영을 위한 사업내용 및 범위연구 용 역발주

(3) 2004. 3월~4월 : 노인보건센터 신축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5) 추진계획

(1) 2004. 6월~12월 : 대형 공사 집행 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계약의뢰

(2) 2005. 1월~ 5월 : 기본설계자 선정 및 공사 착공

(3) 2006. 1월~12월 : 조례제정 및 수탁기관 선정

2.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 사회복지과

1) 추진목적

(1)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자 치료 및 보호

(2) 노인부양 가정에 정신적, 신체적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4. 6월 ~ 2005. 6월

(2) 위치 : 분당구 석운동 산 20-15번지 외 3필지

(3) 건립규모 : 지하1층, 지상3층(연면적 1,424㎡)

(4) 주요시설 : 보호실, 물리치료실, 상담실, 다용도실, 일광욕장 등

(5) 추진방법 : 민자유치(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3) 사업비

총사업비	재원별				2003년 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1,800	776	776	–	248	–	1,080	720	–

3. 직장 및 지역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 여성복지과

1) 추진목적 : 여성근로자의 육아부담해소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가정복지 증진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1월 ~ 2005. 12월

(2) 보육시설 확충

- 직장보육시설 : 4개소(제생병원, 차병원, 서울대병원, 분당구청)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4개소(복정동, 분당동, 금광2동, 은행2동)

3) 사업비

총사업비	재원별				2003년 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17,108	191	143	16,774	–	2,028	7,834	7,246	–

4.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복합사업장 설치 – 사회복지과

1) 추진목적

(1)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취업 및 재활기회 제공

(2)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통한 생산활동 참여

(3)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재활·자립 도모, 고용여건 조성으로 편견해소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8월 ~ 2004. 8월

(2) 시설명 : 성남 SICOX TOWER 아파트형공장(상대원1동 513-14)

(3) 사업량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70.71㎡(263평)

3) 사업비

총사업비	재원별				2003년 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994	–	497	497	–	–	994	–	–

5. 여성단체 및 여성권익 지원 – 여성복지과

1) 추진목적

(1) 여성단체 지원으로 여성의 권익향상 및 여성단체 활성화
(2) 일반여성 및 여성단체 회원 대상으로 전문 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 보급으로 여성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2. 7월 ~ 2006. 12월
(2) 주요내용
- 여성의 참 봉사활동으로 사회참여 유도
- 여성단체 차기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및 분야별 전문 교육

6.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재건축 – 지역경제과

1) 추진목적

(1)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 및 확충으로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제공하여 미혼 근로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근로의욕 고취
(2) 재건축 사업시행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지역 실업자 감소에 기여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2월 ~ 2005. 8월
(2) 위치 : 중원구 금광2동 2528번지
(3) 규모 : 11~15층 3개동(15평형 200세대), 부속건물 및 주차장

3) 사업비

총사업비	재원별				2003년 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12,244	-	-	12,244	-	905	8,429	2,910	-

7.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 추진 - 여성복지과

1) 추진목적 : 셋째 자녀의 보육료 지원으로 출산 장려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4. 3 월 ~ 2007. 2월
(2) 지원대상 : 성남시 관내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 만2세 미만 아동
(3) 지원액 : 130천원/1인/1월(2세 미만 정부보육 단가의 50%수준)

3) 사업비

총사업비	재원별				2003년 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1,725	-	-	1,725	-	-	525	600	600

8. 현충탑 이전 건립 - 사회복지과

1) 추진목적

(1) 시 중심부의 여수공원부지로 이전하여 신 · 구시가지 시민 이용에편리하고 시민화합의 장으로 활용
(2)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호국정신을 함양하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1월 ~ 2006. 6월
(2) 위치 : 중원구 여수동 산 23번지 일원
(3) 규모 : 18,060㎡(5,463평), 현충탑, 광장, 주차장, 관리실

9. 노인복지센터 건립 – 사회복지과

1) 추진목적

(1) 고령화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기반 조성
(2) 노인복지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으로 노인복지 향상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1월 ~ 2006. 6월
(2) 주요내용 : 중원 및 분당 노인복지센터 2개소 건립

3) 사업비

총사업비	재원별				2003년 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31,600		1,600	30,000	–	–	5,000	20,000	6,600

10.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시책 – 사회복지과

1) 추진목적

(1)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정보제공으로 사회적 편견해소
(2)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교육비 지원 및 일상생활 편의증진 도모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1월 ~ 2006. 12월
(2) 주요내용

- 장애인 가구 생활안정지원 : 장애 · 장애아동부양수당, 자녀교육비 지원
- 장애인 의료재활사업지원 : 의료비 · 재활보조기구 · 의료재활사업 지원
- 장애인 재활기반조성 : 심부름센터 · 수화통역 · 민원상담운영 등
- 정보접근 편의제공 : 장애인신문보급, 비전성남 테이프 배부

3) 사업비

총사업비	재원별				2003년 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7,358	4,046	1,656	1,656	–	1,449	1,702	1,957	2,250

11.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 사회복지과

1) 추진목적

(1)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국가가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지원
(2) 근로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근로의욕 고취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2. 7월 ~ 2006. 12월
(2) 주요내용
- 생계 · 주거급여 지급(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자)
- 교육급여 지급(학비 · 입학금 지원)

3) 사업비

총사업비	재원별				2003년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129,540	103,632	12,954	12,954	–	27,643	32,299	34,299	35,299

1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자립정착금 지원 – 여성복지과

1) 추진목적 : 보호기간 해지로 인한 급격한 경제적 곤란 완화 및 자립기반 토대 마련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2월 ~ 2006. 12월
(2) 현황 : 105세대 151명(소년소녀가정 15, 가정위탁보호아동136)
(3) 대상 : 보호대상자 중 만 18세 연령 초과자
(4) 지원시기 : 보호가 해지되는 달 (2월, 12월⇒세대당 3,000천원)

3) 사업비

총사업비	재원별				2003년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249	–	–	249	–	75	54	60	60

13. 결식아동 급식 지원 – 사회복지과

1) 추진목적 : 결식 및 결식 우려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성장기 아동의 건강 증진 도모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1월 ~ 2006. 12월

(2) 지원대상 : 결식 및 결식 우려 아동

(3) 주요내용

- 미취학생 : 조 · 중 · 석식(연중 지원)
- 취 학 생
  - 조 · 석식 : 연중지원(365일)
  - 중식 : 공휴일 및 방학 중 지급 (180일)
- 지원단가 : 1인 1식 2,000원

3) 사업비

총사업비	재원별				2003년 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2,703	1,178	–	1,525	–	903	600	600	600

14. 저소득 모 · 부자가정 지원 강화 – 여성복지과

1) 추진목적 :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2. 7월 ~ 2006. 12월

(2) 주요내용

- 생필품비 지원 확대 : 세대당 60천원, 연 2회(중추절 및 설날)
- 수학여행비 지원 : 초등생 50천원, 중등생 70천원, 고등생 100천원(9월)
- 졸업앨범비 지원 : 초 · 중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35천원(12월)

3) 사업비

총사업비	재원별				2003년 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1,972	746	546	680	-	788	358	413	413

15. 여성의 능력개발과 지원 - 여성복지과

1) 추진목적

(1)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전문교육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
(2)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무료 취업알선 확대로 경제적 자립 지원
(3)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여성들에게 골고루 교육의 기회 제공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1월 ~ 2006. 12월
(2) 주요내용 : 여성사회교육 및 인구 노령화대비 할머니 대학 활성화운영

3) 사 업 비

총사업비	재원별				2003년 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1,972	746	546	680	-	788	358	413	413

16. 자원봉사은행 운영 활성화 - 여성복지과

1) 추진목적

(1) 서로 돕고 서로 나누는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시민화합 도모
(2)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에 활력소를 불어넣어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 구현

2) 사업개요

(1) 운영기간 : 2003. 1월 ~ 2006. 12월
(2) 운영내용

-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운영 : 자원봉사 수요신청, 각종 자료제공
-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운영 : 자원봉사자 정보관리, 배치, 활동실적 관리 등
- 자원봉사은행 통장발급기 설치 : 6개소(시청 · 3개 구청 · 센터 · 분당구 상담소)

3) 사업비

총사업비	재원별				2003년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115	–	30	85	–	40	25	25	25

제6절 아름다운 환경도시

1. 모란고가차도 건설 – 도로과

1) 추진목적

(1) 탄천변 도로,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등 도심외곽도로로 교통분산 처리
(2) 간선도로의 교통체증 완화 및 교차로 상습 정체구간 해소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5월 ~ 2004. 12월
(2) 위치 : 중원구 성남동 ~ 수정구 수진동(모란사거리)
(3) 사업량 : 고가차도 L=462m, B=16m

3) 사업비

총사업비	재원별				2003년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7,887	–	–	587	7,300	7,887	–	–	–

2. 도심공항터미널 유치 - 교통행정과

1) 추진목적 : 항공 이용시 공항에서 처리하였던 수속절차를 대행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로 이용자의 편의제공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4월 ~ 2005. 1월

(2) 주요내용

- 탑승수속(check-in counter), 수하물 검사용 X-Ray 투시기, 비행정보 게시판, 수하물 보관소, 공항버스 승·하차장 등
- 관련기관 : 법무부출입국 관리사무소, 세관, 은행(환전소), 우편취급소, 항공여행사, 여권민원실

3) 사업비 : 1,000백만원(도비)

3. 분당~서울간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탄천변 대체도로 조기건설 - 도로과

1) 추진목적

(1) 성남대로의 교통량 분산 처리로 중앙로 및 수정로의 교통체증 완화

(2) 모란지역의 상습 교통정체 해소 및 판교택지 유발 교통처리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1월 ~ 2007. 12월

(2) 위치 : 판교지구 ~ 성남대로(동서울대 앞)

(3) 사업량 : L=5,800m B=20m(4차로)

4. 시내버스 노선 확충·개선 - 교통행정과

1) 추진목적

(1) 교통민원의 사전 대응으로 신뢰받는 교통정책 수행

(2) 버스 노선의 합리적 개선으로 업체 수익성 제고 및 시민불편 해소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3월~ 2006. 12월
(2) 주요내용
- 시내버스 : 120개 노선 1,865대(14개 업체)
- 마을버스 : 31개 노선 128대(12개 업체)

3) 추진일정

추진일정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 시내버스 노선확충 등												

5. 공영주차시설 대폭 확충 – 교통지도과

1) 추진목적

(1) 도로기능 회복으로 사회적 손실비용 감소
(2) 주택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로 시민불편 해소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2. 7월~ 2006. 12월
(2) 사업대상 : 28개소 5,855면 (수정구 12개소 2,472면, 중원구 10개소 2,013면, 분당구 6개소 1,370면)

3) 사업비

총사업비	재원별				2003년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254,547	6,835	6,207	241,505	–	102,053	53,488	50,735	48,271

6. 자연생태하천 정비 – 탄천관리과

1) 추진목적

(1) 수질 자정능력 제고 및 수량 확보에 따른 수변경관 개선
(2)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로 훼손된 하천생태 복원과 친수공간 확보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1월 ~ 2006. 12월
(2) 주요내용
- 탄천 친환경적 하상정비 : 15.8km
- 지천 자연생태하천 정비 : 5.31km(여수천, 운중천, 분당천, 동막천)
- 탄천 유지유량 확보 : 12,000톤/1일(광역상수도 5, 6단계 팔당원수)
- 탄천 조깅로 설치 : 24.2km(탄천 좌 · 우안)
- 탄천 자전거도로 정비 : 21.42km(탄천 좌 · 우안)

3) 사업비

총사업비	재원별				2003년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27,510	-	-	27,510	-	7,262	5,924	12,171	1,153

7. 맹산의 보호와 자연생태환경 학습관 건립 - 도시개발과

1) 추진목적

(1)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자연생태학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 도모
(2)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1월 ~ 2006. 12월
(2) 위치 : 분당구 야탑동 산 117-2번지 일대
(3) 면적 : 300,000㎡(보전녹지지역)
(4) 주요시설 : 생태학습관건립, 나비생태원 · 식물원조성, 생태관찰원

8. 아름다운 환경도시 만들기

1) 추진목적 : 우리지역의 특수성과 시민의견을 반영한 환경도시 선언으로 '세계속의 아름다운 환경도시 성남'의 이미지를 알리는 계기 마련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3월 ~ 2006. 6월
(2) 주요내용
- 개발행위 제한과 자연친화적인 관리 생태도시 장기계획
- 풍부한 물, 깨끗한 공기, 조용한 도시 만들기 사업
- 시민 참여를 통한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운동 전개

9. 성남생태네트워크(SECONET) 구축 ~ 환경위생과

1) 추진목적

(1) 도시생태 현황에 대한 지역별 등급을 확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비오톱 등급이 높은 지역을 관리하여 녹지지역 보존
(2) 생태계 단절지역에 대한 복원을 통한 녹지축 연결로 모범 생태도시 건설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1월 ~ 2006. 6월
(2) 주요내용
- 산림, 하천, 공원, 도로 등 생태공간 연결 추진
- 도시생태현황도(Biotop Map) 구축 GIS 사업 추진
- 생태네트워크(Eco-Network) 구축 지침서 개발보급

⇒ 해당부서별 사업검토⇒ 성남생태네트워크 구축

- 공간복원 및 연결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습지복원)

10. 중 · 장기도로망 확충계획 - 도로과

1) 추진목적

(1) 급증하는 교통수요와 21C 도시여건 변화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로망 구축
(2) 효율적인 도로 관리 · 운영 시스템 마련

2) 사업개요

(1) 장기 목표연도(2021년)까지 161.85㎞ 추가건설

구분	계(2003~2021)		기투자		2003~2012		2013~2021	
	사업량 (㎞)	사업비 (억원)	사업량 (㎞)	사업비 (억원)	사업량 (㎞)	사업비 (억원)	사업량 (㎞)	사업비 (억원)
투자계획	34개노선/ 161.85	21,363	-	733	19개노선/ 52.01	10,004	15개노선/ 109.84	11,359

11. 「e-푸른성남」 이미지 쇄신 - 도시개발과

1) 추진목적 : 우리 시를 상징하는 시설물을 관문에 설치하여 인구 100만 도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4. 3월 ~ 2006. 12월
(2) 위치 : 수정구 복정동 서울시계
(3) 사업내용 : 상징물 설치 1개소

12. 「e-푸른성남」푸른도시 조성 - 도시개발과

1) 추진목적 : 생활권주변 공원조성 확대 및 체험할 수 있는 녹지 확충으로 쾌적한 삶의 환경 구현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1월 ~ 2006. 12월
(2) 위치 : 공원, 도로변, 공공공지, 완충녹지, 보행자도로, 학교, 산림, 하천변, 공한지 등
(3) 사업량 : 1,306천㎡(수목식재 2,686천주)
(4) 주요내용
- 생활권 주변 공원 및 녹지공간 확충 · 자연환경림 복원을 통한 도시숲 조성

• 시계 및 주요 등산로 친환경적 복원 ·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병행추진

13. 쾌적한 공원 유지관리 – 공원운영과

1) 추진목적 : 노후 및 파손된 시설물을 신속히 복구하여 쾌적한 공원환경 유지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2. 7월 ~ 2006. 12월
(2) 위치 : 분당구 수내동 65, 중앙공원 등 104개소
(근린공원 30개소, 어린이공원 73개소, 남한산성 1개소)
(3) 주요내용
• 공원내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 잔디, 수목관리, 병해충방제 등
• 공원내 청소 및 조경, 토목시설물 유지관리 등

14. 단절 등산로 연결 사업 – 도시개발과

1) 추진목적

(1) 남한산성, 청계산 및 영장산의 단절된 등산코스를 연결하여 성남시 외곽순환 등산일주로 개설
(2) 쾌적한 등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건강증진 기여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4. 10월 ~ 2005. 12월
(2) 위치 : 이배재고개, 하우고개
(3) 시행면적 : 2개소 120m
(4) 사업내용 : 등산로 연결 육교설치

15. 주요도로 전선 지중화 사업 – 도시개발과

1) 추진목적 : 주요 도로변에 있는 전력 및 통신선 등의 전선을 지중화하여 도시미관을 증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구 · 신시가지의 도시환경 격차 해소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4. 3월 ~ 2009. 12월
(2) 위치 : 수정로 등 18개 노선
(3) 사업내용 : 전력, 통신, 케이블TV선로 지중화(43.9㎞)

16. 야생동물 이동통로(Eco Bridge) 설치 - 도시개발과

1) 추진목적 : 도로개설 때문에 단절된 남한산성 줄기의 동식물 서식공간을 연결하여 야생동물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생물종의 다양성 유지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4. 3월 ~ 2006. 5월
(2) 위치 : 중원구 상대원1동 이배재고개 등 2개소
(3) 사 업 량 : 2개소(이배재 L=50m, B=21m, 영생사업소위L=50m, B=15m)
(4) 주요내용
- 생태계조사 및 모니터링
- 구조물 설치, 토공 및 조경공사

17. 동원동 ~ 대장동간 도로 확장 - 도로과

1) 추진목적

(1) 광역도로 연결로 체계적인 외곽 도로망 구축
(2) 도심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시가지 교통량 최소화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1월 ~ 2006. 12월
(2) 위치 : 분당구 동원동(금곡I/C) ~ 대장동(고기초등학교 앞)
(3) 사업량 : L=4, 150m(터널 451m 포함), B=30m(6차로)

18. 야탑동 ~ 서현동간 도로 개설 - 도로과

1) 추진목적

(1) 수정 · 중원구와 분당구를 연결하는 남북간 간선 도로연결
(2) 도심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간 균형 발전 도모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0. 3월 ~ 2005. 12월
(2) 위치 : 분당구 야탑동(목련마을) ~ 서현동(효자촌)
(3) 사 업 량 : L=3,230m(터널 912m 포함), B=20 ~ 40m(4차로)

19. 공원로 ~ 우남로간 도로 개설 - 도로과

1) 추진목적

(1) 남 · 북간 도로를 개설하여 도심 교통난 해소
(2) 태평동, 신흥동 주택 밀집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1. 3월 ~ 2005. 12월
(2) 위치 : 수정구 태평4동(현충탑) ~ 창곡동(학생군사학교)
(3) 사업량 : L=1,828m(터널 437m 포함), B=17 ~ 19m(4차로)

20. 공원로 확장 - 도로과

1) 추진목적

(1) 교통량 증가로 공원로의 교통체증 심화
(2) 남북측 교통난 해소 및 중앙로와 수정로의 도로망 기능 제고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4. 1월 ~ 2009. 12월
(2) 위치 : 수정구 신흥동(우리은행) ~ 태평동(현충탑)
(3) 사업량 : L=1,400m B=30 ~ 40m(2차로 → 6~8차로)

21. 자전거 이용시설 도로망 확충 - 도로과

1) 추진목적

(1) 자전거 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자전거 이용 여건 조성
(2) 단거리 교통수요를 흡수하여 교통 ·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1997년 ~ 2010년
(2) 위치 : 성남시 관내 일원
(3) 사업량
- 자전거 도 로 : 90개노선, 278.1㎞
- 자전거 보관대 : 2,003개소 70,549대분
- 횡단보도턱 정비 및 안전시설 : 1,187개소

22. 간선도로 교통종합 개선사업 - 교통행정과

1) 추진목적

(1) 성남시 도로구간 전체의 교통체계정립, 교통정체개선 및 교통사고 완화효과 기대
(2) 통행의 쾌적성, 편리성, 안전성 등의 개선효과로 도로 이용자에게보다 높은 서비스 제공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3월 ~ 2005. 12월
(2) 위치 : 수정 · 중원구
(3) 사업량 : 10.5km(중앙로 6.2km, 광명로 4.3km구간)

23. 노후 상수도관 교체 - 수도시설과

1) 추진목적

(1)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여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으로 수돗물의 신뢰 제고
(2) 급수불량지역 해소 및 유수율 제고로 공기업 경영수익 증대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1월 ~ 2006. 12월

(2) 위치 : 시 전역

(3) 사업량

• 관 경 : D25m/m ~ D250m/m, 연장 : L= 65㎞

3) 사업비

총사업비	재원별				2003년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34,161	-	10,248	23,913	-	28,361	1,800	2,000	2,000

24. 수도전시관 설치 - 정수과

1) 추진목적 : 물의 중요성 인식으로 평상시 생활에서 물을 아껴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각종 물관련 교육의 장으로 활용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10월 ~ 2006. 12월

(2) 전 시 물 : 사진물, 두레박 등 물 관련 전래물, 수도기자재 등

(3) 주요내용

• 전시물 수집(2003. 10 ~ 2004. 12월)

• 임시전시관 설치(2005년 가설 건축물 내)

• 전시관 설치(2006년 이후 : 복정 1정수장 중 · 개축시 전시공간 확보 → 330㎡)

25. 성남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3단계 증설공사 - 하수처리과

1) 추진목적

(1) 성남시의 장래인구 증가 및 농촌동 처리구역 확대로 하수발생량 증가에 따른 하수처리용량 부족 대비 하수처리장 증설

(2) 2008년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에 따른 2차 처리시설을 3차 처리 시설로 개선하여 수질 보전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4월 ~ 2006. 12월
(2) 처리시설증설 : 25,000톤/일(435,000톤/일 → 460,000톤/일)
(3) 고도처리개선 : 220,000톤/일(표준활성슬러지법 → 고도처리)

3) 사업비

총사업비	재원별				2003년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52,272	35,721	7,721	8,830	-	3,908	5,461	21,451	21,452

26. 천연가스(CNG) 시내버스 보급 - 환경위생과

1) 추진목적 :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형 경유차 중 도시에서의 운행빈도가 가장 많은 시내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경유사용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여 오염물질발생 저감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2. 7월 ~ 2006. 12월
(2) 천연가스버스 구입
• 대당 2,250만원 보조 : 정부 및 지자체 각50%

27. 탄천 둔치 테마공간 조성 - 탄천관리과

1) 추진목적

(1) 탄천 둔치를 꽃과 푸르름이 어우러져 고향 같은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테마공간 조성
(2) 시민과 학생 등이 자연과 함께 관찰할 수 있는 자연학습장으로 활용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1월 ~ 2006. 12월
(2) 위치 : 탄천 둔치(수진2동)
(3) 사업량 : 18,700㎡(5,666평)
(4) 사업내용
- 유채꽃 테마공간 시설물(쉼터, 휴게시설, 산책로 등) 설치
- 유채꽃 테마공간 조성(봄철), 메밀꽃 테마공간 조성(가을)

제3절 [illegible]

1. 모란민속시장 활성화 – 지역경제과

1) 추진목적 : 전국 최대의 민속시장인 모란민속시장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육성하여 우리 시의 위상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1월 ~ 2006. 12월
(2) 위치 : 중원구 성남동 1846번지 일원
(3) 면적 : 12,200㎡(3,690여평)
※ 최초개설 : 1964년 4월(현위치 시장개설 : 1990. 9. 24.)
(4) 개장주기 : 5일(매월 4, 9일주기) – 평일 공영주차장 이용(233면)

2. 책 테마파크 조성 – 도시개발과

1) 추진목적 : 수준 높은 책 문화 창출로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욕구 충족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9월 ~ 2005. 12월
(2) 위치 : 분당구 율동 산 2-2번지 일원 (율동공원 내 꽃동산부지)
(3) 시행면적 : 1,800평
(4) 사업내용 : 책 읽어주는 어머니상 등 책 관련 건축물 및 조형물설치

3. 국제영상문화단지 조성 - 문화예술과

1) 추진목적 : 신개념의 관광자원 조성으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2) 사업개요

(1) 추진기간 : 2003년 ~ 2006년
(2) 부지면적 : 991,740㎡(약 30만 평)
(3) 시설규모 : 198,348㎡(약 6만 평)

3) 사 업 비

총사업비	재원별				2003년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120,000	-	-	100	119,900	-	-	100	119,900

4. 청소년수련관 건립 - 체육청소년과

1) 추진목적

(1) 21세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성과 자질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
(2) 전용 문화공간 제공으로 탈선예방과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함양

2)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03. 1월 ~ 2006. 6월

구분 \ 명칭	서현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	정자청소년수련관
위 치	서현동 312-5, 6번지	하대원동 241번지	정자동 6-1번지
연 면 적	4,707㎡ (1,424평)	10,562㎡ (3,195평)	7,328㎡ (2,217평)
사업기간	2001. 2. ~ 2003. 9.	2003. 1. ~ 2006. 6.	2002. 1. ~ 2004. 6.

5. 문화의 거리 조성 - 문화예술과

1) 추진목적

(1)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고 성남의 특색 있는 도시이미지 창출
(2) 깨끗하고 쾌적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질 높은 휴양문화 정착에 기여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4. 2월 ~ 2005. 8월
(2) 주요내용
- 위치 : 분당구청 앞 보행자 전용도로(오곡백화 거리)
- 사업량 : L=340m, B=20m
- 사업내용 : 분수대, 조형물, 상징물 등

3) 사업비

총사업비	재원별				2003년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3,200	–	–	3,200	–	–	950	2,250	–

6. 원거리 통학 불편해소를 위한 초·중·고교의 확충 – 체육청소년과

1) 추진목적

(1) 과대·과밀학급 분리 및 원거리 통학에 따른 민원 해소
(2)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학습공간 마련으로 교육환경개선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1월 ~ 2006. 12월
(2) 학교현황 : 126개소, 157,706명(학급당 평균 39명, 2004. 3. 31일 현재)
- 특수학교 2개교, 초등학교 59개교, 중학교 35개교, 고등학교 30개교
(3) 추진목표 : 학급당 정원을 OECD수준인 30명으로 조정 교육 환경개선

3) 사업비 : 비예산

4) 추진실적 : 2003년 : 2개교(초등학교 1, 중학교 1)

7. 방송통신대 학습관 건립 – 청소년체육과

1) 추진목적 : 방송통신대학생들에게 면학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평생 교육의 기틀 마련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6월 ~ 2006. 12월
(2) 현 황
- 위치 : 수정구 신흥1동 5063번지
-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 수용인원 : 290명
- 등록학생 : 5,724명(성남4,657, 하남503, 광주564)

8. 시립국악단 창단 – 문화예술과

1) 추진목적

(1) 시립국악단을 창단하여 향기 있는 문화도시 정립
(2) 우리 시의 향토문화예술 창달과 날로 증가하는 문화욕구 충족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6월 ~ 2004. 9월
(2) 근거 :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
(3) 명칭 : 성남시립국악단
(4) 구성인원 : 40명(상임) – 지휘자 및 일반단원(4명) · 연주단원(36명)
(5) 연습장소 : 제2종합운동장내(예정)

9. 문화 · 예술 · 체육단체의 지원확대 –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1) 추진목적

(1)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체육단체의 기금확대 조성
(2) 시민건강과 시민의 잠재적 문화욕구까지 충족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1월 ~ 2005. 12월

(2) 조성계획 : 2개 기금 50억원

- 성남시문화예술발전기금 25억원(2003년 ~ 2005년)
- 성남시체육진흥기금 25억원(2003년 ~ 2005년)

3) 사업비

총사업비	재원별				2003년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5,000	-	-	5,000	-	2,000	2,000	1,000	-

10. 특수목적고 설립 - 체육청소년과

1) 추진목적 : 학생들의 소질, 적성 및 창의성 계발을 지원하고 학교 선택의 기회 확대

2) 사업개요

(1) 추진기간 : 2003. 3월 ~ 2005. 3월

(2) 참여대상 : (재)국제교류진흥회, 특수목적고설립추진위원회

(3) 주요내용

- 위치 : 분당구 백현동 산68번지 등 7필지
- 면적 : 18,683㎡
- 학교명 : 가칭 "성남외국어고등학교"

3) 사업비

총사업비	재원별				2003년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17,000	8,000	4,000	5,000	-	-	17,000	-	-

11. 문화예술회관 건립 -문화예술과

1) 추진목적

(1) 문화예술 공간의 확충으로 21C 문화도시 기틀마련
(2)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폭넓은 기회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1997년 ~ 2005. 11월
(2) 위치 : 분당구 야탑동 산 164번지 일원
(3) 규모 : 지하2층, 지상3층(부지면적 131,341㎡)
• 공연장 : 대극장 1,802석, 중극장 1,041석, 소극장 437석, 연습실 등
• 주차대수 : 684대(지하 350대, 지상 334대)

3) 사업비

총사업비	재원별				2003년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125,075	2,000	6,000	117,075	-	52,990	40,437	31,648	-

12. 성남문화예술제 개최 - 문화예술과

1) 추진목적

(1) 지역문화예술 창달 및 시민정서 함양
(2) 다양한 행사 개최로 향기있는 문화도시 정립
(3) 범시민적 축제분위기 조성을 통해 시민화합 및 애향심 고취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3월 ~ 2006. 10월
(2) 참여단체 : 예총 및 회원단체, 민간예술단체
(3) 행사내용
• 전문예술행사 : 국악제, 음악제, 무용제, 연극제, 영화제, 시민백일장, 시민노래자랑, 미술 · 사진작품전 등

• 부대행사 : 공연 · 전시, 기타 이벤트행사 등

13. 성남세계전통민속예술 축제 - 문화예술과

1) 추진목적

(1) 축제분위기 조성을 통해 시민화합 및 애향심 고취
(2) 세계 각국의 민속예술을 시민에게 관람기회 제공

2) 사업개요

(1) 개최시기 : 2003. 2월 ~ 2006. 9월
(2) 장소 : 중앙공원야외공연장, 시민회관, 모란민속공연장 등
(3) 주최 : 성남시, 축제추진위원회, 경평
(4) 참가국 : 12여 개국 400여 명
(5) 행사내용 : 세계 민속무용, 음악, 의상축제

3) 사업비

총사업비	재원별				2003년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1,290	300	460	530	-	160	230	450	450

14. 시립박물관 건립 - 문화예술과

1) 추진목적 : 성남시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연구 정립하고 문화, 역사, 유물 자료를 발굴 · 전시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 고취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4. 3월 ~ 2005. 12월
(2) 위치 : 분당구 정자동 253번지 주택공원 전시관 내
(3) 규모 : 1,200평(지하 1층, 지상 2층)
(4) 사업비 : 10,000백만원
(5) 주요내용

• 성남시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관
• 자기와의 만남, 유럽자기 / 크리스탈자기

3) 사업비

총사업비	재원별				2003년 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10,000	2,100	2,100	5,800	-	-	30	9,970	-

15. 생활체육 활성화 - 체육청소년과

1) 추진목적 : 시민 1인1종목 취미갖기 운동 정착과 건전한 체육 활동을 보급하여 시민화합의 분위기 조성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1월 ~ 2006. 12월
(2) 주요내용
• 생활체육 중심조직 중점 육성 : 35개단체
•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 9종목 45개소, 7개 사업 7종목
• 생활체육행사 육성 지원 : 147개 대회

3) 사업비

총사업비	재원별				2003년 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4,275	161	264	3,850	-	873	1,082	1,110	1,210

16. 시립도서관 건립 - 중앙문화정보센터

1) 추진목적 :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지식정보화시대의 문화시민으로서 자질과 자긍심 고취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5. 5. ~ 2007. 5월
(2) 위치 : 분당구 구미동 16번지
(3) 부지 : 5,282.7㎡(1,598평)
(4) 연면적 : 5,558.89㎡(1,681.56평, 지하 1층/지상 4층)

3) 사업비

총사업비	재원별				2003년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11,723	2,300	2,560	6,863	-	19	405	5,757	5,542

17. 장묘문화개선 사업 - 환경위생과

1) 추진목적

(1) 급격하게 변해 가는 산업화와 날로 팽창해 가는 도시환경 속에서 우리의 좁은 국토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
(2) 시민들의 의식을 변화시켜 새로운 장묘문화 조기 정착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4월 ~ 2006. 11월
(2) 주요내용
- 선진장묘시설 전시, 화장공동유언장 남기기 서명운동 전개

3) 사업비

총사업비	재원별				2003년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49	-	-	36	13	34	5	5	5

18. 여성문화교육 운영 - 중앙문화정보센터

1) 추진목적 : 취미 · 교양 ·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운영으로 여성의 적극적

사회활동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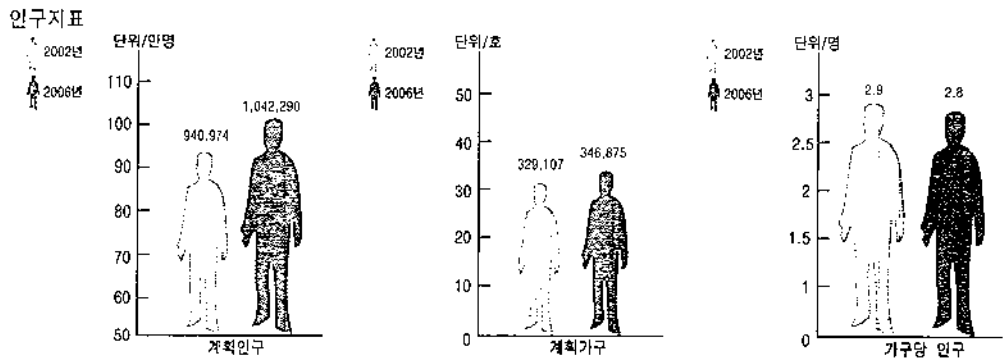
2)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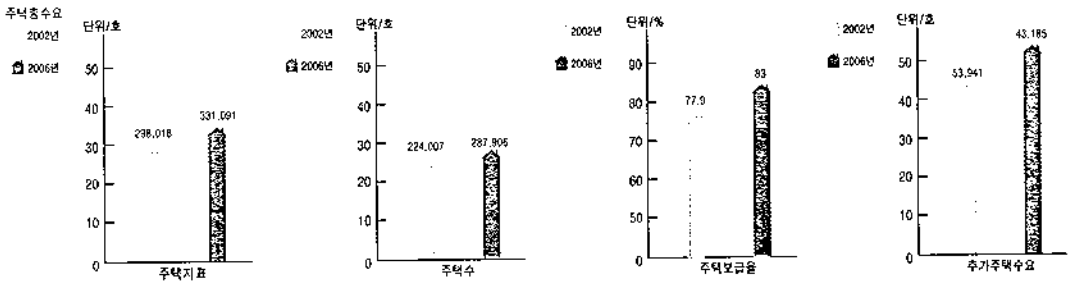
(1) 사업기간 : 2002. 7월 ~ 2006. 12월
(2) 운영과목 : 22과 52반 1,360명(2004년)
(3) 대상 : 만 18세이상 성남시 거주여성
(4) 주요내용 : 취미 · 교양 ·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5) 수강료 : 40,000원(월1만원 기준 4개월과정)

제7절 2006년 성남의 미래상

1. 인구 및 주택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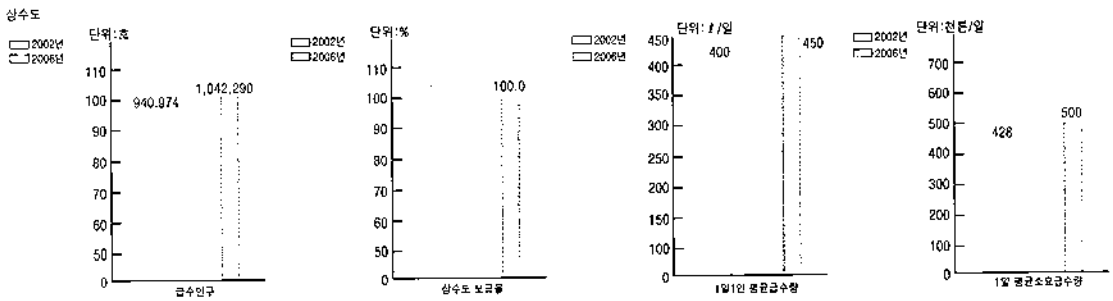
구분	연도	단위	2002년	2006년
인구	계획인구	명	940.974	1,042,290
	계획가구	호	329,107	346,875
	가구당 인구	명	2.9	2.8
주택	주택총수요	호	298,018	331,091
	주택수	호	244,077	287,906
	주택보급률	(백분율)%	77.9	83
	추가주택수요	호	53.941	43,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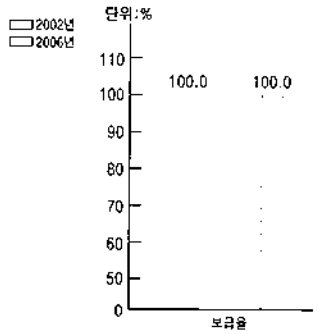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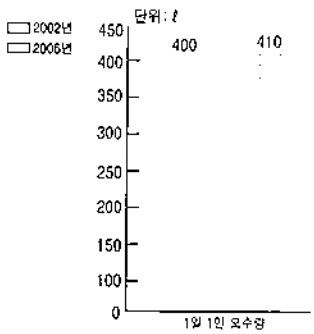
2. 생활환경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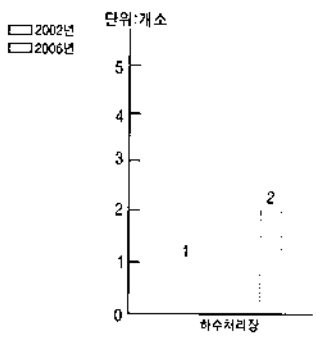
구분	연도	단위	2002년	2006년
상수도	급수인구	명	940.974	1,042,290
	상수도보급률	(벡분율)%	100.0	0
	1일 1인 평균 급수량	ℓ/일	400	100.0
	1일 평균소요급수량	천톤/일	428	450
				500
하수도	보급율	(벡분율)%	100.0	100.0
	1일 1인 오수량	ℓ	400	410
	하수처리장	개소	1	2
환경	쓰레기수거률	(벡분율)%	100.0	100.0
	쓰레기소각장	개소	1	1
	쓰레기매립장	개소	3	3



하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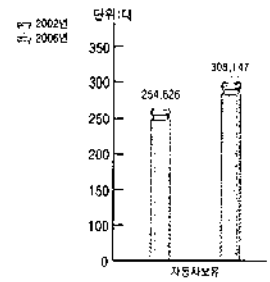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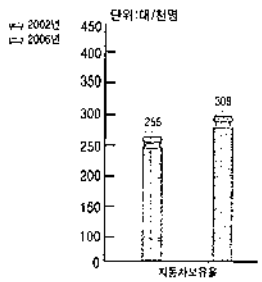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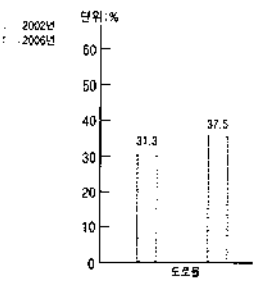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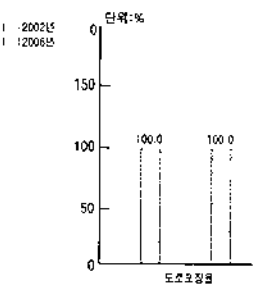
3. 교통 · 통신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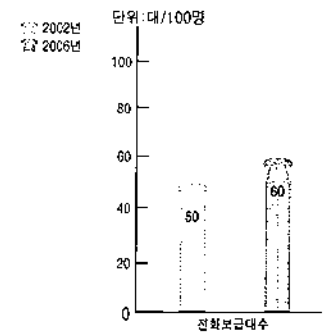
구분	연도	단위	2002년	2006년
교통	자동차보유수	대	254.626	308,147
	자동차보유률	대/천명	255	308
	도로률	%	31.3	37.5
	도로포장률	%	100	100
통신	전화보급대수	대/100명	50	60
	전신전화국	개소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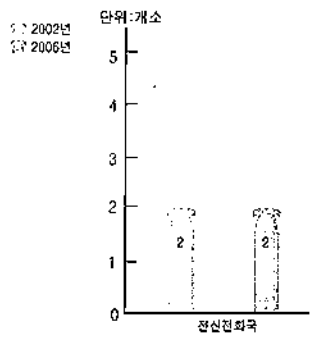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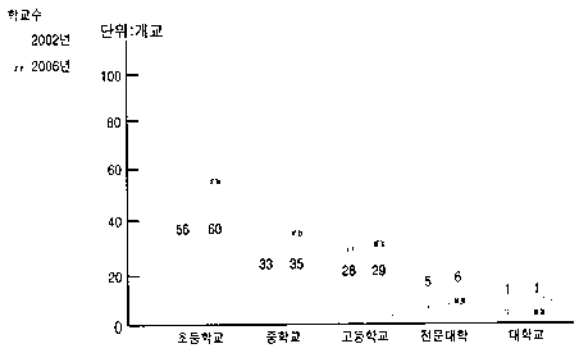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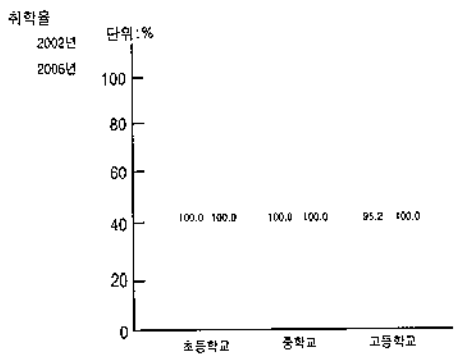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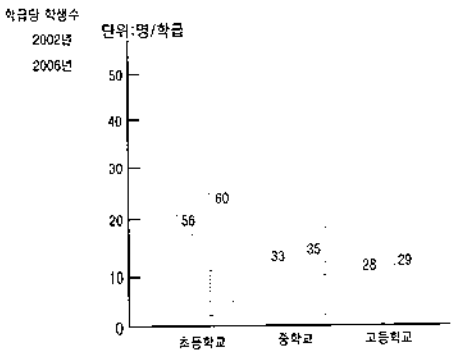


4. 교육지표

구분	연도	단위	2002년	2006년
교육	초등학교			
	• 학교수	개교	56	60
	• 학급당 학생수	명/학급	43	38
	• 취학률	%	100.00	100.0
	중학교			
	• 학교수	개교	33	35
	• 학급당 학생수	명/학급	45	42
	• 취학률	%	100.0	100.0
	고등학교			
	• 학교수	개교	28	29
	• 학급당 학생수	명/학급	50	48
	• 취학률	%	95.2	100.0
	전문대학	개교	5	6
	대학교	개교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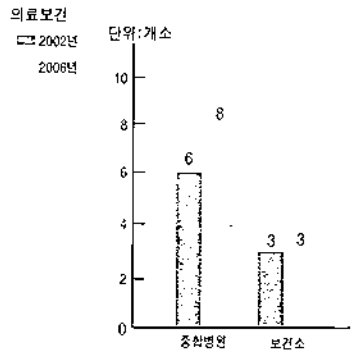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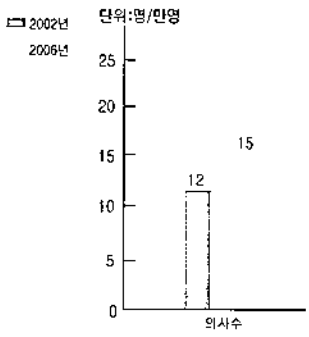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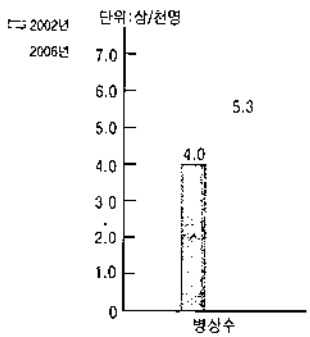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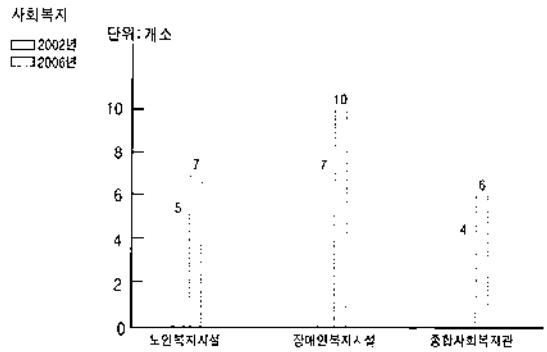
5.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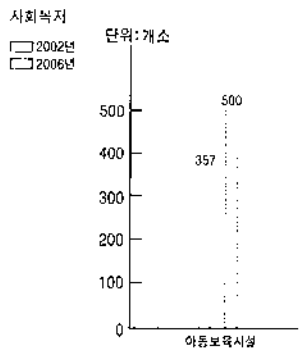
구분	연도	단위	2002년	2006년
의료보건	종합병원	개소	6	8
	보건소	개소	3	3
	의사수	명/만명	12	15
	병상수	명/만명	4.0	5.3
사회복지	아동보육시설	개소	357	500
	노인복지시설	개소	5	7
	장애인복지시설	개소	7	10
	종합사회복지관	개소	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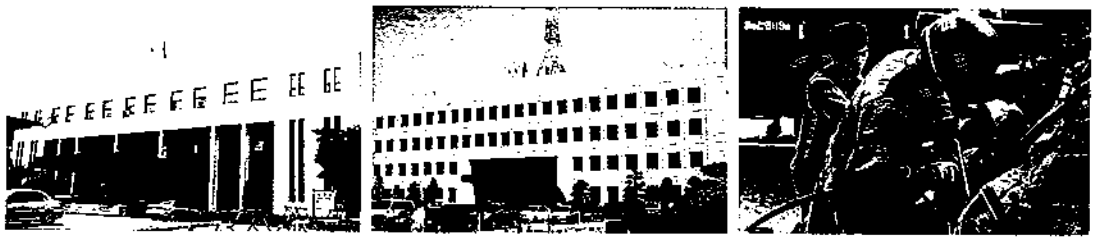








집필 張忠漢 향토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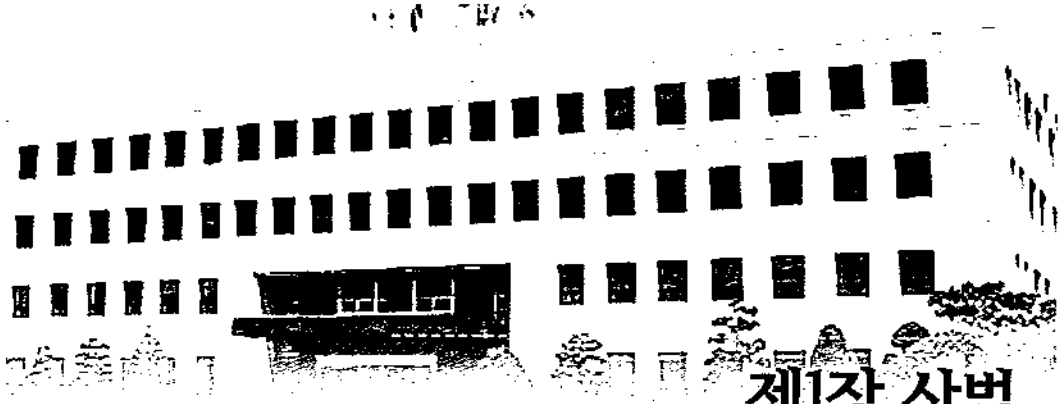


제9편

제1장 사법

제2장 치안

제3장 소방



제1장 사법

제1절 전통시대 사법제도의 변천

1. 상고시대

사법은 재판과 관련된 국가작용이다. 이 국가작용은 반드시 법에 따라 제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법제도는 재판과 관련된 법을 집행하는 제도로써 법 집행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동서양 할 것 없이 부족국가 당시인 상고시대에는 관습법과 같은 불문법이 있었을 뿐 성문법은 없었다. 관습법은 관행적으로 행하여지는 법으로 우리나라 상고시대에도 『팔금법』이라는 법이 있었다. 『팔금법』은 『팔조법금(八條法禁)』으로 고조선시대부터 있었던 것인데 『한서지리지』에 8개조 중에서 3개조가 보인다.



사법은 재판과 관련된 국가작용이다. 이 국가작용은 반드시 법에 따라 제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법제도는 재판과 관련된 법을 집행하는 제도로써 법 집행을 전제로 한다.

그 3개조는 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②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 ③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으며, 속죄하고자 하면 50만전을 내야한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위에서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원시사회의 공통된 응보형 법정주의(應報形 法定主義)로 동서양이 같았다. 그러나 남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을 곡물로 배상한다는 것은 고대 다른 곳보다 앞선 법이라 할 수 있다. 즉 고대 하무라비 법전이나 구약의 모세율법에 명시된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같은 동해형(同害刑)을 넘어선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노비로 삼거나 50만전을 내는 속형(贖刑)이 인정된 것도 발달된 법이라 할 수 있다.

『팔조법금』은 위의 세 조문만 전하고 있지만 간음죄, 강간죄, 독신죄(瀆神罪), 가해주술죄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근거는 위의 한서 지리지에는 "이로써 백성들은 서로 도둑질하지 않게 되어 문을 닫지 않았고 부인은 정신하고 음란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간음을 금하는 법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팔조법금』은 뒤에 60여조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는 인지의 발달과 더불어 범죄가 늘어난 것의 반증일 것이다.



상고시대 고조선이나 부여에서는 형벌이 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점 읍루의 경우에도 절도자는 훔친 것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두 죽인다거나 삼한에서도 형벌이 매우 엄했다는 기록이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부여에서도 형벌이 엄하였다고 전해진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으며, 절도자는 훔친 물건의 12배를 배상하게 하고, 간음했을 때는 당사자 모두를 사형에 처하며, 여자의 질투도 중하게 다루었다고 한다. 질투를 한 부인은 사형에 처하고 그 시체를 산에 버려 썩게 하며, 그 시체를 가져가려면 소나 말을 대신 내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우리 상고시대 고조선이나 부여에서는 형벌이 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점 읍루의 경우에도 절도자는 훔친 것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두 죽인다거나 삼한에서도 형벌이 매우 엄했다는 기록이 뒷받침하고 있다.

2. 삼국시대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율령제(律令制) 영향으로 성문법이 제정된 것은 고구려 시대였다. 소수림왕 3년인 서기373년에 율령을 반포하고 형벌에 대한 법규를 실시하였다. 신라에서는 고구려보다 약 150년 뒤인 520년 법흥왕 7년에 율령이 반포되었으며 백제에서는 율령제의 영향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고구려보다 앞서 3세기 중엽 고이왕 때 성문법이 반포되었다. 율령에서 율은 죄를 정하는 형벌법을 말하고 영은 일반 행정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율령제도는 신라의 3국통일 이후 형식을 갖춘 법률완성으로 성숙되었으며 이것은 고려에 이어졌다.

1) 고구려



군사에 관한 것으로는 적에게 항복하거나 패한자는 참형에 처했고 국법에 어긋나는 일도 엄벌하였다. 특히 우마를 중히 하는 관습에 따라 우마를 도살한 죄도 엄히 다스렸다.

고구려의 율령은 중국 위·진의 것을 이은 것으로 보이나 그 전모는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중국 사서에 따라 추정해보면 율에는 모반죄·살인죄·살우마죄(殺牛馬罪)·절도죄·모역죄·항패죄(降敗罪)·행겁죄(行劫罪) 등의 죄목과 태형·참형·화형·기시형(棄市刑)·족형(族刑)·찬형(竄刑)·적몰형(籍沒刑) 등의 형벌이 있었다.

한편 영에는 관위령(官位令)·직원령(職員令)·사령(祠令)·상장령(喪葬令)·부역령·학령(學令)·악령(樂令)·의관령이 있었다.

이러한 율령제가 실시된 고구려는 국법을 엄하게 다스려 범죄가 적고 백성들은 길거리에 흘린 물건도 주워가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 위의 죄목 중에서 모반죄, 모역죄를 가장 엄하게 다스려서 물로 지진 후에 목을 베며 가족은 노비로 삼았다. 군사에 관한 것으로는 적에게 항복하거나 패한자는 참형에 처했고 국법에 어긋나는 일도 엄벌하였다. 특히 우마를 중히 하는 관습에 따라 우마를 도살한 죄도 엄히 다스렸다.

재판권은 왕이 직접 행사했을 것이나 초기에는 부족장인 가(加)가 집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고구려 초기에는 감옥이 없었다.

2) 백제

백제에서는 율령제도를 공포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고이왕 27년, 서기 260년에 관제와 관리의 뇌물죄에 대한 영이 내려진 것으로 보아 늦어도 4세기경에는 성문법전으로도 율령이 완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제에서 사법과 형옥은 6좌평 중 조정좌평(朝廷佐平)이 맡았다. 법집행에서 사형에 준하는 죄는 반드시 왕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율의 죄목으로는 모반죄·살인죄·간통죄·절도죄·수뢰죄가 있었고 이에 대한 형벌로는 참형·연좌형·금고형이 있었다. 백제의 행형제도에서 모반죄는 엄하게 다스렸으나 도둑의 경우 고구려에서 훔친 물건의 10배를 징수한 데 비해 2배를 징수했다. 이를 보면 절도죄는 대체로 고구려에 비해 가벼운 편이었다. 그리고 나라의 큰 행사 때 사면제도가 실시되었다.



지방관리가 재판을 맡더라도 염찰사(廉察使)를 파견하여 이를 감시하였다. 특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화백이나 남당(南堂)에서 왕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이 이뤄졌다.

3) 신라

신라에서는 성주(城主) · 군태수(郡太守) 등 지방관리가 고래의 관습법에 따라 재판 등의 사법행위를 맡았으나 율령체제가 완전 확립된 뒤에는 지방관리가 재판을 맡더라도 염찰사(廉察使)를 파견하여 이를 감시하였다. 특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화백이나 남당(南堂)에서 왕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이 이뤄졌다.

신라에서 율령이 공포된 것은 고구려보다 148년이 늦은 520년(법흥왕 7)이다. 651년(진덕여왕 5) 사법을 관장하는 좌이방부(左理方部)가 설치되었다. 신라의 율에서 죄목은 모반죄 · 모대역죄 · 요언혹중죄(妖言惑衆罪) · 사병이직죄(詐病離職罪) · 배공영사죄(背公營私罪) · 역사불고인죄(逆事不告人罪) · 적전부진죄(敵前不進罪) 등이 있었고 이에 따른 형벌에는 족형 · 거열형 · 기시형 · 육시형 · 사지해형(四肢解刑) · 자진형(自盡刑) · 사변형(徙邊刑) · 육시형 · 참형 · 장형(杖刑)이 있었다. 한편 영으로는 관위령 · 사령 · 호령(戶令) · 학령 · 선거령 · 의복령 · 악령(樂令) · 군방령(軍防令) · 의제령(儀制令) · 전령(田令) · 부역령 등이 있었다.

행형제도에서 신라에서도 사면제도가 있었다. 669년(문무왕 9) 살인죄인 오역죄(五逆罪) 외에는 모두 석방하라는 대사면령을 내린 기록이 있다.

3. 통일신라 · 후삼국 · 발해시대

1) 통일신라

통일신라는 영토확장에 따른 행정통제와 관리의 필요성에서 감찰기구와 사법기구의 강화가 요구되었다. 659년(무열왕 6) 관리를 감찰하는 사정부(司正部)가 설치되고 667년(문무왕 7) 형률사무(刑律事務)를 관장하는 우이방부(右理方部)가 설치되었다.

2) 후삼국

견훤(甄萱)의 후백제는 처음 신라의 지방관으로 자처하다가 완산주에 천도한 뒤부터는 백제왕을 칭하고 연호를 제정하며 관제를 정비하였다. 관제의 자세한 것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신라의 관제를 모방,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후백제와 달리 궁예(弓裔)의 후고구려는 신라타도, 고구려 부흥을 내세웠기 때문에 관제에서도 독자적인 체제를 갖추었다. 후고구려의 관제는 최고 관부인 광평성(廣評省) 밑에 병부(兵部)·대룡부(大龍部: 倉部)·수춘부(壽春部: 禮部)·봉빈부(奉賓部: 禮賓省)·의형대(義刑臺: 刑部) 등이 있었다. 행형은 의형대가 맡았다. 기록에 궁예가 말년에 의심증이 생겨 부인과 두 아들을 죽이고 문무관원을 반역죄로 처단한 것으로 보아 반역죄 등 모반죄 규정이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3) 발해

발해는 당나라 관제를 모방하여 3성 6부제를 두었다. 정당성(政堂省)·선조성(宣詔省)·중대성(中臺省)과 충부(忠部)·인부(仁部)·의부(義部)·지부(智部)·예부(禮部)·신부(信部)가 그것인데, 사법업무는 예부에서 관장했다.

4. 고려시대

1) 관제일반

고려시대 관제는 국가체제가 정비된 성종(982~997)을 거쳐 문종(1047~1083)대에 완비된 관제를 보인다. 중앙관제도 변화를 거치지만 골간을 이룬 것은 3성(三省) 6부제와 중추원, 그리고 어사대(御史臺)·삼사(三司)·도병마사·식목도감(式目都監)이었다. 3성은 중서성(中書省)·문하성(門下省)·상서성(尙書省)이고 6부는 이부(吏部)·예부(禮部)·형부(刑部)·호부(戶部)·병부(兵部)·공부(工部)이었다. 중추원은 왕의



중추원은 왕의 측근직으로 왕명 출납을 담당했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당나라나 송나라에서 들어온 관제가 아니라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였다.

측근직으로 왕명 출납을 담당했다. 도병마사와와 식목도감은 당나라나 송나라에서 들어온 관제가 아니라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였다. 이 중 식목도감은 법제나 의전을 협의, 결정하는 기관이었다.

2) 사법기관



사법기관인 형부는 태조 때 의형대(義刑臺)라 하였다. 의형대는 왕건이 의지했던 태봉의 제도였는데 뒤에 형관(刑官)으로 바뀌었다가 성종시대에 형부가 되었다.

사법기관인 형부는 고려 태조 때 의형대(義刑臺)라 하였다. 의형대는 왕건이 의지했던 태봉의 제도였는데 뒤에 형관(刑官)으로 바뀌었다가 성종시대에 형부가 되었다. 형부는 법에 따른 형사재판 사항 뿐 아니라 민사재판 사항까지 맡았다. 문종(1047~1083) 때는 노비에 관한 송사가 많아지자 도관(都官)을 설치하여 노비에 관한 소송을 맡도록 했다.

원종(1260~1274) 때부터는 형조 외에도 필요에 따라 특수사건을 맡아서 재판하는 관청을 두었는데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 · 인물추고도감(人物推考都監) · 형인추정도감(刑人推定都監) 등등이 있었다. 한편 사법과 행정이 분리되지 않았던 당시 지방 재판기관으로는 수도인 개성은 개성부윤이 재판을 맡았고 서경(평양)에 분대(分臺), 그밖에는 유수관(留守官) · 부사 · 목사 · 지주도사(知州都事) · 현령 · 감무 등의 지방수령이 초심재판을 담당했다. 2심재판은 안렴사(按廉使)와 계수관(界首官)이 맡았다. 그밖에 지방에 파견되는 안무사(按撫使)나 염문사(廉問使)도 민형사 사건의 2심재판을 수행했고 충렬왕 때는 몽골의 제도를 본받아 도둑을 체포하는 것이 주임무였던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도 민간인 사이의 다투는 사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3) 행형제도

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는 중앙에 전옥서(典獄署)가 있고 지방에는 수령이 관장하는 감옥이 있었다. 행형제도에서는 휼형제도가 있었는데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야 하는 승중자(承重者)가 부모나 조부상을 당하면 귀가시키거나 처의 산월을 당해서 귀휴시킨 것을 말한다.

고려시대의 재판에서 심급이나 재판절차는 법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재판기일도 정해져 있었다. 형사재판에서 작은 일은 10일, 큰일은 20일, 그

중간은 10일, 도형(徒刑:실제 복역을 하는 형) 이상에 해당하는 유형(流刑)이나 사형죄는 30일 안에 판결토록 한 재판 정한법(定限法)이 있었다. 또 상피제도(相避制度)라고 하여 일정한 근친간에는 재판관과 소송 당사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었다. 일반 형사사건은 반드시 3인이 합의하여 처리하게 하며, 사형수는 왕에게 세 번이나 상주하여 왕과 함께 합의하여 재판하는 것도 제도화되어 있었다. 죄를 자백한 사람에게는 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고문을 못하게 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자백을 얻으려는 고문이 심했다. 형벌이 결정되면 대개 즉시 처형을 하지만 나라의 경축일, 기일(忌日), 민속절(民俗節), 신일(愼日)에는 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고려에서는 법집행이 가혹하지 않고 사면령이 많아서 형벌이 엄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일반 형사사건은 반드시 3인이 합의하여 처리하게 하며, 사형수는 왕에게 세 번이나 상주하여 왕과 함께 합의하여 재판하는 것도 제도화되어 있었다.

4) 범죄와 형벌

고려에서 죄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왕권 · 왕실에 대한 범죄

- 모반대역죄: 다른 나라와 통모(通謀)하여 국가를 배반하거나 모반하는 등 왕권의 존위에 관계되는 범죄. 모두 참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2) 관리의 범죄

- 임감자도(臨監自盜): 횡령죄로서 관리가 관물을 훔치면 도형, 장형 등의 형은 물론 돈의 액수와 행위에 따라 가중 또는 경감되었다.
- 왕법장(枉法贓): 수뢰죄로서 수뢰의 액수와 행위에 따라 가중 또는 경감되였다. 수뢰액 15필(匹)에 교수형을 내린 기록도 있다.

(3) 직권남용죄

- 재관침탈사(在官侵奪私): 관직에 있으면서 사전(私田)을 빼앗은 자는 그

넓이에 따라 형량이 정해졌다. 밭의 경우는 가중되었다.

『고려사』 형법지에 고려율에 대한 기록이 있다. 옥관령(獄官令) 2개조, 명례(名例) 12개조, 위금(衛禁) 4개조, 직제 14개조, 호혼(戶婚) 4개조, 구고(廐庫) 3개조, 도적 6개조, 투송(鬪訟) 7개조, 사위(詐僞) 2개조, 잡률 2개조, 포망(捕亡) 8개조, 단옥(斷獄) 4개조 등 총 71개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전해지지 않는다. 고려율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정되어야 했지만 실제 개정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판(判) · 제(制) · 교(敎) · 지(旨)영(令) · 조(詔)와 같은 왕법에 따라 통치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더욱이 말기에 이르면 고려율은 실효성을 잃어버리게 되어 새로운 법전의 제정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1392년 정몽주가 새로운 율전을 만들어 왕에게 올렸고 왕도 이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고려의 멸망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5) 민사제도



가옥은 개인소유지만 토지는 국유와 사유 두 가지가 있었다. 대부분의 땅은 국가소유로 일반인은 수조권만 있을 뿐 처분권이나 상속권은 없었다.

민사관계법은 관습법과 판례법이 있어서 민사상의 법의식은 이 두 가지 법에 의해 유지되었다. 민사 관계법에 따른 민사제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재산권

가옥은 개인소유지만 토지는 국유와 사유 두 가지가 있었다. 대부분의 땅은 국가소유로 일반인은 수조권만 있을 뿐 처분권이나 상속권은 없었다. 다만 공음전(功蔭田) · 군인전 · 외역전(外役田)은 자손이 있을 경우 상속이 가능했다. 재산권에서 노비는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재물과 같이 여겨졌다. 당연히 매매 · 증여 · 상속 같은 처분이 허용되었고 도망하면 엄벌로 다스렸다.

(2) 대차제도

금리에 대해서는 폭리를 막으려고 고려 초부터 이자제한법이 시행되었다. 건국 초에는 미(米) 15두의 이자는 5두, 포(布) 15필의 이자는 5필로 제한했으며 성종 원년(982)에는 이자와 원금이 같으면 이자 취득을 못하

게 했다. 문종 원년(1047)에는 자모정식법(子母停息法)이 제정되어서 원금보다 이자를 더 받지 못하도록 했다.

<표 3> 친족의 범위

본 족	부(父) · 형제 · 4촌자매의 부(夫) · 자(子) · 4촌형제 · 백부 · 사위자매의 부(夫) · 숙부 · 손자 · 질녀의 부(夫) · 고모부 · 손자사위
외 족	외조부 · 외숙 · 이숙 · 이종사촌 · 외사촌
처 족	처조부 · 처남 · 처질서 · 처조카

(3) 친족관계

고려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정하고 친족간의 권리 · 의무를 규정하는 등 친족관계가 제도화되었다. 먼저 친족의 범위를 보면 <표1>과 같다.

- 친족간의 권리 의무: 고소, 부양, 범죄, 간음 등에 친족간은 가중 처벌했다.
- 호적제도: 호적에는 자식, 형제, 조카, 사위뿐 아니라 노비도 기록되었다.
- 혼인제도: 고려 초에는 근친혼인이 성행했으나 점차로 근친혼이 금지되었다. 근친혼의 대표적인 것은 태조 왕건의 자식들로서 왕건은 29명의 부인으로부터 25명의 왕자와 9명의 왕녀를 두었는데, 8명의 왕녀는 남매끼리 결혼했다. 또 2대 혜종은 딸을 동생에게 시집 보냈다.

  그러나 문종 12년(1058) 근친간에 낳은 자는 벼슬을 주지 않는다 라는 법규정으로부터 이복형제끼리 결혼하여 낳은 자는 벼슬을 주지 않는다(선종 2년,1085), 근친(소공)간 혼인하여 낳은 자는 벼슬을 주지 않는다, 근친(공복)간 혼인을 금지한다(숙종 원년,1096), 당고종 · 자매 · 당질녀 · 손녀와 금혼한다(의종), 외사촌간의 혼인을 금한다 (충렬왕 34년 1308), 처의 자매, 이종자매와 혼인을 금한다(공민왕 16년 1367), 정3품 이상의 부인은 재혼을 금하고 3품 이하 6품까지는 3년 이후 재가가 허용된다(공양왕 원년, 1389) 등의 규정에 이르기까지 근친혼을 억제했다.
- 양자제도: 우리나라 양자제도는 고려에서부터 보이는데 남계 친족 중에서 양자를 택하지만 세대가 다른 숙항(叔行)이나 손항(孫

우리나라 양자제도는 고려에서부터 보이는데 남계 친족 중에서 양자를 택하지만 세대가 다른 숙항(叔行)이나 손항(孫行)은 양자로 삼지 못하게 했다.

行)은 양자로 삼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같은 성씨의 친족 중에서 대상자가 없을 때는 외손도 양자로 맞아들인 예가 있고 심지어 이성이라도 3세 이전이면 양육하여 양자로 삼았다. 고려말에 이르면 오히려 적자와 서자를 구별하면서 적자가 없을 경우 서자보다 친족 중에서 양자를 택하도록 하고 있다.

• 상속관계: 상속에는 제사상속과 재산상속이 있다. 중국의 유교수용에 따라 불교식의 상제에서 유교식 상제로 바뀌면서 제사도 고려 말부터는 유교식으로 되었다. 그러나 일반화된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재산상속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법제가 없고 단행왕법(單行王法)으로 규제했으며, 일반적으로는 관습법에 따랐다. 이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적자, 적손, 동생, 서손, 여손 순이지만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장자 우대가 아니었다.

5. 조선시대

1) 관제일반

사법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육조의 형조와 사간원, 사헌부이다. 의금부와 지방의 관찰사, 수령도 사법행위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조의 관제는 건국 초에는 고려말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했으나 태종대에 개편이 있었고 세종을 거쳐 세조대에 이르면 『경국대전』에 따른 중앙집권적 관제가 완성된다. 『경국대전』에서는 중앙관제를 크게 문관(동반)과 무관(서반)으로 나누고 동서 각반은 내(內: 경 또는 중앙)와 외(外: 지방)로 나누었고 관인은 정1품에서 종9품에 이르는 18품계로 계서화되어있다. 국왕 밑에 의정부가 있고 의정부 밑에 육조(六曹)가 있었다. 육조는 이조 · 호조 · 예조 · 병조 · 형조 · 공조로 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었다. 의정부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왕에게 직속하는 기관으로 승정원, 사헌부 및 사간원, 의금부, 홍문관, 예문관이 있었다. 이 가운데서 사법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육조의 형조와 사간원, 사헌부이다. 의금부와 지방의 관찰사, 수령도 사법행위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조의 중앙관제는 인조 14년(1636년)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비변사(備邊司)가 의정부 기능을 맡아보게 되다가 고종 1년(1864년)에 폐지된다.

2) 사법기관

조선시대 사법기관의 실무기관은 형조이다. 형조는 법과 관계되는 일, 소송과 관계되는 일, 노비에 관한 일을 맡았다. 실무기관이지만 태종 때부터는 정책수립 기능도 일부 가지게 되었다.

사헌부는 백관에 대한 규찰, 정치시비에 대한 여론청취, 백성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주는 일 등을 맡아 처리했다. 따라서 사헌부는 재판기관의 하나로 중대한 범죄자에 대한 심문을 담당했다.

사간원은 왕의 언행이나 시정에 잘못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일과 잘못된 정치나 부당·부적한 인사에 대한 지적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의금부는 왕권 유지를 위해 특별범죄를 취급하는 기관으로 사법기능 외에 민심동향 파악이나 왕의 특명을 수행하였다. 특히 다른 기관에서 재판한 것을 재심하거나 이를 이관 받아 특별재판을 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장예원(掌隷院)은 노비에 관한 일을 맡아했다.

한성부윤과 지방 관찰사, 수령은 행정 책임자인 동시에 사법업무를 관장했다.

3) 행형제도

재판에는 옥송(獄訟)과 사송(詞訟)이 있었다. 옥송은 오늘날의 형사재판이고 사송은 민사상의 분쟁을 다루는 재판이었다. 옥송은 형벌을 과하는 재판이고 사송은 분쟁 해결이 종국적 목적이었다. 그러나 사송에도 상속재산의 독점, 토지 가옥의 침탈, 채무 변제의 불이행 등은 반사회적이므로 소송진행 중 또는 종결 뒤에 형사처벌을 과하는 일이 있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재판은 거의가 형사재판의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재판에는 옥송(獄訟)과 사송(詞訟)이 있었다. 옥송은 오늘날의 형사재판이고 사송은 민사상의 분쟁을 다루는 재판이었다. 옥송은 형벌을 과하는 재판이고 사송은 분쟁해결이 종국적 목적이었다.

조선조의 재판은 상소가 인정되었다. 특히 사형수 경우는 3심을 하였다.

수령이 재판하는 것은 제1심 격이며 태형이하 재판을 담당했다. 관찰사는 수령의 판결에 불복하는 사송을 제2심으로 처리하였다. 형사재판의 경우 도형 이하 재판을 맡았다. 사송사건의 2심은 형조에서도 처리되었는데

형조는 유죄(流罪) 이하의 옥송은 직접 처리하지만 사형에 처하여야 할 범죄는 상부의 지시를 받는다. 한성부는 수도의 행정기관이지만 한성 밖의 토지나 가옥 등 사송도 처리하는 전국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인 재판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범죄를 알고도 고소하지 않은 자는 처벌했으나 부모나 조부모를 고소하거나 노비가 주인을 고소할 경우 엄벌에 처했다.

고소나 고발로 범행이 인정된 경우 장형(杖刑)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일 때는 체포, 구금했다. 다만 문무관, 내시부, 사족의 부녀, 승(僧) 등은 문서로 왕에게 보고한 뒤 구금했다. 70세 이상, 15세 이하는 강도나 살인범이 아니면 구금하지 않았다.

조선시대에도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이 제도화되어 있었다. 신장(訊杖)이라는 고문 매가 있었고 한 번에 30대 이상 때리지 못하게 했으며 고문 후 3일 이내에는 다시 고문할 수 없게 했다. 고문을 할 때 대상에 따라 왕의 윤허가 필요하다. 재판에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면 관찰사에게 상소하고 관찰사의 판결이 억울하면 사헌부에 소원한다. 만일 사헌부의 처사도 억울하면 신문고를 통해 왕에게 직소할 수 있다. 사형의 경우는 중앙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의정부와 형조 · 왕을 거쳐 의금부가 3심을 했다.

심리기한을 정해 억울한 구금을 방지했는데 경범은10일, 중범은 20일, 사형죄 등은 30일로 규정했다. 또 정송(停訟)이라고 해서 춘분일부터 추분일까지의 농번기는 송사를 정지하였다. 이 기간이라도 십악(十惡), 간도(奸盜), 살인 등의 사건은 예외였다. 죄수의 건강이나 윤리상 이유로 일정기간 보석하는 휼형제도(恤刑制度)가 있었다. 중병에 걸렸다거나 상을 당했을 때 성복 때까지 보석했다.

감옥은 전옥서(典獄署)라 했고 경찰은 중앙에 포도청(捕盜廳), 지방에는 토포사(討捕使)가 있었다. 위법자를 직접 체포 구금할 수 있는 기관을 직수아문(直囚衙門)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병조 · 형조 · 한성부 · 사헌부 · 승정원 · 장예원 · 종부시(宗簿寺) · 관찰사 · 수령 등이 있고 각 사(司)나 군문(軍門)은 형조에 통고한 뒤 구금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조선시대 범죄는 모반대역죄와 같은 종묘사직의 안위를 해치는 것을 가장 중하게 여겼고 관원을 해치거나 욕한 죄, 관리들 자신의 범죄를 엄중하게 다뤘다.

4) 범죄형태와 형벌

조선시대 범죄는 모반 대역죄와 같은 종묘사직의 안위를 해치는 것을 가장 중하게 여겼고 관원을 해치거나 욕한 죄, 관리들 자신의 범죄를 엄중하게 다뤘다. 일반 범죄에는 간범죄(姦犯罪)·도박죄·매리죄(욕하는 죄)·투구죄(鬪毆罪: 폭행죄)·살인죄·부고죄·절도죄 등이 있었고 이에 대한 형벌이 규정되어 있었다. 형벌의 종류는 5가지이었다.

(1) 태형(笞刑): 10도에서 50도까지 5등급으로 태(笞:매)의 크기도 규정되어 있다. 굵은 쪽 직경은 2푼7리, 가는 쪽 직경은 1푼 7리이고 길이는 3자 5치이다.
(2) 장형(杖刑): 60도에서 100도까지이며 장(杖:몽둥이)은 3푼 2리, 2푼 2리 굵기에 5자의 길이이다.
(3) 도형(徒刑): 징역형으로 소금을 굽거나 관선의 노잡이, 잡역, 제철 등의 노역에 종사케 했다.
(4) 유형(流刑): 귀양보내는 것으로 중죄인에게 내린 벌이다.
(5) 사형: 사형에는 교수형·참수형·능지처사형·차열(車裂)·사사(賜死)·효수(梟首) 등이 있었다.

형벌은 『경국대전』 형전조(刑典條)에 따라 행해졌다. 형사소송에 있어 각 아문은 태 이하의 죄를 직결할 수 있고, 형조와 관찰사는 유(流) 이하의 죄를 바로 내릴 수 있되 그 이상의 죄는 상급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했다. 사형은 한양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의정부에 보고하여 형조가 재심한 뒤 다시 국왕에게 보고하여 의금부에서 3심하는 절차를 밟았다. 재판에 불복이 있을 때 절박한 사건이면 즉시 다른 기관에 갱소(更訴)할 수 있고, 일반사건은 그 재판을 담당한 관리가 바뀐 뒤 2년 이내에 갱소할 수 있었다. 이 갱소는 중앙은 주장관(主掌官)에게, 지방은 관찰사에게 상소하고 거기에서도 불복이 있으면 의금부 신문고를 쳐서 국왕에게 직소할 수 있었다. 장 이상의 범죄는 구속하되 신분에 따라 구속절차에 경중이 있었다.



벌을 줄 증거는 피의자의 자백을 가장 중시했는데 자백을 받기 위해 신체적 고문을 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살인사건은 시체를 검증하였다.

벌을 줄 증거는 피의자의 자백을 가장 중시했는데 자백을 받기 위해 신체적 고문을 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살인사건은 시체를 검증하였다.

심리할 때는 죄질의 경중에 따라 결옥일한(決獄日限)이라고 하는 기한이 있었다. 사형에는 30일, 도(徒)나 유(流)에는 20일, 장이나 태에 해당하는 데는 10일을 기한으로 정했다.

5) 민사제도

(1) 거래관계

- 매매(賣買): 토지와 가택은 매매 대상이었다. 이러한 부동산 매매시에는 문기(文記) · 명문(明文) · 문권(文券)이라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 노비매매: 노비는 통상 쌀 20석 또는 말 1필로 매매되었다. 매매 성립시에는 관에 고하여 입안해야 한다.
- 소비대차(消費貸借): 곡물 등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때는 월 2할을 넘지 못하게 했다. 이를 어기면 장 80도에 도형 2년의 형에 처했다.

(2) 친족 및 상속

- 친족: 친족의 범위는 고려 때와 거의 같았다.
- 혼인: 남자 15세 이상, 여자 14세 이상이면 혼인이 가능했다. 예외도 인정되어 양쪽 부모가 50세를 넘었거나 병환이 있을 때는 12세도 가능했다. 사대부는 처 사망 후 3년이 지나야 재혼할 수 있다. 여기에도 예외는 인정되어 나이가 40을 넘었거나 아들이 없고 부모가 허락했을 때는 1년 지난 후 재혼이 가능했다. 여자는 재가를 금지했으며 재가자의 자식은 관직에 나갈 수가 없었다.
- 금혼범위: 고려 때부터의 동성간 금혼이 중국 대명률(大明律)의 적용으로 금혼범위가 확대되었다. 성종 2년(1471)에는 다른 성 재종(再從) 간의 혼인이 금지되었고 현종 10년(1669)에는 동성이본(同姓異本)간의 혼인도 금했다.
- 양자제도(養子制度): 제사 상속을 위한 양자제도는 주로 일가 중에서

같은 항렬을 입적시키는 것이 원칙이었다. 수양자(收養子), 시양자(侍養子)라 하여 다른 성씨의 양자도 있었다. 수양자는 3세 이하를 데려다 키운 것이고 시양자는 3세 이상을 키운 것이다. 재산상속이나 상복 입는 것이 달랐다.

- 상속: 재산 상속의 순서는 적자, 양서자, 천서자 순이다. 재산은 자녀가 고루 나누고 배우자는 재가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2순위이다. 다음은 동생, 3촌, 4촌 순이다. 제사 상속자가 2할을 더 갖는 것 외에는 균등분할 한다.



민사는 성문규정이 많지 않았으므로 관습에 따른 것이 많았다. 분규의 해결은 행정관의 재량에 따랐다.

(3) 민사소송

민사상의 재판인 사송에는 전토송, 산송, 가택송, 노비송, 부채송이 있다. 사송에서 사(詞)는 문서로 고소하는 것을 말하고 송(訟)은 말로써 다투는 것을 뜻한다. 송사의 원고는 당시에도 원고인(原告人) 또는 원고(原告)라 불렀고 피고는 피고인(被告人), 피론(被論), 피척(被隻) 또는 척(隻)으로 불렀다. 서면 소장은 소지(所志), 또는 소지단자(所志單子)라 했는데 작성 형식은 ①원고의 주소, 성명, 화압(花押: 수결), 또는 수촌(手寸) ②소송의 취지, 증거의 표시 ③관할 관사의 표시 ④연월일 기재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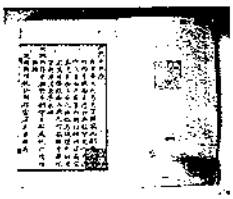
민사는 성문규정이 많지 않았으므로 관습에 따른 것이 많았다. 분규의 해결은 행정관의 재량에 따랐다. 토지, 집, 노비 매매에 따른 물건의 등기는 100일 이내에, 상속은 1년 이내에 하도록 했다.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쌍방이 재판정에 출두하여 구두로 변론하되 그 기한을 정했다.

6) 법전편찬

조선시대에는 많은 법전의 제정과 중국의 『대명률』을 조선의 실정에 맞도록 편찬한 『대명률직해』에 따른 법제가 실시되었다. 조선조 최초의 통일 성문법전은 『경제육전』으로 이후 속전이 제정되었다.

『경제육전』: 경제육전은 이전(吏典) · 호전 · 예전 · 병전 · 형전 · 공전으



〈사진 3-9:1〉 경국대전

로 구성되어 있고 각 권 마다 원나라의 『경세대전』의 단행법령을 원문 그대로 분류, 수록하고 있다.

『속육전』: 『경제육전』의 개수작업 결과로 누락된 법령, 새로 공포된 법령을 포함하여 『경제육전 속전』이라는 이름으로 편찬하였다. 『속육전』 혹은 『속전』이라 부른다.

『경국대전』: 조선초기에 편찬된 법전간의 모순과 결함을 해소하기 위한 통일법전의 필요성에 따라 세조 당시부터 착수하여 성종 2년(1471)에 완성되었다. 그 뒤 다시 개수된 『경국대전』이 1485년 1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전의 『경제육전』 · 속육전 · 등록 · 속록 등은 회수하여 모두 없애버렸다. 익숙한 그전의 법전에 따라 사건처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조에서는 『경국대전』 이후에도 새로 반포된 법령을 담은 『대전속록』(1492. 5), 『대전후속록』(1543. 11), 『수교집록』(受敎輯錄 1698.3),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1740),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 9)이 편찬되었다.

6. 대한제국

1) 관제일반

대한제국에서는 갑오경장을 통해 개혁해온 관제를 다시 개정했는데 일본의 영향을 받은 갑오개혁의 색채를 없애고 갑오경장 이전의 통치체제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방행정은 13도제가 실시되었다.

종전 지방 수령에 의해 진행된 재판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컸지만 5종 2심제의 재판소의 설치로 형식적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전제로 한 사법기관의 근대화를 가져왔다.

2) 사법기관

대한제국에서 사법기관은 법무(法務)와 의금사(義禁司), 그리고 재판소였다. 1894년의 갑오개혁으로 새로 설치된 재판소는 행정권과 통합되어 있던 사법권의 독립이었고 사법권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종전 지방 수령에 의해 진행된 재판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컸지만 5종 2심제의 재판소의 설치로 형식적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전제로 한 사법기관

의 근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독립된 재판소는 한성재판소만이 설립되었고 지방의 수령과 감사는 여전히 구식재판을 하는 곳이 많았다. 그리고 고등재판소는 재판장이 법무대신이 겸임하는 경우도 있었다.

3) 근대적 법제의 시행

대한제국은 갑오개혁의 연장에서 1899년 8월 전제군주제의 헌법인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을 발표하는 한편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근대적 법제를 실시하였다.

1905년 4월 『대전회통』·『대명률』과 갑오개혁 이후 새로 만들어 진 법률을 참작하여 방대한 『형법대전』을 편찬하였다. 민사분야에서는 가게발급규칙·토지가옥증명규칙·민적법·민형소송에 관한 규정 등 근대적 성격의 신식법령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들 법령들은 일본인 고문의 관여로 일본 법령을 본 딴 것이기도 하거니와 새로운 근대적 법제는 전통적 법의식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커서 서로 간극이 있었다.

7. 일제강점기(민족항일기)

1) 관제일반 및 사법기관

1910년 10월부터 일제의 조선총독정치가 시작되면서 조선총독부라는 통치구조 아래 관제가 형성되었다. 총독 보좌기관인 정무총감 아래에 총무·내무·탁지부·농상공부·사법부가 있었고 독립된 입법기관은 없었다. 사법기관으로는 정무총감 밑의 사법부 외에 재판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재판소에는 법원과 검사국이 속해 있었다. 검사국은 재판소에 부설되어 있어서 자율성이 없었고 재판소 자체가 총독의 지휘를 받는 행정관서에 불과했다. 재판 심급은 3종 3심 제도였는데 서울에 고등법원, 평양과 대구에 복심법원을 두고 서울·대전·함흥·청진·평양·신의주·해주·대구·부산·광주·전주에 지방법원을 두었다.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내무·외무·군무·법무·학무·재무·교통

등 6부를 둔 관제를 시행하면서 입법기관인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을 뒀으나 사법권을 행사할 수는 없었다.

2) 행형제도

1910년 10월 조선총독부 재판소령 공포에 따라 3종 3심제를 실시해오다가 1944년 2월 제2차세계대전 말기가 되면서 민형사재판 모두 2심제로 변경되는 등 재판의 신속화가 추진되었다.

제2절 현행 헌법상의 사법제도

1. 삼권분립과 사법제도



미 군정청은 '인민의,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민주주의 정부를 건설하기까지의 과도기에 미군에 의해 설립된 유일한 정부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 미군정기에는 미 군정청이 38도선 이남 지역의 행정을 관할하였다. 미군정청은 '인민의,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민주주의 정부를 건설하기까지의 과도기에 미군에 의해 설립된 유일한 정부였다. 미 군정청은 조선총독부 기구를 중심으로 위생국, 군무국, 공보국 등 새로운 직제를 추가 신설했고 1946년 3월 국단위를 부단위로 바꾸고, 학무를 문교로, 법무를 사법으로, 교통을 운수로, 군무를 국방으로 명칭을 바꾸는 등 제2차 개혁을 했다. 이 기간 군정의 자문과 과도입법을 수립하기 위해 남조선국민대표민주의원(1946. 2. 14), 남조선과도입법의원(1946. 12. 12)등의 기구가 설치되고 군정청 사법부에 검찰권과 재판권을 소속시켰다. 이때 경찰의 사법권은 폐지되었다.



대한민국 제헌헙법은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립을 명시했고 사법부는 대법원 · 고등법원 · 지방법원으로 구성되었다.

대한민국 제헌헙법은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립을 명시했고 사법부는 대법원 · 고등법원 · 지방법원으로 구성되었다. 제4공화국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헌법상 최고 수임기관으로 설치되어 국회와 사법부의 권한이 일시 위축되기도 하였다. 제5공화국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및 대통령의 의회관여권 · 사법관여권을 없앴다. 대통령이 가진 법관 임명보직권을 없애 대법원이 최고사법행정기관이 되도록 하였다.

2. 사법기관

사법기관은 사법권을 가진 대법원 및 각급 법원으로 사법부라고 한다. 사법기관은 법률상의 분쟁을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고 이를 통하여 법질서를 유지한다. 사법부는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최고 법원으로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로 구성되는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을 둘 수도 있다. 대법원에는 대법원 판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대법관회의가 있고 사법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법원행정처가 있고 사법연수생 교육을 위한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 연수를 맡는 법원공무원 교육원이 있다. 대법원은 ①상고사건 ②고등법원의 결정·명령 및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와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③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등을 중심으로 재판한다. 대법원의 심판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과반수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에서 행하기도 한다. 대법원의 권한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위헌법률심사권이다. 위헌법률심사권을 직접 대법원이 맡느냐, 헌법재판소에 맡기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현재는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구성되어 이를 처리하고 있다.

고등법원은 민사부·형사부·특별부로 구성되며 ①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판결 또는 가정법원 합의부 심판사건에 대한 항소사건 ②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가정법원 합의부의 제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③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등을 처리한다.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서 행한다.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일정기간 안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지방법원은 민사부·형사부로 구성되며 심판은 단독판사 또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되는 합의부에서 행한다. 단독판사는 ①소송물가액이 낮은 민사사건과 수표·약속어음 청구사건 ②절도·폭행사건과 단기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벌금형에 해당할 사건을 담당한다.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합의부는 ①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등에 대한 제2심 ②합의부 스스로가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한 사건 ③수표·약속어음금 청구사건 외 소가(訴價)가 높은 민사소송사건 ④

사형 ·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과 이와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⑤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 · 기피사건 ⑥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등을 말는다.

각급 법원의 하나로 가정법원은 [가사심판법]에 따른 재판을 말는다. 그 밖에 특별법원으로 군법회의가 있다. 군법회의도 비상계엄하에서 법률에 의한 단심 외에는 상고심은 대법원이 말는다.

3권분립에 따라 검찰은 사법기관에서 분리되었지만 형벌을 과하는 과정에서 재판을 제외한 모든 형벌권에 작용하는 준사법기관이다. 검찰의 직무와 권한은 ①범죄수사의 공소제기 ②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의 지휘감독 ③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④재판집행의 지휘감독 ⑤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 등이다. 검사는 각자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검찰권은 넓은 의미의 행정권의 일부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행사하게 된다.

검찰조직은 법무부 장관을 정점으로 대검찰청 · 고등검찰청 · 지방검찰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사법부의 대법원 · 고등법원 · 지방법원에 대응한 것으로 관할구역도 법원 관할구역에 대응하여 설립되어 있다.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 · 고등검사장 · 검사장 · 고등검찰관 · 검찰관으로 구분된다.

3. 행형제도

대한민국에서는 1962년에 형무소를 교도소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는 선진적 행형제도를 실시하려는 정책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교도소는 일반적으로 형사 피고인과 피의자 및 사형집행 대상자를 수용하고 있는 국가시설이다. 뿐만 아니라 징역 · 금고 · 구류 등의 자유형이 실시되는 곳이기도 하다. 교도소는 수형자의 연령에 따라 교도소와 소년교도소로 나누어지고 성별에 따라 남사(男舍)와 여사(女舍)로 구분된다. 또 판결 여부에 따라 기결감과 미결감으로 분리 수용된다. 또 특별법상의 처분에 따라 보호감호소(청송), 보안감호소(청주)에 수용하는 외에, 불구자와 정신미약자(공주

교도소는 일반적으로 형사피고인과 피의자 및 사형집행 대상자를 수용하고 있는 국가시설이다. 뿐만 아니라 징역 · 금고 · 구류 등의 자유형이 실시되는 곳이기도 하다.

교도소), 폐결핵환자(마산교도소), 나환자(순천교도소 소록도 지소), 미전향좌익 수형자(대전 · 김해교도소)를 분리 수용하고 있다.

수형자의 교정을 위해 형기 · 범수(犯數) · 성별 · 연령 · 죄질 등을 참작하여 거실과 작업실을 구분하여 수용하고 있으며 귀휴제도, 교정누진제도, 분류심사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행형업무는 법무부 교정국이 관장하는데 교정과 · 보안과 · 작업지도과 · 교화과 · 관리과 · 시설과 · 경비과 등이 이를 맡고 있다.

4. 범죄와 형벌

범죄에 대한 형벌은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이에 과하는 형벌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우리 헌법에도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금 · 압수 · 수색 ·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과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여 형벌의 소급효를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형법]에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형벌은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이에 과하는 형벌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형벌과 관련된 기본법은 [형법] · [민법] 등 5개법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법전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제 잔재를 청산한 독립국가의 기본법 제정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1953년 9월 [형법], 1954년 9월 [형사소송법], 1958년 2월 [민법], 1960년 1월 [상법] · [어음법] · [수표법], 1960년 4월 [민사소송법]이 제정되어, 기본적인 5개법이 완성되었다.

뒤이어 세법 · 경제법 · 농업법 · 토지법 · 공업법 · 운수교통법 · 환경법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많은 법이 제정되었다.

형벌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과해지는 제재수단 또는 방법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형벌 종류는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태료 · 몰수 의 9가지이다. 신체자유를 구속하는 형벌이나 고문이 금지되었고 형구는 수갑 · 포승 · 연쇄 · 방성구(防聲具) 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 집필 林采郁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제3절 사법제도의 변천과 현재의 사법기관

1.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변천

1) 미군정기

미군정기는 우리나라의 독립과 국가재건이라는 격동의 역사적 의미 못지않게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근간을 마련하고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미군정기 초기의 사법체계는 일제 치하에서 운용되던 대부분의 법률 및 사법제도를 상당부분 준용하면서 부분적으로 자유의 확대를 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군정기 초기의 사법체계는 일제 치하에서 운용되던 대부분의 법률 및 사법제도를 상당부분 준용하면서 부분적으로 자유의 확대를 꾀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45년 9월 서울에 들어온 미군은 미군정의 시행을 선언하고 일제강점기의 악법인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 [예방구금규칙], [치안유지법], [출판규칙], [사상범보호관찰규칙] 기타 정치적 탄압이나 민족적 차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을 폐지하여 광범위한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였다. 사법기관의 재건을 위해 미군장교를 법무국장에 임명하고, 사법행정사무를 개시하였다. 미군정의 방침은 법무국장과 그 보좌관을 제외한 법무국의 구성과 각급 법원 및 검사국의 구성을 모두 조선 법조인의 자치와 자율에 맡겼다.

1946년 3월 조선총독부 각 국이 부로 승격됨에 따라 법무국은 사법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당시 사법부장이었던 미국인 코넬리는 사법부장 밑에 행정 · 법무 · 법제의 3차장을 두고, 행정차장은 총무국 · 감찰국 · 변호사국을, 법무차장은 법원국 · 검찰국 · 형사국을, 법제차장은 소청국 · 법제국 · 법률조사국을 담당케 하고 재야 법조인을 대거 기용하였다. 더불어 법원의 명칭도 독립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재판소 구성을 위해 고등법원을 대법원으로, 복심법원을 공소원으로 각각 바꾸었고, 1947년 1월 1일 공소원을 고등심리원으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청을 지방심리원 및 지방심리원 지원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1946년 8월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에 오른 김병로(金炳魯)는 법조인을 대표하여 3심제 부활, 재판소와 검사국의 분리, 사법권의 독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부기구개혁건의서를 작성, 군정장관의 인준을 득하고 동년 12월 사법부장 명령으로 법원과 검사국의 명칭을 대법원 · 고등심리원 · 지방심리원 · 대검찰청 · 고등검찰청 · 지방검찰청 등으로 바꾸고, 대법원판사는 대법관, 기타 판사는 심판관, 검사는 검찰관 등으로 개칭하였다. 비록 명칭의 변경에 문제점이 있었으나, 검찰기관을 재판소로부터 독립시킨 것은 훌륭한 성과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군정은 기본권과 인권옹호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정치적 자유의 보장, 언론의 자유, 노동운동의 계몽 등에 공헌이 컸는데, 그 가운데서도 불법구속에 대한 국민의 자유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1948년 3월에 단행한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두드러진다. 이 개정의 목적은 '구속적부심사제도'의 도입에 있었으며, 이는 제1공화국 이후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로 정착되었다.



비록 명칭의 변경에 문제점이 있었으나, 검찰기관을 재판소로부터 독립시킨 것은 훌륭한 성과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군정의 또 하나의 공헌은 군정 말기인 1948년 5월 [법원조직법]과 [사법서사법], 7월 [변호사법], 8월 [검찰청법]을 제정 공포한 것으로 [법원조직법]은 법률심사권을 대법원에 전담시키는 것으로 사법우월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식 사법제도를 지향한 진보적 입법이었다. 또 재판소의 명칭도 법원으로 환원하고 법관도 판사로 환원하였다.

2) 제1공화국

미군과 소련군에 의해 일시적으로 분할되어 신탁 통치상태에 들어간 남북한은 한동안 단일정부 구성을 통한 국가재건을 추구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듯하였으나, 이미 김일성에 의해 정권의 기반을 구축한 북한과 소련의 거부로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1948년 마침내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기에 이른다. 비록 분단된 상태이기는 하였지만, 남한 단독 정부의 수립은 해방이후 비로소 독립국가로서의 면모를 갖게 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제1공화국의 탄생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위상 또한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1948년 6월 1일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92호로 법원조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군정청 사법부에서 관장하던 법원행정이 대법원으로 이관되고, 법원의 종류를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간이법원으로 나누되,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 지방법원 지원을 설치할 수 있게



사법권은 법관에 의하여 조직된 법원이 행사하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독립된 심판을 하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며, 법관은 탄핵 · 형벌 또는 징계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 ·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않게 되었다.

되었다.

1948년 7월 17일 마침내 대한민국헌법이 공포됨으로서 사법권의 독립이 헌법상 보장되기에 이르렀다. 사법권은 법관에 의하여 조직된 법원이 행사하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독립된 심판을 하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며, 법관은 탄핵 · 형벌 또는 징계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 ·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않게 되었다. 법령심사권에 대해서는 법원은 명령심사권만 가지고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법률심사권은 별도 설치된 헌법위원회의 관할에 맡기도록 하였다. 1949년 9월 26일 법원조직법이 공포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근대적인 사법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법원의 종류는 상고심으로 최고법원인 대법원, 항소심으로 고등법원, 제1심으로 지방법원과 그 지원을 두어 3심제를 채택하였다. 대법원에는 9명 이내의 대법관을 두며, 대법관의 임명과 대법원장 보직은 대법원장 · 대법관 · 고등법원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고, 판사의 임명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며,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하였다.

대법관 회의는 이러한 임명 · 보직뿐만 아니라 법원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법원행정처장 · 차장 및 대법원 서기국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 판례의 조사 · 수집 · 간행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는 사법부 최고의 결의기관이 되었다. 별도로 대법원에는 법원행정사무처리기관으로 법원행정처를 설치하고, 총무국 · 법정국을 두었으며, 총무국에는 서무 · 인사 · 회계 · 용도 등의 사무를, 법정국에서는 호적 · 등기 · 집달리 · 사법서사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우리 헌법이 그 동안 여러 차례 바뀌고, 그에 따라 법원의 조직을 정하는 법원조직법 또한 수차 개정되면서, 대법관 및 법관에 대한 임명방법, 대법관의 수, 재판관할, 헌법재판제도 등의 사법제도에 관하여 여러 가지 변천이 있었으며, 새로운 법원도 여럿 생겨나게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법원의 종류를 3종으로 한 3심제의 큰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3) 제2공화국 ~ 제4공화국

제2공화국으로부터 제4공화국에 이르는 시기에 대한민국은 급격한 역

사의 소용돌이를 겪으며 한편으로는 경제발전의 기초를 다지는 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3 · 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촉발된 4 · 19 의거에 의해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고, 뒤이어 일어난 5 · 16 군사혁명에 의해 탄생한 제3공화국은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근대화와 산업화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군사독재의 어두운 역사를 잉태하기도 하였다.



개정헌법은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법률을 포함한 모든 법령심사권을 대법원의 전속관할로 환원하였다. 또한 대법원으로 하여금 법의 통일과 확립을 기하는 사법우월제를 택하고,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확장하여 법원과 법관의 독립은 물론, 법원행정의 독립도 인정하였다.

1962년 12월에 공포된 제3공화국의 개정헌법은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법률을 포함한 모든 법령심사권을 대법원의 전속관할로 환원하였다. 또한 대법원으로 하여금 법의 통일과 확립을 기하는 사법우월제를 택하고,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확장하여 법원과 법관의 독립은 물론, 법원행정의 독립도 인정하였다. 즉, 법관추천회의를 창설하여 대법원장은 이 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법원판사는 이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일반법관은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하였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및 15인의 대법원판사로 구성하고 상고사건, 각종 항고사건, 기타 법률에 의해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등을 중심으로 재판하였다. 고등법원은 서울 · 대구 · 광주에 두고,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합의부의 항소사건 및 항고사건, 기타 법률에 의해 고등법원에 속하는 사건을 재판하였다. 지방법원은 서울에 민사지방법원 · 형사지방법원 · 가정법원을 두고, 춘천 · 청주 · 대전 · 대구 · 부산 · 광주 · 전주 · 제주에 각 지방법원을,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산하 주요 도시에 지원을 두어 제1심 소송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검찰청은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검찰청 · 고등검찰청 · 지방검찰청 및 지청을 각 법원소재지에 설치하고, 대검찰청에는 검찰총장을,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는 검사장을 두었다. 검사는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외에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를 지휘, 감독하고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 ·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게 되었다.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고, 검찰총장과 검사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또는 다른 검사에게 처리시킬 수가 있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감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

적으로 감찰총장도 지휘, 감독하였다.

1972년 10월에 개정된 이른바 유신헌법은 대법원의 법령심사권을 수정하여 다시 헌법위원회를 신설하고, 법률심사권과 탄핵 및 정당해산을 관할하게 하여 제3공화국 헌법을 제1공화국의 제헌헌법으로 회귀하였다. 또 법관의 임명에 있어 임기 6년의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 이외의 임기 10년의 일반법관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법관의 보직도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행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임명권과 보직권을 모두 대통령이 장악하게 하였다. 1973년 1월에 소집된 비상국무회의는 해산된 국회의 입법권을 대행하고 [법원조직법] · [법관징계법] · [검찰청법] · [변호사법] · [형사소송법] 등 사법에 관한 5개 법률을 개정하였다. [법원조직법]의 개정에서는 지방법원 합의부관할의 소송물 가격을 인상하고 각급 법원장과 부장판사의 임명자격인 법조경력도 인상하였으며, 법관의 정년은 낮추었다. [검찰청법]의 개정은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맞춘 것이고, [변호사법]은 변호사에 대한 사명규정의 신설과 법률사무취급단속법을 변호사법에 편입시키고 벌칙을 강화하는 것으로 고쳐졌다.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인권보장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구속적부심사제도를 폐지한 것이 주요 골자였다. 그밖에 보석 · 구속취소 · 구속집행정지결정 등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이 신설되는 등 인권탄압의 소지가 담겨진 내용이 다수 첨가되었다.

4) 제5공화국 ~ 제6공화국



국가 원수의 시해라는 충격 속에서도 국민들은 오랫동안 열망하던 민주화를 마침내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되었다.

오랜 군사정권의 장기독재에 맞서 국내의 민주화 요구가 들끓던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측근에 의해 시해됨으로써 제3 · 4공화국이 마침내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국가 원수의 시해라는 충격 속에서도 국민들은 오랫동안 열망하던 민주화를 마침내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도 잠시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수사를 맡았던 신군부 세력들이 군의 실력자로 부상하면서 마침내 그 해 12월 12일을 기해 정권을 찬탈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또다시 군부에 의한 통치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로써 민주정권 수립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무너지고 신군부가 주도하는 군사정권이 5 · 6공화국을 끌어가게 되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을 계기로 민주헌법을 위한 개정논의가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 동년 11월 26일 국회에는 여야 동수인 28명으로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최규하 대통령이 12월 8일 긴급조치 제9호를 해제하여 그때까지 금지되었던 개헌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1980년 3월 14일에는 행정부에 각계인사 69명으로 헌법개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정부주도로 개헌작업이 진행되었고, 5월 15일에는 국회의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가 공청회를 거쳐 헌법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민주헌법으로의 개정을 위한 국민적 노력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1979년 12월 12일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 소장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은 군권을 장악한 다음 정치에 관여하게 되었다. 1980년 5월 17일 신군부세력은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선포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후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6월 5일 전두환 소장이 그 상임위원장에 취임하였다. 동년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하고 박충훈 국무총리서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이 되었으나 곧 이어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러한 정치세력의 변화 속에서 1980년 9월 9일 헌법개정안은 신군부의 의도대로 만들어져 9월 29일 공고되고, 10월 22일 국민투표에 붙여져 총유권자 95.5%의 투표와 투표자 91.6%의 찬성을 얻어 확정된 다음 10월 27일 공포되어 제8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제5공화국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행복추구권을 신설하고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성을 강조하면서 구속적부심사제,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성, 환경권, 연좌제 폐지, 민주적인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의 보장 규정을 명시하였다. 권력구조면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는 대신 대통령선거방식을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변경하였으며,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의 발동요건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제로 하면서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게 함으로써 평화적 정권교체와 장기집권의 방지를 제도화하였다.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신설하고, 일반법관의 임명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면서 징계처분에 의한 법관의 파면을 배제하였으며,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



제5공화국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행복추구권을 신설하고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성을 강조하면서 구속적부심사제,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성, 환경권, 연좌제 폐지, 민주적인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의 보장 규정을 명시하였다.

한 제1차적 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하였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미국형 대통령제와는 달리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하였다. 헌법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하여 국회가 의결하고 국민투표로써 확정되게 하였다.



제5공화국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행복추구권을 신설하고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성을 강조하면서 구속적부심사제,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성, 환경권, 연좌제 폐지, 인주적인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의 보장 규정을 명시하였다.

제5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는 신군부세력의 의도대로 제4공화국의 헌법위원회에 의한 헌법재판제도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제8차 개헌에 의한 제5공화국헌법은 유신헌법과 같이 제5장 법원편과는 별도로 제6장에서 헌법위원회를 규정하였다. 그 내용은 제4공화국 때와 다름없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하였다(헌법 제108조 제1항). 그러나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령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재판 및 예산 기타 처분 등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 기타의 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헌법 부칙 제6조 제3항).

개정된 헌법위원회법(1982. 4. 2. 법률 제3551호)은 유신헌법 하에서의 헌법위원회법(1973. 2. 16. 법률 제2530호)의 기본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였다.

헌법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다소 완화하여 20년 이상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또는 20년 이상 공인된 법과대학에서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에서 각각 15년 이상의 해당 직에 있던 자로 그 경력기간을 낮추었고, 그 자격범위를 넓혀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5년 이상 국가기관, 국 · 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로 하였다(법 제3조). 헌법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을 별정직에서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였다(법 제5조, 제10조).

대법원의 위헌제청권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하급법원의 위헌여부제청에 대하여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당해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고 헌법에 위반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제청서를 헌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대법원에서 위헌여부를 제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법 제15조 제3항)고 규정하여 유신헌법 하에서의 위헌법률심사의 실질을 변경하지 않고 문헌상의 표현만을 일부 바꾸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전적인 법률의 위헌 판단권을 행사하였으며,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헌법위원회에 제청하도록 하였으므로 제도적으로 헌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심히 제한되게 되었다.

6월 29일 전국적인 민중항쟁으로 태동하게 된 6공화국은 비록 그 정치주체들에 있어서 군부세력을 배제하지는 못하였으나, 5공화국 때 제정된 여러 악법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다. 개정헌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권력구조에 있어서 임기 5년 단임제의 대통령직선제를 채택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조정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법관의 임명절차에 있어서 민주성의 제고,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있어서는 신체적 자유를 강화하기 위한 절차적 보장을 확대하였고, 표현의 자유 제고, 새로운 유형의 사회국가적 기본권을 신설·확대하였다. 중요한 것으로, 체포 또는 구속 시에는 그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할 의무와 함께 가족 등에게 그 이유·일시·장소를 통지할 의무규정을 신설하였고(제12조 제5항), 모든 구속자에게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법률유보를 삭제하였다(제12조 제6항).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허가·검열의 금지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금지규정을 신설하였다(제21조 제2항). 다만 영화·연예에 대한 사전검열금지여부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고,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보장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서(제21조 제3항) 언론탄압의 여지 내지 특권부여의 근거규정으로 해석될 여지도 남겼다. 정치적 기본권에서는 선거권자의 연령을 법률로서 정하도록 입법사항으로 격하시켰고(제24조), 환경권조항에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개발정책의 실시의무를 추가하였고(제35조 제3항), 보건에 관한 권리 외에 모성보호조항을 신설하였으며(제36조 제2항),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제31조 제4항).



개정헌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권력구조에 있어서 임기 5년 단임제의 대통령직선제를 채택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조정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법관의 임명절차에 있어서 민주성의 제고,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5) 문민정부 ~ 현재

김영삼 정부는 1995년에 들어와 사법개혁의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원래 사법개혁은 일제 이후 1세기 간의 반민주적 봉건잔재를 여전히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법개혁 및 법학교육의 개혁은 불완전한 개혁프로그램과 이해집단의 반발로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고 할 것이다.

있는 사법제도 · 사법과정과 법학교육의 개혁으로서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더욱 선착하여야 할 과제였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법개혁 및 법학교육의 개혁은 불완전한 개혁프로그램과 이해집단의 반발로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법개혁의 움직임은 국민의 정부를 거쳐 현재의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개혁운동 가운데 중심 화두로 등장하고 있어 그 진행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문민정부 이후 사법부의 변화 양상으로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1994년 7월 27일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법원조직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 변화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에 서울형사지방법원과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서울지방법원]으로 통일하였다.

둘째, 1997년 3월 1일부터 예비판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비판사는 법정에서의 재판업무와 영장발부업무를 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다. 이에 김영삼 정부에 들어와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검찰총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공직에 임명되거나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검찰청법 제12조 4항 · 5항 및 부칙 제2조) 이에 대하여는 헌법위반의 논란이 제기되었다. 결국 김기수 검찰총장과 7명의 고등검사장은 이 조항이 헌법상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참정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또 1995년에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형사절차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전년도인 1994년 7월에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의결을 기대하였으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체포와 긴급구속의 개념이 혼용되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1995년 법개정안에서는 긴급구속을 긴급체포로 대체하게 되었다.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법무부는 "민주화의 결과에 따른 기본권보장의 강화요청에 실질적으로 부응하여 인신구속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기하는 동시에 형벌권행상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 한다"는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인신구속제도에 의하여도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상당히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에 따라 종전보다 검찰에 대한 법원의 권한이 약간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종전에는 검찰과 경찰이 작성한 서류심사만으로 영장을 발부하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영장을 발부해 주었던 사정이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1996년 말에는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에 따라 종전보다 검찰에 대한

법원의 권한이 약간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종전에는 검찰과 경찰이 작성한 서류심사만으로 영장을 발부하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영장을 발부해 주었던 사정이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정부수립 당시 3개의 지방법원으로 출발한 법원은 현재 5개의 고등법원과 1개의 특허법원, 13개의 지방법원과 1개의 행정법원 및 1개의 가정법원으로 늘어났고,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도 설치되었다. 대법원은 근대사법 100주년을 맞이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사법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문법원 및 시·군법원을 설치하고 판사의 직급개념을 폐지하여 예비판사제를 도입하는 등 사법제도 개혁을 단행하였고, 1995년 10월 28일 서소문에 위치하였던 옛 청사를 떠나 서초동의 신청사로 이전하였다. 또한 1999년 9월 최종영 대법원장 취임 이후 21세기에 걸맞은 국민을 위한 사법과 사법의 선진화를 위하여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원은 민주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지켜가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본연의 자세와 사명을 자각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자세를 잃지 않음으로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고 사법부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사법부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노력이 성공을 거두어 헌법의 수호자이자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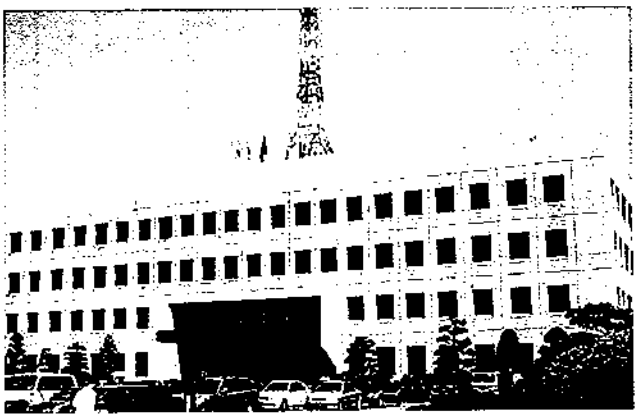
2. 성남지역 사법기관의 설치 과정

성남은 70년대에 이르러 경기도 예하의 행정단위인 시로 승격을 하였기 때문에 미군정기로부터 제4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줄곧 별도의 사법기구를 설치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미군정 당시 경기도 광주군에 편제되어 있었으며, 일제 강점기에 설치된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의 관할 하에 놓여있었다. 미군정기 독립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사법체계와 편제의 개편에 따라 1947년 1월 1일부터는 군정청 사법부 명령에 의거하여 개편된 서울지방심리원



미군정당시 경기도 광주군에 편제되어 있었으며, 일제 강점기에 설치된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의 관할 하에 놓여있었다.

수원지원의 관할 하에 놓여 있게 되었다. 1948년 6월 1일부터는 남조선 과도정부 법령 제192호에 의거하여 개편된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의 관할 하에 모든 사법적 활동이 이루어졌다.


<사진 3-9:2>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지청

이후 제3공화국에 이르러 사법부의 편제와 체계가 조정됨에 따라 성남지역이 속해있던 수원지원도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였다.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은 1963년 7월 1일 법률 제1361호에 의거 서울민사, 서울형사 지방법원 수원지원으로 개칭되었으며, 1963년 12월 13일 법률 제1497호에 의거하여 수원지원은 합의지원으로 승격되었다.

유신독재로 명명되고 있는 제4공화국에 이르러 성남은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였다. 1973년 성남은 마침내 광주군에 소속된 행정단위로서의 지위를 벗어나 독립된 행정시로 승격하게 된 것이다. 광주군 관할 대왕면, 낙생면, 돌마면과 중부면 일부가 통합되어 성남시가 탄생함으로서 오늘날의 거대한 위성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남은 여전히 독립적인 사법기관을 확보하지 못한 채 수원지원의 관할 하에 놓여있는 상황이었다. 1976년 1월 1일 수원지원은 법률 제2816호에 의거하여 서울민사지방, 서울형사지방, 서울가정법원 수원지원으로 승격되었으며, 1979년 9월 1일부로 법률 제3162호에 의거하여 마침내 본원으로 승격되어 수원지방법원이 되었고, 예하에 여주지원을 편입하였다. 이로서 경기도내 각 지방 도시에 수원지방법원 관할 지원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확립되기에 이르렀으며, 시승격과 더불어 나날이 규모와 내용면에서 성장을 거듭해온 성남시로서도 이제 수원지방법원 산하 지원을 설치하기 위한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1979년 10월 26일 유신헌법을 통해 장기집권에 돌입한 박정희 대통령이 측근인 김재규에 의해 피살된 이후, 대한민국은 한 때 민주화의 열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으나, 전두환 소장을 중심으로한 신군부세력에 의해 다시 군사정권의 통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서 제5공화국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 대한민국은 좌절된 민주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

이 군사독재에 대한 투쟁과 항거의 목소리로 분출되는 혼란한 정치 사회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면에 있어서의 눈부신 성장과 더불어 세계가 주목하는 88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등 민족적 역량과 잠재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저력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당시 성남시는 5공화국을 계승한 6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시작된 분당 신도시 건설 등에 힘입어 외형적으로나 질적인 면에서 과거의 이제민촌이라는 낡은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급성장한 수도권 최고의 위성도시로서의 위상을 착실히 다져갔다.

뿐만 아니라 성남의 사법 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기에 이르렀다. 성남은 시승격을 맞이한 지 햇수로 10년째이자 만 9년째인 1982년 9월 1일 법률 제3345호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성남은 인접한 광주군과 하남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독자적 사법기관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성남은 인접한 광주군과 하남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독자적 사법기관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제4절 사법기관 현황

1. 우리나라 지방법원 제도의 특징

우리나라 지방법원의 수는 전국적으로 13 곳이며, 지방법원은 지방법원장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일정한 수의 판사로 구성된다. 지방법원에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사무국을 둔다. 지방법원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에 지원과 소년부지원, 시 군법원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지원에는 판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의지원과 그렇지 않은 단독지원이 있다. 지원에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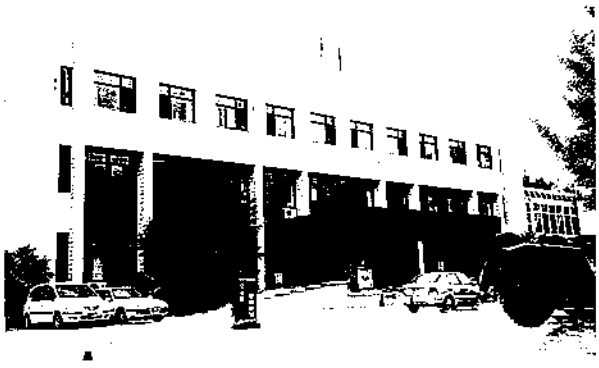
지방법원은 민사 및 형사사건을 1심으로 재판한다. 1심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의 관할로 하고, 특히 중요하다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건은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합의부에는 민사부와 형사부를 두는데 단독판사의 판결권을 초과하는 중대사건을 다룬다. 합의부가 주로 다루는 사건은 민사사건의 경우 소송물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으로 하되, 다만 수표금,

어음금 청구사건의 경우 단독판사가 재판을 담당한다.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합의부가 담당한다. 이 경우에도 공문서위조, 상습폭력, 도주차량, 상습절도사건 등은 단독판사가 재판을 담당한다. 대체적으로 합의부의 심판권에 속하는 사건이라도 사안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유형이 정형적인 사건은 재정합의부의 결정을 받아 단독판사가 이를 심판할 수 있다.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는 또한,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과 단독판사의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을 2심으로서 재판하는데, 이러한 합의부를 항소부라고 한다.

2. 성남시 사법기관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진 3-9 :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 주소 :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4769-2

(2) 연혁

1973. 7. 1.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남등기소 개소(법원규칙 제526호 등기소 설치와 그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중 개정 규칙)

1979. 9. 1. 수원지방법원 성남등기소 개칭(법률 제312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

1980. 9. 1. 수원지방법원 성남순회심판소 설치 대법원 규칙 제721호 소액사건 심판규칙 중 개정 규칙)

1982. 9.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설치(합의지원 - 법률 제 334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

1985. 1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순회 심판소 설치(대법원 규칙 제921호 소액사건 심판규칙 중 개정 규칙)

1986. 5.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무과를 사무과, 민형과, 등기과로

분리 증설(대법원 규칙 제931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 개정 규칙)

1992. 7.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무국 설치(총무과, 민사과, 형사과, 등기과 – 대법원규칙 제1217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 개정 규칙)

1995. 3. 1. 수원지방법원 광주등기소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로 개칭(대법원규칙 제1348호 등기소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규칙 중 개정 규칙)

1995. 9.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군법원 설치(법률 제47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과한 법률 중 개정 법률)

1996. 9.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군법원을 상주법원으로 운영(대법원 송무예규 제492호)

2000. 1.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과에서 민사신청과 분리 증설(대법원규칙 제1616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 개정 규칙)

2000. 10.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분당등기소 분리 증설(대법원규칙 제1668호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중 개정 규칙)

2000. 1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하남등기소 분리 증설(대법원규칙 제1672호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중 개정 규칙)

(3) 관할구역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관할 구역은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등 3개 시이다. 성남시는 3개 구 44개 동으로 이루어진 141.85㎢의 면적에 인구 약 946,445명, 광주시는 1개 읍, 6개 면, 3개 동으로 구성된 431.84㎢의 면적에 인구 약 177,972명, 하남시는 10개 동으로 구성된 93.07㎢의 면적에 인구 약 127,935명 등으로 성남지원 전체로는 666.76㎢의 면적에 1개읍, 6개면, 3개 구, 57개 동의 인구 약 1,252,352명을 관할하고 있다.(2002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4) 기구

성남지원의 기구는 크게 재판부와 사무국으로 구분되어 있다.

재판부는 민사합의부(3개), 형사합의부(3개), 가사합의부(1개), 민사단독(7개), 형사단독(2개), 가사단독(2개) 등 18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총무과를 비롯한 민사, 민사신청, 형사, 등기 등 5개의 각 과로 구분되어 있다.

각 과의 주요 구성과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무과 : 각과 업무 총괄, 서무, 지출, 용도, 공탁, 호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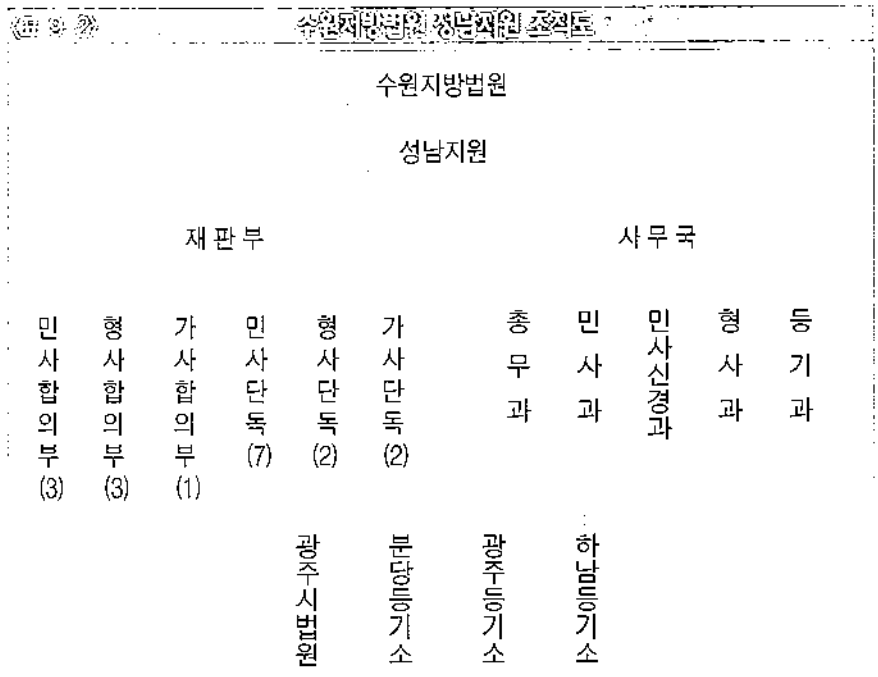
민사과 : 민사, 민사신청, 가사 사건

민사신청과 : 신청 단독(2), 신청해제, 공시최고/과태료/비송, 재산명시/제소전 화해, 기타 집행, 지급 명령, 경매(3)

형사과 : 형사합의 1,2부, 형사1단독, 형사3단독, 약식, 즉결

등기과 : 조사 1,2,3계, 부동산 등기, 상업 등기

또한 성남지원 산하에는 광주시법원, 분당 등기소, 하남 등기소, 광주 등기소를 두고 있다.



(5) 역대지원장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대	최규봉(崔奎鳳)	1982. 9. 1.~1983. 8. 31.	
2대	정현식(鄭玄湜)	1983. 9. 1.~1985. 8. 31.	
3대	성병현(成炳賢)	1985. 9. 1.~1987. 2. 28.	
4대	조 윤(趙 胤)	1987. 3. 1.~1987. 8. 31.	
5대	정덕장(鄭德藏)	1987. 9. 1.~1990. 2. 28.	
6대	이재훈(李宰勳)	1990. 3. 1.~1990. 8. 31.	
7대	이상현(李相賢)	1990. 9. 1.~1992. 8. 11.	
8대	이상문(李相文)	1992. 8. 21.~1995. 2. 21.	
9대	이홍훈(李鴻薰)	1995. 3. 1.~1996. 2. 25.	
10대	오세빈(吳世彬)	1996. 3. 1.~1997. 2. 20.	
11대	최정수(崔貞洙)	1997. 2. 27.~1998. 2. 28.	
12대	김능환(金能煥)	1998. 3. 1.~1999. 10. 17.	
13대	박해성(朴海成)	1999. 10. 25.~2001. 2. 7.	
14대	박삼봉(朴三奉)	2001. 2. 19.~2002. 2. 7.	
15대	심상철(沈相哲)	2002. 2. 18.~현재	

(6) 직원 현황(총 141명)

2003. 4. 30일 현재

법관(20명)	지원장 1, 부장판사 3, 판사 12, 예비판사 4
일반직(108명)	부이사관 1, 서기관 1, 사무관 8, 주사 23, 주사보 11, 서기 36, 서기보 28
기능직(33명)	7급 3, 9급 23, 10급 7

(7) 관내 사건 및 민사 처리 현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내의 사건 발생 건수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눈부시게 성장해 온 도시 규모의 팽창에 비례하여 민사 사건 및 민사업무 처리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2년부터 2003년 3월 31일까 약 10여 년간 산출된 사건을 수치로 살펴보면 대략 전체 사건 발생 건수는 약 350%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성남지원의 민사업무도 대폭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남지원 담당 사건 발생 및 처리상의 특징을 분석해 보면, 도시규모의 팽창과 발전에 따라 전체사건 발생 및 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그 구체적인 현황과 수치에서 나타나는 성남지원 담당 사건 발생 및 처리상의 특징을 분석해 보면, 도시규모의 팽창과 발전에 따라 전체사건 발생 및 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다만, 민사사건의 발생률은 도시구조의 복잡화와 생활양식의 다양화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형사사건 건수는 상대적으로 소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성남시가 양적 성장 못지않게 질적으로도 상당한 상승을 보임에 따라 범죄행위의 발생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구체적인 자료와 수치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관내 전체사건의 연도별 대비

구분 / 연도	건 수	증 감	증감율(%)	지 수	비 고
1992	134,652	-	-	100.0	
1993	181,302	+46,650	+34.6	134.6	
1994	186,775	+5,473	+3.0	138.7	
1995	289,433	+102,658	+55.0	214.9	
1996	338,265	+48,832	+16.9	251.2	
1997	323,121	-15,144	-4.5	240.0	
1998	333,480	+10.359	+3.2	247.7	
1999	362,928	+29,448	+8.8	269.5	
2000	356,619	-6,309	-1.7	264.8	
2001	398,366	+41,747	+11.7	295.8	
2002	456,903	+58,537	+14.7	339.3	
2001.4.1~ 2002.3.31	436,640	-	-	-	
2002.4.1~ 2003.3.31	422,049	-14,591	-3.3	-	

• 민사 전체사건의 연도별 대비

구분 / 연도	건 수	증 감	증감율(%)	지 수	비 고
1992	14,569	-	-	100.0	
1993	19,887	+5,318	+36.5	136.5	
1994	27,602	+7,715	+38.8	189.5	
1995	35,960	+8,358	+30.3	246.8	

구분 / 연도	건 수	증 감	증감율(%)	지 수	비 고
1996	46,852	+10,892	+30.3	321.6	
1997	46,461	−391	−0.8	318.9	
1998	72,929	+26,468	+57.0	500.6	
1999	61,307	−11,622	−15.9	420.8	
2000	45,859	−15,448	−25.2	314.8	
2001	48,360	+2,501	+5.5	331.9	
2002	57,108	+8,748	+18.1	392.0	
2001.4.1~ 2002.3.31	47,255	−	−	−	
2002.4.1~ 2003.3.31	61,304	+14,049	+29.7	−	

• 민사 본안소송사건의 연도별 대비

구분 / 연도	건 수	증 감	증감율(%)	지 수	비 고
1992	4,806	−	−	100.0	
1993	5,675	+869	+18.1	118.1	
1994	7,162	+1,487	+26.2	149.0	
1995	7,377	+215	+3.0	153.5	
1996	10,069	+2,692	+36.5	209.5	
1997	11,245	+1,176	+11.7	234.0	
1998	17,023	+5,778	+51.4	354.2	
1999	14,380	−2,643	−15.5	299.2	
2000	11,827	−2,553	−17.8	246.1	
2001	12,644	+817	+6.9	263.1	
2002	17,279	+4,635	+36.7	359.2	
2001.4.1− 2002.3.31	13,116	−	−	−	
2002.4.1− 2003.3.31	17,142	+4,026	+30.7	−	

• 민사 본안소송사건 처리 결과

구분	처리별	각하 명령	원고 승	원일부 고승	판결 원고 패	각하	기타	계	소취하	이행권고	조정	화해	인낙	이송	기타	합계
합의단독	건수	1	162	134	109	12		417	108		54	7		11		598
	비율(%)	0.2	27.1	22.4	18.2	2.0		69.7	18.1		9.0	1.2		1.8		100
	건수	148	1,252	213	213	5	2	1,685	1,014		252	22	1	46		3,168
	비율(%)	4.7	39.5	6.7	6.7	0.2	0.1	53.2	32.0		8.0	0.7		1.4		100
소액	건수	1,298	5,378	27	96	3	–	5,504	1,600	4,382	553	5	–	344	–	3,686
	비율(%)	9.5	39.3	0.2	0.7	–	–	40.2	11.7	32.0	4.0	–	–	2.5	–	100
계	건수	1,447	6,792	374	418	20	2	7,606	2,722	4,382	859	34	1	401	–	17,452
	비율(%)	8.3	38.9	2.1	2.4	0.1	–	43.6	15.6	25.1	4.9	0.2	–	2.3	–	100

• 민사 본안소송외 사건의 연도별 대비

연도 \ 구분	건 수	증 감	증감율(%)	지 수	비 고
1992	9,763	–	–	100.0	
1993	14,212	+4,449	+45.6	145.6	
1994	20,440	+6,228	+43.8	209.4	
1995	28,583	+8,143	+39.8	292.8	
1996	36,783	+8,200	+28.7	376.8	
1997	35,216	−1,567	−4.3	360.7	
1998	55,906	+20,690	+58.8	572.6	
1999	46,927	−8,979	−16.1	480.7	
2000	34,032	−12,895	−27.5	348.6	
2001	35,716	+1,684	+4.9	365.8	
2002	39,829	+4,113	+11.5	407.9	
2001.4.1~ 2002.3.31	34,139	–	–	–	
2002.4.1~ 2003.3.31	44,162	+10,023	+29.4	–	

• 가사 전체사건의 연도별 대비

구분 / 연도	건 수	증 감	증감율(%)	지 수	비 고
1992	1,399	–	–	100.0	
1993	1,691	+292	+20.9	120.9	
1994	1,444	−247	−14.	103.2	
1995	1,274	−170	−11.8	91.1	
1996	1,751	+477	+37.4	125.2	
1997	2,226	+475	+27.1	159.1	
1998	2,261	+35	+1.6	161.6	
1999	2,170	−91	−4.0	155.1	
2000	2,238	+68	+3.1	160.0	
2001	2,245	+7	+0.3	160.5	
2002	2,660	+415	+18.5	190.0	
2001.4.1~ 2002.3.31	2,611	–	–	–	
2002.4.1~ 2003.3.31	2,688	+77	+2.9	–	

• 형사 전체사건의 연도별 대비

구분 / 연도	건 수	증 감	증감율(%)	지 수	비 고
1992	31,127	–	–	100.0	
1993	38,317	+7,119	+23.1	123.1	
1994	36,639	−1,678	−4.4	117.7	
1995	40,625	+3,986	+10.9	130.5	
1996	44,435	+3,810	+9.4	142.8	
1997	54,483	+10,048	+22.6	175.0	
1998	57,449	+2,966	+5.4	184.6	
1999	45,995	−11,454	−19.9	147.8	
2000	37,729	−8,266	−18.0	121.2	
2001	55,571	+17,842	+47.3	178.5	
2002	60,693	+5,122	+9.2	195.0	
2001.4.1~ 2002.3.31	66,054	–	–	–	
2002.4.1~ 2003.3.31	47,496	−18,558	−28.1	–	

• 형사 공판사건의 연도별 대비

구분 / 연도	건 수	증 감	증감율(%)	지 수	비 고
1992	2,898	–	–	100.0	
1993	3,143	+245	+8.5	108.5	
1994	2,544	−599	−19.1	87.8	
1995	3,257	+713	+28.0	112.4	
1996	3,467	+210	+6.4	119.6	
1997	2,969	−498	−14.4	102.4	
1998	4,104	+1,135	+38.2	141.6	
1999	3,643	−461	−11.2	125.7	
2000	4,103	+460	+12.6	141.6	
2001	3,546	−557	−13.6	122.4	
2002	3,635	+89	+2.5	125.4	
2001.4.1~ 2002.3.31	3,673	–	–	–	
2002.4.1~ 2003.3.31	3,680	+7	+0.2	–	

• 가정 보호사건 현황(인원수)

구분	접 수			처 리										
				보 호 처 분										
연도	검사 송치	법원 송치	계	접근 행위 제한	친권 행위 제한	사회 봉사 · 수강 명령	보호 관찰	감호 위탁	치료 위탁	상담 위탁	불처분	기타	계	미제
2001.4.1~ 2002.3.31	224	–	224	152	–	6	7	–	–	–	1	2	168	50
2002.4.1~ 2003.3.31	164	–	164	120	–	5	4	–	–	–	3	2	134	30

(8) 광주시 법원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63−1번지 2층

• 관할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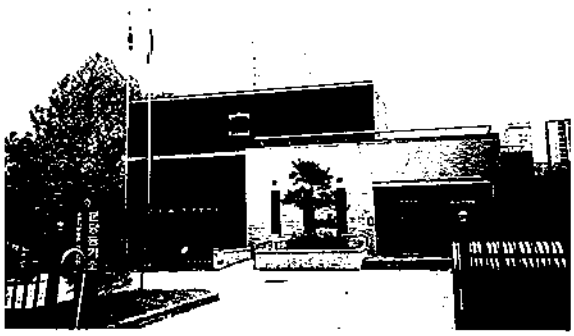
상주 법원으로서 1명의 판사가 소액심판사건, 화해 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심판사건, 협의이혼사건, 피보전채권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의 가압류 사건, 가압류 이의신청, 가압류 취소사건, 기타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사건, 공탁사건 등을 다루고 있다. 공탁사건은 시 군법원에서 종결된 확정판결(화해, 조정, 독촉 포함)에 의한 변제공탁과 시 군법원 신청사건의 재판상 보증공탁으로 구분된다.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576-6
- 연락처 : 031)791-3193
- 관할구역 : 경기도 하남시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18
- 연락처 : 031)709-1160, 1161
- 관할구역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개소일 : 2000년 10월 9일
- 위치 : 서현역에서 효자촌 방면으로 약 1.7㎞ 떨어진 양영초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분당등기소는 대지 2천1백여㎡에 지하 1층.지상 1층 건물로 상업등기를 제외한 분당구의 부동산 및 법인 등기업무를 취급한다. 분당등기소 개소로 등기업무를 보기 위해 수정구 단대동의 성남지원까지 가던 분당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었다.



<사진 3-9 :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63-1, 1층
- 연락처 : 031)761-2042, 2043, 768-3490, 0999
- 관할구역 : 경기도 광주시
- 법인등기 : 2001년 8월 31일 전산화 완료

• 부동산 등기 : 2001년 9월 5일 전산화 완료

3.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사진 3-9 : 5>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1) 일반사항

• 주 소 : 수정구 단대동 4769-2

• 연혁

- 1909. 4. 9. 경성재판소 수원구재판소 검사국으로 편성
- 1912. 3. 2.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검사분국으로 개편
- 1948. 8. 2. 서울지방검찰청 수원지청 설치
- 1979. 9. 1.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승격
- 1982. 9. 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개청
- 1995. 6. 19. 별관 준공

2) 조직

• 조직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청장 휘하에 차장검사, 형사 1,2,3부, 사무과, 집행과, 수사과를 두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조직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제1부 | 형사제2부 | 형사제3부 | 사무과 | 집행과 | 수사과

3) 업무

- 지청장 : 검사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 차장검사 : 지청장을 보좌하여 청의 업무를 총괄한다
- 형사제1부 :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와 공판을 담당하며, 지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를 주로 한다.
- 형사제2부 : 일반형사 공안사건의 수사 및 처리를 담당한다.
- 형사제3부 : 일반형사 특수, 강력사건의 수사 및 처리를 담당한다.
- 사무과 : 인사관리, 문서관리, 물품관리, 도서관리, 예산운영, 검찰국 유재산 관리, 압수금품의 접수 처리 보관 관리, 사건의 접수 및 처리, 수사지휘, 진정, 내사사건의 처리, 통계, 영장, 검찰통신 전산장비 운용 및 전산조회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 집행과 : 형의 집행, 수형통지 및 수형인 명부,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수사과 : 지청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나 범죄행위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한다.

4) 역대 지청장

구 분	성 명	재임기간	비 고
초대	(배헤용)裵懿鏞	1982. 9. 1~1983. 8. 16	
제2대	(황진현)黃振灝	1983. 8. 17~1985. 3. 4	
제3대	(민건식)閔建植	1985. 3. 5~1987. 6. 14	
제4대	(김병돈)金炳敦	1987. 6. 15~1988. 8. 31	
제5대	(박 은)朴 銀	1988. 9. 1~1990. 11. 4	
제6대	(남문우)南文祐	1990. 11. 5~1991. 7. 31	
제7대	(정상임)鄭相臨	1991. 8. 1~1992. 8. 5	
제8대	(홍유택)洪裕澤	1992. 8. 6~1993. 9. 23	
제9대	(이진강)李鎭江	1993. 9. 24~1994. 9. 22	
제10대	(윤동호)尹東昊	1994. 9. 23~1995. 9. 26	
제11대	(송광수)宋光洙	1995. 9. 27~1996. 7. 31	
제12대	(김대웅)金大雄	1996. 8. 1~1997. 8. 26	
제13대	(유창종)柳昌宗	1997. 8. 27~1998. 3. 30	

구 분	성 명	재임기간	비 고
제14대	(이태훈)李太薰	1998. 3. 31~1999. 6. 16	
제15대	(이기배)李棋培	1999. 6. 17~2000. 7. 25	
제16대	(홍경식)洪景植	2000. 7. 26~2001. 6. 13	
제17대	(강충식)姜忠植	2001. 6. 14~2002. 2. 16	
제18대	(김용진)金龍鎭	2002. 2. 17~2003. 3. 31	
제19대	(이봉희)李鳳熙	2003.4.1.~	

5) 관할 구역 : 성남시, 하남시, 광주군

• 관할경찰서 : 성남남부경찰서, 성남중부경찰서, 성남분당경찰서, 하남경찰서, 광주경찰서.

6) 연락처 및 위치

• 위치 :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 입구역 4번 출구
• 전화번호(지역번호 031)
  – 대표전화 : 739-4200
  – 팩스번호 : 739-4555
  – 종합민원실 : 739-4576
  – 법률상담 : 731-4071
  – 마약신고 : 국번없이 127
  – 학교폭력신고 : 1588-2828
  – 공직자부정부패신고 : 1588-5757

제5절 사법 관련단체 및 협력단체 현황

1. 수원지방 변호사회 재성남 변호사(2003년 12월 현재)

1) 사무실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0번지

2) 회원

성 명	주 소
강성일	수정구 단대동 95-4 3층
고영준	수정구 단대동 95-1(금마빌딩 2층)
권춘식	수정구 단대동 69-5(화빌딩 3,4층)
김규병	수정구 단대동 95-7 2층
김병돈	중원구 성남동 3500(모란제일빌딩 505)
김승구	수정구 단대동 67-4(성우빌딩 5층)
김영보	중원구 은행2동 423-19 3층
김용균	분당구 금곡동 159(한국프라자 408)
김용일	수정구 단대동 95-6 3층
김종호	수정구 단대동 94-3(신생빌딩 201)
김태현	광주시 경안동 81-4
김현석	분당구 서현동 265-6(태성빌딩 404,405호)
김호현	수정구 단대동 94-1(도향빌딩 2층)
맹신균	분당구 정자동 215(한국가스공사 내)
문대근	수정구 단대동 67-3 2층
문정환	분당구 서현동 265-6(태성빌딩 404,405)
민진국	수정구 단대동 94-3(신생빌딩202)
박남규	수정구 단대동 95-5
박 은	중원구 성남동 3500(모란제일빌딩 505)
박정익	수정구 단대동 95-7 3층
박준광	중원구 성남동 3500(모란제일빌딩 505)
박찬준	분당구 서현동 245-2 보람코아빌딩 608호
박효전	수정구 단대동 95-2(귀정빌딩 2층)
백오현	수정구 단대동 95-2(귀정빌딩 3층)
백종인	수정구 단대동 95-3 3층
윤성인	수정구 수진1동 5(신흥빌딩 602)
이영자	수정구 단대동 67-4(성우빌딩 4층)
송임호	수정구 단대동 95-7 3층
신학근	수정구 수진1동 5(신흥빌딩 602)
오행남	수정구 단대동 95-4
윤기원	분당구 서현동 245-2 보람코아빌딩 608호
이경우	중원구 은행2동 423-19
이기욱	수정구 단대동 94-3(신생빌딩 301호)

성 명	주 소
이병일	분당구 서현동 256-6 태성빌딩 404,405호
이상문	분당구 서현동 268(이랜드 분당프라자 301)
이상호	수정구 단대동 94-3(신생빌딩 201)
이승연	분당구 서현동 268(이랜드분당프라자 3층)
이영오	수정구 단대동 69-7 4층
이용철	중원구 성남동 3500(모란제일빌딩 505)
이재명	분당구 서현동 268(이랜드 분당프라자 3층)
이정구	수정구 단대동 95-5 3층
이정열	수정구 단대동 67-4(성우빌딩 4층)
이현용	수정구 단대동 69-7
이홍묵	분당구 서현동 268(이랜드 분당프라자 3층)
임상준	분당구 서현동 268(이랜드 분당프라자 3층)
임상헌	중원구 금광2동 4739 3층
임은석	수정구 단대동 95-2(귀정빌딩 2,3층)
장영준	광주시 경안동 73-22
장영하	수정구 단대동 69-5(화빌딩 3,4층)
정일연	수정구 단대동 69-5(화빌딩 3,4층)
정태선	중원구 금광2동 4726 2층
조상회	수정구 단대동 95-1(금마빌딩 3층)
조영선	분당구 서현동 265-5 태성빌딩 404,405호
조영호	수정구 단대동 69-7 3층
차경남	분당구 서현동 245-2 보람코아빌딩 608호
최규봉	하남시 신장동 519-2(코아빌딩 501)
한경록	수정구 수진1동 5(신흥빌딩 603)
한정화	수정구 단대동 94-20 2층
홍유택	분당구 서현동 268(이랜드 분당프라자 3층)
홍일원	중원구 성남동 3500(모란제일빌딩 505)
황연택	수정구 단대동 95-1(금마빌딩 3층)
황재택	수정구 수진1동 5(신흥빌딩 5층)

2. 대한법률구조공단 성남 출장소

1)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취지와 기능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진 각종 법률제도의 혜택을 모든 국민들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이유나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사실상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요망된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생겨난 제도가 바로 법률구조제도이다.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이다.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두고, 그 아래에 13개의 지부와 42개의 출장소를 전국의 법원, 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하고 있다. 공단의 법률구조업무는 법률상담에서 시작된다. 상담한 결과 구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 가사사건, 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화해 조정이나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소송대리를 하여 주고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변호를 하여 준다.

법률상담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상담을 받고자 하는 이는 공단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상담하거나 전화, 서신, 컴퓨터 등을 통하여 상담할 수 있다. 특히, 서울지부에서는 일요일 및 야간에도 상담을 하고 있으며, 지부 등에서는 공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는 출장 이동 법률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사진 3-9 : 6> 법률구조공단 성남출장소

2) 대한법률구조공단 성남출장소의 위치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공원1길 8(단대동 94-3) 신생빌딩 303호
- 전화 : 상담 - 031)748-3509,
  업무 - 031)749-1566

3. 범죄예방위원회 지역협의회

범죄예방위원회 지역협의회는 1996년 6월 12일 반포된 법무부훈령 제363호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에 따라 각 지방법원 혹은 지청 단위로 설치 운영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기구의 하나이다.



범죄예방 자원 봉사 기본규정에 명시되는 기구의 종류는 범죄예방위원, 범죄예방지도위원회, 범죄예방위원 자치조직 등이 있으며, 범죄예방위원 자치조직 산하에는 다시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원봉사규정을 담고 있는 이 훈령은 1998년 9월 1일 법무부훈령 제400호로 1차 개정되었으며, 2001년 3월 14일 법무부훈령 제443호에 의해 2차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범죄예방 자원 봉사 기본규정은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범죄예방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자원봉사활동을 지원 · 육성함을 목적으로하고 있으며, 법무부 산하 기관 단체 소속 직원들이 범죄예방위원의 직무수행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협력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범죄예방 자원 봉사 기본규정에 명시되는 기구의 종류는 범죄예방위원, 범죄예방지도위원회, 범죄예방위원 자치조직 등이 있으며, 범죄예방위원 자치조직 산하에는 다시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범죄예방 자원 봉사 기구는 모두 지방검찰청 산하에 편제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의 임기는 대략 3년이며, 그 직무와 역할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위원

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또는 출소자에 대한 상담지도, 특별지도
②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사회봉사명령 집행보조, 환경조사보조 등 보호관찰 업무보조
③ 범죄예방을 위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원호 및 재정지원
④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등 학교폭력 범죄예방 활동 전개
⑤ 의료시혜, 약품지원
⑥ 기타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 활동 전개

2) 범죄예방지도위원회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두며,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지청의 차장검사 혹

은 지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범죄예방 전담검사, 관할 보호관찰소장, 한국갱생보호공단 지부장, 해당지역의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의 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관할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 중에서 약간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범죄예방위원 위 · 해촉 및 포상 상신
②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범죄예방대책 수립
③ 범죄예방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④ 기타 범죄예방 민간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성남가정법률상담소

성남가정법률상담소는 가난한 사람, 사회적 약자 등 어려움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 없어 고민하는 이웃의 편에서 이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데 필요한 구조사업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사단법인 경기가정상담소, 성남가정법률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부설기관으로 성남가정폭력상담소, 성남시 여성의 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 주소 : (463-8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10(하탑로 106) 여성문화회관 1층 (소장 이정숙)
- 전화 : 031-707-6661

5. 성남보호관찰지소

성남보호관찰지소는 수원보호관찰소로부터 독립하여 2000. 3. 7. 개청한 이후 관할구역인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등 3개지역 1,300여명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원호활동에 특히 힘쓰고 있으며 지역사회 범죄예방위원과 연계하여 범죄예방활동 및 준법운동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 3-9 : 7>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
범죄예방위원 성남지역협의회 청소년선도 활동 모습(2004.6)

남한산성이 바라다 보이는 역사의 고장인 성남 지역을 '범죄 예방과 준법실천의 모범도시'로 가꾸는 일에 선도적 역할을 다함으로써 선진형사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다.

- 연혁
  - 1998. 12. 31. 보호관찰법 제정 공포 (법률 제4095호)
  - 1989. 7. 1. 보호관찰제도 도입 실시
  - 1989. 7. 31. 수원보호관찰소 개청
  - 2000. 3. 7.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개청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54번지(대한도시가스 4층)
  (우) 461-180(태평역 5번 출구)
- 전화 : (031) 758-4091~3

6. 수원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수원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는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 소재 법무사들로 구성된 법무사 협회이다. 강성수 지부장을 중심으로 약 4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법무사회 설립의 법적 근거인 사법서사법 제23조에 의거하여 1979년 9월 8일 설립된 수원사법서사회 성남지부로 출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전화 : 031)747 - 8500

7. 수원지방법무사회 분당지부

수원지방법무사회 분당지부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법무사들로 구성된 법무사 협회이다. 당 지부는 분당구 개발에 따른 성남시 도시규모의 확대와 유입 인구의 증대에 따른 법무사의 역할과 수요가 더욱 커지는 상황을 반영하여 2001년 4월 27일 수원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로부터 독립하여 신설되었다. 현재 김춘기 법무사를 지부장으로 약 44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 전화 : 031)717 - 8500

※ 집필 邊寧振 성일고등학교 교사



제2장 치안

제1절 치안제도의 변천

1. 상고시대 및 삼국시대



상고시대에는 치안을 맡는 경찰이 독립적으로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군사조직에서 치안과 국방을 병행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고시대에는 치안을 맡는 경찰이 독립적으로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군사조직에서 치안과 국방을 병행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대에는 국내 치안의 중추가 되는 일은 방범이었다. 방범에는 절도행위 방지가 가장 중심되는 것이었다. '팔조금법'에서 절도죄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도 절도는 모든 범죄의 대명사였다. 고구려에서는 오부제(五部制)의 각 관이 맡았으며 백제에서는 중앙의 조정좌평(朝廷佐平)·위사좌평(衛士佐平)·병관좌평(兵官佐平)과 지방의 덕솔(德率)이 맡았다.

덕솔은 백제 16관등의 하나로 군(郡)의 장관에 임명되는 관등이어서 당연히 치안업무를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신라에서는 집사부(執事部)·병부·좌이방부(左理方部)·우이방부(右理方部)·사정부(司正部)가 중앙의 치안을 맡는 기관이었고 지방 군주나 성주 그리고 군의 기능을 한 당(幢)·정(停)이 지방의 치안기관이었다.

2. 고려시대

고려시대에도 경찰행정은 군사업무와 병합되어 행해졌다. 중앙에서는

병부에 속하는 이군육위(二軍六衛)가 경찰업무도 맡았다. 이군은 응양군(鷹揚軍)과 용호군(龍虎軍)을, 육위는 좌우위(左右衛) · 신호위(神虎衛) · 흥위위(興威衛) · 금오위(金吾衛) · 천우위(千牛衛) · 감문위(監門衛)를 일컫는 것으로 고려 전기의 중앙군 조직이었다. 이군육위는 기본적으로는 군사조직이었으므로 경찰업무는 부수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법경찰은 별도로 형부에서 맡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밖에 중추원 · 순마소(巡馬所) · 어사대 · 야별초에서도 특수경찰 업무를 맡았다. 지방에서는 지방관인 주지사(知州事) · 부사 · 현령 등이 일반행정 업무와 더불어 경찰업무를 수행하였다.



고려후기 지방에서는 순군만호부가 개편된 사평순위부(司平巡衛府)와 야별초가 주로 치안업무를 담당하였다.

순마소는 순군만호부(巡軍萬戶部)로 개칭되었는바 도둑 잡는 일이 고유업무였으나 순찰 중에 일반인의 구타사건, 가축 밀도살, 토지와 노비에 관한 쟁송에도 간여하였다.

고려 후기 지방에서는 순군만호부가 개편된 사평순위부(司平巡衛府)와 야별초가 주로 치안업무를 담당하였다.

고려 전기에는 성내좌우순검사(城內左右巡檢使) · 내순검군(內巡檢軍) · 점검군(點檢軍) · 가구소(街衢所)가 있었으며 지방에는 양계순검사(兩界巡檢使)와 순검군이 있었다. 고려 후기 무신정권시대에는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야별초(夜別抄)가 있었다. 야별초는 처음 최씨 무신정권의 사병(私兵)으로 개성에서 야간에 도둑을 잡는 것을 임무로 했지만 뒤에 전국적 범위로 활동범위가 늘어나고 임무도 도둑 잡는 일 외에도 형옥(刑獄) · 죄수문초 등으로 확대되었다. 군사적으로는 친위대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는 대몽항쟁에 나서는 삼별초를 형성하게 된다.

3.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경찰기관이 일원화되지 않고 다원화된 상태였다. 각 행정관서가 소관업무에 위배되는 사항을 스스로 단속, 처벌하는 것이었다. 중앙경찰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형조 · 의금부 · 사헌부 · 한성부 등의 사법기관과 포도청이라 할 수 있다.

포도청은 조선 초기 형조 · 의금부 · 사헌부 · 한성부와 함께 중기 이후

의 경찰 및 준사법기관 기능을 행했다. 포도청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고려의 순군만호부가 태종대에는 순위부, 다시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로 바뀌어 병조에 속하였다. 1414년 8월(태종 14) 의금부로 개편되었다. 의금부는 오늘날의 순시업무와 왕명에 의한 죄수의 죄상을 논박하는 일을 하다가 순시업무는 삼군진무소(三軍鎭撫所)가 맡게 되었다. 그 뒤 순시업무는 순청(巡廳)을 거쳐 1528년(중종 23)경에 포도청이 설치되면서 도둑잡는 일을 전담하게 되었다.

포도청에는 좌포도청과 우포도청이 있었고 좌·우포청에 대장(大將, 종2품) 각 1인, 종사관(종 6품) 3인, 부장(部將) 4인, 무료부장(無料部長) 26인, 가설부장(加設部將) 12인, 서원(書員) 4인씩을 두었다.

포도대장은 포도청을 지휘하는 책임자로 왕의 행차 때 수행했다. 종사관은 포도대장을 보좌하여 죄인을 심문하는 등 실무를 담당했으며 부장·무료부장·가설부장은 군사를 지휘하여 순찰이나 도둑을 직접 잡는 일을 했다. 서원은 사무기록을 담당했다. 포도청은 1894년 갑오경장 때 경무청(警務廳)으로 바뀌었다.



포도대장은 포도청을 지휘하는 책임자로 왕의 행차 때 수행했다. 종사관은 포도대장을 보좌하여 죄인을 심문하는 등 실무를 담당했으며 부장·무료부장·가설부장은 군사를 지휘하여 순찰이나 도둑을 직접 잡는 일을 했다.

포도청의 순찰은 당시 한양 경우 성안은 좌우포도청이 각 팔패(八牌)로 나뉘어 초소를 두고 매일 순찰하고 성밖은 주야로 순찰을 했다. 순찰은 순라(巡邏)는 낮에 하는 주순(晝巡)과 밤에 하는 야순(夜巡)이 있었는데 포도청은 주로 야순을 맡았다. 야순은 당시 통행금지인 야금(夜禁)에 실시하는데, 야금은 이경(二更: 밤 10시)부터 오경(五更:새벽 4시)까지였다. 야금 동안은 통행이 일체 금지되었으나 긴급한 공무, 질병, 출산, 상사(喪事)의 사유가 생겼을 때는 순찰초소 격인 경수소(警守所)에 신고하면 목적지까지 안내했다. 그러나 다음날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이유 없이 통행한 사람은 구속하였다. 관리는 야간통행중이라 할 문금첩(勿禁帖)을 발급 받아 통행하였다.

순찰을 하는 순라군은 암호인 군호(軍號)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군호는 병조의 입직당상관이 매일 신시(申時:오후 3시~5시)에 친히 만들고 이를 밀봉하여 병조낭관이 승정원을 통하여 왕의 재가를 받아 실시했다.

조선시대 특별 정보경찰 성격을 갖는 암행어사제도도 경찰업무라 볼 수 있다.

지방에서는 지방행정의 책임자인 관찰사, 부윤, 부사, 목사, 군수, 현령,



지방에서는 지방행정의 책임자인 관찰사, 부윤, 부사, 목사, 군수, 현령, 현감 등이 행정업무와 사법업무를 함께 관장했으므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일체가 이들 책임자 전권하에 있었다.

현감 등이 행정업무와 사법업무를 함께 관장했으므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일체가 이들 책임자 전권 하에 있었다. 태조 시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민정과 병무행정이 통합되어 있었거나 관찰사가 병마절도사를 감독하게 되어 있어서 지방치안 책임은 결국 지방 행정책임자에게 있었다.

4. 대한제국

1894년 7월 포도청이 폐지되고 1895년 중앙에 내무아문(內務衙門) 산하에 경무청이 창설되어 수도경찰제도가 확립되었다. 그 뒤 1900년 6월 경찰행정이 독립되어 경부(警部)가 설치되었으나 곧 경무청으로 환원되었다.

경무청에는 경무사(警務使), 경무부관(警務副官), 경무관, 총순(總巡), 순검(巡檢) 등의 직제가 있었다.

1907년 7월 경무청 대신 경시청이 설치되었고 경시청 산하에는 경찰서가 발족되었다. 당시 경찰서는 95개로 경비 · 위생 · 호적 · 이민업무를 맡았다.

1910년 6월 한일 간에 경찰제도 개선 명분으로 경찰업무를 일본 통감부에 위탁시켜버렸다. 통감부 경찰은 헌병이 책임자(헌병사령관, 각 지역 헌병대장)가 되는 헌병 · 경찰 통합제도를 가져왔다.

5.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의 경찰제도는 식민지 통치를 위한 것이었다. 1910년 8월 국권상실 이후 일제는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그 밑에 총독부 경찰관서를 두었다. 이 때의 경찰관서는 무단통치를 하기 위한 헌병경찰통합제도로 1919년 3 · 1만세운동 이후까지 계속되었다. 3 · 1만세운동을 계기로 일제는 이른바 문화통치를 한다면서 문치주의를 내세웠다. 헌병경찰통합제도를 보통 경찰제도로 바꾸면서 총독부에 경무국을 설치하고 헌병을 경찰집행기관에서 제외하였다. 이로써 경찰업무를 경찰만이 맡게 되었다. 그러나 경찰업무에 종사하던 헌병의 대부분이 제복만 바꿔 입었을 뿐 탄압의 고삐



일제는 이른바 문화통치를 한다면서 문치주의를 내세웠다. 헌병경찰통합제도를 보통 경찰제도로 바꾸면서 총독부에 경무국을 설치하고 헌병을 경찰집행기관에서 제외하였다.

를 늦춘 것은 아니었다. 겉으로는 경찰관서에 우리나라 사람을 다수 채용하였지만 같은 기간에 일본인 더 늘어났다.

6. 임시정부의 경찰제도

3·1독립만세운동 이후 상해에서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조직에서 경찰을 두었다. 1919년 11월 대한민국 임시관제에 따르면 내무부에 경찰국을 두고 경찰국장 밑에 경호부장과 경호원을 두었다. 그 해 12월 임시정부와 본국의 지방과 연락을 맡은 지하비밀행정기관인 연통제(聯通制)를 설치하고 도에는 경무사(警務司)를 두고 각 지역에는 경감(警監)을 두어 경찰, 위생업무에 종사하게 했으며 그 밑에 경호원(警護員)을 두었다.

임시정부의 말기에도 내무부에 경무과(警務科)를 두고 경찰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그러나 임정의 경찰제도는 조직상 존재했더라도 실제로는 관할 영토가 없는 형편에서 형식상의 조직에 불과했다. 참고로 이 시기 경무과의 관장업무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일체 경찰에 관한 사항 ②질서·기율에 관한 사항 ③국무 및 인구조사에 관한 사항 ④징병 및 징발에 관한 사항 ⑤국내정보 및 적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임정의 경찰제도는 조직상 존재했더라도 실제로는 관할 영토가 없는 형편에서 형식상의 조직에 불과했다.

제2절 대한민국의 치안체제

1. 경찰조직과 기능

치안은 대한민국에서 경찰의 주된 임무로 되어있다.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맡는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 미 군정기에는 군정청에 경무국이 설치되었다. 경무국은 광복되던 해 10월 21일 군정청에 설치된 군정경찰(軍政警察)기구였다. 경무국장



치안은 대한민국에서 경찰의 주된 임무로 되어있다.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맡는다.

밑에 각 시도 경찰부가 조직되었고 경무국에는 총무과 · 공안과 · 수사과 · 통신과를 두었다. 지방에는 처음에 각도 도지사 밑에 경찰부장을 두고 경무과 · 보안과 · 형사과 · 경제과 · 정보과 · 소방과 등을 설치했으나 곧 독립하여 경찰부가 되었다. 1946년 1월 중앙의 경무국은 경무부로 확대, 개편되었고 각도 경찰부는 관구경찰청으로 개편되는 등 조직과 기구의 확대를 가져왔다.

미군정 하에서는 경찰의 민주화가 강조되어서 경찰관은 대검대신 경찰봉을 휴대하게 하고 경찰서장의 즉결 심판제 폐지, 경제경찰 폐지, 위생업무 이관 등이 실시되었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경찰은 내무부 치안국과 각 도지사 산하에 들어가게 되고 기구도 축소되었다.

이때의 경찰은 일반적인 치안 · 경비업무 외에 공비소탕을 담당한 전투경찰로서의 기능까지 맡았다. 따라서 각급 경찰관서는 작전 · 동원 · 무기관리 업무도 맡게 되었으며 1953년 7월 이후에는 해양경찰대, 경찰병원, 경찰항공대, 경찰의장대, 과학수사연구소, 경찰학교 등 임무수행을 위한 조직과 기구 확대가 계속되었다.

1974년 치안국은 치안본부로 확대 개편되었고 1991년 5월 경찰청으로 승격되었다. 지방조직은 특별시장과 직할시장, 각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두고 있다.

경찰은 제1공화국 시절 정치에 이용되는 등의 곡절도 겪으면서 예방경찰 기능의 강화, 대공사찰의 강화, 과학장비 강화, 과학수사 강화를 꾸준히 실현해왔다.

앞으로 경찰은 경찰행정의 민주화 · 능률화 · 과학화 노력을 지속하여 그간 봉사기능보다 질서유지 기능에 치중해왔던 것을 봉사기능 제고에 힘을 쏟아야 치안유지라는 본래 임무를 다하게 될 것이다.

경찰조직은 행정자치부 장관을 정점으로 경찰청장 · 시도경찰청 · 경찰서 · 지서 · 파출소 · 출장소로 되어 있다. 산하기관으로 해양경찰대 · 경찰대학 · 경찰병원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이 있다.

경찰은 기능별로 보안경찰, 정보경찰, 수사경찰, 작전경찰, 대공경찰, 경비경찰, 외사경찰, 통신경찰, 교통경찰, 전산경찰 등으로 구분하며 특별히 해양경찰이 독립되어 있다.

보안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한 경찰로 관장업무의 범위가 넓다. 일반보안에는 호구조사나 결인부랑아 구호임무도 있고 사행행위 단속도 포함된다. 위생업무, 총포화약 업무, 녹화사업 업무, 청소년 선도업무 등이 모두 보안경찰의 소관이다. 소방행정도 보안업무의 하나로 방화대책, 화재특별경계, 화재인화물 경계, 화재예방교육 등등이 이에 속한다.

정보경찰은 국가안전을 위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 개인이나 단체의 사고나 행동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첩보를 수집·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수사경찰은 범죄사실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증거를 수집하여 범인을 체포하고 수사하는 일을 한다. 수사를 하는 데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학수사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의 국제공조를 위해 1964년 9월 국제형사기구(Interpol)에 가입했다.

작전경찰은 전투경찰의 성격을 띠고 있다. 집회시위 시 투입되거나 무장공비 출몰 시 진압작전에 나선다. 향토예비군법에 의한 향토예비군 관리도 맡고 있다.

대공경찰은 총력안보체제를 확립하던 1970년대 사회안전법(1975. 7. 16)에 따른 보안처분 관계업무를 담당했다.

경비경찰은 요인경호와 다중의 안전을 위한 질서유지를 책임지는 경찰업무로 기마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외사경찰은 우리나라에 출입국 하는 외국인이나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경찰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경찰은 경찰분야 통신을 장악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1955년부터 외자에 의한 통신장비 도입이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자체생산 통신기기로 완벽한 임무수행 체제를 갖추고 있다.

교통경찰은 차량수의 증가에 따라 그 업무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임무의 중요도가 상승했다.

전산경찰은 사이버 세계에서의 범죄를 포함하여 전산기기를 통한 범죄수사의 단서를 찾아내는 임무를 수행한다.

해양경찰은 분단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해상을 통한 북한간첩의 침투를 막는다던가, 우리 어선의 납치를 막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현재 해양경찰은 전투경찰의 성격을 띄고 해상간첩작전이라든가 해난

사고 방지에 나서고 있다.

2. 경찰공무원의 임무

대한민국 경찰은 1948년 11월부터 경무관 · 총경 · 경감 · 경위 · 경사 · 순경으로 된 직제를 실시하였다. 1961년 4월 해양경찰 직급이 별도로 설정되었으나 1963년 5월에 없어졌다. 1969년 1월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치안총감 · 치안감 · 경무관 · 총경 · 경정 · 경감 · 경위 · 경사 · 경장 · 순경으로 편제되었고 일반공무원과 달리 별정직 공무원으로 되었다가 1981년 4월부터 특정직 공무원이 되었다. 현재 경찰계급은 1979년 치안총감 밑에 치안정감이 신설되어 11계급이 되었다.

채용에서 경정이상의 경찰관은 행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감이하의 경찰관은 행자부 장관이 임명한다. 경찰공무원은 임용자격요건이 일반공무원보다 엄격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다.

경찰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그 임무로 하는데 구체적인 직무내용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②경비 · 요인 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 ③치안정보의 수집 · 작성 및 배포 ④교통단속과 위해의 방지 ⑤기타 공동의 안녕과 질서유지



경찰관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정지시켜 불심검문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위의 직무에 따라 경찰관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정지시켜 불심검문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경찰관은 눈앞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고를 하거나 제지할 수 있다. 경찰관은 어떤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 · 신체 등에 위해가 절박할 경우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구조를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나 건물 또는 배나 차에 출입할 수 있으며, 주인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경찰관은 정신착란자나 미아, 술취한 사람 또는 긴급한 구호를 요구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 경찰은 소요사태 진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통행제한 조처를 할 수 있고 검색도 할 수 있다.

경찰관서의 장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사적단체에 대하여 사실조회나 사실확인을 할 수 있고 필요시 관계자의 경찰관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관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일정한 요건 하에 수갑 · 포승 등 장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 무기로써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처럼 경찰관의 직무수행에서 직권이 남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경찰관의 임무인 질서유지와 봉사에서 질서유지도 중요하지만 봉사라는 면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면에서 경찰은 자체적으로 경찰윤리헌장을 제정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으로서,

1. 우리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명령에 복종하며 각자의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완수한다.
1. 우리는 냉철한 이성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위해와 불법과 불의에 과감하게 대결하며 항상 청렴검소한 생활로서 명리를 멀리하고 오직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1. 우리는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여 성실하게 봉사한다.
1.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명심하여 편견이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1. 우리는 이 모든 목표와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인격과 지식의 연마에 노력할 것이며 민주경찰의 발전에 헌신한다.

이 헌장은 민주봉사정신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여 소명의식이 내면화된 바람직한 경찰상을 세우고 본연의 업무를 고수하는 경찰문화를 창달할 것을 담고 있다.

경찰관은 이러한 윤리헌장이 아니더라도 모름지기 봉사정신과 청백리정신, 그리고 전문직 윤리를 가진 직업인이어야 할 것이다.



경찰관은 이러한 윤리헌장이 아니더라도 모름지기 봉사정신과 청백리정신, 그리고 전문직 윤리를 가진 직업인이어야 할 것이다.

3. 방첩과 방범활동

경찰업무는 분야별로 타 기관에 의해 지휘감독을 받는데 범죄수사 업무에는 검찰의 지휘감독을 받고 대공정보 등의 업무에는 국정원의 조정을 받으며 예비군 훈련 및 무기관리 관계업무는 예비사단의 감독을 받고 경호경비 업무에서는 대통령 경호실 감독을 받는다. 또 수도권 경비업무와 관련해서는 수도경비사령부의 감독 조정을 받고 회계업무와 공무원 직무감찰은 감사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방첩관계 업무도 관계기관의 감독을 받는데 요시찰인 조사, 첩보의 수집 평가, 정보사범 검거 등의 활동을 통해 수행한다.

1950년대 후반부터는 도시지역에서 경찰의 방범순찰 외에도 주민의 자율적인 방범활동이 이루어 졌다.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방범대는 평상복으로 순찰하면서 딱딱이와 호루라기를 가지고 다녔다. 뒤에 이 방범대는 동장 주관 하에 조직된 방범위원회로 개편되었고 1972년에는 방범위원회를 파출소 단위로 조직하였다. 한편 방범과 관련하여 1962년부터는 청원경찰제가 운용되었고 1977년부터는 용역 경비업 제도가 실시되어 제복에 방망이와 손전등을 가진 직업적 방범대원이 등장했다. 이로써 방범관계 치안은 민간의 협조를 가장 받는 경찰업무가 되었다.

집필 林采郁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제3절 경찰제도의 변천과 성남지역 경찰관서

1. 경찰제도의 변천

1) 경무부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미군정이 실시되었고, 동년 10월 21일

미군정청에 경무국을, 각 도에 경찰부를 창설하였다. 1946년 1월 16일 경무국을 정무부로 승격시켜 총무, 공안, 수사, 통신, 교육 등 5국으로 편성하고 경찰계급을 경무부 차장, 총경, 감찰관, 경감, 경위, 경사, 순경으로 개정하였다. 동년 3월 5일에는 철도 관구경찰청이 발족되었다가 1949년 폐지되었으며, 4월 1일에는 각 도의 경찰부를 관구경찰청으로 개편하였다.

1948년 5월 15일에는 1급 경찰서(서장: 총경), 2급 경찰서(서장: 경감)로 분류등급제를 실시하였으나 1972년에 폐지하였다. 동년 9월 3일에는 국립경찰지휘권을 인수하고, 경찰계급을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 경사, 순경으로 개정하였다.

2) 치안국

경무부 체제기구를 마감하고 치안국 체제에는 1948년 11월 4일 내무부장관 산하에 치안국을 설치하고, 동년 11월 18일에는 각 시도에 경찰국을 설치(경무, 보안, 경제, 사찰, 통신, 소방)하였다. 1949년 4월 22일에는 철도경찰대를 설치하였다가 1953년 폐지하였으며, 동년 10월 18일에는 경찰병원을 설치하였다.

한국전쟁 직전인 1950년 3월 31일에는 치안국의 '여자경찰과', '소방과'를 폐지하고 수사지도과를 수사과 개칭하였으며, 동년 12월 16일에는 태백산 및 지리산 경찰전투사령부 설치하였다가 1952년 해체하였다.

1953년 5월 1일에는 서남지구 전투경찰대를 발족시켰다가 동년 7월 1일자로 해체하였으며, 동년 12월 14일에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동년 12월 23일에는 해양경찰대가 발족하였고, 1955년 6월 7일자로 해무청으로 이관되었다가 1961년 10월 2일 다시 경찰로 복귀하였다.

1954년 10월 2일 치안국 경비과 산하에 경찰항공대가 설치되었으며, 1955년 1월 5일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었다. 또한 동년 3월 25일에는 국립과학수사 연구소가 설치되었고, 7월 1일에는 서남지구 전투경찰대가 해체되고, 경찰 기동대가 새롭게 신설되었다.

1960년 6월 1일에는 치안국 특수정보과 각도 경찰국 사찰과를 정보과로, 경찰서 사찰계를 정보계로 각각 개칭하였다. 그리고 1962년 4월 3일에는 해양경찰대 설치법과 청원경찰법이 공포되었고 동년 12월 6일에는 소

방행정심의회가 설치되었으며, 동년 12월 31일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1966년 11월 21일에는 경남경찰국에서 부산시 경찰국이 분리되어 발족하였으며, 1967년 9월 1일에는 시, 도에 전투경찰대가 발족하였다. 또한 1969년 1월 7일에는 경정, 경장 2계급을 증설하고, 2급 서장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격상시켰다. 동년 6월 2일에는 전국 주요도시 및 취약지 지서, 파출소 1,000개소 소장을 경위로 승격시켰으며, 1971년 7월 14일에는 해양경찰대 교육대를 신설하였고, 1972년 2월 22일에는 경찰전문학교를 경찰대학으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동년 3월 31일에는 시 소재지 54개 경찰서에 방범순찰대를 설치하였다. 동년 5월 6일에는 해양경찰대, 기지대를 지구해양경찰대로 개칭하였으며, 동년 5월 30일에는 경찰서장 직급을 총경으로 통일시키면서 6월 29일에는 치안국 보안과 외근담당, 교통과 고속도로 순찰대, 경비과 종합상황실, 수사지도과 특수수사대, 통신과 "경찰 마이크로웨이브 통신대"를 설치하였으며, 동년 10월 5일에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경찰 레이다 운용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1972월 12월 5일에는 서울 경찰서에 330수사대를 설치하였고, 1973년 2월 12일에는 김포, 수영, 제주에 "공항경비대"를 창설하였다. 1974년 10월 13일에는 서울시 경찰국에 22특별경비대를 설치하였다.

3) 치안본부

치안국 체제기구를 마감하고 치안본부 체제에 들어와서는 1974년 12월 24일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정부조직법 개정)하였고, 치안본부장을 별정직으로 승격하고 부장을 정부위원으로 하였다. 동년 12월 31일에는 [치안본부 기구 개편]으로 공안 및 방위담당관을 폐지하고 제1, 제2, 제3부를 설치(부장 : 치안감)하였으며, 치안감사담당관을 폐지하고 인사교육과를 신설하였다. 또한 기획과를 기획감사과로 개칭하고 전자계산소를 설치하였다.

서울시경에는 경찰국장 밑에 제1, 제2담당관을 설치(경무관)하고, 1975년 8월 28일에는 서울경찰국 방위과를 폐지하고 작전과를 신설하였으며, 경찰대학 부속 종합학교장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격상시켰다. 또한

서울 경찰서 수사과 330수사대를 폐지하였다.

1976년 4월 15일에는 치안본부, 시·도 경찰국(제주 제외), 시·도청 소재 44개 경찰서에 정보1과와 정보 2과를 설치하였으며, 1977년 4월 9일에는 치안본부 제2부 해경과를 설치하였다. 동년 12월 2일에는 경찰병원에 제1내과, 제2내과, 제3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마취과 등을 신설하였다.

1978년 7월 27일에는 부산시 경찰국장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격상시키고, 경무관급 담당관 1인을 두도록 하였다. 동년 8월 9일에는 해양경찰대에 관리부, 경비부 해양오염관리관을 설치하면서, 교육대는 폐지하였다. 그리고 치안본부 해경과를 해상보안과로 개칭하고, 해상공해업무를 관장토록 하였다.

1979월 12월 28일에는 경찰대학설치법 제정·공포로 경찰대학장 치안감을 치안정감으로, 부학장 및 교수부장을 경무관으로 직제를 개편하였다. 또한 1980년 3월 22일에는 부속종합학교장은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교학과장은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직급을 격상시켰다. 동년 4월 10일에는 경찰대학의 조직과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이 공포(대통령령 제9478호)되었다.

1981년 7월 1일에는 대구직할시 경찰국이 신설되었고, 치안본부 제4부와 치안감사담당관실이 증설되었다. (제4부 1담당관 18과 1전산소)

1982년 2월 24일에는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찰국에 작전과가 설치되었고, 전국 경찰서 경비계를 경비작전으로 개칭하였다. 동년 3년 30일에는 시·도청 소재 49개 경찰서에 도보방범순찰대를 설치하였고, 동년 4년 30일에는 통금해제에 따른 경찰보안인력 3,929명을 증원하였고, 경찰대학 부학장제를 폐지하고 교수부장에 경무관을 배치하였다.

또한 동년 5월 14일에는 해경충무지구 해양경찰대를 신설하였고, 6월 1일에는 경기도 제2종합청사 경비대를 창설하였으며, 12월 28일에는 치안본부 통신과 유선계를 기술계로, 수사과 특수수사대를 수사1대로, 수사대를 수사2대로 개칭하였다.

1983년 6월 4일에는 치안본부의 경비과 대테러업무(경찰특공대), 수사2과 수사지도관실을 신설하였으며, 동년 12월 30일에는 경기도 경찰국장을 치안감으로 격상시키고, 경무관 담당관 1인을 편성하였다.

1984년 1월 21일에는 12개 전투경찰대 창설요원과 88고속도로요원, 경찰항공기 조종사를 확보하였으며, 시·도 작전과 전경관리계를 신설하고,

도보방범순찰대장에 경감을 배정하였다. 동년 5월 24일에는 부산시 경찰국 경무과 공보계 소속 "경찰악대"를 신설(40인조)하였다.

1985년 12월 31일에는 서울시 경찰국장 직급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격상시켰고, 1986년 1월 28일에는 치안본부조직을 4부 19과에서 4조정관 9부 4관 26과 4담당관으로 개편하였으며, 해양경찰대 및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의 직급을 치안정감으로 격상시켰다. 동년 6월 14일에는 치안본부 경무부에 청사관리담당관을 설치하고, 제주도 경찰국과 전국 47개 경찰서에 대공과를 설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부산 및 대구직할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찰국에 형사기동대 12개 중대를 신설하였다.

한편 치안본부 26개 담당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경찰서 과장직급을 경정과 경감으로, 6대도시 파출소장을 경위로 각각 계급을 상향 조정하였다. 동년 10월 27일에는 치안본부에 제5 조정관을 설치하였으며, 전라남도 경찰국장의 직급을 치안감으로 격상하고, 국장 밑에 담당관을 두고 경무관으로 보직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 부산, 대구직할시, 경기도, 전라남도 경찰국 대공과와 서울특별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직할시 지역 45개 경찰서 대공과에 대공 3계를 설치하였고, 경찰대학에 부설 대공간부연구소를, 경찰종합학교에 대공학과를 설치하는 등 대공관련 업무를 대폭 증가시켰다. 동년 11월 20일에는 김포 및 제주공항 경비대를 각각 국제공항경찰대로 승편하였고, 1987년 2월 27일에는 인천직할시 경찰국을 신설(대통령령 제12080호)하였다. 그리고 경기도 경찰국장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조정(시행일자 '89. 1. 1)하였으며, 동년 4.1일에는 형사기동대 5, 기동대 2, 공항경비 1개 중대를 증편(대통령령 제12108호)하였다.

동년 5월 23일에는 경찰병원 정신과를 신설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이화학과를 법의학 1, 2과 및 이화학 1, 2, 3과로 확대 개편하였다. 동년 8월 15일에는 올림픽경비대 30개 중대 조기증편 따른 작전전경 5,070명을 증원하였으며, 충남 천안경찰서에 독립기념관출장소를 신설하였다. 또한 동년 9월 3일에는 중앙경찰학교를 신설하고 9월 18일 대통령령 제12241호에 의거 개교하였으며, 서울시경찰국에 올림픽경비대 30개 중대를 증설(대통령령 제12243호)하였다.

1988년 10월 20일에는 경찰대학의 조직과 학사운영을 개정(대통령령 제12539호)하여 공안문제연구소를 설치(좌경이념문제 전문적 연구)하였으며, 경찰대학 입학자격을 여자에게도 부여(여경간부 모집근거규정) 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동년 12월 20일에는 해양경찰대 직제를 개정(대통령령 제12556호)하고, 안흥지구 해양경찰대를 신설하였다. 또한 12월 31일에는 경기도 경찰국장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격상(대통령령 제12579호)시켰다.

1989년 1월 1일에는 충남경찰국장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격상(대통령령 제12578호)시켰다. 1990년 2월 20일에는 대통령령 제12931호에 의거 C3순찰차 요원 1,256명 등 2,133명의 경찰인력을 증원하였다.

4) 경찰청

치안본부 체제기구를 마감하고 경찰청 체제에서는 1991년 7월 24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를 제정(대통령령 제13431호)하였으며, 이는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지방경찰국을 지방경찰청으로, 해양경찰대를 해양경찰청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1. 8. 1)

동년 7월 26일에는 경찰기구와 정원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4268호)되었고, 경찰법이 제정(법률 제4369호)되었다. 또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한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13431호)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경찰위원회 운영 규정(대통령령 제13432호)에 의거하여, 경찰청에 1차장 4관 7국 5심의관 9담당관 11과를 설치하고, 해양경찰청에는 4부 1창, 1담당관 11과를, 서울지방경찰청에는 1차장 7부 2담당관 17과 7직할대를 · 직할시, 도 지방경찰청에는 차장제를 신설(부산 경기 2인, 대구, 충남, 경남, 전남 1인)하였다. 또한 공보, 감사 등 2담당관을 신설하고, 보안과를 방범과로, 대공과를 보안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2년 10월 17일에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를 개정(대통령령 제13740호)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경찰청 보안국 외사심의관을 폐지하고, 외사관리관을 신설하였으며, 경찰청 형사국 형사과 국제형사기구업무(인터폴)를 외사관리관 업무로 조정하였고, 충주, 포항, 제주 면허시험장을 신설하였다.

1993년 8월 9일에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를 개정(대통령령 제13952호)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파출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결정에 관한 경찰청장의 승인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대통령령 제14148호에 의거 1994년 1월 22일에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를 개정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파출소 15개소 개소(3,389 3,404, 서울 4, 대구 1, 인천 1, 경기 7. 충남 1, 전남 1)와 서울서부면허시험장 신설, 고물상영업 지도, 단속업무를 폐지하였다.

동년 5월 4일에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를 개정(대통령령 제14250호)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지휘부 인력을 감축하고, 일선 치안력을 보강(본 청 : 306, 지방청 : 1,052)하면서, 경찰특공대 소속을 서울청으로 이관(80인)하였다.

1995년 1월 1일에는 지, 파출소 명칭을「파출소」로 단일화를 추진(파출소 2,103, 지서 1,301)하였고, 동년 12월 7일에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4823호)으로, 지방청장 직급을 격상시켰다. 그 대상으로는 5개 지방청(인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이었으며, 5개 지방청의 차장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부산, 경기지방청 차장 2인을 1인으로 조정하였다.

1996년 8월 8일에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를 개정(대통령령 제15136)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경찰청의 해양수산부로의 이관에 따른 직제개정으로서, 해양경찰청과 하부조직을 이관(내무부 경찰청 해양수산부)하였으며, 관할구역조정으로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을 내무부 경찰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하였다.

사무분장조정을 위해서는 경찰청의「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폐지(직제 제3조)하고, 경찰청 경비국「해양경찰청의 업무중 해상경비, 해난구조 및 해양오염 방지의 지도, 감독」을 폐지(직제 제14조 제3항 제9호)하고, 해양경찰관서관련 조문을 삭제(직제 제6장 제45조 내지 제55조) 하였다.

1998년 2월 28일에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5716호)으로 기구개편을 단행하였다.

경찰청에서는 국 단위인 교통지도국과 경비국을 경비교통국으로 통합하고, 교통심의관을 신설하였으며, 형사 및 보안심의관을 폐지하고, 정보심의관을 기획정보심의관으로 명칭을 조정하였다. 과 단위에서는 통신기획담

당과 통신관리담당을 통신담당관으로 통합하고, 경비2과와 항공과를 경비2과로 통합하였다.

경기지방경찰청의 경우는 지방청 차장을 폐지하고, 제1, 2, 3부장(경무관)을 신설하였으며, 각부별 업무분장을 실시하였다. 제1부는 경무과, 전산통신과, 교통과, 경비과로 구분하였으며, 제2부는 방범과, 수사과, 형사과로, 제3부는 정보과, 보안과로 구분하였다.

기타지방청에서는 지방청 전산통신과(총경)를 전산통신담당관(경정)으로 조정(부산, 대구, 인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하였으나, 서울, 경기, 제주지방청은 현행「課」체제를 유지하게 하였다.

1998년 8월 1일에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를 개정(대통령령 제15856호)하였는데 주요내용은 기구개편이었다.

지방청에서는 계(係)를 통합 또는 신설하였다. 통합은 강력계와 감식계를 강력계(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제주도)로, 경비계와 경호계를 경비계(대구,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로 하였으며, 또한 지하철수사대 출장소의 운영업무를 경찰서로 이관(대구)하였다. 계를 신설한 곳은 보안수사대 5개대(강원동해, 충남서산, 전북정읍, 전남광양, 경남통영)를, 면허계 2(경기, 강원), 안전계(경기), 관제계(전남), 형기대(충북) 등이다.

경찰서의 과 통합 및 조정은 · 분당경찰서 형사과 등 25개 경찰서의 과 통합과 · 고양경찰서 등 3개 경찰서의 교통과 신설, 그리고 · 장비계와 경리계를 경리계로(40개서) 통합하는 등 65개 경찰서 일부 계를 통합하였다. 또한 통폐합은 총 233개(전국 3,422개의 6.8%)이었고, 신설은 30개소였다.

1999년 5월 24일에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6342호)에 있어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시행 규칙을 개정(행정자치부령 제52호)하였는데, 기구개편으로 경찰청은 경무국과 기획관리관을 경무기획국(1국 감축)으로, 형사국을 수사국으로, 전산통신관리관을 정보통신관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지방청은 서울청의 형사부를 수사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직급조정은 부산, 대구 등 9개청의 감사담당관 경정을 총경으로 조정하였다.

경찰서에서는 과를 통합하였다. 경비와 교통과를 경비교통과(53개서)로, 수사와 형사과를 수사과(29개서)로, 정보와 보안과를 정보보안과(60개서)로 통합하였다. 또한 계장직제를 폐지하였다. 총 3,666계장직 중 1,866계장직을 감축 또는 폐지하였고, 폐지되는 계장은 직원과 같은 업무 담당자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경찰서마다 국민의 소리를 직접 경청,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문관제를 도입하였다. 1등급 경찰서에서는 청문관(경정 · 경감), 부청문관(경위 1명)을 두고, 2등급 경찰서에서는 청문관(경감), 부청문관(경위 · 경사 1명)을, 3등급 경찰서에서는 청문관(경위)만 두도록 하였다.

새로운 관서의 신설로서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이 개청되었다.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은 1차장 3담당관 6과 204명의 인력으로 출발하였으며, 개청일자는 1999년 7월 2일 이었다.

경찰서 신설은 부산 사상(1999. 7. 2), 경남 창원서부(1999. 7. 15) 경찰서가 개서되었고, 각 서별로 140명씩, 6개과 체제로 운영되었다.

동년 12월 28에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6620호)의 시행규칙개정 (행정자치부령 제77호)으로 운전면허 시험관리단이 신설(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되었고, 전국 26개 면허시험장을 책임운영 기관화 하여 청장 직속의 운전면허 시험 관리단이 신설되었다.

2000년 5월 24일에는 파출소가 통폐합되었다. 총 3,229개 파출소에서 2,912개(감축 317개 : 폐지 100, 초소 56, 분소 161)로, 지방청별로 폐지된 개소는 서울61, 부산32, 대구14, 인천2, 경기도8, 강원도22, 충청북도24, 충청남도22, 전라북도23, 전라남도47, 경상북도23, 경상남도33, 제주도6 등이다. 동년 9월 29일에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 개정 (대통령령 제16975호)에 의거 기구가 신설되었다. 신설된 기구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협력운영팀, 신고경보팀, 수사대, 기법개발팀)과 제주 해안경비단이다.(2개 대대, 8개 중대, 153명)

그리고 경찰서 등급조정으로서 경기 용인 · 화성 경찰서를 2급지에서 1급지로 조정하였다. 동년 12월 30일에는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4692호)에 의거 외통부 외사분야 주재관 정원(경정 · 경감)을 1인 증원하고, 경찰청 정원 중 경감 1인을 감축하였다.

2001년 3월 27일에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7168호)의 직제 시행 규칙개정 (행정자치부령 제128호)에 의거 인천경찰청에 인천국제공항경찰대를 신설(3과 138명)하였고, 서울경찰청의 김포국제공항경찰대를 개정하여 김포공항경찰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동년 12월 27일에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 (대통령령 제17436호)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시행 규칙개정(행정자치부령 제152호)에 의거 기구를 신설하였다. 신설된 기구는 경비교통국을 경비국과 교통관리관으로 개편하였으며, 울산청에 울산서부 경찰서를 신설하였고, 울산 서부 경찰서는 1청문감사관, 6과로 편성하였다. 또한 전북청 경비교통과에 서해안 고속도로순찰대(12지구대)를 신설하였다.

기타 지방청의 "감사담당관"을 "청문감사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경기 광주경찰서를 2급지에서 1급지로 등급을 조정하였다.

2002년 1월 21일에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7521호)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시행 규칙개정(행정자치부령 제161호)에 의거 파출소 3교대 인력증원 등을 위한 직제 개정을 시행하였다. 이는 파출소 3교대 정착을 위해 경찰서 인력 320명을 증원하였으며, 인천, 강원도, 충청북도, 제주경찰청에 여성청소년계를 신설하고,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 종합교통정보센터를 신설하면서 인원을 9명 증원하였다. 그리고 서울지하철수사대 6 · 7호선에 운영되고 있는 4개 출장소 운영 인력을 증원하였다.

동년 5년 24일에는 부산시경찰국 경무과 공보계 소속 "경찰악대"를 신설(40인조)하였다.

이상으로 미군정기로부터 현재의 경찰청 시대까지 경찰제도의 변천과정을 시기별로 주요 내용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2. 성남지역 경찰관서

1) 개요

성남시 경찰서는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수정구 신흥3동 3775 번지에

있는 신흥3동 파출소(치안센터) 자리에 1966. 7. 1 광주경찰서 중부지서 성남출장소 신설을 시작으로 하여 치안을 유지하여오다가 현재 중부경찰서 자리로 이전하여 1971. 9. 4 성남경찰서로 개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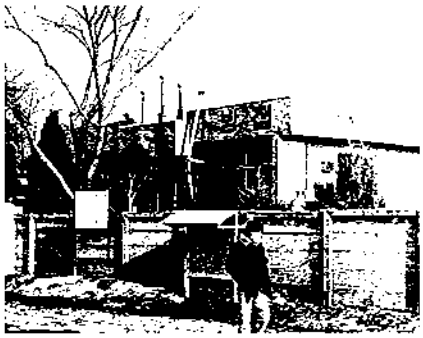
성남시는 광주대단지 개발 전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 낙생면 돌마면과 중부면 일부지역으로, 1960년대 중반 서울의 인구과잉 해결책으로 1969년 4월부터 광주대단지 개발 건설을 시작으로 하여 약 20여 만명이 입주하였다.

이후에도 많은 인구의 계속적 유입으로 인하여, 성남시 경찰서는 1969년 7월 1일 광주경찰서 중부지서 성남출장소에서 광주경찰서 성남지서로 승격되었으며, 계속적인 도시건설과 인구증가로 인하여 1971년 7월 14일에 성남경찰서(산하 8개 파출소)로 개서되었다. 1989년이후에는 분당신시가지 건설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한 치안수요가 급증하였다 신도시 등 인구 유입에 따라 현재는 성남 중부경찰서, 성남 남부경찰서, 분당경찰서가 분리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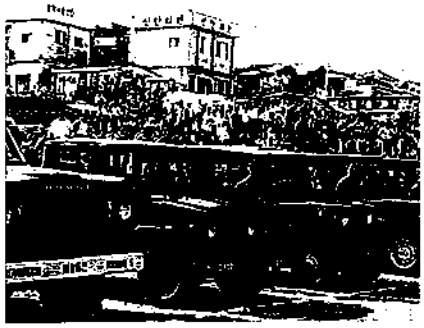
분당신시가지 건설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한 치안수요가 급증하였다 신도시 등 인구 유입에 따라 현재는 성남 중부경찰서, 성남 남부경찰서, 분당경찰서가 분리 설치되어 있다.

2) 성남시 지역경찰서 연혁

- ○ 1966. 7. 1 광주경찰서 중부지서 성남출장소 신설
- ○ 1969. 7. 1 광주경찰서 성남지서로 승격
- ○ 1971. 7. 14 광주경찰서 성남지서 산하 5개 임시파출소 신설
- ○ 1971. 9. 4 성남경찰서 개서(8개 파출소)
  (대지 1,946평, 건평 1,187평 3층)
- ○ 1989. 4. 27 분당 신도시 건설 발표
- ○ 1989. 11. 30 분당 신도시 기공
- ○ 1989. 12. 15 파출소 5개소 증설 (총 28개 파출소)
- ○ 1991. 9. 17 성남시 분당구청 개청
- ○ 1991. 9. 31 분당 주민 입주개시
- ○ 1991. 12. 2 성남남부경찰서 신설로 13개 파출소 이관(15개 파출소)
  (성남 남부경찰서 신설: 8개과 14개 파출소로 임시 개서)
- ○ 1992. 7. 29 성남 남부경찰서 청사 준공 및 이전
- ○ 1992. 1. 27 성남 분당경찰서 신설에 따라 6개 파출소 이관
- ○ 1993. 10. 18 분당 경찰서 청사 기공



<사진 3-9 : 8> 1960년대의 광주경찰서 돌마지서



<사진 3-9 : 9> 성남경찰서 차량정비정검(1971.9.14)

(대지 2,117평, 건평 2,115평, 본관과 별관 청사)

○ 1995. 1. 27 분당경찰서 청사 준공 및 개서
(성남 남부경찰서 관할 분할, 대통령령 제14512호)

○ 1995. 9. 22 성남 중부경찰서 개칭

○ 1998. 7. 1 파출소 통폐합 지시로 통폐합 운영

가) 성남 중부경찰서

통폐합으로 13개 파출소로 운영 (수정 신흥2, 태평2 태평3)

나) 성남 남부경찰서

8개과 10개 파출소에서 7개과 9개 파출소로 축소

다) 분당경찰서

○ 1999. 9. 1 성남 남부경찰서 7개과에서 6개과 1개실, 9개 파출소로 통폐합

○ 2003. 8. 1 지역경찰제시행

• 성남 중부경찰서

4개 지구대, 1개 특수파출소: 고등, 방범 순찰대, 705전경대(배속) 운용

• 성남 남부경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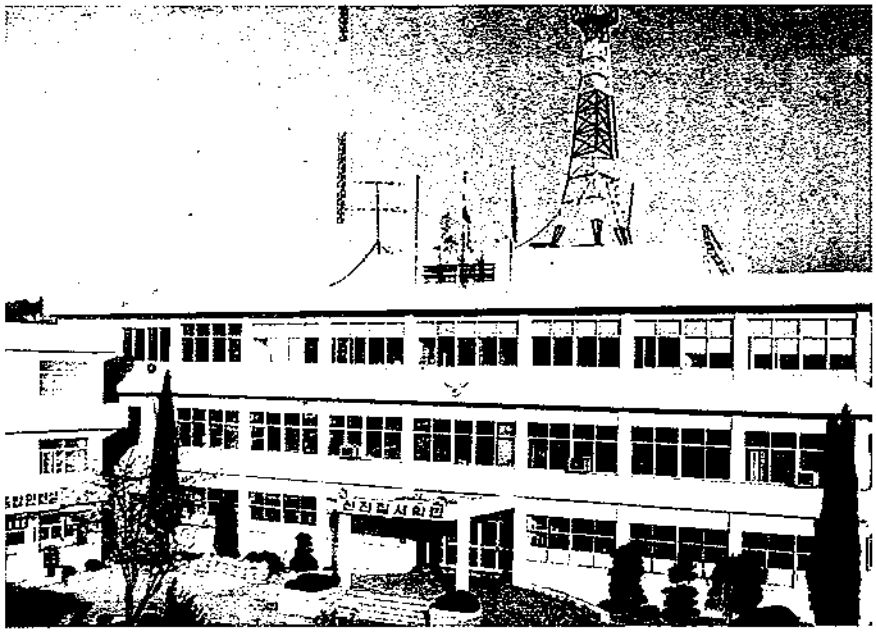
7개과에서 6개과 1개실, 3개 지구대: 6파출소로 통폐합, 방범순 찰대

• 분당경찰서

5개과 1개실, 3개 지구대 : 1특수파출소, 방범순찰대, 807전경대 배속

제 4절 성남시 경찰관서 현황

1. 성남 중부경찰서



<사진 3-9 : 10> 성남중부 경찰서

1) 연혁

- ○ 1966. 7. 1 광주경찰서 중부지서 성남출장소 신설
- ○ 1969. 7. 1 광주경찰서 성남지서로 승격
- ○ 1971. 1. 1 광주경찰서 성남지서 산하 5개 임시파출소 신설
- ○ 1971. 9. 4 성남경찰서 개서(8개 파출소)
  (대지 1,946평, 건평 1,187평 3층)
- ○ 1989. 12. 15 파출소 5개소 증설 (총 28개 파출소)
- ○ 1991. 12. 2 성남 남부경찰서 신설로 13개 파출소 이관
  (15개 파출소)
- ○ 1995. 9. 22 성남 중부경찰서 개칭
- ○ 1998. 7. 1 파출소 통폐합 지시로 13개 파출소 운영

(수정 신흥2, 태평2, 태평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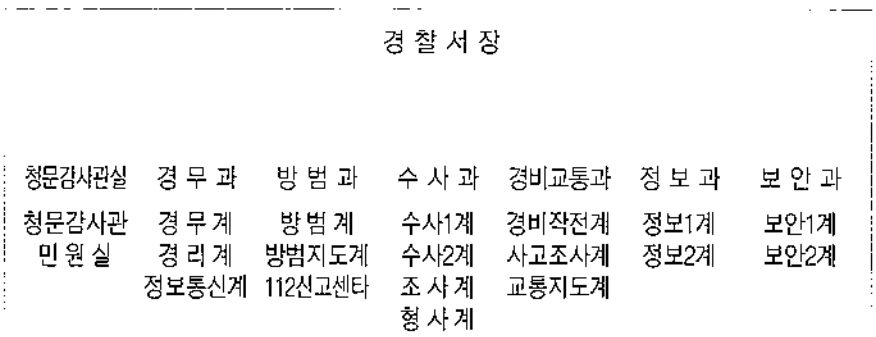
○ 2003. 8. 1 지역경찰제시행

(4개 지구대, 1개 특수파출소: 고등, 169방범 순찰대, 705전경대(배속) 운용)

* 성남 중부경찰서는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681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남시 수정구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2) 조직현황

(1) 조직도



(2) 인원현황(관서별 정원표)

(단위: 명)

구 분	계	경 찰 관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합 계	455	1	6	8	34	47	148	211	1	5	
경찰서	196	1	6	8	21	40	98	22	1	5	
지구대	259				13	7	50	189			

(3) 부서별 주요업무

구 분		주요업무
청문감사관실	청문감사관	○ 경찰관 직무감찰 ○ 시민인권침해 예방, 감시
	민원실	○ 고소, 고발 등 민원서류 접수처리 ○ 민원상담 등 안내

구 분		주요업무
경무과	경무계	○ 경찰서 시설관리 및 직원인사
	경리계	○ 행사주관 등 총무역할 ○ 급여지급, 물품구매
	정보통신계	○ 유무선 및 정보통신장비 관리
방범과	방범계	○ 파출소 지도감독 ○ 유흥업소 불법단속
	방범지도계	○ 공기총 등 총포인허가, 즉결심판
	112신고센타	○ 112신고 접수 및 처리
수사과	수사1계	○ 수사서류관리 및 유치장 관리
	수사2계	○ 공무원 등 지능범죄수사 ○ 고소, 고발사건조사
	조사계	○ 파출소에서 발생한 사건 추가조사
	형사계	○ 강력사건, 조직폭력, 학원폭력 등 수사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 집단민원대비, 전의경관리
	사고조사계	○ 교통사고 발생시 조사, 교통위반사범 단속,
	교통지도계	○ 스티커 처리, 무인속도측정기 단속업무
정보과	정보1, 2계	○ 치안정보수집 및 분석 ○ 집회신고 접수처리
보안과	보안1, 2계	○ 대공관련 업무 처리

3) 역대 성남 중부경찰서장

구 분	성 명	재임기간	구 분	성 명	재임기간
제1대 총경	김용채	(1971.9.8~1973.6.27)	제2대 총경	김진학	(1973.6.27~1975.6.28)
제3대 총경	오수영	(1975.6.28~1977.8.13)	제4대 총경	최호석	(1977.8.13~1980.1.28)
제5대 총경	정상모	(1980.1.28~1980.7.22)	제6대 총경	노복영	(1980.7.22~1981.4.13)
제7대 총경	한남식	(1981.4.13~1982.12.27)	제8대 총경	옥봉환	(1982.12.27~1985.3.4)
제9대 총경	정동수	(1985.3.4~1987.1.15)	제10대 총경	이의호	(1987.1.15~1988.6.3)
제11대 총경	최영균	(1988.6.4~1989.4.24)	제12대 총경	안경근	(1989.4.24~1991.1.3)
제13대 총경	김선호	(1991.1.3~1992.7.29)	제14대 총경	박성보	(1992.7.29~1993.11.8)
제15대 총경	황학연	(1993.11.8~1995.1.25)	제16대 총경	박윤성	(1995.1.25~1995.12.25)
제17대 총경	강성찬	(1995.12.21~1997.1.11)	제18대 총경	이교민	(1997.1.11~1998.3.25)
제19대 총경	윤시영	(1998.3.25~1999.2.9)	제20대 총경	이훈필	(1999.2.9~2000.1.4)
제21대 총경	이형점	(2000.1.4~2001.1.11)	제22대 총경	박용성	(2001.1.14~2002.1.14)
제23대 총경	김남철	(2002.1.14~2003.4.8)	제24대 총경	심상인	(2003.4.8~현재)

4) 지구대 현황

(1) 동부지구대

• 위치 :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95-9번지
• 관할(구 단대, 양지, 산성파출소): 단대동, 양지동, 산성동

(2) 서부지구대

• 위치 :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797번지
• 관할(구 수진1, 수진2, 신흥1파출소): 수진1동, 수진2동, 신흥1동

(3) 남부지구대

• 위치 :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3775번지
• 관할(구 신흥2, 신흥3, 태평4 파출소): 신흥2동, 신흥3동, 태평4동, 태평2동 일부

(4) 북부지구대

• 위치 :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498-2번지
• 관할(구 복정, 태평1, 태평3파출소): 복정동, 태평1동, 태평3동, 태평2동 일부

(5) 특수파출소

• 위치 :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191-1번지
• 관할(구 고등파출소): 고등동, 시흥동, 사송동, 상적동, 금토동, 신촌동, 오야동, 둔전동

5) 주요 역점사업

가용경찰 병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가시적 방범활동이 되도록 주민과 함께 하는 협력 방범활동 강화,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이의 신청에 대해 청문관실을 통해 신속한 해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1학교 1담당 경찰관 지정), 유치원, 초등학교 등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깨끗한 경찰, 따뜻한 경찰, 든든한 경찰로서 편안한 사회를 가꾸는데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6) 주요 현황

(1)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2003년 11월 30일 기준)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00	3,388	2,688	5	6	53	48	57	53	1,171	627	2,102	1,954
2001	3,368	2,769	4	5	37	36	47	33	1,055	642	2,225	2,053
2002	2,654	2,142	7	8	24	33	37	33	769	361	1,817	1,707
2004	3,242	2,718	5	5	18	11	33	26	595	331	1,454	1,358

(2) 교통사고 발생현황

(2003년 12월 15일 기준)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발 생	1,714	1,753	1,595	1,429	1,381
사 망	22	37	21	12	12
부 상	1,597	1,591	1,405	1,574	1,245

2. 성남 남부경찰서

1) 연혁

○ 1991. 12. 2 8개과 14개 파출소로 임시개서

○ 1992. 7. 29 성남 남부경찰서 청사준공 및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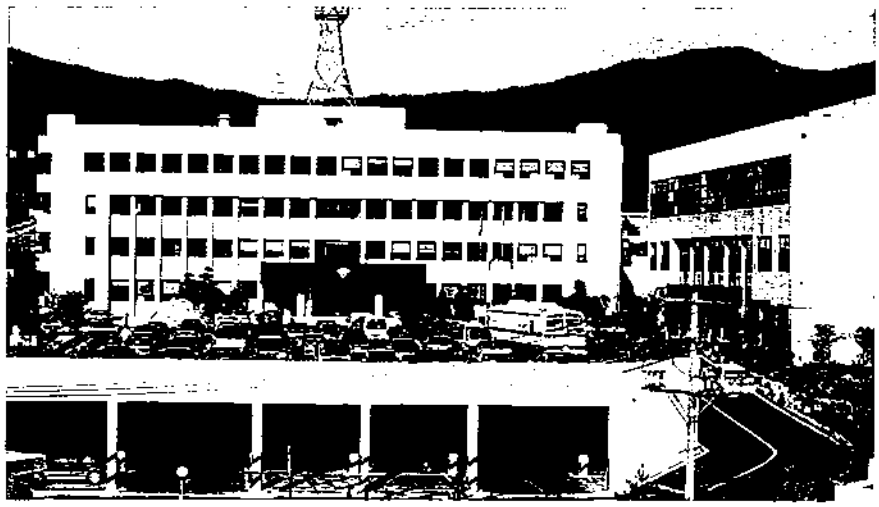
○ 1995. 1. 27 분당경찰서 신설에 따라 6개 파출소 이관

○ 1998. 7. 1 8개과 10개 파출소에서 7개과 9개파출소로 축소

○ 1999. 9. 1 7개과에서 6개과 1개실, 9개파출소 통폐합

○ 2003. 8. 1 7개과에서 6개과 1개실, 3개 지구대, 6파출소 통폐합

* 성남 남부경찰서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269-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성남동, 상대원동, 중동, 은행동 등 10개 동을 관할하고 있다.



〈사진 3-9 : 11〉
성남 남부경찰서

2) 조직현황

(1) 조직도

경찰서장

청문감사관실	경무과	방범과	수사과	형사과	경비교통과	정보보안과
청문감사관	경무계	방범계	수사1계	형사관리계	경비작전계	정보1계
민원실	경리계	방범지도계	수사2계	형사계	사고조사계	정보2계
	정보통신계	여성청소년계	조사계		교통지도계	보안1계
						보안2계

(2) 부서별 주요업무

구 분		주요업무
청문감사관실	청문감사관	○ 경찰관 직무감찰 ○ 시민인권침해 예방, 감시
	민원실	○ 고소, 고발 등 민원서류 접수처리 ○ 민원상담 등 안내
경무과	경무계	○ 경찰서 시설관리 및 직원인사
	경리계	○ 행사주관 등 총무역할 ○ 급여지급, 물품구매
	정보통신계	○ 유무선 및 정보통신장비 관리
방범과	방범계	○ 파출소 지도감독 ○ 유흥업소 불법단속
	방범지도계	○ 공기총 등 총포인허가, 즉결심판
수사과	112신고센타	○ 112신고 접수 및 처리
	수사1, 2계	○ 수사서류관리 및 유치장 관리
	조사계	○ 공무원 등 지능범죄수사 ○ 고소, 고발사건조사
형사과	형사관리계	○ 파출소에서 발생한 사건 추가조사
	형사계	○ 강력사건, 조직폭력, 학원폭력 등 수사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 집단민원대비, 전의경관리
	사고조사계	○ 교통사고 발생시 조사, 교통위반사범 단속,
	교통지도계	○ 스티커 처리, 무인속도측정기 단속업무
정보보안과	정보1, 2계	○ 치안정보수집 및 분석 ○ 집회신고 접수처리
	보안1, 2계	○ 대공관련 업무 처리

3) 역대 성남 남부경찰서장

구 분	성 명	재임기간	구 분	성 명	재임기간
제1대 총경	황일규	(1991. 12.2~1992. 7.28)	제2대 총경	금익모	(1992. 7.29~1993. 11.7)
제3대 총경	오세찬	(1993. 11.8~1994. 11.3)	제4대 총경	상병욱	(1994.11.4~1995. 12.20)
제5대 총경	유청길	(1995. 12.21~1997. 1.10)	제6대 총경	안영무	(1997. 1.11~1998. 3.23)
제7대 총경	박선규	(1998. 3.24~1999. 2.10)	제8대 총경	조석현	(1999. 2.11~2000. 1.3)
제9대 총경	김용식	(2000. 1.4~2000. 7.4)	제10대 총경	배건수	(2000. 7.5~2001. 7.1)
제11대 총경	박종환	(2001. 7.2~2002. 1.16)	제12대 총경	권영섭	(2002. 1.17~2003. 4.7)
제13대 총경	전광정	(2003. 4.8~현재)			

4) 지구대 현황

(1) 중부지구대

- 위치 :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37번지
- 관할(구 상대원2, 상대원3, 대원파출소): 상대원1, 2, 3동, 도촌동, 갈현동

(2) 서부지구대

- 위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4-9번지
- 관할(구 하대원, 성호, 중동파출소): 성남동, 중동, 하대원동, 여수동

(3) 동부지구대

- 위치 :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1944번지
- 관할(구 금광1, 금광2, 은행파출소): 중원구 금광1, 2동, 은행1, 2동

(4) 주요 역점사업

유치원생 경찰서 견학, 어린이 교통교실 운영, 국민을 부모님과 스승과 같이 받들어 모시는 '민 · 부 · 사' 일체 운동 전개, 파출소 주변 '치안시범마을' 조성, 유흥가 특별관리 등을 통해 각종 사고 및 범죄예방은 물론 신뢰받는 경찰상 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3. 분당경찰서

1)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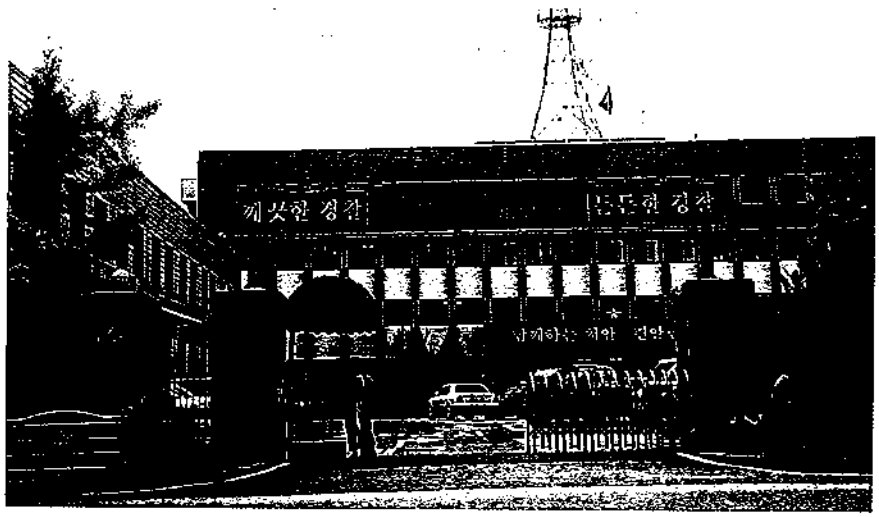
○ 1989. 4. 27 분당 신도시 건설 발표
○ 1989. 11. 30 분당 신도시 기공
○ 1991. 9. 17 성남시 분당구청 개청

○ 1991. 9. 31 분당 주민 입주개시

○ 1993. 10. 18 분당경찰서 청사 기공
(대지 2,117평, 건평 2,115평의 본관과 별관)

○ 1995. 1. 27 분당경찰서 청사 준공 및 개서(남부서 관할에서 분할)
(대통령령 제14512호)

* 분당경찰서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당구 야탑동, 이매동, 서현동, 정자동, 수내동, 분당동, 금곡동, 구미동, 판교동 등을 관할하고 있다.



<사진 3-9: 12> 성남 분당경찰서

2) 조직현황

(1) 조직도

경찰서장

청문감사관실	경무과	방범과	수사과	경비교통과	정보과
청문감사관 민원실	경무계 경리계 정보통신계	방범계 방범지도계 여성청소년계 112신고센타	수사1계 수사2계 조사계 형사계	경비작전계 사고조사계 교통지도계 상황실	정보계 보안계

(2) 관서별 정원표

(단위: 명)

구 분	계	경찰관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합 계	366	1	5	8	25	47	109	171		7	
경찰서	170	1	5	8	15	42	74	25		7	
지구대	196				10	5	35	146			

(3) 부서별 주요업무

구 분		주요업무
청문감사관실	감찰계	○ 경찰관 직무감찰 ○ 시민인권침해 예방, 감시 ○ 홈페이지 운용
	민원실	○ 고소, 고발 등 민원서류 접수처리 ○ 민원상담 등 안내
경무과	경무계	○ 경찰서 시설관리 및 직원인사
	경리계	○ 행사주관 등 총무역할
	정보통신계	○ 직원급여지급, 물품구매 ○ 유무선 및 정보통신장비 관리
방범과	방범계	○ 파출소 지도감독 ○ 유흥업소 불법단속
	방범지도계	○ 공기총 등 총포인허가, 즉결심판
	청소년계	○ 청소년 사건수사 ○ 미아, 가출인 신고처리
	112신고센타	○ 여성상담 전용전화 ○ 112신고 접수 및 처리
수사과	수사1계	○ 수사서류관리 및 유치장 관리
	수사2계	○ 공무원 등 지능범죄수사 ○ 고소, 고발사건조사
	조사계	○ 파출소에서 발생한 사건 추가조사
	형사계	○ 강력사건, 조직폭력, 학원폭력 등 수사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 집단민원대비, 전의경관리
	사고조사계	○ 교통사고 발생시 조사, 교통위반사범 단속,
	교통지도계	○ 스티커 처리, 무인속도측정기 단속업무
정보과	상황실	○ 야간경찰서 업무 총괄
	정보계	○ 치안정보수집 및 분석 ○ 집회신고 접수처리
	보안계	○ 대공관련 업무 처리

3) 역대 분당경찰서장

구 분	성 명	재임기간	구 분	성 명	재임기간
초대 총경	김기영	(1995. 1.27~1995. 12.20)	제2대 총경	강대형	(1995.12.21~1997. 1.10)
제3대 총경	김충남	(1997. 1.11~1997. 2.18)	제4대 총경	홍승상	(1997. 2.19~1998. 7.1)
제5대 총경	김종명	(1998. 7.2~1998. 8.27)	제6대 총경	임무성	(1998. 8.28~2000. 1.4)
제7대 총경	안명선	(2000. 1.5~2001. 1.10)	제8대 총경	전광정	(2001. 1.11~2002. 1.13)
제9대 총경	이철규	(2002. 1.14~2003. 3.31)	제10대 총경	윤종옥	(2003. 4.1~현재)

4) 지구대 현황

(1) 북부지구대

- 위치 : 분당구 야탑동 505번지
- 관할 : 야탑동 일대, 이매1, 2동

(2) 중부지구대

- 위치 : 분당구 서현1동 89-5번지
- 관할 : 서현1동, 서현2동, 분당동, 수내1, 2동, 정자1동

(3) 남부지구대

- 위치 : 분당구 금곡동 174번지
- 관할 : 금곡동, 구미동, 정자2, 3동, 수내3동, 구미동

(4) 판교 특수파출소

- 위치 : 분당구 판교동 263번지
- 관할 : 판교동, 운중동, 금곡동, 정자동

5) 주요 역점사업

시민과 함께 하는 경찰상 및 시민에게 봉사하는 경찰로서 자신의 이익보다 시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경찰이 되도록 돕기 위하여 시민불편 및 부조리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범죄 분위기 제압 및 즉응태세 유지 등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24시간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 보호 등을 설치하고, 어린이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고예방인 교통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분당경찰서는 분당의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범죄예방활동으로 신뢰받는 경찰상 정립에 노력하고 있다.

6) 주요 현황

(1)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2003년 11월 30일 현재)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00	2,206	1,721	1	1	34	48	40	42	850	476	1,281	1,154
2001	2,102	1,581	1	0	29	24	42	37	801	396	1,229	1,124
2002	1,983	1,724	8	7	18	17	31	32	657	465	1,269	1,203
2003	2,206	1,610	2	2	17	18	22	25	1,014	544	1,151	1,021

(2) 교통사고 발생현황

(2003년 11월 30일 현재)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발 생	1,610	2,085	1,865	1,866	1,866	1,898
사 망	21	30	25	16	18	11
부 상	1,516	1,813	1,724	1,850	1,674	1,776

1. 자율방범연합회

자율방범연합회는 주소지 각 동별로 자발적으로 조직된 방범활동 조직으로서,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안전과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해 조직된 자경단체이다. 이들은 때로는 경찰과 유기적 협조체제 하에 경찰과 합동순찰은 물론 청소년 선도 및 홍보활동 등으로 사고예방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자율방범 활동을 위해 동 별로 방범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연합회는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성남시로부터 일부 지방비를 보조받고 있기도 하다.



순수 민간 방범조직인 자율방범 연합회는 취약시간대에 지역 내에서 방범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순수 민간 방범조직인 자율방범 연합회는 취약시간대에 지역 내에서 방범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하절기에는 자율방범 순찰을 21:00~02:00시까지 실시하고, 동절기에는 20:00~01:00시까지 지역 내에서 자율방범 활동을 실시한다.

2. 어머니 자율방범대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연합회와 활동이 대동소이하나, 아파트 부녀봉사단으로부터 시작하여 자경조직으로 자율방범대가 조직된 예가 많다. 경찰의 한 지구대내에 통상 100-200명의 인원이 조직되어 있다.

특히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자녀보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등하교길 청소년 선도 및 안전활동에 주력한다. 청소년 선도를 위해 하절기에는 20:00~22:00시까지 자율방범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3. 청소년 지도위원회

이외에도 각 경찰서마다 통상 30여명 정도의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설치

되어 있다. 이들은 평소 관내 거주하면서 청소년 선도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서, 일정금액의 회비도 자율적으로 모금하여 년1-2회 정도 불우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청소년 지도위원회는 경찰과 협조하여 유흥가 및 윤락가의 미성년자 고용이나, 미성년자 출입 등 청소년들의 비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주로 한다. 자체적으로 원례회를 갖는 등 활발한 사회활동과 함께 년1-2회 정도 경찰과 합동으로 행사를 주관 또는 지원한다.



청소년 지도위원회는 경찰과 협조하여 유흥가 및 윤락가의 미성년자 고용이나, 미성년자 출입 등 청소년들의 비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주로 한다.

불우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각 학교로 사전 협조요청을 하여 학교에서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방범연합회를 비롯한 자율적인 방범활동 및 청소년 지원 단체들은 민·관 협조를 통해 유대강화는 물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성남시로 가꾸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 집필 尹奎植 북방문제연구소 연구이사



제3장 소방

1. 상고 및 삼국시대

인류는 구석기 시대부터 불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인류에게 있어서 불의 사용은 곧 문명의 발달을 의미하는 것이다. 거처를 따뜻하게 하여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고, 짐승의 접근을 막아 신변을 보호하고 음식을 익혀서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불과 관련된 관심사가 불로 인한 재앙보다는 불을 보관하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삼국시대는 국가가 형성되고 현재와 같이 체계적인 사회구조가 갖추어진 시대로 도시와 성곽이 발달하게 되었다. 도성 내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행정, 군사, 사회적인 각종 시설이 밀집하여 들어서게 되었다. 각종 관청건물, 곡물창고 등이 건축되고 인가를 연접하여 짓게 되면서 인구는 늘어나고 생활은 보다 윤택해졌으나 반대급부로 화재라는 재앙이 발생하게 되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도 주택이 한꺼번에 백 여채씩이나 소실되는 화재가 있었다고 나온다.



각종 관청건물, 곡물창고 등이 건축되고 인가를 연접하여 짓게 되면서 인구는 늘어나고 생활은 보다 윤택해졌으나 반대급부로 화재라는 재앙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는 체계적인 소방제도가 구비되지 않았고 소방장비도 이렇다할 만한 것이 없었다. 화재가 나면 주로 주민들이 합심하여 원시적인 방법으로 진화하는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군대가 각 지역에 배치되면서부터는 군사조직이 화재 진압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2. 고려 및 조선시대

삼국시대와 비교할 때 고려시대가 화재의 양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가장 큰 특징은 대형화재가 많아 이에 대하여 왕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였다는 것이다.

고려 문종 20년(文宗, 1066년)에는 개경의 곡물창고인 운흥창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수많은 곡식이 불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창고에는 방화관리를 전담하도록 하는 금화원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 나라 최초의 행정적인 차원에서 소방에 접근한 시초라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화재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늘어나자 화재를 낸 사람에 대하여 엄중히 문책하여 관리자는 파면하고 민간인도 곤장 등 실형에 처하였다.



이를 계기로 창고에는 방화관리를 전담하도록 하는 금화원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 나라 최초의 행정적인 차원에서 소방에 접근한 시초라는데 의의가 있다.

고려시대의 대형화재 사례로는 1021년에 개성 인수문 밖 2천여호가 전소되었고, 1245년에는 강도(현 강화)에서 민가 8백여호가 소실, 80여명이 사망하기도 하였으며, 1276년에는 감전동 민가 1천여호 전소되기도 하였다.

조선 세종 8년 (1426년) 2월 15일에 한성부 남쪽 인순부에서 대화재가 발생하여 경시서 북쪽 행랑 106문과 중부의 인가 1,630호 등 총 2,170호가 소실되고 32명이 소사한 것을 계기로 하여 이조의 건의에 따라 2월 26일에 우리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소방 업무를 전담하는 병조의 상설기구인 "금화도감"이 설치되었다. 그 해 6월에는 "성내도감"과 병합하여 "수성금화도감"이라 개칭하고 성곽의 수리와 화재, 도로와 교량 보수 등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세조 6년인 1460년 5월에 "수성금화도감"의 기능을 한성부로 이관하면서 상설 소방기구는 설치 된지 34년만에 폐지되었다.



이조의 건의에 따라 2월 26일에 우리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소방 업무를 전담하는 병조의 상설기구인 "금화도감"이 설치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화재에 대비한 시설과 기구를 만들었는데 저수조나 방화담 등의 시설과 도끼, 쇠갈구리, 불채, 물양동이, 불덮개 등의 소화기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의 대형화재 사례로는 1426년에 한성부 대화재로 1,966간이 전소되고, 사망자가 32명이나 발생하였고, 1665년에는 남한산성 대화재로 15,000여호가 전소되었으며, 1804년에는 평양부 대화재로 민가 5천여호, 공공건물 107개소가 소실되었다.

3.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에 들어오면서 소방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근대적인 의미의 소방행정체제가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오면서 소방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근대적인 의미의 소방행정체제가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때의 중앙소방행정은 1910년에 설치된 경무총독부의 보안과 소방계에서 담당하다가 1939년부터 방공업무와 통합하여 방호과에서 담당토록 하였으며 지방은 각도의 경찰부 방호과에서 담당하였다.

또한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상비소방수가 1910년 한일합방 이전부터 있었으며 1915년 6월 23일에는 소방조 규칙을 제정하여 상비소방수를 명문화하고 1925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서인 경성소방서(현 서울 종로소방서)가 설치되었다. 이후 1945년 해방이 되기까지 우리나라에는 8개의 관설소방서(경성, 부산, 평양, 청진, 용산, 인천, 함흥, 성동소방서)가 설치되었다.

4. 미 군정기

1945년 해방과 동시에 그 해 9월 조선총독부를 인수한 아놀드 미군정청 장관은 정부기능의 확대 개편에 따라 1946년 4월 10일 중앙에는 중앙소방위원회, 도에는 도소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방을 경찰로부터 독립시켜 자치소방체제로 전환하였다. 이의 집행기관으로 소방청을 설치하고 50여개의 소방서를 설치하였다.

5. 정부수립 이후

1) 국가소방체제(경찰행정체제 : 1948 ~ 1970)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그 해 9월 중앙소방위원회는 내무부 치안국에 그리고 각도의 소방청은 지방경찰국에 두는 등 소방조직은 경찰행정체제에 흡수되었다. 이후 치안국 내의 소방과는 소방계로 격하되기

도 하였으나 1961년 소방과가 다시 설치되고 1962년 12월에는 내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방행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지방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방경찰국의 보안과 소방계에서 업무를 담당하였다.

2) 과도기(1971 ~ 1974)

정부수립 이후 소방행정은 경찰행정의 일부로 다루어졌으나 실제 운영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협조체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1970년 8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1972년 6월에 서울과 부산에 소방본부를 설치하였고, 기타 도의 경우는 경찰국 소방과에서 관장하는 2원적인 체제가 되었으며, 1973년 2월 지방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 지방직은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국가직은 경찰공무원으로 하여 신분체제도 이원화되는 과도기적 시기였다.

3) 국가 및 자치소방 2원 행정체제(1975 ~ 1991)

197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인도차이나반도의 공산화 등 국가방위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내무부에 민방위본부가 발족되고 치안본부 소방과를 개편하여 민방위본부 내에 소방국이 설치되었다. 또한 1975년 8월 전국 각 시도에 민방위국을 설치하고 시 · 군에는 민방위과를 설치하여 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를 담당토록 하고 시 · 군의 소방서는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으로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체제는 당해 소방관서가 설치된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해 형식적으로 지방과 국가의 2원적 행정체제를 유지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치소방체제가 실시된 시기였다.

4) 광역소방행정체제(1992 ~ 현재)

우리나라 소방환경의 특성상 기초체제의 소방보다는 광역소방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92년 1월 국가소방과 자치소방으로 이원화 된 소방

제도를 광역자치소방체제로 일원화하고, 소방사무의 책임을 시 · 군에서 시 · 도로 전환하여 시 · 도에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으로서의 소방기관을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직속기관으로 설치하였다.

또한 1995년 1월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전국 소방관서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학교장 제외)을 지방직화 하는 등 본격적인 광역자치소방행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제2절 성남시 소방의 변천

1. 조직 및 기구 설치

1) 성남시 소방서 연혁

연 월 일	내 용
1974. 12. 30	성남소방서 설치승인 (대통령령 제7456호)
1975. 04. 01	성남소방서 개서 (신흥동 192-2)
1976. 01. 24	신흥 · 상대원파출소 설치승인 (도 규칙 제884호)
1976. 01. 30	신흥파출소 개소 (신흥동 192-2)
1976. 06. 19	상대원파출소 개소 (상대원동 517-14)
1979. 10. 22	본서 청사신축 이전 (수진동 4417-22번지)
	중부파출소 개소 (도 규칙 제 1149호, 수진2동 4417-22)
1982. 04. 30	시군소방서 직제 개정 광주읍 · 오포면 편입 (대통령령 제10809호)
1982. 05. 26	광주 임시파출소(파견소) 설치
1985. 10. 14	판교파출소 개소 (판교동 319-2 · 도 규칙 제 1698호 1985. 9. 14 승인)
	광주군 동부읍 · 서부면 편입 (대통령령 제1179호)
1985. 12. 05	동부 임시파출소(파견소) 설치(덕풍리 466-8)
1986. 12. 24	판교파출소 청사 이전 (판교동 178-1)
1987. 08. 12	은행파출소 개소 (단대동 4678-1 · 도 규칙 제 1843호)
1987. 08. 11	광주파출소 개소 (송정리 93-12 · 도 규칙 제1843호)

연 월 일	내 용
1987. 08. 11	동부파출소 개소 (도 규칙 제 1843호)
1987. 11. 09	이천군중 이천읍 편입 · 이천파출소 설치승인 (대통령령 제12272호)
1987. 12. 04	이천파출소 개소 (이천읍 창전리 267-6 · 도 규칙 제1848호)
1989. 01. 10	여주군중 여주읍 편입 · 여주파출소 설치승인 (대통령령 제12608호)
1989. 01. 25	중부『수진』· 동부『하남』파출소 명칭변경 (도 규칙 제1944호)
1989. 01. 26	여주파출소 개소 (여주읍 삼리 258-2)
1991. 04. 23	분당 · 장호원파출소 설치승인 (대통령령 13358호 · 도 규칙 제2178호)
1991. 06. 03	분당파출소 개소 (서현동 353-45)
1991. 06. 05	장호원파출소 개소 (장호원읍 오남리 19)
1992. 01. 01	광역 소방체제로 전환
1992. 01. 06	이천군 부발읍, 대월면 및 여주군 가남면 관할구역 편입 (도 규칙 제2264호)
1992. 06. 29	119구조대 설치승인 (도 규칙 제 2311호)
1992. 08. 30	정자파출소 개소 (정자동 산 24 · 도 규칙 제2311호)
1993. 05. 20	야탑파출소 개소 (야탑동 203 · 도 규칙 제2407호)
1994. 03. 16	하남소방서 설치 및 정원 개정 (대통령령 제14192호)
1994. 06. 27	하남소방서 개서
1994. 07. 21	이매파출소 개소 (도 규칙 제2509호 1994. 7. 2 승인)
1995. 02. 21	구조구급과 설치 (도 규칙 제2563호 1994. 12. 31 승인)
1995. 05. 18	분당파출소『서현파출소』명칭변경 (도 규칙 2591호)
1995. 07. 01	진압대 설치 (도 훈령 제1115호)
1995. 11. 06	이천소방서 설치승인 (도 조례 제2605호)
1995. 11. 25	이천소방서 개서
1996. 09. 16	복정파출소 설치허가
1997. 07. 23	복정파출소 준공
1998. 05. 07	신흥파출소 청사 재건축 허가
1998. 09. 14	구조구급과 폐지 (도 규칙 제2775호)
1999. 01. 11	분당소방서 및 복정파출소 설치 승인(도 규칙 제2804호)
1999. 01. 29	분당소방서 개서 및 복정파출소(수정구 창곡동 437-1) 개소
1999. 04. 29	신흥파출소 청사 재건축 준공
2000. 01. 10	복정파출소에서 창곡파출소로 개칭

2) 관할면적 변천

성남소방서 관할은 2001년 현재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만을 관할하고

있으며 관할년적은 72.36㎢이다. 경기도소방서 조직규칙 중 개정규칙 제2178호로 1991년 5월 1일 공포함에 따라 성남시 전체는 물론 광주군중 광주읍, 오포면 일원, 하남시 일원, 이천군중 이천읍 일원, 장호원읍 일원, 여주군중 여주읍 일원을 성남소방서에서 관할하여 2개시 · 3개읍 1개면 총 480.37㎢를 관할하였다. 이후 1992년도에는 경기도 소방서 조직규칙 중 개정규칙 제2328호로 1992년 9월 9일 공포함에 따라 이천군중 부발읍 · 대월면 일원, 여주군중 가남면 일원을 추가하여 총 646.8㎢를 관할하였다.

1995년에는 하남소방서 승인이 경기도 소방서 조직규칙 중 개정규칙 제2575호로 1995년 3월 14일공포함에 따라 하남시 일원 · 광주군 일원이 분리되어 454.04㎢ 관할하였다.

이천소방서 승인이 경기도소방서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제2650호로 1995년 11월 6일 공포함에 따라 이천군 · 여주군이 분리되어 142.00㎢ 관할하였다.

1999년도에는 분당소방서 승인이 경기도 소방서 조직규칙 중 개정규칙 제2804호로 1999년 1월 11일 공포함에 따라 성남시중 분당구가 분리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1) 하남 · 광주 지역 관할 변천

성남소방서 개서 시기에는 성남시만을 관할하였다. 이후 시군소방서 직제개정에 따라 1982년부터 광주읍 · 오포면이 편입 광주읍은 상대원파출소에서, 오포면은 판교파출소에서 관할하였고, 1985년에는 동부읍 · 서부면 편입으로 중부(현재 수진)파출소에서 관할하였다.

그후 1987년 8월 11일 광주파출소 및 동부파출소가 개소되었으며 조직이 확대되면서 1994년 6월 27일 하남소방서가 개서되면서 관할이 분리되었다.

(2) 이천 · 여주 · 장호원 지역 관할 변천

1987년 11월 9일 이천읍 편입, 1989년 1월 10일 여주읍 편입, 1991년 4월 23일 장호원 편입, 1992년 1월 6일 부발읍 · 대월면 · 여주군 가남면

이 편입되면서 조직 및 관할이 확대되었다. 이후 1995년 11월 25일 이천소방서가 개서되면서 관할이 분리되었다.

(3) 분당 지역 관할 변천

성남시에 분당 신시가지가 건설되면서 도시확장에 발맞춰 소방조직이 차례로 확대되었다.

1991년 6월 3일 분당파출소 개소, 1992년 8월 30일 정자파출소 개소, 1993년 5월 20일 야탑파출소 개소, 1994년 7월 21일 이매파출소 개소로 기존의 판교파출소와 함께 총6개 파출소가 설치되었다. 1999년 2월 11일 분당소방서가 개서되면서 분당구 관할이 분리되었다.

제3절 성남시 소방서 현황

1. 성남소방서



〈사진 3-9 : 13〉 성남 소방서

1) 조직현황

(1) 조직도

소방서장

소방행정과	방 호 과	
소방행정담당	방호담당	구조구급담당
장비담당	예방담당	화재조사담당
정보통신과	진압담당 (갑, 을부)	

(2) 기본현황

• 인력

(단위: 명)

구분	계	경찰관									
		소계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직	대
정원	131	130	1	2	6	9	22	41	49	190	1
인원	129	128	1	2	6	8	31	41	39	1	180

* 의무소방원: 15명 * 공익근무요원: 8명

• 장비 및 용수시설

– 장비

· 소방차량: 34대(굴절 1, 고가 1, 구조 2, 구급 6, 펌프 10, 지휘 1등)

– 소방대상물

· 특수장소(3698개소)

· 방화관리대상: 1565개소(1급 18, 2급 1550)

· 일반대상: 2310개소

· 위험물 제조소 등: 382개소

(3) 각 과별 업무분장

• 소방행정과

– 소방행정팀

소방행정과 소방행정팀에서는 조직관리 및 기획 · 인사관리 · 복무관리에 관련된 업무가 주 업무라 할 수 있으며 기타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서내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서내 인사에 관한 사항,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 신분에 관한 사항, 복무에 관한 사항, 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교육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소방력 조사 및 기준책정에 관한 사항, 근무평정 및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 장비관리팀

소방행정과 장비관리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차량 등 장비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며 기타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봉급 및 급여에 관한 사항, 제세공과금 지출에 관한 사항, 도급경비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세입세출외 현금과 유가증권에 관한 사항, 국공유재산관리 및 영선관련 사항, 물품구입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소방차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차량 정수에 관한 사항, 운전요원 교육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사진 3-9 : 14> 고층빌딩 화재진압 장비

• 방호과

– 방호팀

방호팀의 주된 업무는 화재진압 및 위험물취급 관련 인 · 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들 수 있으며 기타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화재특별경계근무, 소방훈련, 소방용수시설운영, 사범업무처리, 경방조사 및 관리카드 관리, 의용소방대 관리,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위험물제조소 등 허가, 방호과 비밀문서 관리운영 등이 있다.



<사진 3-9 : 15> 화재진압 훈련 장비

– 예방팀

예방팀의 주된 업무는 화재예방 및 소방홍보와 건축동의

등 민원 관련 업무를 들 수 있으며 기타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 소방시설공사업 · 감리업 · 설계업 · 점검업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 시공신고 및 완공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 구조구급팀

구조구급팀 주요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구조구급 재난업무 기본계획 수립, 구조구급장비 보강, 특수재해 긴급구조구급 지원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대원 안전관리, 의료기관과의 협정, 자료교환, 지원체제 유지, 수난구조대책의 수립 및 추진, 구조구급장비의 관리 및 구조구급 활동실적의 관리, 구급대원 및 차량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진압팀 주요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화재조사 및 발생보고, 화재발생증명원 발급, 화재발생원인분석, 상황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권역별 광역출동 체제운영 등이 있다.

– 진압팀

진압팀 주요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화재조사 및 발생보고, 화재발생증명원 발급, 화재발생 원인분석, 상황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권역별 광역출동 체제운영 등이 있다.

– 화재조사팀

화재조사팀은 화재원인 조사, 분석 등 화재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화재발생 원인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화재발생 종합보고서 작성에 관한사항, 화재피해 복구안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화재통계의 분석 및 자료수집, 화재 현장보존 및 증거품 수집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2) 역대 성남소방서장

대	성 명	재 임 기 간
초대	김재흥	1975. 4. 1~1978. 8. 3
2대	신현수	1978. 8. 4~1980. 7. 15
3대	조성면	1980. 7. 16~1981. 6. 30
4대	이지연	1981. 7. 1~1981. 7. 14
5대	송주성	1981. 7. 15~1983. 8. 21
6대	황득린	1983. 8. 22~1987. 8. 27
7대	고재모	1984. 9. 28~1986. 12. 31
8대	김석준	1987. 1. 1~1989. 4. 11

대	성 명	재 임 기 간
9대	양승하	1998. 4. 12~1991. 5. 14
10대	김명현	1991. 5. 15~1993. 4. 5
11대	한기성	1993. 4. 6~1994. 10. 26
12대	나승환	1994. 10. 27~1995. 5. 26
13대	원민희	1995. 5. 27~1996. 9. 9
14대	문동주	1996. 9. 10~1998. 4. 17
15대	김명준	1998. 4. 18~ 2000. 9. 4
16대	정병재	2000. 9. 5~ 2002. 10. 10
17대	최종동	2002. 10. 11~ 현재

3) 파출소 현황

(1) 수진파출소

성남소방서의 직할파출소로서 수진동, 태평1.3동, 성남동 등 총 10개 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며 화재경계지구인 중앙시장을 비롯하여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8개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성남소방서의 주력부대로 고가사다리 및 굴절 사다리를 보유하고 있다

• 위치 :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417번지

(2) 신흥파출소

구 시가지의 중앙에 위치한 파출소로 신흥1.3동, 태평2 · 4동, 중동 등 총 5개 동을 관할구역으로 성남시청 앞 · 종합시장 · 성남지하상가 등 상가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이며,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5개소가 소재하고 있다.

• 위치 :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4515번지



〈사진 3-9 : 16〉 성남소방서 신흥동 파출소

(3) 상대원파출소

상대원 1,2,3동 하대원동, 여수동, 도촌동, 갈현동 총 7개 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성남산업단지가 위치하여 총 486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어 화재예

방 활동이 중요시되는 지역이며, 전체적으로 공업단지 · 주거지역 및 농촌으로 복합구성 되어 있으며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11개소가 소재하고 있다.

• 위치 :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7-18번지

(4) 은행파출소

은행1, 2동 금광1, 2동 양지동, 단대동 등 총 6개 동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4개소가 있으며 도립공원인 남한산성을 접하고 있고 동서울대학, 신구대학이 있으며 여타 지역보다 인구밀도가 높은 고지대 밀집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남의 동남쪽 방향을 관리하고 있다.

• 위치 :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64-3번지

(5) 창곡파출소

서울지계를 인접한 파출소로서 신흥2동, 창곡동, 복정동 등 총 8개 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며 성남 구시가지의 유일의 백화점인 한신코아를 포함 대형화재취 약대상이 3개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도농형태의 지역이 많으며 성남의 북동쪽부터 북서쪽을 담당하는 파출소이다.

• 위치 :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437-1번지

(6) 119 구조대



<사진 3-9 : 17> 119구조대의 사고차량 구조구난 모습

119구조대는 1992년 6월29일 119구조대 설치승인 (도규칙 제2311호)에 발대하여 성남시 수정구 내 16개동, 중원 구내 10개 동이며, 면적은 약 72㎢, 관할인구는 약 54만명이며 구조대원 1인당 약 59,095여명을 담당하고 있다. 보유차량으로는 구조공작차(경기98 나1047호, 98년식)와 구조무쏘(경기2 코5596호 95년식)를 보유 운행 중에 있다.

• 위치 :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417번지

4) 주요사고 현황

(1) 화재발생 현황

(2003년 11월 30일 현재)

구분 / 연도별	발생(계)	피해액(천원)	인명피해(명) 계	사망	부상
1994	453	1,314,476	20	6	14
1995	394	831,410	40	4	36
1996	387	1,277,351	44	16	28
1997	431	1,278,855	22	2	20
1998	453	883,649	38	10	28
1999	314	821,967	38	6	32
2000	259	447,700	41	10	31
2001	265	761,228	20	2	18
2002	265	905,892	39	7	32
2003	245	642,674	21	5	16

(2) 화재발생 원인별 현황

(2003년 11월 30일 현재)

구분	계	전기	담배	불장난	방화	불티	기타
1994	453	196	50	14	42	37	114
1995	394	131	46	27	33	11	146
1996	387	102	39	20	67	9	150
1997	431	127	54	27	53	10	160
1998	453	142	65	26	79	16	125
1999	314	126	38	19	34	8	89
2000	259	92	29	9	40	5	84
2001	265	76	38	8	40	4	99
2002	265	79	30	11	41	7	97
2003	245	66	27	6	51	4	91

(3) 구조 · 구급활동 현황

• 구조대 활동

(2003년 11월 30일 현재)

구 분	구조건수	구조인원
1998년	318	456
1999년	428	433
2000년	525	555
2001년	491	442
2002년	566	409
2003년	482	399

• 구급대 활동

(2003년 11월 30일 현재)

구 분	이송건수	이송환자수
1998년	10,833	10,899
1999년	8,205	8,264
2000년	8,316	8,414
2001년	8,870	9,114
2002년	9,736	9,996
2003년	9,217	9,462

2. 분당소방서

1) 조직현황

(1) 조직도

소방서장

소방행정과	방 호 과	
소방행정담당	방호담당	구조구급담당
장비담당	예방담당	화재조사담당
정보통신과	진압담당	
	(갑, 을부)	

(2) 기본현황

• 인력

* 의무소방원: 16명　　* 공익근무요원: 8명

• 장비 및 용수시설

– 장비

· 소방차량: 31대(화재진압 17, 구조구급 9, 행정 등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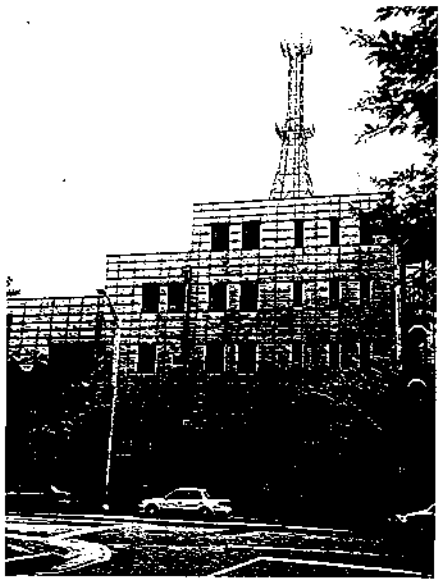
– 소방대상물

· 특수장소: 1,407개소

· 방화관리대상: 954개소(1급 98, 2급 856)

· 일반대상: 453개소

· 위험물 제조소 등: 129개소



<시진 3-9 : 18> 분당소방서

(단위: 명)

구분	계	소방공무원								기능직
		소계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정원	133	132	1	2	5	10	20	40	54	1
인원	133	132	1	2	5	10	32	45	37	1

(3) 각 과별 업무분장 : 성남소방서 각 과별 업무분장 참조

2) 역대 분당소방서장

구분	성 명	재 임 기 간
초대	박상열	1999. 1. 23~2001. 7. 8
2대	김명식	2001. 7. 9~2003. 6. 30
3대	문종희	2003. 7. 1~현재

3) 파출소 현황

(1) 서현파출소

분당소방서의 직할파출소로서 서현동, 분당동, 수내동 등 총 6개 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며 삼성프라자를 비롯하여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9개소가 소

재하고 있으며, 분당소방서의 주력부대로 고가사다리 및 굴절 사다리를 보유하고 있다

• 위치 :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8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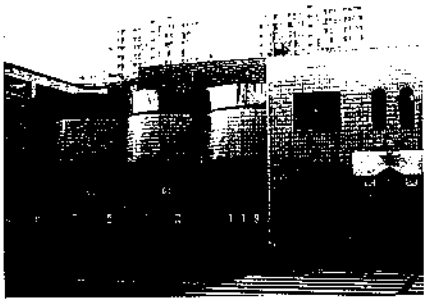


<사진 3-9 : 19> 분당소방서 판교파출소

(2) 판교파출소

궁내동 톨게이트 근처에 위치한 파출소로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등 총 9개 동을 관할구역으로 주거용 및 화훼용 비닐하우스가 밀집되어 있다.

• 위치 :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178-1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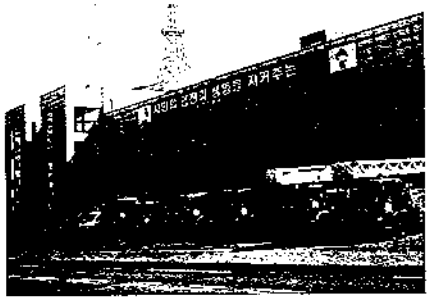


<사진 3-9 : 20> 분당소방서 수내파출소

(3) 수내파출소

정자동, 수내동 등 총 4개 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특히 파크뷰 주상복합 건축물을 비롯한 14개소가 밀집된 지역으로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진압이 중요시 되는 지역이며, 또한 대형 화재 취약대상이 2개소가 소재하고 있다.

• 위치 :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2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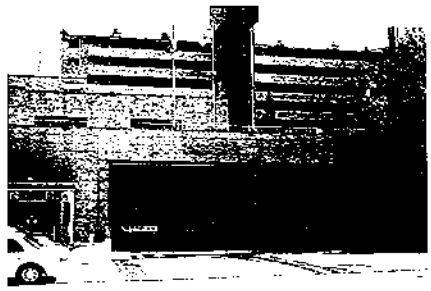


<사진 3-9 : 21> 분당소방서 이매파출소

(4) 야탑파출소

야탑1, 2, 3동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테크노파크(아파트형 공장 5개동), 테마폴리스(극장, 터미널, 까르푸 매장), 분당 차병원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9개소가 있으며 포천중문 의과대학이 위치하고 있다.

• 위치 :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03번지



<사진 3-9 : 22> 분당소방서 구미파출소

(5) 이매파출소

이매동, 매송동 총 2개 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며 1급 방화관리대상물 코오롱 스포렉스 관람집회 운동시설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

• 위치 :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08번지

(6) 구미파출소

구미동, 금곡동 2개 동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다. 코오롱 트리폴리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지역이 7개소가 있으며, 현재 모델하우스 11개소가 위치하고 있다.

• 위치 :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71번지

(7) 119 구조대

119구조대는 2000년 7월 24일 119구조대 설치승인 (도 규칙 제2906호)에 의해 발대하여, 성남시 분당구 내 26개 동이며, 면적은 약 69. 43㎢, 관할인구는 약 41만 3천명이며, 구조대원 1인당 약 45,895여명을 담당하고 있다. 보유차량으로는 구조공작차를 보유 운행 중에 있다.

• 위치 :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8번지

(8) 고속도로 구급대

고속도로 구급대는 고속도로 사고현장에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관할지역은 경부선 서초 IC로부터 신갈 IC, 서울 외곽순환도로 청계 IC로부터 성남 IC, 영동고속도로 신갈 IC로부터 동수원 IC까지 이다.

• 위치 :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196-10번지

4) 주요사고 현황

(1) 화재발생 현황

(2003년 12월 15일 기준)

구분 / 연도별	발생(계)	피해액(천원)	인명피해(명) 계	사망	부상
2000	161	347,700	10		10
2001	139	263,104	4	4	
2002	121	526,576	13	1	12
2003	138	406,719	10	2	8

(2) 화재발생 원인별 현황

(2003년 12월 15일 기준)

구분	계	전기	담배	불장난	방화	불티	기타
2000	161	43	19	11	10	7	71
2001	139	48	18	16	8	4	45
2002	121	45	13	10	4	8	41
2003	138	49	17	7	5	13	47

(3) 구조 · 구급활동 현황

• 구조대 활동

(2003년 12월 15일 기준)

구 분	구조건수	구조인원
2000년	460	555
2001년	493	545
2002년	537	331
2003년	477	303

• 구급대 활동

(2003년 12월 15일 기준)

구 분	이송건수	이송환자수
2000년	6,424	6,763
2001년	6,635	6,973
2002년	6,508	6,908
2003년	6,408	6,872

제4절 현재의 소방단체 현황

1. 의용소방대

민간 소방조직인 의용소방대는 해방 후에도 순수 봉사단체로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전후복구 사업이나 수방 및 화재진압 등 여러 분야에서 역할을 하였다.

1) 연혁

의용소방대의 연혁은 일제강점기에 소방조 제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간 소방 조직으로서 시작된→소방조→수방단→방호단→경방단→소방대

등으로 변천해 왔으며 이러한 민간 소방조직인 의용소방대는 해방 후에도 순수 봉사단체로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전후복구 사업이나 수방 및 화재진압 등 여러 분야에서 역할을 하였다.

의용소방대는 6 · 25 전후에 화재가 빈발해지자 1954년에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를 재조직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에는 별도의 설치규정 없이 종래의 예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이후 1958년에 제정된 소방법에 의용소방대 설치규정이 명문화되면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5호로 소방법이 제정되면서 동법 제4장 보칙 제40조-제46조에 의용소방대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 소방법 제40조(의용소방대의 설치)에 의하면 의용소방대원은 서울특별시와 시, 읍은 소방서장의 화재진압이나 수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을 두며, 대원은 소화업무만이 아니라 수방, 방공업무 등 중요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2) 조직



의용소방대원은 향토에서 각자 생업에 종사하면서 소화 또는 수방상 필요에 의하여 소집,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직무는 소화나 수방업무의 보조에 있고 방공법에서 정한 방공업무도 병행해서 수행하게 된다.

대원의 임용은 그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소방서장이 소화, 수방 또는 방공업무 수행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선발하는데, 대장과 부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해 도지사가, 그 외 대원은 소방서장이 임용하도록 하였으며, 지방공무원령 제14조를 준용하였다. 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는 총무부, 방호부, 구호부, 훈련부의 4부를 두었으며 필요시 부, 반 부서를 통합 축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총무부에서는 서무반, 경리반을 두어 기획, 인사, 경리 등의 사무를 분장하며, 방호부에서는 소방반, 감시반을 두고 각종 설비의 정비, 감사 등의 사무를 관장하였으며, 구호부에서는 대피반, 구호반을 두어 수화, 방독, 소독, 피해조사 등을 훈련부에는 훈련반, 교육반을 두고 지도연구계도 및 선전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대원의 정원은 소재지의 인구 3만까지는 60인, 3만을 넘어 5만까지는 90인, 5만을 넘을 때에는 매 1만마다 5인을 증가할 수가 있다.

2. 성남시 의용소방대 역사

1) 최초 의용소방대

성남시 의용소방대의 역사는 1973년 8월 23일 성남경찰서 보안과 예속으로 성남의용소방대가 창설되었다. 의용소방대는 당시 사회적 여건과 상황 등에 의거하여 수방 및 화재진압과 예방을 주로 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러나 행정공백 상태로 인해 소방서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었는데, 이러한 소방의 업무를 대신할 만한 민간조직이 바로 의용소방대이었던 것이다.

당시 성남시 민간인 조직 단체로는 의용소방대가 유일한 사회봉사단체로서 지역업무의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2) 의용소방대의 재조직(1974~1983)

1974년 12월 30일 성남소방서 산하 설치 승인에 의하여 1975년 4월 1일 성남소방서 의용소방대가 발대하여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게 되었다. 성남 의용소방대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성남소방서가 개서되면서 새로운 법적, 제도적 규정 아래 운영되게 되었다.

3) 의용(여성)소방대 조직현황

2003년 12월 현재의 의용소방대원 현황을 살펴보면 의용소방대 본대는 정원 120명(현원 90명) 지역대(6개대)는 정원 20명씩 120명(현원 117명)으로 조직 편성되어 있으며, 여성의용소방대는 정원 100명(현원 75명)으로 조직되어 지역 내에서의 활발한 활동으로 소방홍보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illegible]

구분	계		의용소방대				여성대	
			본대		지역대			
서별	대수	인원	대수	인원	대수	인원	대수	인원
현원	10	283	2	90	9	219	2	75
정원	10	340	2	120	9	239	2	100

※ 성남소방서와 분당소방서의 통합된 자료임.

☆ 집필 尹奎植 북방문제연구소 연구이사

참고문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2002).
『경기도교육감보궐선거총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2002).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제기획원(1975).『한국통계연감』.
구영록(2000).『한국과 햇볕정책: 기능주의와 남북한 관계』, 법문사.
국회사무처(1998).『국가보위입법회의자료집』, 국회사무처.
김병준(2000).『한국지방자치론: 지방정치?자치행정?자치경영』, 법문사.
김상준 외(1993).『한국의 정치: 쟁점과 과제』, 법문사.
김용욱(2002).『정치학』, 법문사.
김용호(2001).『한국정당정치의 이해』, 나남출판.
김운태 외(1982).『한국정치행정의 체계』, 박영사.
김운태(1985).『한국정치론』, 박영사.
김운태(1999).『한국정치론』, 박영사.
김종표(1995).『지방자치론』, 법문사.
김현우(2000).『한국정당통합운동사』, 을유문화사.
김현우(2002).『한국의회론』, 을유문화사.
김호진 외(1995).『한국현대정치사』, 법문사.
내무부(1995).『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선자 현황』, 내무부 선거업무자료 IX.
노찬백 외(2002).『한국정치의 이해』, 형설출판사.
대한지방행정협회(1966).『한국지방행정사』, 내무부.
민주공화당(1973).『민주공화당사』, 공화출판사.
민준기(2001).『21세기 한국의 정치』, 법문사.
박동서?김광웅(1988).『한국인의 민주정치의식』, 서울대학교 출판부.
박응(1989), "과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실태와 교훈(1)" 『지방행정』10월호.
박재창(1995).『한국의회행정론』, 법문사.
박종민 외(2000).『한국의 지방정치와 권력구조』, 나남출판.
성남시(1998).『21세기 성남시 장기발전계획』, 성남시청.
성남시(2002).『2002 성남통계연보』, 성남시.
성남시(2004), 비전성남 제103호, 성남시 공보담당관실.
성남시사편찬위원회(1993).『성남시사 20주년』, 성남시사편찬위원회.
성남시의회(1992-2002).『의정백서』,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2001).『성남시의회사』, 성남시의회.
손봉숙(1987).『한국지방자치연구』, 삼영사.
신명순(1993).『한국정치론』, 법문사.
안병만(2000).『한국정부론』(제4판), 다산출판사.
안청시 외(1992).『현대한국정치론』, 법문사.
안청시 · 진덕규(1994).『전환기의 한국민주주의』, 법문사.
안해균(1986).『한국정치체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안회수(1995).『한국정당정치론』, 나남출판.
육동일(1999). "지방자치 운영성과와 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11/4: 75-101.
윤정석 · 신명순 · 심지연.『한국정당정치론』, 법문사.
이규환(2000).『한국지방행정론: 이론과 실제』, 법문사.
이극찬(1999).『정치학』, 법문사.
이기우(1996).『지방자치이론』, 학현사.
이달곤(2004).『지방정부론』, 박영사.
이수윤(1998).『정치학개론』, 법문사.
이승종(2002). "한국지방자치의 평가: 제도의 집행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14/1: 5-22.
이승종(2003).『지방자치론』, 박영사.
이종수(2002).『지방정부이론: 이론화를 위한 비교본적 분석』, 박영사.
장병구(2000).『지방자치행정론』, 형설출판사.
정세욱(1988).『지방행정학』, 법문사.
정세욱(2000).『지방자치학』, 법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67).『역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70).『국민투표투표구별투표상황(1969.10.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72).『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당선자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73).『대한민국정당사』 제1집(1945-197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73-1980).『대한민국선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78).『제2대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당선자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0).『역대대통령선거상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1).『대한민국정당사』 제2집(1972-1980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1).『제11대 국회의원선거총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2).『국민투표투표구별투표상황(1980.10.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5).『제12대 국회의원선거총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8).『국민투표총람(1987.10.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8).『대한민국정당사』제3집(1982-198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8).『제13대 국회의원선거총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1).『시?도의회의원선거총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2).『대한민국정당사』제3집(1980-198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2).『제14대 국회의원선거총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5a).『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5b).『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6).『제15대 국회의원선거총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7).『제15대 대통령선거총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8a).『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8b).『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0).『제16대 국회의원선거총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2).『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3).『제16대 대통령선거총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병문(2001).『한국정치의 새로운 인식』, 박영사.
최창호(1990).『지방자치제도론』, 삼영사.
최창호(1995).『지방자치학』, 삼영사.
최한수(1996).『한국선거정치론』, 대왕사.
하혜수 · 최영출(2000).『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한국정치연구회(1990).『한국정치사』, 백산서당.
한국지방자치학회(1996).『한국지방자치론』, 삼영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1).『지방의회의원선거 분석을 위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8).『지방자치?행정 50년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배호(1994).『한국정치변동론』, 법문사.
한상진(1994). "지역사회의 권력구조와 지방정치: 성남시 사례를 중심으로."『산업사회의 재조명』,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울: 55-87.
한원택(2002).『지방행정론』, 법문사.
황아란(1998).『6.4지방선거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황아란 · 윤두섭(1995).『6.27 4대 지방선거 결과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황아란 · 윤두섭(1996).『지방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ckps.jinbo.net(한국정치연구회 홈페이지).
Henderson, Gregory(1968).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Richard G. Niemi and Herbert F. Weisberg(eds. 1984). Controversies in Voting and Behavior, Washington, D.C.: CQ Press.
www.assembly.go.kr(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www.cans21.net(성남시청 홈페이지).
www.cwd.go.kr(청와대 홈페이지).
www.eparty.or.kr(열린우리당 홈페이지).
www.ggbe.go.kr(경기도 교육위원회 홈페이지).
www.hannara.or.kr(한나라당 홈페이지).
www.jachi.co.kr(자치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www.jamin.or.kr(자유민주연합 홈페이지).
www.kalgs.or.kr(한국지방자치학회 홈페이지).
www.kcouncil.com(경기도의회 홈페이지).
www.kdlp.org(민주노동당 홈페이지).
www.kpsa.or.kr(한국정치학회 홈페이지).
www.kpsa.or.kr(한국정치학회 홈페이지).
www.laib.go.kr(지방행정정보은행 홈페이지).
www.lari.re.kr(사단법인 지방행정연구소 홈페이지).
www.minjoo.or.kr(새천년민주당 홈페이지).

www.mogaha.go.kr(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leg.go.kr(법제처 홈페이지).
www.nec.go.kr(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rilc.re.kr(지방의회발전연구원 홈페이지).
www.sncouncil.com(성남시의회 홈페이지).

'98都市計劃現況, 京畿道 1998
2003行政情報公開便覽, 城南市
各部署 實務者 提出資料
廣州郡誌(廣州郡, 1990)
내고장 城南, 성남시, 1993
盆唐區保健所,홈페이지
盆唐消防署, 홈페이지
城南都市計劃再整備, 1999.
城南都市基本計劃, 都市課, 1984
城南都市基本計劃2016(城南市1998)
城南發展研究, 제1권 城南發展研究所, 2001.2
城南發展研究, 제2권 城南發展研究所, 2002.2
城南發展研究, 제3권 城南發展研究所, 2003.2
城南비젼2006(성남시2003)
城南消防署 홈페이지
城南市史(城南市 1982)
城南市史(城南市, 1993)
城南市의 歷史와 文化遺蹟, 韓國土地公社 土地博物館,2001
城南市綜合地理情報시스템 最終完了報告書,2000.9
城南市地方行政機構變遷史(城南市地方行政同友會 2002)
城南市홈페이지
城南의제21總括研究報告書, 1999.
城南地域의 歷史 李定孝 民族文化社,1993
城南統計年報(各年度)
壽井區保健所,홈페이지
市民會館 施設臺帳
市政發展研究세미나(제1회), 1995.
영생관리사업소, 홈페이지
綜合運動場管理事業所 施設臺帳,
主要業務報告書(城南市, 各年度)
中原區保健所,홈페이지
地域開發論,박태식 윤태식 이종열 共著, 博英社 1995
韓國史(崔都泳, 法政學會 1984)
韓國行政史(張東熙,法文社 1988)
韓國行政制度史(鄭時采, 法文社,1986)
行政區域年鑑, 韓國都市行政研究所,1997
行政區域年鑑, 韓國都市行政研究所,2001

구병삭, 『한국고대법사』, 고려대학교출판부, 198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김병화, 『근대한국재판사』, 한국사법행정학회, 1974.
김운태, 『조선왕조행정사』, 박영사, 1984.
김철수, 『한국입헌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법서, 2003.
김철수, 『한국헌법』, 법원사, 2003.
『대한변호사사』, 대한변호사협회, 1979.
『민경연감』, 민경신문사, 1989.9
손동권, 『형법총칙론』, 율곡, 2001.
송두영, 『한국법제사고』, 건연문화사, 1988.
이상만, 『현대경찰행정학』, 형설출판사, 1989.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2003.
전봉덕, 『한국법제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68.
전봉덕, 『한국변협요람』, 1970.
정종섭, 『대한민국 헌법을 읽자』, 일빛, 2002.
정종섭, 『한국헌법사분석』, 박영사, 2002.
『치안논총』제4집,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1987.
『한국검찰사』, 대검찰청, 1978.
『한국경찰사』III, 내무부치안본부, 1985. 10.
『한국사법부개요』, 대법원, 1971.

城南市史

3 정치와 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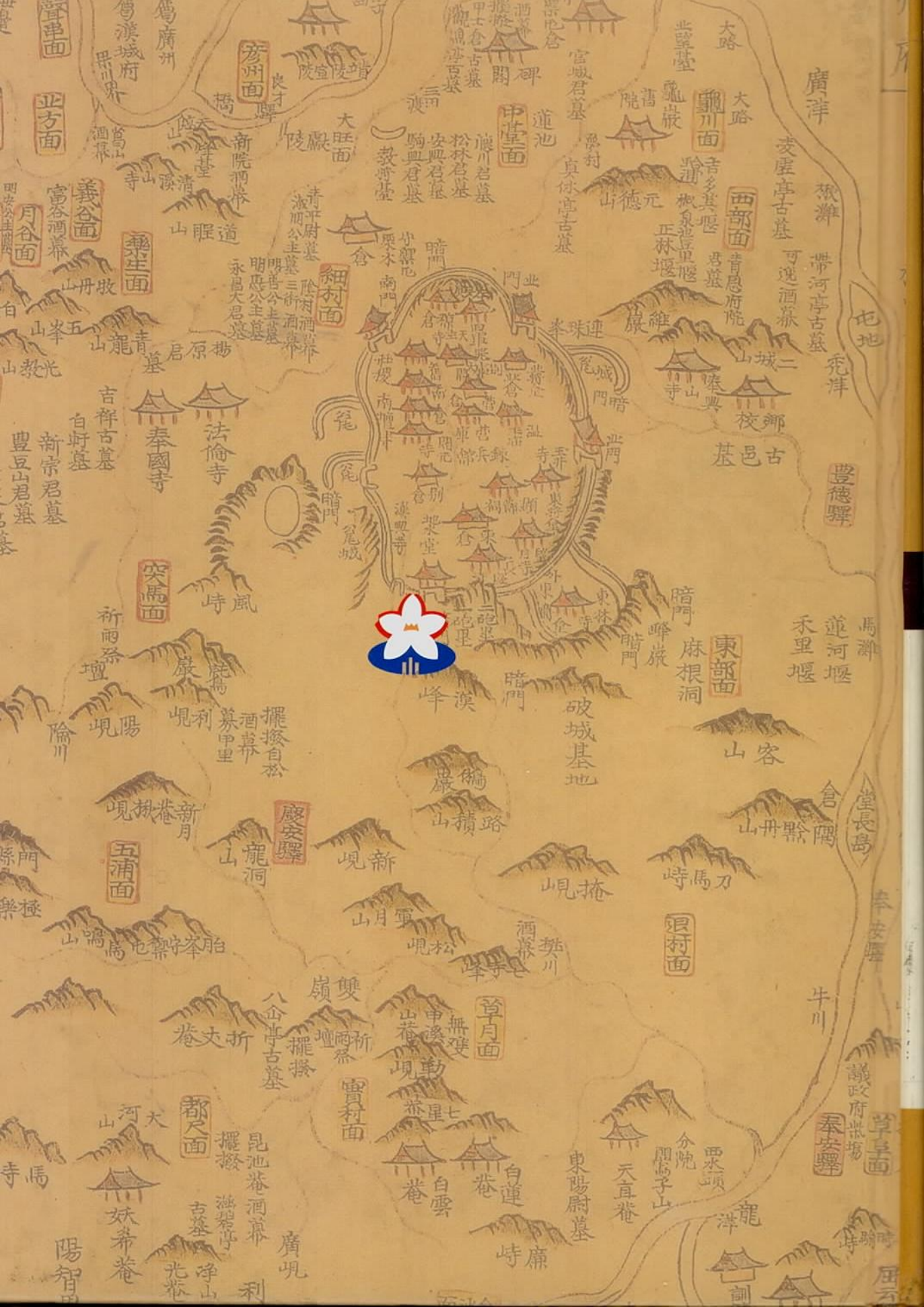
발행일
2004년12월 1일

발행처
성남시사편찬위원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번지
전화(031) 753-2802, 팩스 (031) 752-2801

디자인/편집/제작
도서출판 홍익기획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2가 7-2 저동빌딩 200호
전화(02) 2274-8110, 팩스 (02) 2271-0951
E-mail : hongeeg@kornet.net

ⓒ 성남시사편찬위원회 전 5권 set

* 이 책은 성남시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음.


廣洋
大路
龜川面
西部面
豐德驛
東部面
麻根洞
客山
破城基地
倉隅山
堂長島
奉安驛
草月面
實村面
都尼面
五浦面
慶安驛
突馬面
義谷面
月谷面
奉國寺
法倫寺
細村面
暗門
龍洞山
妖希巷
東陽尉墓
古邑基
二城寺
校鄉
維嶽
連珠峰
帶河亭古墓
可逸酒幕
青恩府院
正林堰
德元山
吉多寺
松林君墓
安興君墓
駒興君墓
敦寧墓
宮城君墓
真休亭古墓
凌虛亭古墓
大旺面
新院酒幕
清山寺
清平府墓
永昌大君墓
明善公主墓
青龍山
吉祥古墓
自軒墓
新宗君墓
豐豆山君墓
祈雨祭壇
擺撥自松
慕甲里
新月峴
新峴
龍洞山
雙嶺
八仙亭古墓
擺撥
祈雨祭壇
撫雙
申溪山莊
勤峴
七里
白雲巷
白蓮巷
昆池巷酒幕
擺撥
滋碧亭古墓
淨山
光嶽
廣峴
利
陽智
龍淵
訓
馬
寺
時
屈
奉安驛
牛川
乃馬時
山見掩
月軍峴
松
酒幕
峰寺
浪村面
栗頭
分峴
關嶺子山
天宜巷
席時
龍淵
訓
馬
寺
時
屈